

# 韓國戰爭

## (中)

國防軍史研究所



## 發 刊 辭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이 8·15 광복을 맞은 지 5년 후인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하여 3년 1개월간의 힘겨루기 끝에 1953년 7월 27일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휴전으로 접어들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과 소련을 정점으로 한 동서 양대 진영의 갈등구조였던 냉전(冷戰:Cold War)체제하에서 빚어졌으며, 당초에는 북한의 남침에 의한 남북한 간의 전쟁으로 시작되었으나 이념(理念)을 달리하던 양대세력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비록 전쟁은 한반도에 국한되었지만 모두 20개국의 전투부대가 참전하여 국제적 성격의 전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 민족은 오천년 역사를 통해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참혹한 전화(戰禍)를 입었으나, 그 결과는 38도선이 휴전선으로 바뀌었을 뿐 전쟁전 현상으로 회귀(回歸)하여 여전히 대치 형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방군사연구소의 전신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이 전쟁의 역사를 1967년부터 10여 년에 걸쳐 모두 11권의 전집으로 펴내었으며, 이는 국내외적으로 한국전쟁사 연구에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집은 발행부수가 제한된 데다 방대한 양이어서 보다 쉽게 접하고 읽을 수 있는 새 전쟁사의 편찬을 각계에서 요망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당 연구소는 이미 발행한 전쟁사에 기초하되, 그 후의 연구결과를 반영하고, 특히 최근에 전쟁 당사국들이 공개한 사료에

의거, 새 전쟁사를 전쟁발발 50주년까지 펴낼 목표하에 한국전쟁을 3권으로 구분하여 편찬중에 있습니다. 제1권은 전쟁의 배경을 비롯하여 전쟁발발로부터 중공군의 개입전까지, 제2권은 중공군의 참전으로부터 휴전회담 개시전까지, 제3권은 휴전회담 개막으로부터 휴전조인까지의 전쟁상황을 서술하게 됩니다.

한국전쟁사 3권 중 이번에 발간하는 제2권에는 중공의 참전배경을 규명하고 조명하는데 가장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당시 한만국경선으로 치닫던 국군과 유엔군이 중공의 침략으로 37도선(평택-삼척)까지 후퇴해야 하는 위기국면에 처하였으나, 이들을 저지하고 38도선을 재삼 확보하여 전선이 전쟁전 현상과 유사한 지역에서 교착될 때까지의 전개과정을 단계별로 체계화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두된 확전, 휴전, 유엔군의 철군방안 등 전쟁지도상의 제반 논의와 정책 및 전략결정, 이에 대한 정부의 조치들을 소상히 정리하였습니다. 그 밖에 중공의 참전이 민족사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면서 본권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전쟁사가 중공의 참전으로 인한 격동한 전국(戰局)과 국민의 자유수호의지, 정부의 전쟁지도, 그리고 국군의 용전분투상 등 전쟁의 실상을 바르게 인식하는데 기여하리라고 확신하며, 나아가 국가안보와 국방에 대한 값진 교훈을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1996년 12월 일

國防軍史研究所長 嚴 燮 駟



## 일 러 두 기

1. 이 책의 장·절·항·목은 다음과 같이 표기하였다.  
장: 제1장, 제2장, 제3장, ……  
절: 제1절, 제2절, 제3절, ……  
항: 1, 2, 3, ……  
목: (1), (2), (3), ……
2.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문장은 한글 위주로 평이하게 썼으며, 혼동할 우려가 있는 용어와 고유명사 등은 원어를 ( ) 안에 넣었다.
3. 한자로 표기하는 인명, 지명, 직위 등은 다음과 같이 표기하였다.  
(1) 인명, 지명 등은 각 장에 처음 나올 경우에만 ( ) 안에 원어를 넣었다.  
(2) 지명의 경우 저명한 지명은 한자표기를 생략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지명만을 ( ) 안에 한자로 표기하였다.  
(3) 외국 인명, 지명은 이를 한국 음으로 표기하고 ( ) 안에 원어를 넣었다.
4. 이 책의 본문에 인용된 원문을 번역함에 있어서는 원문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평이한 현대문으로 번역하여 독자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으며, 원문 제작 당시의 관용어나 제도어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5. 주기(註記)는 인용된 원문의 전거(典據)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어 각장 말미에 실었으며, 해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붙였다.

6. 연대(年代)는 모두 서기(西紀)로 표기하였다.
7. 이 책에 사용된 부호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 ( ) : 인명, 지명, 속어 등 해당 한자를 묶거나 해설, 보충한 경우의 표시.
  - “ ” : 완결된 인용문이나 대화체 문장의 표시.
  - ‘ ’ : 인용문이나 대화체 문장의 일부분을 간추린 표시.
  - 「 」 : 저술이나 서명(書名)을 표시
8. 이 책에서는 중공(軍)의 참전을 참전배경에서부터 휴전회담 개막 전까지의 내용을 망라하였다. 이에 따라 중공군 침략초기 작전상황의 일부가 이미 발간된 상권의 말미와 이 책의 서두가 중복 기술되었다.
9. 이 책의 부록으로 연표, 관계자료 목록을 책 말미에 실었다.

# 目 次

發 刊 辭

일러두기

## 제 1 장 中共의 韓國戰爭 參戰背景

제 1 절	‘6·25’ 南侵 戰爭計劃의 共謀	4
	1. 毛澤東·金一의 戰爭計劃 協議	4
	2. 毛澤東·스탈린의 모스크바 密約	7
	3. 毛澤東·金日成의 戰爭計劃 合意	12
제 2 절	參戰準備와 ‘東北邊防軍’의 編成	15
	1. 臺灣占領의 延期와 南部國境의 安保 強化	16
	2. 東北邊防軍의 編成과 參戰準備	21
	3. 外交的 策略: 北韓支援과 參戰名分 追求	28
	4. 朝·中·蘇 作戰協議 및 戰況判斷	36
제 3 절	朝·蘇의 支援要請과 派兵決定	42
	1. 스탈린의 中共軍 派兵 要請	42
	2. 金日成의 中共軍 支援 要請	49
	3. 毛澤東의 中共軍 派兵 決定	51
제 4 절	‘抗美援朝’ 中共軍의 編成과 出兵準備	66
	1. 東北邊防軍, ‘人民志願軍’으로 改編	66
	2. 中共軍(人民志願軍)의 出兵準備	69

제 5 절	中·蘇의 最後談判과 出兵 再確認	71
	1. 周恩來와 스탈린의 最後談判	71
	2. 毛澤東의 出兵決定 再確認	73
	3. 最終 障礙의 克服과 中共軍의 出兵	76

## 제 2 장 中共軍의 鴨綠江 渡河

제 1 절	雙方의 大戰略과 冒險	88
	1. 中共軍의 鴨綠江 渡河	88
	2. 中共軍의 戰略과 展開	92
	3. 유엔군의 誤判과 冒險	96
제 2 절	새로운 敵과의 衝突	99
	1. 유엔군의 秋收感謝節 攻勢	99
	2. 雲山の 昏迷	102
	3. 溫井里—熙川 突出部の 災殃	109
	4. 楚山 撤收作戰	114
	5. 淸川江 橋頭堡 作戰	118
제 3 절	東部戰線의 불안한 前進	127
	1. 國軍과 美軍의 戰線 調整	127
	2. 長津湖 進擊戰	129
	3. 惠山嶺 進擊戰	133
	4. 淸津 進擊戰	136
	5. 合水·白岩 進擊戰	139
제 4 절	後方地域 平定作戰	142
	1. 人民軍의 第 2 戰線 形成	142

2. 收復地域 平定作戰	144
3. 後方地域 共匪討伐作戰	150
제 5 절 占領地 政策	156
1. 政府의 收復政策	156
2. 유엔군의 民事軍政計劃	159
3. 軍政計劃과 관련된 葛藤	161
4. 北韓地域 軍政 實施	166

### 제 3 장 38度線으로 反轉

제 1 절 冬季 總攻勢 準備	173
1. 中共軍의 戰略과 攻勢 準備	173
2. 蘇聯 空軍의 展開	177
3. 유엔군의 最後攻勢 準備	179
4. 유엔군측 戰爭指導路線의 葛藤	184
제 2 절 凍土의 大決戰	187
1. 유엔군의 크리스마스 攻勢	187
2. 淸川江 橋頭堡 崩壞	190
3. 平壤-咸興으로 撤收 決定	208
4. 西部戰線의 大災殃	210
5. 東部戰線의 撤收作戰	227
제 3 절 38度線으로 反轉	238
1. 유엔군의 새로운 戰略 決定	238
2. 平壤 撤收作戰	240
3. 興南 撤收作戰	247
4. 38度線 確保	252

	5. 東部戰線の 不安 .....	260
	6. 美 第 8 軍司令官의 交替 .....	265
제 4 절	共產軍의 38度線 展開 .....	269
	1. 人民軍의 再建 .....	269
	2. 朝中 聯合作戰 .....	271
	3. 共產軍의 38度線 進出 .....	273
제 5 절	自由의 選擇과 鬭爭 .....	274
	1. 失鄉民의 越南 .....	274
	2. 反共遊擊隊의 鬭爭 .....	280

#### 제 4 장 1·4 後退

제 1 절	彼我의 戰爭指導 .....	287
	1. 共產軍의 勝利 擴大戰略 .....	287
	2. 유엔군의 逐次防禦戰略 .....	289
제 2 절	서울의 再失陷 .....	292
	1. 中共軍의 新正攻勢 .....	292
	2. 38度線 防禦 .....	295
	3. 서울 撤收 .....	308
	4. 平澤—三陟線으로 撤收 .....	318
	5. 中東部戰線の 危機 .....	321
제 3 절	政府의 總力戰 態勢 構築 .....	332
	1. 總力戰 意志 闡明 .....	332
	2. 國民防衛軍 設置 .....	334
	3. 大韓青年團의 武裝 試圖 .....	336

제 4 절	戰爭의 岐路	337
1.	새 戰略의 摸索	338
2.	撤軍과 擴戰 論爭	346
3.	政府의 移轉 檢討	351

## 제 5 장 유엔군의 再反擊

제 1 절	再反擊의 前哨戰	361
1.	유엔군의 再反擊 作戰方針	361
2.	威力搜索 作戰	366
3.	第 2 戰線部隊의 遮斷	370
제 2 절	再反擊 作戰	376
1.	漢江으로의 再進出	376
2.	洪川 包圍攻擊	387
3.	大關嶺 確保	394
제 3 절	中共軍의 2月 攻勢	397
1.	中共軍의 攻勢準備	397
2.	橫城의 大災殃	400
3.	平昌 附近의 混戰	403
4.	砥平里 孤立 防禦	406
제 4 절	再反擊 續開와 서울奪還作戰	413
1.	堤川地域 敵 擊滅作戰	413
2.	中部戰線 切斷作戰	423
3.	서울奪還作戰	433
4.	東部山岳 作戰	437
5.	臨津江 進出 作戰	446

	6. 襄陽 進擊 作戰 .....	452
제 5 절	38度線 確保 作戰 .....	455
	1. 유엔군의 軍事戰略 .....	455
	2. 共產軍의 戰力 增強 .....	459
	3. 캔사스선 進出 .....	461
	4. 鐵의 三角地帶 攻擊 .....	467
제 6 절	戰略島嶼 確保 作戰 .....	472
	1. 東海島嶼 上陸 .....	472
	2. 西海島嶼 上陸 .....	474
제 7 절	共匪討伐과 遊擊作戰 .....	475
	1. 共匪討伐作戰 .....	475
	2. 遊擊隊의 活動 .....	484

## 제 6 장 共產軍의 春季攻勢

제 1 절	中共軍의 4月 攻勢 .....	496
	1. 雙方의 戰略 .....	496
	2. 서울 北方의 決戰 .....	501
	3. 史倉里—加平 軸線의 危機 .....	520
	4. 昭陽江 附近 戰鬪 .....	526
	5. 서울 固守 防禦 作戰 .....	532
	6. 偵察基地 確保 作戰 .....	538
	7. 主補給路 確保 作戰 .....	541
제 2 절	中共軍의 5月 攻勢 .....	547
	1. 彼我的 狀況 .....	547
	2. 縣里地域의 突破 .....	550



3. 洪川 北方의 攻防戰 .....	566
4. 突破口 遮斷 作戰 .....	572
5. 龍門山 勝戰報 .....	579

## 제 7 장 戰線의 回歸와 膠着

제 1 절 雙方의 政策과 戰爭指導 .....	589
1. 유엔군의 政策과 戰略 .....	589
2. 共產軍의 企圖와 戰略 .....	594
제 2 절 戰爭前 現狀으로 回歸 .....	596
1. 彼我的 戰線 狀況 .....	596
2.  캔사스선으로 進出 .....	601
3. 와이오밍선 確保 .....	620
4. 新캔사스선으로 進出 .....	628
제 3 절 中共(軍)의 參戰 影響 .....	643
1. 中共軍의 參戰과 戰爭의 展開 .....	643
2. 參戰의 影響 .....	649

## 附 錄

1. 年 表 .....	657
2. 關係資料目錄 .....	665



## 제 1 장 中共의 韓國戰爭 參戰背景

중공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불법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약 4개월 후인 10월 중순에 항미원조(抗美援朝)를 표방하고 중공군을 은밀히 파병하여 전쟁에 개입하였다. 이때의 전황은 국군이 유엔군의 지원을 받아 감행한 역공으로 전선이 평양-함흥 선으로 반전(反轉)되어 김일성 정권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당초 북한 공산정권은 남한을 공산화할 목표로 중소(中蘇)의 지원하에 계획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상대적으로 우세한 전력을 확보한 데다 완벽한 기습의 효과를 달성하였다. 인민군은 남침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1개월여의 작전 끝에 낙동강선까지 진출함으로써 그 목표 성취를 목전에 둔 듯하였다. 반면 인민군의 기습공격을 받은 한국은 정부를 부산으로 옮기고 유엔군의 지원하에 국군이 지연작전을 펴는 동안 기습의 충격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호국정신으로 뭉쳐 낙동강선에서 사활을 건 총력전을 감행한 끝에 적의 공격을 저지하고 부산 교두보를 지켰다. 이와 동시에 '9·15 인천상륙'을 계기로 아군은 반격으로 이전하여 침략을 격퇴함과 아울러 9월 말까지 38도선에 도달함으로써 전쟁전 현상을 회복하였다.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한 아군은 침략을 응징하고 통일의 성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10월 1일 국군의 38도선 돌파에 이어 유엔군이 이에 가세함으로써 파죽지세로 진격하여 10월 19일에는 적도(赤都) 평양을 탈환하고 한만국경선(韓滿國境線)을 향하여 진격을 계속중이었다.

이 무렵 북한 인민군은 인천상륙과 반격에 대 전략적 포위를 당해 와해되어 38도선을 방어할 전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후퇴하였으며 평양마저 포기하고 평안북도와 함경남북도의 산악지대로 패주중이었

## 2 제 1 장 中共의 韓國戰爭 參戰背景

다. 이로써 김일성(金日成) 정권은 사실상 전쟁수행 능력을 상실한 국면에 처하게 되었지만 신의주, 강계로 전전(轉轉)하며 ‘만주의 성역’을 이용하여 부대를 재편성하면서 최후의 독전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서는 이미 저항능력의 한계를 지나 정권의 붕괴도 시간을 다투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때 이미 청천강-단천 선까지 진출한 아군은 10월 24일 한만국경선 확보를 목표로 총공세를 폈다. 이 작전에 앞서 아군측은 중공군의 개입을 우려해 왔으나 그들의 참전 징후를 포착하지 못함으로써, 이때는 이미 그 시기가 지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오판이었다. 이 엄청난 오판의 기초하에 공격을 개시한 아군은 바로 그 다음날 불의에 적의 대부대와 조우하여 공격이 둔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습적 역공세에 부딪혀 대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이 대부대가 중공군이었다. 중공군은 붕괴 직전의 김일성 공산정권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군이 평양을 점령할 무렵 은밀하게 압록강을 도하한 후 청천강 북쪽까지 진출하여 방어태세를 취하고 있다가 아군을 기습한 것이다.

한국전쟁에 있어 중공의 참전과 침략은 이렇게 시작되고 확인되었다. 중공군의 참전은 전쟁을 새로운 국면으로 바꾸어 놓고 말았다. 전세(戰勢)가 공세(攻勢)로부터 수세(守勢)로 전환되었다. 아군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지척에 두고 후퇴하여야 했다. 전국(戰局)이 북한 인민군 및 중공군과 국군 및 유엔군의 대결, 즉 공산군과 유엔군의 대결구도로 발전하였다. 이로써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후 날카로운 대립현상을 보여오던 동서 양 진영의 냉전구조(冷戰構造)와 결부되어 한반도에 국한되느냐 아니면 또다른 세계대전으로 확전이나의 기로에 처하게 되었다. 결국 중공의 참전으로 민족의 염원이던 통일의 실현 기회가 목전에서 사라졌으며 민족이 더 큰 전쟁의 재앙으로 깊이 빠지게 되는 운명을 맞게 되었던 것이다.(결과적으로 전장은 한반도에 국한되었지만 거의 다 끝난 전쟁이 중공의 참전에 의해 국제적 성격의 전쟁

으로 더욱 확대되어 이후 2년 9개월이나 더 계속되다가 휴전을 맞았다.)

중공군이 참전할 무렵 중공은 국공내전(國共內戰)에서 국민당을 대만(臺灣)으로 축출하고 공산정권을 수립(1949년 10월 1일)한 지 겨우 일년을 맞이하고 있을 때였다. 이들은 이동안 최우선 '혁명'과업으로 추진하던 '대만 수복(臺灣 收復)'도 이루지 못한 채 현안으로 안고 있었으며, 정치적으로 공산정권하에 국민의 통합을 이룩해야 하고 경제적으로 장기전쟁에 의해 피폐된 산업의 부흥을 이루어야 하는가 하면 군사적으로는 비대한 인민해방군(人民解放軍)의 대복원(大復員)을 단행하며 현대적 조직으로 정편(整編: 재편성)을 해야 하는 등 많은 난제를 안고 있었다.

이와 같이 '혁명'이 미완성 상태이고 도처에서 국민당 잔존세력의 도전을 받고 있는 정황에도 불구하고 모택동(毛澤東)은 국군이 북진을 단행하던 날인 10월 1일에 스탈린과 김일성으로부터 파병지원 요청을 받자 '순망치한(唇亡齒寒) 항미원조(抗美援朝) 보가위국(保家衛國)'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날 밤(10월 2일) 참전을 결정하였었다. 이에 따라 중공군은 국군이 평양을 점령하던 10월 19일을 전후해 은밀히 압록강을 도하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던 것이다.

그럼 중공의 참전 목적은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거쳐 참전 결정을 확정하고 파병하였는가? 중공군의 전략은 무엇이며 노출되지 않고 어떻게 압록강을 도하하였는가? 여기에 그 배경과 경위를 주로 소련과 중공측 자료에 근거하여 전쟁계획 단계부터 압록강 도하까지 체계적으로 서술하였다.

## 제 1 절 ‘6·25’ 南侵 戰爭計劃의 共謀

### 1. 毛澤東·金一의 戰爭計劃 協議

중공은 전쟁계획단계에서 소련 다음으로 북한의 남침 음모에 깊숙히 개입하고 전쟁개시 후 일본군이나 미군군이 한국을 지원할 경우 중공군을 파병하여 북한을 도울 것임을 사전에 약속함으로써 김일성의 전의(戰意)를 고무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공군내의 한인부대(韓人部隊)를 북한에 인도(引渡)하고 전쟁지도에 필요한 조언을 제공하는 등 북한의 전쟁준비에 결정적이며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다.

중공이 북한과 가진 남침전쟁계획과 관련한 공식 비밀협의를 전쟁 발발 1년 전인 1949년 4~5월에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이며 인민군 정치국장인 김일(金一)이 중공을 방문함으로써 이루어졌다.<sup>1)</sup> 당시 중공은 제2차 세계대전후 전개된 국공내전(國共內戰)에서 장개석(蔣介石)과 국민당군이 대만으로 축출되어 승리를 굳혔으나 아직 일부 지방에서는 저항세력에 대한 소탕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 회담은 이 보다 앞서 3월 5일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김일성·스탈린(金日成·Stalin) 회담에서 김일성이 제안한 무력침공에 의한 한반도 통일방안에 대해 선제공격(先制攻擊)방식이 아니라 ‘남한의 도발을 되받아치는 반격작전 형식을 빌려 남한을 공격한다.’는 ‘반공격(反攻擊)’ 남침전쟁계획에 대한 합의를 보고,<sup>2)</sup> ‘남침계획과 관련한 중공의 역할과 조중관계(朝中關係)는 모택동과 협의를 통해 확정짓기로 한다’는 결정에 따라 김일성이 김일을 북경(北京)으로 파견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었다.

김일은 만주(滿洲)의 심양(瀋陽)으로 건너가 먼저 동북군구(東北軍區)사령관 고강(高崗)을 만난 다음 북경을 방문하여 중공군 총사령관

주덕(朱德) 및 외상 주은래(周恩來) 그리고 주석 모택동과 연쇄회담을 가졌다. 김일은 북한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서한을 전달하고 이들과 스탈린-김일성의 모스크바 회담 내용, 북한의 무력통일 방안과 중공군 소속 한인부대의 북한으로의 인도문제(引渡問題) 등에 대한 협의를 하고 그 밖에 동아시아 문제와 관련한 광범한 의견교환을 하였다.

모택동은 모스크바 '김·스'회담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북한의 정세에 대한 자세한 문의를 한 다음, “조선에서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김일성도 이 점을 고려하여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이 전쟁은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오래 끌 수도 있다. 북조선을 위해서는 시간을 오래 끄는 전쟁은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지구전(持久戰)이 되면 일본이 끼어들어 남한 정부를 지원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모택동은 이어 “그러나 당신들 바로 곁에는 소련이 있고 우리들이 만주에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일본 군대가 한반도의 상황에 개입을 한다면 우리도 가능한 빨리 우리의 군대를 파견하여 일본군을 격퇴시킬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모택동은 당시로서는 국제정세가 전반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아니며 중국 공산당이 장개석군과 전투 중에 있어 평양을 도울 수 없으므로 김일성이 가까운 시일에 남한을 공격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고, 그들이 국민당을 패퇴시켜 중국을 완전 지배할 때까지 결정적 행동을 유보하도록 권고하였다. 모택동은 국제정세가 유리하게 전개될 시기를 1950년 초로 판단하고 이때 북한의 남침도 가능하며, 일본군이 한반도에 침공할 경우 중공도 빨리 정예부대를 파견하여 그들을 격퇴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그 밖에도 모택동은 남침 명분의 정당화 수단으로, 스탈린의 의도와 같이 남한의 도발에 반격을 가하는 형식을 빌려 남침할 것을 조언하는 등 전쟁계획과 관련한 여러 주제를 논의하였으며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한 우리의 행동은 오직 모스크바와 합의를 본 후에 시작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sup>3)</sup>

## 6 제 1 장 中共의 韓國戰爭 參戰背景

후일(1949년 9월 12일) 김일성도 평양주재 소련대사관의 툰킨(Tunkin) 공사와의 대담에서 “내전[남침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북은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현상황에서 속전속결에 의한 승리는 기대난망이므로 조선에서의 내전은 중국내전이 완전히 종식된 후라야 가능할 것”이라고 피력함으로써 모택동의 견해에 동감을 표하였다.<sup>4)</sup>

북한이 요청한 한인사단에 대하여, 모택동은 만주의 목단(牧丹)과 장춘(長春)지역에 배치된 2개 사단은 언제든지 북한으로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나머지 1개 사단은 중국 남부에서 국민당 군과 전투 중에 있으므로 빨라야 1개월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들 사단이 일제 장비로 무장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김일이 탄약지원 가능성을 타진하자 모택동은 중공이 탄약을 제작할 수 있으며 북한측이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 밖에도 모택동은 미안마, 인도차이나, 말레이시아로부터 동아시아 국가의 공산당 정보국 창설을 원하는 서한을 받았음을 알리며 북의 대표단이 모스크바에 머무는 동안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는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견해는 어떠한지 문의하고 지금에 있어서의 정보국 설립은 시기상조라고 하였다. 중공과 인도차이나가 전쟁 중이고 한반도의 상황이 몹시 긴박하며 또한 정보국 창설이 마치 군사동맹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회담의 결과는 모택동과 김일성에 의해 자국의 소련대사를 통해 스탈린에게 통보되었다. 김일성은 5월 14일 스티코프(Shtykov)에게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모택동은 5월 17일 코발로프(Kovalev)로 하여금 스탈린에게 알리도록 역시 상세히 통보하였다.<sup>5)</sup> 이로써 사실상 김일성·스탈린·모택동 삼자가 북한의 남침전쟁에 의한 한반도 통일과 공산화 방안에 합의를 본 것이다.

이처럼 중공은 김일과의 회담에서 남침전쟁과 관련한 양국간의 지원문제를 포함해 전략을 협의하였다. 특히 모택동이 이 전쟁에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이 일본군을 투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그



러한 상황의 도래시 중공군을 파병하여 일본군을 격퇴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후일 중공군의 실제 참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은 모스크바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조중(朝中)이 회담 결과를 모스크바로 보고를 한 사실은, 중공이 북한의 남침계획과 관련하여 북한뿐만 아니라 소련과도 긴밀히 협의하였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동시에 이 전쟁은 김일성이 제안은 하였지만 소련의 주도하에 삼국의 공모로 계획되고 있음도 보여주고 있다.

## 2. 毛澤東·스탈린의 모스크바 密約

모택동은 중공정권을 수립(1949년 10월 1일)한 후 그해 12월 16일에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약 2개월에 걸쳐 스탈린을 비롯한 소련 수뇌들과 '마라톤회담'을 가지고 세계 및 아시아 공산주의 세력의 확장 방안과 쌍방간의 현안문제를 협의하였다. 그 결과 공산주의 혁명의 주도적 역할 분담에 합의를 보고 이듬해인 1950년 2월 14일에는 중소우호동맹 상호원조조약(中蘇友好同盟 相互援助條約), 장춘(長春)철도, 여순(旅順) 및 대련(大連)에 관한 협정, 차관협정 등 주요협정을 체결하여 양국간의 정치·경제·군사적 유대를 강화하였다.<sup>6)</sup> 뿐만 아니라 기간중 모택동과 스탈린은 김일성의 무력남침에 의한 한반도 통일방안에 대하여도 진지한 논의를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발전은 김일성의 전쟁의지를 고무하였음은 물론 중공군의 한국전쟁 파병에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당시 양국간에는 국경선 문제를 비롯해 국공내전시 소련이 중국 공산당에 대하여 취한 소극적 자세 등 현안이 내재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갈등 요인들은 동서 냉전체제가 형성되는 새로운 국제환경을 맞아 막스-레닌주의(Max-Lenin) 이념의 공유는 물론 프롤레타리아 혁

## 8 제 1 장 中共의 韓國戰爭 參戰背景

명에 대한 공동 책임인식에 의해 가려지고 모택동과 스탈린 양인은 상호방위적 결속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중공으로서는 내부적으로 혁명의 동력(動力)을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었고 ‘구세계(舊世界)’에 대한 도전을 통하여 약화된 중국의 지위를 세계의 중심국가로 환원시키려는 모택동의 야심이 소련과의 결속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의 위협에 대한 모택동·스탈린 양지도자의 공동관심이었다. 스탈린으로서는 미국과 범세계적 대결에서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공의 지원이 필요한 한편 모택동과 중공지도부는 동남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에 대응함은 물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침략 야욕’을 막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소련과의 동맹을 고려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공동관심에 의해 체결된 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에서, “쌍방은 일본의 침략과 또한 일본의 침략행위와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연합한 제3국의 침략에 공동으로 방어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고 “한 체결국이 일본 또는 일본과 연합한 동맹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이로써 전쟁상태로 들어갈 경우 상대방 체결국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하여 즉각적으로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합의하였다.<sup>7)</sup>

차관협정에서는 소련이 연리 1%의 이율로 중공에게 3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데에 합의하고 이의 대부분을 중공이 소련의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데에 사용하기로 양해하였다. 이와 같이 모택동은 모스크바 회담간 중공의 혁명에 대한 스탈린의 지원과 중공의 안보에 대한 소련의 군사적인 공약을 확약받았다.

이에 따라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중공측은 소련측에 전투기 280대, 폭격기 198대, 훈련기 108대를 비롯하여 도합 586대의 항공기를 주문하였고 또한 모스크바를 떠나기 전에 모택동은 스탈린에게 서신으로 628대의 항공기를 추가 주문하였다. 그리고 회담종료 직후인 1950

년 2월 16일부터 3월 5일까지 소련의 혼성 방공사단이 상해(上海), 남경(南京), 서주(徐州) 등에 전개하여 이 지역의 방공을 담당하였다. 이는 중공이 '대만 수복'작전 준비와 군의 현대화를 위하여 협상간 항공공기의 구매와 자체 방공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소련공군에 의한 방공 지원 요청에 역점을 둔 결과이었다.

중공의 입장에서 특히 미국을 겨냥하여 체결한 새 중·소조약과 소련의 군사적 지원조치로, 모택동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위협에 대처함에 있어 보다 강력한 위치를 점유하였다고 확신하였다. 주은래는 3월 20일에 외무부 간부들에게 “중·소 동맹조약으로 미국의 아시아 침략은 있을 수 없게 되었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보다 1개월 후 제6차 중공인민정부위원회에서 모택동은 “중·소 동맹조약으로 중국의 대외적 위치가 강화되었다. 만일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소련의 원조를 받고 있다.”라고 천명하였다.<sup>9)</sup>

이밖에도 이 회담간 모택동은 제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 과정에서 소련의 대일전(對日戰) 참전 대가로 알타협정과 이에 따른 장개석 정부와 소련 간의 협정으로 만주지역 전후처리에서 소련에게 우선적 이익이 주어졌던 제문제(諸問題)를 중공에 유리하도록 해결하였다. 스탈린은 남만주(南滿洲) 철도를 1952년 말까지 중국에 이양한다는 데에 동의하였고, 여순항에 주둔한 소련군도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되거나 늦어도 1952년 말 이전에 철수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조약과 협정의 체결로 중공은 대외적으로 소련과의 이념적·정치적·경제적 결속은 물론 구체제의 세계질서로부터 탈피하려는 자신들의 위상을 크게 제고할 수 있었으며, 대내적으로는 국가의 통합과 전후복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도 중소(中蘇) 조약을 극동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대충격으로 인정하였으며, 중소관계에 ‘썰기를 박는다’는 1949~1950년의 미국 정책목표가 실패에 이른 것으로 받아들였다. 특히 중소우호동맹 상호원조조약의 체결과 군사원조는 후일 중공이 한

국전쟁에 참전하여 미군과 대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한편 이 회담은 시기적으로 스탈린과 모택동이 각각 조소(朝蘇) 모스크바 회담과 조중(朝中) 북경회담에서 김일성의 남침계획을 협의한 뒤이어서 이들 양자가 이에 대한 공동전략을 수립하였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농후하였으나 이를 비밀에 부침으로써 설(說)만 분분하였었다. 그러나 전 소련수상 흐루시초프(Nikita Khrushchev)가 그의 회고록에서, “한국전쟁은 남한에 의한 북침이 아니라 김일성이 주도한 것이며 김의 제의를 받은 스탈린이 특히 미국의 예상되는 대응과 관련하여 모택동의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승인하였다.”라고 밝힘으로써 단서가 풀리기 시작하였다. “모택동은 김의 제의에 동의하였고 그 전쟁은 한국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내전이 될 것이므로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는 것이다.<sup>9)</sup>

1970년대 초에 최초로 간행된 이 회고록은 그 당시로서는 한국전쟁의 기원연구에 있어 남침설을 입증하는 충격적인 것이었으나 다른 자료의 부재로 이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러시아측 자료에 의하면 이 내용에 다소 모호하고 세부적으로 부정확한 점도 내포되어 있으나 모택동과 스탈린이 김일성의 무력남침계획을 논의하였다는 점은 사실로 판명되고 있다.

소련이 1994년에 공개한 외교문서에 의하면, 모택동은 1949년 5월 김일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전쟁준비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스탈린의 동의를 받아 행동에 옮길 것임을 분명히 하였고, 또한 김일성은 1950년 1월 모스크바에서 중·소 회담이 진행중일 때 스티코프를 통해 스탈린 방문을 요청하면서 “스탈린과 만나 남진(南進)공격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 이번에 만날 수가 없으면 모택동이 모스크바에서 돌아왔을 때 그를 만나겠다. 모택동은 모스크바에서 모든 문제에 관한 지시를 받아들 테니까.”라고 하였다.<sup>10)</sup> 이는 모택동과 스탈린이 모스크바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였다는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당시 모택동을 수행하여 통역관으로서 모택동·스탈린 회담에

참석한 쉬제(Shi Zhe, 史哲)는 이 회담에서 김일성의 남침계획에 관하여 모택동과 스탈린의 의견교환에 대해 1992년 첸지안(Chen Jian)과의 대담에서 아주 자세히 밝히고 있다.

모택동은 소련 방문 동안 김일성의 전 한반도 통일계획에 관하여 스탈린과 의논하였다. 스탈린은 모택동에게 “김이 그 계획을 가지고 왔었는데 거기에 미국의 개입과 같은 어떠한 불리한 조건의 존재여부를 문의하였다. 김은 기분이 아주 좋은 상태였으며, 그 계획에 찬성발언만을 들으려 하고 반대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그는 정말로 젊고 용감하였다.”라고 말하였다. 다음 스탈린은 김의 계획에 관한 모(毛)의 의견, 특히 미국이 개입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문의하였다. 모는 즉각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후 모택동은 “이것이 한국의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조선의 친구들은 미국의 개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였다.<sup>11)</sup>

흐루시초프와 쉬제의 회고가 시사하듯 모택동과 스탈린은 모스크바 회담에서 한반도의 공산화, 즉 김일성의 남침계획에 대해 특히 미국의 개입과 관련하여 심도깊은 논의를 하였음이 사실로 입증되었다. 여기에서 양측은, 곧 이어 열릴 스탈린·김일성 회담과 모택동·김일성 회담에 의해 밝혀지는 것처럼, 북한이 외부의 지원 없이도 승리할 것으로 믿었다. 다만 미국이 개입할 우려에 대해 중공이 소련의 지원하에 참전한다는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들 양자가 세계공산화의 역할 분담에 따라 북한의 무력에 의한 한반도의 공산화를 ‘조중(朝中)의 공동과제’로 규정함으로써 모스크바 회담은 중공의 한국전쟁 참전에 중요한 이정표의 하나가 되었다.

### 3. 毛澤東·金日成의 戰爭計劃 合意

모택동·스탈린 회담후 1950년 4월에 모스크바에서는 스탈린·김일성 회담이 열렸으며, 여기에서 스탈린은 국제환경이 유리하게 변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한반도 무력통일방안으로 김일성이 수정제의한 선제남침(先制南侵)공격계획에 동의하였다. 이와 함께 이 문제의 최종결정은 중국과 북한에 의해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만일 중국측의 의견이 부정적이면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결정을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sup>12)</sup>

이에 따라 5월 13일에 김일성이 박헌영(朴憲永)을 대동하고 직접



모택동이 전쟁전략을 협의하기 위하여 북경을 방문한 김일성을 맞이하고 있다.

모택동을 방문함으로써 조·중 북경회담이 개최되었다. 김일성이 준비한 의제는 다음과 같았다.<sup>13)</sup>

- (1) 무력에 의한 방법으로 통일을 이룩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도를 알리고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스탈린과의 회담결과를 설명
- (2) 중국과의 무역협정체결에 관한 의견 교환. 김일성은 가까운 시일 내에 무역협정에 서명하기로 제안할 예정. 단 우호조약은 통일 후 체결할 계획
- (3) 여타 문제들에 관해 모스크바 회담내용을 모택동에게 통보하고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 수립

모택동은 5월 13일 저녁 늦게 김일성으로부터 남침계획과 관련한 모스크바 회담 내용을 설명받았으나 동 문제에 관하여 스탈린 자신의 설명을 듣고 싶다고 주중 소련대사 로신(N.V. Roschin)을 통하여 소련 정부에 요청하였으며, 다음날 스탈린의 답신 전문을 받았다.

모택동 동지에게

북한 동지들과의 회담에서 필리포프[스탈린] 동지와 그의 측근들은 현 국제 정세가 변하였으므로 남북한 통일사업에 착수하겠다는 북한 동지들의 제의에 동의하였음. 이 문제는 중국 동지와 북한 동지 간에 사전 합의가 되어야 하며, 만일 양측이 문제 해결 방법에 이견을 보일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논의가 있을 때까지 미루어야 함. 회담 내용은 북한측에서 귀하에게 자세히 설명할 것임.<sup>14)</sup>

필리포프[스탈린]

모택동은 5월 14일 주중 소련대사로부터 이 전문과 김일성·스탈린 회담 결과가 담긴 메시지를 받은 후 김일성과의 회담에서 남북한 정세 평가, 평양과 서울의 군사력 비교분석에 관해 북한 지도부와 의견을 같이 한다고 언급하고, 중소(中蘇) 조약을 모델로 조중(朝中)우호

#### 14 제 1 장 中共의 韓國戰爭 參戰背景

동맹 상호원조조약을 통일후에 체결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어 5월 15일 속계된 회담에서 모택동은 김일성·박헌영과 북한의 무력통일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은 3개 단 계로 그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하였다.<sup>15)</sup>

제1단계: 군사력의 준비 및 증강[전쟁계획 및 준비]

제2단계: 평화적 통일에 관한 대남 제의[위장평화 공세]

제3단계: 남한측의 대남 제의 거부 후 전투행위 개시[남침 공격개시]

모택동은 이 계획에 찬성을 표명하고 작전준비와 군사력 운용에 관한 전쟁지도상의 조언을 하는 한편, 일본군과 미군의 참전 문제에 대해 많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는 계획된 작전을 위해 치밀한 준비가 필수불가결하며 각개병사와 사령관들에게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시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한 다음, 작전개시후 북한군은 신속히 행동해야 하며 주요도시를 포위하되 이를 점령하기 위하여 지체해서는 안되며 적군의 병력섬멸을 위하여 군사력을 집중 운용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이어 모택동이 일본군의 분쟁개입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자 김일성은 일본군이 참전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나 미국이 2~3만의 일본군을 파병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답변하고, 그러나 일본군의 참전이 상황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며, 이 경우 북한군은 더욱 맹렬히 전투에 임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모택동도 2~3만의 일본군이 참전하는 경우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단계에서 일본이 참전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하였다.

모택동은 일본군의 참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망한 반면 미국의 개입을 우려하며 만일 미군이 참전한다면 중국은 병력을 파견하여 북한을 돕겠다고 하였다. 모택동은 “소련은 미국과 38도선 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기 때문에 전투행위에 참가하기가 불편하지만 중국은 그와 같은 의무가 없으므로 북한을 도울 수가 있다.”고 하였다. 후일(1950



년 7월) 로신 대사와의 대담에서 주은래가 “이날 김·모(金·毛)회담에서 모택동은 한국전쟁에 대한 미군의 직접참전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김일성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였다.”<sup>16)</sup>라고 말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회담에서 미군의 참전가능성에 대하여는 양자간의 견해차가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끝으로 모택동은 중국이 대만을 점령한 후에 남쪽에 대한 작전을 시작하면 북한을 충분히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그러나 북한이 현 시점에서 작전을 개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동 작전이 양국간 공동의 과제가 되었으므로 이에 동의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하였다.<sup>17)</sup>

이날 만찬석상에서 김일성은 모택동과 동석한 주중(駐中) 소련대사 로신에게 “회담기간중 모든 문제에 관해 완전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남침전쟁과 관련하여 ‘김·스·모’가 완전한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비밀협상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모택동과 중공지도부는 스탈린 다음으로 한국전쟁 음모에 시작부터 깊이 참여하였고, 결국에는 조·중의 공동과제로 남침전쟁의 책임을 분담하여, 이의 승리를 위해 병력을 비롯한 전쟁지원을 하였으며, 특히 미군의 개입시 중공군을 파병하여 북한을 돕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공의 한국전쟁 참전준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 제 2 절 參戰準備와 ‘東北邊防軍’의 編成

모택동과 중공지도부는 그들의 정권수립 전후의 시기에 가진 중소(中蘇), 중조(中朝) 회담을 통하여 스탈린과 소련 다음으로 북한의 남침전쟁의 계획과정에 깊숙히 개입하고 있었고, 개전시기에 대하여도

김일성과의 회담에서 동의하였음이 밝혀졌다.

물론 이들의 전쟁음모는 북한이 단기간 내에, 즉 미군이 개입하기 전에 전쟁을 승리로 종결한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파병지원을 약속한 모택동으로서는 이에 대한 대비를 미리 시작해야 했고, 또한 인민군이 남침 직후 유엔과 미국의 즉각적인 응징조치에 직면하게 되고 자신들의 예상이 빗나가자 대응조치와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참전준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를 위해 중공은 당면하고 있던 ‘대만 수복’과제 등 대내외 안보상 현안들을 신속히 정리하고, 군의 현대화 촉진과 함께 파견할 부대(동북변방군)를 편성하는 한편, 외교적 대응방안을 강구하면서 한반도의 전황의 추이에 관심을 집중 하였다.

## 1. 臺灣占領의 延期와 南部國境의 安保 強化

### (1) 臺灣 占領作戰의 延期

중공은 본토를 석권한 후 그때까지도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가 확보하고 있던 대만(臺灣)과 금문도(金門島)·펑호도(澎湖島) 등 근해도서의 통합을 최우선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작전을 실시하였으나 진전을 보지 못한 가운데 한국전쟁을 맞았다. 전쟁 발발후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대만해협(臺灣海峽)에 제7함대를 파견하자 중공은 자신들이 한국·대만·인도차이나의 세 방향으로부터 미국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중공은 최소 동북(韓滿國境)과 동남(臺灣海峽)으로 양분된 2개의 전선을 유지해야 하고 군사력이 양분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형국에 처하게 되었다.

대만은 1894년 중일전쟁(中日戰爭) 이래 일본의 식민지였다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더불어 중국으로 반환되었으나 국공내전에서 본

토로부터 축출된 국민당 정부가 1949년 5월 이곳으로 철수하여 정치·군사적 요새를 구축하고 본토수복의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대만 해협이 양측간의 전장(戰場)이 되었던 것이다.

중공의 지도부는 ‘대만 해방’을 중국내전(中國內戰)의 마지막 전투로 보고 이 전역에서 성공하면 국민당이 완전히 파멸하고 본토에서의 정치적 갈등과 소요도 종결되어 통일 중국을 실현함으로써 중공이 동남아와 세계의 중심국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당시 모택동과 중국 공산당은 적대관계의 미국이 이 계획의 추진에 위협을 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대만 해방’을 최우선 과제로 결정하고 1949년 6월에 제3야전군과 화동국(華東局)에 그 임무를 부여하고 대만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이 작전은 최초 이해 여름과 가을에 준비하여 겨울에 점령하는 것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주로 상륙작전에서 맞게 될 어려운 문제의 신중한 검토 끝에 모택동은 늦어도 1년 후인 1950년 여름까지 완료하도록 시한을 정하였다.

반면 대만에 도착한 장개석과 국민당은 곧 자신들의 해군으로 하여금 중공의 항구를 봉쇄한다고 선언하고 공군으로서 해안도시 특히 상해의 상공업지대를 폭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해·공군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모택동은 대만작전의 성공에는 중공군이 국민당군을 투항시킬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든가 소련으로부터 해·공군의 지원을 받아 대만해협을 건너 상륙작전을 감행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의 준비가 긴급하다고 판단하였다. 중공은 1949년 여름에 후자에 대한 대소협(對蘇協議)을 벌여 가을부터 소련 해·공군의 지원이 도착하기 시작함으로써 상륙작전 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에 제3야전군이 제1단계로 1949년 10~11월 금문도(金門島)와 주산군도(舟山群島)의 덩부(Dengbu)공격을 실시하여 목표는 점령하였지만 미국제 함정과 항공기로 무장한 국민당 군의 제공권과 제해권을 제압하지 못하여 결국 실패하였다. 여기에서 중공군이 전 해방전쟁 기간을 통해 최악으로

기록되는 인명손실을 입어 이의 충격으로 중공의 ‘대만 해방작전’은 본래의 계획 일정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작전의 실패로 모택동과 공산당 지도부는 상륙작전의 어려움을 재삼 인식하게 되었고 충분한 준비를 하여 복건성(福建省), 절강성(浙江省), 광둥성(廣東省)의 연안도시를 먼저 점령한 후 최종적으로 대만 작전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만작전은 수차례 연기되었고, 이 무렵 1950년 6월에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제7함대가 대만해협에 출현하자 중공 공산당 지도부는 신속히 대만침공 준비의 연기결정을 내렸으며, 6월 30일에 해군사령관에게 이 결정을 정식으로 통고하였다.<sup>18)</sup>

이때 대만 수복작전 부대장인 울유(粟裕)가 그 휘하의 제3야전군에 “항미원조에 집중하기 위하여 대만작전계획이 연기되었다.”라고 설명함으로써 이의 주 원인이 한국전쟁 준비에 전념하기 위한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즉 미해군의 전개로 대만 점령작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데 한국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 두 개의 전선에 군사력이 분산되는 것을 피하고 동북전선으로 전력을 집중하기 위하여 대만 작전을 연기한 것이다.

금문도와 탕부작전에서 한국전쟁 참전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결과는 이 작전을 통하여 미국에 대한 중공의 적대감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중공지도부는 이번 작전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미제 항공기와 포함의 지원을 받은 국민당군이 제해권과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미국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국민당군은 중공군의 공격에 살아 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와 함께 미제 폭격기와 전함을 이용하여 국민당군이 상해와 해안지역을 폭격하고 주요 항구를 봉쇄함에 따라 중공지도부는 미국을 주 적(敵)으로 확신하게 되었다. 이후 그들은 ‘대만 해방’문제를 동아시아에서 중미(中美) 간 장기적 대결 구도로 보고 다름에 따라 결국 대만해협에서의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과의 싸움은 중·미 대결의 일부로

확대인식되어 해결의 실마리는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중공지도부는 이와 같이 미국을 주 적으로 확인하였지만 당시로서는 미국이 직접 부대를 파견하여 중공의 대만공격을 방어하거나 국민당을 방호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중공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취약하여 그들에게는 최소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정치적으로 영국·일본 등 동맹과의 정책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이러한 생각은 1950년 1월 5일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의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개념의 발언과 그 일주후 “대만과 한국이 미국의 서태평양 방위선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요지의 애치슨(Dean Acheson) 성명에 의해 더욱 확고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모택동과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미국을 적인 동시에 ‘중이 호랑이’라고 간주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약화된 중국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중국 혁명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더욱 공격적인 대미(對美) 동아시아 전략을 수립하였다.<sup>19)</sup> 이러한 정치·군사적 접근은 1950년 중공이 한국전쟁에 참전하는 또하나의 배경이 되었다.

이와 같이 ‘대만 해방’정책의 수정과 작전의 연기로써 중공은 중앙전략예비를 한만국경지역으로 이동시켜 한국전쟁에 투입할 군사력(東北邊防軍)을 신속히 건설하고 조직할 수가 있었다.

## (2) 베트남 接境의 安保 強化

중공 정권이 수립되자 중공당 지도부는 ‘대만 수복작전’의 추진과 병행하여 남쪽에 접경하고 있는 인도차이나 지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당시 베트남에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자 곧 베트남민주공화국을 수립한 호志明(胡志明)의 공산군과 일본군 점령 이전의 기득권을 주장하며 재진주(再進駐)한 프랑스군 간에 이른바 ‘베트남전쟁’이 진행 중이었다. 1950년 1월에 중공은 베트남공화국을

공식 승인하고 대불투쟁(對佛鬪爭)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을 지원하는 것이 자신들의 안전보장에 기여함은 물론 국제적 의무라고 주장하며 호지명과 그 공산당의 지원에 나섰다.

당시 동서 냉전구조하의 이러한 국제정세에 편승한 호지명은 1월 말 비밀리에 중공에 들러 실질적 지원요청을 하였고, 2월 초에는 스탈린·모택동을 직접 만나서 중소(中蘇)의 군사, 정치, 경제원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그들이 회담 중인 모스크바를 방문하였다. 여기에서 소련군의 직접파견을 꺼려한 스탈린은 호지명에게 중공과 지원문제를 협의하도록 하였다. 모택동과 주은래는 베트남의 대불항쟁에 필요한 모든 원조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sup>20)</sup>

모택동의 이러한 지원약속 배경에는 무엇보다 공산 베트남의 존재가 남부국경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강한 인식이 존재하고 있었다. 역대 중국의 통치자들은 “주변에 적성국(敵性國)[敵性 野蠻人]이 존재하면 중화민국(中華民國)이 적절히 유지될 수가 없다.”고 하는 이른바 중화사상(中華思想)을 견지해 왔으며 모택동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시각에서 대외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특히 1949~1950년에 국민당의 잔존세력들이 중국-베트남 국경지역으로 은신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또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베트남을 아시아에서 중공의 공산화 혁명 모델을 따를 가장 우선순위를 갖는 국가로 보고 있었다.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혁명은 아시아는 물론 세계 공산혁명의 효시로써 다른 곳의 공산혁명과 민족운동을 돕는 것이 그들의 의무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공의 대(對)베트남 군사 지원은 1950년 3월부터 시작되었고, 중공군사고문단을 설치하여 베트남군 사단의 대대급까지 배치하는가 하면 군사학교도 개설하였다. 특히 중공과 베트남은 호지명의 요청에 의거 베트남에 파견된 중공 중앙의원 겸 운남군구사령관 진갱(陳廣)의 주도하에 월맹군총사령부와 위국청(偉國淸)이 이끄는 중국군사고문단 공동으로 변계전역(邊界戰役)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작전(9

월 16일~10월 12일)의 시행결과 프랑스군은 대파되었고 큰 손실을 입어 방어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었으며 월맹 군민(軍民)은 후방 근거지를 확보하고 국부적이거나 반격단계로 전환할 수가 있었다.<sup>21)</sup> 중공은 베트남 공산당에 대한 이러한 군사적 지원조치와 그밖의 정치·경제적 지원으로 남부국경지역에 대한 안보의 안정을 기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중국 공산당은 그들의 정권 수립으로부터 한국전쟁 발발 전후의 시기에 중소협정(中蘇協定)으로 세계공산화의 역할분담과 아울러 양국간 문제를 해결한 데 이어 대만점령계획을 연기하고 베트남에 대한 지원으로 남부국경의 안보마저 강화함으로써 동북방을 제외한 안보상 현안들이 제거됨에 따라 대내 혁명과업의 추진과 한국전쟁의 준비에 국력을 집결할 수 있게 되었다.

## 2. 東北邊防軍의 編成과 參戰準備

중공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그들의 정권 수립후 정치적 통합을 위해 최우선 국가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던 ‘대만 수복’작전을 연기함과 아울러 대복원(大復員)을 단행하며 군을 현대적 조직으로 개편해 가는 와중에서도 곧 ‘동북변방군(東北邊防軍)’이란 이름의 파한(派韓)할 중공군을 별도로 조직하여 전쟁준비에 들어갔다.

중공이 건국부터 한국전쟁이 시작된 1950년도까지 ‘대만 수복’ 다음으로 역점을 두고 전개한 국가적 사업은 장기전쟁으로 인하여 피폐할 대로 피폐된 국가경제를 복구하는 ‘평화건설사업’의 추진이었다. 이에 따라 군(軍)도 이 임무를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일전쟁(對日戰爭)과 국공내전(國共內戰)을 치르는 동안 비대하게 된 군의 인력을 절약하여 산업역군(產業役軍)으로 전환시키고 국방비를 줄여 경제부흥예산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대복원과 정편조치(整編措置)를 취하였다.

1950년 4월 중앙 정치국의 ‘인민해방군 대복원과 정편 실시 결정’에 따라 중공군은 전군 총병력을 54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축소하며 육군을 국방군(國防軍)과公安부대(公安部隊)로 편성하기로 하였다. 또 지금까지 사용해온 보병병단과 4개 야전군의 단대호를 취소하고 전국에 서북, 서남, 중남, 화동, 동북, 화북의 6개 대군구(大軍區)를 설치하도록 하였다.(그러나 실제에 있어, 병단과 야전군 단대호는 1958년을 전후로 폐기되거나 개편되었다.)<sup>22)</sup> 이어 5월에 주덕(朱德) 총사령관이 주재한 전군참모회의에서 비로소 육·해·공군 및公安부대의 편제와 정원을 확정하고 이후 대대적 정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때 육군의 보병부대는 軍(군단)·師(사단)·團(연대)·營(대대)·連(중대)의 건제 아래 3·3제로 편성되었고 포병·기갑 등의 병과부대도 창설이 한창이었다. 사단은 병력 10,000명 수준으로 편성하고 보유할 화포 기관총 등의 수량·형태·구경에 관한 규정을 제정, 편제를 통일하였다. 사단에 군수부를 두어 대군구로부터 군수물자가 직접 사단으로 공급되게 하는 군수지원체제를 수립하는 등 사단의 전투작전기능의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복원시 육군보병부대의 축소로 절약된 경비를 해·공군 및 기타 병종의 건설에 투입함으로써 병종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인민해방군의 일개 병종으로 편입이 일친한 공군(1949년 11월 창설)과 해군(1950년 5월 창설)도 자취기구 설치에 이어 소련으로부터 장비와 기술지원을 받아 부대창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고 같은 시기에公安부대의 정편도 기본적으로는 마무리하였다.<sup>23)</sup>

이와 같이 중공은 1950년도에 국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어려운 당면과제도 안고 있었고 특히 군의 복원과 현대적 조직으로의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과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택동과 공산당 지도부는 김일성과의 북경회담 후 곧 중앙기동예비대를 그들의 동북지방인 만주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하였으며,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들 부대를 동북변방군이라는 부대로 편



성하고 참전에 대비한 준비를 하였다.

그런데 한국전쟁은 개전초부터 모택동(毛澤東)이 스탈린·김일성과 전쟁을 계획하고 전망했던 것과는 대단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전쟁계획과정에서 김일성은 “남한을 공격하면 내부에서 인민봉기(人民蜂起)가 일어나 정부를 전복시킬 것이며 이를 이용해 신속히 남진하여 남해안까지 전개하면 미군의 개입을 피하고 남한을 점령, 전쟁을 승리로 이끌수 있다.”라고 하였고, 스탈린도 이를 믿고 승인하였으며, 모택동은 이에 동의하면서 미군의 개입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인민봉기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국군의 저항도 완강하여 최초부터 속전속결은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유엔군 특히 미군의 신속한 전개와 참전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국정부의 지원요청에 의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6·26 대(對)북한 침략정지 요청’과 ‘6·28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지원 권고’ 결의에 따라 6월 27일부터 미군을 필두로 한 유엔군이 국군을 도와 참전하게 되었고 이때 미해군은 대만으로도 전개하여 대만에 대한 중공의 침략도 방어하고 자유중국군의 본토 공격도 억제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한국을 지원하는 유엔군은 ‘7·7 유엔 통합군사령부 설치’ 결의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의 단일 지휘하에서 북한 인민군에 맞서 지연작전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전쟁모의(戰爭謀議) 과정에서 미국의 개입시 중공군을 파병하여 북한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모택동과 중공지도자들은 전쟁의 추이를 지켜보며 7월 초 전쟁의 형세를 자세히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전쟁은 이미 대단히 복잡한 양상을 띠워감으로써 국제분쟁과 최소한 동아시아 분쟁의 초점이 되었다는 데에 공동인식을 하였다. 모택동은 미국의 참전으로 인하여 전쟁의 규모는 확대되고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하에 군사위원회를 열어 전략기동예비인 제13병단을 동북(滿洲地方)으로 올려 그 곳의 방어를 튼튼히 하고 북한을 지원할 수 있

게 하라고 지시하였다.<sup>24)</sup>

특히 모택동은 국내 경제회복이라는 최우선 과업을 그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업 관련부서들은 그대로 두고 동북행정위원회로 하여금 북한을 지원하고 미군에 대항하는 주요사업을 책임지도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전국에 걸쳐 ‘미국의 대만과 한반도 침입에 반대’하는 대회를 열도록 지시하여 전국 인민의 동원과 전쟁준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모택동의 제의에 따라 중앙 군사위원회는 7월 7일과 10일 두 차례의 국방회의를 거쳐 ‘동북지구의 안전과 동시에 필요시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하고 모택동의 승인을 받았다.<sup>25)</sup>

- (1) 4개 군과 3개 포병사단을 7월 말을 시한으로 안동(安東)·집안(輯安)·본계(本溪) 등지로 집결시켜 동북변방군을 편성한다.
- (2) 울유(栗裕)를 동북변방군사령관 겸 정치위원으로, 초화(肖華)를 부정치위원으로 임명한다.
- (3) 군수업무에 필요한 제반 준비를 한다.
- (4) 병력보충 준비를 한다.
- (5) 정치동원 업무를 시작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이를 기초로 하여 7월 13일에 ‘동북변방의 보위에 관한 결정’을 하고 제4야전군의 주력부대인 제38, 제39, 제40, 제42군(군단)을 중심으로 이에 배속된 포병·공병 등 지원부대를 함께 동북지구로 이동시켜 동북변방군을 조직하기로 하였다.<sup>26)</sup>

이중 제38, 제39, 제40군은 제13병단(군) 소속의 중앙전략기동예비로서 하남지방(河南地方)에 주둔하고 있었고 제42군은 흑룡강(黑龍江)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다. 전략예비중 제38, 제39군은 하남지방에서 농업생산과 수리시설에 종사하는 한편 각 1개 사단으로서는 소탕작전을 전개 중이었고, 제40군은 해남도(海南島) 해방작전 임무를 완수

한 후 광둥(廣東)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곧 하남으로 복상할 준비중에 있었다. 그리고 제42군은 단계적으로 전업이 확정되어 있었고 흑룡강 부근에서 개간사업 중이었다.

그런데 이중 제38군과 제40군은 군사위원회의 ‘7·13결정’에 앞서 한국전쟁의 발발전인 5월과 6월에 이미 동북지역인 만주의 심양(瀋陽) 부근으로 이동을 개시하였었다.<sup>27)</sup> 이는 ‘모·김(毛金) 북경회담’에 의거 모택동이 서둘러 전쟁지원 준비를 취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주력들은 7월 말까지 모두 만주지역으로 이동하여 결국 동북변방군은 제4야전군 제13병단 소속의 제38, 제39, 제40, 제42군의 도합 12개 보병사단과 제1, 제2, 제3의 3개 포병사단, 그리고 1개 고사포 연대와 1개 공병단 등 총 255,000명으로 편성되었다. 이들은 8월 상순에 압록강(鴨綠江) 대안의 안동(安東), 봉성(鳳城), 집안(輯安), 통화(通化), 요양(遼陽), 해성(海城), 본계(本溪), 철령(鐵嶺), 개원(開原) 등지로 집결 완료하여 언제나 명에 의거 한국전쟁에 투입될 수 있도록 훈련 및 전투준비에 들어갔다.<sup>28)</sup>

이들 제4야전군 부대들은 중앙군사위원회의 반복적 연구 끝에, 이들의 전투서열이 높히 평가되어 장차 한국전쟁에 투입될 부대로 편성되었음이 밝혀졌다.

우선 제4야전군 부대원들 중에는 동북인(東北人)이 많으며 해방전쟁 시기에 동북지역에서 싸웠고 이 때문에 동북지역의 지리와 기후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당시 중공의 군 부대들은 전국적으로 넓게 분산되어 지방 게릴라들의 소탕작전과 산업생산 임무까지 담당하고 있었고 수송수단마저 부족한 실정이어서 부대이동에는 기동성이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제4야전군의 주력부대인 제38, 제39, 제40군은 당시 군사위원회의 중앙전략기동예비로서 중심지구인 중원지역에 주둔하고 있어 신속하게 기동할 수 있었다. 그리고 특히 이들 부대가 해방전쟁(解放戰爭)은 물론 항일전쟁(抗日戰爭)에서의 많은 전투경험을 통해 쌓은 전투력이 높히 평가되어 우수한 부대를 한국전쟁에

투입하려는 지도부의 방침에 부합되었기 때문이었다.

동북변방군의 지휘부는 당시 화동군구 부사령관 율유(栗裕)를 사령관 겸 정치위원, 초경광(肖勁光)을 부사령관, 초화(肖華)를 부정치위원, 그리고 이취규(李聚奎)를 군수사령관에 확정하고, 그 예하에 새로이 제13병단사령부를 조직하여 군단을 지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율유가 와병(臥病) 중이어서 부임할 수 없었고, 초경광은 해군사령관에 부임하는 등 상황의 변화로 변방군사령부는 구성하지 않고 제13병단사령부만 편성하여 동북군구가 동북변방군을 직접지휘하도록 하였다.<sup>29)</sup>

제13병단사령부는 거의 제15병단사령부 요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령관에는 등화(鄧華), 정치위원에는 뇌전주(賴傳珠), 부사령관에는 홍학지(洪學智)와 한선초(韓先楚), 참모장에는 해방(解方), 정치 주임에는 두평(杜平)이 임명되어 부임하였다.

사령관 등화는 중국혁명전쟁을 거치면서 명장으로 성장하였고 군사경력과 정치경력을 고루 갖추어 군정쌍전(軍政雙全)이라 불리었으며 실제로 모략에 능한 사람으로서, 후에 휴전회담 대표로까지 임명되는 등 한국전쟁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밖의 요원들도 뇌전주(와병으로 부임하지 못함)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전쟁의 참전을 통해 그들의 명성을 드높였다.

중공은 동북변방군의 편성과 더불어 이 부대가 한국전쟁에 투입될 경우 지원기지 임무를 담당하게 될 동북군구(滿洲地域 軍區)의 방위력, 특히 방공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군구와 변방군의 군수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지원기능을 강화하였다.

동북변방군 조직결정 직후인 7월 18일에 동북군구 항공사령부를 설치한 데 이어 8월에는 동북군구 방공사령부를 설립하였으며, 중·소 협정에 따라 소련 공군 1개 사단(MIG-15: 122대, 훈련기 및 연락기: 16대)이 중국 동북지역에 도착하여 방공임무를 수행하였다.(후에 이들 병력은 소련으로 복귀하고 장비는 중국 공군으로 인도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동북군구는 8월 중순 방공회의를 열어 방공통신망 조직과 정비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방공조직의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하였으며, 8월 하순부터는 압록강 연안 요지를 방어하고 있던 고사포병을 전투에 투입하였다.

또한 중앙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8월 7일에는 동북군구 군수부(軍需部)를 설치하고 이를 군수본부, 정치부, 재무부, 군계부(軍械部), 운수부, 위생부, 영방부(營房部) 등의 조직으로 편성하는 한편, 2,600명 규모의 3개 지대를 두고 변방군에 대한 군수지원을 하며 전쟁지원을 준비하였다.

이밖에 8월 하순에는 상해지역의 제9병단과 서북지구의 제19병단을 각각 진포(津浦), 용해(龍海)의 철도교통 중심지로 전개시켜 중앙 예비로서 동북변방군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 지역은 동북 동남 어느 지역으로도 이동이 가능하고 특히 한반도로는 육상·해상 양방향으로 투입이 가능하였다.

이와 같이 중공은 국내외적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군의 대복원과 정편을 단행하면서 7월에는 동북변방군 편성을 완료하고, 8월에는 한반도 작전시 지원기지가 될 동북군구의 기능 강화는 물론 대공방위력의 증강 조치를 취하며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여기에서 중공이 동북변방군 편성 명령을 하달한 7월 13일은 북한 인민군이 금강(錦江)－소백산맥(小白山脈)까지 진출한 때이며, 동북군구를 강화한 8월 중순은 인민군이 역시 작전의 주도권을 갖고 낙동강 전선에서 공세를 펴고 있던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공의 참전준비가 계획적이었으며 사전에 치밀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소련으로부터 장비 및 기술지원을 받아 해·공군의 조직 발전과 전투부대의 창설을 통해 중국 전역(全域)의 해상 및 영공 방어력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집중하였다. 또한 육군도 포병사령부, 기갑사령부를 신편하고 포병 및 기갑 전력의 증강에 주력하였다. 특히 철도병단도 3개 사단으로 개편하고 군사위원회 관하로 이관하여 군 수

송력을 보강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7개의 공안사단도 조직을 완료하였다. 이로써 공산정권 수립 일년 만에 중공은 현대식 군의 면모를 갖추고 본토의 방어력 강화와 한국전쟁 참전준비를 동시에 서두르고 있었다.

### 3. 外交의 策略: 北韓支援과 參戰名分 追求

중공은 북한 인민군의 남침작전 개시 전후의 시기에 안보상 가장 중요한 소련, 대만, 베트남 문제를 정리하면서 동북변방군을 편성하고 전쟁준비를 진행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을 지원하고 자신들의 참전명분을 세우기 위한 외교공세도 병행 실시하였다.

이 외교공세는 한반도의 전황이 당초 그들이 전쟁을 공모(共謀)할 때 예상하였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 그들의 전략판단이 빗나가고 전쟁계획의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 분명해짐에 따라 비롯되었다. 특히 미국과 유엔의 대응이 신속하고 강력하게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지원요청을 받은 미국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신속하게 반응하여 북한 인민군의 남침이 개시된 지 불과 24~72시간 사이에 북한의 침략을 응징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원조 제공을 권고하는 ‘6·26과 6·28’결의를 채택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미국은 6월 27일에 “한국군에게 미 해·공군을 지원함과 아울러 제7함대를 대만해협으로 전개한다.”는 대통령의 성명발표에 이어 6월 30일에는 지상군의 참전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미 해·공군이 작전에 출동하고 7월 1일에는 미 지상군의 선견대(先遣隊)가 부산에 상륙하였으며 이어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의 지원군이 유엔군으로서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중공이 소련과 더불어 전개한 외교공세는 전황의 추이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하였다. 그들의 대응책동은 유엔군의 참전

저지 책동으로부터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유엔군의 철수 주장의 과정을 거쳐 유엔군의 38도선 돌파저지 기도 및 참전경고의 단계로 발전되어 갔다.

유엔과 미국의 대응에 대한 중공의 첫 외교적 반응은 ‘6·26과 6·28 유엔결의’와 ‘6·27 트루먼 대통령의 성명’에 대한 반발로 나타났다. 6월 28일에 모택동은 중앙인민정부 제8차 회의 석상에서 “미국의 한국전쟁 간섭과 중국 영토인 대만점령 사실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전세계 각국의 일은 자국 인민 스스로가 주관해야 한다……미국이 관여해서는 안된다. 미국의 아시아 침략에 대해 광범하고도 격렬한 반항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인민은 제국주의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전세계 인민은 단결하여……미제국주의의 어떠한 도발도 타파하자”라고 호소하였다.<sup>30)</sup>

같은 날 주은래 외교부장은 “트루먼의 6·27 성명 및 미 해군의 행동은 중국 영토에 대한 무장 침략이며 유엔헌장의 철저한 파괴이다. 아국 인민은……대만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끝까지 분투하자”라고 성명을 발표하였다.<sup>31)</sup> 이어 7월 6일 그는 6·28 유엔결의에 대해, “미국의 무장 침략, 조선내정 간섭 및 세계평화의 파괴를 지지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한편 “이는 유엔헌장에 규정된 이른바 유엔이 본질적으로 어떠한 국가의 국내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였다.”라고 지적하였다. 동시에 “그 결의는 중국과 소련 양개 상임이사국이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되었으므로 분명히 불법이며 따라서 중국인민은 결연히 반대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sup>32)</sup>

이와 같이 중공은 최초로 미국의 조치를 ‘침략’, ‘내정간섭’, ‘평화의 파괴’라고 공박하고 유엔의 결의를 ‘불법’이라고 몰아붙였다. 이는 미국의 참전과 예상되는 유엔회원국의 한국에 대한 지원을 가능한 한 저지 억제시켜 자신들이 공모(共謀)한 대로 북한이 미군이나 유엔군의 한반도 전개 이전에 남해안까지 점령하도록 인민군의 작전을 지원

하려는 데 저의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는 중국의 유엔대표권을 자신들이 획득하려는 외교적 전략에 한국문제를 이용하려는 저의도 포함되어 있음을 읽을 수 있다.

당시 중국의 유엔대표권은 국민당 정부가 보유하고 있었다. 중공은 정권 수립후인 1949년 11월 15일 유엔에 “중국 국민당 정부 대표단은 중국을 대표할 수 없으므로 축출되어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대표로 교체되어야 한다.”라는 요지로 유엔대표권 문제를 제기하였었다. 소련대표가 이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하였으나 미국을 비롯한 이사국의 반대로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퇴장을 선언하는 사건이 일어났었다. 이로써 1950년에 들어와 중공과 미국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고, 소련대표는 이에 대한 항의로 안보리(安保理) 회의에 스스로 불참하고 있었다. 중공과 소련은 한국전쟁 관련 유엔의 결의가 이와 같은 소련의 불참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으로서 불참 자체가 현장에 위배된 처사일 뿐만 아니라 국제관례상 결석이 거부권 행사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이론이며 통설이므로 그 결의는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것이었다.<sup>33)</sup>

따라서 중공과 소련의 주장은 국제적 설득력을 얻지 못하였고 7월 말까지 이미 미 지상군 3개 사단을 위시하여 자유진영의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캐나다, 프랑스 등으로부터 해군 또는 공군이 파병되어 참전하였다. 이로써 북한 인민군은 상대적 전력의 우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고, 8월 초부터 피아는 낙동강 전선에서 교착상황에 들어가 전쟁의 장기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시간은 점점 공산군측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었다. 미군이 상륙하기 전에 남한점령을 끝낸다는 그들의 당초 전쟁목표와 이 목표 달성을 위하여 유엔군의 파병을 저지하려는 중·소의 외교적 책략은 이미 빗나가고 만 것이다.

이 무렵인 8월 1일에 소련의 유엔대표가 복귀하고 순서에 의거 이



달의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직 수행을 계기로 공산측의 외교공세가 새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소련대표는 8월 4일자로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의 중지와 외국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결의안을 상정하고 한국문제의 토의에 중공대표의 참석을 요구하고 나섰다.

8월 20일에 중공의 주은래(周恩來)는 소련의 제의를 지지하고, “조선은 중국의 이웃이다. 중국인민은 조선문제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그것은 마땅히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해결될 수가 있다.”라면서 한국문제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토의될 때 중공대표의 참석을 요구하는 전문을 유엔본부로 보냈다.<sup>34)</sup> 동시에 중공은 대중매체를 통하여 한반도의 상황이 자신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을 선동하기 시작하였다. 이미 대만작전의 연기와 한국전쟁의 ‘지구전화(持久戰化)’를 최초로 공개한 바 있는 세계지식지(世界知



중공이 한국전쟁에 참전하기 위하여 미국이 ‘대만과 조선을 침략하였다.’며 항의 군중집회를 대대적으로 거행하고 있다.

識誌)에 실린 다음과 같은 8월 26일자 기사에 그들의 어떤 정책 변경을 시사하였다.<sup>35)</sup>

미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의 야만적인 행동은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전반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중국인민은 조선에서 제국주의의 그러한 공격적 행동을 허용할 수 없다. ……아시아에 있어 어떠한 일도 중국인민의 참여 없이는 해결될 수가 없다. 조선문제를 가장 인접국인 중국의 참여 없이 해결하려는 것은 불가능 하다. ……북조선의 친구들은 우리의 친구이다. 북조선의 적은 우리의 적이다. 북조선의 방위는 우리의 방위이다. 북조선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이다.

이는 분명 6~7월의 외교전략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때의 전략의 주목적이 유엔군의 지원을 저지시켜 인민군 작전의 성공을 보장하려는 데 있었다면, 이번에는 협상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되 그 방편으로 유엔군의 철수와 중공대표의 참여를 기도하고 있었다. 이를 위한 압력수단으로 매스컴을 통해 ‘중국의 안보가 위협을 받는다’며 대중을 선동하고 외교공세를 펴고 있었던 것이다. 아직은 그들로서 전선상황이 불리하지 않을 때 협상을 벌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들은 궁극적으로는 유엔군의 철수를 유도해 인민군의 작전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중공대표의 유엔진출을 시도한다는 계략이었다.

이러한 노력과 책략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타협을 통해 한국문제를 해결하려는 소련과 중공의 기도는, 9월 6일에 소련의 제안과 중공의 대표 참가 요구가 안보리 표결에서 부결됨으로써 좌절되었다.

이후 전장에서는 국군과 유엔군의 기습적인 ‘9·15 인천상륙작전’의 성공과 ‘9·28 서울 수복’을 계기로 아군은 북진으로 전환할 태세를 갖추었다. 반면 인민군은 대포위를 당해 줄지에 붕괴되어 자체로서는 38도선 방위력마저 갖추 수 없는 개전후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따라서 당시 38도선 돌파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에 세계의 이목이 전장에 쏠린 가운데 유엔 무대에서도 이를 저지하려는 중공과 소련의 외교공세가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우선 이 무렵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은 북한의 침략에 의해 이미 38도선의 존재의미가 상실되었으므로 남북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북진을 단행해야 한다는 결심하에 국군통수계통으로 북진명령을 하달하였다. 유엔을 대항한 미 행정부는 유엔의 ‘6·28과 7·7 유엔결의’에 근거하여, 인민군의 격멸을 목적으로 북한지역에서의 군사작전을 실시하기로 정책결정을 내리고 이미 이에 관한 훈령(9·27훈령)을 하달하였다.<sup>36)</sup>

이러한 정책에 따라 9월 30일에 미국의 유엔대사 오스틴(Warren W. Austin)은 “새로운 침략의 기회는 제거되어야 한다. ……침략자에게 가상적인 선[38도선] 후방의 피난처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남북한을 분단시키는 인위적인 장벽은 법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존재할 근거가 없다.”라고 천명하였다.<sup>37)</sup> 이는 북진의 당위성을 내외에 천명함과 아울러 침략자를 격멸할 작전이 곧 단행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같은 날(9월 30일) 영국을 비롯한 8개국 이 “유엔은 전 한국에 걸쳐 안정상태를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통일 민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유엔관리하에 총선거를 실시할 조치를 취한다. ……”라는 내용의 공동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상정하였다.<sup>38)</sup> 이는 북한지역에서 유엔군의 군사작전 실시 근거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그후 유엔 주도하에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이른바 ‘한국통일 결의안’이었다.

이처럼 아측(我側)은 이들 공산침략자에 대한 응징이 도덕적으로 정당하고 유엔헌장에 따라 적법할 뿐만 아니라 군사작전상 전장에서 방자(防者)가 공자(攻者)의 침략을 저지하면 반격으로 전환하고 지체 없이 추격을 단행하는 것은 기본 원리에 속하므로 당연히 38도선을 돌파해야 한다는 정책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반면 이 무렵 중공은 ‘미 제국주의가 더욱 큰 군사모험, 즉 38도선을 넘을 것을 결심하여 전략적 속전속결로서 전조선의 점령을 기도하

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소련과 더불어 외교전략의 초점을 유엔군(미군)의 38도선 돌파저지 및 지연에 두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였다. 이들은 만일 유엔군이 38도선을 넘는다면 중공군이 참전할 것이라고 경고 및 위협하고 나섰다.

중공의 주은래는 9월 24일 미군 항공기가 안동(安東) 영공을 침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침략전쟁을 확대하고 나아가 이를 중국으로 뻗칠 결의를 더욱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는 내용의 항의문을 유엔본부로 보내는 한편 아래와 같이 경고하였다.<sup>39)</sup>

극동에서 미국에 의해 확대되고 있는 전쟁의 불꽃은 더욱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다. 만일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다수 국가의 대표가 아직도 미국의 조작에 고분고분하게 추종하여 이 침략적인 범죄행위에 계속 방어리 노릇을 한다면 그들도 동방에서의 전쟁의 불꽃을 점화한 데 대한 책임의 일부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유엔총회에서 38도선 돌파에 관한 논의가 임박해 오자 전쟁의 계속여부를 놓고 동요(動搖)하는 대표들의 마음을 반대진영으로 돌려 유엔군측의 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압력수단이었다.

다음 날인 9월 25일, 총참모장 대리 섭영진(聶榮臻)은 주중 인도대사 파니카(K. M. Panikkar)를 통해 “중공은 수수방관하여 미군이 조·중 국경선으로 올라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sup>40)</sup>

우리는 무엇을 당할 것인가를 알고 있지만 어떠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침략을 저지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미국은 우리를 폭격할 수 있고 우리의 산업시설을 파괴할 수 있으나 우리를 지상에서는 패배시킬 수 없다. ……그들은 아마 원자폭탄을 투하할지도 모른다. ……이로 인하여 수백만 인민이 죽을 것이다. 희생 없이는 국가의 독립이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주은래는 오스틴(Warren Austin)의 연설과 같은날 9월 30일에 ‘인민정치 협상회의 전국위원회’ 국경일 경축회의에서 미국에 대하여 “중국인민은 평화를 애호한다. 그러나 평화를 보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침략전쟁에 대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중국인민은 절대로 외국의 침략을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웃이 제국주의에 의해 침략을 당하는 것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sup>41)</sup>

총참모장 대리와 주은래의 발언은 액면상으로는 유엔군이 38도선을 돌파하면 참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동시에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한편 소련 외상 비신스키(A.Y. Vyshinsky)는 10월 2일 유엔군측의 8개국 안에 대응하여 “한반도에서 즉각 적대행위 중지, 외국군의 즉각 철수…… 한국과 국경을 같이하는 국가의 대표를 포함한 유엔위원단 감시하의 선거 실시”를 골자로 하는 대안을 제안하였다.<sup>42)</sup>

중공의 경고와 소련의 책략에는 유엔군의 복진을 저지 또는 지연하려는 강력한 의지와 기도가 분명히 내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달성될 수가 없었다. 평화의 파괴행위와 침략은 반드시 응징되어 국제사회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전장에서의 준비가 완료되었는가 하면 유엔총회 다수국이 이를 지지하고 있어, 침략의 공모 책임이 있는 두 나라가 거역할 수 없는 대세(大勢)였다. 결국 중공은 소련과 더불어 단계별 외교전략을 펴 유엔군의 지원을 저지 및 억제, 지연 및 철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진을 막기 위한 집요한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비록 중공이 이러한 외교적 책동에 있어 유엔군의 지원을 억제하고 북한의 군사작전을 도와 한반도를 공산화하려는 당초의 목표달성에는 실패하였지만 이 책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마스크와 대중운동을 통해 참전명분을 구축하고 확산시켜 인민을 전쟁에 동원하고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 4. 朝·中·蘇 作戰協議 및 戰況判斷

모택동과 중공지도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동북변방군을 편성하여 출병(出兵)에 대비하면서 적절한 외교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북한과의 특사 파견 및 군사사절단 교환을 통해 전황의 추이를 파악하고 작전을 협의하는 등 시의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며 전국(戰局)의 발전상황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갔다.

중공과 북한은 전쟁발발 당시 이미 외교관계를 수립한 상황(1949년 10월 6일)이었다. 북한측에서는 이주연(李周淵) 대사가 이미 북경에 부임하여 상주하고 있었으나 중국측의 주북한 대사 예지량(倪志亮)은 병으로 아직 부임하지 못하고 있었다. 중공측에서는 전황파악차 서둘러 특사를 파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공의 인민해방군 총참모부는 전쟁발발 3일째인 1950년 6월 27일, 트루먼 대통령의 미군 참전 성명발표 후 곧 '군사관찰 소조'의 평양 파견을 계획하였다. 이에 동북변방군 편성과 거의 때를 같이 하여 7월 7일에 정무참찬 시성문(柴成文)과 무관 주광(朱光)을 중심으로 구성된 7명의 대표단이 7월 10일 급거 평양에 도착하여 김일성을 만난 다음 업무를 시작하였다. 한편 대사 예지량은 이보다 약 1개월 후인 8월 13일에 부임하였다.<sup>43)</sup>

예지량은 자신보다 2일 앞서 평양에 도착한 곽말약(郭沫若)을 단장, 이립삼(李立三)을 부단장으로 하는 중공의 8·15 경축 사절단과 함께 광복 5주년 기념식에 참가하여 그 동안의 전황에 대한 경과보고를 듣고 지원을 다짐하였다. 이로써 조중(朝中) 관계는 더욱 긴밀해 갔고 중공으로서는 전국(戰局)의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집중할 수 있었다. 이때 인민일보는 북한의 전승을 찬양하고 성원을 보내는 사설을 실어 양국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대외적으로 과시함과 동시에 중공인민의 관심을 한반도의 사태로 유도하였다.

이 당시(8월 중순) 모택동은 이들을 통한 전황과악에서 한반도 전국(戰局)을 북한이 자체의 전력으로 전쟁을 종결지을 경우와 중공이 참여해야 할 상황으로 발전될 경우의 장단기(長短期) 두 방향으로 예상하고 후자의 상황이 전개될 경우 참전의지를 재천명하였다. 이는 그가 8월 19일 소련의 막스주의 학자 유진(P. F. Yudin)과 가진 대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up>44)</sup>

첫째, 미국이 이때까지의 전력수준으로 전쟁을 수행할 경우, 미군은 가까운 시일내에 패퇴할 것이며 이것이 상황전개에 가장 바람직하다.

둘째, 미국이 조선에서 승리를 거두려는 의지를 가지고 총력전을 펼치려면 30~40개의 사단이 필요한데, 이러한 경우, 북한 자체의 힘으로 이를 물리칠 수는 없으며 직접적인 중국의 힘이 필요한바, 북한과 중국의 협동전력은 미국의 30~40개 사단을 궤멸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실현되는 경우 소련과 중국에 유리하게 제3차 세계대전을 발발시킬 수 있는 기회가 조성될 것이다.

특히 이 대담에서 모택동의 참전의지 재천명은 전쟁의 공모과정에서 중공군의 파병 약속과 궤도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이 대담록은 중공이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세계대전의 모험도 두려워함이 없이 상당한 고려를 하였다는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어 이 점과 관련한 중요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

이후 8월 후반에 접어들어 전선에서 인민군의 공세가 좌절되고 교착상태로 접어들자 중공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장상황의 변화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23일에는 총참모부에서 모택동에게 미군의 전력증강과 해군력의 집결 등으로 미루어 국군과 미군이 인민군을 낙동강선에 집중시킨 다음 후방지역에 대한 상륙작전

을 감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하였다. 상륙지역으로는 인천, 원산, 남포, 군산, 함흥 등을 고려하였으나 가장 가능성이 높고 위협적인 지역을 인천으로 판단하였다. 인천이 남북한 교통의 중심, 즉 병참선의 중심지인 서울에 가깝다는 점이 군사적으로 높이 평가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판단에 접한 모택동은 동북변방군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9월 말까지 모든 작전 준비를 끝내도록 지시하고, 북한이 이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이를 소련과 북한으로 통보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그는 외무성과 총참모부에 상황변화를 예의 주시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하는 등 전국(戰局)의 역전(逆轉) 가능성과 이로 인해 초래될 위협에 지대한 관심을 표하였다.<sup>45)</sup>

모택동은 이보다 며칠 후 북경을 방문한 북한의 군사사절단장 이상조(李相朝)를 만나 전투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협의하면서, 자신들이 판단한 ‘유엔군이 한반도의 동서 양안 어느 곳에 상륙하여 후방으로부터 북한군을 공격할 가능성’에 북한이 관심을 기울이도록 강조하였다. 그는 이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 인천을 지적하며 북한이 우발계획을 준비하도록 제의하였다.

이처럼 모택동은 8월 말과 9월 초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의 대표단을 접견하고 그들로부터 전쟁의 경과를 설명들으며 상황전개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택동은 전쟁의 추이를, 첫째 북한 인민군이 미군을 전멸시켜 바다 속으로 몰아넣어 조기에 종결되는 경우와, 둘째 장기화되는 경우의 두 가지로 가정하고 이중 후자의 가능성에 대한 많은 조언을 하였다.<sup>46)</sup>

그는 후자의 경우, 미국이 대구-부산 지역의 방위를 강화하여 인민군의 전력을 동지역에 묶어 놓고 다른 방향으로 상륙작전을 전개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가능성에 대비하여 모택동은 북한 대표들에게 충분한 예비전력을 확보하고 예상 공격방향으로부터의 방어거점인 인천-서울 지역과 진남포-평양 지역의 경계 문제에 주의를 더 기울이도록 권고하였다. 그는 북한이 소련의 붉은 군대와 중공 인민군의 경



힘을 기초로 모든 전선에서 군사력을 적군의 섬멸에 목표를 두고 운용해야지 적군을 몰아내어 영토를 확보하고자 시도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모택동은 인민군이 전격전(電擊戰)을 수행할 군사력이나 예비전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적군이 적절한 시기에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그 결과 미군은 대구-부산 지역으로 후퇴하여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모택동은 낙동강 전선에서 인민군이 이미 1개월 이상 뚜렷한 성과 없이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서 일보의 전진도 못한 사실을 거론하였다. 그는 이 시점에서 북한의 모든 군사력을 낙동강 전투에 투입하지 말아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향후 가능한 경우 병력 재편성을 통해 새로운 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신속한 후퇴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 대담록은 모택동이 전황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북한이 이미 전격전에 의한 승리의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장기전 특히 후방의 상륙작전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8월 말의 상황판단에서 전세가 자신들이 참전해야 할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공의 한국전쟁 전황파악은 유엔군의 인천상륙 후 더욱 예민해졌다. 상륙 3일 후인 9월 18일에, 주은래(周恩來)는 주중 소련대사 로신(Roschin)과 군사고문관 코트브코노프를 초치하여 상황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전황파악에 소련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주은래는 “중국 지도부는 인천상륙에 관해 평양의 라디오 및 신문 보도 이외에는 다른 정보가 없다.”라고 언급하고 소련측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문의하였다. 그는 중국이 국경지역에 배치된 대규모 중국군을 북한으로 보내 야전상황을 관찰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평양측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하였다. 주은래는 모택동의 판단과 충고가 북한측에 의해 무시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또한 주은래는 주평

#### 40 제 1 장 中共의 韓國戰爭 參戰背景

양 중국대사가 군사상황에 관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적시에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주은래는 이 자리에서 인천상륙에 관해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알려진 정보에 기초한 모택동에게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소련측과 대처방안을 논의하였다.<sup>47)</sup>

첫째, 만일 북한이 서울과 평양에 10만의 예비병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륙한 적군을 섬멸시킬 수 있다. 이러한 예비병력이 없다면 현전선 유지를 위하여 군의 일부만을 잔류시키고 주력부대를 북쪽으로 철수시켜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군을 현 방어지역으로부터 이탈시켜 각개격파하는 전술을 취해야 한다.

둘째, 주타격 부대를 창설하여 결정적인 공격시까지 비밀리에 이를 유지해야 한다.

이로부터 2일 후(9월 20일) 주은래의 언급에 대한 모스크바의 회답이 북경의 소련대사관에 도착하였다. 소련은 우선 북한이 한반도에서 치러지고 있는 전쟁과정에 대해 중국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치 않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이는 전선에서의 혼란 때문이며 고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또한 모스크바도 평양 주재 대사로부터 전황에 관해 단편적인 정보만을 뒤늦게 제공받고 있으며 이것은 북한군의 경험 부족, 통신장비의 미비, 전황분석능력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모택동의 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sup>48)</sup>

첫째, 인천 및 서울 지역에 전개된 복잡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활용된 북한군의 전술, 즉 각 대대와 연대의 분산 배치와 전투는 실수였다.

둘째, 동 작전은 주전선으로부터 서울의 동부와 북부에 강력한 방어선을 형성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

셋째,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인천지역 상륙작전으로 전쟁상황이 복잡해짐에 따라 더욱 어려워졌다.

주은래는 9월 21일에 로신 대사로부터 위와 같은 모스크바의 입장을 전달받고 한반도의 상황평가가 자신들의 것과 다르지 않다는 데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이 자리에서 소련은 자신의 입장을 9월 18일에 북한에도 통보하였으며, 중국도 같은 맥락의 권고를 북한에 전달하였다는 서로간의 의견교환도 있었다.

중공은 소련과 인천상륙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이 무렵 5명으로 구성된 무관단(武官團)을 북한으로 추가 파견하여 중공군의 파병에 대비하였다. 이들은 9월 20일경 평양에 도착하여 김일성이 서명한 훈령을 받아 휴대하고 각자 다른 분야에서 북한의 군사상황을 조사하였다. 이에 앞서 동북변방군이 지난 8월 31일에 북한의 전반적 상황을 숙지하고 지형을 조사하며 장차의 전투를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하여 ‘선발대(先發隊)’를 파견하자는 제안을 하였었다. 그 당시는 수용되지 않다가 이번에 군사위원회가 이를 ‘무관단’으로 명명하여 북한에 파견한 것이다.<sup>49)</sup>

이와 더불어 주은래는 9월 20일에 한국전쟁에서 전개될 중공군의 작전에 대한 윤곽을 ‘지구전(持久戰)’으로 규정하고 아래와 같은 대원칙을 수립하였다.<sup>50)</sup>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은 자존(自尊)의 기초하에 지구전으로 수행해야 한다. 모든 전역과 전투에서 인력과 화력의 집중으로 우세를 획득하여 적군을 돌파 및 격멸해야 한다. 적을 점차 약화시킴으로써 우리는 지구전을 수행할 수가 있다.

이는 모택동의 승인을 얻어 평양 주재 중국대사를 통하여 김일성에 게도 통보되었다. 이후 중공지도부는 미국이 전쟁을 한·만국경선과 중국으로 확대한다고 항의와 경고를 연발하면서 참전의 최종결정을

위한 행보를 빨리 하였다.

이와 같이 중공은 한국전쟁의 개전 초기부터 전국(戰局)의 추이 판단에 지대한 관심을 경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소련과도 긴밀한 의견교환을 하였으며, 소련과 더불어 북한에 대한 전쟁지도(戰爭指導)에도 조언과 권고를 아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공의 이러한 관심은 인천상륙작전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였다. 결국 중공은 ‘파병조사단’ 역할을 할 ‘무관단’을 급파하여 파병에 대한 준비를 서둘렀다.

한편 전장에서는 이러한 중소(中蘇)의 충고도 역전된 전세를 만회하기엔 소용이 없었다. 국군과 유엔군은 38도선에 포진하였고 그 돌파는 명령상의 시간만을 남겨두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 무렵 이를 저지 또는 지연시켜 더 많은 전쟁준비시간을 획득하려는 외교적 노력마저도 실패함에 따라, 사전에 참전을 약속하고 남침전쟁을 조중(朝中)의 ‘공동과제(共同課題)’로 규정한 중공으로서는 준비된 군을 어떻게 얼마나 빨리 투입하여 한국전쟁에 개입하느냐 하는 군사적 선택만을 남겨 둔 상황에 처해 있었다.

### 제 3 절 朝 · 蘇의 支援要請과 派兵決定

#### 1. 스탈린의 中共軍 派兵 要請

중공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동북변방군을 편성하여 전쟁준비를 하는 한편 외교적 계책을 통해 참전명분을 축적하는 동안, 1950년 10월 1일 유엔군사령관의 김일성에게 보내는 항복 권유문 발표와 때를 같이하여, 국군의 선두부대가 38도선을 돌파했고 유엔군도 역시 북진작전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또한 유엔총회에서는 군사

작전에 뒤따를 통일문제에 관련하여 이른바 ‘한국통일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전환점(大轉換點)에서 9월 29일, 김일성과 박헌영은 스티코프 대사를 만나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다. 김일성은 국군과 유엔군이 38도선을 넘을지에 대한 분명한 의견도 갖지 못하고 현상황에 대한 당혹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며 스탈린에게 보낼 지원요청 서한작성과 관련하여 조언을 구하였다. 스티코프는 38도선의 신속한 방어조치를 취하도록 강조하였지만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에 의해 남침부대의 대부분이 포위 격멸되었고 후방 신편부대의 남쪽으로 이동도 늦어져 자체로서의 방위 능력을 상실한 상태이었다. 김일성은 이날 스탈린에게 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정하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일성, 박헌영 공동 명의로 다음과 같은 파병요청서를 작성하였다.<sup>51)</sup>

존경하는 이·브·스탈린 동지에게

조국 해방의 은인이시며 전세계 근로 인민의 수령이신 당신께서는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우리 조선 인민을 항상 고무 격려하여 주시며 각 방면으로 원조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 침략자를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해방전쟁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 침략군이 인천에 상륙하기 전에는 적들은 패전에 패전을 거듭하여 남조선의 최남부에 몰리게 되어 최후 결전에서 우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많았고 미국의 위신은 여지없이 추락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미군은 태평양 방면의 육·해·공군 거의 전부를 동원하여 9월 16일(15일)에 대병력을 인천에 상륙시켜 서울시에 침입하여 시가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황은 참으로 긴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민군은 미군 진공(進攻)에 대항하여 용감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선에는 우리에게 참으로 불리한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적들은 약 1,000여 대의 각종 항공기들이 주야를 구분하지 않고 출동하여 전선과 후방 할 것 없이 마음대로 무단히 폭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편으로부터는 대항할 항공기가 없는 조건하에서 적들은 참으로 공군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군들의 기동력은 최대한도로 발휘되는 반면에 우리 인민군들의 기동력은 악화 마비되고 있습니다.

적들은 우리 부대들의 교통, 운수, 연락망을 차단하고 진격하여 인천방면으로 상륙한 부대들과 남부전선에서 진공하던 부대들이 연결함으로써 서울을 점령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가지게 되고 우리 인민군대들은 남반부로부터 차단되고 남부전선에 있는 부대들도 여러 토막으로 차단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부대들은 식량과 탄약 공급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몇 개 부대들은 상호 분산되어 있으며 그중 일부는 적에게 포위되어 있는 형편에 처하여 있습니다.

서울시가 완전 점령된다면 적은 38도선을 넘어 북조선을 침공할 것입니다. 우리가 금일과 같은 불리한 조건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적의 침공은 결국 성공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의 군수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기동력을 보장하자면 무엇보다 공군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준비된 비행사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의 독립, 민주와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최후의 피 한방울까지도 아끼지 않고 싸울 것을 굳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력을 다하여 새 사단들을 많이 편성 훈련하며 남반부의 인민군대들을 일정한 지역으로 수습 집결시키며 또한 전인민을 총무장하여서까지 장기전을 계속할 모든 대책들을 강구 실시하려 합니다. 그러나 적들이 금일 우리가 처하고 있는 위급한 형편을 이용하여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계속 진공하여 38도선 이북으로 침공하게 되는 때에는 우리 자체의 힘으로써는 이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의 특별한 원조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적군이 38도선 이북을 침공할 때에는 소련군의 직접적 충돌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만일 그것이 여사한 이유로서 불가능할 때에는 중국과 기타 민주주의 국가들의 국제의용군을 조직하여 출동하도록 원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일성

박헌영

1950. 9. 29.

이 지원요청은 다음날(9월 30일) 스티코프 대사를 통해 국군이 38도선을 돌파하던 1950년 10월 1일에 모스크바에 타전되었으며, 스탈린은 이를 모스크바에서 멀리 떨어진 휴양지에서 접수하였다. 스탈린은 이 요청을 받고 “자진하여 미국과 직접적으로 대결할 모험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바람직한 원조의 형태는 ‘의용군’이 되어야 하고 이는 무엇보다 중공과 협의할 문제라고 생각하였다.”<sup>52)</sup> 그는 곧 주중 소련대사를 통하여 모택동에게 중공군의 파병을 요구하는 전문을 보냈다. 이와 아울러 자신의 의도를 주 북한 소련대사 스티코프(Shtykov)와 스탈린의 군사대표 마트베에프(A. I. Matveev)에게 통보하였다.

모택동이나 주은래에게 신속히 전달 바람<sup>53)</sup>

본인은 지금 모스크바에서 멀리 떨어져 휴가중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사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그런데 오늘 모스크바에서 전달된 소식으로 보아 본인은 북한 동지들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았음.

모스크바는 이미 지난 9월 16일(15일) 미군의 제물포(인천) 상륙

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북한 제1, 2군단을 북쪽의 후방과 차단시키려는 목적을 띠고 있다고 북한 동지들에게 경고한 바 있음. 모스크바는 북한이 남쪽으로부터 4개 사단을 신속히 이동시켜 서울 북쪽과 동쪽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점차 남쪽에 있는 군의 주력을 북쪽으로 이동시켜 38도선을 지키도록 권고하였음. 그런데 제1, 2군단사령부는 부대를 북쪽으로 이동시키라는 김일성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부대가 차단되고 포위당하게 된 것임. 북한 동지들에게는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부대가 없으며 38도선을 향한 길은 열려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임.

만일 귀하께서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에 병력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38도선으로 신속히 진군할 수 있으며 5~6개 사단만 파견되어도 북한 동지들이 귀군의 엄호하에 38도선 이북에서 예비부대를 편성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함. 중국 사단은 물론 중국인을 사령관으로 하며 의용군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을 것임. 본인은 이에 대해 북한 동지들에게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으며, 알리려고도 생각하지 않음. 그러나 본인은 그들이 이를 알게 되면 기뻐할 것임을 의심치 않음.

회신을 기다리겠음.

필리포프(스탈린)

1950. 10. 1

승리를 장담한 김일성의 정치적 위신과 자존심은 말할 것도 없고 전쟁을 승인한 스탈린과 이에 동의한 모택동의 명예도 함께 걸려 있는 중대한 기로에서 스탈린이 모택동에게 김일성을 구하도록 종용한 것이다. 전쟁전 중소(中蘇), 조소(朝蘇), 조중(朝中) 회담을 통해 아시아 공산주의 운동의 1차적 책임은 중공이 떠맡는 역할 분담을 하였고, 남침전쟁을 조·중의 공동과제로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미군의 개입시 중공군의 참전을 모택동이 약속한 만큼 이 상황에서



스탈린의 중공군 파병요청

Передано г. Булганину.

1. X. 50г. в 3ч. 00м.

ПЕКИН СОБПОСОЛ

Для немедленной передачи ЦАО ЦСЕ-ДУНУ или ЧЖОУ ЭНЬ-ЛАО.

Я нахожусь далеко от Москвы в отпуску и несколько оторван от событий в Коре. Однако, по поступающим ко мне сегодня сведениям из Москвы, я вижу, что положение у корейских товарищей становится отчаянным.

Москва еще 16 сентября предупреждала корейских товарищей, что высадка американцев в Йемульпо имеет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и преследует цель отрезать первую и вторую армейские группы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от их тылов на севере. Москва предупреждала немедленно отвести с юга хотя бы четыре дивизии, создать фронт севернее и восточнее Сеула, постепенно отвести потом большую часть южных войск на север 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обеспечить 38 параллель. Но командование 1 и 2 армейских групп не выполнили приказа Ким Ир Сена об отводе частей на север и это дало возможность американцам отрезать войска и окружить их. В районе Сеула у корейских товарищей нет каких-либо войск, способных оказать сопротивление, и путь в сторону 38 параллели нужно считать открытым.

Я думаю, что если вы по нынешней обстановке считаете возможным оказать корейцам помощь войсками, то следовало бы немедленно двинуть к 38 параллели, хотя бы пять-шесть дивизий с тем, чтобы дать корейским товарищам возможность организовать под прикрытием ваших войск воинские резервы севернее 38 параллели. Китайские дивизии могли бы фигурировать, как добровольные, конечно, с китайским командованием во главе.

Я ничего не сообщал и не думаю сообщать об этом корейским товарищам, но я не сомневаюсь, что они будут рады, когда узнают об этом.

...ду Вашего ответа.

Привет

МИЛИППОВ.

1 октября 1950г.

중공군이 먼저 나서는 것은 순서라고 보여졌다.

이 점에 관하여 흐루시초프는 그의 회고록을 통해, 당시 스탈린은 한국전쟁에서 미국과의 직접적 충돌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를 피하기 위하여 “비록 김일성이 패배한다 할지라도 소련은 병력을 파견하여 참전하지 않는다.”<sup>54)</sup>라고 말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인민군 보병사단에 파견된 소련 고문들이 전투에서 포로가 됨으로써 소련이 한국전쟁에 관련된 사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개전 직전에 이들을 철수시킨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결국 중공군의 파병중용은 자신들의 한국전쟁 지원사실을 은폐하고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간 상호원조조약상의 의무에 따라 중공이 미국과 전쟁상태에 들어가면 소련도 참전이 불가피하게 되므로 이때 스탈린은 이를 심각히 고려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볼코그노프(Dmitri Volkogonov)는 그의 저서 〈스탈린(Stalin)〉에서, 아래에 전제한 바와 같이, 스탈린은 중공의 참전이 동서 냉전과 연계되어 불가피하게 제3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할 상황까지 상정하고 중공군의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sup>55)</sup> 스탈린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다.

미국은 패권 때문에 거대한 전쟁으로 빠져들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을 전쟁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며 동시에 중국과 상호원조조약을 맺고 있는 소련도 전쟁에 몰아넣을 것이다. 이것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내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두 나라가 힘을 합치면 미국과 영국보다 강하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독일이 제외된 기타 유럽 자본주의 국가들은 대단한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다. 만일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의 일본 군국주의가 다시 부활되는 몇 년이 지나고서가 아닌 지금 전쟁이 일어나도록 하자.

스탈린은 전쟁계획 과정에서의 모택동과의 사전 합의사항에 따르

고, 일차적으로 미국과의 직접 군사적 충돌을 피하면서 김일성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중공군의 파병을 요청하되, 세계대전으로의 확전 가능성까지 심사숙고 하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이러한 고려에서 ‘의용군’ 형태를 취하도록 요망하였던 것이다.

## 2. 金日成의 中共軍 支援 要請

스탈린이 김일성의 파병 지원 요청을 받고 모택동에게 중공군을 지원하도록 요청한 날인 10월 1일에 김일성은 외상 박헌영을 위시한 그들의 대표단을 북경으로 급파하여 모택동에게 중공군을 파병해 주도록 간청하였다. 이날 박헌영은 항공편으로 북경에 도착하여 주은래와 모택동을 만나 중공군의 출병을 간청하면서 휴대한 김일성의 서신을 모택동에게 전하였다. 그 서신은 스탈린에게 보낸 것과 유사하게 당시의 절박한 군사상황을 설명하고 장기 항전결의를 다짐하며 중공군을 급히 파병해 주도록 요청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한반도 해방전쟁의 전황은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기 전에는 북한군에게 유리하여 상대는 연전연패의 상황에서 한반도 남단의 소지구내에 갇힌 꼴이 되었습니다. 북한 인민군은 최후의 결정적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으며 미국의 군사적 위신은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때 미국은 위신을 회복하면서 한반도의 식민지화와 군사기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태평양 지구의 육·해·공군 병력 거의 전부를 급히 동원하여 9월 중순 인천에 상륙한 후 이어서 서울마저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북한군은 상륙군에 대하여 완강한 저항을 하였으나 상륙군이 남부전선 부대와 이미 연결되어 버려 북한군의 허리를 잘라 버렸고 남부전선의 북한군은 차단되어 분할의 상황에 빠져버린 상태입니다. 상대는 서울을 점령 후 계속 진격할 듯하

며 만일 북한군이 각종의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상대의 의도대로 움직여 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어려움을 극복할 작정이며 반드시 한반도의 식민화나 군사기지화를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피흘리는 일을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며 최후의 한방울의 피가 흐를 때까지 독립해방 민주투쟁을 끝까지 쟁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현재 모든 역량을 다하여 새로이 사단편성에 착수하고 있으며 남부전선의 10여만의 부대들도 작전에 유리한 지역으로 집결시키고 있고 전인민을 동원하여 장기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대가 우리가 처한 위난을 이용하여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지않고 계속 38도선 이북 지구로 진격해 온다면 우리들로서는 우리들 자신만의 역량에 의지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부득불 당신에게 특별한 원조를 간청합니다. 상대들이 38도선 이북으로 진격해 오는 이 상황에서 중국인민해방군이 직접 출동하여 우리 군의 작전을 도와 주시기를 급한 가운데 바라마지 않습니다.<sup>56)</sup>

김일성은 박헌영의 북경 파견과는 별도로, 같은 날(10월 1일) 저녁 평양 중공대사관 지하실에서 열린 ‘중공 건국 1주년 기념 연회’에 나타나 대사 예지량(倪志亮)과 정무참찬 시성문(柴成文)을 만나 “중국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군대를 파견하여 북한군의 작전을 지원해 주도록” 간청하였다. 그는 “택아더가 나에게 악수를 하자고 하는데 우리들의 습관에는 악수란 것이 없다”라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흔들며 대면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압록강변에서 대기중인 중공군 제13병단이 도하하여 도와 주기를 요망하였다. 대사는 요청사항을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북경으로 전하겠다고 확약하였다.<sup>57)</sup>

김일성이 박헌영을 북경에 파견한 데 이어, 또 한편으로 평양주재

중공대사를 통하여 중공군의 출병요청을 한 이날, 1950년 10월 1일, 전선에서는 김일성이 지원요청문에서 우려한 대로 국군의 38도선 돌파작전이 개시되었다. 뿐만 아니라 맥아더 장군은 김일성에게 “불원간 인민군과 전쟁잠재력의 완전파괴가 불가피하므로 더 이상의 불필요한 유혈과 재산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복하라.”고 요구하였다.<sup>58)</sup>

그러나 김일성은 다음날(10월 2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명의로 “인민군은 조직성 있게 북쪽의 새로운 진지로 철수하면서 계속적으로 저항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는 맥아더의 항복권유를 수용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결국 김일성은 전쟁을 일으켜 미증유(未曾有)의 동족상잔과 국토의 폐허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응징을 당하자 소련군이나 중공군을 끌어들이어 더 큰 전쟁과 더 큰 비극의 모험을 감행하려고 기도하였던 것이다.

### 3. 毛澤東의 中共軍 派兵 決定

중공으로서는 지원군의 파병을 요청받은 날이 새 정부가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전진해 나가는 두 번째 해를 시작하는 의의 깊은 날이기도 하였다. 이날 천안문 광장에서 모택동 임석하에 건국 1주년 기념행사가 요란하게 진행되었다. 저녁 늦게 행사에서 돌아온 모(毛)는 소련과 북한이 요청한 중공군 파병건을 다루기 위하여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임위원 회의를 소집하였다. 이들은 다음날 북경의 군사계획관들을 참석시켜 정치국 확대 상임위원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모택동은 이날 밤 이 문제를 놓고 자정을 넘기면서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군사상황의 위험, 중공이 참전여부에 따라 직면할 제문제, 그리고 ‘세계가 공미병(恐美病)에 걸려 있을 정도의 강대국’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미국과의 전쟁에서 초래될 결과 등을 숙고한 끝에 다

### 모택동의 중공군 참전결정

#### 友邻危急，毛泽东决心派兵援助

1950年10月1日，新中国迎来了建国后的第一个国庆节，全国一片欢腾气氛。

也正是10月1日这一天，从朝鲜传来消息，美、韩军已经越过三八线。

同日，朝鲜劳动党总书记金日成向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向中共中央提出了急盼中国人民解放军出动援助的请求。是出兵参战？还是不出战？这一重大问题已刻不容缓地摆到了新中国的领袖面前。

国庆之夜，北京天安门广场，多姿多彩的焰火把夜空点缀得像是仙境，明亮的探照灯光芒，在空中欢快地跳跃，广场上，欢声笑语汇成了欢乐的海洋，……中略……

夜深了，毛主席和其他中央领导走下天安门城楼，乘车返回住处。毛泽东回到中南海，下了汽车，走进他的办公室。

夜，灯光并不明亮。

墙上幅很大的世界地图，毛泽东主席严肃地站在地图旁，久久地凝视着地图上的朝鲜半岛和我国领土台湾海峡。

多少天来，毛主席夜不眠，反复思考出兵援朝问题。这时，他正忙于决策思维的复杂过程中。朝鲜是我国的邻邦，在帝国主义侵略的危险时刻，作为新中国的最高领导者，应该采取什么样的决策，是一个十分重大的问题。他在考虑着中国前进的艰难道路和面前的抉择：……中略……

……毛泽东考虑：一是从国际主义的整体利益出发和反对美帝称霸世界的需要，必须出兵支援朝鲜人民；二是美帝扩大侵略战争，不仅是危及朝鲜民主主义共和国的生存，而且

也是针对中国的。美帝长期顽固执行支持蒋介石集团与中华人民共和国为敌的政策；三是我们同美帝的一场较量是不可避免的。美帝有经济技术装备优势，但也有弱点，是可以战胜的。毛泽东是一位具有远见卓识的战略家。他高瞻远瞩、胸怀全局，面对强敌，无丝毫怯意。他科学分析形势，以革命领袖的勇往直前的胆识和气魄，战略上的高超决策艺术，决心派兵支援朝鲜。

房顶迴声环绕，隐约可见毛泽东主席在来回踱步，不停地抽着香烟，那沉重而响亮告诉人们，毛泽东主席正在为共和国的命运以及祖国命运筹谋。

时间又过了半个小时，墙上时钟正指向2时整。毛主席走到

음과 같은 결론을 얻고 마침내 중공군을 북한에 파병하여 지원한다는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sup>59)</sup>

첫째, 국제공산주의의 전체 이익을 고려하고 미국의 세계제패에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반드시 출정하여 북한 인민군을 도와야 한다. 둘째, 미국이 전쟁을 확대하게 되면 이는 비단 북한의 생존 위협에 국한되지 않고 곧바로 중공으로 직결된다. 미국은 장개석 집단을 지지하고 중공을 적으로 삼는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해 오고 있다.

셋째, 중공이 미국과 한번의 싸움을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이 경제와 기술 장비면에서 우세한 것은 사실이나 그곳에도 약점이 있기에 싸워서 이길 수도 있다.

결국 모택동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공식요청이 있기 며칠 전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장고 끝에, 이날 10월 2일 02:00에 그 스스로 이 국가적 대사인 참전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그는 이 결정 후 곧 동북변방군 관할 책임자인 고강(高崗)과 제13병단 사령관 등화(鄧華)에게 원래의 계획일정보다 앞당겨 준비를 완료하고 새로운 적과 싸울 작전 명령을 대기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날(10월 2일) 15:00경 정치국 상임위원회 확대회의가 열렸다. 상임위원인 모택동(毛澤東), 유소기(劉少奇), 주덕(朱德), 주은래(周恩來)가 전원 참석하고 동북군구사령관 고강(高崗) 그리고 총참모장 대리 섭영진(聶榮臻) 등이 참석하였다. 회의 벽두에 모(毛)는 현시점에서 참전해야 한다는 그의 의향을 밝혔다. 그는 북한의 정세가 대단히 위태롭다고 강조하고 “문제는 북한으로 병력파견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파견하느냐에 있다. 하루 차이가 전체 상황에 결정적이 된다. 오늘 우리는 두 개의 긴급한 문제: 언제 한반도로 병력을 투입할 것이며 누구를 지휘관으로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모의 연설은 단호하였고 그것은 회의의 결론을 지시한 것이

었으며 또한 모의 이 생각은 중공지도자들의 장차 한반도에서 중공의 역할 논의에 기초(基調)가 되었다.

결국 이날 회의는 모(毛)의 결정을 기정사실로 하고 파병일자와 지휘관의 결정이 중심의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그들은 먼저 지휘관 선임문제를 논의하였다. 지휘관 건은 만일 임표(林彪)가 수락한다면 쉬운 문제였다. 그는 인민해방군의 탁월한 지휘관으로서 명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국공내전(國共內戰)시에는 제4야전군사령관으로서 대부분 동북지역에서 전투를 하였다. 따라서 그는 만주와 한만국경지역 지리에 밝았다. 뿐만 아니라 동북변방군에 편성된 군단들이 그때 제4야전군 소속이었다. 따라서 그는 파한(派韓)할 중공군 지휘관의 적격자로 고려되었다. 그러나 그는 신병(身病)을 이유로 이 직책의 수락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앞서 가진 파병 논의에서 그 필요성에 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하였다. 그는 중공이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미국은 기술적으로 중공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직접 대결해서는 안된다고 믿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대안으로 팡덕회(彭德懷)를 본인이 수락한다는 조건으로 사령관으로 결정하였다. 그는 중공군 창건자의 한 사람으로서 1920년대 말부터 모택동과 더불어 많은 전투에 참전하여 큰 재능과 넓은 안목을 가진 지휘관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는 국공내전간 제1야전군 사령관으로서 서북지역에서 전투를 하였다. 중공정부가 수립될 때에는 서북국 제1서기·서북군 정치위원회 주석·서북군구 사령관 겸 정치위원이었으며 그후 중앙정부 인민군사위원회 부주석 겸 인민해방군 부총사령관의 직위에 올라 있었다.

다음 그들은 파병시기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대답은 기본적으로 동북변방군이 최종준비를 얼마나 빨리 완료하느냐와 한반도의 상황발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용해 주느냐에 달려 있었다. 그들은 이 두 요소를 고려하여 투입일자를 10월 15일경으로 결정하였다. 그주(14일) 이내에 파병한다는 것이었다.



그밖에 이 회의 말미에 모(毛)는 일련의 결정사항을 스탈린에게 통보하여 북경과 모스크바가 전시 중소(中蘇)간 군사협력 문제에 대해 구체적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의하고 동의를 얻었다.

결과적으로 중공(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임위원회)은 10월 2일에 파병 결단을 내렸고 팽덕회를 지휘관으로, 10월 15일경에 부대를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sup>60)</sup>

이 결정 후 중공은 두 가지 중요한 외교적 조치를 취하였다. 그 하나는 스탈린의 파병요청에 대한 모택동의 회신이며, 다른 하나는 주은래가 트루먼 행정부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그런데 이 조치는 정략적(政略的) 성격의 것으로서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한 것이었다.

우선 모택동은 10월 2일 회의가 끝난 후 곧 스탈린의 요청문에 대한 회신 형식으로 전문을 보냈다. 그런데 이 서한은 자신과 정치국 상임위원회가 결정한 사실과는 달리, 러시아가 공개한 문서에 의하면, 당면한 상황이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달라졌다는 전제하에 아래와 같이 대단히 신중하고 유보적인 내용으로 작성되었음이 밝혀졌다.<sup>61)</sup>

모택동의 회신문 내용은 자료에 따라 상이하나, 여기서는 소련자료가 더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되어 이를 인용하였다.

귀하의 50.10.1일자 전문을 접수하였음. 우리는 처음에는 적군이 38도선을 넘어설 때에 북한에 수개 사단의 의용군을 지원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바, 그러한 행위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임.

첫째, 수개 사단을 가지고 조선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우리 군의 장비는 취약하며 미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음.) 적군은 우리의 퇴로를 차단할 수도 있음.

둘째, 이는 중국과 미국과의 직접적 충돌을 야기시킬 것이며 소련도 개입될 수가 있는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확대될 것임.

우리 중공공산당의 많은 인사들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물론 우리 군대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북한 동지들은 매우 곤란하게 될 것이나 이를 견디어 내야 함. 만일 우리가 수개 사단을 파견하여 미군과 직접 충돌한다면 우리의 평화적인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며 우리 인민들은 크게 불만스러워할 것임. (인민들은 전쟁의 상처로부터 치유되지 못하였으며 평화가 필요함.)

따라서 지금은 군대를 파견하지 않고 차후의 전투에 대비하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봄. 북한은 패배를 겪는 당분간 투쟁 방식을 빨치산 전투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임. 우리는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였으며……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님. 이는 우리의 예비적인 회신이며 귀하와 계속 협의하기를 바람. 귀하가 동의한다면 우리는 곧 주은래와 임표 동지를 귀하의 휴양지로 파견하여 귀하와 이 문제에 관하여 협의하고 북한과 중국의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음.

모택동

1950. 10. 2.

모택동은 김일성의 남침전인 1949년 4월과 1950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일본군 또는 미군 개입시 중공군을 파견하겠다고 약속하였고 남침후인 1950년 7월 2일에는 주은래가 로신(N. V. Roschin) 대사와 한반도 전황을 평가하면서 “만일 미군이 38도선을 넘어온다면 중국군은 북한군으로 가장하여 전투에 참가, 미군에 대항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를 위해 중국지도부는 이미 심양(瀋陽)에 3개군 12만 명을 집결시켜 놓았음을 상기시키면서 출병지원방침을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8월 19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친 유진과의 대담에서도 모택동은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려면 30~40개 사단을 필요로 할 것이고, 이 경우 북한은 자체의 힘으로 이를 물리칠 수 없으므로 중

국의 직접적 도움이 필요한바 북한과 중국의 합동전력은 미국의 이들 사단을 궤멸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중공군의 파병의지를 재천명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미 동북변방군에 9월 말까지 참전준비를 끝내도록 명령한 바 있다.

당시 주중대사 로신은 10월 3일 모택동의 회신문을 모스크바로 타 전하면서 모택동의 입장변화에 대해 스탈린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sup>62)</sup>

모택동의 회신은 한국문제에 관한 중국지도부의 당초 입장이 변화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의 회신은 모택동이 유진·코트브코노프와의 면담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내용 및 본인이 유소기(劉少奇)와 가진 면담 등 이미 보고되었던 이전의 평가와 상충되고 있습니다. 동 면담에서 중국인민과 인민군의 도움이 필요할시 북한인민을 도와 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미군이 일본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타도할 능력이 있다고 한바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조선에 5~6개 사단만이 아니라 더 이상을 파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중국 군대는 대전차용 장비 및 대포 등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입장변화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모택동은 미군의 참전시 중공군의 파병을 사전에 북한과 소련 정부에 확약하고 이에 대비한 준비로서 전군의 전쟁준비를 강화하는 한편 동북변방군의 출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전쟁 음모과정에서의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의 전력과 기세로 보아 공중전력을 갖추지 못하고 전투장비도 열세한 지상군 위주의 중공군으로서 대적하기가 어렵게 된 것은 사실이었다. 따라서 모택동의 신중한 의사 표현은 이 결정의 통보에 앞서 소련공군의 지원보장을 받고 그밖에 전투장비의 추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발상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주은래는 그 회의 다음 날인 10월 3일 이른 아침 주중 인도대사 파니카(Panikkar)와 면담을 갖고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미국 행정부에 전달하도록 요청하였다.<sup>63)</sup>

미군이 38도선을 돌파하여 전쟁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만일 그들이 진정 그렇게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함이 없이 그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쟁에 개입할 것이다.

주은래의 경고 메시지는 위에서 보듯이 중공 공산당 최고 지도자들이 한국전쟁에 참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한 후에 보내졌다. 그러나 이 결정 사실이 밝혀지기 전 지금까지 이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중공이 미국과 직접적 군사 대결을 원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이용되어 왔다. 즉, 이 경고는 중공과 미국의 직접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으며, 미국이 이에 신중히 대응해 유엔군에게 38도선 돌파명령을 하달하지 않았더라면 중공의 군사개입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의 뒷받침에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미 참전결정을 해놓고 이를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위의 논리는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주(周)의 경고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하지만 모(毛)와 주(周)의 마음속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현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련되는 여러 단서들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추정이 가능하다.<sup>64)</sup>

첫째, 군사적으로, 유엔군의 북진을 지연시키기 위한 아주 계획적인 것이었다. 당시 중공은 참전준비를 해왔고 참전결정을 하였지만 부대를 투입하기엔 준비시간이 더 필요하였다. 중공지도부는 유엔군의 북진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자신들이 행동하기 전에 한만 국경선까지 도달하게 되면 개입할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유엔군의 북진을 지연시킬 어떤 조치가 필요

하였다.

둘째, 정치적으로, 참전의 정당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인 것이었다. 중공지도자들은 국내적으로 항미원조(抗美援朝) 운동을 촉진하여 국민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노력중이었고, 국제적으로는 참전을 통해 자신들의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였다. 적대행위에 관한 정당성의 확보가 자신들의 이러한 기도의 추진에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의 많은 어려움을 해결해 주리라고 믿었다.

북경에서는 이 외교적 조치를 취한 다음 날인 10월 4일에 공산당 정치국 중앙위원회가 열렸으며, 주 의제는 상임위원회가 결정한 중공군의 한국전쟁 파병 건이었다. 이 회의에는 정치국 요원과 팽덕회를 포함한 주요 지도자들이 거의 참석하였다. 모(毛)는 회의 벽두에 상임위원회가 중공군을 한국전쟁에 파병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선언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파병과 관련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른 논의에서 임포와 고강을 비롯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요지로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공군의 단독파병에 대해 유보적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날의 회의에서는 이러한 견해가 우세하였다.<sup>65)</sup>

첫째, 중국은 수십년간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거대한 경제적, 재정적 문제를 안고 있다. 경제를 회복하고 재건하기 위하여 중국은 평화적 회복기간을 필요로 한다. 파병은 국내의 불만을 야기할 수도 있다.

둘째, 중국은 어려운 정치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국가가 아직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였고 대만과 일부 근해도서(近海島嶼)가 여전히 국민당 잔존세력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더욱이 ‘해방구역’의 토지개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참전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약화시킨다.

셋째, 중국군은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지형에서 작전하게 되고 제 공권과 군수지원의 보장이 없는 가운데 전쟁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군은 우세한 미군의 화기와 장비에 많은 손실을 입을 수가 있다.

모택동은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회의의 폐회에 앞서, “당신들의 발언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웃 인민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수수방관만 할 수가 있느냐? 이는 참으로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고 우회적으로 그 발언에 대한 부동의 함을 표명하였다.

모택동의 파병결심은 정치국원들의 이러한 유보적 자세로 인하여 조금도 약화되지 않았다. 그는 그의 판단이 옳다는 데 대한 확신에 차 있었다. 다음날(10월 5일) 속개된 회의에서 사령관직을 수락한 팡덕회는 모택동의 뜻을 받들어 파병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발언을 하였다. 그는 한국전쟁 참전으로 중공은 미국의 ‘방자함’과 국내 반동세력의 ‘거센 바람’ 양자를 한꺼번에 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참전은 절대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팡(彭)의 발언으로 회의 분위기는 반전(反轉)되었고 파병이 가져올 이점의 논의에 집중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아래와 같은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sup>66)</sup>

첫째, 조선문제는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아시아, 아마도 세계의 사회주의 진영과 제국주의 진영 간 대결의 초점이 되었다. 파병은 단순히 조선을 구하기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아시아와 세계의 혁명을 옹호하고 촉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둘째, 조선의 안전은 중국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 만일 미군이 압록강에 도달하게 된다면 중국은 중요한 전략적 완충지대를 상실

하게 되고, 동북국경 방어에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된다.

셋째, 중국과 미국의 상황을 비교할 때, 중국은 인력, 정신력, 인민의 지원면에서 미국보다 우세하며 이는 화기와 장비면에서의 열세를 보상하여 상호 균형을 이루게 한다.

회의 말미에 모택동은 “우리들이 출병하여 참전한다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이웃 우호 국가이며 중국 인민으로서는 미국이 자행하는 일들을 모르는 체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순망치한(唇亡齒寒) 호파당위(戶破堂危)입니다. 우리들은 마땅히 참전하여야 하며 반드시 참전하여야 합니다. 참전하게 되면 그로써 발생하는 이익은 대단히 크며 참전하지 않으면 그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엄청납니다.<sup>67)</sup>

따라서 우리들에게는 오직 하나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어려움과 위협에 직면하더라도 우리는 참전해야 합니다. 그것도 평양이 적에게 점령되기 전에 긴급히 파병해야만 합니다.”라고 참전 필요성을 거듭 역설하였다.<sup>68)</sup>

동 회의의 폐막연설에서, 모택동은 “조선을 중국의 문턱으로 간주한다고 말하고 과거 일본이 조선 강점후 조선을 중국 침공의 교두보로 이용하였음을 언급하면서 중국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할 미국의 조선 장악을 용인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소련에 대해, “소련은 조선의 사태에 개입할 당위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하고 중국과 소련 간에는 우호 및 상호원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양국간의 관계는 긴밀하다.”라고 언급하였다. 특히 그는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경우 소련은 조약상 중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참전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은 이미 10월 2일 정치국 상임위원회에서 내렸기 때문에 10월 4~5일의 회의는 엄격한 의미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는 아니었다. 모(毛)의 목적은 이 회의를 통해 소위 그

의 방식인 ‘민주적 절차’를 거쳐 자신의 결정에 대한 수락을 확보하는데 있었다.

회의 후 모택동은 주은래·고강·팽덕회를 별도로 불러 파병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여기에서 모(毛)는 파병이 지연될 경우 운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면서 빠른 시간내에 참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고강과 팽덕회에게 심양으로 직행하여 동북변방군의 사단장급 이상 지휘관에게 참전결정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10월 15일까지 조선으로 진입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동시에 주은래로 하여금 모스크바로 건너가 참전할 중공 지상군에 대한 소련 공군의 지원과 장비보급의 문제를 종결짓도록 하였다.<sup>69)</sup>

이와 같이 중공군의 파병은 10월 2일 모택동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여 정치국 상임위원회에서 확정된 후, 10월 4~5일 중앙위원회의 요식행위 절차를 거쳐, 팽덕회를 사령관으로 10월 15일까지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처럼 이 결정은 계획된 것이었으며 미군의 38도선 돌파(10월 9일) 이전에 이루어졌다. 중공이 최근에 편찬한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에는 이를 10월 상순에 결정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sup>70)</sup>

1950년 10월 상순, 중국중앙정치국은 모택동 주석의 주관하에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출병하여 조선을 원조하는 문제를 토의하였다. 당시의 국제 및 국내적 형세를 심도있게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를 이해득실을 저울질하였다. 그리하여 무산계급적 국제주의 및 애국주의 입장에서 조선을 위기로부터 구하고 아울러 국가의 안전을 보위하며 동방 및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연히 항미원조(抗美援朝), 보가위국(保家衛國)의 중대한 전략결정을 내렸다. 모든 곤란을 극복하기로 결심하고 중국인민지원군(中國人民志願軍)을 조직하여 조선전쟁에 참전, 조선인민과 공동으로 미국의 침략을





중공이 한국전쟁에 중공군을 파병하기 위하여 거국적인 '항미원조 보가위국'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격퇴하기로 하였다.

출병참전의 정책을 확정한 후 중공 중앙은 참전 후의 전쟁형세에 발생가능한 변화를 고려해 두 가지 전략을 채택하였는데, 하나는 한반도에서 미군(유엔군)을 축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이 중공본토를 해·공군으로 공격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항미원조전쟁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sup>71)</sup>

그 하나는 조선 영토에서 미국과 기타 국가의 침략군을 섬멸하고 축출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 군대가 조선 영토에서 미국 군대와 싸움으로써 미국이 중국과 전쟁상태에 들어감을 선포하는 것에 대비하는 것으로서 최소한 미국이 공군을 이용하여 중국의 많은 대도시 및 공업기지를 폭파하는 것과 해군으로 연해지역을 공격하는 것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중에 우선적인 것

은 중국의 군대가 조선 영토에서 미국군을 섬멸하여 효과적으로 조선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아군이 미국군을 섬멸하려면 미 제8군을 섬멸해야 한다. 두 번째 문제(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선포)의 심각성이 여전히 존재한다하나 이때의 형세는 혁명전선과 중국 모두에 유리하게 변할 것이다. 동시에 중공 중앙은 아군이 유리하게 작전을 이끈 후에 미국과의 외교적 담판 가능성도 예측하였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제1전략(한반도에서 미군의 섬멸)의 수행 방안으로서, 병력운용면에서는 먼저 동부변방군 4개 군(군단규모) 12개 사단이 참전한 후에 7개 군(군단규모) 24개 사단을 제2, 제3차로 축차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단 수는 당시 국군과 유엔군 사단수의 배가 되는 규모였다.

작전지도면에서는 그들이 입북하여 평양-원산선 이북 산악지역에 근거지를 형성한 후 이 선의 북쪽과 덕천(德川)-영원(寧遠)선 남부 지구에 2~3개의 방어선을 구축하여 제1단계로 방어전을 수행하다가 제2단계에서 반격으로 전환하여 ‘미침략군’을 섬멸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방어단계에서는 적이 공격해 오면 방어선 전방에서 적을 분할하여 소규모 단위로 섬멸하며, 만일 적이 평양-원산 선에서 공격해 오지 않더라도 6개월 이내에는 현방어선을 고수하며 나아가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소련으로부터 구매한 장비가 도착할 때까지 그리고 이 장비에 대한 훈련이 완료되고 지상과 공중에서 상대에 대한 압도적인 우세한 조건을 갖출 때까지 기다린 후, 다시 말해 6개월 이후에 공세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었다. 즉 그들의 당초 전략은 6개월 간의 방어 및 준비기간을 가진 후에 공세로 전환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1전략의 추진과 더불어 중공은 제2전략에 대비한 조치도 강구하였다. 우선 “전공방공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국토 방공업무에 박차를 가하여 미국의 공군이 그들의 대도시와 공업기지를 폭격하는

것을 방호하도록” 조치하였다. 또 복건성(福建省)과 광둥성(廣東省) 방면에 4개 군(군단)을 배치함으로써 미국의 해군이나 장개석 군대로부터의 연해지역 공격을 방어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와 함께 중공 중앙은 지시를 내려, 전당원 및 전국 인민이 당면 사태를 정확히 인식하여 승리에 대한 신념을 확립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들은 “우리는 비단 출병 참전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제국주의에 승리하여야 한다. 미국은 종이호랑이이기 때문에 경제력과 무기와 장비가 우수하다 해도 그 침략행위가 전세계 인민의 반대를 받고 있으므로 정치적으로 고립될 것이다. 군사면에서 미군 역시 약점이 있으니 전선은 길고 후방은 멀며 병력은 부족하고 사기 또한 높지 않다.……원자 무기는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전쟁승부를 결정지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중국과 조선인민에 속한다.”라고 논리를 폈다.<sup>72)</sup>

특히 모택동은 당시 핵무기에 대해, “원자탄은 대량파괴 무기의 하나이지만 전쟁의 결과는 인민에 의해 결정되지 한두 개의 새로운 무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시각으로 평가절하하고 있었다.<sup>73)</sup>

이와 같이 중공은 국내 정치·경제의 어려운 여건과 군사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참전이 국가안보와 국제적인 위상에 미칠 긍정적인 면에 비중을 두어 참전을 결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그들은 전쟁전략을 한반도 전역전략과 본토방위전략으로 구분하여 수립하고 각각의 전략수행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미국을 종이호랑이로 몰아붙이고 국민의 전의를 부추기며 전쟁준비를 조직적으로 추진해 나아갔다. 여기에는 특히 모가 중앙정치국 회의 폐막연설에서 강조한 것처럼 모스크바의 모택동·스탈린 회담과 협정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 제 4 절 ‘抗美援朝’ 中共軍의 編成과 出兵準備

### 1. 東北邊防軍, ‘人民志願軍’으로 改編

모택동은 중앙정치국회의를 통해 중공군의 파병결정을 추인하고 명분을 세운 다음 10월 8일에 중국 인민혁명군사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그동안 출전태세를 갖추어 온 동북변방군(東北邊防軍)을 인민지원군(人民志願軍)이라는 이름으로 개편(개칭)하고 한반도로의 진입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로써 출병일자를 일주일 앞두고 출병준비에 박차가 가해졌다.

그런데 개편명령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전쟁에 투입된 중공군은 동북변방군이 주축이 된 중공의 정규군인 ‘인민해방군(人民解放軍)’의 일부이었다. 그러함에도 이들을 지원군(支援軍)이라 하지 않고 지원군(志願軍)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이는 중공정부가 정식으로 파견한 군이 아니라 인민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조직된 군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위장 술책이었다. 즉, 중공군의 파병이 미국 또는 유엔 회원국과 전쟁을 하려는 국가차원의 조치가 아니라 중공인민이 ‘조선인민’을 돕는 민간차원의 일이라는 의미로 포장하려는 것이었다. 풀어말해 ‘참전이 선전포고(宣傳布告)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상대(美國)에게 전하기 위해 위장한 것이다. 그들의 항미원조전사(抗美援朝戰史)에 기술된 인민지원군의 편성 및 출병명령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sup>74)</sup>

#### 인민지원군 편성 및 출병명령

- (1) 조선인민의 해방전쟁을 원조하고 미 제국주의 및 그 앞잡이들의 진격을 반대하여, 이로써 조선인민·중국인민 및 동방 각국

인민의 이익을 보위하기 위해, 동북변방군을 중국 인민지원군으로 개칭하여 신속히 조선 영토로 출동시켜, 조선동지와 합동으로 침략자들에 대한 작전을 전개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한다.

- (2) 인민지원군은 제13병단 사령부 및 그 소속의 제38, 제39, 제40, 제42군과 동북변방 포병사령부 및 그 소속의 포병 제1, 제2, 제8사단을 관할한다. 상술한 각 부대는 준비완료되는 즉시 출동을 기다린다.
- (3) 팡덕회(彭德懷)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겸 정치위원에 임명한다.
- (4) 중국인민지원군은 동북행정구를 총 후방기지로 삼는다. 모든 후방업무 및 군수사업이 조선동지를 원조함에 적절하고 유리하게 되도록 동북군구 사령관 겸 정치위원 고강(高崗)이 그 임무를 지휘하고 책임진다.
- (5) 중국인민지원군은 조선 영토에 들어가 반드시 조선인민·조선인민군·조선민주정부·조선노동당(공산당)·기타 민주당파 및 조선인민의 지도자 김일성에 대하여 우애와 존경을 표시하고 군사기울 및 정치기울을 엄격히 준수한다. 이는 군사업무의 완성을 보증하는 하나의 중요한 정치기초이다.
- (6) 각종의 발생 가능한 상황과 반드시 겪어야 할 어려움 등을 신중하게 예측하고 고도의 정열, 용기, 세심함과 각고의 인내정신으로 곤란을 극복할 준비를 한다. 현재의 국제정세와 국내정세는 우리에게 유리하고 침략자에게는 불리하다. 동지들이 결연하고 용감하며 조선인민과 단결을 잘하고 침략자와의 작전을 잘 할 수만 있다면 최후의 승리는 우리들의 것이다.

중국인민혁명군사위원회 주석 모택동

1950년 10월 8일, 북경에서

이와 같은 파병결정에 따라 지원군 편성 및 출병 명령을 하달한 모택동은 같은 날(10월 8일) 스탈린에게 이 사실을 통보함과 아울러 출병에 따른 소련의 지원을 보장받기 위하여 주은래를 비밀리에 모스크바로 급파하였다. 아울러 김일성에게도 다음과 같은 전문을 보내어 이를 통보하였다.<sup>75)</sup>

중국정부는 지원군을 입북시켜 조선인민군을 지원토록 한다.  
 팡덕회(彭德懷)를 인민지원군 사령관 겸 정치위원으로 한다.  
 지원군의 군수공급 관계는 동북군구사령관 겸 정치위원인 고강(高崗)이 담당한다.

이 전문 발송과 동시에 모택동은 김일성으로 하여금 내무상 박일우(朴一禹)를 심양으로 파견하여 팡덕회와 고강과 만나 입북에 관련되는 작전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과적으로 중공은 스탈린과 김일성으로부터 공식 파병요청을 받은 지 1주간의 자체 논의를 거쳐 지원군의 파병결정을 정식통보하였다. 여기에서 인민지원군의 편성 및 출병 명령하달 그리고 파병의 공식 통고가 유엔군이 북진을 개시한 10월 9일보다 하루 앞선다는 점이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10월 9일 김일성에게 ‘10·7’ 유엔결의 내용을 라디오 방송과 전단살포를 통해 알림과 동시에 재차 저항을 중지하고 항복하도록 최후통첩을 보냈었다. 결국 예상한 대로 아무런 응답이 없자 이날 유엔군의 북진작전은 개시되었고, 그 이튿날(10월 11일) 김일성은 ‘조국의 촛토를 피로써 사수하자’라고 도전적 명령을 인민군에게 하달함으로써 응수하였었다.<sup>76)</sup>

지원군사령관에 임명된 팡덕회(당시 66세)는 그날로 새 임지인 심양으로 이동하여 동북군구 및 제13병단의 책임자와 지휘관들을 소집하고 중공 중앙의 결정에 따라 제13병단사령부를 기초로 인민지원군 사령부를 구성하고, 등화(鄧華)를 지원군 부사령관 겸 부정치위원, 홍학지(洪學智)와 한선초(韓先楚)를 부사령관, 해방(解方)을 참모장, 두

평(杜平)을 정치부 주임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팽덕회 자신을 서기, 등화를 부서기로 하는 지원군 군사위원회도 조직함으로써 군·당 지휘 체제를 정비하였다.<sup>77)</sup>

## 2. 中共軍(人民志願軍)의 出兵準備

중공군(인민지원군)이 출전준비를 서두르고 있던 10월 12일에 북한의 내무상 박일우가 안동으로 건너와 팽덕회, 등화, 고강 등과 입북작전을 협의하였다. 박일우는 동부에서는 이미 원산이 점령당하였고 서부에서도 유엔군의 진격이 시작되어 북한의 ‘수도’가 심각한 위협상태에 놓여 있다는 등의 전황을 보고하고 김일성과 ‘조선노동당 중앙’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긴급 파병 지원을 요청하였다.<sup>78)</sup>

이 무렵 중공군은 “중공군 1개 군(군단)의 화포 수가 미군에 비해 42배로 열세하고 해·공군도 즉각 투입될 수 없는 실정인어서 지원군이 상대의 1개 군(군단)을 한번에 섬멸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지원군의 작전은 상대병력의 4배, 상대화력의 1.5~2배가 되어야 가능하다. 이러한 점으로 비추어 소련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기로 한다. 지원군의 무기 장비를 강화하면서 소련측에 공군지원을 요청한다.”<sup>79)</sup>는 중앙군사위원회의 피아전력에 관한 분석과 결정에 따라, 출병에 앞서 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련으로부터 구매중인 무기 및 장비와 교섭 중인 소련 공군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박일우를 통해 상황을 청취한 팽덕회는 중앙군사위원회가 결정한 전략대로 평양-원산선 이북의 산악지대에 근거지를 장악한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입북 후 부대가 전개할 최초 배치선을 결정하였다. 즉, 1개 군은 평양 동북 100km 덕천(德川) 산악지구로 전진하고 나머지 3개 군과 3개 포병사단은 희천(熙川)·강계(江界)지역으로 전개하여 다음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도록 계획하였다.<sup>80)</sup>

첫째, 국군과 미군으로 하여금 이러한 배치에 위협을 느껴 더 이상의 전진을 못하게끔 만들어, 평양-원산 이북 지구를 장악하여, 최소한 이 지역의 산악지구라도 점령당하지 않게 한다. 이로써 중국군은 시간을 벌게 되며 차후 작전준비를 행할 수 있다.

둘째, 만약 평양-원산선 서측의 상대[미군]가 덕천 등의 지역을 향해 북쪽으로 전진해 온다면 지원군은 필요한 병력을 차출하여 이 지역의 적을 견제하고 주력은 원산 방향에서 오는 상대[국군] 쪽으로 집중하여 섬멸을 노린다. 상대의 병력 중 2~3개 사단만이라도 섬멸시킬 수 있다면 아마도 정세는 크게 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작전협조와 부대 전개계획을 끝낸 지원군은 출발명령만을 남겨두고 최종 전투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10월 12일) 저녁 모택동으로부터 출발명령 대신 출동을 보류하라는 다음과 같은 의외의 명령이 하달되었다.<sup>81)</sup>

- (1) 10월 8일자 명령은 잠시 집행하지 말것. 제13병단 각 부대는 원래의 위치에서 훈련은 하되 출동은 하지 말것.
- (2) 팽덕회와 고강은 출전결정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북경으로 복귀할 것.

모택동

10월 12일 20시

그리고 같은 날 동북변방군(인민지원군)의 예비임무를 수행해 온 화동군구(華東軍區)의 정치위원과 사령관에게도 모든 작전을 중지하고 현위치에서 대기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는 중공군의 출병을 앞두고 열린 중·소 간의 막판협상이 난항에 봉착한 데 기인된 것으로서, 이에 따라 지원군의 출병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북한은 더욱 초조하게 되었다.



## 제 5 절 中·蘇의 最後談判과 出兵 再確認

### 1. 周恩來와 스탈린의 最後談判

모택동은 10월 8일 인민지원군 편성 명령을 하달하고 이를 소련 정부에 통보함과 아울러 출병에 따른 중소(中蘇) 간 군사협력문제를 최종적으로 매듭짓기 위하여 주은래를 비밀리에 모스크바로 파견하기로 하였다.

출병원조의 결정과정에서 모택동은 스탈린과 여러 차례 토의를 했었고 이런 과정에서 양국 공산당이 중공은 병력을 파견하여 북한을 지원하며 소련은 공군을 파견하여 중공군을 엄호하고 중공측에 20개 사단을 장비할 수 있는 군사원조를 제공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했었다.<sup>82)</sup>

10월 10일, 모스크바에 도착한 주은래는 요양차 소련에 온 임표와 함께 흑해의 별장에서 휴양중인 스탈린을 방문하여 이날 저녁 19시부터 다음날 아침 05시까지 마라톤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 중공측에서는 주은래를 비롯하여 임표, 주소대사(Wang Jiaziang), 통역관 사철(師哲 : Shi zhe)이 참석하였고 소련측에서는 스탈린을 필두로 말렌코프(Malencov), 베리아(Beria), 카가노비치(Kaganovich), 불가닌(Bulgadin), 미코얀(Mikoyan), 몰로토프(Molotov), 페도렌코(Fedorenko)(통역관) 등 주요 지도자들이 참석하였다.<sup>83)</sup> 회담시간과 참석자로 보아 이 회담은 출병을 앞두고 열린 심상찮은 중요한 회담이었음을 알 수가 있었다.

회담은 전황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여유가 없는 때에 열렸다. 또한 이 회담은 상호 중공군의 출병에 따른 중·소 간의 원조문제를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고 이에 관한 상대의 진의

를 의심스러운 나머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주은래는 신생 중공이 대내외적으로 여러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출병하기로 확정하였음을 통보하고 군사원조와 공군지원을 요망하였다.

스탈린은 북한이 대단히 위급한 상황에 처하였다고 지적하고 유엔군의 북진이 한중(韓中), 한소(韓蘇) 국경선에 이르렀을 때 중소(中蘇)에 미칠 어려움에 대하여 언급한 다음 소련군이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입장을 설명하고 중공군의 출병에 따른 지원을 재확인하였다.

그는 “소련은 조선과의 접경지역이 너무 좁고 이미 소련군을 조선 반도로부터 완전히 철수했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부대를 파견할 입장에 있지 않다. 만일 그곳에 병력을 파견한다면 이는 미군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의미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그 대신 “중국이 출병하면 소련은 충분한 무기와 전쟁물자를 공급해 주고 동시에 공군을 출동시켜 동북(東北)지역과 북경, 천진, 상해 등 해안 지역을 방어하고 북한지역 압록강 연안에 전개하는 중공군을 엄호하겠다.”라고 지원 약속을 하였다.

이에 논의의 초점은 소련 공군의 한국전쟁 참전여부와 그 시기문제에 집중되었다. 스탈린은 “소련 공군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므로 적어도 처음에는 한반도에서 작전하는 중국군을 엄호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였다. 크게 실망한 주은래는 이것은 중공인민지원군의 사기와도 직결되어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 중공군이 압록강을 도하하기 전에 반드시 소련의 지원확답을 얻기 위한 계책으로, 소련 공군의 지원이 없으면 중공군이 출병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강수를 쓰기도 하였지만 이 회담에서 공군 지원문제의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주은래·스탈린 회담의 결과는 10월 12일 오후 늦게 양인이 공동 작성한 전문으로 주중(駐中) 소련 대사관을 통해 모택동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되었다.<sup>84)</sup>

소련은 중국이 요구한 야포·전차·항공기 그리고 기타 군사장비를

충분히 지원하되, 소련 공군이 한국에서 작전하는 중국군을 지원하는 데는 적어도 2~2.5개월의 준비기간이 소요된다.

중공측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스탈린의 자세는 8개월 전(1950년 2월)에 체결한 중소협정(中蘇協定)상 소련의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동 협정에는 중공이 제국주의 국가들과 군사적 대결 상황으로 들어가면 소련은 모든 지원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스탈린의 결정은 실제의 위기에서 중공의 지도자들에게 일종의 배반으로 비추어졌다. 결국 이 결정적인 막판 회담에서 중공으로서 가장 중요시한 공군지원 문제에 대하여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 2. 毛澤東의 出兵決定 再確認

모택동과 중공공산당 지도부는 모스크바로부터 타전된 10월 12일자 주은래·스탈린의 전문을 받고 격노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중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모택동은 이날 저녁 우선 팽덕회에 게 지원군의 이동 중지명령을 하달한 다음, 지도자들과 함께 소련공군의 직접지원이 없는 가운데 출병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날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긴급소집하여 토의하기로 하였다. 이는 중공의 지상군만으로 강력한 공군을 보유한 미군과 싸워야 하는 대단히 어려운 선택의 문제였다.

지난 10월 초 모택동과 지도부는 소련으로부터 충분한 공군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파병하기로 결정하였고 그후 출병준비를 추진하고 있었다. 이들은 소련이 중공에 군사장비와 전쟁물자를 공급하고, 중공 해안에 위치한 중요 산업중심지의 방호를 책임지며, 그리고 한국으로 출전하는 중공 지상군에 대한 공중엄호를 제공해 줄 것으로 믿고 있었다.

특히 이중 마지막의 공중엄호 문제는 전장으로 이동을 앞둔 인민지원군 지휘관들의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였다. 10월 9일 심양에서 열린 군단장급 지휘관 회의에서에서도 문의가 잇달아 고강과 팽덕회가 중앙군사위원회로 문의하는가 하면, 예하부대에서는 초급장교와 병사들에게 원하는 만큼 충분한 공군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군단장들이 응답하고 있었다.

10월 13일 북경의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 참석한 팽덕회는 소련이 지원군(志願軍)을 지원(支援)할 공군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화가 치솟아 지원군 사령관직을 사임하겠다고까지 말하였다. 모택동은 “전쟁초기 단계에서 참전하지는 않지만 스탈린이 중국군에 대한 많은 양의 장비공급은 물론 중국 영토의 공중방어를 약속하였다.”라고 팽덕회와 참석자들에게 강조하였다. 찬반 양론을 거쳐 결국 정치국은 “중국군이 참전하지 않을 경우 초래될 중대한 결과의 평가에 무게를 두어 지원군에 대한 소련 공군의 지원이 없더라도 중국은 조선에서 미국과 싸워야 할 입장에 있다.”라는 결론을 내었다.<sup>85)</sup> 즉 소련 공군의 한국으로의 파견여부와 관계없이 중공의 한국전쟁 참전 결정은 불변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팽덕회는 지원군 부사령관 등화, 참모장 해방, 그리고 군단장들에게 지원군의 출병준비를 가속화하도록 긴급전문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모택동은 정치국 회의에서 논의된 참전과 관련한 결론을 요약하여 모스크바에 체재중인 주은래에게 11일자 주은래-스탈린 전문의 답신으로 통보하였다. 이 전문에 중공이 참전을 결정하는 데 작용한 배경이 모두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막판에 이와 관련하여 참전 결정을 재확인하게 되는 그들의 판단은 잘 표현되어 있다.<sup>86)</sup>

- (1) 나와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동료들의 토의 결과, 우리는 군대를 조선으로 파병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유리하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참전초기 단계에는 우리가 대적하기 용이한 괴뢰군〔한국군〕과의 전투에 집중하면 된다. 우리는 평양—원산 북방의 산악지역에 어느 정도의 기지를 개척할 수가 있다. 이는 분명히 조선인민의 사기를 앙양시킬 것이다. 우리가 최초 단계에서 괴뢰군〔한국군〕 몇 개 사단을 섬멸할 수만 있다면 한반도의 상황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환될 것이다.

- (2) 위에서 언급한 적극적인 정책은 중국, 조선, 동아시아 및 전세계의 이익에 대단히 중요하다. 반면 우리가 군대를 파견하지 않고 적이 압록강에 도착하도록 허용한다면 국제 및 국내 반동의 바람이 더욱 거세어져 상황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불리할 것이며 동북지역에 대해서도 더욱 좋지 않을 것이다. 동북변방군이 거기에 고착될 것이며 남만주(南滿洲)의 전기(電氣)가 적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요약하여 우리는 참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는다. 참전은 가장 큰 보상이 될 수가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손상을 받게 될 것이다.

모택동

1950. 10. 13.

모택동은 주은래에게 중국의 이러한 결정을 소련측에 통보하고 며칠 더 모스크바에 잔류하여 여전히 현안으로 남아 있는 다른 미결사항을 매듭짓도록 지시하였다. 모(毛)는 소련으로부터 제공받는 군사장비의 상환조건을 차관으로 하느냐 구매로 하느냐의 문제에 있어 차관으로 하기를 원하였고, 참전초기에는 중공군이 소련 공군의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소련 공군에 의한 해안지역 방어문제와 차후 언제 중공군이 소련 공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실히 할 것을 원하였다.

결국 10월 13일 회의에서 모택동과 공산당지도부는 공군지원에 대한 스탈린의 약속 위반과 공군지원 없이 싸우게 된 지원군 지휘관들의 어려움 호소에도 불구하고 중공군의 참전결정을 재확인하였다. 모



모택동과 팽덕회가 중남해(中南海)에서 줄병과 관련하여 고심하고 있다.

택동은 ‘조선’의 운명이 중공의 긴요한 안보 이익과 동아시아 및 세계 공산혁명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고, 중공의 혁명도 이중의 중요한 한 분야라고 믿고 있었다. 특히 그는 한반도의 위기를 중공의 공산화 혁명의 완성을 목표로 중공공산당과 전 중공을 이끌어 가는 데 이용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중공공산당 지도자들은 이에 큰 영향을 받았었다. 결국 이 결정은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중공으로서는 아시아의 공산화 목표달성, 자신들의 혁명의 완수에 도움이 되고 안보적 이익과 일치한다는 판단하에 내려진 것이었다.

### 3. 最終 障礙의 克服과 中共軍의 出兵

10월 13일의 출병 재확인 결정에 따라, 지원군의 투입준비는 가속화되었고 모스크바에서의 주은래 활동도 더욱 분주해졌다. 주은래는

정치국의 결정을 소련정부에 통보하는 한편 스탈린에게 모택동의 요망사항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다. 스탈린은 중공정부의 결정에 “중국 동지들은 위대하오”라고 감동을 표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공군의 지원 요청에 대해, 중공지원군이 작전을 시작할 시 한반도에서의 운용은 할 수 없다고 계속 거부하였고, 중공 영토의 방호는 책임을 지겠으며, 후에 한국전쟁에 투입하겠다고 확인하였으나 이 시기에 대하여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군사장비와 물자의 보급을 보증하겠다고 확인하였다.<sup>87)</sup>

스탈린의 공군에 대한 이 불완전한 약속은 모택동과 중공공산당 지도자들로 하여금 중·소 동맹의 한계를 분명하게 느끼게 만들었다. 당시 중공은 어떤 형태로든 소련의 원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였으므로 모택동으로서서는 ‘배신’이라는 쓴 열매를 삼킬 수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한국전쟁 개입과정에서 심어진 이 씨앗이 후일 싹이 튼 다음 중소(中蘇) 간에 간격이 벌어지는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한편 이 무렵(10월 14일) 모택동과 팽덕회는 유엔군의 주력이 38도선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평양을 점령하고 덕천으로 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공군의 엄호 없이 참전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적이 공중우세를 이용하여 압록강 교량을 파괴하고 신속히 진격해 온다면 당초계획과 도하작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판단하여 작전계획에 수정을 가하였다.

군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그들의 당초 작전계획은 “2개 군(군단)과 지원포병을 제1제대로 도하시켜 적의 진출을 저지한 후 제2제대로 2개 군을 도하시킨다.”는 것이었다. 팽덕회는 심양, 안동 현지지역을 여러 차례 답사한 후 이 계획을 바꾸어 4개군을 동시에 압록강 남쪽으로 도하시키기로 하고 모택동에게 승인을 요청한 것이었다. 당초 계획은 중공군이 북한지역으로 들어가 우선 안정된 거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였으나, 수정계획은 기동중에 우세한 병력으로 적을 섬멸하고 사기를 꺾음으로써 작전의 주도권

을 장악하려는 전략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모택동이 주은래와 총참모장 대리 섭영진의 의견을 들어 이에 동의함으로써 12개 사단 26만 명의 전부대를 압록강 남쪽으로 집결시킨다는 과감한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sup>88)</sup>

그리고 모택동은 전장에서 중공군이 적과의 최초 접촉시 유엔군, 특히 한국군에 대한 승리를 통해 주도권을 획득하도록 희망하였다. 그는 “우리가 1~2개 또는 2~3개의 한국군 사단을 완전히 격파한다면 전세가 대단히 호전될 것이다.”며 최초 전투에서 한국군을 공격대상으로 삼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날(10월 14일), 지원군에 10월 19일을 기하여 압록강을 건너도록 명령하였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4일을 늦춘 것이다. 동시에 산동반도에 위치한 전략예비인 제3야전군 소속 제9병단(제20, 제26, 제27군)도 철로를 이용하여 북동지역으로 계속 이동하라고 지시하였다.<sup>89)</sup>

그러나 다음날인 10월 15일, 모택동은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 주력의 북진이 가속화되고 평양의 탈취를 준비 중이라는 보고에 접하였다. 모택동은 그들의 예상 방어선이 유엔군에게 선점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북경에서 심양으로 북귀 중인 팽덕회에게, “선발대를 17일 중으로 출발시키고 23일까지 덕천에 도착하여 25일까지 튼튼한 방어진지를 구축하라”고 전문지시를 하달하였다.<sup>90)</sup>

팽덕회가 심양에 도착하였을 때, 그 곳에는 북한의 박헌영(朴憲永)이 와 있었다. 그는 “적이 평양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북한공산당은 중공의 지원이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고, 김일성이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팽덕회를 만나고자 한다.”라고 말하였다. 당시 박헌영의 심양 방문 주목적은 김일성과 팽덕회의 만남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때 이들은 평안북도 희천(熙川)을 그 장소로 약속하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당시 북한의 권부(權府)는 강계(江界)로 옮겨져 있었으며 김일성은 희천의 군지휘소에서 작전을 직접 지도하고 있었다.<sup>91)</sup>



팽덕회는 10월 16일에 안동에서 사단장급 회의를 주재하고 정치국 회의에서 내려진 출병결정과 그 배경을 설명한 다음, 모든 지원군 부대가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한국으로 진입해야 한다고 명령하였다. 이로써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을 위한 부대이동 및 입북작전이 시작되었다. 이날 밤에 제42군(군단)의 1개 연대가 선발대로서 압록강을 도하하여 입북하였다.<sup>92)</sup> 다음 날 아침에는 지원군 참모장인 해방(解方)이 신의주로 건너와 본대의 입북을 맞을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팽덕회는 지원군의 군수문제 중 미결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심양으로 돌아갔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였다. 17일에 등화를 비롯한 중요 지휘관들이 출병을 유보해야 한다는 건의를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중국군은 항공지원도 없고 대공화기도 조금 밖에 보유하지 못한 반면, 적들은 많은 항공기, 대포, 전차 등을 집중할 수가 있고, 조선의 지형의 특징상 대부분 산과 논으로 된 땅이 얼어 겨울에 방어진지 구축이 어려워 적이 전면공세를 취하면 진지 고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준비를 더 갖추어 겨울보다는 내년 봄에 출병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보고에 접한 모택동은 18일에 모스크바에서 돌아오고 있는 주은래로부터 스탈린의 입장을 직접 보고받을 때까지 명령을 재차 유보하기로 하였다. 그는 17일에 고강과 팽덕회에게 “선발대의 입북 준비는 계속하되 18일 하달될 공식명령을 기다리라.”고 지시하고 이에 관한 논의를 위해 두 사람을 북경으로 호출하였다.

10월 18일에 모택동 주재로 또 공산당 간부들의 회의가 열렸다. 여기에서 모택동은 주은래로부터는 스탈린과의 회담내용을, 팽덕회로부터는 지원군 지휘관들의 건의를 직접 보고받았다. 그 핵심은 이미 앞에서 서술한 바와 대동소이한 것이었다. 모택동의 마음은 무엇보다 “적이 평양을 공격하고 있으며 며칠 내에 압록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보고가 끝나자, “아무리 많

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원군의 조선과전 결정을 변경시켜서는 안된다. 그리고 행동시간을 지연해서도 안된다.”라고 말하였다. 모(毛)의 제의 후 정치국은 최종적으로 지원군의 압록강 도하 마감시한을 10월 19일 저녁으로 확정하였다. 회의 후 모택동은 직접 등화와 지원군 지휘관들에게(팽덕회와 고강은 아직 북경 체류 중) 원계획대로 압록강 도하를 명령하라고 아래 요지의 전문을 보냈다.<sup>93)</sup>

지원군은 안동(安東)－집안(輯安)에서 내일(19일) 저녁에 압록강을 도하한다. 철저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부대는 매일 황혼 후 도강하기 시작하여 다음 날 아침 04:00에 도하를 중단한다. 05:00에는 완전한 엄폐상태로 들어가야 한다. 세부사항은 고강과 팽덕회가 직접 전달할 것이다.

모택동은 이와 아울러 중공군의 이동이 사전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대중매체나 신문에 그들의 의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였고, 당에도 오직 고급간부에 한하여 진행중인 상황을 통고하였다. 그리고 초기단계에서는 중공군이 북한인민군의 복장을 착용하도록 명령하고 출발전 병사들이 자신들의 가족이나 친구에게 편지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엄격한 보안조치를 취하였다.

고강과 팽덕회는 19일 오전에 안동으로 복귀한 후 고위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여 어떠한 반대나 유보조건도 용인함이 없이 모택동의 결정을 실행에 옮기도록 지시하였다. 이때 대기하고 있던 북한의 내무상 박일우는 중공군 주력이 이날 한국전쟁에 참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흥분할 정도로 기뻐하였다. 마침내 10월 19일 저녁 날이 어두워지자 중공군 대부대가 압록강을 건너기 시작하였다.<sup>94)</sup> 이들 4개군의 도하에 이어, 추가로 제13병단에 편성된 제50군과 제66군이 10월 26일에 압록강을 도하함으로써 10월 말까지 중공군 6개군 18개 사단이 한반도로 진입하였다.<sup>95)</sup>

지금까지 서술한 바와 같이, 중공과 모택동(毛澤東)은 제2차 세계대

전 후 세계질서 재편과정 중 형성된 동서 냉전체제하에서, 김일성(金日成)의 전쟁음모 과정에 소련과 스탈린 다음으로 깊숙히 개입하였고, 모스크바 회담을 통해 아시아 공산주의 ‘혁명’의 촉진과 팽창 역할을 맡아, 김(金)의 남침시 미군의 참전으로 전황이 불리하게 전개될 경우 북한을 도와 중공군을 파병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중공군(인민해방군)을 한국전쟁에 참전시켰다.

그는 중소우호동맹 상호원조조약(中蘇友好同盟 相互援助條約)의, 체결로 중공이 ‘제국주의’ 국가와의 전쟁에 들어갈 경우 소련의 군사지원을 보장받게 됨으로써 소련을 등에 얹고 참전할 수가 있었다. 그는 1950년 5월 스탈린 및 김일성과 최종적으로 전쟁계획의 협의를 끝낸 직후부터 남침전쟁의 참전준비에 착수, ‘대만수복’작전을 연기하고 7월 초순에 이른바 ‘동북변방군’을 조직하며 전투준비태세를 갖추어 나갔다.

이와 아울러 전국(戰局)의 추이(推移)를 예의 주시하던 모택동은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북한이 유엔의 강력한 응징조치(膺懲措置)에 직면함에 따라, 소련과 더불어 이를 억제, 저지하기 위한 여러 교묘한 외교적 대응수단을 강구하였지만 이에 실패하고 전선이 낙동강 전선에서 교착되자, 중공군의 참전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8월 하순에 동북변방군으로 하여금 9월 말까지 출전준비를 완료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던 중 모택동은, 아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된 후, 10월 1일 소련과 북한으로부터 공식 출병지원 요청을 받고 다음날(10월 2일) 순망치한(臀亡齒寒)·호파당위(戶破堂危)라는 명분을 내세워 항미원조(抗美援朝)·보가위국(保家衛國)의 참전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공은 10월 8일에 ‘동북변방군(東北邊防軍)’을 ‘중국인민지원군(中國人民志願軍)’으로 개편하고 ‘10월 15일 압록강 도하’를 목표로 출병명령을 하달함과 동시에 이 사실을 스탈린과 김일성에게 통보하였다. 그러나 이후 ‘지원군’에 대한 소련 공군의 지원확보 차질로 중

## 82 제 1 장 中共의 韓國戰爭 參戰背景

공은 두 차례나 출병을 유보하며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10월 16일 선발대 투입에 이어 10월 19일, 국군과 유엔군이 평양을 점령하던 날, 본대가 압록강을 도하함으로써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던 것이다.

▣▣▣▣▣▣▣▣ 주 기 ▣▣▣▣▣▣▣▣

- 1) 외무부, 소련자료(3), p. 13.
- 2) 외무부, 소련자료(2), p. 4, p. 7, 소련자료(3), p. 7, p. 61.
- 3) 외무부, 소련자료(2), pp. 6~7, 소련자료(3), pp. 18~22.
- 4) 외무부, 소련자료(2), pp. 13~14, 소련자료(3), pp. 28~32.
- 5) 외무부, 소련자료(2), pp. 6~8.
- 6) James I. Matray, *Historical Dictionary of The KOREAN WAR*, Greenwood Press, 1991, p. 424.
- 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제1집), 1981, p. 938.
- 8)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p. 85.
- 9) 정홍신(역), 후루시초프 회고록, (서울: 한림출판사, 1971), pp. 352~353, Jerrold L. Schecter(역), *Khrushchev Remembers, The Glasnost Tapes*, Little Brown Company, 1970, pp. 144~145.
- 10) 외무부, 소련자료(2), pp. 20~21, 소련자료(3), pp. 60~61.
- 11) Chen Jian, 앞의 책, pp. 87~88.
- 12) 외무부, 소련자료(2), p. 9, pp. 23~24.
- 13) 외무부, 소련자료(2), p. 24, 소련자료(3), p. 70.
- 14) 외무부, 소련자료(2), p. 25, 소련자료(3), p. 72.
- 15) 외무부, 소련자료(2), p. 26.
- 16) 외무부, 소련자료(2), p. 27.
- 17) 외무부, 소련자료(2), p. 26.
- 18) Chen Jian, 앞의 책, p. 131.
- 19) 위의 책, p. 102.
- 20) 위의 책, p. 104.
- 21) 국방군사연구소, 중공군의 한국전쟁, 1994, p. 103, 109.

84 제 1 장 中共의 韓國戰爭 參戰背景

- 22) 앞의 책, p. 98.
- 23) 위의 책, pp. 99~100.
- 24) 국방군사연구소(역), 중공지도자들의 한국전쟁 지휘, 미간행, p. 29.
- 25) 위의 책, pp. 29~30.
- 26) 위의 책, p. 30, 국방군사연구소, 중공군의 한국전쟁, pp. 101~102.
- 27) Allen S. Whiting, *China Crosses The Yalu*,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6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中共軍 鴨綠江을 건너다, 1989, p. 91.
- 28) 국방군사연구소, 중공군의 한국전쟁, p. 102.
- 29) 위의 책, pp. 101~102, 국방군사연구소(역), 앞의 책, pp. 34~36.
- 30) 軍事科學院 軍事歷史研究所 編著, 中國人民志願軍 抗美援朝戰史,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1988), 韓國戰略問題研究所(譯), 中共軍의 韓國戰爭史, (서울: 世經社, 1991), pp. 4~5.
- 31) 위의 책, p. 5.
- 32) 위의 책, p. 5.
- 33) 崔鍾起, 국제연합군, (서울: 한국국제관계연구소, 1972), pp. 61~62, James I. Matray, 앞의 책, pp. 378~389.
- 34)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앞의 책, p. 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앞의 책, p. 110.
- 3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앞의 책, p. 118.
- 3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1995, pp. 494~496, James F. Schnabel, Robert J. Watson, *The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Joint Chiefs Staff: 197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美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상), 1990, pp. 178~179.
- 3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중공군 압록강을 건너다, p. 153.
- 3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미합동참모본부사, p. 187.
- 3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중공군 압록강을 건너다, p. 147.
- 40) 위의 책, pp. 147~148.
- 41) 위의 책, p. 148,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p. 8.
- 4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중공군 압록강을 건너다, p. 154.

- 43) 국방군사연구소(역), 중공지도자들의 한국전쟁 지휘, pp. 18~20.
- 44) 외무부, 소련자료(2), p. 40.
- 45) Chen Jian, 앞의 책, pp. 147~148.
- 46) 외무부, 소련자료(2), pp. 42~43.
- 47) 위의 자료, p. 46.
- 48) 위의 자료, pp. 47~48.
- 49) Chen Jian, 앞의 책, p. 163.
- 50) 위의 책, p. 163.
- 51) 외무부, 소련자료(3), pp. 113~114.
- 52) Chen Jian, 앞의 책, p. 171.
- 53) 외무부, 소련자료(3), p. 100.
- 54) Jerrold L. Schecter(역), *Khrushchev Remembers, The Glasnost Tapes*, Little Brown Company, 1970, p. 147.
- 55)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스탈린, (서울: 세경사, 1993), p. 380.
- 56) 국방군사연구소(역), 중공지도자들의 한국전쟁 지휘, pp. 41~42.
- 57) 위의 책, p. 43.
- 58)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OCMH, US Department of Army, 1972, p. 193.
- 59) 국방군사연구소(역), 중공지도자들의 한국전쟁 지휘, pp. 44~47.
- 60) Chen Jian, 앞의 책, pp. 171~175, Sergei N. Goncharov · John W. Lewis · Xue Litiai, *Uncertain Partner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pp. 176~177.
- 61) 외무부, 소련자료(3), p. 101.
- 62) 위의 자료, p. 102
- 63)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p. 8.
- 64) Chen Jian, 앞의 책, pp. 180~181.
- 65) Chen Jian, 앞의 책, p. 182, 국방군사연구소(역), 중공지도자들의 한국전쟁 지휘, pp. 64~67.
- 66) Chen Jian, 앞의 책, pp. 183~184, 국방군사연구소(역), 중공지도자들의 한국전쟁 지휘, p. 67.

86 제 1 장 中共의 韓國戰爭 參戰背景

- 67) 국방군사연구소(역), 중공지도자들의 한국전쟁 지휘, p. 67.
- 68) Chen Jian, 앞의 책, p. 184.
- 69) 위의 책, p. 185.
- 70) 當代中國叢書編輯部, 抗美援朝戰爭,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0), p. 19.
- 71)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pp. 10~11.
- 72) 위의 책, pp. 11~12.
- 7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중공군 압록강을 건너다, pp. 182~185.
- 74)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pp. 12~13.
- 75) 국방군사연구소(역), 중공지도자들의 한국전쟁 지휘, p. 65.
- 7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미합동참모본부사, p. 191,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제26권),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p 58~59.
- 77) 국방군사연구소, 중공군의 한국전쟁, pp. 5~6.
- 78) 국방군사연구소(역), 중공지도자들의 한국전쟁 지휘, p. 88.
- 79) 위의 책, p. 89.
- 80) 위의 책, p. 89.
- 81) 위의 책, p. 90.
- 82) 위의 책, p. 83, p. 91.
- 83) 위의 책, p. 83, Chen Jian, 앞의 책, p. 197.
- 84) 위의 책, pp. 82~87, Chen Jian, 위의 책, pp. 196~200.
- 85) 국방군사연구소(역), 중공지도자들의 한국전쟁 지휘, p. 94.
- 86) 위의 책, p. 95, Chen Jian, 앞의 책, p. 202.
- 87) 위의 책, p. 96, Chen Jian, 위의 책, p. 204.
- 88) 국방군사연구소(역), 중공지도자들의 한국전쟁 지휘, pp. 101~102.
- 89) Chen Jian, 앞의 책, p. 205.
- 90) 위의 책, pp. 205~206.
- 91) 위의 책, p. 206, 국방군사연구소(역), 중공지도자들의 한국전쟁 지휘 p. 104.
- 92) Chen Jian, 앞의 책, p. 206.



- 93) 앞의 책, pp. 207~208.
- 94) 위의 책, p. 209, 국방군사연구소(역), 중공지도자들의 한국전쟁 지휘, pp. 103~104,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앞의 책, p. 14.
- 95) 국방군사연구소, 중공군의 한국전쟁, p. 115,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앞의 책, p. 26,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1), p. 767.

## 제 2 장 中共軍의 鴨綠江 渡河

### 제 1 절 雙方의 大戰略과 冒險

#### 1. 中共軍의 鴨綠江 渡河

1950년 10월 중순의 전황(戰況)은 38도선을 돌파한 국군과 유엔군이 파죽지세(破竹之勢)로 인민군을 몰아붙여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때 서부지역에서는 미 제8군이 평양을 탈환하고 청천강(淸川江) 선에 도달하고 있었으며, 동부지역에는 국군 제1군단이 원산-함흥을 탈환하고 장진호, 부전호, 성진까지 육박하고 있었고 미 제10군단이 원산 및 이원 일대로 상륙을 준비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군과 유엔군은 늦어도 11월 하순까지는 한국전쟁을 승리로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전쟁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진출하여 기세 등등하던 인민군은 유엔군의 인천상륙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지휘체제가 와해된 가운데 분산 도주하여 주로 한만국경선(韓滿國境線) 남쪽 내륙 오지인 강계(江界) 부근으로 집결하고 있었다.

이 무렵 중공은 ‘한국전쟁의 참전’이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중공군은 본대의 도하에 앞서 10월 12~16일 사이에 정찰대와 선발대를 먼저 도하시켜 주력부대의 도하를 엄호하도록 하였다. 중공군의 본대는 국군이 평양을 탈환하고 환호하던 바로 그날, 10월 19일 저녁부터 안동에서 신의주, 장전하구에서 삭주, 그리고 집안에서 만포진으로 통하는 3개의 통로를 사용하여 압록강을 도하하기 시

작하였다.<sup>1)</sup>

중공군은 19일 황혼부터 새벽 4시까지 2~3개 사단규모를 도하시켰고, 이들은 오전 5시 이전에 이동을 종료하고 유엔공군의 항공관측으로부터 은폐와 엄폐하기 위한 진지를 준비하였다.<sup>2)</sup> 그들은 초일의 도하경험을 토대로 다음 제대도 기도비닉(企圖秘匿)을 최대로 유지함으로써 유엔군의 관측활동에 노출되지 않고 도하를 완료하였다. 이때 이들은 그들의 도하를 은폐하기 위하여 각 부대는 야간행군, 철저한 위장, 무선사용 통제 등으로 보안을 유지하였다.

지원군(志願軍)이란 미명하에 최초로 압록강을 건너 한반도에 침입한 중공군은 제13병단<sup>3)</sup> 이하 제38, 제39, 제40, 제42군의 4개군 12개 사단과 이들 부대를 지원하기 위한 포병 제1, 제2, 제8사단, 1개 고사포연대, 1개 공병연대, 기타 지원부대로 그 병력은 총 약 26만 명에 달하였다.<sup>4)</sup>

안동에서 도강한 제40군은 구장, 덕천, 영원으로, 안동과 장전하구에서 도강한 제39군은 구성, 태천으로, 집안에서 도강한 제42군은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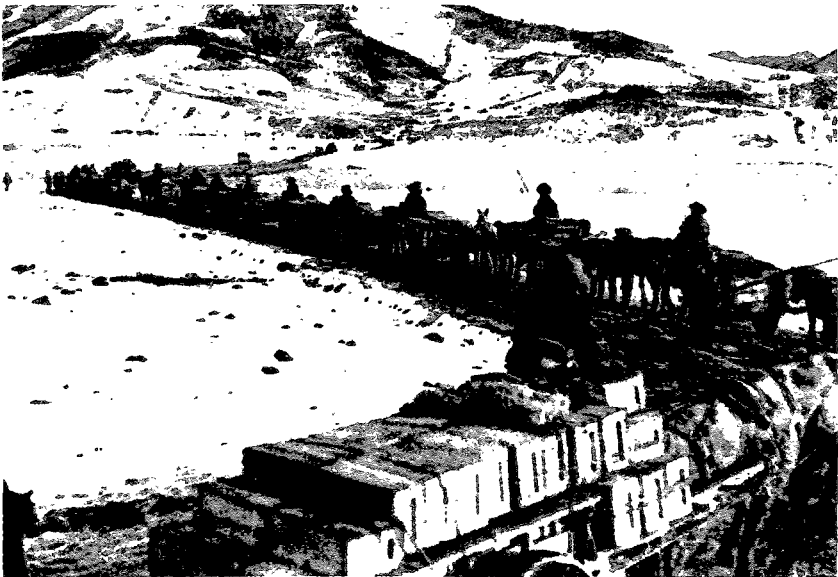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다.(1950.10)

창리, 오로리로, 그리고 제42군을 후속하여 도하한 제38군은 강계를 목표로 각각 이동을 개시하였다. 이때 제4, 제6공병대대는 집안, 임강, 그리고 삭주와 창성 사이에서 교량건설과 도로를 보수하여 주력부대의 도하를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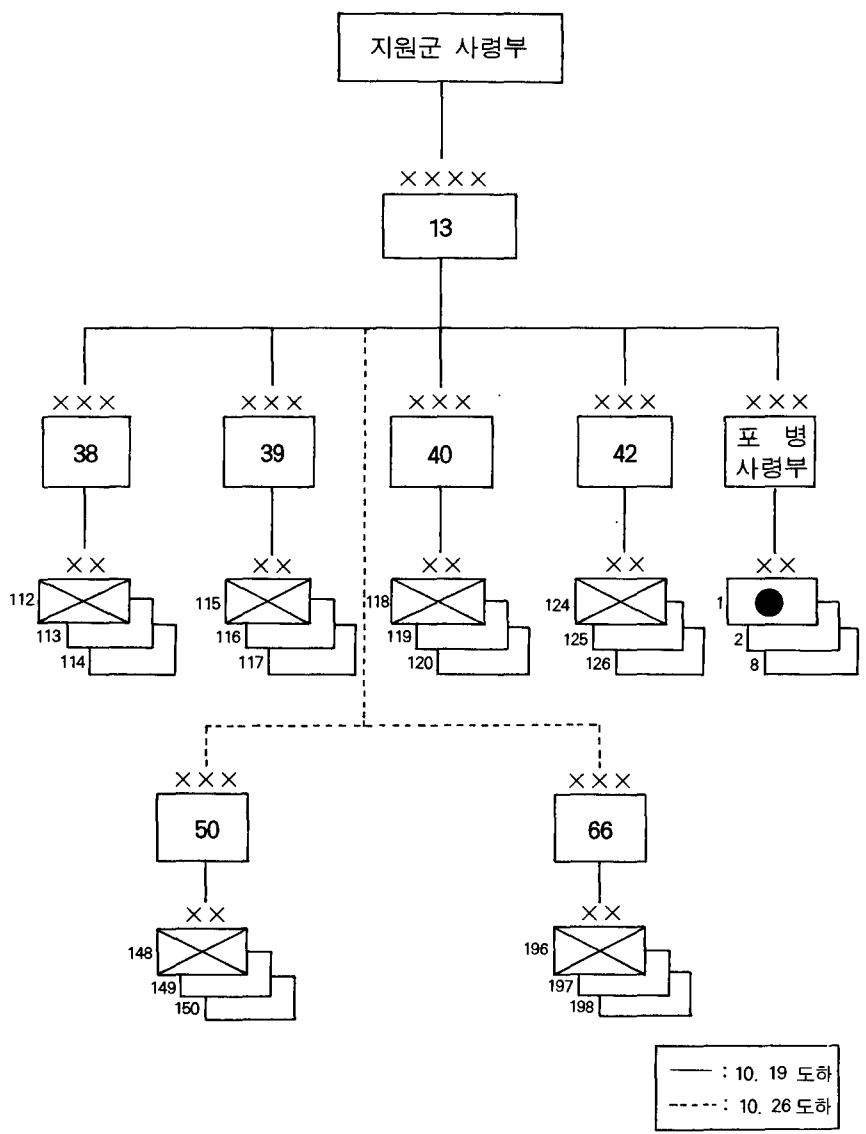
이들은 유엔 항공기의 관측과 폭격을 피해 밤이면 산골바람이 세차게 부는 좁은 도로를 따라 차량을 앞세우고 이동하였다. 이때 차량들은 등화관제를 위해 라이트를 켜지 않았고, 병력은 탄약과 식량을 짊어지고 행군함으로써 전진속도가 매우 느렸다. 그리고 간혹 철수하는 인민군의 차량과 교차될 때는 도로가 매우 혼잡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또 이동 중에 유엔 항공기의 포격을 받기라도 하면 더욱 지체되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최초 방어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주력부대들이 이동하는 동안 지원군사령관 팡덕회(彭德懷)는 20일



중공군의 식량과 탄약이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북한으로 들어오고 있다.(1950.10)

중공군의 전투편성



신의주에서 대유동(大榆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지원군사령부를 설치하였다. 대유동은 운산-벽동 간 도로의 중간 동창(東倉)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로 본래 금광(金鑛)이 있던 곳이었다. 이곳에서 그는 김일성을 면담하였다. 이 자리에서 팽덕회는 김일성에게 중공군이 압록강을 도하한 사실을 알리고, 또 중공군이 계획된 방어진지로 이동하는데는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인민군으로 하여금 지연전을 펼쳐 줄 것을 요구하였다.<sup>5)</sup>

이 무렵 중공지원군은 유엔군에 발각되지 않고 서서히 그들의 집결지인 적유령산맥 일대로 접근하고 있었다.

## 2. 中共軍의 戰略과 展開

지원군사령관으로 임명된 팽덕회는 참전에 앞서 10월 중순에 심양과 안동에서 참전부대 고위 지휘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는 중앙군사위원회와 모택동(毛澤東)의 지시에 기초한 작전지도 방침을 제시하였다.

그는 적의 전술, 장비의 우세함과 한반도의 협소한 지형조건하에서는 그들이 과거 국내 전쟁중에 경험한 거보적 전진, 후퇴의 운동전이 한반도에서도 반드시 적합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이번에는 “진지전(지역방어)과 운동전(기동방어)의 배합작전을 통한 역습, 기습, 매복으로 적의 유생역량(병력)을 소멸시킨다.”라는 작전방침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밖에도 4개군이 동시에 압록강을 도하하여 강계, 희천, 운산, 덕천, 맹산 일대에 집결할 계획도 확정하였다.

이 방침에 의거 중공군은 방어에 유리하고 유엔군에게는 공격에 불리한 구성, 태천, 구장, 덕천, 영원, 오로리(五老里)를 연하는 산악지형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그들은 그곳에서 우선 국군과 유엔군의 진출을 저지하고 전장의 국면을 전환시킴으로써 시간을 획득

하여 인민군의 철수와 재편성을 지원할 계획이었다.<sup>6)</sup>

그러나 그들이 압록강을 도하할 때 평양에서 북진을 기시한 국군과 유엔군의 진출 속도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다. 이때(20일) 국군과 유엔군은 서부전선에서는 그들의 예상집결지인 구장, 덕천, 영원에서 90~130km 떨어져 있었고, 동부전선에서는 국군이 이미 그들의 예상집결지인 오로리로 진출하고 있었다. 반면 그들의 주력부대들은 의주, 삭주, 만포진 이남으로 진출 중이어서 당초 예상방어지역과는 아직도 120~270km나 떨어져 있어 국군과 유엔군보다 먼저 그들이 예상집결지인 구장, 덕천, 영원, 오로리에 도착하기란 불가능하게 되었다.<sup>7)</sup>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한 중공 군사지도부는 국군과 유엔군이 아직 그들의 참전 사실을 모르고 분산된 채 전진함으로써 국군 3개 사단의 전선이 돌출되었고, 또 미 제8군과 미 제10군단 사이에 배치



김일성과 팽덕회가 전장에서 만나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공간이 생긴 취약점을 간파하였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그들이 기습 공격으로 승기(勝機)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였다. 모택동은 21일 예상방어지역을 확보하여 일정기간 방어 후 공세로 전환한다는 작전방침을 변경하여 진격해 오는 국군과 유엔군을 기동하면서 각개 격파하도록 지시하였다.<sup>8)</sup> 그리고 참전 후 첫 작전인 이번 공세에서 국군 3~4개 사단을 섬멸함으로써 한반도의 전국(戰局)을 전환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지원군사령관 팽덕회는 3개 군을 서부전선에 집중시켜 국군 3개 사단을 섬멸시킬 것을 결심하고 부대배치를 일부 조정하였다. 즉 제39군은 구성, 태천으로 제38군은 회천으로 제40군은 덕천, 영원으로 진출하여 조우하는 적을 섬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42군의 1개 사단은 장진호로 진출하여 국군 수도사단과 제3사단을 저지하도록 하고 주력은 유엔군의 전선을 양단할 수 있는 소백산(2184고지)을 점령한 후 의명, 맹산 이남으로 진출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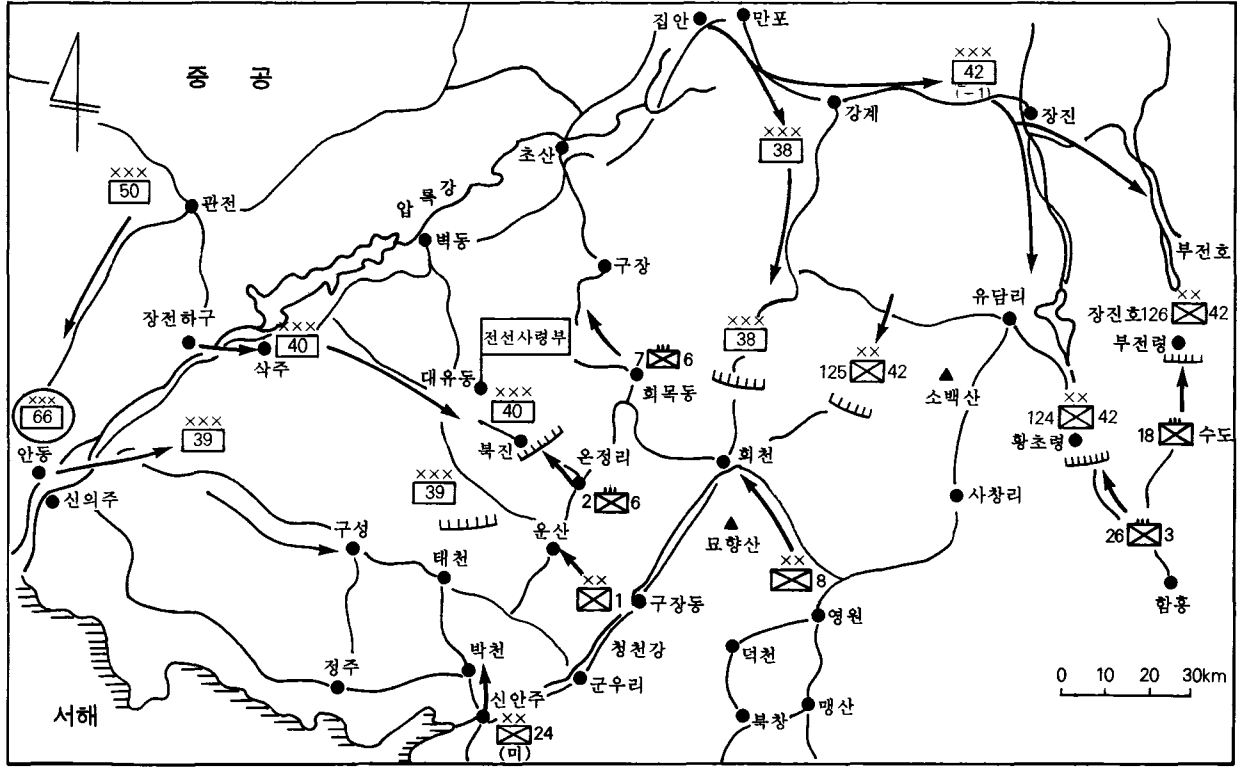
그리고 모택동은 국군과 유엔군을 격멸하기 용이한 박천, 군우리 및 그 이북지역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이 지원군의 노출로 인하여 진격을 중지하거나 철수하지 않도록 지원군의 진출을 정주-박천-군우리 선 북쪽 20km 이내로 제한시켰다.

팽덕회는 각 부대에 회천, 온정리, 구성을 연하는 선 이남지역을 국군과 유엔군에게 양보하고 절대로 조기에 접적을 하지 못하도록 강조하였다. 그리고 수정된 전략방침에 따라 주력부대들이 전방지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모택동은 10월 23일 팽덕회에게 ‘조선의 전국(戰局)’이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였다.<sup>9)</sup>

첫째는 이번 공세에서 완전한 기습을 달성하여 3~4개의 국군사단을 전멸시킬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이 전투에서 만약 대승리를 거둘 수 있다면 적의 재배치를 강요하게 되고 또 피동적인 위치에 빠뜨릴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공군의 최초 배치(1950. 10. 19~10. 24)



제 1절 雙方의 大戰略과 冒險 95

전세가 적에게 유리하게 변할 것이다.

둘째는 적군 비행기가 아군을 살상하고 아군의 활동을 방해하는 상황하에서는 아군의 야간 행군작전 속달 정도 여하에 따라 상황의 전개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셋째는 미국이 조선에 다시 5~10개 사단의 증원부대를 파견하기 전에 아군이 운동전 또는 고립된 거점 공격작전으로 미군과 국군사단을 격멸하는 정도가 중요 관심사이다.

이 무렵(24일) 국군 제1사단의 선두는 영변, 용산동에 제6사단은 초산, 온정리로 제8사단은 영원 및 덕천을 경유 희천, 강계 방면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근거하여 지원군사령관 팽덕희는 먼저 국군 제1, 제6, 제8사단을 섬멸한 후 다시 미군과 영국군을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와 같이 중공군은 완전한 방어와 공격계획을 준비하고 국군의 진출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국군은 중공군의 개입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한만국경선으로의 진출에 선봉에 섬으로써 최초로 인민군이 아닌 중공군과 불의에 조우(遭遇)하게 되었다.

### 3. 유엔군의 誤判과 冒險

1950년 10월 중순 작전의 주도권을 완전 장악한 국군과 유엔군은 중공군의 참전은 이미 적절한 시기를 놓쳤으므로 한국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한만국경선인 압록강까지는 오직 분산되고 무기력한 인민군 패잔병들이 항복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낙관하고 있었다. 따라서 추수감사절(1950년 11월 23일)까지는 전쟁을 종료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얼마 남지 않은 국경선을 향해 총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웨이크도(The Wake Island) 회

담록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1950년 10월 15일 웨이크도에서 트루먼(Truman) 미국 대통령이 맥아더(MacArthur) 유엔군사령관과 가진 회담의 주목적은, 중공의 한국전쟁 개입 가능성 여부와 관련된 그 동안 많은 보고와 루머에 관하여 정보와 판단을 직접 들어보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함이었다. 트루먼 대통령은 먼저 한국전쟁의 전망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이에 맥아더 장군은 “인민군의 조직적 저항은 북한과 남한 전지역에서 추수감사절까지는 종결될 것이라 믿는다. 남한에 잔류한 15,000여 명의 인민군 패잔병은 다가오는 겨울까지는 소탕되거나 격멸될 것이다. 또한 북한은 그들의 체면 유지를 위해 약 10만여 명의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않는 보충자원으로 승산이 없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평양이 곧 점령되면 나머지 적은 포위되고 전쟁은 끝날 것이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까지 미 제8군을 일본으로 철수시키는 것이 나의 희망이다.”<sup>10)</sup>라고 대답하였다.

이어 트루먼 대통령이 중공의 한국전쟁 개입 가능성에 대하여 질문하자 그는 “중공의 개입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만일 그들이 지난 6~7월에 개입하였다면 그것은 결정적인 위협이 될 수 있었으나 현상황에서는 그들의 개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중공은 만주에 3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 아마 10만~12만 5천 명이 압록강에 연하여 배치되어 있으며, 또한 그들 가운데 5~6만 명이 압록강을 건널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평양으로 진격하려고 시도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막강한 공군력으로 최대의 살육전을 펼칠 것이다.”<sup>11)</sup>라고 답변하였다.

당시 미국은 중공군 24개 사단이 압록강 근처에 집결해 있고, 기타 14개 사단이 만주의 다른 지역에 위치한 것도 확인하고 있던 때였다. 그러나 맥아더 장군은 그들의 주력이 참전하리라고는 판단하지 않았던 것이다.<sup>12)</sup>

이어서 트루먼 대통령을 수행했던 브래들리(Omar N. Bradley) 합참

의장은 유엔군부대의 추가 파견 가치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즉 전쟁의 종말이 다가오는데도 미국이 아직 한국에 도착하지도 않은 이들 부대의 비용을 계속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해 알고 싶어했다. 이에 맥아더 장군은 “그들은 군사적 견지에서 무용하며 아마도 전투를 치러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답변함으로써 추가적인 전투병력의 파한(派韓)은 전쟁이 곧 끝나므로 불필요하다고 말했던 것이다.

이 회담에서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으로부터 한국전쟁은 아마도 곧 끝날 것이라는 것과 중공이 한국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을 들었다.<sup>13)</sup> 그러나 이러한 맥아더 장군의 판단과 발언은 자신의 군사작전은 물론 미국 대통령과 전쟁지도부의 군사지원 및 대외정책면에서 커다란 착오를 범하게 만들었다.

맥아더 장군은 10월 24일 미군부대의 전진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 하였던 제한선을 철회하였다. 그 전진한계선은 적이 항복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를 둔 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서부전선의 미 제8군과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에 북한 전체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상군을 운용하도록 승인하였다. 그러면서도 한국군이 아닌 부대는 가능한 한 국경선에서 철수해야 하고 한국군으로 대치되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로써 모든 지휘관들은 전 속력과 모든 부대를 이용하여 진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맥아더 장군의 정보 부재와 성급한 오판으로 하달된 이 조치로 미군과 국군부대가 마치 국경선까지 경주대회라도 하는 듯 분산 전진하는 취약점을 노출하게 되었다. 이들 부대를 포위, 섬멸하고자 기다리고 있는 중공군 부대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내려진 지시는 하루 만에 중대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웨이크도 회담에서 돌아온 브래들리 합동참모회의 의장이 유엔군의 파한 규모를 감축시키고, 유엔군의 부대소요판단도 하향 조정하였다. 10월 25일 합동참모본부는 유엔군의 정치적 목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국의 군수지원부담을 감소시키도록 계획

한 콜린스(Lawton J. Collins) 육군참모총장의 제의를 승인하였다.

이와 같이 중공의 개입이 없을 것이라는 극동군사령부와 워싱턴 당국의 오판과 이에 따른 모험은 20여만 명에 가까운 대규모 중공군의 기습공격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미국 및 한국의 국가정보 판단능력의 맹점을 노출시켰다. 또한 이때부터 한국전쟁은 국군과 유엔군이 잠시나마 패배의 길로 급히 전락하는 전환점이 되어 버렸던 것이다.

## 제 2 절 새로운 敵과의 衝突

### 1. 유엔군의 秋收感謝節 攻勢

1950년 10월 하순 북한의 수도 평양을 탈환한 유엔군 지휘관들은 마치 전쟁이 끝난 것처럼 기쁨에 쌓여 있었다. 미 육군성이나 동경에 있는 극동군사령부에서는 한국에 있는 미 제2사단을 유럽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고, 10월 24일에 육군성에서는 10월과 11월에 극동에 보낼 보충병을 취소하겠다고 극동군사령부에 통보하였다. 물론 이런 결정은 10월 15일에 웨이크도에서 있었던 회담의 결과였다. 또 워커(Walton H. Walker) 장군은 22일 맥아더 장군에게 이제부터 한국으로 반입될 모든 탄약을 일본 보급창으로 전환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는 현재 비축된 탄약으로도 충분히 작전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맥아더 장군도 이를 승인하여 105mm 및 155mm 포탄과 항공폭탄을 실은 6척의 선박을 하와이 또는 미 본토로 돌려보내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주일 군수사령관 웨이블(Walter L. Weible) 장군도 샌프란시스코의 항만사령관에게 전 지상작전용 탄약의 수송 신청을 취소하였다.<sup>1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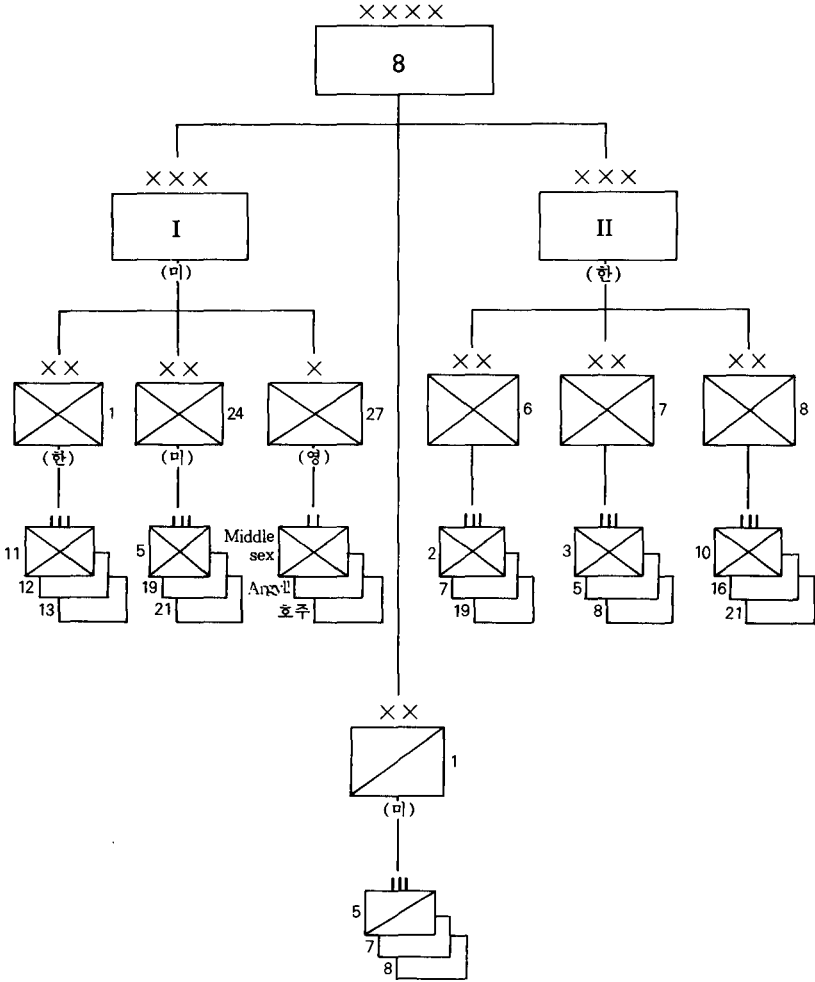
이와 같이 군지휘부가 낙관하고 있을 때 전선에 배치된 전투병들의 마음은 더욱 들떠 있었다. 장병들은 추수감사절<sup>15)</sup>날의 칠면조 고기는 일본 동경에서 먹고 번화가를 확보할 것을 생각하며 설레이는 가슴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부지역에서는 미 제8군의 주력이 청천강을 도하하고 동부지역에서도 미 제10군단의 주력이 원산 상륙을 준비하고 있을 무렵 맥아더 장군은 24일 미 제8군사령관과 미 제10군단장에게 전 병력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속도로 진격하라는 새로운 명령을 하달하였다.<sup>16)</sup> 이는 그가 1주일 전(17일)에 설정한 유엔군의 진출한계선을 철폐한 조치였다. 이 메시지가 합동참모본부에 보고되자 그들은 즉각 9월 27일자 지시를 맥아더 장군에게 상기시켰다. 그것은 중·소 국경지역에서는 오직 한국군만이 작전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맥아더 장군은 그의 지시가 군사적 필요성 때문이라고 답변하고 한국군만으로는 북한을 확보하기에는 강력하지 못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은 가끔 너무나 감정적이며 신뢰할 수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또한 “38도선 북으로 전진하는데 전술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방해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한 마셜(George C. Marshall) 국방장관의 지시에 근거하여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그는 합동참모본부의 ‘9·27 지시’의 기본목적과 의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전제하에서 모든 가능한 예방조치가 취해지고 있다고 장담하였다.<sup>17)</sup>

맥아더 장군의 명령에 따라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도 지금까지의 유엔군에 대한 북진 제한조치를 해제하고 24일을 기해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미 제1군단장 밀번(Frank W. Milburn) 소장에게 미 제8군 예비인 국군 제7사단을 배속(10월 23일 24:00)시켜 가능한 한 국경선 지대의 작전을 국군 제1사단과 제7사단 등 한국군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신 평양에 주둔 중인 미 제1기병사단은 군 예비로 전환하였다.<sup>18)</sup>

이에 따라 미 제8군의 우전방을 담당한 국군 제2군단장 유재홍(劉

미 제8군의 전투편성



載興) 소장은 국경선으로 향한 진격작전을 위해 군단은 제6사단을 좌, 제8사단을 우로 하여 10월 24일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6사단은 초산과 벽동을, 제8사단은 만포진과 중강진을 탈환하도록 목표를 부여받았다.

또한 제8군의 좌전방을 담당한 미 제1군단장 밀번 소장도 군단의 우익인 국군 제1사단에게 안주-운산 축선을 따라 수풍호로 진격하도록 하고, 군단의 좌익인 미 제24사단(배속:영 제27여단)에게는 청천강을 도하, 선천을 경유 신의주를 목표로 진격하도록 하였으며, 배속받은 국군 제7사단은 최초 군단예비로 운용하였다.

이와 같이 공격제대로 나선 4개 사단(국군 제1, 제6, 제8사단, 미 제24사단)이 24일 낭림산맥 서쪽의 중서부전선에서 주요 도로를 따라 파죽지세로 추격전을 펼치게 되었으나, 뜻하지 않게 다음날(25일) 적 유령산맥 일대에 매복하고 있던 중공 제13병단의 주력이 기습공격을 가해 옴으로써 격전을 벌이게 되었다.

## 2. 雲山의 昏迷

미 제1군단의 우전방 사단인 국군 제1사단은 신임사단장 최영희(崔榮喜) 준장의 지휘하에 10월 23~24일 안주 일대에서 청천강을 도하한 후 25일 운산에 도착하였다. 좌인접 영 제27여단도 박천 부근으로 진출함으로써 군단은 북위 40도선으로 육박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인접 국군 제2군단의 제6사단도 희천을 경유 벽동·초산 방향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이때 인민군은 조직적인 저항은 물론 방어진지도 편성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철수만 하였다. 따라서 공격제대로 나선 각 사단들은 서로 경쟁을 하듯이 북진만을 서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상호 협조된 작전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1사단은 25일 10:30에 운산에서 청산장시(靑山場市)를 경유 수풍호로 진출할 목적으로 군단에서 배속된 전차를 앞세우고 2개 연대병진 대형으로 공세를 개시하였다. 좌전방 제12연대는 삼탄천 서쪽으로, 우전방 제15연대는 동쪽으로 각각 진출하였고, 사단예비인 제11연대는 후방 용산동에서 공격연대를 후속하고 있었다.



공격을 개시한 사단이 운산을 벗어나기도 전인 11:00경 제15연대를 지원하던 선두인 미 전차대가 삼탄천(三灘川)에 도착하여 교량을 건너려 할 때, 대안의 고지에 배치되었던 적이 120mm 박격포와 122mm 야포 등 대구경포로써 선두의 미군 전차대를 향하여 집중포격을 가하였다. 이 포격은 사단이 38도선을 돌파하고 북진을 개시한 이후 가장 강력한 저항이었다. 이로 인해 연대의 진격은 정지되었고, 잠시후에는 좌전방 제12연대의 공격도 저지되었다.

이때까지도 사단에서는 적의 병력 규모나 소속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단지 인민군이 최후의 저항을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제15연대 제3중대가 첫 공방전에서 11:30분 조금 지나 한국전쟁 개시 이후 최초로 중공군 포로 1명을 생포하였다.<sup>19)</sup> 이때, 제2군단장으로 전보되었다가 다시 사단장으로 복귀한 백선엽(白善樺) 준장이 이 포로를 심문한 결과 그 포로는 “중국 광둥 출신의 중공군 정규군



운산전투에서 국군이 중공군을 포로로 하고 있는 장면(1950.10)

이며 운산 북방에 10,000명, 회천 부근에 10,000명의 중공군이 배치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사단장은 이 중공군이 중공의 정규군이라 단정하고 이를 군단장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이 사실은 당시 사단에 파견되었던 전술 항공통제반(TACP)에 의해 때마침 출격한 미 공군 관측기에 통보되어 평양의 미 제8군 전방지휘소에 직접 보고되었다. 그러나 미군측에서는 이것이 중공 거주 한인의 의용병이 아닌가의 의심하였다.<sup>20)</sup>

이런 상황에서 미 제1군단장은 사단의 한민국경선 진출을 독촉하였으나 미리 준비하고 있던 적(중공군)에 의한 압박이 가중됨으로써 전황은 점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방어로 전환한 사단은 예비인 제11연대마저 투입하여 운산을 중심으로 주변고지에 급편방어진지를 구축하고 혹독한 추위 속에서 26일 새벽까지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펼쳤다.

사단이 완강하게 저항하자 적은 새벽 무렵 1개 연대규모를 운산 후방으로 흐르는 남면천(南面川)으로 우회기동시켜 속칭 낙타머리 하구(상초동)라고 일컫는 남면천 하구를 점령하여 운산과 용산동 간 사단 주보급로를 차단하였다. 이로 인해 사단이 중공군의 포위망 속에 갇히게 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미 전차중대의 1개 소대가 미 제10고사포대대의 엄호하에 퇴로 확보작전을 벌였으나 연료와 탄약이 떨어져 실패하였다. 그리고 점차 사단이나 지원부대 모두 연료와 탄약이 바닥나고 보급지원마저 두절되어 상황은 점점 악화일로에 있었다.

미 제8군은 사단을 구원하기 위해 다음날인 27일 11:00에 C-119 수송기 10대로 운산에 연료와 탄약을 공중 투하하였다. 위기의 상황에서 재보급을 받은 사단이 전차와 고사포의 화력지원을 받아 공격을 재개하여 운산 서쪽과 북쪽의 고지를 재탈환함으로써 전세가 다소 호전되었다.

한편 제8군은 국군 제1사단이 25일 최초로 포획한 포로와 그 다음

날 추가로 잡은 포로(3명)를 이송받아 평양의 전방사령부에서 심문하였지만 최초에는 워커(Walker) 장군과 그의 참모들도 중공 정규군의 전면 개입사실을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천강 북쪽의 전황이 하루 이틀 사이에 급변하게 되자 그들의 최초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도 미 제8군은 진격작전을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공격기세를 유지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군 예비로 평양에 집결 중인 미 제1기병사단에 국군 제1사단을 초월공격하여 수풍호(水豊湖)까지 진격하도록 명령하였다.<sup>21)</sup>

국군 제1사단이 운산 주변고지를 확보한 이후 밤마다 야간공격을 개시하던 중공군이 공격을 중지함으로써 사단 정면에서는 28일까지 소강상태가 유지되었다. 제1사단은 미 제1기병사단이 이동 중인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탄막사격과 근접항공지원의 엄호하에 공격작전을 펼쳤으나 견고하게 구축한 방어진지에서 자동화기와 소화기로 무장한 중공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적 진지 돌파에 실패하였다.

이 무렵 사단의 우인접에서 온정리, 희천을 공격한 제2군단이 중공군에 밀려 철수하였고, 좌인접에서 박천을 공격 중인 미 제24사단과도 25km나 간격이 벌어져 사단 작전지역이 돌출되었다. 이날(30일) 오전에 미 제1기병사단의 선두대대가 도착한데 이어 미 제8기병연대가 운산으로 진출하였다. 워커 장군은 미 제1기병사단의 주력부대들이 운산에 집결하자 작전지역을 일부 변경하여 국군 제1사단은 온정을 경유 초산으로, 미 제1기병사단은 삭주로 공격하도록 지시하였다.<sup>22)</sup>

좌전방 제12연대와 미 제8기병연대가 31일 오전 진지교대를 시작하자 이를 간파한 중공군이 병력을 증원하여 연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이때 중공군은 여러 곳에 산불을 질러 그 연기로 유엔공군의 항공관측을 차장하고자 하였다. 이로 인하여 연대는 11월 1일 오후까지 공방전을 펼친 후 운산 서쪽의 진지를 미군에게 인계하고 사단에 비가 되어 입석리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운산을 두고 좌측은 미 제1

기병사단이 우측은 국군 제1사단이 등을 맞대고 적과 싸우게 되었다.

그 병력배치 상황을 보면 운산을 중심으로 좌전방 용포동, 제인상동(諸仁上洞) 일대에 미 제8기병연대가, 우전방 조양동, 부흥동 일대에 국군 제15연대가 각각 배치되었다. 그 후방지역에는 구룡강을 경계로 국군 제11연대가 동측방을, 미 제5기병연대가 서측방 지역의 방어를 맡았다. 예비대인 국군 제12연대는 운산 남쪽의 입석에 집결하였다. 그리고 미 제1기병사단 예하 미 제7기병연대는 청천강 남안의 개천에서 국군 제2군단지역의 작전에 대비한 측방 엄호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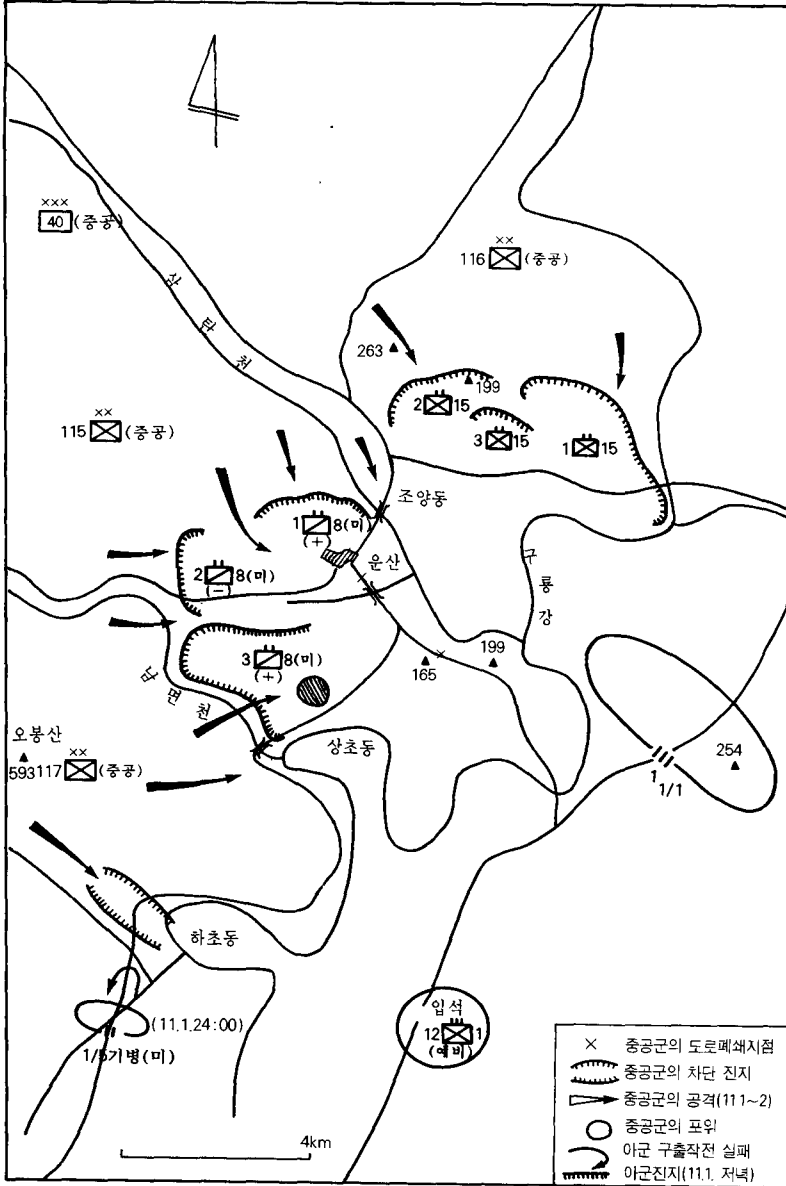
한편 낮 동안 운산 일대에 병력을 집중시킨 중공 제39군은 해가 떨어지자 운산에 대한 포위망을 압축하기 시작하였다. 이때(11월 1일 20:00) 우인접 국군 제2군단의 철수상황을 확인하고 복귀한 군단장이 긴급히 사단장 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는 각 사단장에게 진격작전을 전면 중지하고 즉각 방어태세로 전환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리고 방어선을 청천강 북쪽의 박천-용산동-영변-운흥리 선으로 결정하고, 전방의 부대들을 가능한 한 신속히 이 지역으로 철수시키도록 지시하였으며, 특히 운산 지역의 미 제1기병사단과 국군 제1사단은 철수간 긴밀히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 명령은 낙동강 전선에서 북진을 개시한 이래 최초로 하달된 방어명령이었으며, 그것도 서부전선에서 국경선 가까이 도달한 부대들을 50~80km 후방으로 철수시켜 청천강 교두보를 확보하도록 조치한 것이었다.

군단회의가 끝난 후 국군 제1사단장 백선엽 준장과 미 제1기병사단장 게이(Hobert R. Gay) 소장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국군 제15연대를 잔류시켜 적과의 접촉을 유지하게 하고 미 제8기병연대를 먼저 철수시키기로 합의하였으나, 철수명령이 전방대대까지 하달되기도 전에 돌발사태가 발생하였다.

11월 1일 23:00경, 미 제8기병연대장 팔머(Raymond D. Palmer) 대

운산지구 전투



령은 사단으로부터 철수명령을 받고 예하 각 대대와 연대 보급부대에 구룡강 동쪽의 입석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러나 우방에서 연대의 철수를 엄호해야 할 국군 제15연대가 중공군의 집중공격을 받았다. 이때 국군 제15연대는 포병과 전차의 지원도 없이 운산 동쪽의 상장동 진지를 지키고 있던 중, 22:00부터 밀어닥친 중공 제116사단의 집중공격을 받고 1시간 동안에 걸친 격전을 전개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끝내 진지가 돌파되어 중화기와 통신장비까지도 유기한 채 분산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이 여파는 좌인점 미 제8기병연대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적의 일부는 운산-용산동 도로를 차단함으로써 연대는 완전히 적중에 고립되고 말았다. 이후 중공군은 대대지휘소를 기습하여 수류탄으로 차량들을 파괴시키는 등 포위공격을 감행하였다. 연대는 적의 포위망을 탈출하기 위하여 사력을 다했다. 제1기병사단은 2일 새벽에 제8기병연대의 철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5기병연대로 적의 도로 차단지점인 운산 남쪽의 남면천변의 거북이 머리 지형(下草洞) 건너편의 고지를 공격하였다. 이 틈을 이용하여 제8기병연대의 제1, 제2대대는 철수하였으나 제3대대는 아직 적중에 고립된 상황이었고, 제5기병연대의 공격도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둔화되었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군단장 밀번 소장은 군단 정면에서 직면한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더 이상 구출작전에만 집착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11월 2일 15:00를 기하여 사단장 게이(Gay) 소장에게 구출작전을 포기하고 청천강 남안으로의 철수를 명령하였다.

이후 적중에 고립된 제8기병연대 제3대대는 4일까지 적과 치열한 혈전을 펼쳤고, 이 과정에서 일부는 포위망을 탈출하였으나 대대주력은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다. 그리고 국군 제1사단은 11월 3일 군단 예비가 되어 연대별로 청천강을 도하하여 안주에 집결하여 부대정비에 주력하게 되었다.

당시 사단장이었던 백선엽 준장은 후일 격전을 벌인 ‘운산전투’에

대하여 “이 전투는 피를 말리는 전투이었으며, 미국 언론은 국군 제1사단과 미 제8기병연대가 전멸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실제로 사단은 이 전투에서 530여 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되었으며, 제15연대가 큰 타격을 받았다.”고 회고하였다.<sup>23)</sup>

### 3. 溫井里－熙川 突出部の 災殃

국군 제2군단(배속: 제6, 제8사단)은 평양 탈환작전을 미 제1군단에 넘겨준 대신 미 제8군의 선봉부대가 되어 제일 먼저 청천강을 도하한 후 희천을 목표로 적을 추격하였다. 좌전방의 미 제1군단이 청천강을 도하할 무렵인 23일 군단의 좌전방 제6사단 제7연대는 희천에, 후속한 제2연대는 군우리 북쪽의 자작(自作)으로 진출하였다. 그리고 우전방 제8사단은 험준한 산악을 따라 기동하여 다소 지체되었지만 제16연대가 개천에, 제10연대는 맹산에서 영원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이날 한만국경선 진출을 위한 추수감사절 총공세 명령이 하달되자 제2군단장 유재홍 소장도 24일 공격을 개시하여 좌전방 제6사단은 초산과 벽동을, 우전방 제8사단은 만포진과 중강진을 점령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명령에 의거 제6사단장 김종오(金鍾五) 준장은 좌전방 제2연대를 자작에서 온정리를 경유 벽동을, 우전방 제7연대를 희천에서 극성령을 넘어 초산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사단에비인 제19연대는 제2연대를 후속하여 온정리로 진출시키기 위하여 희천에 대기시켰다.

공격을 개시한 제7연대는 적의 저항이 경미하여 첫날인 24일에 극성령을 넘어 중간목표인 회목동(檜木洞)을 점령하였고, 계속 전진하여 25일에 고장(古場)을, 26일에는 최종 목표인 초산을 점령함으로써 아군 부대중 국경선인 압록강에 제1착으로 도착하는 영광을 누렸다.

그러나 좌전방 제2연대는 첫날은 계획대로 온정리를 점령하였으나 다음날 벽동(碧潼)을 목표로 북상하던 중 예상치 못한 중공군과 조우하여 새로운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연대는 25일 야포와 대전차포로 증강된 제3대대를 선두로 공격을 개시하여 정오경 선두는 양수동에 후미인 제1대대는 온정리를 막 벗어났다. 이로써 연대는 대대 종대의 공격대형을 유지한 채 온정천변의 계곡 통로인 온정리-북진 도로를 따라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중공군은 도로 서쪽의 감제고지인 도리산(841고지)과 동쪽의 감제고지인 동림산(1165고지)으로부터 도로를 따라 뺏어 내린 능선위에 무수한 매복진지를 구축하고 대기하고 있었다. 이어서 유리한 지형을 선점한 중공군은 사정내로 들어온 국군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개시하였고, 기습공격을 받은 제2연대는 협곡에서 미처 대응태세를 취할 겨를도 없이 사상자가 속출하였다. 특히 선두인 제3대대는 전방과 좌, 우측방의 3면으로부터 집중공격을 받게 됨으로써 순식간에 지휘체제가 마비되었고, 이렇다 할 교전도 해보지 못하고 온정리 방면으로 분산,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이날 밤 온정리로 철수한 대대병력은 750명 중 400명에 불과하였고, 배속된 105mm 야포와 대전차포는 물론 차량까지도 모두 유기한 채 겨우 병력만 빠져 나왔던 것이다.<sup>24)</sup>

이런 와중에서도 제3대대를 후속하던 제2대대는 중공군 포로 2명을 생포한 후 적 주력부대가 온정리로 집중되자 좌인접 국군 제1사단이 작전중인 운산으로 철수하였다. 그리고 제1대대는 온정리로 철수하여 방어로 전환한 후 제3대대의 철수 엄호와 온정리를 방어하였다.

이날(10월 25일) 생포된 포로들은 자신의 소속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며 “동림산 일대에 매복하고 있었으며 병력의 수가 10,000명에 가까운 대병력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사단정면에 중공군의 대부대가 출현하였음을 직감한 사단장은 우선 초산으로 진출한 제7연대의 퇴로가 차단될 것에 대비하여 예비인 제19연대의 1개 대대를 회목동으로 진출시켜 기동로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중공군의 추격이 주춤하자 전선은 소강상태가 지속되었고, 전투도 일단락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중공 제40군은 26일 03:30을 기하여 온정리 일대에 대대적인 공격을 재개하였다.

중공군은 당초 국군 제6사단에서 추정했던 1개 사단규모가 아닌 2개 사단규모의 병력을 투입하였고, 이들은 온정리 주변의 주요도로와 고지 등 요소요소에 미리 병력과 화기를 배치해 놓고 심야에 기습공격을 가해 왔다. 이들은 한밤중에 피리와 나팔, 팽과리 등을 이용하는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전쟁 공포심을 유발시키면서 제과공격을 가하였다. 이때 그들은 국군의 포격이나 사격에 동료들이 쓰러지는 것도 아랑곳없이 계속 전진하는 등 인명을 초개(草芥)와 같이 경시하는 이른바 인해전술(人海戰術)이라는 그들 특유의 공격수법을 구사하였다.

이에 동요된 국군 제2연대 장병들은 교전이 개시된 지 30분도 채 못되는 사이에 공포에 사로잡혀 대응방법을 잃은 채 우왕좌왕하다가 끝내 분산철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남쪽 운산으로 통하는 도로에는 중공군이 길목마다 화기를 거치해 놓고 퇴로를 차단하고 있어 연대의 주력은 동쪽 회천으로 통하는 소로를 따라 후퇴해야만 했다. 연대장 함병선(咸炳善) 대령은 온정리 동쪽 5km 지점인 구두령(龜頭嶺)에서 일부 병력을 수습하여 저지진지를 급편하고 병력의 수습을 시도하였으나 1시간도 채 못되어 이 진지마저 돌파됨으로써 제2연대는 마침내 와해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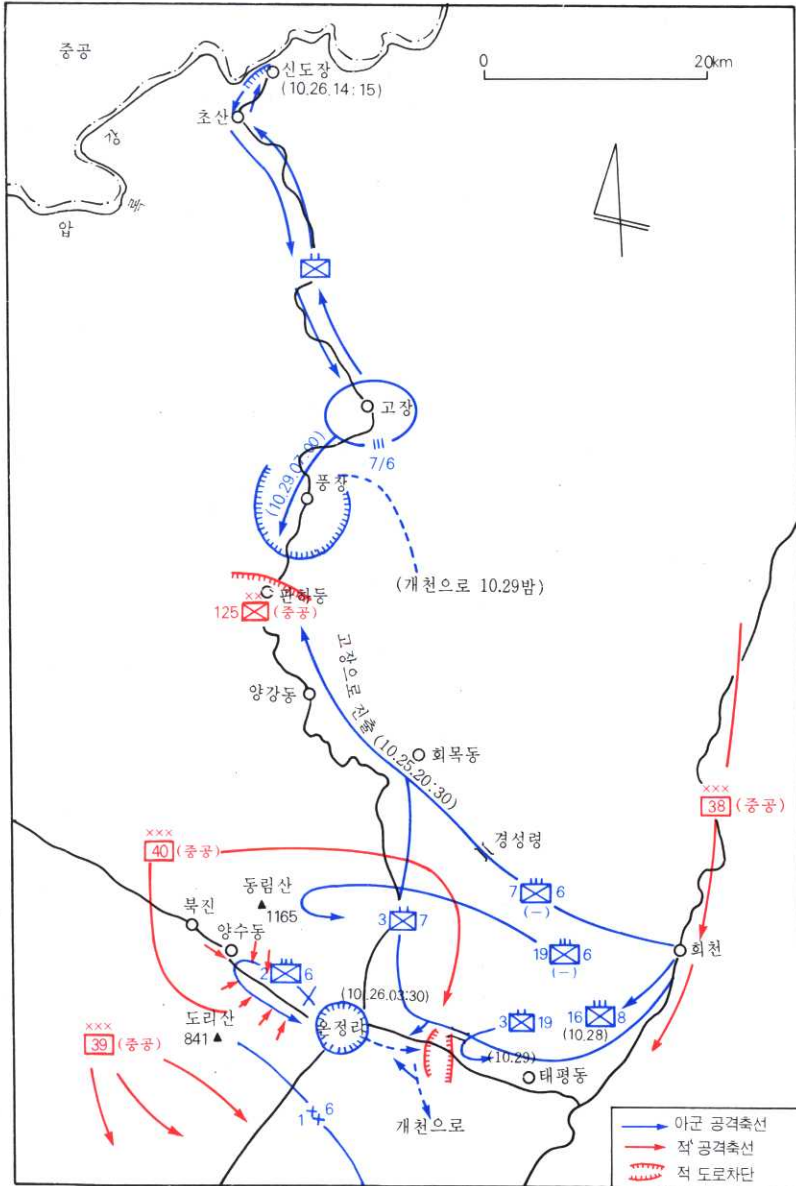
이에 제6사단장 김종오 준장은 26일 아침 회천에 대기 중인 제19연대(-1)를 온정리로 급파하여 제2연대를 구출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초산으로 진출한 제7연대의 철수를 군단에 건의하였다. 군단장 유재홍 소장은 제6사단장의 건의를 승인함과 동시에 이날 14:00부로 제6사단의 우인점으로 진출 중인 국군 제8사단의 진격작전도 전면 중지시켰으며, 27일에는 회천에 위치한 제8사단 제10연대를 온정리로 출동시켜 제2연대의 구출은 물론 조속히 온정리를 탈환하여 제2연대가 그곳에 유기한 야포와 차량을 모두 회수하도록 명령하였다.<sup>25)</sup>

이 무렵 제2연대는 각개 분산하여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중공군에게 포로가 되거나 전사 또는 부상당한 병력이 무려 1,000여 명에 달하였고, 태평(泰平)에서 26~27일 이틀 동안 병력을 수습한 결과 제1대대 병력을 주축으로 약 400여 명을 집결시킬 수 있었을 뿐 제3대대 잔여병력은 대부분 희천으로, 제2대대 병력은 운산 남쪽의 용전리로 철수함으로써 제2연대는 사실상 전투능력을 상실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중공군의 인해전술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제19연대(-1)와 제8사단 제10연대가 차례로 희천을 떠나 온정리가 바라보이는 북동쪽 고개까지 접근하여 공격준비를 하고 있을 때 중공군이 27일밤에 야간공격을 감행해옴으로써 온정리 동측방 산악지대에서 격전이 벌어졌다. 제19연대(-1)와 제10연대는 29일까지 3일간 전투역량을 집중하였으나 수적으로 5배가 넘는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압도되어 공격이 좌절되고 통로마저 차단되어 양 연대의 전 차량과 3개 포대의 야포까지 잃게 되었다. 전투 후 노획문서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당시 온정리 지역으로 침입한 적은 중공군 제40군으로서 그 예하에는 제118사단과 제119사단 및 제120사단 등 3개 사단이 있었으며, 바로 이들이 국군 제19연대(-1)와 제10연대를 공격하고 있을 때 동측의 희천 방면으로 남하한 중공 제38군 예하의 1개 사단이 이에 합세하여 4개 사단이 동시에 협공을 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이 온정리전투는 운산전투와 함께 중공군과 병력의 수적인 대결에서 패배한 첫 싸움이기도 하지만, 중공군의 참전사실을 그들과 조우한 다음에야 알게 된 완전한 기습이었다. 또한 중공군 포로가 잡힌 다음에도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북진을 강행함으로써 패전의 쓰라림을 더하게 되었던 전투이었다.

이렇듯 온정리전투에서 국군이 의외의 패배를 당하자 미 제8군에서도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군 예비대를 투입하여 중공군의 진출을 저지하는데 주력하게 되었으며 특히 초산 지역에 고립된 국군 제

온정리-초산 전투



7연대를 어떻게 구출할 것인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때 국군 제2군단에서는 차후의 작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선 국군 제8사단 제16연대와 제21연대를 청천강 북안의 운흥리 정면으로 배치하는 한편 제6사단 제2연대와 제19연대 및 제8사단 제10연대를 청천강 남쪽의 개천으로 집결시켜 재편성을 실시하면서 제7연대의 조속한 철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 4. 楚山 撤收作戰

국군의 선봉부대로 나선 제6사단 제7연대는 좌우인접 부대들이 중공군과 격전을 펼치고 있을 무렵 연대의 진출로가 중공군의 남침 경로와 엇갈려 경미한 적의 저항을 받았지만 이를 격퇴하고 고장을 경유 26일 압록강변의 초산에 도착하였다.

이때가 10월 26일 14:15, 첩병소대가 대망의 국경선에 도착하였음을 알리는 태극기를 강변에 꽂았다. 제7연대가 9월 16일 낙동강전선의 신령에서 반격을 개시한 지 41일 만이었다.

그러나 연대는 국경선에 도착한 지 만 하루도 안된 27일 정오 무렵 회목동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때 연대는 신속한 전진에 반하여 보급이 뒤따르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장병들은 동계피복도 지급받지 못하여 영하로 떨어지는 야간에는 추위와 싸워야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강인한 정신력과 국토통일 완수라는 사명감으로 역경을 극복하고 있었다.

당시 연대는 좌인접으로 진출한 제2연대가 온정리 일대에서 중공군과 격전을 치르고 있어 연대의 퇴로 차단이 우려되어 더 이상 이곳에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연대는 유류와 탄약이 부족하여 철수를 선불리 개시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재보급을 기다린 연대는 28일 11:00경 공중투하로 휘발유 45드럼과 각종 탄약을 지원

받았다. 그리고 초산으로 진출하였던 제1대대도 연대주력이 집결하고 있는 고장으로 철수하였다. 그리고 연대는 본대의 출발에 앞서 연대 수색중대로 하여금 산악 계곡통로인 고장-회목동 간 도로를 정찰하도록 하였다.

제7연대는 29일 07:00에 제2대대, 제3대대, 연대본부, 제1대대 순으로 차량행군 대형을 편성하고 이동을 개시하였다. 연대가 고장을 출발한 지 1시간이 경과할 무렵 사단으로부터 “귀 연대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음. 전술공군의 엄호사격이 실시될 예정임. 최선을 다하여 철수 작전에 성공하기 바람.”이라는 전문이 접수되었다.<sup>26)</sup>

후방의 온정리 상황이 불리함을 직감한 연대장 임부택(林富澤) 대



국군 제6사단 장병이 압록강변 국경마을 초산을 점령하고 경계태세에 있다.(1950.10.26)

령은 측방경계를 강화하면서 신속히 철수, 기동하였다. 선두 제2대대는 풍장 일대에서 전날 출발한 연대수색대와 합류하였다. 제2대대가 고장-회목동의 중간에 위치한 주원(朱院) 계곡을 막 통과하려고 하였을 때 최초로 중공군의 기습사격을 받았다.

이들 중공군은 계곡 양편의 병풍처럼 깎아지른 듯한 가파르고 험준한 능선상에 연대규모의 병력을 매복시켜 놓고 대기하고 있었으며, 연대가 그 계곡으로 접어들자 일제히 집중사격을 가함으로써 선두의 제2대대가 중공군의 함정 속에 빠지게 되었다.

장병들은 이 함정에서 벗어나려고 차량도 버리고 북쪽을 향해 앞을 다투어 뛰었으나 중공군의 포위망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상자가 속출하였다. 이때 대대는 간간이 이어진 유엔 공군의 근접항공지원에 힘입어 공격을 시도하여 중공군 포로 5명을 획득하였으나 일몰과 더불어 근접항공지원이 끊어지자 중공군의 저항이 가중되어 주원리 계곡 돌파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받은 사단장 김종오 준장은 중대한 단안을 내려, “귀 연대는 휴대할 수 있는 전투장비를 제외한 모든 장비를 파괴 또는 소각하고 최선의 수단을 다하여 회목동으로 집결하라.”는 마지 최후 통첩과도 같은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sup>27)</sup> 당시 사단으로서도 연대의 퇴로 타개를 위한 어떠한 대책도 강구할 만한 여력이 없었다. 온정리의 제2연대가 무너지고 제19연대와 제8사단 제10연대도 위기에 놓여 있었으니, 제7연대의 철수문제는 자력으로 타개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연대장은 전방의 제2대대는 적을 견제하도록 하고, 제3대대를 명장산으로 우회침투시켜 적의 배후를 공격하여 진로를 타개하고자 하였으나, 제3대대도 먼저 명장산으로 진출한 중공군에 의해 저지되었다. 이렇듯 진퇴유곡에 빠진 연대는 일단 병력을 수습하여 야간방어태세로 들어갔다.

풍장을 중심으로 남쪽에는 제2대대가 상창동 일대의 진지를 점령

하고, 북쪽에는 제3대대와 제1대대가 도로 양편에 병력을 배치하여 길게 장사진을 친 상태의 방어태세를 취하게 되었다. 연대가 방어진지를 편성하기는 하였으나 사방이 온통 험한 준령으로 뒤덮인 산악지형의 계곡 통로인 이곳은 적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였다. 따라서 연대는 오직 빨리 날이 밝아 유엔군 전폭기의 지원하에 진로를 타개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연대의 상황을 간파한 중공군은 30일 자정이 되자 공격을 재개하였다. 그리고 계곡에는 지축을 뒤흔드는 듯한 포성과 기관총 소리, 피리와 나팔 소리, 그리고 괴성을 지르는 고탈소리가 울려 퍼졌다.

연대는 중과부적인 상황에서 사력을 다해 심야의 대혈전을 벌였지만 2시간이 경과할 무렵부터 후방의 제3, 제1대대의 진지가 차례로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급기야는 전연대의 방어진지가 적의 인해공격에 무참히 유린되었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연대장 임부택(林富澤) 대령은 비장한 결심을 한 듯 “연대 전 장병은 적진을 각개돌파하여 구장동으로 집결하라.”는 최후의 명령을 하달하였다.<sup>28)</sup>

아군의 선봉부대로 압록강변으로 진출하여 사기가 충천하였던 연대는 중공군의 불의의 공격에 전의가 저하되었음은 물론 삼삼오오 소규모 인원으로 분산되어 적진을 돌파하게 되었다.

이 분산철수 과정에서 장병들은 험준한 지형과 혹독한 추위, 그리고 배고픔을 극복하고 무작정 남쪽으로 우회 퇴각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지 않을 수 없었다. 장병들은 묘향산을 넘어 청천강 남쪽으로 형극의 행군을 계속하였다. 11월 6일 사선을 넘어서 개천으로 집결한 연대 병력은 총 3,552명 가운데 875명에 불과하였으며, 대대장 1명을 포함한 연대와 대대의 참모장교들과 연대 고문관 등 많은 장병들이 중공군에게 포로가 되거나 전사 또는 실종됨으로써 연대는 재편성이 불가피하였다.<sup>29)</sup>

그리고 연대는 개천에서 군단예비로 전환되어 부대를 재편성 중인

사단주력과 합류하였고, 인원과 장비를 보충하며 부대의 재편성에 주력하게 되었다. 이 무렵에도 일부 연대장병들은 복귀하고 있었다.

## 5. 淸川江 橋頭堡 作戰

유엔군의 추수감사절 공세가 뜻하지 않은 중공군의 기습공격으로 좌절되고 오히려 국군 제2군단의 전선이 붕괴되었으며, 미 제1군단의 운산 지역에서도 전황이 극도로 악화됨으로써 새로운 대응책이 숨가쁘게 마련되고 있었다.

11월 2일 미 제8군에서는 미 제1군단의 청천강 이남으로 철수문제를 놓고 신중한 검토가 있었다. 장차 작전을 위하여 강 북쪽에 교두보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군우리 지역이 중공군의 심한 위협을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강 북쪽의 배치는 퇴로차단의 위협이 있으므로 강 남쪽에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게 되었다.

결국 군사령관인 워커 중장이 나서 청천강 및 대령강의 교량과 전차 도하지점을 포함한 교두보를 확보하기로 작전방침을 결정하였다. 이에 서부전선의 미 제24사단과 영연방 제27여단을 신속히 철수시켜 청천강 북안에 교두보 진지를 편성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군우리 지역에는 국군 제7사단과 미 제24사단 예하 미 제5연대 전투단을 배치하여 동측방을 방호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그는 순천으로 북상한 미 제2사단 소속 미 제9연대 전투단을 보강하여 군우리 남방에서 순천-군우리 간의 통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국군 제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을 조속히 청천강 남쪽의 안주 및 신안주로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sup>30)</sup>



## (1) 淸川江 橋頭堡 構築

국군과 유엔군이 확보해야 할 교두보는 중공군의 주접근로 판단되는 청천강, 대령강 하류의 교량 및 전차 도하지점을 포함한 박천 지역과 구룡강 연변의 하천선 통로를 감제할 수 있는 반송촌(盤松村) 지역, 그리고 군우리 정면의 청천강 계곡 통로를 봉쇄할 수 있는 천불산(天佛山) 일대의 중요한 지형지물로 편성되었다. 이 가운데 좌전방 박천과 반송촌 지역은 미 제1군단이 맡고, 우전방 천불산 일대는 국군 제2군단이 맡게 되었다.

미 제1군단은 국군 제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이 운산 지역에서 작전 중에 있을 뿐 아니라, 정거동(停車洞)에서 철수한 미 제24사단 예하 미 제21연대는 안주에서 부대를 정비하고 있었고, 또 구성에서 철수한 미 제5연대 전투단은 국군 제7사단을 증원하기 위하여 개천으로 이동하는 등 가용병력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연방 제27여단과 미 제19연대 병력만으로 박천 지역과 반송촌 지역에 교두보 진지를 편성하게 되었다.

이 계획에 의거 정주로 진출하였던 영 제27여단은 박천으로 철수하여 박천 정면과 대령강 서쪽의 동문리와 옥녀봉에 대대별로 거점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미 제24사단 제19연대는 영변 남쪽으로 흐르는 구룡강 만곡부에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11월 3일 미 제24사단 제19연대를 비롯한 영 제27여단과 기타 증원부대들은 청천강 교두보 진지를 점령하고 철수부대를 엄호하며 청천강 북안으로 밀려드는 중공군을 물리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sup>31)</sup>

그 동안 미 제1기병사단(-1)과 국군 제1사단은 청천강 남쪽으로 철수하여 안주와 신안주에서 각각 부대정비에 들어가고, 미 제1기병사단 제7기병연대는 개천 북서쪽 연당리(蓮塘里) 일대에서 철수부대를 엄호하며 대기하였다.

한편 군우리 북쪽을 맡은 국군 제2군단은 온정리 전투에서 실패한 국군 제6사단과 제8사단 제10연대가 재편성 중에 있었고, 또 국군 제7사단은 비호산 일대에서 군단의 동측방을 엄호하고 있었다. 군단이 가용한 부대는 제8사단 제16, 제21연대 뿐이었고, 군단장은 이들을 원리 서쪽의 풍동-고사동 선에 배치하였다.

이로써 서부전선의 미 제8군은 영 제27여단이 박천 지역에, 미 제19연대가 반송촌 지역에, 그리고 국군 제8사단(-)이 풍동-고사동 지역에 각각 저지진지를 편성함으로써 청천강 북쪽으로 가깝게는 2km에서 멀리는 10km까지 추진된 교두보 진지를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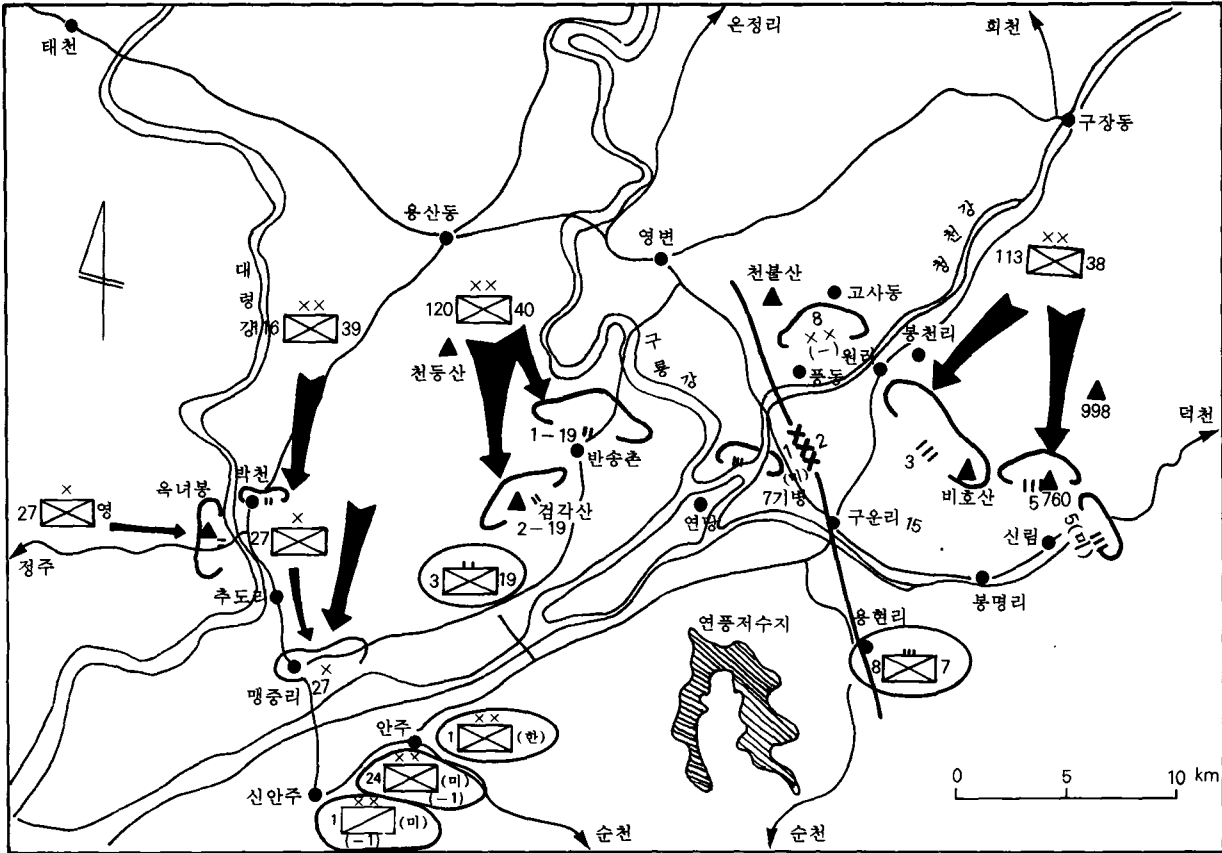
## (2) 飛虎山 戰鬪

당시 국군 제7사단은 미 제1군단의 국군 제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이 운산 일대에서 격전을 펼치고 있을 때 군단예비로써 영변 일대에 집결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군 제2군단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10월 29일 제2군단으로 배속이 전환되어 군우리로 이동하였다.

당시 국군 제2군단 상황은 제6사단 제2연대가 온정리에서 분산 철수하였고, 또 제19연대와 제8사단 제10연대는 이를 증원하기 위하여 역습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어서 제8사단 제16연대와 제21연대를 투입하여 적을 저지하고자 하였으나 적이 먼저 희천 남쪽의 태평으로 진출하였다. 설상가상으로 국경선까지 진출하였던 제6사단 제7연대도 퇴로가 차단되어 분산철수하고 있었다. 이로써 군단은 6개 연대 중 4개 연대(제2, 제7, 제10, 제19연대) 병력이 분산된 상태이고 남은 2개 연대병력으로 겨우 군우리 정면을 유지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제2군단장은 국군 제7사단에 조속히 구장동-덕천 간의 저지진지를 점령하여 군 및 군단의 동측방으로 진출을 기도하는 중공군을 저지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사단은 적정도

청천강 교두보 전투(1950. 11. 3~11. 6)



제 2절 새로운 敵의 衝突 121

파악할 겨를도 없이 11월 1일 공격을 개시하였다. 좌전방 제3연대는 구장동 북쪽의 백령천을, 중앙의 제8연대는 용문산(1190고지)을, 좌전방 제5연대는 덕천을 목표로 3개 연대 병진공격을 하였다. 연대들이 목표를 점령하고 저지진지를 편성할 무렵 중공군의 야간 기습공격을 받아 제3연대는 영변으로, 제8연대는 원리로 철수하였다. 이로 인하여 덕천으로 진출하던 제5연대는 알일령 부근의 월봉산을 점령하였다.

군단장은 구장동-덕천 지역 점령이 실패로 돌아가자 제7사단으로 하여금 2일 군우리 북쪽의 비호산(622고지) 일대에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적을 저지하도록 하였다. 이날 오후에 좌전방 제3연대는 비호산 일대에, 우전방 제5연대는 비호산 동쪽의 760고지에 각각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제5연대는 전날 밤에 개천-덕천 도로를 통제하기 위하여 이곳으로 진출한 미 제24사단 제5연대와 연결하였다. 그리고 제8연대는 사단예비로 군우리 남쪽의 용현리에 대기하였다.

사단이 방어진지를 구축한 표고 622m의 비호산은 청천강 하류지역에 형성된 평야지대에서는 제일 높은 감제고지이다. 따라서 군우리로 연결되는 도로와 철로를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술적 요충인 군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히 확보해야 할 중요한 고지이므로 미 제8군도 이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사단은 고지의 중요성은 물론 사기가 저하된 군단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기필코 이 고지를 사수할 것을 결의하고 방어진지를 강화하는데 주력하면서 적의 야간공격에 대비하였다. 3일 03:00경 중공 제38군은 1개 사단규모를 동원하여 좌전방 제3연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또 대대규모의 적은 우전방 제5연대를 공격하였다. 제5연대는 조공인 적을 30분 만에 격퇴시켰으나 주공을 맞이한 제3연대는 새벽까지 혈전을 펼치게 되었다.

제3연대는 희천-군우리 도로를 따라 침투하는 적을 조기에 발견하고 연대 화력과 사단의 포병화력으로 봉천리 일대의 적 밀집지대를 집중적으로 포격하였다. 그럼에도 적의 파상공격은 계속되었고, 교전

30분 만에 전초대대가 적중에 고립되었다. 다행히 적은 비호산 주봉을 탈취하는데 주력하여 전초대대는 철수할 수 있었다.

주진지에서 전투가 펼쳐질 무렵에는 유무선통신마저 두절되어 화력 지원은 물론 지휘도 곤란하였고, 이후 쌍방은 비호산 정상에서 3차례나 주인이 바뀌는 밀고 밀리는 처절한 근접전투를 벌였다. 비호산을 세 번째 적의 수중에 넘겨준 연대는 새벽 무렵에 결사대를 조직하여 육탄공격으로 적을 몰아내고 고지를 확보하였다. 격전을 치른 제3연대는 4일 비호산 진지를 예비인 제8연대에 인계하고 전선에서 물러나 사단예비가 되었다.

중공군이 물러나자 전선은 정찰활동만 있을 뿐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공 제38군은 작전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하여 5일 03:00에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 공격은 규모나 전술면에서 지난 공격과 차이가 없었으나 이번에는 그들의 장기인 산악기동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능선을 따라서 우전방 제5연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제5연대는 사력을 다해 격전을 펼쳤으나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철수하였고, 그 여파는 비호산의 제8연대에 미쳐 연대도 새벽 무렵에 철수하게 됨으로써 비호산 정상이 다시 적의 수중에 들어갔다.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사단장 신상철(申尙澈) 준장은 즉시 제3연대를 비호산 남쪽의 운동-중참으로 진출시켜 제5연대의 철수를 엄호하고, 군우리 일대에 배치된 전포병화력으로 비호산을 집중 포격하였다. 이 포격에 적진이 유린된 것으로 판단한 사단장은 제3연대에 역습을 명령하였다. 이후 연대는 포병화력의 엄호하에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고지에 배치된 적의 저항이 완강할 뿐만 아니라 지형이 불리하여 6부 능선에서 공격이 둔화되었다.

제3연대가 공격하는 동안 재정비와 공격준비에 주력한 제5, 제8연대도 11월 6일 08:00에 공격을 재개하였다. 30분간의 공격준비사격을 실시 후 비호산을 포위공격으로 탈취하기 위하여 제8연대는 동쪽에서, 제5연대는 서쪽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공격제대는 3시간 동

안 격전을 펼쳐 중공군을 격퇴하고 다시 비호산을 확보하였다.

2차에 걸친 비호산 공방전에서 참패한 중공 제38군은 서서히 전선에서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좌인접에서 공격한 제39군과 제40군도 비호산전투를 고비로 공격을 중지하고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였다.

이 전투에서 중공군을 격퇴한 제7사단의 승리는 실로 값진 것이었다. 이는 중공군과의 대결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다는 의의도 중요하지만, 중공군에 대해 공포심을 느끼고 있던 국군 및 유엔군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운산과 온정리에서 파란을 일으켰던 중공군의 거센 파도는 이곳 비호산 방파제에 부딪쳐 물거품이 되었고, 반면 미 제8군은 청천강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맞게 되었다.

### (3) 橋頭堡線 戰鬥

교두보선으로 이동한 국군과 유엔군이 신진지를 강화하는 동안 공격준비에 주력한 중공 제38군은 11월 3일 비호산을 방어 중인 제7사단을 공격하였고, 또 이보다 하루 늦은 4일에는 중공 제40군이 교두보상의 미 제24사단 제19연대를 공격한데 이어 영 제27여단을 공격함으로써 교두보 전투가 시작되었다.

미 제19연대 제1대대가 약산 고개에서 진지를 보장하고 있을 무렵인 11월 4일 11:00에 구룡강 통로를 정찰 중인 항공관측장교가, “1,000여 명의 중공군이 제1대대 지역 북서쪽 3km 지점에서 구룡강을 건너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 보고를 접수한 지 30분도 못 되어 제1대대가 이들의 공격을 받기 시작하였다.

관측장교가 중공군 대열을 발견하였을 때, 이들은 이미 제1대대 지역 좌측방으로 우회하여 삼림지대를 통해 대대의 배후로 은밀히 침투한 후이었다. 적은 기습공격을 개시하였고, 대대 무선통신병은 상황보

고도 하지 못한 채 그들에게 무전기를 탈취당하고, 또 81mm 박격포 진지가 유린되는 등 순식간에 혼란이 일어났다. 이 공격에 제1대대는 싸워 보지도 못하고 중장비와 대대의 전 차량을 유기한 채 청천강 남쪽으로 무질서하게 후퇴하였다.<sup>32)</sup>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연대장은 예비대인 제3대대를 투입하여 적을 구축하려 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

미 제24사단장 처치(John H. Church) 소장은, 제1대대 진지가 돌파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미 제19연대를 포함한 전차와 공병 등, 청천강 북쪽의 사단부대들을 통합하여 특수임무부대로 편성, 부사단장 데이비드슨(Garrison H. Davidson) 준장에게 지휘하도록 명령하였다.<sup>33)</sup> 사단장은 그에게 좌측의 영연방 제27여단과 협조하여 조속히 교두보 진지를 회복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사단의 예비인 미 제21연대의 사용권을 부여하였다.

데이비드슨 준장은 제19연대 본부에 도착하여 상황의 불리함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미 제21연대장에게, “명일 공격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한 다음, 제21연대의 공격을 엄호할 검각산의 제19연대 제2대대 진지를 순시하며 대대장에게 반드시 이 고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안주에서 부대를 정비하고 있던 미 제21연대 제2대대와 제3대대가 4일 밤에 청천강을 건너 용흥리로 이동한 다음 5일 아침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공격제대는 안개가 자욱한 계곡을 따라 용연동으로 진격하여 미 제19연대 제1대대가 빼앗겼던 166고지를 탈환하여 교두보 진지를 회복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중공 제40군은 해가 떨어지자 또 다시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 공격에 제21연대(제1대대 결)는 진지를 고수하였고 검각산을 방어 중인 제19연대 제2대대는 격전과 고전을 치른 후 진지를 고수하였다. 이때 중공군은 좌인접 영 제27여단과의 사이에 생긴 8km 정도의 공백지대를 이용하여 제19연대 제2대대를 집중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중공군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철수하였다. 날이 밝은 후 제

2대대가 진지를 정비하면서 주변 일대를 수색한 결과 검각산 계곡에 흩어져 있는 474구의 중공군 시체를 확인하였고, 제3대대도 166고지 정면에서 100여 구의 시체를 확인하였다.

한편 박천 일대를 방어 중인 영 제27여단도 우인점의 미 제19연대보다 10시간쯤 늦은 4일 밤부터 교전이 시작되었다. 미 제19연대를 공격하던 일부가 공격방향 서쪽으로 전환하여 박천 남쪽의 추도리(楸島里)에서 여단을 화력지원하던 미 제61포병 C포대를 기습공격하였다.

포대는 즉시 보병전투로 전환하여 전면방어진지를 구축하고 강력하게 저항하였다. 이 교전에서 포대는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중공군 71명을 사살하고 이들을 격퇴시켰다. 반면 포대도 2명의 전사자와 17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105mm 야포 1문을 비롯한 6대의 차량과 무전기가 파괴되는 등,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sup>34)</sup>

5일 새벽에는 중공군이 박천 정면을 공격하여 영 제27여단의 미들섹스 대대가 돌파되었고, 이에 여단은 호주 대대로 역습을 개시하였으나 전반적인 상황은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실상가상으로 항공관측자로부터 “사단규모의 중공군이 박천 동측방으로 우회, 남하하면서 여단을 포위하려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됨으로써 여단이 위기에 직면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영 제27여단장 코드(Basil A. Coad) 준장은 이 이상 교두보를 지탱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군단장에게 부대의 철수를 건의하여 승인을 얻게 되자, 우군 전폭기들이 지속적으로 중공군 집단 병력을 강타하는 가운데 철수작전을 개시하였다. 여단은 호주 대대가 여단의 철수를 엄호하는 가운데 포병대대, 아질 대대, 미들섹스 대대 순으로 청천강 북안까지 철수하였다. 저녁 무렵 엄호하던 호주 대대가 맹중리에 도착함으로써 철수는 완료되었고, 여단은 미 제19연대 지역으로 통하는 측방도로와 연결된 삼차로 부근에서 새로운 교두보 진지를 점령하였다.

야간에 중공군이 공격을 재개하여 여단은 4시간 동안의 혈전 끝에



적을 격퇴하였고, 6일 날이 밝으면서 호주 대대 진지 정면에서 계곡을 따라 북쪽으로 철수하고 있는 중공군의 대열이 목격되었다. 이 교전을 끝으로 중공군은 공격을 중지하였다.

11월 6일부터 청천강 연안의 전(全) 전선이 소강상태로 접어든 가운데, 항공정찰에 의하여 중공군부대들이 전면적으로 철수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맥아더 원수는 바로 이날(11월 6일) 미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부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압록강 교량을 폭파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으며, 제1차로 11월 8일, 79대의 B-29폭격기를 출격시켜 교량 폭파작전을 전개하였다.<sup>35)</sup>

그리고 미 제8군은 교두보 지역을 회복하기 위하여 7일과 8일 이틀 동안 미 제24사단으로 하여금 피탈된 교두보 지역을 공격하게 하였다. 공격을 개시한 사단은 가벼운 저항을 물리치고, 박천 지역과 반송촌 지역의 교두보 진지를 완전히 탈환함으로써 12일 동안에 걸친 중공군과의 제1차 작전을 종결짓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중공군은 미 제8군의 청천강 교두보를 남겨 놓은 채 후퇴하게 되었고, 미 제8군은 이를 발판으로 삼아 새로운 공격작전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

### 제 3 절 東部戰線의 불안한 前進

#### 1. 國軍과 美軍의 戰線 調整

낭림산맥 서쪽의 서부전선에서는 미 제8군이 중공군의 1차 공세(10월공세)를 맞이하여 고전을 치르고 있었으나 국군 제1군단(배속:수도사단, 제3사단)이 맡은 산맥 동쪽의 동부전선에서는 서부전선보다 적

정이 경미하여 이렇다 할 격전은 없었다. 이때 제3사단은 미 제10군단의 원산상륙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산, 흥남, 함흥 일대의 교두보를 확보 중에 있었고, 수도사단은 24일 내려진 총공세 명령에 따라 한만 국경선으로 향하여 철수하는 적을 추격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전선에 투입될 미 제10군단의 주력부대(미 제1해병, 제7사단)들은 해상에서 인민군이 부설한 기뢰 소해작업이 완료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소장은 원산항과 흥남항 일대에 인민군이 부설한 기뢰 소해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어 미 제1해병사단과 미 제7사단의 상륙이 임박해지자 10월 26일 작전지역을 조정하기 위한 작전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는 이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sup>36)</sup>

#### 작전명령(요지)

- 군단은 동북지역의 한만국경선으로 계속 진격한다.
- 국군 제1군단은 동해안 축선과 무산가도를 따라 북으로 계속 전진하여 백두산 이동의 국경선을 점령한 뒤 지역내의 적을 평정한다. 단, 미 해병제1사단과 미 제7사단이 진출할 때까지 일부병력을 장진호, 부전호, 풍산 방면으로 지향시켜 적에게 최대한의 압박을 가할 것이며, 원산 지역을 경비하는 국군 제3사단은 그 임무를 미 해병제1사단에 인계한 뒤 수도사단을 후속하라.
- 미 해병제1사단은 장진호 선에 진출하여 강계를 목표로 공격할 것이며, 미 제3사단이 원산에 도착할 때까지 일부 병력으로 원산-함흥 지구를 경비하라.
- 미 제7사단은 이원에 상륙하는 즉시 풍산과 부전호를 거쳐 백두산 서남쪽 해산진으로 진출한다.
- 미 제3사단은 원산-함흥 지구의 경비를 맡아 후방의 적 유격대를 소탕함과 동시에 군단의 보급로를 방호하라.

이로써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은 백두산에서 성진에 이르는

마천령산맥을 중심으로 전선을 조정하였다. 미 제10군단은 산맥 서쪽 지역인 함경남도 지역을, 국군 제1군단은 동쪽지역인 함경북도 지역을 책임지게 되었다.

그러나 동부전선의 진격은 장진호, 부전호 일대에 대거 투입된 중공군과 서부전선에 집중된 중공군의 공세로 말미암아 언제, 어떻게 상황이 변할 줄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제1해병사단, 미 제7사단, 국군 수도사단, 그리고 국군 제3사단은 11월 한달 동안 험준한 산악지형과 혹독한 기후 아래서 한만국경선 진격작전을 펼치게 되었다.

## 2. 長津湖 進擊戰

군단으로부터 장진호 진출명령을 받은 미 제1해병사단장 스미스(Oliver P. Smith) 소장은 제7해병연대로 하여금 함흥에서 장진호에 이르는 계곡에서 국군 제3사단 제26연대와 교대하여 장진호로 진격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제1해병연대는 원산 남쪽 고저(庫底)와 원산 서쪽 마전리(馬轉里)의 국군과 교대하여 작전을 수행하고, 제5해병연대는 원산과 흥남 남쪽 연포비행장 및 군단의 서측방 경계를 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다.<sup>37)</sup>

미 제1해병사단은 10월 26일 09:00에 제1해병 제1대대를 선두로 원산항에 상륙을 시작하여 28일에는 제7해병연대, 제5해병연대 순으로 상륙을 완료하였다. 장진호로 진격할 제7해병연대는 주요 전투장비의 양륙이 지연되어 31일 함흥으로 이동하였다. 제7해병연대장 리젠버그(Homer L. Litzanberg) 대령은 사단장으로부터 정면의 적이 중공군이라는 것만 들었지 구체적인 적정을 몰랐다. 그는 도로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31일 제1대대의 B중대장 윌콕스(Myron E. Wilcox, Jr.) 대위를 국군 제3사단 제26연대 지휘소가 위치한 수동으로 파견

하였다. 이어 본대는 11월 1일 새벽에 함흥에서 차량으로 출발하여 이날 늦게 장진호로 향한 계곡 통로의 입구인 마전리(麻田里)에 도착하여 다음날(11월 2일) 국군 제3사단 제26연대와 진지를 교대했다.

이 무렵 수동까지 진출했던 제26연대는 중공군 제124사단 제370연대의 기습을 받고 마전리로 철수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제7해병연대는 2일 제26연대가 피탈당한 수동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기의 엄호하에 첫 공격을 개시하였다. 연대는 마을 입구의 연대봉(698고지) 일대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친 후 4일 수동을 경유 진흥리로 진출하였다. 이때 적은 진흥리와 북쪽 황초령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감제할 수 있는 750고지로 후퇴하였다. 이 고지는 황초령으로 올라가는 첫 길목이며 삼거역부터 갑자기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데다가 S형으로 굴곡이 연속된 도로가 바로 밑으로 통과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공군이 이 고지를 이용하여 전진 중인 연대의 전후방을 차단한다면 연대는 마치 ‘병속에 든 물고기’와 다를 바 없게 되는 중요지형이었다.

이날 연대장은 중공군의 기도를 탐지하고자 배속된 사단 수색중대로 하여금 750고지를 공격탐지하게 하였다. 예상대로 수색중대는 중공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철수하였다. 이어 제3대대가 5일부터 연이틀 동안 항공기와 포병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돌격을 기도하였으나 중공군의 122mm 박격포의 집중사격으로 끝내 공격은 실패하고 말았다.

대대가 철수하자 연대장은 6일 밤 동안 포격으로 적진을 제압한 후 명일 공격을 재개하기로 결심하고, 105mm 곡사포와 4.2" 중박격포, 그리고 81mm 박격포로 밤을 세워가며 사격하였다. 이때 81mm 박격포 탄만 1,800발을 발사하는 기록을 세웠다.

제3대대장은 7일 아침 소대규모의 정찰대로 하여금 750고지를 수색하게 했으나 중공군은 이미 많은 사체와 부상자를 버려둔 채 도주하였다. 이때 체포된 중공군 포로들은 “6~7일 밤 미 해병대의 야간

포격으로 750고지를 증원했던 제372연대는 반신불수(半身不隨)가 될 만큼 손실을 입었으므로 사단장이 다음날(7일) 새벽에 후퇴를 명령했다.”고 진술함을 보아도 그들이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제7해병연대는 진흥리에 집결하였지만 연대봉과 750고지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다소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고토리(古土里)까지는 아직도 15km나 남아 있어 부대정비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사단장은 적에게 재편성할 여유를 주기 않기 위하여 계속 진격하도록 독려하였다.

제7연대장은 비록 연대가 750고지는 장악하고 있으나 최대 걸림돌인 고지정상의 문고개와 그 후방의 황초령이 장애물이었다. 이를 정찰하기 위하여 8일 지원자 16명으로 편성된 고긴(William F. Goggin) 정찰대를 진흥리-고토리 간에 파견하였다. 진흥리를 출발한 정찰대는 26시간 동안 주변 산악과 도로를 정찰하고 9일 복귀하였고, 이들은 의외로 도로는 물론 주변 산악지역에도 적정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제7연대는 9일 16:00에 진흥리를 출발하여 접적없이 황초령을 넘어 10일 10:00에 고토리를 무혈점령하고 전면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이로써 해병사단의 장진호 진출을 위한 제1단계 작전이 종료되었다.

고토리로 진출한 연대는 이곳에서부터 삭풍이 몰아치는 엄동설한과 싸우게 되었으며, 주간에는 영하 8°이던 기온이 야간에는 영하 26°이하로 급강하하여 혹한을 처음 겪는 해병대원들을 어리둥절하게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 제10군단장은 11일 자정에 한만국경선으로 계속 공격하도록 명령하였고, 또 해병사단의 진출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불만을 표시하였다. 이에 해병 제7연대장은 하갈우리로 정찰대를 파견하였고, 정찰대는 고토리-하갈우리 간을 정찰한 결과 소수의 적과 접촉하였으나 진지를 점령하고 있는 적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연대는 12일 고토리를 출발하여 하갈우리로 전진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적설

과 도로상태가 불량하여 장사진을 이룬 행군대열의 속도는 지지부진하여 연대는 14일 13:00에 하갈우리를 점령할 수가 있었다.

이때 사단장과 연대장은 군단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좌측방의 노출과 후방지역에서 적 게릴라 활동을 고려하면 사단이 후방의 안전 대책도 없이 내륙 오지로 깊이 진출하는 것은 위험을 자초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단에 의거 사단장은 공격을 일시 중지하고 압록강으로 진출하기 이전에 예하부대의 집결완료와 진흥리-고토리 간 보급로의 확보, 그리고 하갈우리에 동계작전을 위한 작전기지를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조치로 진흥리-고토리 간의 도로보수로 전차의 통행은 물론 원산항에 하역된 물자가 육로를 통해 하갈우리로 수송되었다. 그리고 18일 고토리와 하갈우리에 비행장 건설공사도 착수하였다. 또한 함흥 일대를 방어하던 제5해병연대도 미 제3사단에 작전지역을 인계하고 북진하여 진흥리-고토리 간을 경계하게 되었고, 제1해병연대도 원산 지역을 미 제3사단에 인계하고 북진하기 위하여 지경리(地境里) 일대에 집결하게 되었다.

사단장은 일련의 조치들이 완료되자 한만국경선으로의 진출을 재개하기 위하여, 11월 23일 08:00에 제7해병연대는 유담리, 제5해병연대는 유담리 북쪽의 메물리(袂物里)를 목표로 공격하도록 명령하였으나, 곧 이어 하달된 군단의 새로운 공격명령에 의거 취소되었다. 이때 군단명령에 의하면 사단의 임무는 한만국경선을 향한 북진(北進)이 아니라 27일 군단의 주공으로 유담리에서 서쪽으로 60km 떨어져 있는 무평리(武坪里)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이 조치로 해병사단은 서부전선의 미 제8군 정면에 배치된 중공군의 후방을 공격하여 미 제8군의 진출을 지원하게 되었다.

### 3. 惠山鎭 進擊戰

미 제7사단도 원산 일대의 기뢰 소해작업이 지연되어 부산 외항에서 10일 동안 대기하다가 27일 이동을 개시하여 미 해병사단보다 3일 늦은 29일 적의 저항없이 이원에 상륙하였다. 이때 미 제7사단장 바(David G. Barr) 소장은 미 제17연대는 북청-풍산-혜산진으로, 제31연대는 북청-함흥-오노리-신흥 축선을 따라 부전호-신갈과진으로 진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32연대는 사단의 예비로 후방경계에 임하도록 조치하였다.

사단의 선두부대로 상륙한 미 제17연대본부와 제1대대는 상륙하는 즉시 제49야전포병대대 및 제13야전공병대대와 함께 신북청-북청-장흥리를 거쳐 초리에 진출하였고, 제2, 제3대대는 후속하여 상륙 중에 있었다. 선두부대는 10월 30일 1335m의 후치령을 넘어 저녁때 풍산에 도착하였다. 이때 국군 수도사단 제1연대는 풍산 북쪽에서 완강히 방어하고 있는 적을 계속 공격하고 있었다. 미 제17연대(-2)는 수도사단 제1연대와 합동으로 이 적을 물리쳤으며 11월 2일 전투가 끝난 뒤 국군 제1연대는 진지를 미 제17연대에 인계하고 동해안의 성진으로 이동하였다.

이 무렵 이원항은 방파제 시설이 없어 파도가 심하여 후속부대의 상륙이 지연되어 제31연대는 11월 3일 상륙을 완료하였다. 연대는 상륙 즉시 이원-풍산 도로를 거쳐 부전호 방면으로 이동하여 수도사단 제18연대와 교대하였으며, 임무를 인계한 제18연대는 성진으로 이동하였다.<sup>39)</sup> 그리고 사단예비인 미 제32연대는 11월 4일 상륙을 시작하여 그 이튿날 함흥으로 이동한 다음 동북쪽의 담풍리에서 차후작전에 대비함으로써 미 제7사단은 국군 수도사단으로부터 작전지역 인수를 완료하였다.

당시 미 제7사단은 주력부대들의 전개는 완료되었으나 보급지원 부대와 차량 등의 양륙이 지연되어 작전에 차질을 빚게 되어 긴급히

공중보급을 요청하였다. 사단은 4일 우선 각종 박격포탄과 탄약을 공중보급 받아 전투준비를 완료하였다. 사단장은 제17연대를 혜산진으로, 제31연대를 부전호를 목표로 공격을 명령하였다.

제17연대는 풍산에서 적 2개 연대를 격퇴한 여세를 몰아 갑산 남쪽에서 횡으로 흐르는 웅이강(熊耳江)을 향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사단의 진출은 험악한 산악협곡과 도로 상태가 불량하여 부대기동이 용이하지 못하였다. 반면 부전호로 공격을 개시한 미 제31연대는 11월 8일 백산 동측에서 1개 대대 규모의 적과 조우하여 치열한 전투 끝에 적 50명을 사살하였는데, 이 전투에서 적이 유기한 시체를 조사한 결과 중공군 제42군 제126사단 제376연대의 일부 병력이었음이 판명되었다.

이와 같이 좌인접에서 장진호로 진출 중인 미 제1해병사단 정면에 이어 미 제7사단 정면에서도 중공군이 출현하자 미 제7사단은 불안



미 제7사단 장병들이 국경마을 혜산진을 점령 후 환호하고 있다.(1950.11.21)



감과 아울러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2일 풍산을 방문한 미 제10군단장은 사단장에게 계속 북진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제17연대는 협곡인 매덕령(1546고지)을 넘어 웅이강 도섭장으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인민군이 먼저 교량을 파괴하고 철수함으로써 연대의 도하는 다소 지체되었다. 이때 연대장은 제2대대는 드럼통을 연결하여 만든 곤평리의 임시 도보교를 이용하게 하고 제3대대는 창평리 북쪽의 여울로 도섭하도록 하였다. 제2대대는 도하지역이 적의 소화기 사정권 밖에 있어 14일 도하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제3대대는 적이 연대의 도하를 간파하고 13일 밤에 상류의 댐을 개방함으로써 수심이 60cm나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소화기와 박격포 사격이 집중되어 부상자와 익사자가 발생하였다. 대대장은 연대에 건의하여 15일 제1대대에 이어서 도보교를 이용 도강을 완료하였다.

웅이강을 도하한 연대가 갑산 진출을 준비하는 동안 항공관측보도에 의하면 적이 소규모 집단으로 분산되어 갑산으로 철수 중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대는 이 적을 추격하기 시작하였고, 19일에는 보전포 협동작전을 펼쳐 갑산을 점령하였다. 압록강 진출을 목전에 둔 제17연대는 20일 혜산진을 목표로 제1, 제3, 제2대대 순으로 결빙된 협곡의 얼음판 도로를 따라 기동을 시작하였다.

연대는 경미한 적의 저항을 격퇴하고 21일 10:00에 압록강변 혜산진과 부근고지를 점령하였다. 이로써 미 제17연대는 국군 제7연대에 이어 두 번째로 압록강으로 진출한 부대가 되었다.

사단장은 제17연대의 공격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20일 압록강 지역을 조기에 확보할 목적으로 부전호 부근의 제31연대 주력과 사단후방지역을 경계 중인 제32연대에 갑산으로 이동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때 부전호로 진출하였던 제31연대보다 예비인 제32연대가 먼저 갑산에 도착하였다. 사단장은 먼저 도착한 제32연대장에게 삼수를 경유하여 신갈과진을 점령하라고 명령하였다. 연대의 선봉인 킹스톤(Robert C. Kingston) 소위가 지휘하는 특수임무부대는 22일 삼수를 경유하여

오후에 신갈과진을 점령하였고, 후속하던 주력부대들도 속속 신갈과진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제32연대 정찰대와 제17연대의 정찰대가 연합함으로써 사단의 압록강 진출작전은 일단락되었다.

#### 4. 淸津 進擊戰

서부전선의 미 제8군이 추수감사절 공세를 시작할 무렵 동부전선의 국군 제1군단의 주공부대인 수도사단의 제18연대는 부전호를, 제1연대는 풍산을, 제1기갑연대는 북청-단천-성진으로 적을 추격하고 있었다. 11월 초 미 제7사단이 상륙을 완료하고 북진하자 사단은 작전지역을 미 제7사단에 인계하고 동해안 축선을 따라 적을 추격하게 되었다.

사단의 선두부대로 적을 추격한 제1기갑연대는 10월 30일 성진을 점령하고 길주 공격을 목전에 두었다. 이때 인민군 제41사단 및 제507여단 등이 길주, 명천, 어랑천 일대에서 축차적인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중 길주는 함경선과 해산선의 철로와 간선도로의 분기점으로 이곳을 점령해야만 두만강까지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어 전술적 요충이었다. 따라서 사단장은 제1기갑연대가 그동안 계속된 추격작전으로 지쳐 있어 주력 연대들이 도착하면 공격을 개시하기로 결심하였다.

제1연대가 풍산에서 북귀하자 사단장 송요찬(宋堯讚) 준장이 길주 공격을 결정하면서부터 사단의 공격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제1기갑연대는 주공으로 성진-길주 도로를 따라 정면에서, 제1연대는 조공으로 동해안 도로를 따라 외현동으로 우회하여 적 후방을 공격할 수 있도록 기동하였다.

이 명령에 의거 성진에서 기동을 개시한 제1기병연대는 11월 3일 길주 남쪽의 일신동에, 제1연대는 길주 후방의 허의동까지 진출하였

다. 이때 제1기갑연대의 전초가 북쪽의 덕산동—신탐동 일대로 진출하자 적의 직사포와 박격포 사격이 집중되었고, 사단도 근접항공지원과 대포병사격으로 대응하였다. 제1기갑연대는 4일 지원된 미해병사단 전폭기의 폭격과 포병사격을 집중한 후 길주 남쪽의 개활지를 통과하여 시내를 감제할 수 있는 남쪽의 고지군으로 진출하였다. 이때 적도 길주 방어를 위한 마지막 보루를 사수하기 위하여 포병화력을 지원받아 강력히 저항하였다. 그러나 연대는 이 적을 격퇴하고 저녁 무렵 시가지의 동쪽 일부를 확보하였다.

다음날 날이 밝아 기갑연대 주력이 시내로 진입할 무렵에는 이미 적은 야간을 이용하여 명주로 철수하였다. 이날 제1연대가 길주 북쪽의 황곡동 및 명천 방향으로 적을 추격하였다.

길주를 피탈당한 적은 명천 북방의 어랑천 방향으로 북상하고 청진 및 나남에 있던 적은 반대로 어랑천을 향하여 남하하였다. 이곳에서 합류한 이들 적은 어랑천 일대의 천연적인 장애물을 이용하여 방어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사단은 제1기갑연대는 내륙 합수로부터 사단 측후방 진출을 기도하는 적을 저지하도록 하고, 제1연대는 동해안 도로를 따라 명천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전호 지역을 인계하고 복귀 중인 제18연대로 하여금 제1연대를 초월하여 이번 작전의 최대 장애물인 봉강 및 어랑천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제1연대가 적의 저항을 격퇴하고 7일 명천을 확보하자 다음날의 공격에 주공이 될 제18연대가 열차편으로 명천에 도착하였다. 제18연대는 다음날 바로 제1대대를 선두로 용암리—조막산을 경유 오후에 어랑천의 도하지점인 봉강으로 진출하였다. 이때 적은 어랑천 대안에 2개 대대규모로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사단과 일전을 치를 준비를 완료하고 대기하고 있었다.

이때부터 적은 대대의 도하를 저지하기 위하여 전화력을 집중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대의 도하는 지연되었다. 대대장 이병형(李秉衡)

소령은 10일 적전(敵前) 도하를 강행하기로 결심하고 어랑천 대안에 화력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사단 포병, 연대 및 대대의 박격포, 중기관총이 어랑천 대안에 집중되었고, 대대는 이 틈을 이용하여 어랑천 대안으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대대의 내륙진출은 용이하지 않았다. 적은 아군의 포병지원 사격에도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증원부대를 투입하여 구축된 방어지에서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이때부터 쌍방은 어랑천 북안의 용강동 일대에서 일진일퇴 공방전을 펼쳤고, 적은 12일 전차로 증강된 6~7개 대대규모로 역공을 개시하였다. 연대는 어랑천 남쪽으로 철수하였고, 제18연대를 후속하여 어랑천 남쪽의 발하동으로 진출하였던 제1연대도 강변으로 진출한 적 전차와 박격포의 집중사격으로 명천 서쪽의 연대봉으로 철수하였다.

이 무렵 군단장은 수도사단의 공격이 부진되자 군단 후방을 엄호 중인 제3사단을 합수지역에 투입하고, 이 지역에서 작전 중인 수도사단 제1기갑연대를 어랑천 공격에 투입하여 3개 연대로 공격을 재개하도록 조치하였다. 수도사단은 어랑천에서 철수한 지 1주일 만인 19일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번에는 제18연대가 봉강 남쪽에서, 제1연대는 제18연대의 좌측에서 도하를 실시하였다. 이때 적은 그동안 사단의 공격과 계속된 아군의 항공폭격 및 포병사격에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었기 때문인지 종전과 같은 완강한 저항은 없었고, 제1연대와 제18연대는 쉽게 강 북쪽에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

어랑천 부근에서 참패한 적은 회문을 경유 주을, 청진 방면으로 철수하면서 축차적인 지연전을 위한 진지를 구축하고 수도사단의 진출을 저지하고자 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 사단은 주을, 경성을 경유 24일에는 나남으로 집적없이 진출하였다.

적은 나북천과 나남-청진 도로변의 303고지에서 일전을 기도하였으나 제18연대 제1대대가 야간공격으로 이 적을 격퇴하였다. 25일 적

은 제18연대와 제1연대가 청진으로 진출하자 북쪽의 회령과 동쪽의 용기 방면으로 철수하였다. 이로써 수도사단은 청진을 점령하게 되었다.

### 5. 合水 · 白岩 進擊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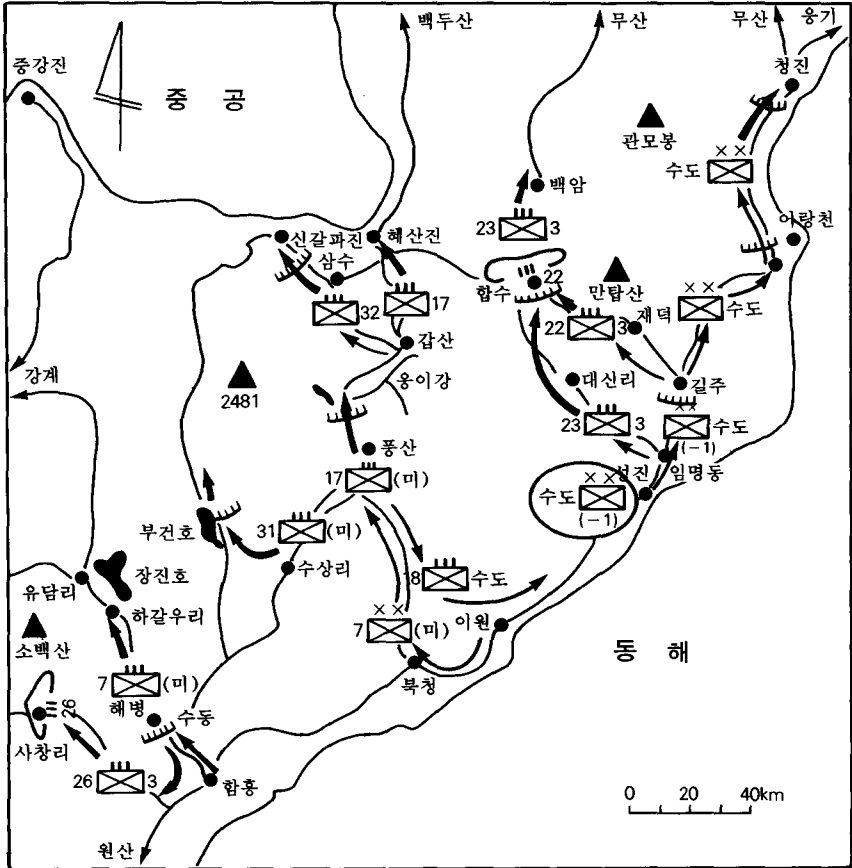
국군 제3사단은 미 제1해병의 원산상륙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산, 함흥 일대에서 20여일 동안의 인민군 패잔병에 대한 평정작전을 펼쳐 다수의 장비를 노획하고 패잔병을 소탕한 후 연대별로 작전지역을 미 제1해병사단에 인계하고 11월 5일 홍원, 신포, 북청으로 이동하였다.

이때 사단장 이종찬(李鍾贊) 대령은 국군 제1군단의 후방지역을 엄호하기 위하여 제22연대를 북청에, 제23연대를 신포에, 그리고 제26연대를 홍원에 배치하여 부대정비와 부근 지역에 출몰하는 패잔병을 소탕하도록 하였다.

군단의 주력부대인 수도사단이 성진을 점령하고 길주로 진격하자 군단사령부와 제3사단은 11월 13일 다시 성진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길주와 명천을 탈환하는 등 승승장구하던 수도사단이 어랑천을 공격하면서부터 사단의 공격이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군단장은 수도사단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16일 제3사단장에게 합수의 공격을 명령하였다. 이 명령에 의거 사단장은 군단예비에서 복귀한 제22연대는 길주-합수로, 제23연대는 성진-임명동-합수로의 공격준비를 명령함으로써 사단도 좌인접 미 제7사단, 우인접 수도사단과 함께 본격적으로 한만국경선 진출작전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때 사단의 제26연대는 장진호를 공격 중인 미 제7해병연대의 좌측방을 엄호하기 위하여 미 제1해병사단에 배속(11월 9일)중이었다.

사단이 작전할 길주-합수-혜산진 축선은 백두산에서 뺏어 내린 마천령산맥을 종주하는 통로로써 내륙산악에서 동해안으로 최단 시간 내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길주에서 수도사단에

동부전선 진출전



결정적인 피해를 입은 인민군의 일부가 이 통로를 따라 철수함으로써 수도사단의 제1기갑연대가 이 적을 추격하고 있었다.

당시 합수에는 수도사단의 공격을 받고 철수한 1,000여 명의 병력이 험산 준령을 이용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 북쪽의 백암에도 신편한 노동여단 병력으로 추측되는 약 4,500명이 집결 중이며, 후방지역에서도 별동대 및 유격대 등이 공격부대의 보급로 차단

과 부대주둔지 기습을 기도하고 있었다.

길주로 이동한 제22연대는 제2대대를 합수와 길주의 중간지점인 재덕에, 연대본부와 제1대대는 길주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는 계속 성진의 군단사령부 경계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성진으로 이동한 제23연대는 제3대대를 합수 남쪽의 대신리(합수 남쪽 30km)에서 작전 중인 수도사단 제1기갑연대의 진지를 인수하도록 하고, 연대 주력을 임명동 일대에 배치하였다.

사단장은 전방연대의 배치가 완료되자 21일 10:00에 금일 18:00까지 합수를 점령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좌전방 제23연대 제1대대는 능선 통로로, 우전방 제22연대 제2대대는 백무선 철로를 따라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23연대 제1대대는 합수 부근으로 진출할수록 적의 저항이 완강하였으나 공군의 화력지원을 받아 이 적을 격퇴하고 22일 정오 무렵에 합수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제22연대 제2대대는 2개 대대규모의 적이 중간지점인 역곡동 부근에서 완강히 저항하고 있어 23일 여명 공격으로 이 적을 격퇴하고 아침 무렵에 합수로 돌입하여 제23연대와 연결하였다.

제23연대 제1대대는 24일 합수지역을 제22연대 제2대대에 인계하고 적을 추격하여 25일 정오 무렵에는 백암을 무혈점령하였다. 이때 적이 유기한 기관차 4대를 노획하였다. 이어 연대주력도 백암으로 진출하였다. 그리고 제22연대도 주력부대들이 합수로 진출하여 제23연대의 측후방을 엄호하였다.

이로써 군단은 20여 일 동안 전개한 진격작전으로 내륙거점인 합수, 백암과 두만강 진출의 발판이 되는 청진을 점령하였다.

## 제 4 절 後方地域 平定作戰

### 1. 人民軍의 第 2 戰線 形成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및 서울탈환작전으로 퇴로가 차단된 북한 인민군 주력은 38도선 북쪽으로 후퇴를 하지 못하고 남한지역에서 지휘체제가 마비된 채 산악지역에 잠적하거나 태백산맥을 따라 부분적으로 월북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군 및 유엔군이 38도선을 돌파하여 북한으로의 진격이 최초예상을 뒤엎고 급속도로 이루어지자 북진 중인 국군과 유엔군의 후방지역에 퇴로를 잃은 패잔병들이 계속 집결하게 되었다. 그중 철의 삼각지로 일컬어지는 평강, 철원, 김화지역에 비교적 많은 병력이 집결하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 인민군사령부는 이들 패잔병 1만여 명을 수습하면서 우선 3개 사단을 재편성하여 인민군 제2군단에 배속하고 이 군단으로 하여금 비정규전을 전개하게 하였다.<sup>39)</sup>

이러한 북한인민군의 제2전선 형성 및 후방지역작전은 유엔군의 후방지역을 교란하여 증원부대의 지원을 차단하고 반격으로 이전시 자신들의 전선타격부대와 배합전을 펼친다는 전략방침에 기초한 것으로써 그들의 〈조선전사〉에는 이를 김일성의 교시라고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sup>40)</sup>

“반 공격전(反攻擊戰)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서는 기본 전선에서의 타격과 함께 적후(敵後)부대들의 배후타격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적 후방에서 활동하는 인민군부대들과 빨치산들은 적의 중심 깊이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김일성은 전선타격과 적 배후타격을 하나의 통일적인 전략방침 밑에 정규군에 의해 조직 전개시켰으며, 제2전선 부대들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였다.<sup>41)</sup>

“적후(敵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민군 연합부대들은 인민유격대와 의 긴밀한 연계 밑에 도처에서 적의 수송로를 차단하고, 적의 지휘부를 습격하며, 적들에게 체포구금된 애국자들을 구출하고 해방지역을 계속 확대하여야 하겠습니까.”

조선전사에는 이를 김일성의 독창적 전략이라고 미화하고 있으나 이 무렵 중공 주석 모택동(毛澤東)도 유엔군의 후방지역에 잔류하고 있는 인민군 패잔병들에게 후방지역 작전전개를 종용하였으며, 그가 김일성에게 보낸 전문(1950년 10월 10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 후방지역 작전전개에 관해 김일성·팽덕희에게 보낸 전문<sup>42)</sup>

현재 적군의 대부분이 북진으로 인하여 후방지역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인민군대로써 북쪽으로 철수할 수 없는 자는 모두 남한에 남아 적의 후방지역에서 작전을 전개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는 전략상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작전을 전개해 나가는 데 매우 유리할 것입니다. 만일 4~5만 명의 인민군이 남한에 남아 이 임무를 담당한다면 장차 북한지역에서의 작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전문에서 보듯이 모택동은 국군과 유엔군의 급속한 진격으로 퇴로가 막혀 후방지역에 남아 있는 인민군 패잔병을 조직화하여 후방지역에서 교란작전을 실시함으로써 장차 북한지역에서 있을 정규작전에 기여하도록 한 것이다.

북한 인민군이 제2전선을 형성할 수 있었던 유리한 조건은 패잔병의 상당수가 38도선 이북에서 잔류하고 있었고, 또한 이들은 북한주민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그곳 지형에 익숙하다는 유리한 점도 있었다. 제2전선 부대로 재편성된 인민군 제2군단은 주로 강원도, 황해도 일대에서 10월 14일부터 행동을 개시하였으며, 이들은 부대별로

근거지를 확보하고 지역주민과 유대를 강화함은 물론 종래의 당조직과 정권기관, 근로단체들을 복구, 정비함으로써 후방지역 작전을 위한 대중적 지지기반을 마련하고 주민들을 조직적으로 동원, 활용하였다. 또한 이들은 지방 당조직의 지도 아래 인민유격대를 조직하여 협조된 작전을 실시하도록 하였다.<sup>43)</sup>

인민군 제2군단은 이러한 방침에 따라 철의 삼각지대를 중심으로 한 중부산악지대에 주요 거점들을 확보한 후 원산-평양 및 원산-철원 간의 교통로를 완전 차단하여 국군과 유엔군의 측후방을 위협하면서 보급시설, 야전병원, 보급열차, 통신부대 등을 습격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sup>44)</sup>

인민군의 제2전선 형성은 전선의 국군 및 유엔군 작전에 불안을 조성하게 함은 물론 병력보충 및 병참선의 차단 등으로 후방지역 작전의 추가적인 병력 소요를 발생하게 하였다.

## 2. 收復地域 平定作戰

국군과 유엔군이 38도선 북방에서 계속 국경선을 향한 급속한 진격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후방의 공백지역은 그에 비례해서 점차 확대되어 나갔다. 특히 서부전선의 미 제8군 후방지역인 철의 삼각지대 주변과 동부전선 미 제10군단의 후방지역인 원산 일대에 적 제2전선 부대와 유격대의 교란활동이 빈발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평정작전이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 (1) 西部地域 平定作戰

미 제8군은 중공군의 개입이 확인되자 전선부대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예비로 대전 부근에서 공비토벌과 후방지역 경계를 맡고 있던 미 제9군단(배속:미 제2, 제25사단)을 청천강 전선에 투입하게

되었다. 이 조치에 의거 11월 초 미 제25사단은 개성으로 이동하였고, 10일에는 순천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무렵 평양 남쪽의 후방에서 적 유격대의 활동에 의한 피해가 속출하자 사단은 북진을 잠시 보류하고 이 적을 소탕하게 되었다.

당시 이천, 평강 일대에 거점을 둔 적은 예성강과 임진강 지역까지 침투하여 유엔군의 보급로 기습 및 차단을 획책하고 있었다. 이곳에 진출한 적은 10월 28일 이천의 국군야전병원을 기습하여 부상자를 학살하고 도주하였고, 11월 2일 아침에는 평강 북쪽 16km 지점에서 1,000여 명의 적이 달리는 보급열차를 기습하였다. 다행히도 이 열차를 호송하기 위하여 탑승하고 있던 국군 제17연대의 200여 명이 적을 추격하여 40명을 사살하고 23명을 포로로 함으로써 진압되었다. 생포된 포로의 진술에 의하면, 이곳에는 약 4,000여 명의 인민군 패잔병이 유격활동을 하고 있으며 경원선 보급열차를 습격하는 것이 주 임무라고 하였다.

또, 11월 9일에는 인민군 제4사단 제18연대 소속의 1,400여 명이 철원에서 한국 경찰대 800여 명을 습격하였고, 그 다음날에는 동사단 제5연대 소속 500여 명의 적이 연천지역에 출몰하였다. 이 적을 소탕하기 위하여 미 제25사단 제24연대의 1개 중대가 출동하였으나 오히려 적의 기습을 받아 전사 38명의 손실을 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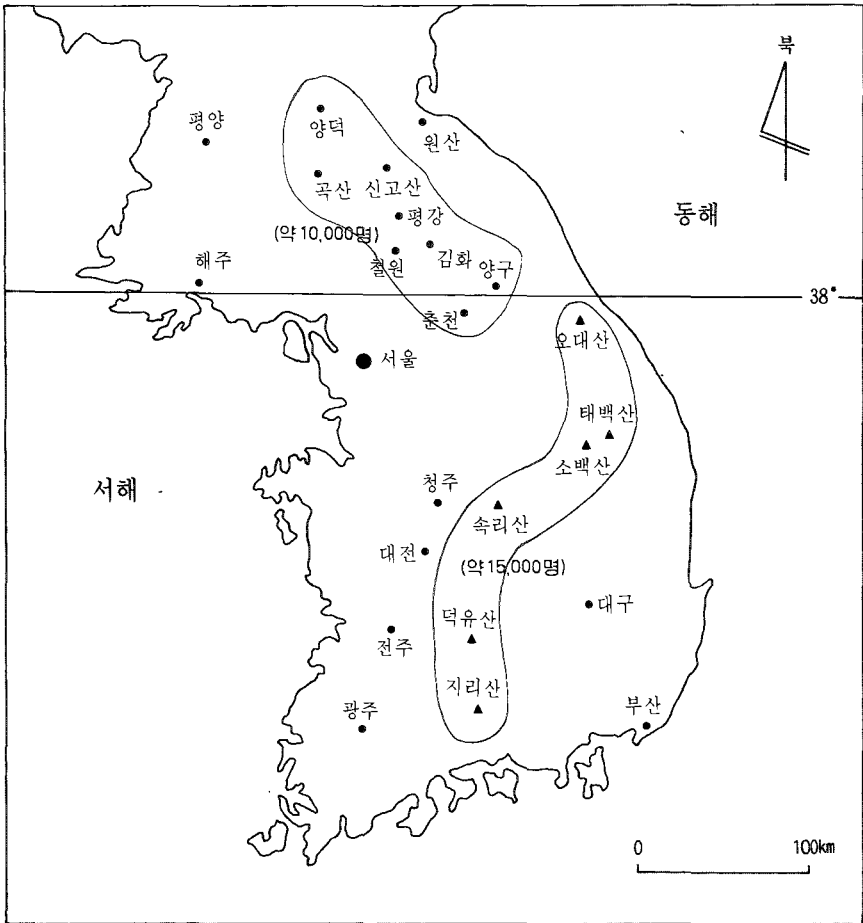
이와 같이 중부 내륙지역에서 적 유격활동이 증가하자 미 제8군은 미 제25사단에 국군 제17연대와 터키 여단을 배속시켜 이 일대에 대한 강력한 소탕작전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25사단 제27연대는 이천, 시변리 지역에서, 제24연대와 국군 제17연대는 철의 삼각지에서, 그리고 터키 여단은 금천 남쪽에서 소탕작전을 펼치게 되었다.

이 계획에 의거 제17연대 주력이 11월 10일 철원으로 이동하였는데, 적 유격대가 박격포의 지원을 받아 제17연대의 제1, 제2대대를 포위 공격하였다. 이 전투는 13일까지 계속되었고, 연대는 공중보급

과 항공기의 지원사격을 받아 이 적을 격퇴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대는 11명이 전사하고 23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나 141명을 사살하고 20명을 생포하였다.

이후 소탕부대들이 11월 17일부터 5일 동안 철의 삼각지 부근에서 강력한 소탕작전을 전개하자 적은 내륙 깊숙히 도주하였고, 미 제25

인민군 제2전선부대 활동(1950. 10. 30)



사단과 터키 여단은 11월 24일부터 시작될 청천강 전투에 참전하기 위하여 군우리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국군 제17연대도 사단 주력이 집결된 가평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38도선 부근 가평, 춘천, 화천 일대에서도 북쪽으로 복귀하던 적 패잔병에 의해 유격활동이 전개되었다. 적은 10월 22일 화천저수지를 경비하고 있던 국군과 경찰대 60명을 습격한 후 수문(水門)을 개방함으로써 23일에는 북한강 수심이 1.2m나 증가하였고, 발전소 부근의 교각 하나가 파괴되었으며, 25일 경찰대대가 그곳에 증원되었을 때는 발전소가 심하게 파괴되어 있었다. 11월중 화천발전소 부근에는 국군 제1, 제3, 제5 및 제7유격대대가 투입하여 잔적을 소탕하였는데, 포로진술에 의하면 이들은 대부분 인민군 제10사단 소속이었고 이들의 임무는 춘천 일대에서 서울과 춘천에 이르는 병참선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육군본부도 이 적을 소탕하기 위하여 신편된 국군 제2사단 제31연대를 가평에, 제5사단을 춘천 일대로 재배치하였다. 그러나 적 주력이 이에 앞서 북쪽으로 철수함으로써 대규모 집적은 없었고, 분산된 소수의 패잔병만 소탕하였다.

## (2) 東部地域 平定作戰

원산을 탈환한 국군 제3사단은 미 제10군단의 원산상륙을 엄호하기 위하여 항만 및 비행장 시설은 물론 지역내 주요 병참선인 동해안 도로와 평원선 도로를 경비하고 있었다. 동시에 북상 중인 패잔병 소탕작전도 병행하였다. 10월 중순경 귀순한 인민군 연대장은 “인민군 제3, 제4, 제5사단의 패잔병 4,000명이 삼척 남서쪽의 태백산맥 일대에서 활동 중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를 확인이라도 하듯 이들 중 선두는 통천과 고저로 북상하여 민간에 침투하여 양민을 학살하고, 식량을 약탈하는 등 만행을 저질렀다. 또 체포된 포로는 “원산 남쪽

35km에 위치한 마전리 일대에는 인민군 제15사단장 박성철(朴成哲) 소장이 패잔병 1만 명을 수습하였고, 이들이 약탈을 일삼자 주민들은 깊은 계곡으로 은신하였다.”고 진술하였다.<sup>45)</sup>

이런 상황에서 미 제1해병사단은 26일 원산에 상륙한 후 국군 제3사단의 작전지역을 인수받아 패잔병 소탕작전을 펼치게 되었다.

선두로 상륙한 미 제1해병연대 제1대대는 국군 제1군단의 보급시설이 있는 고저로 이동하여 국군 제22연대 제3대대와 교대하고, 제1해병연대 제3대대는 평양-원산 도로와 철원-원산 도로가 교차하는 전술적 요지인 마전리에서 제22연대 제2대대와 임무를 교대하였다.

당시 고저에는 약 3,000여 명의 피난민이 몰려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으며, 이 틈을 이용한 인민군 패잔병들이 피난민과 합류하였다. 약 700명으로 추정되는 패잔병들은 10월 28일 저녁부터 제1대대를 기습 공격하였고, 이 전투는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되었다. 대대는 취침 중에 불시에 공격을 받아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을 맞기도 하였으나 이적을 격퇴하고 보급시설을 확보하였다.

이 무렵 이들의 북상과 마전리 주변 산악지역에 은거중인 패잔병들의 공격을 우려한 제3대대는 민간수용소를 설치하고, 또 패잔병들의 귀순을 권유하는 전단을 살포하는 선무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패잔병들의 귀순은 날로 늘어났고, 또 인민군 제15사단이 곧 대대를 공격할 것이라는 정보도 입수하였다.

11월로 접어들면서 패잔병들은 2일 원산-마전리 보급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였고, 사단장은 인명 및 차량피해가 속출하자 도로를 통한 보급지원을 포기하고 공중투하로 대대의 보급을 지원하였다.

이 무렵 미 제10군단장은 항공정찰보고에 의하면 두류산(마전리 북쪽 11km) 일대에 적 2,000~3,000명이 준동하고 있으므로 이 적을 격퇴하도록 하였다.

대대가 이 지역을 정찰하고 적과 접촉없이 복귀하였으나 마을 주민들로부터 박성철이 “미 해병대를 전멸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였다. 적은 6일 01:30에 기습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오히려 150여 명의 전사체만 남겨둔 채 후퇴하였다.

반면 고원 남쪽에 은거하고 있던 패잔병들은 원산-함흥 도로를 따라 북상 중인 보급차량대열을 기습공격하여 차량 23대를 소각시켰고, 또 고원에서 북상하던 보급열차는 30명의 호송원이 탑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수를 받기 위해 기차가 잠시 정차하는 동안 적의 기습을 받아 기관사 1명과 호송원의 일부가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02:30경에는 원산에 상륙하여 영흥으로 이동한 미 제3사단 제65연대 제1대대를 공격한데 이어 미 제96야포대대 치중대의 탄약집적소를 방화하고 날이 밝자 북쪽으로 도주하였다.

이 무렵 미 제10군단장은 미해병사단의 장진호 진출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산 일대에서 평정작전 중인 미 제1해병연대는 함흥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미 제3사단이 이 지역을 담당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미 제3사단 제15연대 제1대대는 마전리의 해병진지를 인수하기 위하여 원산을 출발하였으나 도로를 점거한 패잔병들에 의해 중도에서 차단당하였다. 이때 미 제3사단에 배속된 국군 해병 제3대대가 14일 적의 차단선을 돌파하고 마전리-양덕 간 도로의 중간지점인 동양리로 진출함으로써 제15연대가 미 제1해병연대의 마전리 지역을 인수할 수 있었다.

이후 마전리 일대의 작전은 소강상태를 유지하였으나 패잔병들은 중공군이 장진호전투를 개시할 무렵인 11월 하순에는 이를 지원할 목적으로 동양리와 마전리 일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이때 동양리의 국군 해병 제3대대는 적중에 고립되어 보급지원마저 받을 수 없는 위기상황을 맞았고, 제15연대 제1대대는 해병 제3대대와 연결하기 위하여 이동 중에 기습공격을 받아 다수의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일 양 대대는 좌우측에서 협조된 공격을 펼쳐 연결에 성공하고 마전리를 방어하게 되었다.

한편 원산 서쪽 마전리 일대에서 패잔병과 치열한 격전을 펼치는 동안 함흥 북서쪽의 낭림산맥에서도 후방 침투를 기도하는 유격대와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미 제3사단 제65연대는 백산(1724고지) 일대에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이 고지 동쪽의 국군 제3사단 제26연대<sup>46)</sup>와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당시 이 지역은 미 제8군단과 미 제10군단의 전투지경선으로서 적은 지형이 험준할 뿐만 아니라 도로망이 결핍된 점을 이용하여 이곳에 패잔병 2,500명으로 유격거점을 구축하고 있었다.

미 제3사단장 소울(Robert H. Soule) 소장은 백산 일대의 적 유격거점을 소탕하기로 결정하고, 11월 21일 지역내 유일한 기동로인 사창리-흑수리-함흥 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미 제1해병사단의 후방전투지경선을 도로 북쪽으로 변경시켜 줄 것을 군단에 요청하였다. 이 조치로 국군 제26연대는 사창리와 흑수리에 저지진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이후 연대는 이 일대에서 후방 진출을 기도하는 적을 수차례 격퇴시켰고, 11월 24일에는 사창리 부근에서 26명의 중공군을 포로로 붙잡았다.

이와 같이 11월 한달 동안 원산 서쪽의 산악지대로 북상하던 인민군 패잔병 25,000여 명은 함흥 남쪽의 미 제10군단 후방지역을 1일 평균 35회 정도로 도로, 보급시설, 이동 중인 보급차량, 부대 등을 기습공격하였고, 그 지역도 광범위하여 총 169개소에서 출몰하였다. 이들의 활동은 소탕작전에 의거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소수 패잔병들의 출몰은 계속되고 있었다.

### 3. 後方地域 共匪討伐作戰

국군과 유엔군이 한만국경선을 향해 총진격을 하고 있을 때 38도선 이남에서는 15,000여 명에 달하는 인민군 패잔병과 지방공비들이



합세하여 병참선을 차단하고 보급시설과 물자를 파괴하며 작전병력을 습격하는 등 국군과 유엔군의 작전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들은 특히 후방지역에서 보급열차의 습격, 군수물자의 탈취, 경찰관서의 습격, 주민의 식량과 가축 약탈, 양민납치 등의 갖가지 만행을 자행하였다. 군은 이중에서도 그들의 발호(跋扈)가 심한 지리산 일대의 호남지역과 태백산맥 남쪽의 영남지방에 대한 공비특별작전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게 되었다.

### (1) 湖南地域 共匪討伐作戰

낙동강 서남부지역에서 작전을 하다가 퇴로를 차단당한 호남지구 일대의 패잔병 1만여 명은 이 지방 공비와 합류하여 비정규전 태세를 갖추고 유격활동을 개시하였다.

이들은 전남지역에서는 전남도당 유격대 총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예하에 화순, 보성유격대, 화순탄광유격대, 나주동부유격대, 영광유격대, 광산유격대, 장흥·광양·장성유격대, 남해여단, 어버이부대, 담양유격대, 제522부대, 제523부대, 제524부대와 총사령부 직속으로 제1, 제3, 제8, 제15연대, 포부대, 제540부대, 제550부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전북지역에서도 전북도당 유격대 총사령부 예하에 전주시당 벼락병단, 독수리병단, 카츄샤병단, 번개병단, 보위병단, 기포병단, 칠보부대, 허사령부대, 탱크병단, 임실·남원·순창·정읍·부안군당, 백암부대, 비호부대, 제206부대 등 각종 유격대를 편성하였다.

이들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백운산, 덕유산, 회문산, 속리산, 불갑산, 백아산, 화학산 일대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거점을 두고 호남지구 각처에서 국군 및 유엔군의 보급로 차단, 식량 약탈, 지서 습격, 차량 기습, 통신망 절단, 살인, 방화와 같은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특히, 이들은 전라남도의 25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을 제외한 21개 시·군에 암암리에 인민공화국 체제를 모방한 통제기구를 설치하여 유격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었다.<sup>47)</sup>

이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육군본부는 경북 영천에서 1950년 8월 27일에 창설되어 대구에 집결한 제11사단에 지리산 지역에서 준동하고 있는 패잔병과 공비들에 대한 소탕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에 제11사단(제9연대 결)은 10월 14일 남원으로 진출하여 그곳에서 5개 경비대대(제3, 제5, 제6, 제7, 제8경비대대)와 지역경찰, 청년방위대를 배속받았다.

당시 사단장 최덕신(崔德新) 준장은 공비의 활동지역이 광범위하여 연대별 작전을 계획하고, 제13연대는 전북지역을, 제20연대는 전남지역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5개 경비대대와 경찰 및 청년방위대는 지역내의 보급로와 주요시설에 대한 경계임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였다. 이때 사단의 제9연대는 경북 상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공비토벌작전을 벌이게 되었다.

사단이 호남지역으로 이동하였을 때 인민군 패잔병으로 추정되는 공비 4,000여 명이 지리산 북쪽의 함양군 마천면 일대를 장악하고 광주-남원-진주 도로를 차단 중에 있었다. 사단은 이들을 격퇴하기 위하여 제13연대는 마천면 일대에서 제20연대는 장성 일대에서 합동작전으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광주-남원 도로를 확보하였고, 패잔병들은 분산되어 부근 산악지대로 숨어들었다. 이후 공비들의 대규모 기습활동은 중단되고 소수 인원이 도처에서 출몰하고 있어 사단도 중대~대대규모 작전으로 전환하였다. 10월 말 제20연대는 순창, 담양, 영암 일대에서 준동하는 공비들을 토벌하고 지역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11월 초에는 상주에 파견되었던 제9연대가 진주로 이동하여 지리산 동부지역을 인수하였다. 제9연대가 이동해 오면서부터 이 지역 공비들의 활동도 눈에 띄게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접적이 빈번하였다. 이에 제9연대 제1대대는 11월 20일 남원군 대전리 일대에서 패잔병이 주축이 된 공비 1개 대대와 교전하여 공비 사살 532명, 생포 98명, 각종 소총 99정, 기관총 2정, 직사포 1문을 노획하는 큰 전과를 올렸다. 이어서 제3대대는 산청 남쪽 단성(丹城)에서 공비

500명과 교전하여 공비 사살 32명, 생포 12명, 직사포 1문, 박격포 1문, 소화기 3정, 지프차 1대, 그리고 이외에도 백미 30가마를 노획하는 전과를 세웠다. 반면 연대도 11월 28일 출동병력 41명이 이동안 경계를 소홀히 하여 열차에서 공비들의 기습공격을 받아 전사 31명, 부상 5명의 손실을 입기도 하였다.

사단의 토벌작전에 큰 타격을 받고 도처로 분산된 공비들은 다시 깊은 산중으로 은거하여 토벌작전은 다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어 들게 되었다.

## (2) 嶺南地域 共匪討伐作戰

낙동강 동부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퇴로가 차단된 인민군은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으로 잠입하여 북상 도주하였으나, 일부 패잔병들은 지방 공비들과 합세하여 전투력을 재정비하고 병참선 차단, 보급시설 습격, 주민의 식량 및 가축 약탈 등을 자행함으로써 국군 제5사단이 영남지방에서 공비토벌작전을 펼치게 되었다.

육군본부는 제5사단을 재창설(1950년 10월 8일)하여 제3군단에 배속시키고 태백산맥 남쪽 영남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제5사단은 1950년 10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1개월여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사단은 영남지역 일대에서 준동하는 공비를 소탕하기 위하여 사단 지휘소를 대구에 두고 사단 작전명령 제1호에 의거 제27연대를 포항으로 제35연대를 진주로, 제36연대를 김천으로 각각 이동시켜 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sup>48)</sup>

김천으로 이동한 제36연대는 작전지역이 경남, 경북, 전북, 충북의 4개 도가 인접한 지역이며, 또 소백산맥이 태백산맥으로 연결되어 공비들의 북상통로로 이용빈도가 높은 지역임을 고려하여 제1대대를 영동에, 제2대대를 거창에, 제3대대를 김천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태

백산맥의 남쪽지역을 담당한 제27연대는 제1대대를 영해, 제2대대를 영주, 제3대대를 포항에 배치하였고, 지리산 동부지역을 담당한 제35연대는 제1대대를 하동에, 제2대대를 진주에, 제3대대를 단성에 각각 배치하였다.

제35연대가 담당한 지리산 동부지역에서는 11월 중순경 하동 북쪽의 화개, 청암, 악양 일대와 단성 부근의 칠성, 자양, 호리, 당상리 일대에서 공비들의 출몰이 빈번하였고, 연대가 소탕전을 전개하자 공비들은 지리산으로 도주하였다. 그리고 제2대대가 거창에서 소탕전을 펼치자 공비들은 소백산맥을 따라 북상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제36연대는 영동에 배치된 제1대대로 1차 차단선을 구축하고, 제2대대를 점촌으로 이동시켜 속리산, 보은, 상주를 차단하여 지대내에서 북상 도주하는 패잔병을 소탕하도록 하였다. 이 차단작전에 패잔병의 대부분은 소탕되었다.

또한 제27연대는 11월 14일~16일까지 주변 산악에 은거 중인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제1대대가 문수산, 청양산 일대에서, 제2대대가 죽령에서, 그리고 제3대대가 구룡산, 선달산 일대에서 공비소탕작전을 펼쳤다. 이 작전으로 경북 내륙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던 공비들은 대부분 소탕되었다.

제5사단은 11월 하순까지 약 1개월여에 걸쳐 영남지역 일대에서 준동하던 패잔병들을 위시한 공비들의 유격활동을 일망타진한 후 38도선 부근의 춘천 일대로 북상 중인 패잔병을 소탕하기 위하여 작전지역을 제9사단에게 인계하고 서울로 이동하였다.

한편 제9사단은 1950년 10월 25일 서울에서 창설된 지 1개월 만인 11월 중순에 제3군단 작전명령 제10호(1950년 11월 20일)에 따라 대전에 대둔산지구 전투사령부를 설치한 후 대둔산 지역 및 제5사단의 경북 내륙지역을 인수받아 공비토벌작전을 벌이게 되었다.

사단은 제28연대를 대둔산 지역 및 충남지구, 제29연대를 경북 김천 및 왜관지구, 제30연대를 경북 상주, 영주 및 문경지구, 제31연대를

치하여 공비토벌 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sup>49)</sup>

제28연대는 대둔산과 부근일대를 수색하던 중 11월 15일에는 금산 남쪽의 성곡리에서 1개 대대규모의 공비를 공격하여 분산시키는데 이어 20일에는 금산리에서 공비의 은거지를 발견하고 이를 급습한 끝에 공비 200여 명을 섬멸하였다. 이 작전에서 연대는 이 지역일대에 노동당 충남도당 위원회와 유격사령부가 위치하고 있음을 포로의 진술에 의해 알게 되었다. 연대는 부근일대에 대한 계속적인 수색작전을 전개하였고, 연대의 소탕작전에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된 공비들은 많은 시체를 유기한 채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대둔산 부근의 산악지역에 구축되었던 공비의 은거지는 대부분 파괴되고 그들의 활동기반도 붕괴되었다.

제29연대와 제30연대는 11월 19일경 경북 지역내에 공비소탕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제5사단 제27연대와 제36연대와 임무를 교대하였다. 당시 상주를 중심으로 김천, 영주 등지에서 활동하던 공비들의 병력 수는 소백산맥 일대를 근거지로 하는 인민군 패잔병과 지방공비를 합쳐 총병력이 1,700여 명에 달하였으며, 이들은 월동준비와 인원보충을 위해 산간부락의 급습과 약탈 및 납치를 일삼고 있었다. 연대는 이들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책임지역을 완전히 평정하였다.

이 무렵 중공군의 침략으로 전선이 38도선으로 남하하자 제9사단은 전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둔산과 경북 서부지역에 대한 공비토벌 작전임무를 호남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 중인 제11사단에게 인계한 후 12월 18일 원주를 경유하여 강릉으로 이동하였다.<sup>50)</sup>

이로써 10월 중순부터 후방지역에서 병참선 차단과 관공서 습격, 민간인 약탈 방화 등으로 후방지역을 교란하던 공비들의 활동도 약 2개월간에 걸친 국군 제5, 제9, 제11사단의 토벌작전으로 활기를 잃고 소강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에 국군 제5, 제9사단은 전방으로 복귀하고 제11사단만이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내륙 깊숙히 은거한 공비들을 계속 소탕하게 되었다.

## 제 5 절 占領地 政策

### 1. 政府의 收復政策

북한 수복지역에 대한 군정은 그 시행에 있어서 미국과 우리 정부 간에 심각한 대립현상을 보였다. 정부가 북한지역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군정을 의식하기 시작한 시기는 1950년 8월 북한에 대한 점령 문제와 군정의 주체 및 방법 등에 대해 미국 행정부와 언론 그리고 유엔으로부터 논의가 이루어지면서부터였다.

정부는 북한지역에 대한 군정은 당연히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유엔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대한민국을 승인(1948년 12월)한 이상 북한지역에 대한 통치권은 한국정부가 보유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었다.

대통령 특사로 워싱턴에 간 장면(張勉) 박사는 8월 20일 북한지역에 대한 유엔의 신탁통치가 있을 것이라는 외신보도에 대해 한국정부는 자유와 통일 이외에 공산 침략자와의 타협이나 신탁통치 또는 남북한 연립정부 구성 등 어떠한 제의도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북한의 항복을 받아 내기 위해서 계속 북진할 것과 유엔감시하에 북한 지역 대표를 위해 남겨놓은 100석의 국회의원 공석을 채우는 선거에 의해서 통일을 이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어서 9월 1일 유엔총회에서도 그는 한국 국민은 단일민족으로서 동일한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지역의 민사행정권은 한국정부가 보유해야 한다<sup>51)</sup>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군이나 행정부 어느 부서에서도 북한지역을 점령한 뒤 어떻게 군정을 실시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 북한을 통합시킬

것인가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놓지 않고 있었다.

군 당국은 10월 7일에야 이미 38도선을 돌파한 국군에게 북한지역에서 북한주민을 대할 때 지켜야 할 주요 행동지침으로 육군본부 훈령 제86호를 하달하였다.

### 북한 내에서 국군의 행동 원칙<sup>52)</sup>

육군본부 훈령 제86호 (1950. 10. 7, 경북 대구)

1. 북한의 민간인은 해방된 형제이지 적은 아니다.
2. 장래 대한민국 국민이 될 그들의 권리와 사적 내지 공적 소유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3. 국군은 북한 민간인의 수호자이며 정복자는 아니다.
4. 국군은 모름지기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로서 국민의 군대이며 국민을 탄압하는 군대가 아니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도록 행동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
5. 국군 전장병은 민주주의의 사도로서 모름지기 훌륭한 행동의 실례와 친절심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은 공산주의 독재하의 경찰국가의 규율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는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훈령은 군정에 대비하여 거쳐야 할 단계나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10월 10일에 조병옥(趙炳玉) 내무부장관에게 북한지역에 대한 시정방침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지시에 따라 내무부장관은 10월 13일 시정방침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하였다.<sup>53)</sup>

내무부장관 담화를 통해 발표된 ‘이북지역의 행정복구방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군이 북한 공산군을 평정한 뒤 그 지역에 대해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이 각 도의 계엄사령관을 임명하면 전시기구로서 주민 자치위원회를 구성, 자체적으로 치안유지와 질서회복

에 노력한다는 것이다. 한편 내무부는 행정복구 이전에 군의 요청에 의해 우선적으로 시·군 단위로 군정관 1명과 간부 약간명, 경찰대장과 경찰대원 상당수를 파견하여 전시구호, 민정조사, 치안유지를 담당하도록 하여 행정복구의 기반을 다지려고 하였다. 그후 북한 수복지역의 치안이 확보되는 즉시 도지사, 군수, 경찰서장 등의 내무부 행정관리를 임명, 파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시·군 단위의 행정이 일단 회복된 후에 도지사로서 하여금 계엄사령부의 지휘하에 통일적으로 행정을 운영한다<sup>54)</sup>는 것이었다.

내무부장관은 이 담화에서 남한지역에 거주하는 각계 지도자와 청년들을 이북에 파견하여 이들을 공산주의자들의 색출과 질서유지 등의 선전, 선무공작에 참여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리하여 정부가 파견하는 행정관료들의 역할과 더불어 사회단체 특히 서북청년단을 비롯한 반공단체들과 월남한 이북출신 동포들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월남한 이북동포들을 원래의 거주지로 복귀시켜 각 지역의 질서회복과 주민들에 대한 사상전향 작업 및 주민들의 사상과악에 활용하려고 하였다. 내무부장관은 유엔감시하의 이북지역의 선거에서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해 월남한 이북동포들은 고향에서 소금과 등대같은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sup>55)</sup>고 강조함으로써 남한지역의 서북청년단을 비롯한 반공단체와 월남한 동포들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조병옥 내무부장관은 이북지역의 행정을 복구하기 위하여 북한지역에 파견할 경찰관을 모집하였으며 민간 행정기관 설치를 위한 준비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sup>56)</sup>고 말하였다.

그는 유엔에 의한 군정실시를 부인하고 북한이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영토인 만큼 군 진주와 아울러 계엄사령부의 휘하에 민정관을 파견하고 말단 행정을 담당하도록 하여 치안이 확보되는 대로 지사, 군수, 시장 등의 행정관리를 임명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혀<sup>57)</sup> 한국정부 주도의 군정을 재차 확인하였다. 이러한 군정계획에 의하여 정부는 점령되는 지역부터 시작하여 북한 전역에 군정을 실시하기로 결정



하고 국군이 유엔군에 앞서 점령한 북한지역에 선발대로 일부 경찰과 행정책임자를 파견<sup>58)</sup>하여 독자적인 군정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2. 유엔군의 民事軍政計劃

미 합참본부는 9월 15일 맥아더 장군에게 38도선 이북지역에 대한 점령계획을 수립하라는 예비훈령을 하달하였다.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자 미 합참본부의 '9·27 훈령'은 북한에서 유엔군의 작전목적이 북한 인민군을 격멸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북한공산군의 저항이 종결된 다음 유엔군사령부가 취해야 할 후속조치에 대해 언급하였다.

한편 미국 행정부는 북한지역에 대한 점령과정에서 한국정부가 38도선 이북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확대적용하려는 기도를 사전에 저지시키려고 노력하였다. 10월 3일 미 육군성은 북한지역에 대한 군정을 보다 세분화하여 맥아더 장군에게 보냈다. 이 북한 점령정책에 관한 내용은 일반개념과 세부지시사항으로 구분되었다. 제1부의 일반개념에 의하면 군정은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며 제1단계에서는 치안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었다. 정부활동은 주로 구호활동과 최소한의 지원제공, 법과 질서의 유지 및 확립, 그리고 실질적인 지방 및 도(道) 행정의 복구에 치중하도록 하였다. 이 단계에서 북한지역의 최고 통치권자는 유엔군사령관이 되며, 그는 유엔과 미국정부의 통제를 받을 뿐 어떤 간섭도 받지 않는다.

제2단계에서는 유엔위원단의 지도하에 정상적인 정치, 경제적 활동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군사적 안보는 2차적인 관심사가 된다. 이 단계에서 유엔군사령관은 북한지역에서 완전한 통치권을 행사하는데 다만 군사적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엔위원단이나 위원들의 자문이나 권고사항을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제3단계는 선거를 통해 통일된 한국정부가 통치권을 인수하고 한

국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군대를 제외한 모든 유엔군을 철수시키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유엔군사령관은 이북지역에 잔류하고 있는 그 휘하의 유엔군에 대한 군사적 안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한편 북한 점령정책의 세부지시사항에는 유엔군사령관 겸 군정장관으로서 맥아더 원수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책 관련 세부지침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① 유엔군사령관의 임무는 유엔의 이름으로 북한을 점령하고 38도선 이북지역에서 공공질서를 회복하며 경제적 부흥을 이룩하여 민주적 생활양식을 정착시켜 자주 독립된 통일한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 ② 북한 점령지역의 최고 통치권은 유엔이 보유하고 미 합동참모본부는 그 집행기관으로 유엔군사령관에 대한 명령과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한다.
- ③ 유엔은 한국의 통일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자문 그리고 조사를 담당할 몇몇 기관을 설립할 예정이다. 유엔군사령관은 그의 능력 범위 내에서 이 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야 하며 그들의 건의와 충고를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한편 38도선 이북지역에 대한 한국정부의 통치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궁극적인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해 북한 지역의 내부분제에 대하여 한국정부와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장차 합참에서 결정하거나 유엔군사령관이 정하는 정책들은 북한 진주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가능한 한 그 상태를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해석하고 집행해야 한다.
- ⑤ 북한정부와 그 권력기반인 공산당 그리고 점령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질서를 교란시키거나 전체주의적 조직은 모두 해체한다. 유엔군사령관은 점령업무 집행기구 이외에는 어떤 형태의 중앙정부를 창설해서는 안된다.

- ⑥ 점령업무와 궁극적인 통일에 도움이 될 경우, 유엔군사령관은 필요한 사람을 임명, 파면, 추대할 권한을 보유하고 점령 지역의 정치단체에 대한 개혁을 단행할 수 있다.
- ⑦ 과거의 경력으로 보복이나 형벌을 가할 수 없으며, 관직이나 직 장으로부터 파면되어서도 안된다.
- ⑧ 유엔군사령관은 미국의 인도적 이념과 유엔의 구호활동의 신속 성과 효율성에 대한 홍보를 위해 물자나 용역의 형태로 점령지 역에 대한 구호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⑨ 미국이나 유엔기관 및 민간대표나 소속원에 대해 북한이나 군정 기관의 법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유엔군 사령관의 결정은 유엔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북한지역에 들어가 는 모든 개인은 그 법의 적용을 받는다.
- ⑩ 군정본부와 작전사령부는 분리하여 군사요원의 활용을 최소화하 고, 유엔의 회원국 요원을 적극 활용하되 미국과 한국인의 활용 은 가급적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엔의 비군사기관에 군정 이양을 할 때에 별다른 조직변경을 하지 않고 이양할 수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⑪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활양식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과 통일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는 자질을 부여하기 위해 계획 된 재교육과 재전향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은 10월 7일 미 육군성의 지침을 세분화한 북한 지역에 대한 군정지침을 작전명령 제2호 부록1(민사)(1950년 10월 7일)에 의거 미 제8군사령관 및 미 제10군단장에게 하달하였다.

### 3. 軍政計劃과 관련된 葛藤

한국과 유엔의 갈등은 최초 38선 돌파문제와 관련되어 나타났다.

38선까지 진격한 한국군의 북진이 유엔군사령부의 명령으로 북진이 중단되자, 이 대통령은 불만을 나타내고 9월 30일 한국군에 단독 북진을 명령하였다. 이때 한국군의 38선 돌파를 막아더 사령부가 묵인함에 따라 북진을 둘러싼 이견은 해소되었다. 다음으로 유엔과 한국의 이견과 갈등은 이북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둘러싼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유엔이 대한민국을 합법정부라고 승인한 이상, 북한점령 후 우리 정부가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한국의 주장에 대해 미국 행정부는 선거가 치러지지 않은 38도선 이북지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통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유엔군사령관이 유엔의 권위에 의해서 이북지역을 점령한 뒤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엔과 미국 행정부의 기본입장이며, 한국은 유엔에 의해 전 한반도가 통일될 때까지 이북지역에 대한 통치권 행사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또한 군정 이후, 남북한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정부는 이북지역에 국한된 선거를 통해 국회에 비워둔 북한지역의 의석을 보충하는 보충선거를 통한 통합을 주장하였다. 반면 유엔과 미국 정부는 전 한국에 걸친 총선거 실시라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갈등이 심화되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10월 12일 유엔의 한국관계 소총회를 소집하여 이북 점령지역의 임시 행정조치에 대한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는, 첫째, 통일정부수립을 위해 총선거와 기타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한 총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둘째, 유엔군이 점령한 북한지역에 실질적인 통치권을 가진 정부는 없으며, 셋째,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북한지역의 행정을 맡을 때까지 유엔군사령부는 잠정적으로 이북에 대한 통치권과 일반행정을 관장하고 있는 모든 기관과 인원을 통괄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유엔 소총회의 '10·12결의'는 한국정부와 미국 행정부 간의 갈등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유엔 소총회의 결의에 대해 이승만 대통

유엔 소총회 결의(1950.10.12)

-북한 점령지역 군정-

**The Administration of the Territories Occupied  
by the United Nations Forces**

(October 12, 1950)

*The Interim Committee on Korea,*

1. *Considering* the provisions of the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7 October, under which the Interim Committee on Korea is requested to consult with and advise the United Nations Unified Command in the light of the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that resolution;

2. *Having regard* to the General Assembly recommendation that all constituent acts be taken, including the holding of elections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a unified, independent and democratic Government in the sovereign State of Korea;

3. *Recalling*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recognized by the United Nations as a lawful Government having effective control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that there is consequently no government that is recognized by the United Nations as having legal and effective control over other parts of Korea;

4. *Advises* the Unified Command to assume provisionally all responsibility for the Government and civil administration of those parts of Korea which had not been recognized by the United Nations as being under the effective control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outbreak of hostilities, and which may now come under occupation by United Nations forces, pending consideration by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of the administration of these territories; and

5. *Recommends* that the Unified Command take immediate steps to associate with all authorities established for civilian adminis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t resolution officers from the several forces of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under the Unified Command in Korea;

6. *Invites* the Unified Command to keep the Interim Committee informed of the steps taken in response to this resolution, pending the arrival of the Commission in Korea.

령은 이를 수락할 수 없다고 밝히고 특히 통일정부 수립이나 총선거 실시 주장은 1948년 5월 30일 ‘전국적’으로 선거가 실시된 이상 남한에서의 재선거는 절대로 불가하고 유엔감시하의 북한지역만의 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한국정부는 대변인을 통해 ‘10·12결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앞으로 한국정부는 북한지역에 대해 독자적인 군정과 통치권 행사를 할 것이며, 선거는 유엔 감시하에 한국정부가 실시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대통령은 맥아더 원수에게 10월 16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항의 전문을 보냈다.

한국은 유엔 한국관계 소총회의 결의를 수용할 수 없으며, 한국민의 자유의사에 따라 유엔의 협력과 감시하에 선거실시와 정부수립의 권리를 보유하며 유엔을 포함하여 어느 국가일지라도 외부세력이 국내행정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불가하며, 앞으로 한국정부는 전투행위가 끝난 즉시 2년 전에 임명한 이북 5도의 지사를 파견하여 일반행정을 맡게 할 것이고,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자유분위기에서 도지사 선거를 실시하여 북한주민도 남한주민과 똑같은 자유와 권리를 누리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항의전문을 받은 맥아더 원수는 ‘웨이크도 회담’에서 자신이 우려했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즉시 그 내용을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그는 한국관계 소총회의 결의내용과 유엔총회 결의를 절충시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한국정부의 항의와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 미국 행정부는 유엔결의의 내용과 미국 행정부의 기본입장에 대해 한국정부와 이 대통령을 이해 및 설득시키려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미국 국무부는 주한 미 대사를 통하여 갈등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첫째, 유엔과 미국은 한국의 통치권이 이북에 자동적으로 확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의한 이상 통일을 위한 선거와 기타 법률적 행위는 한국관련 유엔 소총회 기능에 속하며, 둘째, 소총회 결의는 유엔군

사령부가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이북에 대한 행정책임은 맡을 임시조치로서 이 위원단이 도착하면 행정사항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과 협의를 하게 될 것이며, 셋째, 이러한 조치는 절대로 공산주의를 보호하고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없으며 도리어 일반행정을 위해 설립된 모든 기관을 유엔군이 확실하게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또 총선거와 관련된 한국관계 소총회 결의는 10월 7일 총회 결의를 반복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미국 행정부는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분위기에서 실시된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된 합법정부로서 이 대통령과 한국정부는 한국통일부흥위원단과 선거실시 문제에 대해 충분히 협의할 수 있으니 만큼 한국정부의 자제를 요구하였다.<sup>59)</sup>

이러한 미 대사관측의 설명에 대해 이 대통령은 소총회의 결의가 잠정적이라 할지라도 한국정부의 주권을 제한하는 처사는 법리상 비논리이며 수용할 수 없다<sup>60)</sup>고 주장하였다. 그후 한국정부와의 이견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국무부는 주한 미 대사관의 무초(John J. Muccio) 대사를 비롯하여 드럼라이트 참사관과 수많은 전문이 오고갔으며 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관리들과 여러 차례 접촉하였다.

이러한 미국 행정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10·12 결의'를 절대 수락할 수 없다는 이 대통령의 완고한 태도는 점차 변하였다. 10월 17일 기자회견 석상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의 '10·12 결의'를 수락할 것이지만 유엔도 북한에서의 선거 실시에 있어서 북한 주민을 통제하기 보다는 그들에게 충고하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하여 이북지역에 대한 관할권 문제에 대하여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이 대통령의 태도 변화와 더불어 북한 점령지역의 치안유지와 행정복구에 독자적으로 대응했던 조병옥 내무부장관도 한국위원회와 "이북지역의 관할권과 행정복구 문제를 협의해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 변화는 유엔과 미국의 뜻에 협력하겠으나 유엔

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 점은 10월 20일 무초 대사와 이 대통령 간의 장시간 대담에서 밝힌 한국 정부의 견해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미국측은 북한지역의 군정요원으로는 한국정부가 추천하는 인사 가운데 선발하여 활용하기로 한다는 등 한국측의 주장을 다소 수용하여 유엔군의 군정계획을 수정하였다. 이로써 한·미 간의 군정에 대한 갈등은 점차 완화되었다.

#### 4. 北韓地域 軍政 實施

한국정부와 유엔간 이북군정에 대한 타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령지역은 확대되어 갔고, 유엔군과 한국군은 각기 독자적으로 점령지역에 대한 군정을 추진하여 나갔다. 한국정부는 북한에 대한 시정방침을 수립하기 전인 10월 초 9개 점령지역에 이미 한국 경찰을 파견하여 순찰과 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북지역에서 군정은 처음부터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에서 체제와 시행방법 등에서 달리 이루어졌다.

서부지역은 미군과 한국군이 평양을 비롯한 주요지역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점령함으로써 양측의 이원적인 체제하에서 군정이 실시되었으며, 동부지역에서는 유엔군이 한달이나 늦게 상륙하여 함경도 지역에 진주한 데 반해 한국군은 10월 1일 38도선을 돌파함으로써 항상 먼저 이북의 주요 지역을 점령하여 군정의 기선을 장악하였다.

10월 16일 한국군은 이북지역에 대해 계엄을 선포하여 각 도의 계엄군에 민사부를 두고 도별 책임자를 임명하였다.

각 도별 책임자로는 평북지구 계엄민사부장에 유승렬(劉升烈) 대령을, 평남지구 계엄민사부장에 장석륜(張錫倫) 대령을, 함남지구 계엄민사 부장에 김완룡(金完龍) 대령을, 함북지구 계엄민사부장에 최경만



(崔慶萬) 대령을, 강원지구 계엄민사부장에 이용문(李龍文) 대령을, 황해지구 계엄민사부장에는 박승훈(朴勝勳) 대령을 각각 임명하였다. 국군은 각 군단 및 사단의 민사부로 하여금 수복지역에 시·군 단위의 자치기구를 조직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국군이 점령한 일부 지역에서는 내무부의 행정요원이 파견되기 전 지역주민 가운데 비공산주의자를 중심으로 각 지역단위의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내무부는 한국군이 북한 공산군을 소탕하고 점령을 완료한 지역에 우선 청년단 선무반을 선발대로 입북시켜 주민에 대한 선전과 공산주의자 조사와 색출에 활용하였다. 뒤이어 내무부는 각 시·군 단위로 민정관 1명과 간부 약간명, 경찰대장 1명과 경찰관 100~150명씩을 파견하여 전지구호, 민정조사 및 치안유지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 경찰병력은 수복지구의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모집 및 충원하고 있는 3만 경찰의 일부이었다. 이러한 방침과 절차에 따라 점령지역에서는 국군에 의한 군정이 본격화되었다. 동부지역에서 한국군은 행정기구를 복구시키기 위해 먼저 도(道)를 1도 7시 26군으로 편성하고 과도 행정기구로서 각 시·군 단위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국군은 군정하의 과도행정 지침인 북한 시정요강을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공산치하의 주요 물자를 접수하여 주민에게 배분하도록 하고 공장과 발전소의 복구 및 운영을 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체운영하였다.

군단 민사처의 지휘 아래 함경도 자치위원회 구성은 지사에 오산중학교장을 지낸 이귀하(李龜河)가 선출되고 지사 밑에는 조사, 상공, 농림, 문교, 보사, 경찰, 건설, 재무 등 8개 부서를 두고 각 부 밑에는 과(課), 계(係)를 두었다. 도 위원회의 총 직원수는 약 400여 명이었는데, 조사부가 100명이 넘을 정도로 그 규모가 컸다. 한편 각 시군 단위의 자치위원회도 구성하였는데, 민사처에서 정보처를 통해 신상을 파악, 천거한 뒤 임명된 이들 요원이 식량배급, 전기, 수도의 복구 작업과 공산정부의 주요 재산을 관리하였다.<sup>61)</sup>

함경도 지역 국군 지휘하의 군정은 유엔군의 원산상륙 이후 유엔

군정반이 파견되고 군정권을 인수하면서 유엔군사령부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군과 유엔군 사이에 이견과 행정상의 혼란도 발생하였는데, 국군이 선출한 자치위원장과 유엔군이 임명한 자치위원장이 한 직위를 놓고 대립 반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국군 제1군단 민사처장 유원식(柳原植) 소령이 미 해병사단 민사처장을 설득하여 한국측에서 임명한 자치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렇듯 부분적인 갈등과 이견에도 불구하고 동부지역에서의 군정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그것은 뒤늦게 진주한 유엔군이 군정의 최종권한을 보유하지만 국군이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미 군정관계자들은 보좌자문하는 형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였기 때문이었다.

한편 미 제8군 작전지역인 평안도 지역에서는 외형상 유엔군 중심의 군정이 시작되었다. 평양에 입성한 미군은 10월 21일 미 제1군단 민사처가 중심이 되어 유엔군사령부에 의한 평남지역 군정을 시작하였고 군정관으로는 먼스키 대령이 임명되었다. 이어서 유엔군 평남 민사처에 의해 서북청년단 출신의 김성주(金聖柱)를 평남지사로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10월 26일부터 평안남도의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평양시장에는 우제순(禹濟淳)을 임명하고, 이어 예하 행정단위의 관리와 경찰을 임명하였다. 미군은 평양에 자치위원회를 조직하기 위하여 비공산주의자를 선발하여 구성된 임시 평양시 의회를 구성하였다.

북한의 실정에 어두운 미 군정관들이 시의원을 선발하는 등의 군정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무리였다. 그 결과 평양시 점령 이후 수주일 동안 공공업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과 질서는 대낮에 대로상에서만 지켜졌으며 식량부족이 심각한 상태이었다.

한편 국군도 점령지역에서 군정을 실시하였는데, 평양시의 경우 국군 제2군단 계엄사 민사부장 겸 군정관으로 헌병대장인 김종원(金宗元) 대령이 임명되었다. 그리고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일부 행정단위의 관리를 파견하였으나 유엔군 군정당국에 의해 거부되어 본격적으

로 행정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일부 경찰이 파견되고 거주민 가운데 동장, 부동장 등이 선발, 임명되었고 동마다 10명 내외의 자체 치안대가 조직되어 이들이 지역단위의 치안유지 활동과 적색분자 색출 활동을 담당하였다. 정부는 각종 사회단체도 비공식적으로 파견하였는데 특히 서북청년단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대한청년단 북한 총무부를 조직하여 이들을 민정조사 등에 활용하였다.

한편 국군은 평양시에 약 1천 명의 경찰을 모집하는 일에 착수하여 우선적으로 5백 명을 고용하였다. 이러한 경찰을 중심으로 부역자의 색출과 처벌에 있어서 잔류 내무위원 및 인민군은 간부급, 당관계자는 간부 및 악질분자를 수사체포할 방침을 세웠다. 국군과 유엔군 간의 군정과정에서 마찰과 대립은 정부가 유엔의 '10·12결의'를 수용하고 유엔의 통치권을 인정하기 시작한 10월 말 이후부터 외형상으로 해소되었다. 정부의 군정을 주도하려는 활동이 중단하고, 국군에 의해 조직된 자치위원회와 자위대 그리고 경찰조직도 미 군정당국의 지휘하에 흡수되었다. 평남지역 전역에서 유엔군의 군정기구가 조직되면서 이북지역에 파견된 경찰 및 행정요원 가운데 일부는 유엔 군정기관에 편입되어 근무하고 나머지는 되돌아왔다.

결국 이북지역에 대한 유엔 군정의 기본적 성격은 형식상 유엔군 지휘감독하의 자치형태를 띠게 되었다. 각 지역 단위별로 조직된 자치위원회와 경찰 그리고 중견청년으로 구성된 자위대 또는 치안대가 주민활동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 각 지역단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YMCA를 비롯하여 대한청년단, 서북청년단 등 각종 단체가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 주 기

- 1) 軍事科學院 軍事歷史研究所 編著, 中國人民志願軍 抗美援朝戰史,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1988), 韓國戰略問題研究所(譯), 中共軍의 韓國戰爭史, (서울: 世經社, 1991), p. 14.
- 2) 中國中央文獻研究室, 建國以來 毛澤東文稿(1), 1971, p. 568.
- 3) 中공군의 편성  
병단(兵團): 국군의 야전군에 해당하는 부대로서 수개의 군으로 편조된다.  
군(軍): 국군의 군단에 해당하는 부대이나 3개 보병사단으로 고정 편성된다.  
사단(師團): 국군의 사단과 동일.  
단(團): 국군의 연대에 해당되는 부대로서 통상 삼각개념의 편제를 가진다.
- 4)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p. 6, 中國中央文獻研究室, 앞의 책, p. 561.
- 5) 윤영무(역), 중국인이 본 한국전쟁, (서울: 한백사, 1991), p. 110.
- 6)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앞의 책, p. 19.
- 7) 위의 책, p. 19.
- 8) 위의 책, p. 20.
- 9) 위의 책, p. 24, 中國中央文獻研究室, 앞의 책, pp. 588~589.
- 10) James F. Schnabel, Robert J. Watson, *The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Joint Chiefs Staff: 197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美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상), 1990, p. 201.
- 11) 위의 책, pp. 203~204.
- 12)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Center of Military History U. S. Army, Washington, D. C., 1990, 육군본부(역), 밀물과 썰물, 1992, p. 14.

- 1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앞의 책, p. 205~206.
- 14)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 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1), 육군본부(역),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1963, p. 360.
- 15) 미국의 최대 명절로써 매년 11월 4주째 목요일, 1950년도는 11월 23일이 추수감사절임. 한국의 추석과 유사함.
- 16) James F. Schnabel, *Police and Direction : The First Year*, OCMH, US Department of Army, 1972, 육군본부(역), 정책과 지도, 1974, p. 286.
- 1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앞의 책, pp. 209~210.
- 18) 위의 책, p. 212.
- 19) 육군본부(역),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p. 363.
- 20) 1950년 10월 24일부로 제2군단장이었던 유재홍 소장은 육군참모부장으로 전임되고 그 후임에 제1사단장이었던 백선엽 준장이 임명되어 군단의 지휘권을 인수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의 공격이 시작되자 다시 원소속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 21) 육군본부(역),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앞의 책, p. 364.
- 2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5권), 1972, p. 85.
- 23) 백선엽, *군과 나*, (서울: 대륙출판사, 1989), p. 127.
- 24) 육군본부(역),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p. 362.
- 2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청천강 전투, 1985, pp. 111~112.
- 2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5권), p. 66.
- 27) 위의 책, p. 67.
- 28) 위의 책, pp. 68~69.
- 29) 육군본부(역),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p. 362.
- 30) 위의 책, p. 384.
- 31) 위의 책, pp. 384~385.
- 32) 위의 책, p. 384.
- 33) 위의 책, p. 385.
- 34) 위의 책, p. 386.

- 35) 앞의 책, p. 388.
- 3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4권), 1971, p. 599.
- 37) 위의 책, p. 586.
- 38) 수도사단, 작전명령 제10호, 1950년 11월 5일.
- 3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1987, p. 104.
- 40)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제26권), 1981, p. 101.
- 41) 위의 책, p. 102.
- 42) 中國中央文獻研究室, 앞의 책, p. 547.
- 43)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앞의 책, pp. 105~107.
- 4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앞의 책, pp. 104~105.
- 4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장진호 전투. 1981, p. 32.
- 45) 당시 국군 제26연대는 장진호 공격임무를 11월 2일 미 제7해병연대에 인계하고 미 제3사단에 배속되어 미 제7해병연대의 좌측방을 엄호하고 있었다.
- 46)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앞의 책, pp. 37~38.
- 4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88, p. 168.
- 48) 국군 제5사단, 부대역사, 1969, p. 88.
- 49) 국군 제9사단, 백마부대사, 1982, p. 45.
- 5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p. 162.
- 51) 국방부, 한국전란 1년지, 1951, pp. C-106~C-110.
- 5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4권), p. 808.
- 53) 동아일보, 1950년 10월 14일.
- 54) 동아일보, 1950년 10월 14일.
- 55) 동아일보, 1950년 10월 14일.
- 56) 동아일보, 1950년 10월 12일.
- 57) 동아일보, 1950년 10월 14일.
- 58) 조병옥, 나의 회고록, (서울: 해동출판사, 1986), p. 270.
- 59)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제4권), 1992, p. 482.
- 60) 동아일보, 1950년 10월 17일~28일.
- 61)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제3권), 1985, pp. 225~226.

## 제 3 장 38度線으로 反轉

### 제 1 절 冬季 總攻勢 準備

국군과 유엔군은 1950년 10월 19일 평양을 확보한 후 괴멸상태로 도주하는 인민군을 추격하며 한만국경선(韓滿國境線)으로 진출함으로써 전쟁 발발 4개월 만에 승리를 목전에 둔 듯하였다. 그러나 국경선으로 진출 중인 아군은 10월 말 은밀히 압록강을 도하하여 내륙 산악지역에 포진하고 있던 중공군의 기습공격을 받아, 공격이 돈좌되었고 간신히 청천강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쌍방은 이 첫 충돌에서 인명 및 장비의 피해를 많이 입었고, 또한 혹독한 겨울 날씨로 인하여 군사작전에 많은 어려움도 겪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방은 다시 한번 결전을 벌여 승패를 가리고자 곧 차기 공세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 1. 中共軍의 戰略과 攻勢 準備

##### (1) 中共軍의 戰略

중공의 전쟁지도부는 1차 공세작전이 종료될 무렵인 11월 초순에 당시 전황을 “적이 예상치 못하게 은밀히 조선 전장에 침투하여 첫 작전에서 승리를 획득하였다. 이는 미국의 기도를 혼란시켰을 뿐만 아니라 적 진영에 불안과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었다.”<sup>1)</sup>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한 상황에서도 낙후된

장비와 휴대한 탄약 및 식량의 부족으로 유엔군 주력부대를 섬멸하는 데는 실패하였음을 자인하였고, 이로 인하여 국군과 유엔군의 재반격을 우려하였다.

당시 중공군은 압록강 남쪽의 산악지역에 교두보를 확보하기는 하였으나 1차 공세로 인하여 부대는 상당히 지쳐 있었고, 또한 식량과 탄약도 부족하였다. 그리고 중공군의 참전으로 기사회생(起死回生)한 인민군도 구성, 맹산, 강계 이북지역에서 정비 중에 있었다. 지원군사령관 팡덕회(彭德懷)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11월 4일 차기 작전 방침으로·유인·반격전략을 결정하였다.<sup>2)</sup> 이 전략은 그들이 1차 공세 때 사용한 전략으로서 국군과 유엔군이 공격을 재개하면 이들을 깊숙히 유인한 후, 먼저 측방부대를 섬멸하고 그후 전과를 확대한다는 작전이었다.

이 방침에 의거 중공군은 5일부터 부대를 재배치하기 시작하였다.<sup>3)</sup> 먼저 서부전선의 각 군은 그 주력부대를 신의주, 구성, 태천, 운산 및 희천 남쪽의 신흥동(新興洞), 소민동(蘇民洞), 묘향산 지역에 배치하였고, 각 군은 1개 사단을 선천, 남시(南市), 박천, 영변, 원리(院里), 구장(球場) 지역에 추진 배치하였다. 이 부대들의 임무는 소규모의 적은 바로 섬멸하고, 대규모의 적에 대해서는 타격과 철수를 거듭하면서 깊숙히 유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동부전선에서는 제42군의 주력부대들은 계속 고토리(古土里), 구진리(舊鎭里), 부전령(赴戰嶺) 지역에 배치하며, 1개 사단을 차출하여 영원에 배치하였다. 또한 이 사단의 일부를 덕천에 배치시켜 양덕 방향으로 유격활동을 펼치도록 하였다.

이 무렵 새로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된 중공 제9병단의 3개 군(제20, 제26, 제27군)이 송시륜(宋時輪)의 지휘하에 3개 제대(11월 7일, 12일, 19일)로 나뉘어 집안(輯安), 임강(臨江)에서 압록강을 도하여 동부전선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모택동(毛澤東)도 이 전략을 승인하면서 전장을 순천-원산 선의



이북지역에 조성하고, 이 지역에서 국군과 유엔군의 병력을 섬멸하도록 하였다. 특히 덕천 방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곧 북한에 투입되는 제9병단을 강계, 장진 방면에 배치하여 동부전선의 전국의 변환를 기도하였다.<sup>4)</sup>

## (2) 攻勢 準備

중공군은 장비와 화력의 열세를 풍부한 인력자원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병력증강에 주안을 두었다. 그 결과 9개 군의 30개 사단을 전방지역에 배치하였으며, 이중 서부전선에 18개 사단 23만 명을, 동부전선에 12개 사단 15만 명을 배치하였다. 이 병력수준은 국군과 유엔군보다 2배 정도 우세하였다.

그리고 후방지원과 수송능력을 강화하고 보급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후방근무지원부대를 증강하였다. 또 그들은 철도사단을 투입하여 철도 수송과 보수능력도 향상시켰다. 아울러 공병부대를 투입하여 그들의 주공 축선인 희천, 영원, 덕천에 이르는 파괴된 도로의 보수를 완료함으로써 식량, 탄약 등의 물자 수송능력을 개선하였다. 특히 중공은 전쟁지원물자를 신속하게 압록강 남쪽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련에 차량지원요청을 하여 1950년 11~12월에 3,000대의 차량을 지원받았다.<sup>5)</sup>

이와 같이 공세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자 중공군은 11일 13일 차기 작전을 위한 당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중공군은 공군과 기갑부대의 열세한 상황을 고려하여 내선작전을 전개하되 적을 깊숙히 유인하여 격멸한다는 작전방침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었다.

이를 위해 서부전선에서는 대관동-온정리-묘향산-평남진을 연하는 선까지, 동부전선에서는 구진리-장진을 연하는 선까지 적을 유인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국군과 유엔군이 그들의 의도대로 공격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공격계획도 수립하였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금년 중에 반드시 한 차례의 공격을 실시하여 적 6~7개 연대규모를 격멸하고, 전선을 평양—원산 선까지 남하시켜 차후 공세의 유리한 발판을 확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중공 지원군사령관은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하달하였다.

### 작전계획(요지)

#### (1) 서부전선

- 제39군은 일부 부대로 태천 지역을 방어하고, 주력은 공격하는 적의 우측방을 공격한다.
- 제40군은 영변 지역을 방어하고, 좌인집 제38군과 협조하여 구장—회천 도로로 진출하는 적 좌측방을 공격한다.
- 제38군의 1개 사단과 제42군의 제125사단의 1개 연대는 적의 예상접근로인 구장동—회천, 구장동—개천 도로를 점령하고, 기동방어로 적 주력을 유인한다.
- 제38군 주력부대와 제42군의 제125사단 주력은 덕천 이북의 산악지대인 소민동, 내창리 일대에서 유인한 적 주력부대를 공격한다.
- 제42군 주력부대는 제9병단에 동부전선을 인계하고 영원 동쪽의 신읍으로 이동한 후 적 우측 후방을 공격한다.
- 제50군은 우전방을 엄호하고 적의 상륙작전에 대비 서해안을 방어한다.
- 제66군은 예비로 구성, 정주 지역에 집결하여 대기한다.

#### (2) 동부전선

- 제9병단(제26군 제외)은 장진호 북쪽의 구진리 이남까지 진격하여 일부로서 방어하고, 주력부대는 구진리 및 그 동남지역에 집중시켜 장진 쪽으로 침범하는 미 제1해병사단을 섬멸한다.

#### (3) 지원군사령부는 전선부대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42군의

2개 대대와 인민군 1개 연대로 편성된 유격대를 11월 중순에 맹산, 양덕, 성천 지역으로 침투시켜 적의 병참선을 파괴하고 적 부대를 기습한다.

전력이 한층 보강된 중공군은 1차 공세에서 획득한 경험을 살려 방어준비는 물론 기동 중인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기 위하여 국군과 유엔군이 공격을 개시하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중공 지원군사령관은 아군의 공격이 임박하였음을 간파하고, 11월 21일 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격계획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즉, 주력이 국군 제2군단을 공격시 구장-회천 도로를 통한 미군 사단들의 증원을 우려하여 이 도로를 강력히 통제하기로 하고 부대배치를 전반적으로 동쪽으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공격개시일도 서부전선은 11월 25일 저녁, 동부전선은 이보다 하루 늦은 26일 저녁으로 최종 확정되었다.<sup>6)</sup>

## 2. 蘇聯 空軍의 展開

소련은 중공의 한국전쟁 참전을 전후하여 중국 본토와 만주에 공군을 전개하고 한국전쟁에 참전시켰다. 최근 러시아가 공표(公表)한 자료에 의하면, 소련은 모택동의 요청과 중소우호동맹 상호원조조약에 따라 1950년 10~12월에 12개 항공사단을 중공에 배치하여 중공 영공의 방어를 담당하였다. 그중 제64항공군단은 김일성의 소련군 지원 요청에 의거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공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와는 관련없이 소련 공군의 독자적 참전을 의미한다. 실전에 있어 당시 북한 공군은 괴멸되어 소련에서 재편성을 위한 조종사를 양성 중이었고, 중공 공군은 창설이 일천하여 전투에 임할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소련군의 지도하에 훈련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소련 공군의 한국전쟁 참전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한만 국경선 부근 작전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제64항공군단은 3개 비행사단, 1개 정비사단, 2개 고사포여단, 3개 독립여단(야간전투비행연대, 해군항공전투기연대, 탐조등 연대)로 구성되었으며, 후에(1952년도) 26,000명의 병력으로 증강되었다. 이들의 주력기종은 MIG-15였으며, 이는 당시로서는 소련의 최신편 전투기로서, 미군의 최정예 F-86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한 성능을 갖춘 전투기였다. 그리고 이들의 지휘관과 조종사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공군과 전투경험을 가진 우수한 비행사들 중에서도 최정예 요원으로 선발되었다.<sup>7)</sup>

소련 전투기는 1950년 11월부터 한국전쟁의 공중전에 참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 제공권을 유엔군측이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은 만주의 성역을 이용하여 초기에는 압록강 부근에서 작전하였다. 이때 이들은 유엔군 항공기 특히 B-26 폭격기에 대한 요격을 주임무로 수행하였다. 미국은 “11월 1일에 F-80 전투기가 신의주 부근에서 YAK 전투기와 격돌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소련계 MIG-15들이 압록강을 넘어와 미군 항공기를 공격하였다. 이로써 적은 전쟁발발 초기부터 유엔군이 누려오던 공중우세권 장악을 위한 의도를 보였다.”고 그들 합동참모부사에 기술하고 있다.

그후 중공 지상군의 작전으로 전선이 남하하자 소련 공군의 작전반경도 평양-원산 선까지 확대되었다. 그들은 비록 제한된 공간에서 주로 요격 방식의 소극적 작전을 폈으나, 적은 손실로 많은 유엔기를 격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sup>8)</sup>

후에 소련 공군은 재편성한 북한 공군과 전투준비를 갖춘 중공 공군과도 연합작전을 실시하였고 이는 유엔 공군의 작전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었다. 하지만 소련 공군은 자신들의 참전사실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하여 평양-원산 선 이남으로 진출하지 않았음은 물론 해상에

서도 작전을 하지 않았다. 또한 그들의 작전경험을 다른 비행부대에 전하거나 연구도 금지하는 등 소련 공군 내에서도 극비로 다루었다.

이러한 결과로 유엔군측에서는 이 중대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고 전쟁을 지휘하였다.

### 3. 유엔군의 最後攻勢 準備

#### (1) 유엔군측의 敵情判斷

유엔군사령부는 예상하지 못한 중공군의 기습공격으로 한민국경선까지 진격하려던 작전계획이 좌절되고, 13일 동안에 걸친 중공군의 1차 공세로 인하여 청천강 선으로 물러서게 되자 중공군에 대한 적정판단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밀물처럼 밀려왔던 중공군의 주력은 11월 6일을 고비로 하여 전 전선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그 대신 북한 인민군이 경계부대로 출현하여 일부 중공군과 함께 박천-영변-구장동 지역 전방에서 국군과 유엔군의 수색대와 산발적으로 접촉을 기도함으로써 또 다시 적정판단을 흐리게 하였다.

이 무렵 유엔군사령부에서는 중공군의 잠재능력이나 만주에 40여만 명의 중공 정규군이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중공군이 어떤 목적으로 한국전쟁에 개입하여 어떤 규모의 작전을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다만 11월 9일에 중공 정규군 총 76,800여 명이 북한지역에 침입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미 제8군사령부에 통보해 주었다.<sup>9)</sup>

이때 미 제8군에서도 11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중공 제42군이 새롭게 출현하였다는 사실을 포착하여 약 6만 명의 중공군이 북한지역에 투입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엔군사령부에서 통보된

내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이를 기초로 2차 진격작전(크리스마스 공세)을 계획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아군의 적정판단은 오판이었다. 당시 중공군은 이미 30만을 훨씬 넘는 대병력을 북한으로 이동시켜 국군과 유엔군의 공격작전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궤멸되었다고 판단한 인민군도 재편성을 완료하고 새로운 위협세력으로 재등장하였다. 인민군 제1군단은 정주 북방에서 중공 제66군과, 인민군 제3군단은 강계 지역에서 중공 제26군과, 인민군 제5군단은 후창(厚昌) 지역에서 중공 제27군과 합세하는 등 3개 군단이 중공군과 연합작전태세를 갖추었으며 북한군 제2군단을 주축으로 한 2만여 명의 유격부대는 언진산맥 일대에서 제2전선을 형성하고 유격전을 감행하는 등 전후방 각 지역에서 적극적인 유격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 무렵 북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공군과 인민군의 총병력은 약 42만여 명에 달하였으나 미 제8군에서는 적정을 약 8만여 명으로 너무나 과소 평가하였다. 이는 유엔군사령부와 미 군부에서 중공군의 참전목적, 참전규모 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전략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데도 원인이 있었지만, 중공군의 철저한 기도비닉과 야간행동으로 말미암은 공중정찰의 실패 등 전장정보의 오판도 큰 원인이 되었다. 또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당시 미군 수뇌부는 유엔군이 제공권과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자만심만 믿고 중공군의 능력을 경시함으로써 적정판단에 오류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다.

## (2) 유엔군의 最後攻勢 準備

중공군의 1차 공세가 끝난 직후인 11월 6일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원수는 중공군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북한 공산당이 결정적으로 패배하고 전쟁이 종식되려는 시기에 중공군이 한국전선에 침입하여 대학살을 피함으로써 인류 역사상 다시 없는 죄악을 범하였다. 그러나 유엔군은 적절한 감시와 능숙한 기동으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위기를 모면하였다. 또한 본인의 임무는 북한 지역에서 공산군을 격멸하여 한국의 통일과 평화를 회복하려는 유엔의 사명을 달성하는데 있으므로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공격을 실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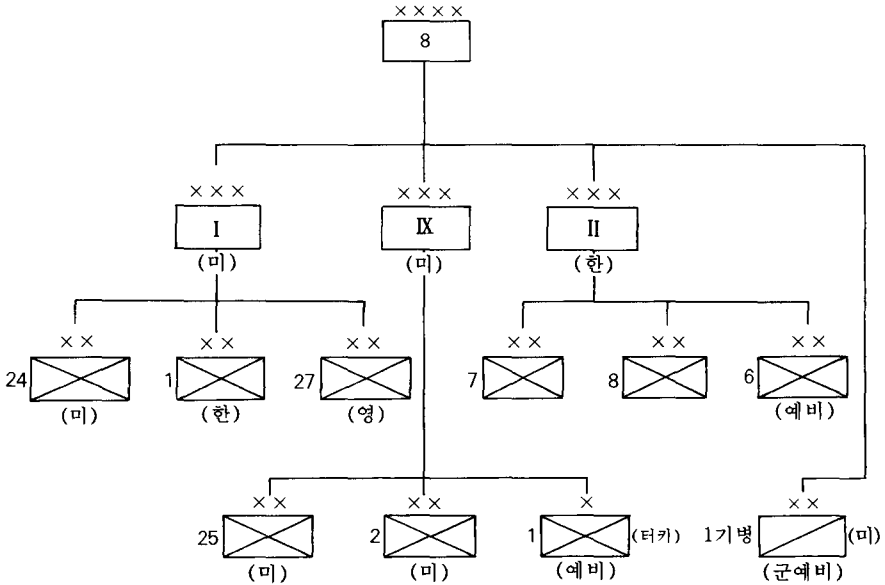
이와 같이 유엔군사령관의 결의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도 같은 날 맥아더 원수에게 “미 제8군은 청천강 교두보에서 소극적인 방어작전을 실시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상황과 조건이 허용되는 한 하루라도 빨리 공세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노출된 동측방이 보강되고 보급품이 확보되는 대로 곧 공세로 전환하겠다.”는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보고하였다. 그리고 관계 참모와 예하 지휘관들에게 공격재개를 위한 자신의 작전방침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미 제9군단을 북상시켜 3개 군단으로 공격작전을 실시하되 미 제1군단을 서, 미 제9군단을 중앙, 국군 제2군단을 동으로 하여 상호 협조된 공격으로 한만국경선까지 진격하려 한다. 공격개시일은 준비가 완료되는 시간이다.

이 계획에 따라 미 제9군단은 군단사령부를 대전에 두고 예하 미 제2, 제25사단으로 삼남지역(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의 후보급로 확보와 인민군 유격대 소탕 임무를 신편된 국군 제3군단에 인계하고 11월 3일 순천으로 이동하였다.

이 무렵 미 제8군은 대체로 1주일 이내에 공격준비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11월 15일을 기하여 공격을 재개할 계획하에 공격준비를 서둘렀다. 그러나 작전에 소요될 보급물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

미 제8군 전투편성



격개시 일자를 연기하게 되었다.<sup>10)</sup>

당시 미 제8군은 김포비행장에서 평양으로 매일 1,000톤의 물자를 공중지원 받아 작전을 하고 있었으나 유류제품과 탄약은 1일 사용량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겨울로 접어들면서 동계피복과 난방유류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송능력의 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때 미 제8군 군수참모는 3개 군단의 공격을 유지하는데는 매일 최소 4,000톤의 보급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평양에 이르는 철도의 교량을 보강 및 보수하고, 또 해상 수송을 위해 진남포항에 인민군이 부설한 기뢰를 제거해야만 했다.

군수지원 능력 향상에 주력한 결과 17일경에는 매일 열차편으로 2,000톤이 평양으로 수송되고, 해상으로도 1,500톤을 진남포항에 양륙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미 제8군사령관은 공격개시일을 11월 24일



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좌전방 미 제1군단(배속: 국군 제1사단, 미 제24사단, 영 제27여단)은 신의주-평양 도로를 중심으로 서해안 따라 진출하도록 하고, 중앙의 미 제9군단(배속: 미 제2, 24사단, 터키 여단)은 군우리-희천 도로 좌측으로 진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우전방 국군 제2사단은 도로 동쪽의 산악지대에서 우인점의 미 제10군단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진출하도록 하였다.

이때 미 제8군사령관은 강남산맥과 묘향산맥이 작전지역을 횡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동로마저 한정되어 협조된 공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과 병참선에 얽매어 공격이 지연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였다. 또한 그는 적의 매복에 의한 기습공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부대와 협조된 공격을 실시하도록 강조하였다.<sup>11)</sup>

이 지시에 따라 국군 제2군단은 20일부터 23일까지 전선 조정을 시도한 끝에 제7사단은 덕천 지역을, 제8사단은 영원 지역을 각각 확보하였다. 미 제9군단도 미 제2사단을 구장동으로 진출시키는 한편, 미 제25사단을 영변 지역으로 북상시켜 국군 제2군단과 병행공격을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었다. 그리고 미 제1군단은 이보다 먼저 전투전개를 완료하여, 국군 제1사단은 용산동과 박천 지역에서, 미 제24사단은 대령강 서쪽의 서해안 통로에서 각각 진격태세를 갖추으로써 미 제8군 이하 3개 군단이 다 함께 공격준비를 완료하게 되었다.

한편 동부전선의 제10군단은 서부전선과는 달리 중공군으로부터 기습공격의 피해를 입지 않는 상태에서 미 제1해병사단의 제7해병연대가 고토리에서 장진호의 남단에 위치한 하갈우리(下碣隅里)로 진격하여 전진기지를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제5해병연대가 공격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고토리(古土里)로 기동하였다. 그리고 군단의 중앙에는 미 제7사단이 압록강을 향하여 북으로 전진하여 제17연대가 11월 21일에는 한만국경의 혜산진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동부전선의 우익 국군 제1군단은 산발적인 인민군 패잔병

의 저항을 격퇴하면서 북진을 계속하였다. 군단의 우전방인 수도사단은 동해안을 따라 진격하여 11월 25일 청진까지 진격하였고, 좌전방인 제3사단은 험준한 산악협로로 진격하여 같은 날 백암을 점령하였다.

이 무렵 유엔군사령관은 미 제10군단장에게 공격계획을 수정하여 장진으로 진출 후 서쪽으로 공격방향을 전환하여 적 후방의 전략, 전술적 요충인 강계를 공격하여 미 제8군의 공격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미 제10군단장은 이 경우 병참선이 신장됨과 동시에 적의 위협이 가중되므로 유담리(柳潭里)에서 바로 서쪽으로 공격하여 강계 남쪽의 무평리(武坪里)를 공격하겠다고 수정 제의하여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미 제1해병사단은 좌인접의 국군 제2군단의 공격을 지원함과 동시에 적의 퇴로를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 4. 유엔군측 戰爭指導路線의 葛藤

야전에서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는 동안 전쟁지도부에서는 중공군의 참전에 대한 대응방안의 선택을 놓고 많은 이견(異見)을 보였고, 때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갈등으로까지 치닫게 되었다. 따라서 이는 현지 작전지휘관의 국경선 작전 수행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 첫번째 갈등은 압록강상의 교량폭격을 둘러싸고 일어난 맥아더 장군과 미 행정부 간의 의견 대립이었다.

유엔군사령관은 11월 5일 극동공군사령관 스트레트메이어(George E. Stratemeyer) 중장에게 적의 능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11월 7일부터 2주 동안 강력하고도 광범위한 폭격을 실시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폭격에서는 압록강상의 모든 교량은 한국 쪽의 끝부분을 파괴하고, 또 수풍댐의 전력시설을 제외한 주변의 공장, 통신수단, 도시 등을 고폭탄이나 소이탄을 사용하여 파괴하도록 계획하였다.

이 폭격문제는 즉시 미국정부에 보고되었고, 미 수뇌부는 참전하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공중폭격을 연기하도록 지시하였  
 다. 이에 대하여 맥아더 원수는 “병력과 물자가 큰 무리를 지어 만주  
 에서 압록강 교량을 통하여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이 이동은 위태로  
 울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내 휘하 군사력을 위협하고 파괴한다.  
 실제로 도강은 야간의 은폐하에 완료될 수가 있으며, 강과 우리 전선  
 과의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내륙  
 으로 진출하여 아군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적의 이 증원을 차단시키  
 는 유일한 방법은 교량과 적의 전진을 지원하는 북쪽지역의 모든 시  
 설을 우리의 공군에 의해 최대한 파괴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연되면  
 매 시간 미군과 다른 유엔군의 피값을 비싸게 지불하게 될 것이다.  
 ……중략…… 시간이 긴박하므로 즉각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미합동참모본부에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sup>12)</sup>

맥아더 장군의 항의 전문을 받은 합참의장 브래들리 장군은 즉각  
 대통령에게 전문내용을 보고하였다. 트루먼 대통령은 국경선에서의  
 작전이 초래할 중대한 위협을 알고 있으면서도, 중공의 국경을 침범  
 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하에서 그 작전을 승인해 줌으로써 공중공격  
 은 11월 8일에 시작되었다.

지상폭격기는 물론 항공모함 탑재 항공기까지 동원되어 압록강 하  
 구 신의주로부터 북동쪽 혜산진까지 압록강 교량과 북한지역내 다른  
 군사목표물에 대한 공격이 진행되었다. 12월 5일까지 한달 가까이 실  
 시된 작전으로 12개의 철로와 육로교량 중 4개가 절단되었으며 그  
 나머지는 손상을 입었다. 그러나 이 무렵 강의 결빙으로 교량파괴는  
 작전에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었다.

두 번째의 의견대립은 중공군이라는 새로운 적의 출현에 따른 유엔  
 의 군사목표, 즉 북한 인민군의 격멸과 한국을 통일된 민주자유국가  
 로 만들겠다는 유엔의 정책목표를 변경시켜야 되느냐, 고수하여야 되  
 느냐를 놓고 유엔군사령부와 한국정부 및 미국정부 간의 상반된 의견

이 노출되었다.

중공군의 참전으로 한국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자 미 수뇌부들은 중공군의 한국전쟁 개입의 군사적 의미를 검토한 결과 중공군의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 설정된 군사목표, 즉 ‘북한 인민군의 격멸’이라는 임무는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하였다. 이는 맥아더 장군이 그의 공격계획을 포기하고 일정선의 방어진지로 후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sup>13)</sup>

이에 대하여 맥아더 장군은 그의 공격계획을 포기할 의향이 없었다. 그는 강력한 중공군의 한국전쟁 개입으로 전반적인 상황은 완전히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면서 만주 폭격을 강력히 제의하였다. 그리고 임무변경에 관한 어떠한 고려도 강력하게 거부한다고 미합동참모본부에 통보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도 11월 10일 신성모(申性模) 국방부장관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중공군이 성스러운 우리 국토를 불법으로 침략하여 왔으며 우리는 세계 민주 우방국가와 함께 이 불법 침략자를 말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신 국방장관은 과거 북방의 침략대군을 살수와 요동벌에서 무찌르고 국난을 극복한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 후 이승만 대통령도 ‘신전국(新戰局)에 대하여’라는 특별성명을 통하여 중공 침략자에 대항하여 온 국민이 총궐기하여, 국경선 밖으로 추방하자고 강조하였다.<sup>14)</sup>

유엔군사령부와 우리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맥아더 장군이 재량대로 작전 임무를 수행하되, 만주 공격은 허용하지 않으며 동시에 미 국무부는 중공과의 협상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유엔군사령부와 미 정부 간에 상반된 의견대립으로 유엔군측은 모처럼 주어진 적과의 단절된 기간에 적절한 상황판단을 하지 못하고 우유부단, 주저 그리고 오판으로 일관하고 말았다. 이로써 미국은 한국에서 재앙(災殃)으로 향한 행진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

치게 되었다.

## 제 2 절 凍土의 大決戰

세계의 이목이 한반국경선으로 집중된 가운데 국군과 유엔군은 이번 공세로 한국전쟁을 종결짓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아직 그 실체도 불분명한 중공군을 상대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은 이들의 공격을 되받아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일전을 버르고 있었다.

따라서 쌍방은 흑한을 녹이기라도 하듯 전 전선이 화력의 도가니에 빠져 들었다.

### 1. 유엔군의 크리스마스 攻勢

1950년 11월 24일 오전 한반국경선까지 진격하도록 계획된 크리스마스공세가 시작되었다.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국군 제1사단, 미 제24사단)은 남청정(納淸亭)과 태천을, 미 제9군단(미 제2사단, 제25사단)은 온정리와 희천을, 국군 제2군단(제7사단, 제8사단)은 희천-유원진을 목표로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공격제대들은 특별한 저항도 없어 순조롭게 진출하였다.

이날 미 제8군의 공격을 비행기로 관찰한 맥아더 장군은 이 작전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결짓기 위한 최종공세로써, 작전에 성공하면 미 제8군 장병들은 늦어도 성탄절까지는 모두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격려하였다.

그리고 유엔군사령부도 이날 계획된 작전의 목표와 일반적 성격을

담은 특별 담화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sup>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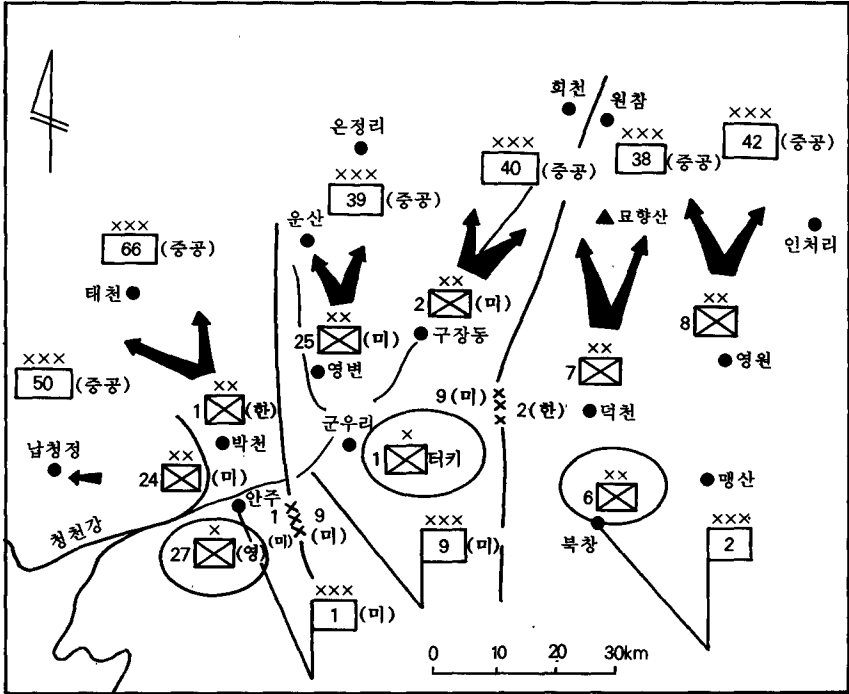
북한에서 작전 중인 새로운 공산군과 대항하기 위한 유엔군의 강력하고도 압도적인 대규모 포위작전은 이제 그 절정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공군도 지난 3주 동안 협공부대의 일부로서 적을 고립시키기 위하여 모든 항공기를 총동원하여…… 북으로부터의 적 병참선을 성공적으로 차단하였기 때문에, 그곳으로부터 추가적인 증원부대의 투입이 현저하게 감소되었으며 중요한 보급품의 후방지원도 제한되었다. 적을 우측에서 협공할 동부전선의 부대들은 진격을 계속하여 적을 유리하게 포위할 수 있는 진지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서부전선부대들은 오늘 아침에 적을 완전히 격멸하기 위하여 총공세를 시작하였다. 만일 이 작전이 성공한다면, 이는 전쟁을 실제로 종결짓고, 한국의 평화와 통일을 회복하며, 완전한 주권과 국제적 평등에 관한 한국 국민과 국가의 소망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싸우고 있다.

국군과 유엔군은 접적이 경미하여 공격 첫날 10~15km 북쪽으로 진출할 수 있었으나 이틀째인 11월 25일부터 중공군이 전 전선에서 완강히 저항하기 시작하였다. 청천강 계곡을 따라 전진하던 미 제2사단이 최초로 구장동 북쪽에서 중공군과 격전을 벌이게 되었고, 국군 제2군단 정면에서도 묘향산과 양감령(兩坎嶺) 일대에서 국군 제7사단과 제8사단의 공격이 둔화되었다. 미 제1군단 역시 태천 지역의 국군 제1사단이 중공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진격이 저지되었다.

중공군의 저항은 의외로 완강하여 좀처럼 물러설 기세를 보이지 않았으며 유엔군은 이날(25일) 하루종일 공군의 근접항공지원하에 공지협동공격을 가하였으나 그들의 저항은 강력하였으며 전진은 불가능하였다.

유엔군의 진격을 저지시킨 중공군은 25일 해질 무렵부터 전 전선에서 일제히 반격(2차 공세)을 개시하였다.<sup>16)</sup> 이들은 주공을 미 제8군

미 제8군 최종공세 (1950. 11. 24)



의 동측방인 국군 제2군단 정면으로 지향하여 덕천과 영원 지역의 국군 제7사단과 제8사단을 강타함으로써 하룻밤 사이에 미 제8군의 동측방이 붕괴의 위협을 받고 방어태세로 전환을 강요하였다. 중앙의 미 제9군단도 정면으로 밀려드는 중공군을 저지하기 위하여 방어태세로 전환하였다. 이로부터 청천강을 중심으로 한 대결전이 전개되었다.

한편 동부전선에서는 공격부대의 집결이 지연되어 서부전선보다 3일 뒤인 11월 27일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미 해병제1사단은 미 제8군과 벌어진 간격을 보완하고 강계와 회천 간의 적의 주보급로를 차단할 목적으로 유담리의 서쪽 60km에 있는 무평리(武坪里)를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7사단의 일부도 서측으로 이동하여

해병 제1사단이 공격하던 장진호의 동안(東岸)을 따라 공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해병사단은 공격 초일부터 중공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공격은頓挫되었다. 이날 밤에 오히려 중공군이 해병부대 주변의 모든 고지로 침투하여 후방 철수로를 차단하였다. 그리고 중공군의 공격부대는 월등한 병력으로 해병부대를 포위하였다. 미 해병사단은 공격을 포기하고 중공군에 밀려 방어태세로 전환하였으며,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철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하였다.

이때 이미 혜산진으로 진출한 미 제7사단 주력부대와 동해안의 최북단에서 두만강을 목표로 진출하던 국군 제1군단은 미 제10군단의 계획에 의거 공격을 중지하고 현지에서 급편방어로 전환하였다.

## 2. 淸川江 橋頭堡 崩壞

한만국경선 진출을 목전에 둔 국군과 유엔군은 공세작전을 펼쳐 크리스마스 이전에 전쟁을 종료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중공군의 결연한 저항으로 공격은 부진하였다. 기회를 엿보던 중공군이 공세작전으로 전환함으로써 전황은 역전되고, 쌍방은 전략전술적 요충인 청천강 교두보지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게 되었다.

### (1) 泰川 戰鬪

청천강 남쪽의 신안주 부근에서 재정비를 완료한 국군 제1사단은 11월 20일 미 제1군단의 공격계획에 의거 미 제24사단의 대령강-용산동의 작전지역을 인수하고 군단의 우전방 사단이 되어 태천-구성-삭주-신의주로 진출하게 되었다. 이때 좌인점의 미 제24사단은 서



해안을 따라 정주로, 우인점의 제9군단 미 제25사단은 운산 일대로 진출하게 되었다.

공격준비를 완료하고 공격명령만 기다리고 있던 국군 제1사단은 24일 10:00에 항공폭격의 엄호하에 제12연대를 좌전방, 제11연대로 우전방, 그리고 제15연대를 예비로 하는 2개 연대 병진대형으로 적 병참선의 요충인 태천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때 적은 사단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교량을 파괴시켰고, 또 도로상에는 도처에 120mm 박격포탄으로 만든 부비츨렘을 매설하였다. 사단공병이 이를 제거하는데 다소 시간이 지연되었으나 적의 저항이 경미하여 저녁 무렵에는 태천을 남쪽과 동쪽에서 포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날 저녁부터 중공군의 저항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완강하여졌고, 다음날 아침부터는 일부 부대가 반격을 개시함으로써 쌍방은 태천을 두고 격돌하였다. 이때 중공군 장교 1명이 귀순하였는데, 그는 “중공군이 본격적으로 남하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전선에서도 적의 병력증원이 확연히 관측되었다.

이때 우인점의 미 제25사단도 적의 강력한 저항으로 공격이 둔화되었고, 이로 인해 사단의 전선이 적진으로 돌출되었다. 이에 사단장 백선엽 준장은 전세가 호전될 때까지 일시 방어로 전환하고, 또 노출된 우측방에 대한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제15연대(제3대대 결)를 박천에서 용산동으로 추진 배치하였다.

적은 27일을 전후하여 제11연대가 방어 중인 대령강 동쪽을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맞선 연대는 태천 동남쪽의 학봉동, 기우산, 토라산 일대에서 중공군과 치열한 격전을 펼쳤으나 압도적인 병력으로 포위공격을 기도하는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연대는 박천 북쪽의 충막동-봉지리 선으로 철수하여 저지진지를 구축하였다. 이때 제15연대 주력도 양지동, 둔전동 일대에서 제11연대의 측후방 돌파를 기도하던 중공군을 격퇴한 후 용산동 일대로 철수하였다.

이로써 태천-운산 도로 남쪽의 신상리-기우산-문봉리 선에서 반격을 개시한 1개 사단규모의 중공군은 제11연대를 격파하고 추격전을 펼쳐 27일 저녁 무렵에는 사단이 방어 중인 태천-용산동 도로까지 진출하였다. 이에 맞선 사단도 우인점 미 제25사단의 상황이 호전되면 즉시 반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사단은 미 제2사단의 구장동 지역과 국군 제2군단의 개천, 영원 지역의 상황 악화로 인한 미 제8군의 철수계획에 따라 28일부터 청천강 남쪽으로의 철수를 준비하게 되었다.

## (2) 球場洞 戰鬪

서부전선의 중앙 미 제9단은 좌전방 제25사단이 운산을, 우전방 제2사단이 회천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번 공격작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임무를 부여받은 미 제2사단은 11월 24일 우전방 제38연대가 백령천(百嶺川)을 넘어서 묘향산 서쪽 능선상의 형제봉으로 공격을 개시하였고, 좌전방 제9연대는 청천강 연안의 도로 축선으로 전진하였다. 전차와 포병 등 지원부대들은 대부분 기동로가 양호한 제9연대의 뒤를 따라 구장동-회천 도로를 따라 진격하였으며, 사단의 예비인 제23연대는 15km 후방의 원리(院里)에서 대기하였다.

이날 전투는 적의 저항이 의외로 경미하여 공격제대들은 8~10km를 전진하고, 차후공격의 발판이 되는 지형지물을 확보하였다. 사단은 다음날(25일)도 적의 저항이 경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공격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사단의 공격은 백령천 북쪽 도로변의 감계고지인 219고지(중공군의 모자고지)에서 저지되었다.

제9연대는 이 고지를 돌파하기 위하여 4대의 전차와 2대의 APC를 동원하여 아침 10:00부터 무려 7시간 동안 공격하였으나 중공군의 완강한 저항과 집중적인 박격포 사격에 공격이 돈좌되었다. 이 상황

은 우인접의 제38연대에도 영향을 미쳐 공격이 부진하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저녁부터는 중공군이 국부적인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사단은 공격을 중지하고 방어로 전환하였다.

11월 26일 02:00 대규모 중공군의 반격이 개시되었다. 청천강 강변에서 예광탄이 교차되고 남동쪽의 미 제38연대 지역에서 요란한 포성이 울리면서, 사방에서 교전이 벌어졌다. 이때 묘향산과 청천강 계곡 및 태평(泰平) 지역 일대에 은거해 있던 중공 제40군이 26일 새벽



중공군이 청천강을 건너 남진하고 있다.

을 기하여 일제히 반격을 개시하는 동시에 그 일부 병력을 후방으로 침투시켜 지휘소를 기습함으로써 제2사단은 큰 혼란스런 상황에 빠져 들었다.

미 제9연대의 좌측대대인 제3대대는 각 중대마다 배후로부터 기습을 받아 절반 이상의 사상자를 냈고, 중앙의 제2대대(청천강 서쪽)는 중공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고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청천강 동쪽의 제1대대도 대대본부와 A중대가 기습을 받고 지휘체계가 마비됨으로써 219고지에서 격전 중인 침병중대를 지원하지 못하여 다수의 인명 손실을 입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우전방 제38연대 또한 구장동 동측방으로의 진출을 기도하는 연대규모의 중공군과 격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결국 미 제2사단은 전 전선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중공군의 역공에 직면하면서 적의 증압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제9군단장 콜터(Jhon B. Coulter) 소장은 제2사단장에게 구장동(球場洞)을 중심으로 저지진지를 급편하여 청천강 통로를 봉쇄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제9연대를 청천강 좌측에, 제38연대를 우측에 배치하고 정면에는 예비인 제23연대의 2개 대대를 추진 배치하여 구장동 방어선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대기동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좌전방 제9연대는 전날 저녁부터 적의 포위공격을 받아 제1, 제3대대가 분산철수함으로써 방어진지 구축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때 기선을 장악한 중공군이 증강된 1개 대대규모로 제2대대를 집중공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대는 미 제23연대의 화력지원을 받아 2시간 동안 사투를 펼쳐 이들을 격퇴하였다. 이때 주간공격을 개시한 적은 과반수가 살상되었고, 사단은 공격을 개시한 이후 처음으로 개가를 올리게 되었다. 한편 미 제9군단장은 제2사단이 구장동 일대에서 혼전을 펼치고 있을 무렵에 우인점 국군 제2군단이 중공군에 돌파되었음을 통보받았다. 이에 군단장은 군우리에 집결 중인 터키 여단을 덕천으로 진출시켜 군단의 우측방을 엄호토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미 제2사단의

우인접에서 작전 중 사단으로 철수한 국군 제7사단 제3연대를 임시로 미 제2사단이 작전을 통제하도록 하였다.<sup>17)</sup>

이날(26일) 어둠이 깔리자 중공군은 구장동 일대를 방어 중인 사단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청천강 서쪽의 제9연대와 구장동 정면의 제23연대는 적의 공격에 연대 및 대대지휘소가 기습당하고, 또 포병진지마저 유린되는 상황에 처해 부득이 남쪽의 원참으로 철수하였다. 이때 제38연대와 국군 제3연대는 백령천 부근에서 중공군을 격퇴하고 방어진지를 고수하였으나 사단 주력의 철수로 말미암아 10km 남쪽의 장하리와 양지리 부근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중공군의 공격은 27일 낮 동안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어둠이 깔리자 중공군은 서서히 기동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사단이 도로를 중심으로 경계를 강화하자 중공군은 사단의 배치공간인 산악지역으로 기동하여 전방연대의 후방으로 진출하였다. 그리고 28일 01:00를 전후하여 정면과 후방에서 사단을 협공하기 시작하였다.

적중에 고립된 제9, 제23연대는 소규모 부대로 분산되어 적진을 돌파하고 사단사령부가 있는 군우리 북쪽 8km에 위치한 원리로 집결하고 있었다. 이때 사단장 카이저(Laurence B. Keiser) 소장은 원리가 청천강 남쪽으로 내려가는 마지막 길목이기 때문에 제23연대장에게 소속에 관계없이 모든 병력을 수용, 통제하여 저지선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날이 밝은 후 제23연대가 원리 일대의 엄호 임무를 맡고, 제9연대는 분산 탈출해 오는 병력을 수용하여 재편성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적과 접촉을 유지하면서 철수한 국군 제3연대가 원리와 비호산 사이에, 제38연대는 비호산에 배치되었다.

이로써 25일 밤부터 이날(28일) 아침까지 구장동 일대에서 고군분투한 사단은 원리-비호산 일대에 저지선을 구축하는데는 성공하였으나, 사단이 이 저지선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는 예측할 수 없었다.

### (3) 德川 戰鬪

미 제9군단의 전선 투입으로 국군 제2군단의 작전지역이 동쪽으로 이동됨에 따라 국군 제7사단이 19일 덕천으로 이동하여 군단의 좌전방 사단이 되었다. 이 무렵 최종 공세일자가 24일로 결정되자 군단장은 좌인접의 미 제9군단과 협조된 공격을 개시하기 위하여 식별이 용이한 백령천-우현-내창천을 연하는 공격개시선을 조기에 확보하였다.

이에 제7사단은 22일 공격을 개시하여 경미하게 저항하는 적을 격퇴하고, 좌전방 제3연대는 용연동-우현을, 우전방 제8연대는 사향산-하령곡산을 점령하고 사단예비인 제5연대도 덕천으로 이동함으로써 사단의 공격준비는 완료되었다.

사단은 24일 10:00에 제3연대가 묘향산 서쪽의 1531고지를, 제8연대가 묘향산 남쪽의 가마봉과 백애산을 목표로 2개 연대 병진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깊은 계곡과 가파른 능선으로 이어진 묘향산 일대의 작전지역이 지세가 너무 험준하고, 기동공간이 극히 제한되어 공격체대들은 2시간이 경과한 12:00까지도 겨우 3km 정도 밖에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일몰이 가까워올 때까지 계속된 교전에서 전방 2개 연대는 두 차례의 항공지원과 제18포병대대의 지속적인 화력지원을 받아가며 공격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이때부터 중공군의 정찰대가 도처에서 출몰함으로써 사단은 목표를 탈취하기 위한 공격보다는 오히려 이들의 역습이 우려되어 이에 대비하기에 바빴다.

후일 밝혀진 일이지만 사단의 제1차 공격목표인 1531고지와 가마봉 및 백애산 일대가 바로 중공군의 주진지였고, 그 전방에서 이들의 수색대가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사단의 공격작전은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제3연대는 1531고지 남쪽 3km의 1101고지와 956고지를 점령하여 중공군의 반격에 대비하였으며, 내창천의 제8연대는 우현고개와 818고지로 물러나 사주방어(四周防禦)태세를 취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양연대간의 공백지대가 노출되자, 사단장 신상철(申尙徹) 준장은 제5연대장에게 덕천에 위치한 2개 대대를 백령천(百嶺川) 남쪽의 탁(卓)고개로 추진배치하여 제3연대와 제8연대 간의 공백지대를 경계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사단 수색중대를 우인접 제8사단과의 전투지경선 부근인 하령곡산(下嶺谷山) 북쪽 계곡에 배치하여 동측방을 방호하도록 조치하였다.

미 제8군의 최종공세에 참가한 부대 가운데 첫날 작전에서 가장 진격속도가 느렸던 사단은 25일 날이 밝자, 전날에 뒤진 진격속도를 만회할 것을 다짐하며 2일째 공격을 개시하였다. 사단은 15:00까지 공격을 계속하였으나 묘향산 일대에 배치된 중공 제38군의 저항이 완강하여 1km도 전진하지 못하고 공격이 둔좌되었다.

날이 저물자 사단장은 현 진지에서 방어태세로 전환하라고 명령하고, 사단예비인 제5연대장에게는 탁고개에 배치되어 있는 2개 대대를 전방연대의 중간위치인 우현동(牛峴洞)으로 진출시켜 가마봉-덕천간의 예상되는 적의 접근로를 봉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 지시에 따라 제3연대는 덕천 북서쪽 18km의 장안골 일대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였고, 제8연대는 덕천 북동쪽 20km의 사항산을 점령하였다.

협산으로 이어진 묘향산 골짜기에 어둠이 깃들자 포병의 요란사격만이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을 뿐 전선에는 소강상태가 유지되는 듯하였으나, 사항산(寺項山) 동쪽 능선에 배치된 제8연대 제2대대 정면에 중공군이 출현하였다는 보고와 동시에 요란한 총성이 산악을 뒤흔들기 시작하였다. 이 총성은 좌인접의 제3대대와 우인접 하령곡산에서 사단간 전투지경선을 방어하던 사단 수색중대지역으로 확산됨으로써 사단의 우전방이 화염에 휩싸였다. 사단 수색중대는 중공군 1개 연대규모의 기습공격을 받고 총력을 다하였으나 수적인 열세를 극복

하지 못하고 분산 철수함으로써 사단의 우측방이 완전 노출되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군단에서는 국군 제7사단의 예비대가 1개 대대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북창(北倉:덕천 남쪽20km)에서 대기 중인 군단 예비대를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출동명령을 받은 국군 제6사단 제2연대는 하령곡산 남쪽의 풍전리(豊田里)를 봉쇄하기 위하여 전방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의 선두부대는 제2연대가 풍전리에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이곳을 통과하여 후방으로 진출하고 있었고, 제8연대는 이 사실도 모른 채 전방에서 공격해 오는 중공군을 격퇴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밤이 깊어 25일 자정이 지나고 26일 02:00가 되자 중공군의 대대적인 반격이 개시되었다. 묘향산 일대에 대기하고 있던 중공 제38군이 좌인점에서 구장동을 방어중인 미 제2사단을 강타하였다.

특히 사단 정면으로 침공한 중공 제38군은 사단의 우전방 제8연대 진지 정면으로 쇄도하여 집중공격을 가하는 동시에, 일부는 우인점 국군 제8사단과의 전투지경선을 따라 계속 후방으로 침투함으로써 덕천 동측방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사항산에서 초저녁부터 격전을 벌이고 있던 제8연대는 2개 연대규모의 중공군에 의한 집중공격을 받고 제2대대 진지가 돌파되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배후로부터 중공군의 기습을 받게 됨으로써 더욱 큰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때부터 제8연대는 지휘체제가 마비되어 저마다 각개약진으로 사항산 계곡을 탈출하기 시작하였으며, 4km 후방의 추동리(楸洞里)에 이르러서야 겨우 추격을 뿌리치고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 제8연대장 김용주(金龍周) 대령은 이곳에 새로운 저지진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후퇴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던 중, 다시 배후에서 출현한 중공군의 기습 공격을 받았다.



당시 사단 동측방의 하령곡산 계곡에서 수색중대 진지를 유린한 중공군이 배후로 침투하여 하가동 고개를 점령하고 있다가 추동리에 집결 중인 연대를 기습함으로써 악순환이 거듭되었던 것이다.

사항산의 제8연대 진지가 돌파된 후, 연대 좌측의 제5연대(-)는 악화 일로에 있는 전선 상황에 위축되어 우현에서 밀어닥친 중공군의 압도적인 측방공격을 받자마자 제대로 싸워 보지도 못하고 뒤로 밀리고 있었다. 26일 04:00경 덕천 북방 10km의 풍덕리(豐德里)에서 병력을 수습한 제5연대 제1대대와 제2대대는 풍덕산 북쪽 능선에 저지진지를 급편하여 방어작전을 시도해 보았으나, 때를 지어 물려드는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휘말려 다시 실패하고 덕천 방면으로 분산철수하게 되었다.

이 무렵, 덕천의 사단사령부에서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하였다. 제8연대의 배후를 우회하여 침투한 대대규모의 중공군이 사단사령부를 기습한 것이다. 불의의 기습공격을 받게 되자, 사단장 일행은 우선 덕천 뒷산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사단의 예비인 제5연대 제3대대로 하여금 이들을 격퇴하라고 명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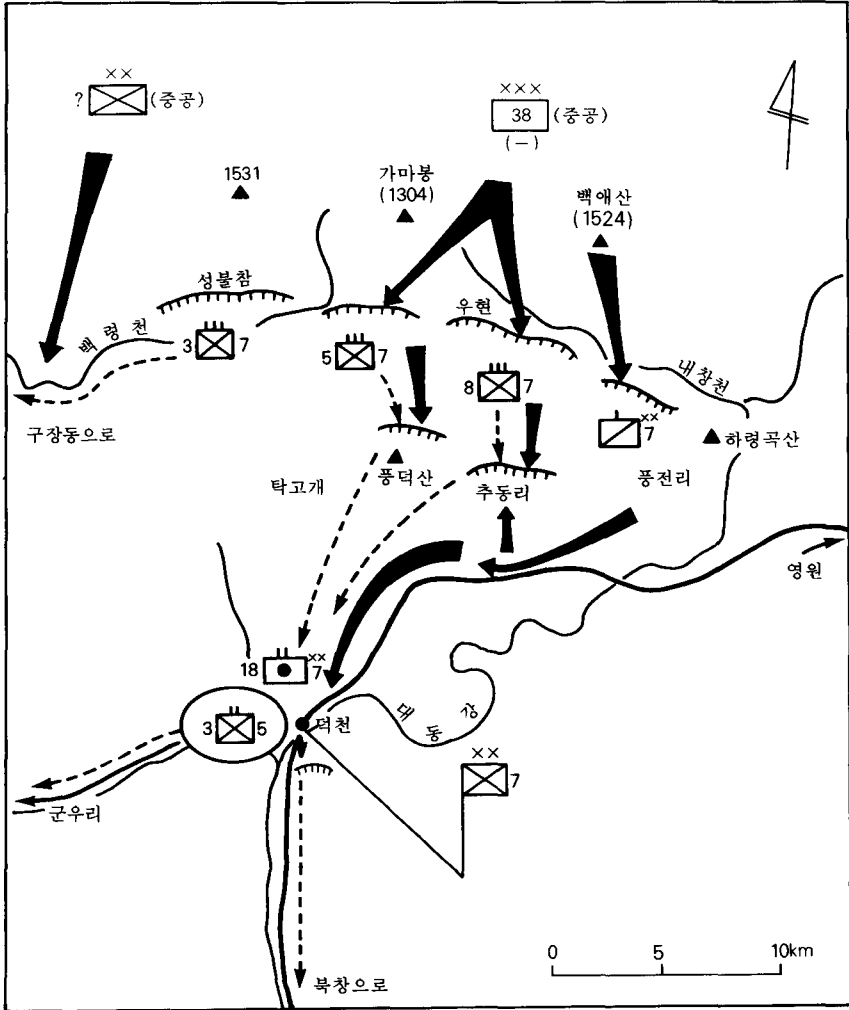
얼마 후, 중공군은 병력과 화력의 보강을 마친 듯, 덕천읍에 대하여 박격포 사격을 집중하면서 주변의 통로를 차단하였다.

제5연대 제3대대 장으로부터 후방통로가 차단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사단장은, 사단사령부를 포함한 덕천지역 부대들을 북창(北倉)으로 철수시키기로 결심하고 대대장(金相峯 소령)에게 퇴로를 타개하라고 명령하였다.

제3대대가 돌파작전을 개시하여 덕천 남쪽 2km의 제남리(濟南里)에서 중공군 차단진지를 격파하고 퇴로를 타개하자, 사단사령부를 비롯한 직할중대와 제18포병대대 B포대가 덕천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제3대대가 철수한 후 다시 덕천 일원의 통로가 중공군에 의해 차단됨으로써, 이날 새벽에 흩어졌던 일부 병력과 전방에서 철수중인 부대들의 퇴로가 또다시 막히고 말았다.

덕천 전투(1950. 11. 25~11. 26)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제5연대(-)와 제8연대는 차단된 퇴로를 뚫고 남하하여 덕천으로 집결하려다가 다시 중공군의 기습공격을 받고 분산되었으며, 이때부터 중공군의 포위망을 벗어나기 위하여 일

부는 북창으로, 일부는 개천(价川) 방면으로 분산 탈출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덕천이 중공군에게 포위되어 있을 때, 제5연대와 제8연대 병력은 적지를 탈출하기에 여념이 없었으나, 사단의 좌전방부대인 제3연대만은 적의 공격이 경미하여 백령천 북쪽의 방어진지를 26일 12:00까지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

제3연대장 정진(鄭震) 중령은 사단과의 통신이 두절되고, 덕천으로의 퇴로가 막혀 버린 사실을 인지하고 이날 오후에 좌인접의 미 제2사단 지역인 구장동(球場洞)으로 빠져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백령천 계곡을 따라 철수하기 시작한 연대는 이날 석양 무렵에 형제봉 남쪽에서 미 제38연대장 피플로(George B. Peplow) 대령을 만나 그와 협조한 끝에 미 제2사단장의 승인을 얻어 이날 밤부터 구장동 전투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후 국군 제7사단(-)은 덕천에서 철수한 후, 북창을 경유하여 다시 순천으로 남하한 다음 여기에서 부대를 정비하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11월 30일에 강동(江東)을 거쳐서, 승호리로 이동하여 대동강선 방어작전에 대비하였다.

#### (4) 寧遠-孟山 戰鬪

제8사단은 제2군단의 우전방 사단으로서 서부전선의 가장 동측에서 공격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사단도 좌인접 제7사단과 함께 24일 10:00에 좌전방 제10연대가 소쾌산을, 우전방 제21연대가 백암산(白岩山)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때 사단예비인 제16연대는 공격간 동측방을 방호하기 위해 2개 대대를 맹산(孟山) 동측방에 배치하고 1개 대대만을 사단예비로 맹산에 집결시켜 사단지휘소를 경계하고 있었다.

사단의 공격도 적의 저항은 경미하였으나 산길이 험하고 수림이 울창하여 전진속도가 느렸다. 이로 인하여 제10연대는 영원 북쪽 5km

하령곡령(下嶺谷嶺)을 넘어 용흥동(龍興洞)에, 제21연대는 영원 북동쪽 12km의 작은 양감령(兩坎嶺)으로 진출하여 야간방어로 전환하였다.

다음날(25일) 사단은 계획대로 공격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사단의 공격은 공격개시와 동시에 적의 강력한 저항을 받았다. 좌전방 제10연대는 소래산을 목표로 공격 재개하였으나 강력한 포병화력의 엄호를 받고 있는 중공군의 집중사격에 공격이 돈좌되고 막심한 피해만 입었다. 그리고 우전방 제21연대의 3시간에 걸친 맹공격도 준비된 방어진지에서 강력히 저항하는 중공군에 의해 돈좌되었다.

사단이 정면공격에 주력하고 있는 동안 중공 제42군은 주력부대로 제8사단의 공격을 저지하고, 1개 사단병력을 동부산악지대로 우회시켜 20km 후방의 맹산(孟山) 지역을 장악하도록 하였다. 이들의 선두부대들은 13:00경에는 제16연대 2개 대대가 방어하고 있는 맹산 동북쪽의 애창천 계곡에 출현하였다.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한 사단장은 제16연대장 유의준(俞義濬) 중령에게 현 진지를 사수하라고 명령하는 한편, 군단에 상황보고와 아울러 병력 및 화력의 증원과 근접항공지원을 요청하였다. 동시에 영원에 위치한 제50포병대대장에게 1개 포대를 신속히 맹산으로 이동시켜 제16연대를 지원하도록 명령하였다.

제16연대 제2대대는 정면으로 중공군 대부대가 돌진해 들어오자 선두부대가 사정권까지 진출하기를 기다렸다가 대대의 전 화력을 집중하여 이들의 남하를 저지하였으나 죽음을 무릅쓰고 계속 밀려드는 제2, 제3의 파상공격으로 끝내 대대의 진지가 돌파되고 급기야는 대대가 중공군에게 포위되는 위기에 빠지고 말았다. 때마침 유엔 전술공군의 전폭기 편대가 출현하여 네이팜탄과 로켓탄, 그리고 기총소사 등의 공중공격을 가하여 적의 공격이 잠시 주춤하였다. 대대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맹산 북쪽 소가래봉(召加來峰)으로 탈출하였다.

이때 군단은 제8사단의 위기상황을 보고받았으나 증원할 예비부대

가 없어 속수무책이었다. 당시 군단은 예비로 제6사단을 확보하고는 있었으나 가용한 부대는 제7, 제8사단의 전투지경선 부근에 투입된 제2연대뿐이었고, 제7, 제19연대는 중공군의 1차 공세 때 입은 손실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덕천과 북창 간의 작전도로를 확보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sup>18)</sup>

중공군은 처음부터 강력하게 편성된 진지에 대한 정면공격을 하지 않았다. 전선 어디에서나 똑같은 양상으로 나타난 현상이지만 중공군은 반드시 야간공격을 실시하되 소수병력으로 후방의 지휘소를 기습한 후 지휘체계가 혼란한 틈을 이용, 돌파를 시도하여 각개 격파시키고 아울러 퇴로를 차단함으로써 방어진지를 유린하는 공격방식을 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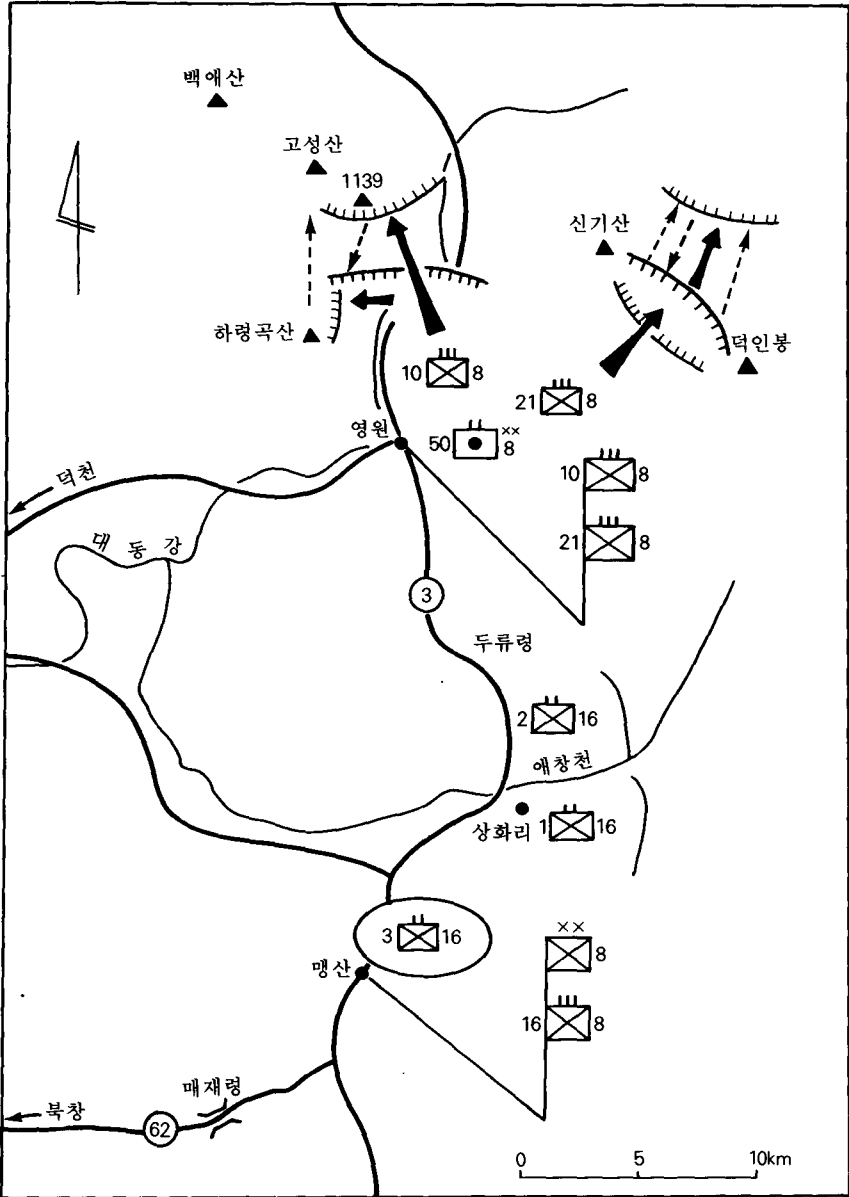
국군 제16연대를 공격한 중공군 제126사단의 경우도 먼저 맹산 북쪽 송암리(松岩里)에 위치한 연대지휘소를 기습하여 혼란을 야기시킨 후 상화리의 저지진지를 공격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사단지휘소가 위치하고 있는 후방의 맹산 지역도 기습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제16연대를 맹산강과 애창천이 합류되는 소요동(逍遙洞)으로 철수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전방연대에 대하여 제21연대는 영원-맹산 간 도로를, 제10연대는 덕천-맹산 간 도로를 각각 확보하고 동측방에서 침공하는 중공군을 저지 격멸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이때 제7사단과 제8사단 간의 전투지경선 간격을 통하여 남하한 중공군 대부대가 먼저 영원 지역으로 침입하여, 제10연대와 제21연대의 퇴로를 차단하고 철수부대를 공격함으로써 전방연대들은 혼란 상태에 빠졌다.

즉, 영원 지역에는 사단규모의 중공군이 침입하여 주변의 모든 통로를 차단하고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포위, 공격함으로써 이 양 연대는 물론 제50포병대대까지도 혼전 속에 말려들어 주요장비와 차량을 거의 다 파괴 또는 유기한 채 소집단으로 분산되어 탈출하기 시작하였다.

영원-맹산 전투(1950. 11. 24~11. 25)



이로써 사단이 영원을 포기하고 맹산 동북쪽에서 적을 저지하려던 계획은 무산되었고, 대부분의 병력이 사단지휘소가 위치하였던 맹산으로 밀려오고 있었다.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한 중공 제42군은 청천강 남쪽으로 전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맹산과 북창 간의 측방도로를 따라 맹렬히 추격하였고, 제8사단은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들은 영원 지역에서 후퇴하고 있는 병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맹산에 위치한 제16연대까지도 뒤로 제쳐놓고 북창으로 향해 서진(西進)하고 있었다. 사단이 이와 같은 상황을 파악하게 된 것은 26일 12:00가 지난 후 군단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에 사단장은 제16연대장에게 “신속히 맹산—북창 도로의 매자령으로 철수하여 사단주력 부대의 철수를 엄호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기타 사단 예하의 모든 부대들은 가능한 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 북창 남쪽의 가창(假倉)으로 집결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도 사단장의 의도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제16연대가 매자령에 도착하기 전에 일부의 중공군이 이미 이 고개를 선점하고 매복해 있다가, 고개로 오르고 있는 제16연대를 기습공격함으로써 연대가 다시 오던 길인 맹산 방면으로 밀리는 상황이 야기되었던 것이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군단에서는 국군 제6사단 제7연대와 제19연대를 북창 주변에 배치하여 전방 철수부대들을 엄호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11월 27일 01:00부로, 국군 제7사단은 순천(順川)으로, 제8사단은 가창으로 각각 집결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16연대는 중공군의 매자령 진지를 돌파한 후 북창을 경유하여 이날 오후에 가창으로 철수하였고, 제10연대와 제21연대의 분산병력은 산길을 따라 북창과 가창 지역으로 집결하였다.

이후 국군 제8사단은 가창 집결지에서 강동(江東)으로 이동하여 부대를 재편성한 다음 평양—원산 선 방어작전에 대비하게 되었다.

## (5) 北倉 戰鬥

국군 제2군단은 11월 25일 제2차 공세를 시작한 중공 주력부대의 공격을 받아 덕천-영원 선에서 방어로 전환하였다. 이때 중공 제38군은 좌전방 국군 제7사단과 우전방 제8사단의 전투지경선 부근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였고, 제42군의 일부는 미 제8군과 제10군단의 배치공간으로 침투하여 군단의 노출된 우측방을 엄호하기 위하여 맹산을 방어 중인 제8사단 예비인 제16연대를 공격하였다. 이에 군단장 유재홍 소장은 전방사단을 증원하여 돌파구 확대를 저지할 목적으로 군단예비로 가창에 대기 중인 제6사단 제2연대를 긴급히 덕천 북동쪽의 풍전리로 이동시켜 하령곡산에서 남하하는 중공군을 저지하도록 명령하였다.<sup>19)</sup>

당시 국군 제6사단은 지난 10월 하순 압록강으로 진출 중 초산, 은정리에서 불의에 중공군의 기습공격을 받아 고군분투한 후 미 제8군의 청천강 방어계획에 의거 개천에 집결하여 국군 제2군단의 예비가 되었다. 사단은 이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었으나 재편성을 서둘러 완료하고 교육훈련에 주력하면서 차기작전에 대비하였다. 사단은 11월 24일 크리스마스 공세를 개시할 무렵 군단의 후방지역을 엄호하기 위하여 다시 덕천-신창 도로변의 가창으로 이동하였다. 제2연대는 사단의 선발대로 덕천으로 이동한 후 이날(25일) 15:00에 덕천초등학교 교정에서 사단장 장도영(張都映) 준장의 특별 정신훈화를 듣고 제7사단과 제8사단의 전투지경선 부근인 북쪽의 신하리로 진출하였다.<sup>20)</sup>

당시 제2연대는 제6사단 예하 연대중 제일 먼저 재편성이 완료되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대한 두려움과 계속된 철수작전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1개 사단 규모의 중공군과 대적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설상가상으로 26일 새벽에는 연대지휘소마저 적에게 피습되어 연대는 순천으로 분산 철수하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군단은 적과 치열한 격전을 펼쳤지만 정오 무렵 용덕리(맹산 북쪽 8km) 동쪽에 배치되었던 제16연대 방어지역이 돌파되면서 상황은 급속히 악화되었고, 전방 연대들이 퇴로 차단을 우려하여 철수를 개시함으로써 군단의 주저항선은 붕괴되었다. 이때 군단장은 덕천과 맹산에서 순천으로 연결되는 도로의 합류점인 북창리 남쪽에 저지진지를 구축하여 적을 저지하기로 결심하고 제6사단(제2연대결)을 투입한 후 전방지역에서 철수하는 제7, 제8사단을 엄호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제6사단이 북창으로 진출할 무렵 중공군의 포위공격에 혼란상황에 빠진 제2군단 주력부대들은 지휘통신이 마비된 채 덕천-북창, 덕천-개천 도로와 주변 산악지대로 분산되어 무질서하게 철수하고 있었다.

이 상황을 보고받은 제8군사령관은 노출된 우측방을 보강할 목적으로 국군 제6사단을 미 제9군단에 배속시키고, 국군 제2군단은 순천, 강동 일대로 철수하여 재편성을 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미 제9군단장은 군단의 우측방을 방어하게 된 국군 제6사단을 보강하기 위하여 순천-성천 도로변에 배치된 미 제1기병사단의 예비인 제7기병연대를 북창리로 이동하도록 명령하였다.<sup>21)</sup>

29일 해가 뜨기 전에 실시된 공중정찰에서 4개 연대규모 이상의 중공군(후일 중공 제42군 제125사단으로 판명됨)이 북창을 경유하여 국군 제6사단 정면으로 접근하고 있음이 관측되었다. 정오 무렵 미 제7기병연대가 도착하기 전에 제6사단은 이 적을 맞아 격전을 펼쳤지만 역부족으로 그 남쪽의 월포리로 철수하였다. 이후에도 적의 추격은 계속되었으나, 사단은 중공군의 추적이 주춤한 틈을 이용하여 신창리로 철수하였다. 이곳에서 재편성을 완료한 사단은 미 제8군의 우측방을 엄호하기 위하여 미 제7기병연대와 연결하여 순천-신창리 도로에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이로써 덕천과 영원 북쪽에서 전개된 군단의 크리스마스 공세작전은 중공군의 2차 공격으로 무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 인명과 장

비의 손실을 입어 부대정비가 시급하게 되었다.

### 3. 平壤－咸興으로 撤收 決定

지난 유엔군의 최종공세(크리스마스공세)작전<sup>22)</sup>에서 미 제8군의 동측방 공격제대인 국군 제2군단(배속:제6, 제7, 제8사단)의 공격은 초일부터 강력한 적의 저항에 부딪혔으나, 서측방 미 제1군단(배속:국군 제1사단, 미 제24사단, 영 제27여단)과 중앙의 미 제9군단(배속:미 제2, 제25사단, 터키 여단)은 이튿날(25일) 저녁 무렵까지는 적정이 경미하여 순조롭게 진출하였다. 그러나 이날 저녁 중공군이 공세로 전환하면서부터 이들 부대의 공격도 둔화되고, 급기야 적의 주공이 지향된 국군 제2군단의 전선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유엔군사령관은 이 전투가 개시되기 전까지 ‘중공군은 대병력으로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나 11월 27일과 28일 이틀째 적의 강력한 공격을 받고 있다는 미 제8군과 제10군단의 상황보고를 접하면서부터 중공군의 대규모 참전을 기정사실(既定事實)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날 미 합동참모본부에 “우리는 전혀 새로운 전쟁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가까운 장래에 취할 자신의 전략은 공격에서 방어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보고하였다.<sup>23)</sup> 이는 승리를 장담한 그의 최종결심에 어떤 변화가 일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방침에 따라 28일 밤 유엔군사령부에서는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에 따른 대책을 토의하기 위하여 긴급작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전쟁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장군과 휘하 참모들, 그리고 제8군사령관 워커 장군,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장군이 참석하였다.<sup>24)</sup>

당시 서부전선의 미 제8군은 우전방 덕천－맹산 일대가 돌파됨으

로써 적의 포위위협에 직면하여 청천강 교두보마저 포기하고 군우리로 집결 중에 있었다. 그리고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도 장진호 서쪽의 유담리에서 미 제8군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쪽의 무평리를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오히려 수적으로 우세한 중공군의 포위 및 후방지역 차단 위협에 직면하게 되어 방어로 전환하여 격전을 벌이고 있었다.

양 부대장으로부터 이러한 상황을 청취한 맥아더 장군은 서부전선 부대는 중공군에게 우측방이 노출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만큼 후퇴하도록 허용하였고, 동부전선부대는 중공군과 접적을 유지하면서 함흥과 흥남의 해안교두보 지역으로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sup>25)</sup> 당시 맥아더 장군은 미 제10군단이 해안교두보 지역을 확보함으로써 남하하는 공산군의 좌측방을 위협함은 물론 서부전선에 집중된 적의 전투력을 분산시켜 미 제8군도 평양-원산 선을 무난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조치의 일환으로 유엔군사령부 작전참모는 원산 일대에서 작전 중인 미 제3사단을 태백산맥을 횡단하는 덕천-원산 간의 산악도로를 이용하여 미 제8군의 우측방을 위협하고 있는 중공군을 공격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미 제10군단장은 지도상에는 이 도로가 존재하나 실제로는 노퍽이 협소하여 주보급로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며, 또 혹독한 기후와 공간 지역에서 자칫하면 미 제3사단 전체가 적의 기습으로 위기에 빠질 수 있음을 들어 반대하였다.

이날 회의는 유엔군사령관이 확실한 작전방침을 결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철수라는 중대한 결정은 내렸으나 제8군의 지원건에 관해서는 아무런 결론도 없이 종료되었다.<sup>26)</sup> 그러나 제8군에 대한 지원문제는 맥아더 장군의 지대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11월 29일 전선으로 복귀한 두 지휘관의 협조사항으로 넘겨졌다.

한편 지상군의 전면적인 철수가 결정되자 유엔공군과 해군의 작전 방향도 변경되었다. 미 제5공군사령관 페트리지(Earle E. Patridge) 소

장은 압록강 북쪽에서 활동이 증가되고 있는 MIG-15기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 상황에서도 급속히 증가된 근접항공지원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그 동안 후방지역 폭격과 무장정찰 임무만 수행하던 미 제77기동함대 소속의 해군항공대도 지상군의 근접항공지원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미 극동함대사령관 조이(C. T. Joy) 중장은 지상군의 화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한반도 근해에 대기 중인 항공모함과 전투함들을 작전해역으로 복귀하도록 명령하였다. 또 지상군의 해상철수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90기동함대의 상륙전단을 동·서해에 1개 전단씩 재배치시켰다.<sup>27)</sup>

#### 4. 西部戰線의 大災殃

위커 장군은 28일 도쿄로 출발하기 직전에 청천강 하구-박천-북원-태우리를 연하는 방어선을 구축하도록 작전지침을 하달하였다. 이는 청천강 교두보에서 중공군의 공세를 저지한 후 다시 국경선으로 진출할 계획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그가 도쿄회의를 마치고 29일 오후 평양으로 복귀할 무렵에는 미 제1기병사단이 신창리에 배치된 국군 제6사단의 증원 실패, 터키 여단의 와원리 철수, 그리고 미 제25사단과 미 제2사단이 청천강 계곡 전투에서 입은 손실 등으로 최초 계획한 방어선의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sup>28)</sup>

이 무렵 서측방 미 제1군단(배속:국군 제1사단, 미 제24, 미 제25사단)은 청천강 북쪽의 박천 일대를 확보하고 있으나, 우전방 미 제9군단(배속:국군 제6사단, 국군 제7사단 제3연대, 미 제2사단, 터키 여단)은 중공군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 군우리를 중심으로 방어정면이 축소되고 있었다. 특히 군우리의 미 제2사단은 북동쪽 묘향산의 지맥인 산악능선을 따라 후방으로 진출한 중공 제38군에 의해 퇴로가 차단되어 포위 상황에 직면하였다.

전황을 면밀히 분석한 미 제8군사령관은 북쪽과 동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적의 추격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방어정면을 축소시켜 주저항선의 방어력을 강화하고 방어중심을 유지할 목적으로 청천강 남쪽에 신방어선을 구축할 수밖에 없다고 결심하였다. 이에 미 제1군단은 숙천-순천, 미 제9군단은 순천-성천 간을 방어하게 되었고, 국군 제2군단은 제6사단과 제7사단 제3연대를 미 제9군단에 배속함과 아울러 군단 주력(제7사단(-), 제8사단, 직할부대)은 강동 남쪽에서 신속히 부대정비를 할 수 있었다.<sup>29)</sup>

이로써 지난 10월 초 한만국경선을 목표로 북진을 개시한 국군과 유엔군은 2개월여 동안 밀물처럼 밀어붙였으나 한만국경선 확보 일보 직전에 북병인 중공군을 만나 다시 썰물처럼 철수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게 되었다.

### (1) 肅川-順川 防禦

크리스마스 공세를 시작한 지 닷새째인 11월 28일 미 제1군단의 국군 제1사단은 태천 외곽까지 진출하였으나 중공군의 공격에 밀려 박천 북쪽의 충막동-용산동 선을 점령하였고, 우인접 미 제25사단은 영변 남쪽으로 진출하여 접적 중에 있었다. 그러나 국군 제1사단의 좌인접에서 남침정으로 진출하던 미 제24사단(제5연대 결)은 접적이 경미하여 이날 미 제8군의 예비가 되어 강동으로 이동하였다.

다음날 국군 제1사단은 박천-용산동 일대를 고수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증원부대를 투입하는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사단은 축차적인 지연전을 펼치면서 박천 남쪽의 동이동(東二洞)으로 철수하였다. 이때 적은 용산동 공격과 병행하여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의 전투지경선인 청천강변의 구장동-개천 도로를 방어중인 미 제2사단 제23연대의 진지를 돌파하고자 하였다. 만약 미 제2사단을 돌파한 적이 군우리-신안주 도로로 진출

하면 청천강 북쪽에 진출 중인 미 제1군단의 주력부대들은 퇴로가 차단되어 적중에 고립될 가능성이 농후하였다. 이를 간파한 미 제1군단장 밀번(Frank W. Milburn) 소장은 오후 늦게 예하의 국군 제1사단과 미 제25사단에 청천강 남쪽으로 단계별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sup>30)</sup>

국군 제1사단은 군단의 단계별 철수계획에 따라 우선 제1단계로 청천강 북쪽의 맹종리-풍항리 일대로 철수하였고, 우인접 미 제25사단도 복원 일대에서 철수를 개시하여 자정 무렵 구룡강과 청천강의 합류점 부근에 집결하였다. 군단 주력부대의 제1단계 철수가 완료되자 군단장은 군단예비인 미 제24사단 제5연대를 청천강 남쪽의 신안주-안주 일대에 배치하여 군단 주력부대의 청천강 도하를 엄호하도록 하였다. 30일 아침 청천강 제방을 따라 이동한 국군 제1사단과 미 제25사단은 제5연대의 엄호하에 청천강을 도하 군우리-신안주-숙천 도로를 따라 이동하여 국군 제1사단은 숙천에, 미 제25사단은 순천에 집결하였다. 제5연대도 주력부대의 철수가 완료되자 안주교를 폭파한데 이어 18:00경에는 청천강상의 잔여 교량을 전부 폭파시켰다.<sup>31)</sup>

군단이 청천강 교두보 지역을 포기하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중공군의 추격이 경미하여 철수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군단의 우전방 미 제25사단 제24연대 제3대대가 우인접 미 제2사단 제23연대의 철수로 측방이 노출되어 적중에 고립되었고, 또 군우리에 개설한 대대지휘소가 적의 기습공격을 받아 대대는 혼란상황에 빠졌다. 그러나 제3대대는 항공폭격과 미 제23연대에서 지원된 강력한 전차포 사격의 지원을 받아 부상 30명, 실종 104명의 손실을 입고 중공군의 포위망을 탈출하여 이날 늦게 본대와 합류하였다.

이날 저녁 무렵 국군 제1사단은 숙천 서측에 제15연대, 동측에 제12연대를 배치하였고, 미 제25사단도 제15연대와 연결하여 순천 서쪽의 진지를 점령하여 군단의 주저항선을 구축하였다.

## (2) 軍隅里의 大血戰

미 제9군단은 28일 제8군 명령에 의거 방어로 전환하여 구장동 남쪽의 복원에서 양덕 북동쪽의 태올리 간의 청천강 교두보 선을 방어하게 되었다. 군단장은 좌전방 미 제2사단에 국군 제3연대와 터키 여단을 배속하여 군우리<sup>32)</sup> 북동쪽의 복원-와원을, 우전방 국군 제6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은 덕천 남쪽의 북창 일대를 방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군단예비인 영 제27여단은 전방사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우리에서 순천 남쪽의 자산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미 제2사단이 부대 재배치를 하는 동안 중공 지원군사령관도 제38군에 덕천 전투를 종료 후 주력부대를 신속히 군우리로 진격하도록 하고, 일부는 군우리-순천 도로의 중간지점인 삼소리를 점령하여 미 제2사단의 퇴로를 차단한 후 포위 섬멸하도록 명령하였다.<sup>33)</sup> 이 명령에 의거 중공 제38군은 군우리 대혈전의 서막을 알리기라도 하듯 우전방 터키 여단의 와원을, 중공 제40군은 군우리의 미 제2사단 주력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쌍방은 예측을 불허하는 혈전을 펼치게 되었다.

## ● 터키 여단의 지연전

터키 여단은 경기도 장단 일대에서 인민군 유격대 소탕작전을 펼치고 있던중 11월 20일 미 제9군단의 예비가 되어 군우리로 이동하여 전투준비에 주력하고 있었다. 여단은 국군 제2군단을 공격하여 덕천을 장악한 중공군이 개천으로 돌파구 확대를 기도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덕천 탈환임무를 부여받고 26일 저녁 늦게 개천-덕천 도로상의 와원(瓦院)으로 진출하였다.

새벽에 이동을 재개한 여단 주력이 와원-덕천 도로의 중간에 위치한 험준한 알일령(夏日嶺) 고개를 넘고 있을 무렵인 14:30경 군단으로부터 덕천 진출을 중지하고 알일령 동쪽의 용덕리에 저지선을 구축

하라는 명령과 북쪽 10km 지점에 1개 연대규모의 적이 출현하였다는 첩보를 받았다. 여단장 야지시(Tashin Yazici) 준장은 좌우인접부대의 상황도 파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알일령이 험준하여 도로폭이 좁아 부대의 철수는 물론 증원부대의 투입마저 불리한 지형임을 고려하여 적을 저지하기에는 용덕리보다 서쪽의 와원이 방어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군단의 지시와는 달리 와원으로 철수하여 저지진지를 구축하도록 명령하였다.<sup>34)</sup>

여단은 저녁 늦게 산악으로 둘러싸인 와원으로 철수하여 도로를 중심으로 반원형의 방어진지를 구축하였고, 하루종일 이동으로 피로에 지친 장병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자정 무렵 전방지역에서 요란한 총성이 들렸고, 잠시후 후위 소대의 정찰소대장이 복귀하여 소대가 적의 기습을 받아 분산되었음을 알려왔다. 여단은 적의 공격이 임박하였음을 예상하고 전투태세로 돌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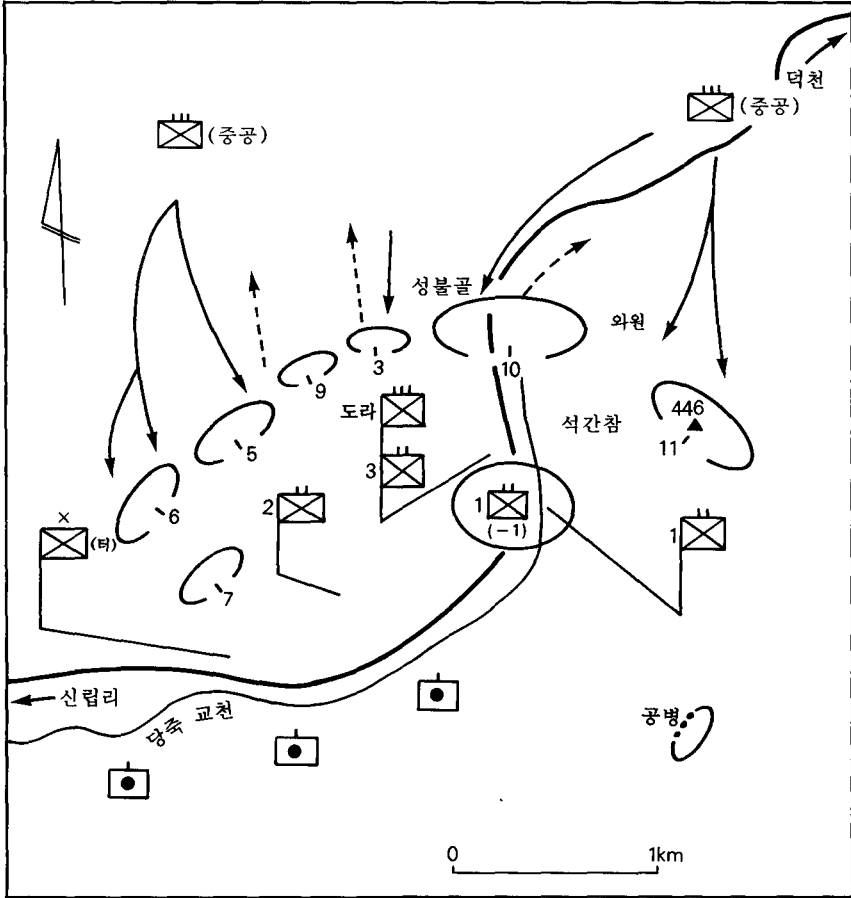
28일 야음을 이용하여 알일령을 넘어온 중공군은 일출 직전 공격의 포문을 열었고, 여단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후 처음으로 중공군과 격전을 펼치게 되었다. 적은 진지를 돌파하기 위하여 파상공격을 시도하였으나 여단은 화력을 집중하여 이들을 격퇴하였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적은 증원되었고, 또 여단을 포위라도 한 듯이 사방에서 파상적인 공격을 계속하였다.

일몰이 가까워오자 여단장은 적의 공격을 저지하고는 있으나 방어지역이 험준한 산악으로 둘러싸여 방어에 불리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예하 부대장에게 넓은 공간이 있는 5km 후방의 신립리로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대대별 거점진지를 구축하고 하루종일 중공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펼친 대대들은 신립리로 철수하여 새로운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장병들의 사기는 배고픔, 추위 그리고 첫 경험한 중공군의 파상공격에 대한 두려움 등이 겹쳐 극도로 저하되어 있었다.

당시 터키 여단은 무선통신이 두절되어 좌우인접부대의 상황은 몰



와원 전투(1950. 11. 27~11. 28)



론 상급부대와도 교신이 되지 않아 28일 자정부로 군단예비에서 미 제2사단으로 배속이 전환된 사실도 모르는 채 지원화력도 없이 단독으로 사단규모 이상의 적과 격전을 펼쳤다. 자정이 조금 지날 무렵 중공군은 박격포 사격을 집중한 후 사방에서 기관총과 자동화기 사격의 엄호하에 돌파를 기도하였고, 특히 포병대대와 박격포중대 및 예비인 제3대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이 공격에 여단의 방어진지

는 일순간에 혼란상황에 빠졌고, 일부 부대는 차량으로 여단본부가 위치한 개천으로 향하였다.

이와 같이 전방 대대들이 신립리에서 치열한 격전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서쪽 5km 후방의 개천<sup>35)</sup>에 위치한 여단본부에서는 통신이 두절되어 전방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포병대대가 철수하여 ‘아군이 적에게 포위되었다’고 보고하자 여단장은 그때서야 주력부대는 개천으로 철수하도록 명령하고, 동시에 보충대대기 중인 1개 중대와 전차 1개 소대를 전방으로 추진 배치하여 주력부대의 철수를 엄호하도록 조치하였다.<sup>36)</sup>

이 무렵 전방대대들은 적에게 포위된 상황에서도 일사불란(一絲不亂)하게 탄약이 바닥날 때까지 중공군과 근접전투를 펼치며 완강하게 저항하였으나 전사상자가 속출하고 방어정면도 점차 축소되어 돌파직전의 위기상황을 맞게 되었다. 다행히 29일 11:00경 여단을 지원차 출격한 우군 항공기 8대가 신립리(新立里) 일대를 폭격하는 동안 적의 공격이 잠시 주춤한 틈을 이용하여 전방대대는 점적을 단절하고 개천으로 철수하여 다시 저지진지를 구축하였다.

이때 미 제2사단장은 터키 여단에 개천 외곽을 따라 흐르는 개천강 남쪽에 저지진지를 구축하여 적의 후방 진출을 차단하도록 하였으나, 적의 포위망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지친 여단은 개천 시내를 중심으로 저지진지를 구축하였다.<sup>37)</sup>

얼마 후 중공군의 박격포탄이 개천 일대에 집중되었고, 개천강 남쪽으로 우회한 중공 제38군의 일부가 터키 여단의 전차포 사격에도 불구하고 개천에서 군우리로 가는 도로 중간지점의 용복리(龍伏里)로 진출하고 있었다. 여단장은 시간이 경과하면 퇴로가 차단되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하고 중대단위 이하의 소부대로 분산하여 군우리로 집결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때부터 여단은 분산된 채 군우리로 철수하였으며, 선발대가 적의 차단선을 통과하면서부터 적의 기관총사격은 한층 강화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여단의 좌인접에서 방어중인 미 제38연

대마저 개천으로 집결하여 이 통로로 철수를 개시함으로써 도로에는 미군과 터키군의 병력 및 차량으로 대혼잡을 이루어 통로 개척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분산 철수한 여단은 어려운 난관을 돌파하고 30일 새벽에 군우리 남서쪽에 집결하였다.<sup>38)</sup>

#### ● 군우리 철수

중공군의 2차 공세(11월 공세)가 시작될 때 군우리 지역은 미 제2사단이 방어하고 있었다. 군우리는 희천에서 안주로 흐르는 청천강 하류의 평야지대가 끝나고 여기서부터 동쪽으로 묘향산의 험준한 산악으로 이어지는 분기점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였다.

사단장은 28일 청천강 계곡으로 진출한 중공군과 혈전을 펼쳐 다수의 피해를 입은 제9연대를 군우리 남쪽으로 철수시켜 재편성을 하도록 하고, 제23연대를 구장동-군우리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북원에, 국군 제3연대와 미 제38연대를 사단 작전지역을 감제할 수 있는 비호산 남쪽에 배치하였다. 이때 사단의 좌인접 청천강 서쪽에는 미 제25사단이, 우인접 와원에는 터키 여단이 각각 배치되어 있었다.

터키 여단이 와원, 신립리에 이어 봉명리에서 결전을 펼친 29일 정오 무렵 중공 제40군은 국군 제3연대와 미 제23연대를, 중공 제38군은 미 제38연대를 공격함으로써 군우리 전투는 시작되었다.

터키 여단을 공격하여 사기가 오른 중공 제38군은 미 제38연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연대는 이 적을 맞아 총력을 기울였으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상황이 악화되었고, 설상가상으로 터키 여단을 공격하였던 일부도 증원되었다. 이를 간파한 연대장은 전방대대를 증원하기 위하여 전차 1개 소대와 예비인 제1대대를 출동시켰다. 그러나 군우리로 철수 중인 터키군이 군우리-개천 도로를 꼭 메우고 있어 증원부대의 지원은 불가하였다.<sup>39)</sup>

이런 와중에 제38연대는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터키 여단이 배치되었던 봉명리로 철수하였고, 이때부터 미처 철수하지 못한

터키 여단의 잔여부대와 미 제38연대 제2, 제3대대가 합류되어 유일한 철수로인 군우리-개천 도로는 대혼잡을 이루었던 것이다.

이때 중공 제38군은 이들의 철수를 저지하기 위하여 일부 병력을 개천강 남쪽으로 우회 침투시켜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132고지를 점령하였고, 도로에는 적의 박격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부상자 후송용 전차와 일부 차량만이 겨우 통행할 수 있었다. 사단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자 미 제5공군은 아음과 악천후로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B-26 폭격기를 출격시켜 근접항공지원을 개시하여 중공군의 포격을 중지시켰고, 철수제대는 이 틈을 이용하여 서둘러 개천을 빠져 나왔다.

한편 미 제2사단의 우전방이 위기상황에 몰리자 제9군단장은 미 제2사단장에게 군우리에서 순천 일대로 철수하여 성천 일대를 방어 중인 미 제1기병사단과 연결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명령에 의거 미 제23연대는 개천에서 군우리로 철수하는 부대들을 엄호하기 위하여 제3대대와 전차 1개 소대를 군우리 북쪽 3km 지점에 배치하고, 주력은 저녁 무렵 군우리를 감제할 수 있는 개천강과 조통강(槽桶江) 사이의 마장리로 철수시켰다. 그리고 국군 제3연대와 제38연대 제1대대는 철수 중인 터키 여단과 제38연대 제2, 제3대대를 엄호하기 위하여 군우리 동쪽에 재배치되었다.<sup>40)</sup>

이날 군우리 북쪽에서 적과 접촉을 유지하고 있던 제23연대 1개 중대와 전차소대는 군우리 동쪽에서 철수 중인 제38연대와 터키 여단의 철수 시간을 벌기 위하여 4차에 걸쳐 강력한 역습을 시도하였다. 철수제대의 마지막 부대인 국군 제3연대 주력이 군우리를 경유 안주 도로로 접어들자 북쪽에서 엄호하던 부대도 철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후위 침병으로 중공군의 추격을 저지하던 제3연대 제1대대는 추격한 중공군으로부터 협공을 받아 진퇴양난에 빠졌다. 대대는 부득이 도로를 따라 철수할 수 없음을 간파하고 분산되어 야지와 개천강을 도하하여 연대로 복귀하였다.<sup>41)</sup> 당시 상황을 미 전사에

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미 제38연대장이 국군 제3연대에 동시 철수를 제의하자 지3연대장(鄭震 중령)은 “한국군은 미군이 철수 완료할 때까지 전선에 남아 있다가 그 후에 철수할 것이다”라고 통보하였다. 이를 전해 들은 미 제38연대 장병들은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그들과 생사교락을 같이한 국군 제3연대를 극력 칭찬하였다.<sup>42)</sup>

이로써 미 제2사단은 청천강 하류 삼각주 지대의 전술적 요지인 군우리를 적의 수중에 넘겨주고, 이번 철수작전에서 최대의 격전에 예상되는 적의 차단진지를 돌파하기 위하여 철수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 ● 중공군의 군우리-순천 도로 차단

아군이 청천강 교두보에서 철수하기 직전인 28일 제8군 정보참모는 중공 제13병단은 최초 주력을 기동이 용이한 청천강 계곡 접근로로 진출시켜 정면 돌파를 계획하였으나, 묘향산을 공격하던 국군 제2군단을 격파하자 전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남서쪽으로 공격방향을 전환하였다. 그리고 적은 군우리에 대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일부는 군우리-순천 도로로 우회하여 제8군을 포위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sup>43)</sup>

이때 중공 제38군은 제113사단의 2개 연대로 군우리-순천, 안주-순천 도로를 차단하여 군우리에서 남쪽으로 철수하는 미 제2사단을 격멸하기 위하여 매복하고 있었다.<sup>44)</sup> 이 사실은 미 제2사단의 철수에 앞서 28일 미 제1기병사단 주력부대와 합류하기 위하여 군우리에서 순천으로 이동한 미 제5기병연대와 전차소대에 의해 확인되었다. 제5기병연대는 삼소리 부근의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중공군과 밤늦게까지 치열한 격전을 펼친 후 순천으로 철수하였고, 또 미 제72전차대대 1개 소대는 영 제27여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우리에서 순천으로 이동 중 2개 중대규모의 적으로부터 기습공격을 받았으나 장갑의 보호

로 무사히 순천으로 철수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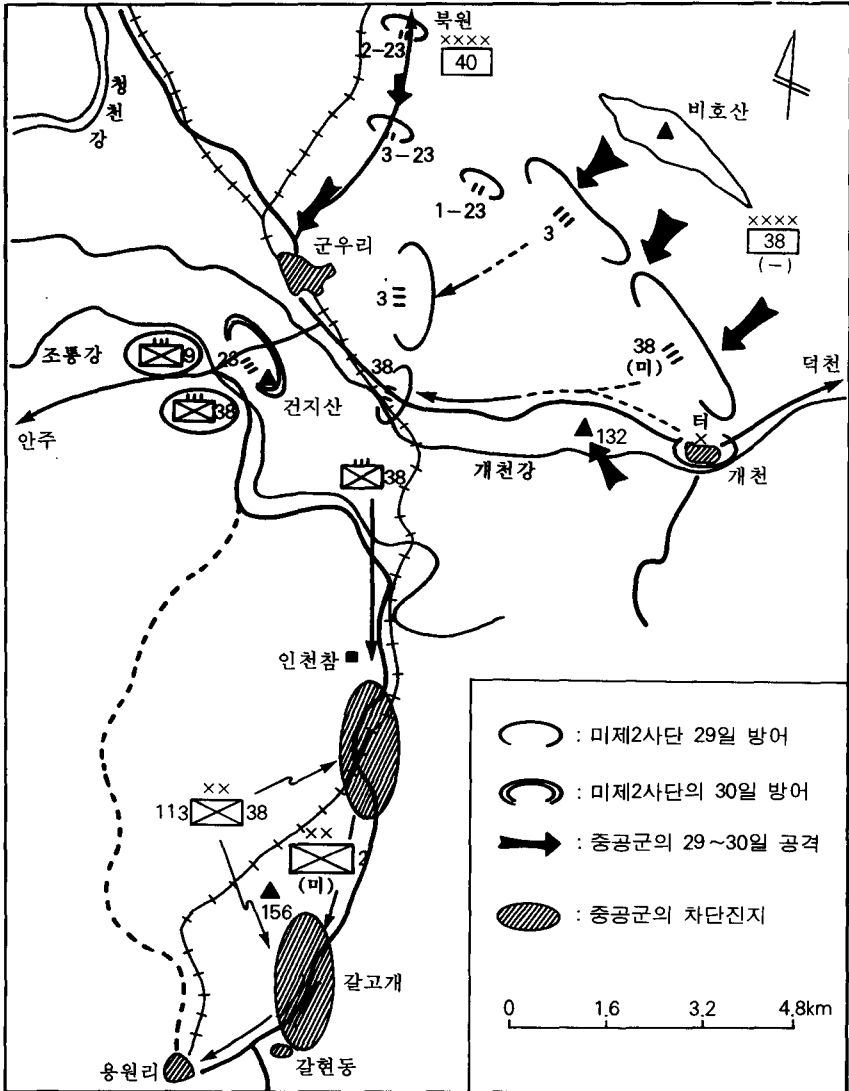
또 미 제2사단이 29일 05:00에 청룡리의 초등학교 건물에 전방지휘소를 개설한 직후 순천에서 군우리로 보급품을 수송하던 터키 여단의 수송대가 ‘이 도로로 이동 중 적의 기습을 받아 겨우 탈출하였다’는 보고를 해 옴으로써 중공군이 도로를 차단하고 있음이 재확인되었다.

이에 미 제2사단장은 사단 수색중대에 용원역 남쪽 6km에 위치한 고개 부근을 점령 중인 적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수색중대는 제503야포대대의 화력지원을 받아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강력한 적의 저항에 밀려 정오 무렵 공격이 둔화되었다. 이에 사단장은 제38연대의 1개 중대와 전차 1개 소대로 수색중대를 증원하였다. 이들 공격부대들은 고개를 돌파하기 위하여 저녁 무렵까지 격전을 벌였으나 차단진지 돌파에 실패하고 복귀하였다.<sup>45)</sup> 이 공격으로 차단진지 제거는 실패하였으나 적이 도로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고, 단지 화력으로만 도로를 차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제9군단장은 미 제2사단이 퇴로를 차단하고 있는 중공군을 공격하는 동안 사단의 철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27여단의 미들섹스 대대를 격전이 펼쳐지고 있는 갈고개 남쪽 11km 지점으로 이동시켰다. 미들섹스 대대는 전차 1개 소대와 105mm 곡사포 대대를 지원받아 갈고개를 공격하였으나 중공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공격이 저지되어 남쪽의 용원리로 철수하였다. 이에 군단장은 여단장에게 다음날 아침에 북쪽으로 공격을 재개하도록 지시하고 제2사단장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그리고 사단은 남쪽에서 공격해 오는 영 제27여단과 사격제한선을 협조하여 기필코 적 차단선을 돌파해 주도록 강조하였다.

어둠이 깊어가면서 사단사령부 지역에도 적의 박격포, 자동화기, 소총사격이 간간히 집중되자 사단장은 이날 밤에 4일간의 격전으로 연대병력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채 사단예비로 집결 대기중인 미 제9연대에 30일 08:00에 적 차단선 돌파를 명령하였다. 이때 사단은 제

군우리 철수작전(1950. 11. 29~11. 30)



9연대를 선두로 사단본부, 포병 및 지원부대, 터키 여단, 제38연대, 국군 제3연대 순으로 철수하고, 제23연대를 후위로 하는 철수계획을 수립하였다.<sup>46)</sup>

이 무렵 중공 제38군도 삼소리, 용원리 일대를 차단하고 있는 제113사단을 증원하기 위하여 30일 새벽에 주력부대를 제113사단의 차단선 북쪽의 용흥리, 쌍용리 일대에 투입하였다.<sup>47)</sup> 이로써 중공군의 차단선이 더욱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이를 간파하지 못함으로써 사단의 철수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견되었다.

#### ● 국군 제3연대의 분전

국군 제7사단 제3연대는 묘향산을 공격 중 중공군의 역습을 받고 철수를 강요받았을 때 퇴로가 차단되어 우인점 미 제2사단지역으로 우회철수 중 11월 26일 국군 제2군단 명령에 의거 미 제2사단에 배속되어 구장동, 군우리 북쪽의 비호산을 거쳐 철수하였다. 연대는 사단 명령에 의거 29일 저녁 무렵 우인점의 미 제38연대와 터키 여단이 개천에서 철수를 개시하자 군우리 동쪽을 점령하여 이들의 철수를 엄호한 후 밤늦게 군우리 남서쪽으로 집결하여 미 제23연대와 연결하여 건지산에서 개천강 일대를 방어하고 있었다.<sup>48)</sup>

한편 공격의 선봉에 나선 미 제9연대 2개 대대는 1개 전차소대를 앞세우고 30일 03:30에 집결지를 출발하여 06:30에 사단사령부가 위치한 청룡참보다 약 1.5km 남쪽으로 내려갔을 때 적의 집중사격을 받았다. 연대장은 즉시 차량제대를 적의 포격권 밖으로 철수시키고, 제2대대는 도로 서쪽의 고지를, 제3대대는 우측의 개활지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공격제대는 얼마되지 않아 자동화기와 박격포로 무장한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공격이 둔화되었고, 전차 소대만이 적의 화망을 뚫고 남쪽의 용원리 부근에 저지진지를 구축한 영국군과 합류하였다.<sup>49)</sup>

그리고 이 공격마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38연대와 제23연대



에 배속된 부대를 제외한 전 포병부대는 사령부지역에 집결하도록 하고, 후속 중인 제38연대를 선두에 나서도록 준비명령을 하달하였다. 아울러 신속하게 적의 차단선을 돌파할 목적으로 전투 필수 장비만 휴대하고 기타 보급품은 후방에 버리도록 하였다.

미 제9연대는 전차 위에 보병을 태운 뒤 중공군의 포위망 돌파를 재개하였다. 그러나 공격을 하자마자 중공군의 소화기 및 박격포의 집중사격을 받아 이동이 정지되었다. 사단은 09:00 조금후에 이 위기를 타개하고자 국군 제3연대를 급파하였다.

정진(鄭震) 중령이 지휘한 국군 제3연대는 전방으로 이동하여 공격이 둔화된 미 제9연대 제2대대 진지를 인수하였다. 연대는 10:30에 공군의 근접항공지원과 미 제72전차대대 C중대의 화력지원을 받으면서 운용리(청룡참 서쪽 마을) 남쪽의 중공군 진지를 향해 돌진하였다. 당시 제3연대의 과감한 돌격작전을 지켜본 미 제9연대 제3대대장 맥매인스(Mc-Mains) 중령은 “그때 한국군의 돌격은 참으로 용감하였으며, 내 평생에 처음으로 목격한 훌륭한 공격 전투이었다.”고 극찬하였다.<sup>50)</sup> 그 결과 20여 명의 중공군이 저항하는 첫 능선을 단숨에 돌파하고, 두 번째 능선으로 치달아 고지 정상의 점령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산밑에 미군들은 공격 선봉이 등에 진 대공포편이 곧 정상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기 직전이었다. 이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불상사가 발생하였다.

도로를 따라 남진(南進)하고 있던 제72전차대대 소속의 전차가 공격 중인 국군을 중공군으로 오인하였는지 전차포와 중기관총을 난사하여 2명의 전사자가 발생하였다. 연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잠시 후사면으로 철수하여 재편성을 완료한 후 즉시 재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의 사격이 더욱 강화됨은 물론 대응사격을 개시한 미 전차가 또다시 오탄을 발사하는 바람에 연대의 공격은 둔화되었다. 결국 연대의 공격은 불명예스럽게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2차에 걸친 미 전차의 오인 사격으로 말미암아 실패하였다.<sup>51)</sup>

● 미 제2사단의 강력돌파 작전

국군 제3연대의 공격이 실패할 무렵 사단의 후방지역을 엄호하던 미 제23연대장은 사단장에게 “항공폭격으로 적의 접근을 차단하고는 있으나, 군우리 부근의 적은 계속 증강되고 또 일부는 사단의 동측방으로 이동 중이다”라고 보고하였다. 이로써 군우리-순천 도로에 집결된 미 제2사단은 진퇴양난에 빠졌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포위망은 압축되었다.

이때 사단의 좌인접 미 제1군단 지역에 군우리-안주-숙천-순천으로 연결되는 군단의 주보급로가 있었으나, 사단이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천강으로 진출한 적의 감제하에 신안주로 역행군을 해야 함은 물론 이 도로는 제1군단을 추격하여 안주 일대로 진출한 적에게 차단되어 사용이 불가능하였다.<sup>52)</sup> 따라서 사단장으로서는 적의 차단선을 강력돌파하여 순천으로 철수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

사단장은 미 제9연대와 국군 제3연대의 공격으로 적의 방어중심이 알고, 또 중화기도 배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쪽에서 영 제27여단의 미들섹스 대대가 공격 중에 있어 사단이 무난히 순천으로 철수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였다. 그리고 종전에 내렸던 최소 장비만 휴대하도록 한 지시를 취소하고 사용 가능한 차량과 장비를 전부 휴대하도록 하였다.

사단은 제38연대를 선두로, 사단사령부, 각종 포병부대, 공병부대, 제9연대, 국군 제3연대, 터키 여단 순으로 철수제대를 재편성하였다. 이때 사단장은 보병부대들도 가용한 차량을 이용하여 최대한 탑승하도록 하였고, 특히 전부대는 가능한 정지하지 말고 계속 남쪽으로 이동하도록 강조하였다.<sup>53)</sup>

사단은 정오가 조금 지나자 후위를 담당한 제23연대의 엄호하에 이동을 개시하였다. 중공군은 사단의 철수를 저지하기 위하여 인천참과 그 남쪽 갈고개 일대에 아군으로부터 노획한 M-39 수송차, M-4

전차, 2톤 트럭 등으로 그 전날까지 없었던 도로장애물을 새로 구축하고 저항하였다. 이로 인하여 사단의 이동이 잠시 주춤하기도 하였으나 선두로 나선 9대의 전차제대는 이들을 도로 밖으로 밀어내고 14:00경 남쪽의 제27여단의 전초지역을 통과하였다. 이 광경을 목격한 제27여단은 미 제9군단에 군우리-순천 도로가 개통되었다고 보고하였다.<sup>54)</sup>

그러나 선두 전차를 후속하던 부대들의 상황은 판이하게 달랐다. 전차가 차단선을 통과하자 중공군 2개 연대는 미리 인천참 일대의 차단선에 배치한 30~40정의 기관총과 10여 문의 박격포를 동원하여 후속부대에 집중적인 사격을 개시하였다. 이 포격으로 철수제대는 일 단정지-대기-출발을 반복하였고, 제38연대의 인원과 차량이 피해를 입기 시작하였다. 이런 와중에서 제38연대는 총격전과 이동을 반복하면서 15:00경 중공군의 저지선을 통과하였다.

이어서 제9연대가 갈고개 저지선을 통과할 무렵 양쪽 단애에서 중공군의 치열한 사격이 개시되었고 또 도로에는 20여 대의 고장난 차량이 흩어져 있어 엄폐물이 되기는 하였으나 연대의 신속한 돌파를 저지하였다. 이때 사단이 지원요청한 항공기들이 출현하여 적진을 강타하였고 도로상의 차량들은 불타기 시작하였다. 공중폭격으로 적의 사격이 주춤한 틈을 이용하여 제9연대도 이동을 완료하였다.

후속으로 이동한 포병부대 중 미군이 보유한 유일한 8" 곡사포대대인 제17야전포병은 포 1문을 포함한 약간의 손실을 입고 차단선을 돌파하였으나, 다른 포병들은 양측방이 고지로 둘러싸인 갈고개 부근에서 증강된 중공군에 의해 다시 포위되었다. 적중에 고립된 포병부대들은 장비를 유기하고 병력만 분산된 채 순천으로 철수하였다.<sup>55)</sup> 그리고 포병부대가 철수한 이후부터 적의 저항이 현저하게 감소되어 그 뒤를 후속한 터키 여단과 국군 제3연대는 적의 경미한 저항을 격퇴하고 순천으로 철수하였다.

한편 후방을 엄호하던 제23연대장은 어둡기 전에 주력부대를 후속

한 철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좌인접 미 제1군단의 신안주-숙천 도로로 철수할 것을 건의하여 승인받았다. 연대장은 도로가 협소하여 야포의 철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철수 20분 전에 휴대한 전 탄약을 사격한 후 야포를 파괴하고 일몰 직전에 제1군단의 엄호부대인 미 제5연대 진지를 경유 순천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로 얼룩진 미 제2사단의 군우리 철수작전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군우리 철수작전은 확실한 적정도 파악하지 못하고 이 애로(隘路)의 돌파를 강행하려다가 진퇴양난에 몰려 무려 3,000여 명의 사상자와 포로 및 실종자를 발생하게 하였고, 각종 화포와 기동장비를 유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참극을 빚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 참변에서 스스로 자위할 수 있었던 것은 장병들이 오직 평소 몸에 익힌 군율과 용맹성을 유감없이 발휘한 점과 경상자가 중상자를 부축하여 죽음의 계곡을 빠져나온 눈물겨운 인간애 등이었다. 이때부터 미군들은 이곳을 태형(笞刑)의 계곡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지금도 전사에 그렇게 기술하고 있다.

12월 1일 집계에 의하면 11월 후반 미 제2사단의 전투로 인한 사상자는 4,940명이며 이중 90%인 4,500명은 25일 이후 군우리 부근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손실은 사단 병력의 1/3에 해당되는 숫자이며, 이로 인하여 사단은 편제상 인원에서 8,622명이 부족하게 되었다. 또한 장비의 손실도 인원 손실에 못지않게 컸다. 수백 대의 차량과 야포 64문, 제2전투공병대대의 공병장비 대부분, 예하부대가 휴대하고 있던 통신장비의 20~40%가 손실을 입었다.<sup>56)</sup>

제2사단이 태형의 계곡을 통과하면서 고전한 이유 중의 하나는 연합작전의 어려움이었다. 제2사단이 적의 차단선을 강력돌파하는 동안 영 제27여단은 갈고개 남서쪽 5km에 있는 127고지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좀 더 북상하여 갈고개를 점령하여 사단의 철수를 엄호하였더라면 돌파가 보다 용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국군 제3연대도 미군전차와 상호 협조가 이루어져 오폭이 아닌 화력지원을 받았더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었다.

이후 재정비가 없이는 전투에 투입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입은 미 제2사단은 부대를 정비하기 위해 전선을 떠나 중화를 거쳐 개성으로 집결하고 있었으며, 터키 여단도 제2사단과 함께 개성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국군 제3연대도 평양 동쪽 승호리(勝湖里)에서 대동강선 방어 작전에 임하고 있는 국군 제7사단을 찾아 본대로 복귀하였다.

## 5. 東部戰線의 撤收作戰

서부전선의 제8군이 청천강 교두보에서 철수할 무렵 동부전선에서 국경선을 향하여 전진하던 국군 제1군단과 미 제10군단도 유엔군사령부의 결정에 따라 공격개시 사흘째인 11월 29일 공격을 중지하고 함흥, 홍남 일대의 해안교두보 지역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이 철수작전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동해안의 청진으로 진출한 국군 제1군단은 해안을 따라 480km, 혜산진으로 진출한 미 제7사단은 산악지형을 따라 320km나 후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장진호로 진출한 미 제1해병사단은 적의 포위망을 돌파하면서 240km를 철수해야만 되었다.<sup>52)</sup>

### (1) 長津湖 雪寒地 戰鬪

#### ● 미 해병사단의 무평리 공격 돈좌

동부전선의 제10군단장 알몬드(Edward M. Almond) 소장은 유엔군의 최종공세계획에 의거 서부전선의 제8군의 우전방과 연결하기 위하여 미 제1해병사단에 서쪽의 무평리(희천과 강계 중간지점)를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공격개시일은 미 제8군의 11월24일 보다 3일 후인 11월 27일로 결정되었다.

당시 해병사단은 장진호 북쪽의 한만국경선으로 진출할 목적으로 사단주력이 하갈우리에 집결하고 있었다. 사단장은 적정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작전지역이 산악지대로 기동공간이 제한됨을 고려하여 제7해병연대가 북쪽의 유담리를 확보하면, 제5해병연대가 11월 27일 08:00에 무평리로 초월공격을 개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단에 비인 제1해병연대는 사단의 주보급로인 장진호-함흥 도로를 경비하도록 하였다.<sup>58)</sup>

이 명령에 제7해병연대의 주력이 25일 먼저 산간의 내륙의 분지로 공격의 발판이 되는 유담리를 별 저항없이 점령하였고, 다음날 공격부대인 제5해병연대도 장진호 동쪽지역을 미 제7사단 제32연대에 인계하고 유담리에 집결하여 공격을 준비하였다.

이때 해병사단의 예하부대들은 북쪽의 유담리에서 계곡 통로를 따라 진흥리까지 신장 배치되어 있었다. 또 장진호 동쪽의 풍류리강 부근에는 미 제7사단의 웨이스 특수임무부대<sup>59)</sup>가 차단진지를 점령하여 중공군의 하갈우리 진출을 저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장진호 남쪽 끝에 위치한 하갈우리는 산악으로 둘러싸인 분지형으로 간이활주로 시설이 있어 해병사단의 전술지휘소와 보급기지가 설치된 중추지역이었다. 따라서 이곳에는 제1해병연대 제3대대와 제7해병연대 제2대대가 기지를 방어하기 위하여 합동으로 외곽을 따라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또한 하갈우리-진흥리 간의 중간지점인 고토리에는 사단의 주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해병연대 지휘소, 제2대대, 화력지원부대들이 배치되었고, 그 남쪽의 진흥리에는 제1해병연대 제1대대와 화력지원부대가 배치되어 사단의 후방지역을 엄호하고 있었다.

공격을 준비하는 동안 제7해병연대가 중공군 3명을 포로로 잡았다. 그들은 “제60군 제20사단 소속이며, 해병사단이 공격을 개시하면 2개군으로 포위공격을 할 것이다.”라는 등 비교적 상세하게 그들의 공격계획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포로심문관은 그들이 사병의 신분임에도

상세하게 작전계획을 숙지하고 있음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다. 이러한 불신은 후일 해병사단이 큰 낭패를 당하는 요인이 되었다.<sup>60)</sup>

그럼에도 사단은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 계획대로 27일 08:00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7해병연대 제3대대가 무평리로 향하는 도로 입구의 양 고지를 점령하자 공격제대의 선두인 제5해병연대 제2대대가 도로를 따라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얼마 진출하지 못하고 1251고지에 배치된 중공군에 의해 공격이 둔화되었다. 이때 공중 정찰 중인 항공기가 “대대 전방에 강력하게 구축된 적 진지가 있다.”는 통신통을 투하해 줌으로써 비로소 적정을 알게 되었다.

제2대대가 제7연대 제3대대의 지원을 받아 오후 늦게 1251고지를 탈취하기는 하였으나, 주변의 고지를 정찰하고 복귀한 제7연대 정찰대들이 전부 적과 조우함으로써 중공군이 유담리를 사방에서 포위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공격제대들은 적의 장기인 야간공격을 우려하여 일시 방어로 전환하고 경계를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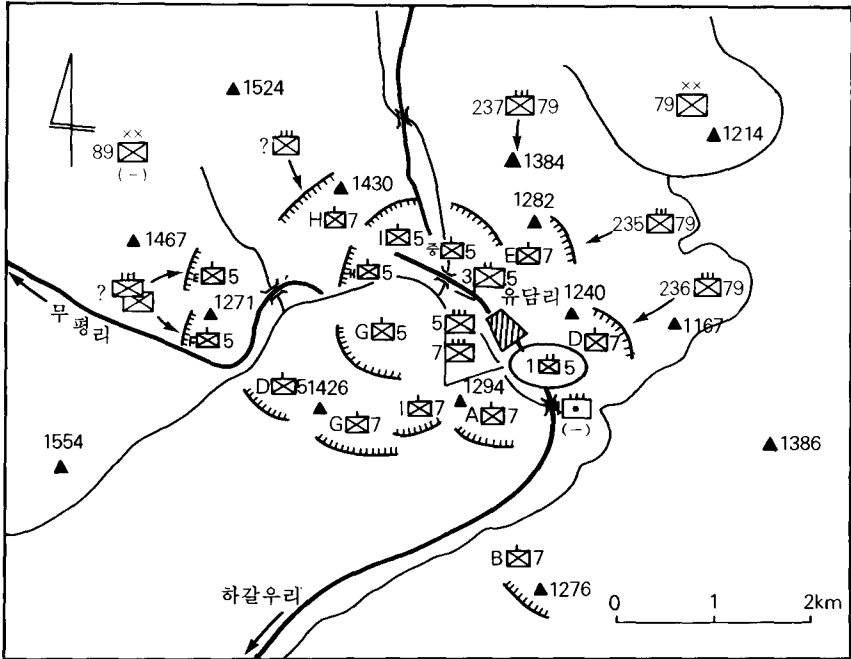
해가 떨어지자 기온은 영하 32도로 곤두박질쳐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었으나 중공군은 해병사단이 예상한 대로 21:00가 지나자 사방에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유담리 일대가 화염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날 밤에 시작된 전투는 유담리 전지역에서 백병전과 화력전을 반복하면서 밤새도록 펼쳐졌고, 아군의 항공폭격이 재개된 28일 아침에 일단락되었다. 이때 전방연대의 전초진지와 유담리를 감제할 수 있는 1403고지가 적의 수중에 들어가 전선유지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제5, 제7연대장은 11:00에 작전협의를 하였다. 양 연대장은 적정으로 미루어 보아 무평리 공격은 물론 현 진지를 고수하는데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유담리 방어를 위하여 방어진지를 재편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이날 야간에 제5해병연대가 유담리 서쪽과 북쪽에, 제7해병연대가 동쪽과 남쪽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이때 유엔군사령부의 철수 결정이 내려와 상황이 급전직하로 변하

유담리 전투(1950. 11. 24~11. 25)



였다. 해병사단장은 먼저 30일 저녁에 유담리에 배치된 제5, 제7해병 연대와 풍류리강 부근에 배치된 미 제7사단 웨이스 특수임무부대를 하갈우리로 철수하도록 하였다. 이때 군단장은 해병사단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수에 장애가 되는 장비 및 물자의 파괴를 허가하고 필요시 보급품은 공중지원을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sup>61)</sup>

● 중공군의 기도 및 전개

중공 제9병단장 송시륜(宋時輪)은 제13병단을 증원하기 위하여 11월 초순에 제20, 제26, 제27군을 이끌고 임강과 집안에서 압록강을 도하한 후 낭림산맥을 따라 남하하여 동부전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는 국군과 미군이 분산 배치되어 있을 뿐만 자신들의 진출을 아작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미 해병사단의 병력과 차량의 빈번한 이동, 하갈우리에서 조급한 비행장의 건설, 헬리콥터에 의한 환자 후송, 보급품의 공중투하, 전투물자의 파괴 및 소각 등의 움직임을 보고 미 해병사단의 철수 징후를 간파하였다. 그는 이동 중인 부대의 취약점을 공격하면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공격을 결심하였다.

제9병단장은 예하의 3개군 12개 사단 중 제27군(4개 사단)을 장진호 북방에 전개하여 동서 양방향에서 미 해병사단의 주력이 집결된 유담리-하갈우리를 포위공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20군(4개 사단)은 장진호 서쪽으로 우회시켜 제27군보다 남쪽에서 해병사단의 유일한 철수로인 하갈우리-함흥 간의 산악도로를 분할 차단한 후 포위공격으로 미군 병력을 섬멸할 방침을 정하고 부대를 전개시켰다. 이때 장진에 집결한 제26군(4개 사단)은 최초 병단에비로 확보하였다.

이들은 최초 장진호 지역의 해병 2개 연대를 기습공격하여 유담리, 신흥리, 하갈우리에서 섬멸하고, 작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미 제7사단 제32연대와 해병사단의 증원부대를 공격하기로 계획하였다.<sup>62)</sup>

이 계획에 의거 중공 제27군은 제81사단을 부전호(赴戰湖) 서쪽으로 진출 제1해병사단과 제7사단의 연결을 차단하도록 하고, 제79사단을 장진호 북쪽, 제80사단을 장진호 동쪽으로 공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20군은 제59사단을 신흥리를 점령하여 유담리-하갈우리 간의 도로를 차단, 제58사단을 하갈우리 포위공격, 제60사단을 남쪽의 부성리 일대를 점령하여 미해병의 퇴로 및 증원을 차단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공 제89사단은 사창리로 우회하여 일부는 고토리를 확보 해병사단의 철수를 차단하고, 주력은 함흥을 공격하도록 하였다.<sup>63)</sup>

중공군은 27일 저녁 무렵부터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공격은 첫날부터 강인한 정신력으로 무장된 해병사단의 완강한 저항과 우세한 화력에 압도되어 도리어 막심한 병력 손실만 입었을 뿐만 아니라 미군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 못하였다. 설상가상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기온이 영하 30도로 내려가는 혹한에서 이에 대비한 물자 부족은 물론 식량과 탄약이 부족하여 적의 작전은 차질을 빚기 시작하였다.

#### ● 해병사단의 철수 작전

유담리에서 격전을 펼친 제5, 제7해병연대는 12월 1일 08:00에 포병 및 박격포 사격의 엄호하에 사단본부가 있는 하갈우리를 향하여 철수를 개시하였다. 연대들은 초기에 중공군이 파괴한 교량을 보수하거나 우회도로를 구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고, 또한 도처에서 중공군의 매복공격을 받아 전진은 매우 부진하였으나 4일 하갈우리에 집결하였다.<sup>64)</sup>

이 무렵 장진호 동쪽으로 진출한 웨이스 특수임무부대도 철수 중 아군기의 오폭과 중공군의 퇴로 차단으로 다수 인명과 장비의 손실을 입고 뚝뚝 얼어붙은 장진호를 경유하여 3일 군우리로 복귀하였다.

이때 사단의 가장 애로사항은 부상자의 후송이었다. 전방연대와 웨이스부대가 철수하면서 부상자가 급속히 증가되자 사단장은 공사 진척이 40% 밖에 안된 하갈우리 간이활주로(폭: 50피트, 총연장: 2,900피트)에 C-47 수송기의 착륙을 시험하도록 독촉하였다. 그 결과 다행히 대형수송기의 이착륙이 가능하자 수송기를 이용하여 5일까지 총 4,300명의 부상자를 항공기로 후송하였다. 그리고 극동공군 전투화물 수송 사령관 터너(William H. Tunner) 장군이 사단장을 방문하여 전투장비를 포기하고 병력만이라도 공중 이동하도록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단장은 장비와 차량을 가지고 고토리로 철수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그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sup>65)</sup>

그리고 하갈우리에는 약 10,000명의 병력과 약 1,500명의 피난민, 그리고 각종 전투장비와 1,000여 대의 차량이 집결하여 매우 번잡한 상황이었고, 공중에서는 계속 식량, 연료, 탄약 등이 투하되었다. 이때 동쪽의 감제고지인 비약산에 배치된 중공군은 이 광경을 관망하고,

일부는 아군이 회수 불가능한 지역에 떨어진 보급품을 수거하는데만 주력할 뿐 공격해 오거나 포격조차 하지 않은 채 침묵만 지키고 있었다.<sup>66)</sup>

그리고 각 계대가 철수준비를 하는 동안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전의(戰意)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후퇴는 적에게 강요된 상황에서 아군의 후방지역으로 향하여 이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작전은 후방에도 적이 점령하고 있어 이 적을 격파하는 것이 임무이므로 후퇴가 아니라 해안까지 새로운 공격이다.”라고 강조하였다.<sup>67)</sup>

제5해병연대의 엄호하에 12월 6일 새벽에 철수를 개시한 사단주력은 7일 두 번째 집결지인 고토리에 도착하였다. 이때 하갈우리 주민 1,000여 명은 공산군을 몰아내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적인 첩보수집 및 노무활동으로 해병사단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상황이 악화되어 미군이 철수하자 보복을 우려한 주민들도 위험을 무릅쓰고 우마차와 도보로 미군을 후속하여 철수하였다.<sup>68)</sup>

미 해병사단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유담리에서 고토리로 철수함으로써 철수작전의 종료를 목전에 두게 되었다. 그러나 최대 난관이자 이번 작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두 개의 걸림돌은 아직 남아 있었다. 첫째는 철수로상의 분수령인 황초령을 통제할 수 있는 1081고지의 확보이며, 둘째는 중공군이 사단의 철수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파괴시킨 수문교에 가교를 가설하는 것이었다.<sup>69)</sup>

이에 사단장은 1081고지는 진흥리에 대기 중인 제1해병연대 제1대대로 하여금 사단주력이 통과하기 이전에 이 고지를 점령하도록 하였고, 또 가교를 건설할 자제는 군단으로부터 공중투하로 지원받아 6개의 조립교를 만들었다.

이 무렵 중공 제9병단장도 이번이 유담리와 하갈우리 포위공격의 실패를 만회할 마지막 기회임을 간파하고 병단예비 제26군을 장진호 동쪽으로부터 고토리로, 제60사단을 황초령으로 이동시켜 강력한 저지선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사단장은 철수준비가 완료되자 8일 08:00에 철수개시를 명령하였다. 이에 앞서 1081고지를 점령할 제1해병연대 제1대대가 02:00에 눈보라가 휘몰아쳐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접적 이동을 개시하였다. 대대는 포병의 엄호하에 오후 내내 공격하였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에 공격이 둔좌되었다. 영하 34도의 혹한의 밤을 보낸 대대는 다음날 항공폭격의 지원을 받아 사단주력이 도착하기 수분전에 동 고지를 점령하였다.

9일 아침 황초령을 무사히 통과한 제7해병연대는 항공기와 포병의 엄호하에 마지막 난관인 수문교를 목표로 공격을 재개하였다. 적의 완강한 저항을 예상하였으나 의외로 적정이 경미하여 선두대대는 쉽게 수문교를 확보하였다. 이때 중공군은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전의를 상실한 듯 엄체호 속에서 저항을 포기하고 있었다.

이어서 공병대대가 작업개시 3시간 만인 이날 15:30에 파괴된 수문교에 가교를 설치하였으나 극히 약하여 통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병력과 차량들은 유도병의 안내에 따라 밤새도록 교량을 통과하였다. 드디어 침병부대인 제7연대 제1대대가 황초령을 넘어 10일 02:30에 진흥리에 도착한 것을 시작으로 해병사단의 예하부대들은 진흥리에 배치된 부대들의 환호 속에 속속 복귀하였다.

최종 후미에서 철수하던 전차중대가 수문교를 통과하자 공병 폭파반은 11일 02:00에 가교를 폭파하였고, 1081고지로 진출하여 주력부대의 철수를 엄호한 제1해병연대 제1대대도 사단의 철수 완료를 확인하고 13:00에 진흥리로 복귀하였다. 이후에도 사단은 철수를 계속하여 23:30에 흥남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해병사단의 길고 지루했던 생지옥 같은 장진호 철수작전은 막을 내렸다.

미 제1해병사단이 철수를 개시한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의 인원손실은 총 2,621명으로 이 중 전사 393명, 부상 2,152명, 그리고 행방불명이 76명이었다. 이외에도 1,534명의 비전투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들은 대부분이 동상환자였다.<sup>70)</sup>

그리고 해병 제1사단과 맞섰던 중공 제9병단은 12개 사단 중 8개 사단을 투입하여 해병사단의 철수로를 포위 및 차단하였지만 항공, 포병, 전차의 강력한 화력과 미 해병사단의 강인한 공격에 돌파를 허용하고 도리어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었다. 그 밖에도 혹한지대의 작전경험과 준비가 부족한데다 보급이 충분하지 못하여 전투 중에 대량의 동상 및 기아로 인한 병력손실이 발생하여 작전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다.<sup>71)</sup> 이 결과 제9병단은 4개월 동안 함흥 일대에서 부대를 재정비한 후에야 다시 전선에 투입될 수 있었다.

한편 미 해병사단의 우인점에서 혜산진과 신갈파진으로 진출하였던 미 제7사단 주력부대도 11월 30일 함흥 북쪽 신흥리로 철수하여 저지진지를 구축하라는 미 제10군단장의 명령에 따라 철수를 개시하였다. 사단주력은 배속된 국군 제26연대가 혜산진-북청 도로의 중간지점에서 엄호하는 동안 도로상의 교량을 파괴하여 적의 추격을 지연시키면서 철수하여 12월 5일 야간에 신흥리에 도착하였다.<sup>72)</sup> 그리고 미 해병사단에 배속되었던 웨이스 특수임무부대는 해병사단과 함께 먼저 함흥으로 철수하였다.

## (2) 淸津·白岩 撤收 作戰

국군 제1군단은 미 제10군단의 주력부대들이 압록강 상류지역(장진호-혜산진)으로 진출할 무렵인 11월 하순경 백암-청진 선으로 진출하여 두만강 진출을 목전에 두었다. 이 무렵 11월 27일 제1군단장은 유엔군의 총공세작전 방침에 의거 두만강 선을 점령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sup>73)</sup>

### 군단작명 제121호(1950. 11. 27)

1. 수도사단은 2개 연대로써 회령(會寧)을, 1개 연대로써 웅기(雄基)를 점령, 확보하라. 그리고 예하 제1연대의 특공대대를 길주에

주둔시켜 백두산 남지구 전투부대에 배속하라.(이동은 별명)

2. 제3사단은 최단시간내에 1개 연대로써 나남(羅南)－무산(茂山)가도를 따라 무산을 점령, 확보하며, 1개 연대의 예비대를 나남에 보유하라. 이 예비대 사용은 군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동은 별명한다.
3. 제26연대(미 제7사단 배속)는 1주일 이내로 함흥－단천－혜산진으로 전진할 것이다.

이에 27일 국군 제3사단은 합수에서 무산을 포위공격하기 위하여 제22연대가 합수 북쪽 백암 일대로, 제23연대가 청진 남쪽 나남으로 각각 진출하여 공격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제26연대는 미 제7사단에 배속되어 삼수, 갑산, 혜산진으로 진출하였다. 수도사단은 청진에서 제18연대가 회령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여 부령에, 제1기갑연대가 용기를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여 부거로 진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일전까지만 하여도 군단정면의 적정은 경미하였으나 중공군의 2차 공세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지역에서도 인민군이 반격해 오는 등 서서히 적정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군단장 김백일(金白一) 소장은 11월 30일 미 제10군단으로부터 함흥－홍남으로 철수명령을 받았다. 당시 동해안의 최북단으로 진출한 군단으로서는 적정이 점점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해안의 협소한 도로와 철로를 이용하여 2개 사단(제3, 수도사단)을 철수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군단장은 단계별 철수를 결심하고 수도사단은 12월 1일 제3사단의 엄호하에 북청－이원으로 철수하고, 제3사단은 수도사단의 철수를 엄호 후 성진으로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sup>74)</sup>

이 명령에 의거 수도사단은 제3사단의 엄호하에 철수를 개시하여 주을, 명천, 길주를 경유 4일 성진에 집결하였고, 이어서 제3사단 주력도 길주에 집결하였다.

제3사단 주력이 길주에서 엄호하는 동안 수도사단의 제1기갑연대와 제1연대, 그리고 제3사단의 일부는 북청-이원을 향하여 이동하였다.

군단이 철수하는 동안 접적은 없었으나 12월 6일부터는 제3사단 정면에서 적이 산발적인 공격을 시작하였고, 적의 곡사포도 간간이 떨어졌다. 그리고 피난민들의 첩보에 의하여 명천-청진 간에 대규모 병력이 집결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성진, 길주 일대로 적이 진출하고 있을 무렵인 7일 수도사단 본부와 제18연대는 내린 눈으로 육로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미 함정 편으로 성진에서 홍남(서호진)으로 철수하였고, 미 제7사단에 배속되었던 제3사단 제26연대도 북귀하여 북청에 집결하였다.<sup>75)</sup> 아군이 적과 접적을 단절하고 철수하는 동안 미 공군과 해군은 수시로 화력으로 군단의 철수를 지원하였다.

육로로 함흥 부근으로 이동한 수도사단의 제1연대는 함흥 동쪽의 초흥리-운주봉을, 제1기갑연대는 홍남항 동북쪽 주흥리-마전리를 점령하여 함흥 교두보선의 우측방을 확보하였다. 사단에비인 제18연대는 서호진에서 사단지휘소를 경계하였다.

그동안 수도사단의 철수를 엄호한 제3사단(-)도 9일 길주에서 성진으로 집결하여 미 함정 편으로 홍남 외항으로 이동하였다. 이날 군단에비로 전환된 제26연대는 함흥으로 철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새벽 무렵 200여 명의 적이 연대의 철수를 방해하고자 주변고지로 진출하였다. 연대는 연대본부와 제3대대로 이들을 포위공격하여 분산시켰고 적은 다수의 시체와 장비를 유기하고 도주하였다.

제26연대가 10일 홍남항 동쪽의 마전리로 이동하였고, 제3사단 주력도 서호진으로 상륙준비를 함으로써 제1군단의 청진 철수작전은 일단락되었다.

이때 적의 손실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군단은 함흥 교두보선으로 철수하는 동안 전사 142명, 부상 448명 그리고 340명이 행방불명이 되는 병력손실을 입었다.<sup>76)</sup>

### 제 3 절 38度線으로 反轉

#### 1. 유엔군의 새로운 戰略 決定

중공군의 2차 공세(11월 공세)를 맞아 아군은 서부전선의 청천강 교두보를 포기하고 철수한데 이어 동부전선에서도 함흥으로 철수하고 있을 무렵인 12월 초순(4~8일) 유엔군측에서는 현재의 전황과 관련하여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논의가 있었다.

당시 맥아더 장군은 유엔군이 공세에서 방어로 전환하였으나, 공산군에 비하여 병력이 열세하므로 현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병력의 증원 없이는 강요에 의한 철수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해 유엔군을 통제하는 미 합참본부는 방어전략의 채택은 승인하였지만, 일정한 선에서의 방어가 불가하다는데는 동의하지 않고 제8군과 제10군단을 통합하여 평양-원산을 연결하는 선을 점령하도록 제안하였다.<sup>77)</sup>

그러나 맥아더 장군은 “미 제8군과 미 제10군단의 양개 부대를 통합하더라도 평양-원산 선의 노상거리가 약 250km에 달해 전선이 신장되고 중심이 얇아 중공군에게 돌과 포위될 위험이 높으며, 태백산맥으로 인하여 양개 군의 협동작전과 군수지원에도 문제가 있다. 특히 별개의 해상 병참선이 갖는 이점마저 상실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였다. 이때 맥아더 장군은 제10군단을 함흥에 계속 둬으로써, 적의 측방을 위협함은 물론 이 간격을 통한 대부대의 후방 진출을 저지할 수 있어 더 좋은 선택이나 이러한 상황도 근본적인 병력의 증강 없이는 일시적인 조치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제10군단 운용에 관한 맥아더 장군의 견해와 달리 산악기동력의 우수함이 입증된 중공군에게 도리어 넓은



기동공간만 제공할 따름이라면서 동의하지 않았다.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미 합참에 보고한 전황보고에는 “이틀간(11월 30일~12월 1일)의 미군 사상자가 최초 판단에 의하면 11,000명을 초과하였다. 미 제2사단은 사단병력의 절반에 달하는 6,380명의 손실을 입었고, 터키 여단은 5,000명 중 1,000명이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아군의 병력은 제8군과 제10군단을 합해도 겨우 110,000명 정도인데, 반면 적은 중공군 256,000명과 인민군 100,000명으로 추정되는 대병력을 전선에 투입하고 있다.”라고 상대적 전투력의 열세를 지적함으로써 미 합참본부를 당황하게 하였다.<sup>78)</sup>

이때 맥아더 장군의 판단 핵심은 우세한 병력을 동원한 중공군과의 전쟁에 즈음하여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인민군에 대응해 오던 정치적 결심과 군사전략은 수정되어야 하고, 병력의 우세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유엔군의 철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미 합참과 유엔군사령부 간에 심각한 의견 대립이 표출되자 이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하여 12월 4일 미 육군참모총장 콜린스(J. Lawton Collins) 대장이 도쿄를 급히 방문하여 맥아더 장군과 1차 전략회담을 가졌다. 그는 맥아더 장군에게 현재로서는 가까운 장래에 대규모 부대의 증원이 불가하다는 점을 통보하였고, 합동참모본부는 현상황에서 유엔군의 병력보존이 최우선 고려 요소이므로 유엔군을 해안교두보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맥아더 장군의 전략에 동의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어 12월 4~6일까지 전선 시찰을 마치고 도쿄로 복귀한 콜린스 장군은 12월 7일 맥아더 장군과 그의 참모, 그리고 해·공군지원부대장들과 2차 전략회담을 가졌으며, 최종적으로 미 제8군과 미 제10군단을 통합한 후 단계별 방어선을 설정하여 지연전을 펼치면서 부산으로 철수하는 계획에 합의하였다. 이 계획에는 9개의 방어선이 설정되었는데 서울을 중점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서울 북쪽에 4개의 방어선이 설정되었고, 최종 방어선은 개전 초기의 낙동강 방어선이었다.

맥아더 장군은 이 계획을 12월 8일 유엔군사령부 작전명령 제5호로 하달하였고, 제8군은 평양에서 38도선으로, 국군 제1군단과 미 제10군단은 흥남에서 남동해안 지역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 2. 平壤 撤收作戰

### (1) 撤收決定 및 計劃

12월 1일 서부전선의 아군은 청천강 교두보에서 남쪽으로 32km 떨어진 숙천-순천-성천을 연하는 선으로 철수하여 방어선을 구축하였고, 이때 군우리를 확보한 중공군은 적극적인 추격작전을 펼치지 않고 소규모의 정찰대만 파견함으로써 전선은 잠시 소강상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제8군사령관은 적이 재편성을 한 후 정면과 우측방으로 공격을 재개할 것으로 판단하였다.<sup>79)</sup>

당시 전황을 중공군의 공간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sup>80)</sup>

중공 중앙군사위원회는 12월 2일 05:00에 지원군사령관에게 서부전선의 주력부대는 숙천-순천선 이북에서 4~5일간 휴식하도록 명령하였다. 아울러 이 기간동안 탄약, 식량의 재보급은 물론 부대를 정비하여 차기작전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워커 장군은 당시 대치하고 있는 중공군의 규모를 6개 군(18개 사단), 165,000명으로 추정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엔군의 전방부대는 미 제1기병, 제24, 제25사단과 국군 제1사단 및 영 제27, 제29여단 등 약 5개 사단 정도가 건재하였고, 다른 부대들은 청천강 교두보 전투에서 피해를 입어 재정비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피아의 전력 격차가 심하여 유엔군이 일정한 저지선에서 적을 저지한다는 것은 역부족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과 결

정적인 전투는 회피하고 축차적으로 지연전을 벌이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결심하였다.

이 무렵(12월 2일) 항공정찰과 정찰대의 보고에 의하면 중공군이 성천 동쪽으로 이동 중이며, 중공군 유격대 또는 인민군 유격대가 성천-양덕 간의 도로를 점령하여 평양-원산 도로를 차단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제8군사령관은 이를 적의 아군의 동서간 증원을 차단한 후 평양-성천 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진출하여 평양 이북에서 아군 주력 부대들을 포위 섬멸할 징후라고 확신하였다. 그리고 아군이 이 적을 대적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적이 공격하기 이전에 먼저 평양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였다.<sup>81)</sup>

그러나 평양, 진남포 일대에 산적한 군수물자는 최대한의 시간을 획득하여 후송하기로 하였다. 이는 청천강 교두보에서 철수하면서 전방부대가 손망실한 편제 및 개인장비를 제외하고도 신안주에서 1,400톤, 군우리에서 500톤의 탄약을 파기한데 자극받아 특별히 강조되었다.

서부전선 부대들은 12월 2일 숙천-순천-성천 선에서, 평양과 진남포에 산적한 군수물자 후송작전의 시간을 획득하기 위하여 우선 평양 북쪽 32km에 위치한 영유-사인장-강동을 연하는 반원형의 지역으로 철수하였다. 이때 순천-평양 도로 우측의 미 제9군단이 인민군 유격대의 방해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접적없이 순천-평양 도로의 중간지점인 이 방어선을 확보하였다.

이 무렵 미 제8군사령관은 아군의 후보급로이자 철수로인 평양-사리원-개성 도로를 방호함과 아울러 우측방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하여 33번 도로(평양-울리-신계-시변리) 동쪽에 부대를 투입하였다. 이 조치의 일환으로 미 제24사단을 울리에, 그리고 강동에서 아직 재편성이 완료되지 않은 국군 제2군단을 신계에 배치하였다. 당시 신계 동남쪽의 시변리와 연천, 포천, 춘천 일대는 이미 국군 제2사단과 제5사단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 게릴라 소탕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서부전선의 유엔군이 33번 도로의 주요 교차점을 확보함으로써

주병참선인 1번 도로(평양-개성-서울)의 동측방에 하나의 방호막을 형성한 격이 되었다. 그리고 미 제187연대전투단(배속:영 제29여단)은 평양에 집결하여 부대의 철수와 물자의 후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평양 시내와 그 동쪽에 설치된 4개의 부교를 엄호하도록 하였다. 이때 군우리에서 철수한 미 제2사단은 문산으로, 터키 여단은 개성으로 이동하여 군 예비로써 부대 재정비에 주력하도록 하였다.<sup>82)</sup>

당시 미 제8군사령관이 이러한 전략적 결정을 단행한데에는 청천강 교두보에서 철수로 인한 부대의 전의 상실, 지난주 전투에서 상당수의 사상자 발생, 그리고 대규모 중공군의 공격으로 인한 군의 자신감 동요 등이 영향을 미쳤지만 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동쪽으로부터 중공군의 포위 위협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sup>83)</sup>

## (2) 平壤 撤收

12월로 접어들면서 적의 대규모 공격은 없었으나 3일 제8군의 북동쪽과 동쪽에 상당한 규모의 중공군이 재배치되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다. 제8군사령관은 이를 적이 평양을 공격하거나 남서쪽의 신계로 진출하여 퇴로를 차단할 징후라고 판단하고 다음날(4일) 08:00를 기하여 평양 남쪽의 검이포에서 곡산에 이르는 선으로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날짜로 하달된 제8군 작전명령 제107호에는 임진강과 서울로 철수하기 이전에 제8군이 점령할 제1단계 방어선은 평양 남쪽의 검이포-중화-울리-곡산을 연하는 선이며, 제2단계 방어선은 해주-신막-신계-이천을 연하는 선으로 계획되어 있었다.<sup>84)</sup>

이날(4일) 미 제1군단 공병부대들은 평양에 산재한 일부 산업시설과 군사시설을 파괴함으로써 평양시내는 아침부터 도처에서 화염이 올라오기 시작하였고, 이 틈을 이용하여 평양 남쪽 중화 일대를 방어할 미 제1군단은 국군 제1사단의 엄호하에 미 제25사단을 선두로 1번 도로를 따라 평양에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오후 무렵에

는 국군 제1사단도 평양에서 철수하였다. 이때 미 제9군단도 울리 일대로 진출한 미 제24사단을 배속받아 33번 도로로 철수하여 울리-곡산 일대를 점령하였다. 이 무렵 평양시민을 포함한 수많은 평안도민이 군의 평양 철수시 함께 대동강을 건너 피난길에 올랐다.

당시 국군 제1사단장이었던 백선엽 장군은 평양 철수시의 감회를 다음과 같이 그의 회고록에 담고 있다.

사단은 지난 10월 29일 이승만 대통령이 민족의 단합을 호소하여 평양시민들로부터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던 평양시청 광장을 지나 대동강역을 통과하게 됨으로써 조국통일의 꿈은 무산되었고, 평양이 고향인 내가 언제 다시 고향에 갈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어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남다른 비통함을 간직한 채 평양을 철수하였다.<sup>85)</sup>

국군 제1사단 장병들도 “북진시 제일 먼저 평양에 돌입하여 조국



국군 제1사단이 대동강에 설치된 부교로 평양을 철수하고 있다.(1950.12.4)

통일의 상징과도 같은 적의 수도를 탈환함으로써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아직 그 감격의 숨소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인 45일 만에 다시 평양을 적의 수중으로 넘겨주고 대동강을 도하 남하하게 되니 울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sup>86)</sup>라고 회고하였다.

한편 전방 군단들이 철수하는 동안 평양, 진남포에서 군수물자 후송작전은 계속되었다. 이때 진남포에 저장된 보급품은 소량이어서 후송이 가능하였으나 지난 몇주 동안 평양에 집적된 대량의 보급품은 단기간에 후송시킬 가능성은 희박하였다. 평양에는 후송해야 할 물동량은 많은데 비하여 부상병 후송과 근무부대 수송에 기관차가 우선 배정되었고, 또 부대이동을 위한 차량지원 요청도 증가하여 수송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특히 아군의 항공폭격으로 열차 조차장 시설의 일부가 파괴되어 후송작전이 더욱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진남포의 후송작전은 5일 저녁까지 계속되었다. 아군은 미 해군 구축함 4척과 영국의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전투기의 엄호하에 미 해군의 LST, 일본 수송선, 미 해군 수송전대, 100여 척의 소형선박 등 가용한 선박을 총동원하여 부상병, 포로, 평양과 진남포의 군수물자, 그리고 이곳으로 모여든 3만여 명의 피난민을 수송하였다. 마지막 철수제대가 철수하자 진남포 독크는 화염에 휩싸였고, 이때 미처 후송하지 못한 보급물자 2,000톤도 파괴되었다.

중공군은 제8군이 평양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3개 사단을 평양 북쪽으로 투입하여 아군을 고착 견제하도록 하고, 중공군과 인민군으로 구성된 4~5개 사단을 측방으로 공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주력부대인 5개 군을 성천, 강동, 곡산, 신계 지역을 집중 공격하는 양익 포위 공격계획을 수립하였다.<sup>87)</sup> 그러나 미 제8군의 주력부대들이 먼저 철수함으로써 적은 평양을 무혈 점령하였으나 아군을 섬멸하려던 목표달성에는 실패하였다.

평양에서 철수한 미 제8군은 6일 국군 제6사단, 미 제24, 제25사단으로 송림-중화-수안-곡산 남쪽을 연하는 선에 방어선을 구축하였

고, 국군 제2군단의 제7, 제8사단은 곡산 부근에서 육본작명 제122호(12월 6일)에 의거 철의 삼각지대에서 활동 중인 적 패잔병을 소탕하기 위하여 시변리로 이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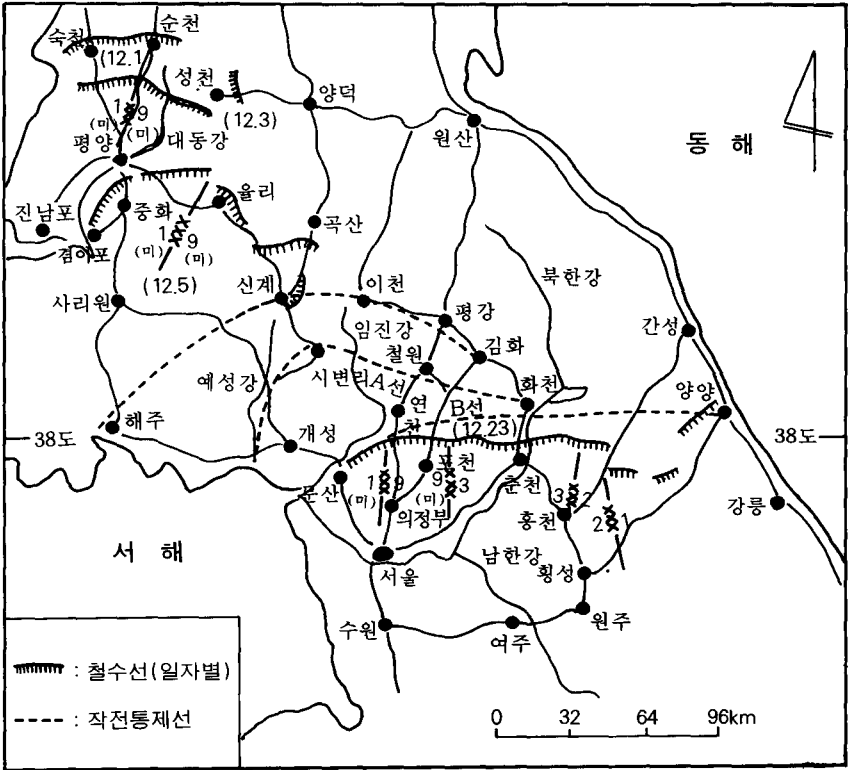
이 무렵 제8군 작전참모는 “현재로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적의 기도이다. 적과 접촉이 단절된 현 상황에서 적의 능력은 포위기동을 전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을 완전 점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아군의 모든 계획이나 명령은 적의 이동을 파악하고, 수적으로 우세한 적과 결정적인 전투를 회피하면서 지연전을 펼치는데 주안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sup>88)</sup>

제8군사령관도 청천강 교두보에서 철수한 이후 5일까지 적과 접촉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포로도 획득하지 못하여 적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지 못함을 우려하였다. 그는 우선적으로 중공군의 위치와 그들의 기도를 탐색하기 위하여 각 군단에 전차로 증강된 강력한 정찰대를 대동강까지 파견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때 미 제1기병사단의 2개 대대규모의 정찰대가 곡산까지 진출하여 인민군과 경미한 접촉을 함으로써 전방의 적이 인민군임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6일에는 항공정찰대에 의해 적의 부대가 진남포에서 선박으로 대동강 어귀로 도하하여 평야지대로 남하 중임도 관측되었다.

제8군사령관은 상기 첩보를 분석한 결과 접근하고 있는 적으로부터 이탈하기 위하여 8일 전선부대에 제2방어선인 해주-신계-이천-김화로 철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음 철수는 서해안 예성강 입구로 부터 시변리-철원-화천을 경유 동해안의 양양에 이르는 대체로 38도선 북방의 방어선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이 선의 서쪽은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이 담당하고 동쪽은 국군 제2군단의 2개 사단과 후방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펼치고 있는 국군 제3군단의 3개 사단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이 계획에 의거 주력부대들이 제2방어선으로 이동을 개시하고 있을 무렵인 8일 유엔군사령부의 38도선 철수명령이 하달되었다. 이로

서부전선 철수상황(1950. 12. 1~12. 23)



인하여 서부전선의 미 제8군은 철수계획에 혼선을 빚어 처음에는 다소 혼란스러웠으나 즉시 철수계획을 재조정하여 38도선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이 무렵 중공 지원군사령관 팡덕회는 평양 일대에서 미 제8군의 축차적인 철수로 주력부대의 격멸에 실패하자 12월 8일 모택동에게 다음과 같이 공격계획을 보고하였다.<sup>89)</sup>

아군 주력이 12월 17일 중화, 상원, 수안 지역을 집중공격하여 유엔군 주력부대를 격멸하면 기회를 보아 38도선을 돌파하여 서울



을 재탈취할 것이며, 만약 적 주력을 격멸치 못하면 38도선 북쪽에서 추격을 중지하여 국군과 유엔군이 38도선을 점령하도록 유인한다. 그리고 내년에 새로운 공격으로 적 주력을 격멸하고자 한다.

적의 이러한 공격계획도 제8군이 서둘러 38도선으로 철수함으로써 차질을 빚게 되었고, 반면 아군은 주력부대의 전투력을 유지한 채 38도선에 방어진지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 3. 興南 撤收作戰

#### (1) 撤收計劃

미 제10군단은 최초에는 미 해병사단과 국군 제1군단이 함흥으로 철수하면 함흥-원산 일대에 강력한 거점인 해안교두보를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12월 8일 유엔군사령관의 흥남 철수지시를 받게 되자 서둘러 철수계획을 준비하였다. 군단장은 11일 해병사단의 장진호 철수작전이 일단락되자 미 제3사단(배속:국군 해병대)을 연포-오로리에, 미 제7사단을 흥남 북쪽에, 그리고 국군 제1군단(수도사단 제1기갑연대, 제3사단 제26연대)을 함흥 동쪽과 동해안에 배치하여 교두보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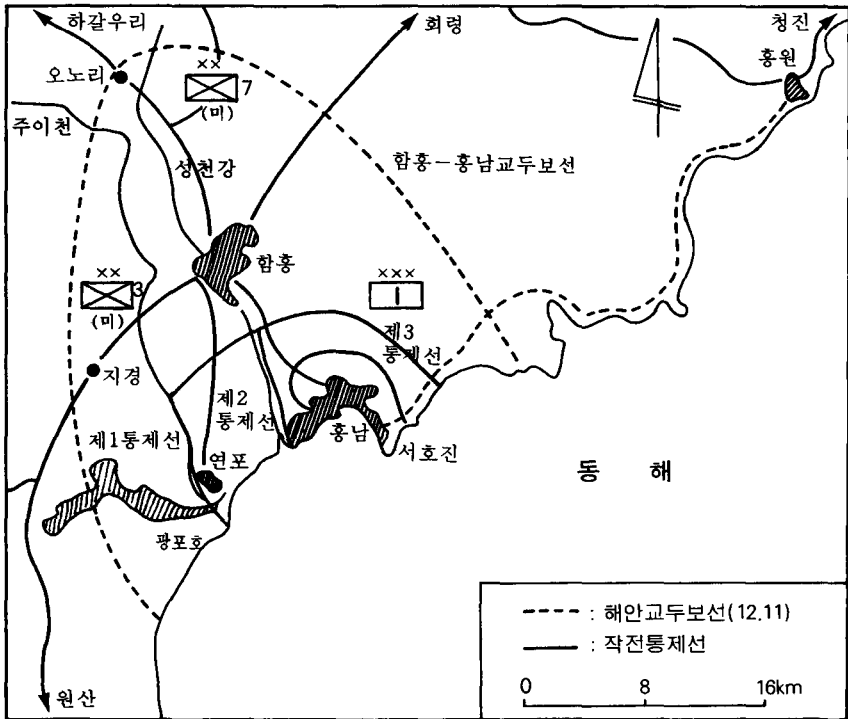
그리고 지난 공세작전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미 제1해병사단을 선두로 미 제10군단본부와 국군 제1군단, 미 제7사단, 미 제3사단 순으로 철수하되, 부대의 철수로 인한 교두보내 공간지역이 발생함이 없이 단계적 철수가 되도록 3개의 작전 통제선을 설정하였다.

제1통제선은 연포비행장 서쪽의 주이천, 함흥 남쪽 4.8km, 흥남항 동쪽의 마전리를 연하는 선으로 제1해병사단이 철수하면 교두보선 내의 부대들이 물러나면서 점령하도록 하였다. 제2통제선은 연포비행

장만 포기하고 주이천에서 성천강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군단사령부와 국군 제1군단이 철수하면 미 제3, 제7사단이 점령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3통제선은 흥남부두와 동쪽의 서호진 외곽을 연하는 선으로 미 제7사단이 철수한 후 미 제3사단이 점령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대의 철수 및 배치 공간을 엄호하기 위하여 흥남 부근 해상에 항공모함 7척, 전함 1척, 순양함 2척, 구축함 7척, 로켓포함 3척을 배치하여 최대한의 화력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당시 제10군단이 철수시켜야 할 물동량(物動量)은 먼저 원산과 성진에서 철수한 인원과 장비를 포함하여 병력 105,000명, 차량 18,422대, 그리고 각종 전투물자 35,000톤이었다. 이 물동량을 해상으로 이

함흥-흥남 철수계획



동시키기 위하여 미 해군은 125척의 수송선을 동원하였으나 선박이 부족하여 어떤 선박은 1회 이상 운항하여야만 하였다.<sup>90)</sup> 이때 미 극동공군의 전투화물사령부도 연포비행장을 통하여 수송활동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군단장은 신속한 철수를 위하여 부두에는 부대의 승선과 화물 탑재를 감독할 통제단을 설치하였고, 해상에도 각종 선박의 입출과 정박지, 계류지 등을 통제할 통제단을 설치하여 양자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였다.

## (2) 撤收作戰

제10군단의 흥남 철수계획은 12월 11일 연포비행장에 도착한 맥아더 장군에게 보고 후 공식적으로 하달되었다. 이 계획에 따라 가장 먼저 철수한 부대는 국군 제3사단이었다. 당시 사단은 성진에서 해상으로 이동하여 10일 14:00에 서호진에 상륙할 계획이었으나 이 철수계획에 따라 상륙하지 않고 서호진을 방어 중인 수도사단 제18연대를 승선시킨 후 동부전선에서 제일 먼저 부산으로 출항하였다. 다음 철수제대는 흥남과 연포비행장에 집결된 미 제1해병사단의 병력과 장비로서 12일부터 탑재가 시작되었고, 선적이 완료된 15일 09:00에 부산으로 출항하였다.

해병사단의 철수 후 교두보선의 부대들이 제1통제선으로 철수를 개시할 무렵 항공 정찰 보고에 의하면 적 부대들이 교두보 지역 주변으로 접근 중이나 대규모 병력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적의 접근보다 더 우려할 문제는 아군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장사진을 이루어 흥남 부두로 접근하는 피난민 대열이었다. 제10군단장은 최초군·경 가족과 일부 피난민만 고려하였으나 예상외로 많은 피난민이 쇠도하자 이들을 흥남부두 서쪽의 서호진에 집결시켜 선편이 닿는 대로 후송시키기로 하였다.

이 조치는 제1군단장 김백일 장군이 군단이 교두보선으로 철수할 무렵 성진의 군단사령부를 방문한 정일권 총참모장에게 “총참모장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장병들은 죽어도 총대를 꺼꾸로 댈 수는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우리는 강산을 유람차 이곳으로 진출한 것이 아닌데, 적이 원산을 차단한다고 하여 서둘러 철수하니 피를 토하고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 군이야 어떻게 해서라도 철수하겠지만, 더 큰 문제는 국군이 북진할 때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던 지역 주민들이 이제 반동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피난을 원하면 전부 후송시킬 작정입니다. 그러하오니 미 제10군단에 이들의 수송 지원을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강력히 요청한 결과이었다.<sup>91)</sup>

제1해병사단의 승선이 완료되자 14일부터 장진호전투에서 철수한 미 제7사단 제32연대와 제31연대 제1대대, 제10군단 본부가 승선하였다. 이 무렵 중공군의 공격이 미 제3, 제7사단 지역으로 집중되어 국군 제1군단 수도사단의 철수는 다소 지연되었다. 수도사단은 적을 기만하기 위하여 주간에는 진지를 고수하다가 17일 야음을 이용 미 제7사단 주력부대에 방어지역을 인계하고, 흥남부두로 집결한 후 24:00에 미 해군 LST에 승선하여 다음날 새벽에 부산을 향해 출항하였다. 이때 국군 제1군단은 최초 부산에 상륙할 계획이었으나 해상이동 도중에 제8군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삼척으로 상륙장소가 수정되었다.

미 수송부대는 18일 연포비행장을 통하여 병력 3,600명, 차량 196대, 화물 1,300톤과 수백명의 피난민 수송을 끝으로 비행장을 폐쇄하였고, 방어부대인 미 제3사단도 제2통제선인 성천강 제방으로 철수하였다.

18일을 전후하여 북서쪽에서 중공군의 부분적인 공격이 있었고, 이어서 북동쪽에서 인민군 제3사단과도 접적이 있었다. 이들은 도처에서 공격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공격이라기 보다는 아군의 교두보지역을 정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어서 미 제7사단 제17연대와 제31연대(-)가 승선을 완료하고 20~21일에 출항하자 미 제3사단은 23일 제3통제선으로 철수하였다. 이날은 적으로부터 간접사격을 다소 받았으나 다음날(24일)은 전선이 소강상태를 보였다. 이날 아침 각 연대에서 1개 대대를 제1통제선에 잔류부대로 남기고 주력은 홍남부두로 철수하여 승선하였고, 이어서 잔류부대들도 승선을 완료하였다. 이때 미 제10전투공병대대와 해군 수중폭파대는 항만폭파를 준비하였다. 잠시 후 항공 및 함포사격의 지원을 받아 접적을 단절한 마지막 엄호부대와 폭파요원들이 해안을 떠나자 14:30에 굉음과 동시에 홍남항은 화염에 휩싸였다. 동시에 해상에 대기 중인 함정들은 항만 주변에 광범위한 함포사격을 실시하였다.

한편 동부전선 부대가 철수를 시작한 1950년 11월 말 국군 해병대는 미 제3사단 배속하에 평양-원산 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마전리, 동양리 일대에서 인민군 패잔병 소탕작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해병대도 미 제10군단의 교두보 방어계획에 의거 12월 3일 사령부와 제2, 제5대대는 함흥으로, 제1, 제3대대는 원산으로 철수하여 항만과 비행장을 방어하였다. 8일 제10군단이 함흥-홍남 교두보선 밖의 지역을 포기함으로써 제1, 제3대대는 원산비행장 시설의 철거를 지원한 후 9일 야간에 미 함정 편으로 철수하였다.

그리고 해병대(-)도 함흥 철수계획에 의거 연포비행장에 집결한 후 15일 항공기 편으로 부산으로 철수하였다.

당시 상황을 참전 해병 장병들은 “영광된 통일조국을 맞지 못하고 연포비행장을 떠날 때에는 무척 가슴이 아팠다. 특히 자식만이라도 데려가 달라고 애원하는 피난민을 두고 떠나는 것이 더욱 비통하였다. 또 원산에서 해상 철수한 해병들은 처음에는 목적지를 모르고 있다가 울산을 지날 무렵 철수 사실을 알고 울분을 터뜨렸다.”고 회상하였다.<sup>92)</sup>

그리고 맥아더 장군은 미 제10군단의 철수가 12월 27일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수송부대의 조직적인 활동과 걱정이 경미하여 미

제10군단의 최종 철수제대는 크리스마스 전날 홍남항을 빠져 나왔다. 이때 200톤의 탄약과 이와 비슷한 양의 얼어붙은 폭약, 500개의 포탄, 그리고 200드럼의 유류를 후송하지 못하고 항만 폭파시 파괴하였다.

#### 4. 38度線 確保

12월 8일, 유엔군사령관은 축차방어 전략 개념의 일환으로 38도선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라는 명령을 전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 이 명령에 의거 미 제8군은 김포반도-임진강-화천-양양을 연하는 선을 주저항선으로 선정한 후 포천-김화 도로를 중심으로 중서부전선은 미군이, 동부전선은 국군이 전담하여 방어하도록 하였다. 이 선으로 철수한 군단들은 방어진지를 보강하면서 전방지역에 대한 정찰 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 (1) 西部戰線 狀況

아군이 평양에서 증화-사리원, 울리-신계를 경유 38도선으로 철수하는 동안 적의 추격이 경미하여 순조롭게 철수할 수 있었으나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를 이루는 멸악산맥 일대로 철수하면서부터 빈번히 출몰하는 인민군 패잔병들로부터 방해받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도로를 차단하고, 매복 및 기습으로 아군의 철수를 방해함은 물론 민가를 약탈하기도 하였다.

국군 제1사단은 12월 7일 사리원에서 남천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날 사단수색중대는 구월산 일대에서 활동 중인 1개 대대규모의 패잔병을 소탕하였다. 이후 사단은 위천리, 구화리 일대의 축차적인 지연 진지를 점령하여 아군의 철수를 엄호하면서 지역내 패잔병 소탕작전을 실시하였다. 미 제1군단 주력부대의 철수가 완료되자 사단도 14일 제

11연대를 고량포에, 그리고 제15연대를 법원리에, 제12연대를 신산리에 배치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6개월 만에 전쟁 개시 이전의 진지를 다시 점령하게 되었다.

38도선으로 철수한 미 제1군단은 김포반도에 터키 여단을 개성-문산 도로를 가로지르는 임진강 하류에 미 제25사단을 고량포-적성 일대에 국군 제1사단을 배치하여 주저항선을 편성하였고, 영 제29여단은 군단예비로 고양군 신둔리에 집결하도록 하였다.

한편 신계에서 철수한 미 제9군단은 국군 제6사단을 연천-의정부 축선상의 전곡 일대에, 미 제24사단을 김화-의정부 축선상의 영평 일대에 배치하고, 영 제27여단을 군예비로 덕정 부근에 집결시켰다.

이때 군단의 좌전방이 된 국군 제6사단은 12월 11일 시변리 일대에서 지연전을 펼치다가 계획된 철수로인 시변리-삭령-연천 도로에는 인민군 패잔병의 출몰이 빈번하여 시변리-구화리-연천 도로로 우회하여 철수하였다. 사단은 제7연대를 한탄강 남쪽에, 제19연대를 백이리 일대에 배치하여 주저항선을 구축하고 제2연대는 사단예비로 동두천에 집결시켰다.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이 방어선을 구축하는 동안 제8군사령관은 서울 고수에 주력하라는 맥아더 장군의 지시에 따라 현 방어선의 취약점인 얇은 방어중심, 넓은 배치공간, 국군 부대들의 과도한 방어정면을 보강하기 위하여 군예비인 미 제1기병사단을 퇴계원 일대에 배치하여 춘천 방면에서 서울로 진출하는 적을 차단하도록 하였다.

이때 군우리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고 영등포에 집결한 미 제2사단은 충주로 이동시켜 중앙이나 동쪽에서 적이 국군 담당지역을 돌파하면 이를 저지하고, 만약 서부전선의 미 제1, 제9군단이 철수할 경우 그들의 우측방을 엄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서울 북방에 저장된 보급품은 한강 남쪽으로 이동시키고, 인천항에 비축된 물동량도 줄이도록 하였다. 또한 군사령부도 최소한의 인원만 잔류시키고, 주력은 대구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 (2) 中部戰線 狀況

국군 제3군단(배속:제9, 제11사단)은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251호(1950.12.10)에 의거 12월 10일 후방지역 공비토벌작전을 종료한 제9, 제11사단을 육군본부에 원복시켰다. 그리고 군단은 양평으로 이동하여 제2, 제5, 제8사단을 배속받아 군단 창설 이후 최초로 전선에 투입되었다.

이 무렵 국군 제2사단과 제5사단은 11월 27일부터 육군본부 통제하에 낙동강 전선에서 나오되었다가 태백산맥을 통해 북으로 도주하여 철의 삼각지대 일대에 집결한 인민군 패잔병들을 소탕하고 있었다.

국군 제2사단(제31연대 결)은 가평으로 이동하여 제17연대를 철원 부근에, 제32연대를 의정부 부근에, 그리고 배속된 제5사단 제35연대를 구화리(九化里) 부근에 배치하여 연대별로 패잔병 소탕작전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국군 제5사단(제35연대 결)도 춘천으로 이동하여 제27연대를 청평 동쪽의 호명산 일대에, 제36연대를 가평 북쪽의 지암리에, 사단에 배속된 제2사단 제31연대를 흥천에 배치하여 연대별로 병참선을 확보하면서 패잔병 소탕작전을 실시하고 있었다.

제3군단사령부가 양평에 도착한 13일을 전후하여 국군 제2사단과 제5사단은 패잔병 소탕작전을 일단락짓고 타부대에 배속되었던 제31연대와 제35연대도 소속 사단으로 원대복귀하였다. 이때 군단장 이형근(李亨根) 소장은 제2사단을 좌전방 가평 북쪽에, 제5사단을 중앙의 춘천 북쪽에, 제8사단을 우전방 춘천 동쪽에 배치하여 주저항선을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군단의 우전방을 방어할 제8사단의 진출이 지연되어 군단의 방어진지 편성에 약간의 차질이 생겼다.

당시 제8사단은 신계를 경유 12월 5일 시변리에 도착한 다음 그동안 계속된 철수로 인한 장병들의 체력 회복을 위하여 이곳에서 4



일 동안 휴식과 부대정비를 실시하였다.<sup>93)</sup>

이 무렵 항공정찰에 의하면 사단의 철수로인 시변리-연천 간 도로는 아군의 항공폭격으로 교량과 도로 10여 곳이 절단되어 중장비는 물론 차량도 이동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사단장 이성가(李成佳) 준장은 사단주력의 이동을 전투경험이 풍부한 제16연대장 유의준(俞義濬) 중령에게 일임하고 사단본부와 중장비, 환자, 보급품을 싣은 차량제대를 이끌고 시변리-개성 도로를 따라 먼저 철수하였다.

사단본부가 출발하자 유의준 중령은 연천을 목표로 제16연대, 제10연대, 제21연대 순으로 도보 이동을 개시하였다. 이때 도보부대가 철수할 도로는 좌우측방이 고지로 둘러싸인 지형 사이로 흐르는 임진강에 연해 있었다. 제16연대의 선두부대는 이동한지 얼마되지 않아 신장리(新場里) 도섭장으로 진출하였고, 동시에 적의 집중사격이 개시되었다.

이때 사단을 포위공격한 2개 대대규모의 적은 인민군 제2군단 소속의 패잔병들로서 주력은 대안의 독동 일대에 배치된 듯하였다. 3개 연대장은 적의 저항이 완강하여 임진강 동측의 독동으로 도섭을 포기하고, 임진강 서측의 강제고지인 520고지를 점령하기로 하였다. 사단은 적의 집중사격에도 불구하고 매곡동에서 중격실로 연결된 능선을 따라 진출하였다. 저녁 무렵 사단은 지대내 강제고지인 520고지 부근으로 진출하여 우전방 237고지에 제16연대, 중앙의 282고지에 제10연대, 그리고 좌전방 400고지에 제21연대를 배치 반원형의 방어진지를 편성하여 적의 야간공격에 대비하였다. 그러나 사단은 이날 적의 포위망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를 입었다. 이후 적의 저항이 경미하여 사단은 연천으로 철수한 후 원주에서 제3군단으로 배속이 전환되어 화천저수지 남쪽으로 이동하여 다시 전선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시변리 전투의 결과로 사단장 이성가 준장이 처벌을 받았다.

당시 상황을 제2군단장 유재홍 장군은 “사단이 우회하는 일이 있

더라도 고랑포 쪽으로 철수하도록 하였으나 연천 통로가 차단되었음을 알면서도 돌파를 강행한 것은 잘못이다. 뿐만 아니라 전투경험이 많은 사단장이 주력부대를 두고 차량제대를 이끌고 철수한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대지휘로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회고하였다.<sup>94)</sup>

한편 육군본부는 12월 15일 국군 제3군단의 방어중심을 보강하고, 유사시 증원부대로 운용하기 위하여 홍천에서 정비 중인 국군 제7사단을 춘천으로 이동시켜 육군예비로 확보하였다.

### (3) 東部戰線 狀況

동부전선을 담당하게 된 국군 제2군단은 미 제8군이 청천강에서 철수할 무렵인 11월 28일 그동안 덕천전투에서 지연전을 펼친 국군 제6사단을 미 제9군단으로 배속전환하고, 군단 주력은 강동 일대에서 재편성을 한 후 평양 동측방을 엄호하였다. 이후 군단은 신계-곡산으로 이동하여 미 제8군의 우측방 방어와 미 제10군단과의 배치공간을 통한 적의 후방 진출을 차단하던 중 다시 육군본부 명령에 의거 이천-평강-김화 선을 방어하기 위하여 12월 5일 시변리에 집결하였다. 그러나 12월 8일 유엔군의 38도선 방어계획에 의거 군단은 다시 화천 동쪽의 방어진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무렵 인민군 제2, 제5군단의 패잔병들이 평강-금화-화천 도로를 차단하고 있어 군단은 부득이 연천을 경유하여 철수하게 되었다.

한편 군단이 38도선으로 철수하는 동안 동부전선에는 대구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던 제9사단이 12월 8일 긴급히 원주, 강릉으로 이동하여 춘천 동북쪽의 내평리에서 동해안의 인구리(仁邱里)까지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때 제28연대는 소양강 남쪽에, 제29연대는 현리 일대에, 제30연대는 인구리 일대에 각각 배치되어 적의 후방 진출을

저지하고 있었는데 1개 연대의 방어정면이 30km도 넘어 배치공간은 물론 방어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 제2군단은 철수를 서둘렀으나 12월 14일 원주에 도착하였다. 군단은 재정비를 할 겨를도 없이 육군본부 명령에 의거 청천강 교두보와 시변리에서 고군분투한 제7사단을 육본직할로, 제8사단을 제3군단으로 배속 전환하고 대신 동부전선의 광정면을 방어 중인 제9사단과 함흥에서 구룡포로 해상 철수한 제3사단을 배속받았다.

그러나 군단이 미처 방어선도 구축하기 전에 동부전선의 방어력을 보강하려는 육군본부의 조치에 따라 흥남에서 철수한 국군 제1군단이 목호에 상륙하여 동해안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9사단이 다시 제1군단으로 배속이 전환됨으로써 군단은 흥천으로 진출한 제3사단만으로 인제 남쪽의 부평리-관대리 간을 방어하게 되었다.

제3사단장 최석(崔錫) 준장은 제18연대<sup>95)</sup>는 제8사단 제16연대가 방어하던 흥천고개와 하수내리-상수내리 지역을, 제22연대는 제9사단 제28연대가 방어하던 음양리-수리봉 지역을 인수하여 방어선을 구축하도록 하고, 사단예비인 제23연대는 흥천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전투지경선을 통한 적의 후방침투를 우려하여 전투정찰과 경비대대로 측방경계를 강화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좌인접 국군 제3군단의 우전방 제8사단과 우인접 국군 제1군단의 좌전방 제9사단과 연결하여 주저항선을 방어하게 되었다.

#### (4) 第1軍團의 東部戰線 投入

12월 18일 흥남에서 철수한 제1군단은 목호로 상륙하여 제2군단으로부터 제9사단이 방어 중인 관대리-현리-서림-양양을 연하는 방어선을 인수하였다.

군단의 임무는 38도선 방어진지를 점령한 후 태백산맥 일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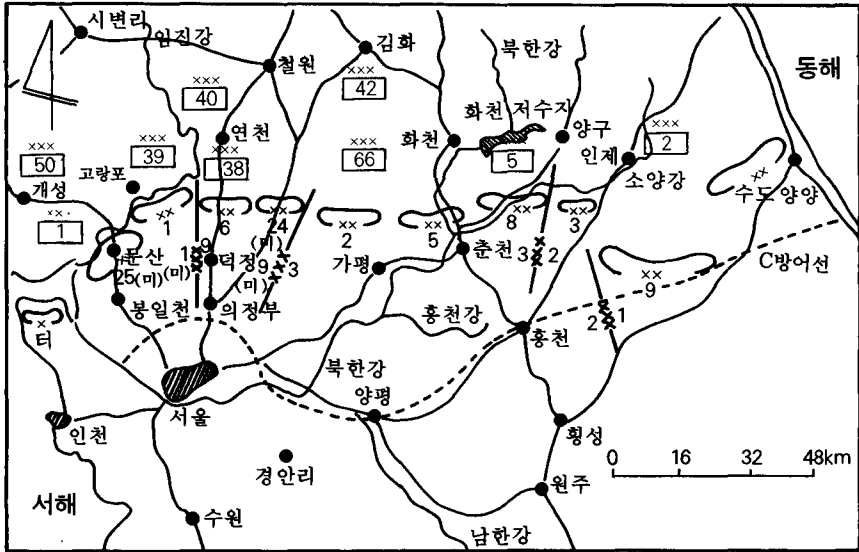
준동하는 적 유격부대를 격멸함과 동시에 그들의 38도선 이남으로의 침투를 저지하는 것이 주임무이었다. 군단장 김백일(金白一) 소장은 주저항선을 보강하기 위하여 좌전방 관대리-서림에 제9사단을, 우전방 서림-양양에 수도사단을 배치하여 주저항선을 구축하고, 군단 후방지역에는 3개 경비대대(제1, 제2, 제3경비대대)를 영월, 정선 및 하진부리에 각각 배치하였다.

제9사단은 제30연대가 방어하던 서림리-인구리 지역을 수도사단에 인계하고, 또 제28연대의 부평리-관대리 지역을 국군 제3사단에 인계함으로써 관대리-현리-서림 지역만 방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9사단의 방어정면은 30km에 달하는 광정면일 뿐만 아니라 우인접 수도사단과는 1073고지-방대산-구룡덕봉이, 좌인접 국군 제3사단과는 길항산-대암산-부봉-가득봉 등의 고산준령이 남북으로 연결되어 있어 좌우 인접부대와 전선 연결이 어려웠다. 그리고 사단은 지난 10월 25일 신편되어 공비특별작전의 경험만 있었지 전투경험도 부족하였다. 또한 작전지역이 험준한 산악지대로 도로망이 결핍되어 기동력도 발휘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제9사단장 오덕준(吳德俊) 준장은 태백산맥을 통한 적 유격대의 복상을 차단하고, 또 원통-인제 축선으로 남하하는 주력부대를 저지하기 위하여 제28연대를 원대리-현리에, 제29연대를 현리-하치전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사단예비인 제30연대를 창춘에 집결시켜 후방지역 경계를 맡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도사단장 송요찬(宋堯讚) 준장은 적 정규군은 아직 전방지역에 투입되지 못하였지만 오대산 부근의 적 유격부대가 험준한 산악지역에 거점을 구축하고 후방지역 교란을 획책함과 동시에 장차 이 일대로 진출할 인민군과 연결작전을 기도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단은 이에 대비하기 제1단계로 양양과 주문진 사이에 제1연대, 제1기갑, 제26연대 순으로 중심깊게 배치하여 방어중심을 유지하였다. 그 후 사단은 제1연대는 남대천 남쪽의 하왕도리 일대에, 제1기갑연대도

38도선 배치상황(1950. 12. 26)



상광정리 일대에 배치하고 그리고 제26연대는 주문진 남쪽의 방내리에 집결시켜 오대산 부근의 적 패잔병 준동에 대비하였다.

한편 군단이 방어진지를 재편성하는 동안 적 제69여단은 양양 북쪽에서 재편성을 완료하였고, 또 인민군 제2군단 예하의 패잔병들이 인제 부근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특히 2,000여 명의 패잔병들은 오대산을 중심으로 유격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에 사단장은 제1연대는 적의 남침공격에 대비 진지를 강화하도록 하고, 제1기갑연대와 제26연대는 서쪽의 오대산 지역을 수색정찰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로써 국군은 미 제1군단의 미 제25사단이 방어 중인 문산 북쪽과 미 제9군단 제24사단이 방어 중인 포천 북쪽을 제외한 38도선상의 전지역에 배치되어 방어편성을 하며 적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 5. 東部戰線의 不安

아군이 12월 23일경 38도선 방어선을 점령하고 진지 강화에 주력하고 있을 무렵 신정공세를 계획한 중공군은 주력부대의 공격에 앞서 전선에 배치된 국군 사단들의 퇴로를 차단시킬 목적으로 인민군 제2군단(4개 사단)과 제5군단(1개 사단)을 국군 제1, 제2군단의 전투지경선 부근으로 침투시켜 전술적 요충인 홍천, 춘천을 차단하도록 하였다.

이에 양구-인제로 진출한 인민군이 아직 방어준비도 갖추지 못한 국군의 홍천-현리로 침투공격을 기도함으로써 다시 격전을 벌이게 되었다.

### (1) 人民軍의 先制攻擊

#### ● 홍천부근 돌파기도

화천-양구-인제 선으로 진출한 인민군 제2군단의 예하부대들은 제8사단 정면의 오항리, 제3사단 정면의 관대리, 그리고 제9사단 정면의 인제 일대에 각각 1개 연대규모를 배치하였고, 이들 중 일부가 제3사단을 양익포위할 목적으로 좌인접 제8사단과 우인접 제9사단과의 전투지경선 부근으로 침투공격을 개시하였다.<sup>96)</sup>

23일 제8사단의 저항선을 돌파한 적의 일부가 홍천고개 부근으로 진출하여 자은리를 위협하였다. 이에 제3사단 제18연대 제1대대는 긴급히 자은리(自隱里)로 진출한 제8사단 제10연대와 협동작전을 펼쳐 714고지 부근에서 적을 소양강 쪽으로 격퇴시켰다. 그러나 제3사단의 좌인접 소양강변으로 진출한 제10연대가 적의 역습으로 24일 새벽에 자은리로 철수하였고, 또 제18연대도 적의 산발적인 기습공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때 제3사단은 제10연대를 배속받아 피탈된 제8사단의 소양강 남쪽의 내평리(內坪里) 일대의 주저항선을 회복하고자 하였으나, 적이 선제공격을 개시하여 제18연대는 하루종일 이 적과 격전을 펼쳤다. 특히 이날(24일) 저녁 무렵에는 1개 연대규모의 적이 흥천고개로 진출하여 전방연대의 퇴로차단을 기도하자 예비인 제23연대 제2대대가 이 고개부근으로 진출하여 제18연대를 증원하였다.

그동안 적은 소규모 부대로 좌우 인접부대인 제8, 제9사단을 집중적으로 기습공격하였으나 25일 자정이 지나면서부터 제3사단 지역내에서도 적의 침투공격이 시작되었다. 먼저 어론리에 위치한 제22연대 본부가 2개 소대규모의 기습공격을 받아 일시 혼란상황에 빠졌으나 새벽 무렵 격퇴시켰다. 그리고 소양강 남쪽의 상수내리-음양리-수리봉을 방어 중인 전방대대들도 적의 공격을 받았으나 화력을 집중하여 격퇴하였다.

특히 적은 주저항선에서 공방전을 펼치는 동안 일부 부대를 계곡통로인 정자동-샘천-매봉을 경유 어론리 부근으로 침투시켜 전방연대의 퇴로차단을 기도하였다. 또 우인접 제28연대 지역을 돌파한 적의 일부는 전투지경선을 따라 진출하여 제3사단의 우측방을 위협하였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전방연대의 상황이 악화되자 제3사단장은 예하 연대들에게 흥천고개-장남리-부봉을 연하는 선으로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명령에 의거 철수한 제18연대는 인제-흥천 도로의 좌측에, 제22연대는 우측에 배치되었다. 그러나 이 철수과정에서 상수내리에 배치되었던 제18연대 제3대대는 26일 오전 어론리(於論里)를 통과하면서 적의 포위공격을 받아 다수의 피해를 입고 철수하였다.

사단이 진지 재편성에 주력하고 있을 무렵인 18:00에 피탈한 주저항선을 회복하기 위한 군단의 공격명령이 하달되었다. 사단장의 복안은 27일 09:00에 공격을 개시하여 제18연대는 좌인접 제8사단의 증원부대로 투입된 제7사단 제8연대와 병진공격으로 소양강 남쪽의 정자동 일대를, 우전방 제22연대는 어론리 북쪽의 하다물리를 확보한다

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단에비인 제23연대 주력은 계속 흥천과 후방 지역을 경계하도록 하고 제2대대는 자은리 남동쪽의 백우산에 배치하여 사단의 우측방을 엄호하도록 하였다.<sup>97)</sup>

사단은 27일 새벽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때 우전방 제22연대 정면에서는 접적이 경미하여 연대가 쉽게 어론리 남쪽 고지로 진출하였으나 우전방 제18연대는 매봉 일대에서 완강하게 저항하는 적과 3시간 동안 치열한 격전을 벌인 후 북쪽의 721고지 부근으로 진출하였다. 28일 사단이 공격을 재개할 무렵 좌인접에서 가리산 북쪽으로 진출중인 제7사단 제8연대의 진출이 지연되어 일시방어로 전환하여 제8연대의 진출을 대기하였다. 이때 적을 증원하기 위하여 인민군 2개 연대규모가 제18연대 정면의 천촌 일대에 집결하였으나 사단을 지원차 출동한 미공군의 항공폭격에 큰 피해를 입고 분산되었다.

29일 좌인접 제8연대와 병진공격을 재개한 제18연대는 적을 소양강 북쪽으로 격퇴하고 정자동 일대로 진출하였고, 제8연대도 소양강을 통제할 수 있는 물노리 부근의 진지를 제8사단 제10연대에 인계하고 양덕원리로 철수하였다. 그리고 제3사단은 매봉-정자동-어론리를 연하는 주저항선에 진지를 구축하였다.

이후 이 지역에서 전투는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으나 인민군 제10사단이 제2사단을 증원하기 위하여 상수내리 부근으로 진출하였고, 또 제3사단의 후방지역인 창봉리에는 2개 대대규모의 인민군 패잔병들이 활동하고 있어 양구-인제 남쪽의 소양강변에는 언제 적의 공격이 재개될지 불안한 대치 상황이었다.<sup>98)</sup>

#### ● 현리부근 침투

자은리 북방의 소양강변에서 제3사단과 제8사단이 인민군과 접전을 벌이는 동안 현리 북방의 제9사단은 방어지역 일부를 제3사단과 수도사단에 인계한 제28연대를 원대리-현리에, 제29연대를 현리-하치전에 재배치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제30연대는 사단에비로 창



촌에 집결시켜 후방지역을 경계하도록 하였다.<sup>99)</sup>

연대들이 12월 24일 하루종일 부대 재배치에 주력하자, 인제 남쪽의 오대산으로 진출을 기도하고 있던 인민군 제2군단 및 유격부대는 부대이동으로 경계가 취약함을 간파하고 선제공격을 개시하였다. 적은 먼저 21:00에 서림리(西林里)에서 미처 철수하지 못한 제29연대의 일부 병력을 기습공격한데 이어 자정이 지날 무렵에는 연대규모의 적이 현리로 진출한 제28연대 제2대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대대는 적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으나 점차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었고, 04:00경에는 포위망이 압축되어 대대는 상남리로 분산 철수하였다. 저녁 무렵에는 제29연대 전방에서도 험준한 설악산맥으로 침투한 규모 미상의 적이 하치전(下稚田) 전방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제9사단의 전황을 분석한 군단장 김백일 소장은 사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사단장 송요찬(宋堯讚) 준장에게 신속히 서림리에 방어진지를 구축하도록 명령하였다.

제9사단은 26일 전방의 현리와 하치전 일대로 진출한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경계를 강화하였으나 적은 정오경부터 의외로 좌측 후방에서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3개 연대규모의 적은 국군 제3사단과의 전투지경선인 매봉산-길향산-대암산을 연하는 산악을 따라 은밀히 침투하여 주력은 제3사단 제22연대를 공격하고, 일부는 상남리 남서쪽의 가득봉으로 진출하여 사단의 후방지역을 위협하였다.<sup>100)</sup>

사단은 27일 전술적 요충인 현리를 재탈환하고, 주저항선을 회복하기 위하여 공격작전을 개시하였다. 이때 사단 후방지역으로 침투한 2개 대대규모의 적도 광원리, 창촌을 경유 오대산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사단은 전후방지역에서 적과 전투를 펼치게 되었다.

사단의 공격작전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불리하였다. 제28연대 제1, 제3대대는 현리를 공격하였으나 계속된 적의 증원으로 공격이 둔화

되었다. 또한 제29연대도 제28연대의 공격을 측방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지대내 감제고지인 872고지를 공격하였으나 오히려 1개 사단규모로 증강된 적으로부터 포위공격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중 일부는 연대 후방의 광원리-창촌에 배치된 제30연대를 위협하였다.

이와 같이 제9사단의 상황이 악화되자 군단장은 수도사단장에게 제9사단을 증원하도록 명령하였다. 수도사단장은 29일 사단의 좌측방을 엄호하기 위하여 서림리에 진출하였던 제1기갑연대 제2, 제3대대를 하치전으로 이동시키고, 제26연대 제3대대를 갈마곡봉으로 진출시켜 제29연대를 증원하도록 하였다.

국군 제9사단은 30일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항선에서 철수하여 제28연대를 부봉-침교에, 제29연대를 상남리 일대에 재배치하여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이때 제28연대는 좌인접 제3사단 제22연대의 철수로 측방이 노출되어 한때 적의 포위공격을 받기도 하였으나 적을 격퇴하였다. 그리고 광원리-창촌 일대에서 적의 후방 진출을 차단하고 있던 제30연대는 제26연대 제3대대를 증원받아 한차례 치열한 격전을 벌였다. 인민군 제2군단의 일부는 혼란된 틈을 이용하여 후방의 오대산으로 진출하였다.

이후 사단지역의 전투는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으나 적이 인제, 현리 일대에 병력을 집결함은 물론 오대산으로 잠입한 적에 의해 후방도 위협받게 됨으로써 경계를 한층 강화하였다.

## (2) 美 第10軍團의 再配置

아군은 12월 23일까지 38도선을 연하여 방어선을 점령하였지만 국군이 전담한 춘천 동쪽에서 동해안까지의 방어선은 배치된 부대에 비하여 방어정면이 넓고, 또 방어중심마저 얇아 취약점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제8군사령부에서는 충주에서 부대를 정비 중인 미 제2사단을

긴급히 홍천-원주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미 제10군단을 홍남에서 철수하는 대로 춘천 일대에 투입하여 국군 3개 군단의 방어정면을 축소시켜 주고, 또 그 동쪽의 동부전선의 방어력을 강화할 계획이었다.<sup>101)</sup>

그러나 홍남에서 사단별로 철수한 미 제10군단은 아직 부대정비가 완료되지 못하여 전선투입이 불가하였고, 또 군단이 전선으로 이동하는데는 8~10일이 필요하였다. 이때 제일 먼저 철수한 미 제1해병사단은 부산에, 군단사령부와 미 제7사단은 경주에 집결하였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철수한 미 제3사단은 아직 3/4의 부대가 해상 이동 중에 있었다.

하지만 제8군사령부는 국군이 담당하고 있는 동부전선의 상황이 긴박함을 고려하여 이 군단을 중동부지역에 축차적으로 투입하기로 결심하였다. 우선 집결을 완료한 미 제7사단을 제천 부근으로 이동시켜 미 제2사단과 협조하여 춘천, 인제 방면에서 횡성과 원주로 침투하는 적을 저지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미 제10군단에 원주-제천-단양-안동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후보급로로 할당하고 이를 경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마산에 집결 중인 미 해병사단은 31일 영천-경주-포항으로 이동하여 미 제10군단의 예비대가 되고, 경주 남쪽의 미 제3사단은 평택-안성으로 이동 미 제1, 제9군단지역으로 투입될 준비를 갖추었다.<sup>102)</sup>

이와 같이 하여 국군과 유엔군은 38도선 방어력을 강화하는 한편, 가능한 서울을 방어하기 위한 부대 재배치를 끝내고 적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 6. 美 第 8 軍 司 令 官 의 交 替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장군은 38도선으로 철수한 국군과 유엔군이

안정을 되찾고, 방어진지 편성에 주력하고 있을 무렵인 12월 23일 영제27여단을 표창하기 위하여 지프차로 서울을 떠나 덕정(의정부 북쪽 16km) 부근을 통과할 무렵 예상하지 못한 교통사고로 애석하게도 전사하였다.<sup>103)</sup>

그는 전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을 무렵인 1950년 7월 13일 부임하여 “사수방어(stand or die)” 정신의 작전지도로 낙동강 방어전을 성공리에 수행하여 인천상륙작전과 북진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평양 탈환과 한탄국경선으로의 진격을 이끌어 낸 군사지도자요 야전지휘관이었다.

맥아더 장군은 임시로 미 제1군장 밀번 장군을 제8군사령관 대리로 임명하고, 미 육군참모총장에게 후임자로 육군성 작전참모차장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중장을 요청하였다.<sup>104)</sup> 갑작스럽게 제8군사령관에 임명된 그는 도쿄의 유엔군사령부를 방문 맥아더 장군과 부대지휘 및 작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후 26일 늦게 대구 제8군사령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이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고 있다. 그러나 그는 1950년 12월 23일 교통사고로 순직하였다.

부에 도착하였다.

워커 장군의 후임으로 부임한 리지웨이 장군은 한국의 지형에 관해서는 생소하였지만, 그동안 미 육군의 작전참모차장이란 중책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선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미군 수뇌부들이 야전군사령관의 우발적인 유고시를 대비하여 그를 사전에 후임자로 내정해 놓은 상황이므로 지휘 공백없이 미 제8군사령관 직책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는 다음날 이승만 대통령을 예방하여 전쟁지도와 관련된 협의를 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하였던 정일권 총참모장은 당시 대화 내용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sup>105)</sup>

이 대통령:미 육군에서 가장 훌륭한 용장을 보내 주어 우리 국군과 더불어 진심으로 장군을 환영합니다.  
리지웨이 :저는 한국에 머물기 위해 왔습니다.



워커 장군 후임으로 부임한 리지웨이 장군이 전선을 시찰하고 있다.

이 대통령: 지금 중공군의 대부대가 서울 문턱까지 진출하고 있는데 장군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리지웨이: 준비가 끝나는 대로 곧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 장군이 가슴 양쪽에 수류탄을 달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든든한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리지웨이: 저는 공수부대 출신이며, 항상 이런 복장으로 전투에 임해 왔습니다.

이 대통령: 우리 국군 지휘관들도 리지웨이 장군처럼 수류탄을 달도록 하라고 웃으면서 동석한 정 총참모장에게 말했다.

(이하 생략)

이 대통령과의 면담이 끝나자 그는 곧장 임진강 하구에서 동해안의 양양에 이르는 주저항선에 배치된 국군과 유엔군 부대를 순시하였다.<sup>106)</sup> 그 결과 아군의 사기와 자신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지휘력의 개선이 선결과제라고 보고 우선 사단장은 전선의 대대급까지, 군단장은 가장 격렬한 전투를 펼치는 연대까지 나가 작전을 지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구의 미 제8군사령부도 전선의 중앙지역에서 최단시간내 군단이나 사단에 도착될 수 있는 지역에 전술사령부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적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정찰활동을 강화하여 적의 규모와 작전지역의 지형을 숙지하도록 조치하였다.

## 제 4 절 共産軍의 38度線 展開

### 1. 人民軍의 再建

국군과 유엔군의 인천상륙과 북진으로 붕괴직전의 위기상황에 몰린 인민군총사령관 김일성은 10월 중순, 일부 부대로 지연전을 피면서 낙동강전선에서 철수한 일부 병력과 후방 부대들을 한만국경선 부근으로 이동시켰다.

이때 인민군 잔여 부대는 유엔군의 맹렬한 추격과 후방지역 차단을 기도하는 항공폭격을 피해 순천, 안주를 경유하여 신의주와 강계로 철수하였다. 그러나 이들 부대들은 철수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다. 김일성은 부대의 재편성이 없이는 전선투입이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부사령관 최용건(崔庸健) 대장과 참모장 이상조(李相朝) 소장에게 강계 부근에서 신속히 재편성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50년 10~11월에 6개 군단과 15개 사단을 신편하여 11월 14일경에는 총 8개 군단, 25개 보병사단, 3개 보병여단, 전차사단, 기계화사단, 육전여단, 2개 독립보병연대, 독립전차연대, 군관학교로 확장하였다. 이때 총병력은 25만~27만 명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이중 신편된 3개 군단(제3, 제4, 제5군단)의 6개 사단은 북한 지역내에서 재편성한 후 훈련시켜 전투에 투입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예비부대인 제6, 제7, 제8군단의 9개 사단은 중공과 협의하여 간도와 길림 일대에서 주로 만주에 거주하는 한인(韓人)으로 편성하여 군예비로 운용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군관학교, 정치학교, 전차훈련연대, 항공훈련연대도 중공과 협의하여 만주에서 편성하여 훈련시키기로 하였다.

이때 북한지역에서 재편성 중인 인민군 제1, 제2, 제3, 제5군단은 청천강 북쪽의 구성, 강계, 영변, 맹산 일대에서 부대 재정비에 주력하였고, 제4군단은 동북 해안에 배치되었다.<sup>107)</sup> 그들의 구체적인 편성과 병력은 아래와 같다.<sup>108)</sup>

### 인민군 병력 구성 및 배치

#### -북한지역

제1군단(제8, 제46, 제47, 제17기계화 보병사단): 4만명

제3군단(제1, 제3, 제15보병사단, 제26기계화보병여단, 제105전차사단): 4만 6천명

제4군단(제41보병사단, 육전여단, 독립보병연대, 전차연대): 2만 2천명

제5군단(제6, 제12, 제38, 제24사단): 3만명

기타(제2, 제4, 제5, 제7사단은 군에 편성되지 않고 독립적 운용): 2만명

#### -남한지역에 낙오된 병력

제2군단(제31보병사단, 제23, 제27보병여단, 독립전차연대)

#### -만주지역

제6군단(제18, 제68, 제36보병사단): 3만명

제7군단(제13, 제32, 제37사단): 3만명

제8군단(제42, 제45, 제76사단): 3만명

각종 군사교육기관: 15,000명

\* 사단급: 1만명, 여단급: 6천명, 연대급: 3천명으로 각각 편성되었음

그리고 스탈린에게는 인민군에 배속 중인 군사고문단의 지속적인 잔류를 요청하는 한편 해·공군력을 보장시켜 줄 것도 강력히 요청하였다.

김일성은 해군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10월 초에 해군 군관을 양성할 800명 규모의 해군학교과 육전대학교를 소련에서 창설하고 또 인민군 군함들이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련에 요청



하였다.

이어 11월 중순경에는 당시 소련에서 훈련 중인 119명의 북한 조종사를 2개 전투비행연대와 1개 폭격기연대를 편성할 수 있도록 양성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항공부대를 지원할 요원 120명(정비요원:90명, 관제요원:30명)의 추가 파견 교육과 소련에 유학 중인 북한 대학생 중 200명을 선발하여 비행사로 양성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외에도 김일성은 소련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로 전차병 1,000명, 비행사 2,000명, 통신병 500명, 공병군관 500명을 양성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sup>109)</sup>

북한은 소련과 중공의 도움으로 12월 초까지 3개 군단(제1, 제2, 제5군단) 14개 사단이 75,000명으로 재편성되어 작전에 투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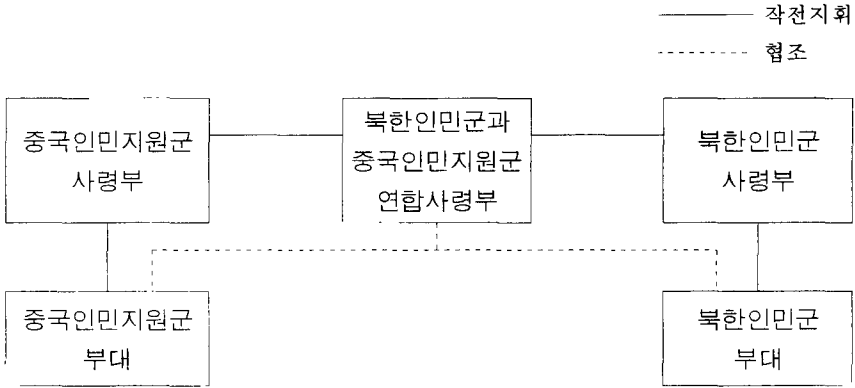
## 2. 朝中 聯合作戰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으로 평양에서 쫓겨난 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은 강계를 임시 수도로 정하고, 중공군이 참전하자 중공 인민지원군사령관 팽덕회와 협의하에 인민군과 중공군의 작전을 통합하기 위하여 양군의 장교들로 구성된 연합사령부를 설치하였다.

이 연합사령부의 설치로 양개 군의 전술작전에 관한 기본적 의사결정을 연합사령관이 하게 되고 중공군이 최고 지휘관을 맡음으로써 중공 지원군사령관 팽덕회가 인민군의 작전통제권까지 행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김일성이 작전통제권을 가진 것처럼 공표하였는데, 이는 중공군이 북한을 돕기 위하여 자원한 군인과 부대들로 구성된 지원군(志願軍)이란 '조작된 주장'을 정당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술책에서 비롯된 것이다.<sup>110)</sup>

중공 지원군사령관이 인민군에 관한 작전권까지 행사하였다는 사실

〈도표〉 공산군의 지휘체계(1950. 11. 23)



은 연합사령부의 설치에 관한 다음과 같은 중공의 전사 기록이 잘 입증해 주고 있다. 이 연합사령부의 설치에 관하여 중국의 전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인민군과 중공 지원군의 작전을 효과적으로 통합조정하기 위하여 양국간의 협상을 거쳐서 12월 상순에 연합사령부를 설치하였으며, 신편된 연합사령부가 작전의 범위와 모든 군사활동을 총괄 지휘통제하게 되었다. 이때 초대사령관 겸 정치위원에 중공 지원군사령관 팡덕회가 임명되고, 인민군 측에서는 1명의 부사령관과 다른 1명의 정치위원을 맡았다. 그리고 이 연합사령부는 대외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sup>111)</sup>

이러한 연합사령부의 기능은 이후 중공군의 공세 계획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인민군 군단이 중공 지원군사령관의 작전명령에 따라 작전을 실시하였다.

한편 이 무렵 중공의 모택동은 국군과 유엔군이 전 전선에서 철수하자 연합사령부 편성 등 그간의 작전성과와 전국(戰局)의 추이를 스

탈린에게 보고하였고, 스탈린으로부터 ‘승전을 축하’하는 전문을 받음으로써 더욱 전의가 고무되었다. 이는 이 전쟁이 스탈린 주도로 전개되고 있다는 또하나의 증거이기도 하였다.

### 3. 共産軍의 38度線 進出

중공군의 2차 공세(11월 공세)로 미 제8군이 12월 초 군우리에서 평양 북쪽으로 철수함으로써 중공 제13병단이 청천강 교두보지역을 확보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그들도 인적 피해는 물론 탄약과 식량이 소진되어 추격작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때 지원군사령관 팽덕회는 일부 부대만 국군과 유엔군을 추격하도록 하고, 주력부대에게는 안주-개천-신창리-북창리를 연하는 선에서 4~5일 동안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 기간동안 탄약 및 식량도 보충하였다.

중공군은 4일 아군의 평양 철수를 간파하고 공격을 재개하였다. 당시 중공군은 유엔군이 평양을 강력히 방어할 것으로 예상하고 조공인 중공군 1개 군과 인민군 1~2개 사단으로 평양을 정면 공격하고, 주공인 5개 군은 동측 후방인 성천, 강동, 곡산, 신계 지역을 공격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때 퇴로차단을 우려한 아군이 철수하면 철수부대의 취약점인 측방을 공격하여 유엔군 주력부대를 격멸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공격계획이 이미 아군의 자발적인 철수로 무산되자 팽덕회는 이번에는 평양 남쪽에서 아군 주력부대를 격멸할 목적으로 서부전선의 부대를 집중하여 17일 중화, 상원, 수안 지역으로 공격을 재개하도록 하였다. 이마저도 국군과 유엔군이 38도선으로 철수함으로써 중공군의 작전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

팽덕회는 최초 아군의 주력을 평양 이남지역에서 격멸하면 38도선을 돌파하고 서울을 재탈취할 계획이었으나 의외로 국군과 유엔군이

전투력을 보존한 채 38도선으로 철수하자 공격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산군은 아군을 계속 추격하여 대전, 대구로 철수하게 하면 상대적으로 그들의 병참선이 신장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38도선 북쪽에서 추격을 중지하였다.

적은 12월 다음해에 새로운 공격작전을 개시하여 국군과 유엔군을 38도선에서 격멸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인민군 제1군단을 개성, 제13병단 이하의 중공 제50군을 금천, 제39군을 구화리, 제40군을 삭령, 제38군을 연천, 제42군을 철원, 제66군을 화천, 그리고 인민군 제2, 제5군단을 양구-인제로 진출시켜 공격을 준비하였다.<sup>112)</sup> 이때 미 제8군이 평양에서 38도선으로 철수하는 동안 곡산-이천 일대에서 유격전을 펼치던 인민군 패잔병들로 구성되었던 부대들도 인민군 제2군단에 편입되어 연천, 춘천, 화천 북쪽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중동부 전선 일대에 집결된 인민군은 약 65,000명으로 추산되었다.<sup>113)</sup>

그리고 서부전선으로 진출 중인 중공군은 청천강-평양 축선에서는 유엔 공군에 의하여 남하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12월 중순 이후부터 아군의 항공폭격을 피하기 위하여 엄폐와 위장을 하고, 또한 주간 이동을 중지함으로써 한동안 접적이 단절되었다. 그러나 하순에 접어들면서부터 항공관측과 첩보기관에 의하여 평양에서 동남쪽으로 이동 중인 중공군의 병력과 보급품이 수차에 관측되었다. 이는 중공군의 새로운 공세가 임박하였음을 예고하는 징후이었다.

## 제 5 절 自由의 選擇과 鬪爭

### 1. 失鄉民의 越南

북한 주민들은 한만국경으로 진출하였던 국군과 유엔군이 중공군의

공세에 밀려 후퇴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다시 공산독재 치하에서의 삶을 거부하고 자유를 찾아 월남행을 결정함에 따라 피난민의 대열은 남으로 뚫린 도로를 가득 메우게 되었다. 또한 일부는 군이 사용중인 항만지역으로 집결하기 시작하였다.

군은 최초 병력과 군수물자의 후송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 군사작전에 지장을 줄 정도의 피난민의 발생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난민의 수효가 증가하자 군은 이들의 안전한 후송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들은 흑한과 질병, 그리고 굶주림에 시달리며 육로와 해상으로 공산 지옥을 탈출하였다.

#### (1) 平安道 地域의 避難

피난민의 이동은 아군이 평양 철수에 앞서 부딪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였다. 평안도지방 피난민들은 중공군보다 한발 앞서 평양을 향해 내려오고 있었고, 이때 피난민으로 가장한 인민군 첩자들이 피난 대열에 침투하여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이들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한 책략을 부림으로써 혼란이 야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산군의 회유나 저지에도 불구하고 평양에는 엄청난 숫자의 피난민이 집결하였다.<sup>14)</sup>

12월 4일 미 제8군이 평양을 포기하고 철수를 개시하자 공산치하의 삶을 거부한 수많은 피난민들이 대동강 철교변으로 집결하였다. 당시 대동강 철교는 아군의 폭격으로 복구되지 않았고, 이 부서진 다리 앞에 밀려든 피난민들은 파괴된 교량을 쳐다보고 발만 구르고 있었다. 일부 피난민들은 철교 난간을 곡예사처럼 걸어서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이때 다수 피난민들이 실족하여 강물로 떨어져 죽기도 하였다. 이 가슴 아픈 정경에도 불구하고 피난민들의 남하는 끊이지 않았다.

이 참담한 광경을 보다못한 국군은 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교



중공군의 침략으로 국군의 평양철수시 수많은 평양시민들이 대동강을 도보로 건너고 있다.(1950.12)

의 절단된 부분에 임시로 나무를 깔아 응급조치를 강구하였고, 피난민들은 그 위로 간신히 건너 안전하게 도강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4일 저녁부터 5일 낮까지 대동강철교를 건넌 피난민의 수는 5만여 명이나 되었다.<sup>115)</sup>

이외에도 뗏목을 만들어 대동강을 건너는 피난민들이 한겨울의 강물을 뒤덮었다. 그리고 미 제8군도 도하장비와 교량을 완전 파괴하기 전까지 대동강상의 가용한 바지선과 주정을 총동원시켜 피난민의 도하를 지원하였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얇은 곳을 찾아 도보로 강을 건너기도 하였다.

천신만고 끝에 도강에 성공한 피난민들은 운이 좋아 기적적으로 국군의 차편을 이용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도보로 몇 백리를 걸어 남하해야 했다. 그들은 평양에서 38도선 남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수차에 걸쳐 인민군 패잔병들의 만행과 기습을 받았고, 또 흑한과 굶주림, 질병이 겹쳐 도중에서 희생되는 사람들도 다수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그들이 피난을 포기하지 않고 정처없는 발길을 굳이 남으로 돌려야 했던 이유는 오직 자유 천지에 대한 갈망 그것뿐이었다.

한편 12월 초순 서해안의 진남포에도 평안도 지방의 피난민들이 밀어닥쳤다. 이 지역 철수작전을 담당한 한미 해군은 철수완료 시일이 임박한 4일, 5만여 명의 피난민 중 3만 명은 해상으로, 2만 명은 육로로 철수시켰다.

당시 피난민의 철수는 군사작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도로상의 피난민 집단은 도처에서 부대 이동이나 보급품 수송에 지장을 주었고, 또 피난민으로 위장한 인민군이나 중공군들이 용이하게 아군 전선으로 침투하였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군 당국은 12월 28일부터는 피난민의 전선 접근을 차단하였다.

## (2) 黃海道民의 避難

황해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6·25를 전후하여 많은 반공투쟁 조직을 결성한 후 조직적으로 인민군에 대항하였다. 이로 인하여 타도(他道)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다. 특히 평안도와 평양에서 남하한 피난민이 합류되면서 사리원-금천-개성을 연하는 도로는 피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다.

12월 중순 유엔군의 철수에 뒤이어 공산군이 개성으로 남하하고, 인민군 경비부대가 황해도로 재빨리 진입함으로써 이들의 육로 피난길이 차단되었다. 피난민들은 해상으로 탈출하기 위하여 장연, 송화, 은울 등 서해안으로 집결하여 소형 선박으로 탈출하는 등 해군의 지원을 갈망하였다. 이 무렵 황해도의 많은 애국청년들은 재령, 신천, 안악, 장연, 송화, 은울 등 여러 마을에서 향토방위대를 조직하여 인민군 제26해안경비여단의 접근을 저지함은 물론 피난민들의 해안지역 집결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난민의 후송과 반공청년들의 활동 지원을 요청 받은 해군은 청년의용군의 엄호는 물론 피난민을 구출하여 인근 도서 지역으로 수송하도록 명령하였다.

해군함정에 의한 피난민의 본격적인 구출은 7일부터 장연군 덕동포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후 피난민 구출작전은 1월 말까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쉬지 않고 계속되었다. 이 작전은 일년 중 가장 추운 계절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과 심한 풍랑, 그리고 해안의 결빙으로 군함을 직접 접안시킬 수 없어 작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해상에 정박한 군함과 해안 사이에는 소형 목선이 동원되었고 그나마 이용가능한 목선이 모자라 육지와 함정 사이를 긴 로프로 연결하여 피난민들이 이를 잡고 승선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서해안으로 탈출한 피난민의 총 수효는 1951년 1월 말까지 62,000여 명이나 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덕적도,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무도 등 서해안 도서지역에 분산 수용되었다.

### (3) 咸慶道 地方의 避難

12월 초순 두만강 부근까지 진격했던 국군과 유엔군이 후퇴를 시작하게 되자 함경도 지방의 많은 주민들이 피난길에 올랐다. 남한까지 먼 거리와 영하 30도의 강추위는 이들 피난민들에게는 거의 절망적인 조건이 아닐 수 없었다. 만약 그들이 어떤 적절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38도선에 이르기 전에 공산군의 진격이 피난민의 대열을 앞지를 것이 자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2월 10일을 전후하여 성진, 함흥, 흥남, 원산 등의 항구에는 피난민들로 큰 혼잡을 빚었다. 당시 미 제10군단장은 최초 군인, 경찰, 공무원 등의 가족들 2만 5천명을 피난시킬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연일 밀려드는 피난민을 보다못해 다시 5만 명으로 늘렸다. 그러나 이것도 부족하여 수송수단이 허용하는 대로 가능한 많은 피난민을 후송한다는 원칙 아래 피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군용선과 목선을 총동원하였다. 피난민들의 선편 후송이 시작되면서 흥남부두를 비롯한 시내 중심가에는 배를 타려는 피난민들로 대혼잡을 이루었다.



그리고 12월 15일 국군 해병대가 미 공군기편으로 연포비행장을 떠날 때 비행장 주변에 몰려든 피난민들 중에는 ‘이 어린 자식만이라도 데려가 달라’고 애원하는 부모들의 눈물겨운 모습도 있었다. 12월 24일 흥남 철수작전이 완료되는 날에도 흥남부두에는 배를 타려는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마지막 수송선이 부두를 떠날 때 육지에 남은 피난민들은 울부짖으며 가는 배를 향해 몸부림쳤고, 일부는 바다에 몸을 던지기도 하였다.

당시 선박들은 한 사람의 피난민이라도 더 승선시키기 위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것은 보통이었다. 2,700톤 급의 온양호는 무려 1만 7천여 명의 피난민을 실어 콩나물시루를 방불하게 했다.

이 기간중에 군이 후송한 피난민은 91,000~98,000명으로 기록되고 있으나 거기에는 유아(幼兒)는 물론 무질서하게 몰려드는 피난민의 승선 인원수를 정확히 추산할 수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실제 수효



흥남부두에 정박 중인 승리호의 승선을 기다리느라고 인산인해를 이룬 피난민들(1950.12.24)

는 10만 명이 훨씬 넘었을 것이다. 이때 거의 같은 수의 피난민이 선박 부족으로 그대로 뒤에 남겨졌다.

이와 같이 북진했던 국군과 유엔군의 후퇴시 자유를 찾아 남하한 피난민은 멀리는 산간 오지인 함경북도 혜산진에서부터 가깝게는 강화도 북쪽의 연백에 이르기까지 북한 전지역에서 발생하였다. 이때가 피난민 발생의 절정기로서 여기에 기술한 군작전의 도움으로 철수한 피난민을 포함하여 이들의 총수는 100만 명을 상회하였다.<sup>116)</sup>

후일 이때의 이별의 아픔을 노래한 ‘군세어라 금순아’라는 제목의 대중가요가 한(限)을 달래면서 한 세대를 풍미하였으며, 오늘도 그 날을 되돌아보게 한다.

## 2. 反共遊擊隊의 鬭爭

조국의 해방과 더불어 국토가 분단되고 북한지역에 공산정권이 들어서자 각 지방에서는 반공 민주인사와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크고 작은 단체를 조직하여 공산정권에 대항하였다. 그러나 전쟁 이전에 전개한 인민군의 대대적인 토벌작전으로 대부분의 단체들은 와해되었고, 일부는 지하로 잠입하여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다.

1950년 10월 국군이 북진을 개시하자 이들은 다시 조직을 재건하여 향토치안 유지와 지역내 인민군 패잔병을 소탕함은 물론 각종 첩보를 수집하여 국군을 지원하였다. 그러던 중 중공군의 침략으로 상황이 역전되어 국군과 유엔군이 철수를 개시하자 이들도 진퇴양난의 심각한 상황에 봉착하였다.

이때 공산군의 보복을 우려한 대부분의 무장단체들은 국군을 따라 남하하였으나, 해안 일대에서 활동한 일부는 국군과 유엔군이 곧 반격을 재개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무장유격대로 전환하여 투쟁을 계속하였다.

이들의 활동은 주로 황해도 지역에 집중되어 내륙 구월산 일대에는 송화치안대, 연풍부대, 백호부대, 수월부대 등이 활동하였고, 은율, 장연, 웅진 등의 서해안 지역에는 신천무장치안대, 신화치안대, 송림부대, 웅진학도유격대 등이 활동하였다. 그리고 동해안에는 이들이 근거지를 마련할 도서가 부족하여 유일하게 고원 청년유격대가 원산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유격대들은 향토 사수를 결의하였지만, 활동하기엔 화기와 탄약은 물론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적의 주력부대들이 진출함으로써 이들의 결사적인 분전도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비록 병력과 화력은 열세하지만 강인한 정신력과 익숙한 지형을 이용하여 적의 진출을 방해하거나 피난민의 해안 집결을 엄호하였다. 이 과정에서 적의 추격을 받게 된 유격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피 및 탈출을 계속하였다. 때로는 절벽을 기어오르고, 또 얼음을 깨면서 바닷가를 가로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전에도 불구하고 유격대들은 인민군의 대대적인 소탕작전에 밀려 대부분 1951년 1월 말에 향토에서 근접한 백령도, 초도 등으로 철수하여 국군과 유엔군의 재반격을 기다리게 되었다. 이들 자생 유격부대들은 후일 국군과 유엔군이 편성한 유격부대의 기간요원이 되었다.

## 주 기

- 1) 軍事科學院 軍事歷史研究所 編著, 中國人民志願軍 抗美援朝戰史,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1988), 韓國戰略問題研究所(譯), 中共軍의 韓國戰爭史, (서울: 世經社, 1991), p. 41.
- 2) 위의 책, p. 43.
- 3) 위의 책, p. 44.
- 4) 위의 책, p. 44.
- 5) 외무부, 소련자료(4), p. 88.
- 6) 앞의 책, pp. 54~55.
- 7) 러시아 국방부 중앙문서보관소, '제64전투비행단 전투활동', 1996. 9. 국방군사연구소 수집.  
James F. Schnabel, Robert J. Watson, *The Histro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Joint Chiefs Staff : 197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美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상), 1990, p. 222. 여기에는 MIG-15의 조종사의 국적에 관하여는 밝히지 않고 있다.
- 8) 로보트, 북한의 하늘 아래, (항공과 우주비행).
- 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청천강 전투, 1985, p. 170.
- 10)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Center of Military History U. S. Army, Washington, D. C., 1990, 육군본부(역), 밑물과 썰물, 1992, p. 33.
- 11) 위의 책, p. 35.
- 1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앞의 책, pp. 250~251.
- 13) 위의 책, p. 234.
- 14) 국방부, 한국전란 1년지, 1951, pp. C-25~C-28.
- 1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앞의 책, p. 260.
- 16)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앞의 책, p. 54.

- 17)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49.
- 1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청천강 전투, p. 197.
- 19) 위의 책, p. 209.
- 20) 제2연대가 덕천에 투입된 날짜를 「청성전사」에는 11월 24일로 기록되어 있으나 당시 군단장인 유재홍 장군의 회고록에는 25일로 기록되어 있다.
- 21)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62.
- 22) 이 작전은 1개월 내에 종료되고,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유엔군 특히 미군이 귀국길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으로 크리스마스 공세라고 불리었다.
- 23) 육군본부(역), 위의 책, p. 71.
- 24) James F. Schnabel, *Police and Direction : The First Year*, OCMH, US Department of Army, 1972, 육군본부(역), 정책과 지도, 1974, p. 357.
- 25) 육군본부(역), 밑물과 썰물, p. 94.
- 26) 육군본부(역), 정책과 지도, p. 357.
- 27) 육군본부(역), 밑물과 썰물, p. 122.
- 28) 위의 책, p. 68.
- 29) 위의 책, p. 108.
- 30) 위의 책, p. 103.
- 31) 위의 책, p. 109.
- 32) 군우리(軍隅里)는 한국전쟁 이후 개천으로 개칭되었다.
- 33)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앞의 책, p. 56.
- 3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1980, p. 301
- 35) 개천(价川)은 한국전쟁 이후 구읍리로 개칭되었다.
- 36) 육군본부(역), 밑물과 썰물, p. 98.
- 37) 위의 책, p. 99.
- 3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320.
- 39) 육군본부(역), 밑물과 썰물, p. 103.
- 40) 위의 책, p. 102.
- 41) 위의 책, p. 103.

- 42) Roy E. Appleman, *Disaster in Korea*, Texas A & M University Press, 1989. 육군본부(역), 한국전쟁의 서부전선, 1995. p. 263.
- 43) 육군본부(역), 밀물과 썰물, p. 69.
- 44) 위의 책, p. 70.
- 45) 위의 책, p. 107.
- 46) 위의 책, p. 111.
- 47)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앞의 책, p. 60.
- 48) 육군본부(역), 한국전쟁의 서부전선, p. 304.
- 49) 육군본부(역), 밀물과 썰물, p. 112.
- 5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청천강 전투, p. 275.
- 51) 육군본부(역), 한국전쟁의 서부전선, p. 307.
- 52) 육군본부(역), 밀물과 썰물, p. 113.
- 53) 위의 책, p. 114.
- 54) 위의 책, p. 115.
- 55) 위의 책, p. 118.
- 56) 위의 책, p. 120.
- 57) 위의 책, p. 123.
- 5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장진호 전투, 1981, p. 84.
- 59) 웨이스특수임무부대는 미 제7사단 제31연대 제3대대, 제32연대 제1대대, 제57포병대대(1개중대 결)로 구성되었으며, 제32연대 제1대대장인 웨이스(Faith)의 이름을 따서 웨이스특수임무부대로 명명함.
- 6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장진호전투, p. 87.
- 61) 육군본부(역), 밀물과 썰물, p. 125.
- 62)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앞의 책, p. 62.
- 63) 위의 책, pp. 62~63.
- 6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장진호 전투, p. 199.
- 65) 육군본부(역), 밀물과 썰물, p. 137.
- 6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장진호 전투, pp. 202~203.
- 67) 위의 책, p. 222.
- 68) 위의 책, p. 241.

- 69) 앞의 책, p. 252.
- 70) 육군본부(역) 밀물과 썰물, p. 147.
- 71)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앞의 책, p. 74.
- 72) 육군본부(역) 밀물과 썰물, p. 127.
- 7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4권), 1971, p. 798.
- 7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5권), 1972, p. 224.
- 7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5권), 1972, p. 230.
- 76) 육군본부(역), 밀물과 썰물, p. 147.
- 77) 육군본부(역), 정책과 지도, p. 358.
- 7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한국전쟁(상), p. 279.
- 79) 육군본부(역), 밀물과 썰물, p. 149.
- 80)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앞의 책, p. 61.
- 81) 육군본부(역) 밀물과 썰물, p. 150.
- 82) 위의 책, pp. 151~153.
- 83) 위의 책, pp. 150~151.
- 84) 육군본부(역), 한국전쟁의 서부전선, p. 385.
- 85) 백선엽, 군과 나, (서울 : 대륙출판사, 1989), p. 144.
- 8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5권), p. 146.
- 87)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앞의 책, p. 67.
- 88) 육군본부(역), 한국전쟁의 서부전선, p. 419.
- 89)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앞의 책, p. 68.
- 90) 육군본부(역), 밀물과 썰물, p. 170.
- 91) 정일권, 정일권 회고록, p. 328.
- 92) 국방군사연구소 소장, '이동용 소위 증언록'.
- 93) 제8사단, 오뚜기 약사, 1969, p. 209.
- 94) 유재홍, 격동의 세월, (서울 : 을유문화사, 1994), p. 241.
- 95) 국군 제18연대는 최초에는 수도사단의 예속부대이었으나 함흥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국군제3사단으로 예속이 변경되었다. 이때 제3사단의 제26연대가 수도사단으로 예속되었다.
- 9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5권), p. 359.

- 97) 앞의 책, p. 364.
- 98) 위의 책, p. 368.
- 99) 위의 책, p. 345.
- 100) 위의 책, p. 347
- 101) 육군본부(역), 밀물과 썰물, p. 190.
- 102) 위의 책, p. 191.
- 103) 위의 책, p. 181.
- 104) 위의 책, p. 182.
- 105) 정일권, 앞의 책, p. 336.
- 106) 육군본부(역), 밀물과 썰물, p. 184.
- 107)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앞의 책, p. 44.
- 108) 외무부, 소련자료.
- 109) 외무부, 소련자료.
- 110) 육군본부(역), 밀물과 썰물, p. 43.
- 111)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앞의 책, p. 85.
- 112) 위의 책, pp. 68~69.
- 113) 육군본부(역), 밀물과 썰물, p. 166.
- 114) 육군본부(역), 한국전쟁의 서부전선, p. 383
- 115) 이북5도, 이북5도 30년사, 1981, p. 75.
- 116) 국방부, 한국전란 1년지, p. C-301.



## 제 4 장 1·4 後退

### 제 1 절 彼我的 戰爭指導

#### 1. 共產軍의 勝利 擴大戰略

중공군은 10월 공세와 11월 공세로 평양을 탈환한데 이어 12월 중순까지 인민군이 잃었던 38도선 북쪽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하였다. 이때 중공지도부는 1~2차 공세작전을 통하여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자 승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3차 공세(신정공세)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은 3차 공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쟁지도부와 현지에 파견된 지원군사령관 사이에는 공세시기 문제를 두고 내부적인 갈등이 표출되었다.

당시 지원군사령관 팡덕회(彭德懷)는 전선상황을 다음과 같이 중공군사위원회에 보고하였다.<sup>1)</sup>

동부전선의 중공 제9병단은 장진호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어 함흥 지역에서 2개월간 휴식 및 정비를 실시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서부전선의 제13병단은 2개월 동안 계속된 작전으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몹시 지쳐 있다. 또한 아군은 병참선이 남쪽으로 신장됨에 따라 유엔공군의 항공폭격에 취약하여 솜옷, 담요, 이불 등의 월동피복은 도중에 소실되었고, 또 유류, 식량, 부식 등의 보급물자는 수송수단이 부족하여 적시에 보급되지 못하고 있으며 쇠약자와 환자들도 급격히 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0월과 11월에 실시한 전투는 공격 중인 국군과 유엔군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아군이 기습공격을 실시함으로써 성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차후 작전은 38도선에 방어진지를 구축한 적(국군과 유엔군)을 공격하는 진지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군은 진지전에 대한 경험과 교육도 불충분한 상황이다.

반면 적은 방어로 전환하여 전선을 축소시켜 병력을 집중 배치함은 물론 방어중심도 강화하였고, 또 제병과 협동작전도 유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군의 사기는 종전보다 다소 저하되기는 하였으나, 현재 약 26만여 명의 병력을 보유하여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공군은 겨울 동안 충분한 휴식과 부대정비를 실시하고, 또 증원부대인 중공 제19병단이 참전한 이후인 1951년 2~3월경에 제3차 공세를 개시하여 적 주력부대를 격멸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모택동은 지원군사령관이 건의한 전략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12월 19일 다음과 같이 공격 재개 명령을 하달하였다.<sup>2)</sup>

적(유엔군)은 아군(공산군)을 정전(停戰)으로 유인하여 휴식기간을 가진 후 재공격할 음모를 기도하고 있고, 또한 유엔군을 파견한 국가들간에도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이 상충되어 혼란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군을 집중적으로 섬멸하면 미군과 유엔군을 고립시킬 수 있고, 그후 미군 몇 개 사단만 섬멸하면 한반도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아군이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의 약점을 이용하여 38도선을 넘어 다시 일전을 치른 후 1~2개월 동안 휴식과 정비를 취하면서 춘계공세를 준비하도록 한다.

이 명령에 의거 지원군사령관은 “겨울 동안 휴식한다”는 당초의 전략계획을 바꾸어 3차 공세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3차 공세의 목

표는 1, 2차공세에서 획득한 승리를 확대하여 서울을 점령해 정치, 군사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37도선까지 진출하여 부대 재정비와 새로운 부대를 증원받아 춘계공세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때 김일성도 12월 하순에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3차 공세의 작전방침을 하달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적(국군과 유엔군)이 38도선 방어를 강화하기 전에 전선동부의 산악지형을 이용하여 적 방어가 약한 전투지경선 부근으로 침투한 후 후방에 강력한 제2전선을 깊숙히 형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서부전선의 중공군이 주저항선을 돌파하면 이들과 연결작전을 실시하여 포위망을 구축한 후 적을 섬멸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었다.<sup>3)</sup>

## 2. 유엔군의 逐次防禦戰略

국군과 유엔군이 평양에서 철수를 시작하자 유엔군의 한반도 철수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극동군사령부와 미 합동참모본부, 미국과 유엔 참전국, 그리고 유엔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로 인하여 정부와 국민, 그리고 국군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유엔군의 철수결정을 우려하여 노심초사 하였으나 다행히 전쟁전의 38도선 부근에서 휴전을 모색하는 안으로 압축되어 한숨 돌릴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 결정에 따라 제8군의 군사작전도 축차방어전략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신임 제8군사령관으로 부임한 리지웨이 장군은 부산으로 철수를 주장하던 워커 장군과는 달리 이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미 제8군은 한반도에서 물러나지 않고, 부대를 신속히 재정비하여 다시 공세를 취할 것”임을 다짐하였다.<sup>4)</sup>

당시 미 제8군의 작전방침은 38도선에서 부산까지의 공간지역을 최대한 활용해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이용하여 축차적인 지연전을 펼

처 적의 출혈을 강요한 후 공세작전으로 이전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6개의 방어선을 설정하였다.<sup>5)</sup>

### 유엔군의 축차 방어선

제1통제선: 38도선 진지로, 임진강 하구에서 양양에 이르는 주저항선.

제2통제선: 수원-양평-홍천-주문진을 연하는 선으로, 평택-삼척선의 방어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선.

제3통제선: 평택-안성-원주-삼척을 연하는 선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방어정면이 협소하여 방어에 유리한 지역.

제4통제선: 금강선으로 금강 남안과 소백산맥을 연하는 방어선.

제5통제선: 소백산맥 선으로 이 산맥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낙동강 방어선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선.

제6통제선: 낙동강 방어선으로 유엔군이 최대한의 저항을 시도할 진지이다. 이 방어선마저 무너지면 유엔군은 일본으로, 국군은 연안 도서로 철수시킬 계획이었다.

리지웨이 장군이 부임하고 축차방어 개념이 확정되자 이를 설명하기 위한 한미 양군의 합동작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상황판에 제시된 38도선에서 낙동강까지 약 300km 중심에 그어진 6개의 방어선에 대하여 리지웨이 장군은 “이 6개의 방어선은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까지 물러나기 위하여 설정된 단계별 저지선이 아니다. 아군이 각 단계마다 중공군에게 최대의 출혈을 강요하고, 기회를 보아 즉시 반격으로 전환하여 적을 섬멸하기 위한 선”임을 주지시켰다. 그리고 “최악의 위기상황을 맞더라도 국군과 유엔군은 37도선 아래로는 절대 철수하지 않을 것임”도 강조하였다.<sup>6)</sup>

부임(1950년 10월 26일) 후 서부전선을 시찰한 리지웨이 장군은 다음날 미 제1, 제9군단장과 작전회의를 거쳐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전

방부대들의 서울 남쪽으로의 철수시 이를 엄호하여 혼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서울 북쪽에 중간통제선인 교두보선을 설정하였다.

교두보선은 한강에 설치된 부교들이 적의 포격권에 들지 않도록 중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주 부근의 한강제방—의정부 남쪽—서울 동쪽을 연하는 반원형으로 설정하였다. 양 군단이 이 선으로 철수시에는 공격해 오는 적을 역공하면서 철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적이 통과할 도로변의 감제고지에 보병과 기갑으로 편성된 강력한 부대를 배치하여 주력부대들이 교두보선으로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적의 진출을 저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12월 말에 적의 공격을 우려한 미 합참본부가 “만일 중공군이 전력을 다해 공격한다면 유엔군을 한국에서 축출할 만한 충분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리지웨이 장군은 우발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난 9월에 세웠던 낙동강 방어계획을 되살려 종전의 낙동강 방어선 뿐만 아니라 이 선과 부산 사이에 마산—동해안, 진해—동해안, 낙동강하구—동해안을 연하는 3개의 방어선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각 방어선은 마산, 진해, 부산의 항만을 둘러싸며 남해안과 동해안을 반원형으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는 제2군 수사령관 가빈(Crump Garvin) 장군에게 한국인 노무자와 가용한 전물자를 동원하여 이 선에 강력한 요새화 진지를 구축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러한 미 제8군의 축차적인 방어전략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평양에서 철수한 이후 장병들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됨은 물론 전의마저 상실되었고, 지휘관들의 통솔력에도 결함이 있었다. 특히 아군의 후방지역을 교란하고, 중요 병참선을 차단하기 위하여 동부전선으로 침투 중인 인민군의 저지 여부가 핵심과제로 대두되었다.

## 제 2 절 서울의 再失陷

### 1. 中共軍의 新正攻勢

국군과 유엔군이 접적을 단절하고 38도선 부근에서 주저항선 구축에 주력하는 동안 적은 그들의 3차 공세 결정에 따라 공세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당시 제8군의 정보부서들은 적의 가용병력이 17만 4천여 명 정도라고만 판단하였을 뿐 그들의 위치나 기도를 모르고 있었다. 이에 제8군사령관은 전방사단에 정찰대를 적진 깊숙히 침투시켜 적의 위치와 규모를 탐지하도록 명령하였다.

미 제8군사령관은 4일간의 전선시찰을 통하여 적의 공세가 아군의 경계가 느슨해질 연초에 시작될 것임을 예상하고 서울로 복귀하였다. 이 무렵 제8군 정보참모도 적의 공격이 임박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 보고에 의하면 서부전선의 개성-문산 축선에 인민군 제1군단과 중공 제50군이, 임진강 상류지역에는 중공 제39군이, 연천-의정부 축선에는 중공 제38군과 제40군이 배치되었고, 중부전선의 철원-화천 일대에는 중공 제66군과 제42군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화천 동쪽에서 동해안까지 국군이 방어 중인 중동부전선에는 인민군 제5군단과 제2군단이 배치되었고, 또 함흥에 위치한 인민군 제3군단과 중공 제9병단도 중동부전선으로 투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sup>8)</sup>

이때 중공군은 2차에 걸친 공세작전으로 입은 병력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중공에서 고참병 8만 4천 명을 차출하여 전선부대에 보충하였고, 보급수송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의선(정주-맹종리), 만포선(회천-개천)의 일부 철도도 긴급 복구하였다.

공격준비가 완료되자 지원군사령관 팽덕회는 인민군 3개 군단과 중공군 6개 군(군단규모)의 협동작전으로 국군과 유엔군이 방어 중인

38도선을 돌파하고, 임진강 동쪽과 북한강 서쪽에 배치된 국군 제1, 제2, 제5, 제6사단의 일부를 섬멸하는 공세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상황이 순조롭게 전개된다면 계속 공격하여 신속하게 서울과 춘천, 홍천, 양양, 강릉 일대를 점령한 후 휴식과 재정비를 진행하면서 춘계공세를 준비하기로 작전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공격계획을 하달하였다.

#### 신정공세 계획(요지)<sup>9)</sup>

- (1) 우전방 5개 군(중공 제38, 제39, 제40군, 인민군 제1군단)은 주공으로 동두천, 서울 방향으로 공격하며, 좌전방 2개 군(중공 제42, 제66군)은 가평, 춘천을 공격한다. 그리고 인민군 2개 군단(제2, 제5군단)은 자은리, 홍천 방향으로 공격한다.
- (2) 인민군 제1군단은 문산 지역을 양공하여 중공군의 공격을 지원하고, 중공군의 우측방을 엄호한다. 그리고 일부 부대는 적의 상륙에 대비하여 해주 해상을 방어한다.
- (3) 중공 제50군은 고랑포리에서 중공 제39군과 협조하여 국군과 유엔군의 증원을 차단하거나 국군 제1사단을 공격한다.
- (4) 중공 제39군은 임진강을 도하, 일부 부대는 신산리로 진출하여 국군 제1사단의 퇴로 및 증원을 차단하고, 주력은 제50군과 협동으로 국군 제1사단을 포위공격한다.
- (5) 중공 제38군은 한탄강을 도하, 일부 부대는 칠봉산으로 진출하여 국군 제6사단의 퇴로 및 증원을 차단하고, 주력은 중공 제40군과 협조하여 국군 제6사단을 포위공격한다.
- (6) 중공 제40군은 한탄강을 도하 동두천 방면으로 공격하여 중공 제38군 및 제39군과 협동으로 국군 제6사단을 포위공격한다.
- (7) 중공 제66군은 지암리로 진출하여 중공 제42군과 협조하여 국군 제2사단을 포위공격한다. 그리고 일부 부대는 춘천을 공격하여 국군 제5사단을 고착 견제하여 인민군 제2, 제5군단의 공격을 지원한다.

- (8) 중공 제42군은 중공 제66군과 협조하여 국군 제2사단을 포위 공격한다.
- (9) 인민군 제5군단은 양구, 인제로 진출한 후 국군 제1, 제2군단의 전투지경선을 따라 공격하여 홍천으로 진출한다. 퇴로가 차단된 국군을 전방부대와 협조하여 포위공격한다.
- (10) 인민군 제2군단은 공세가 개시되기 전에 은밀하게 38도선에 침투한 후 홍천 동남방으로 진출하여 전선부대와 연결작전을 준비한다.
- (11) 인민군 제3군단은 원산을, 제4군단은 서해안을 각각 방어한다. 그리고 중공 제9병단은 함흥지역에서 계속 정비와 휴식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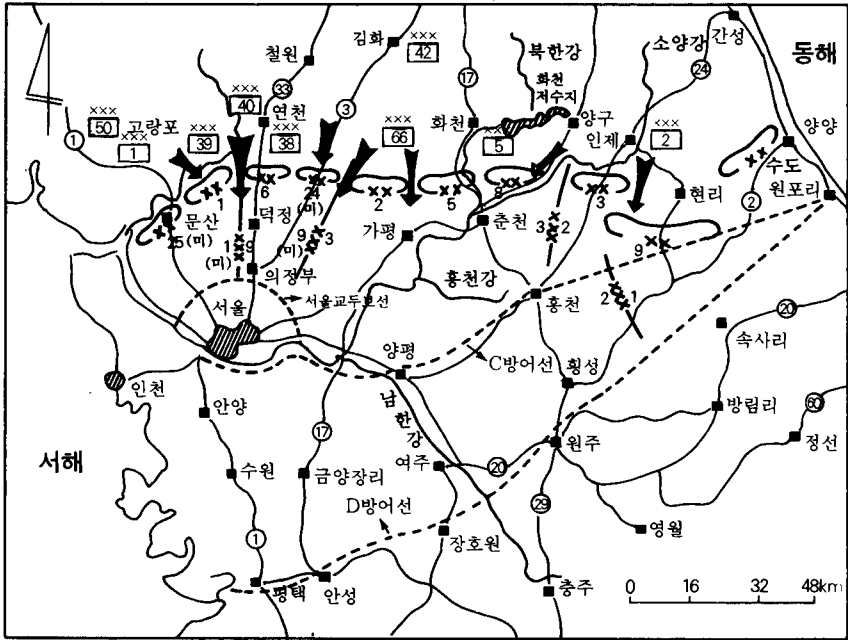
이 계획에 의거 공세준비를 완료한 공산군은 12월 27일 공격대기 지역을 은밀하게 점령하였다. 이때 인민군 제1군단은 사리원 남쪽에, 중공군의 제50군은 개성 동쪽에, 제39군은 구화리 지역에, 제40군은 삭령 지역에, 제38군은 연천 지역에, 제42군은 철원 동쪽에, 제66군은 김화 남쪽으로 각각 진출하였다. 그리고 인민군 제2, 제5군단의 5개 사단은 홍천 지역으로 진출하고 있었고, 잔여부대는 인제에 집결하였다.<sup>10)</sup>

이 무렵 아군의 항공정찰대는 적의 대규모 포병진지가 주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 제1, 제9군단의 전투지경선인 연천-의정부 도로에 중점적으로 배치되었고, 또 임진강변에서 다량의 교량용 물자들이 비축되어 있는 것도 관측하였다. 그리고 생포된 포로들도 적의 주공은 서울로 지향되었으며, 공격은 12월 31일 밤에 시작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sup>11)</sup>

정찰과 도하준비를 완료한 적은 기습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로 얼룩진 1950년의 마지막 날을 공격개시일로 결정하고, 이날 17:00에 약간의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후 신정공세를 개시하였다.



중공군의 신정공세(1950. 12. 31~1951. 1. 1)



이로써 12월 중순 이후 소강상태가 유지되었던 한반도의 38도선은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었다.

## 2. 38度線 防禦

1950년 12월 31일은 이해의 마지막 날이자 일요일이었다. 그럼에도 육군본부 상황실에는 총참모장을 비롯한 정보국장, 작전국장 등의 수뇌부들이 모였고, 전원이 긴장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한겨울의 짧은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총참모장은 군단장들에게 일몰과 동시에 경계를 한층 강화하도록 지시하였다.<sup>12)</sup> 이때까지의 전선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잠시후 어둠이 깔리자 중공군은 임진

강을 도하하여 국군 제1사단 지역으로 신정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중공 제13병단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공격범위를 우측으로 확대하였고, 자정 무렵에는 증원부대를 투입하여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단의 전투지경선 부근에 배치된 국군 제6사단을 공격하였다. 그리고 3시간 후에는 춘천 북쪽의 국군 제5사단을, 새벽에는 철원-포천 도로 우측의 국군 제2사단을 공격함으로써 국군이 담당할 방어의역은 화염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로써 국군은 6개월 만에 다시 38도선에서 중공군과 한판 승부를 펼치게 되었다.

### (1) 臨津江 附近 戰鬪

국군 제1사단은 한국전쟁이 개시된 이후 6개월 동안 전황의 추이에 따라 임진강-낙동강-청천강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임진강변으로 철수함으로써 두 번이나 이 지역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 무렵 생사고락을 같이한 많은 전우들이 혈전의 격전장에서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고 사단을 떠났고 그 자리는 신병으로 보충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사단내에는 주변 지형에 익숙한 다수의 고참병들이 남아 있어 방어진지 편성이나 정찰활동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

사단은 적의 주공이 예상되는 고랑포 정면 임진강 남쪽의 장파리-마포리-도감포 일대에 주저항선을 구축하였다. 이때 사단은 방어정면이 넓어 좌전방 제11연대를 비장리 일대에, 우전방 제12연대를 도감포 일대에 중점적으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사단에비인 제15연대는 방어가 취약한 전방연대의 전투지경선 부근을 보강함과 동시에 유사시 전방연대들의 철수를 신속히 엄호하기 위하여 적성 남쪽의 마지리 일대에 배치하였다. 사단은 방어진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뢰와 철조망을 가설하는 동안 수색대를 강북으로 파견하여 적정을 탐지하는데도 주력하였다.

백선엽 준장은 당시 상황을 “사단의 방어지역은 전쟁 직전 제1사

단이 배치되었던 곳에서 다소 동쪽으로 옮겨간 위치였으며, 넓은 정면에 비해 병력은 부족하였고, 그해 겨울의 유난했던 혹한으로 임진강은 꽁꽁 얼어붙어 하천방어의 이점을 기대할 수 없었다. 철조망과 지뢰 등을 주요 접근로에 설치하고, 언 땅을 파 진지와 교통호를 구축하면서 사기가 땅에 떨어진 병사들을 독려해 가며 방어준비에 온 힘을 기울였다.”<sup>13)</sup>고 그때를 회고하였다.

1950년의 마지막을 알리는 해가 서산에 기울자 적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제12연대가 거점을 구축한 도감포 지역으로 집중포격을 개시하였다. 이 포격이 끝나자 중공 제116사단은 2개 연대규모로 임진강을 도하하기 시작하였다. 연대는 적의 도하를 저지하기 위하여 최후저지사격으로 맞섰으나 역부족이었고, 포위를 우려한 전방대대들



중공군이 1950년 말 밤에 임진강을 건너 신정공세를 개시하고 있다.

은 감악산 하단으로 철수하였다.

임진강 남쪽에 교두보를 확보한 중공군은 후속부대를 도하시켜 연대를 추격하기 시작하였고, 또 일부 적은 좌전방 제11연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20:00경에는 제12연대의 일부가 도로를 따라 철수하여 예비인 제15연대가 방어 중인 적성 남쪽 진지로 접근하였고, 그 뒤를 중공군이 추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제15연대는 사격도 하지 못한 채 방어진지 일부를 돌파당했고, 중공군이 내륙 깊숙히 침투함으로써 사단의 우전방 지역에 돌파구가 형성되었다. 이때부터 사단은 밤새도록 돌파구 확대를 기도하는 중공군을 맞아 총력전을 펼쳤다. 밤이 깊어갈수록 상황이 악화되어 사단은 사령부의 공병, 통신병 등의 병력으로 대전차공격대대를 혼성편성하여 제12, 제15연대지역으로 투입하였으나 전선을 수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설상가상으로 통신마저 유지되지 않아 제12연대와 제15연대의 상황도 파악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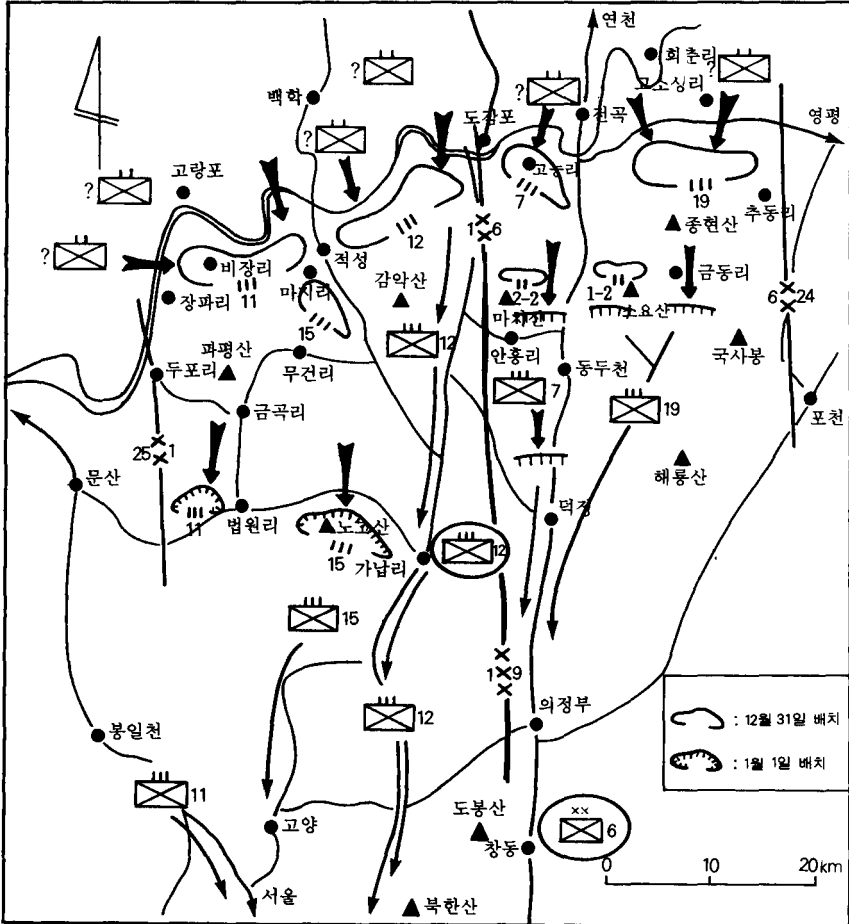
새해의 첫날이 밝을 무렵 사단은 두포리-금곡리-무건리 선에 제11연대와 제15연대를 배치하여 적의 돌파구 확대를 저지하고, 적중을 돌파한 제12연대는 덕정 서쪽의 가납리 일대에서 재편성에 들어갔다.

당시 상황이 중공군의 전사에는 “제39군의 주력은 31일 17시 40분에 임진강을 돌파하였으나 제117사단은 도중에 5차에 걸친 강력한 저항을 받아 1일 5시에 동두천 남서쪽 비상리, 선암리로 진출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sup>14)</sup>

낮 동안 아군의 항공폭격과 포병사격이 집중되자 적의 공세는 다소 주춤하였고, 전선은 잠시 소강상태를 유지하였다.<sup>15)</sup> 정오가 지나자 미 제1군단장은 국군 제1사단의 엄호하에 미 제25사단과 영 제29여단은 교두보선을 점령하도록 명령하였고, 이때 사단은 문산-법원리-신촌리를 연하는 도로변의 감제지형을 확보하고 미군 및 영국군의 기동을 엄호하였다.

해가 서산에 떨어지자 중공군은 공격을 재개하였고, 사단은 군단의

문산-동두천 전투(1950. 12. 31~1951. 1. 2)



철수를 엄호하기 위하여 총력전을 벌였다. 자정 무렵 미 제25사단과 제29여단이 교두보선을 확보하자 이때부터 중공군은 우전방 제15연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제15연대는 노고산 일대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적의 돌파구 확대를 저지하고자 새벽까지 고군분투하였으나 역부족이었고, 사단명

령에 의거 지연전을 펼치면서 고양리로 철수하였다. 이로 인하여 좌전방 제11연대가 법원리 일대에서 1개 대대규모의 적을 맞아 격전 끝에 적을 격퇴하였으나 적중에 고립되었다. 다행히 날이 밝자 중공군이 아군의 항공폭격을 우려한 듯 공격을 중지함으로써 연대는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사단은 군단명령에 따라 2일 제12연대가 제일 먼저 한강 남쪽으로 철수한데 이어 제15연대도 철수하였고, 이들의 철수를 엄호한 제11연대도 미 제25사단의 전초진지인 봉일천 일대에 파견된 전차로 증강된 1개 대대규모의 엄호하에 군단에서 지원된 차량편으로 철수를 개시하였다.

사단은 1월 3일 한강 남쪽의 영등포-노량진-동작동을 연하는 선에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이 무렵 수많은 피난민들이 긴 대열을 이루어 강변의 도처로 쇄도하였다.

이때 사단장병들은 한강 남쪽의 제방에서 부교를 이용하거나 얼어붙은 강 위로 그냥 한강을 건너는 피난민을 바라보고 나서, 혹은 속에서 피난길에 오른 이들에 대한 죄책감을 만회하기 위한 결전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였다.

## (2) 東豆川 附近 戰鬥

국군 제6사단은 전곡-동두천 도로 좌측의 고능리 부근에 제7연대를, 우측의 추동리에 제19연대를 배치하여 주저항선을 편성하였다. 이때 사단의 책임지역 내에는 한탄강과 도처에 단애지역이 산재해 있어 방어에 유리하였다. 그리고 제2연대는 사단의 방어중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차산과 소요산 일대의 예비진지에 배치되었고, 사단의 좌인접에는 국군 제1사단이, 우인접에는 미 제24사단이 배치되어 있었다.

사단은 12월 중순부터 보름 동안 주저항선의 전투진지를 보강하면

서 진전정찰도 강화하였다. 또 적의 예상접근로인 연천-동두천 도로에 대전차치뢰와 기타 장애물을 설치하였다. 당시 눈이 쌓이고 지반이 동결되어 진지를 구축하는데 무척 어려움이 있었으나 혼신의 노력으로 진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 무렵 제19연대 정찰대가 23일 한탄강 북쪽으로 진출하여 중공군 2명을 생포하였고, 이들은 중공 제38군의 주력부대가 연천 일대에 집결해 있으며 불원간 남침을 개시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연말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적 정찰대의 규모와 정찰횟수도 눈에 띄게 증가되었다.

사단은 1950년 마지막 날을 맞아 특별경계 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수도 특식으로 지급된 떡을 나누어 먹으면서 희망찬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날 저녁 무렵 좌인접 국군 제1사단이 공격준비사격을 받을 때 사단지역 내에도 수많은 적의 포탄이 떨어졌고, 사단도 이에 대포병전을 실시하였다.

적은 개전 초기처럼 주공을 동두천-의정부 축선에 두고, 중공 제38군을 주축으로 사단 전 정면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때 적은 비무장한 양민들을 선두에 세워 사단의 지뢰지대를 통과하도록 한 다음 주력이 인혜공격을 개시하였다.<sup>16)</sup> 중공군은 전곡 도로와 회춘리, 고소성리 일대로 진출을 기도하였으나, 제7, 제19연대가 적의 파상공격을 최후저지사격으로 저지 및 격퇴하였다.

사단이 정면의 적과 격전을 펼쳐 격퇴하는 동안 좌인접 사단의 국군 제12연대 지역을 돌파한 적의 일부가 사단의 후방지역인 안흥리 부근으로 진출하고, 우인접 미 제24사단을 돌파한 일부 적이 동두천을 기습공격하였다. 1951년 1월 1일 새벽 적이 사단의 후방지역으로 침투하면서부터 사단의 전세는 급격히 악화되어 방어진지 일부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전황의 불리함을 간파한 사단장은 포위를 우려하여 전방연대에 동두천 북쪽의 저지진지를 점령 중인 제2연대의 엄호하에 덕정 부근의

예비진지로 철수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사단의 철수는 용이하지 않았다. 좌전방 제7연대는 정면의 적과 교전이 치열하여 08:00에 접적을 단절하고 철수를 개시하였으나 적이 먼저 덕정 부근을 차단하고 있어 산간통로를 이용 의정부로 향해야만 했다. 우전방 제19연대도 산간 협로를 따라 철수 중 우인접 제24사단을 돌파한 적의 공격을 받아 연대의 일부가 분산된 채 덕정으로 철수하였다. 그리고 10:30에는 동두천 일대가 적의 수중으로 들어가 전방연대의 철수를 엄호한 후 철수를 개시한 제2연대도 퇴로가 차단되어 간신히 적진을 돌파하고 철수하였다. 이때 미 제9군단장 쿨터(John B. Coulter) 소장은 퇴로가 차단된 사단을 증원하기 위하여 군단예비인 영 제27여단을 덕정 부근에 투입하였다.<sup>17)</sup>

이와 같이 사단이 적 주공부대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 어렵게 철수할 때 제8군사령관은 사단장에게 덕정 일대의 예비진지 점령을 포기하고 전 부대를 창동에 집결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후 사단은 군단예비가 되어 한강 남쪽을 방어하기 위하여 2일 아침에 이동을 개시하였으나 완전한 편제를 유지한 연대는 없었다.

먼저 이동한 제2연대가 한강 남쪽의 광진교-신장리를 연하는 방어선을 점령하는 동안 제19연대도 수진리에서 재편성을 완료하고 남한산 북동쪽 고등리에 배치되었다. 그리고 제7연대는 경기도 광주에 집결하여 계속 부대를 정비하였고, 이때까지도 분산 철수한 사단의 낙오병들은 속속 복귀하고 있었다.

### (3) 春川 附近 戰鬪

국군과 유엔군이 38도선 부근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동안 중서부전선은 대체로 소강상태를 유지하였으나 유독히 국군이 전담하고 있는 중동부전선에서는 인민군이 주저항선 후방지역인 홍천, 현리 일대로 제2전선부대를 침투시켜 거점 확보를 기도함으로써 이들과의



접전이 끊이지 않았다. 이때 국군 제3군단은 제2사단을 명지산 북쪽의 고지군에, 제5사단을 화천-춘천 도로변의 지촌리 일대에, 제8사단(제7사단 제3연대 증강)을 화천저수지 남쪽의 내평리 일대에, 그리고 제3사단을 인제 남쪽 소양강변의 청구리 일대에 배치하여 주저항선을 편성하였다. 군단은 강설과 혹한으로 진지구축이 어려웠고, 설상가상으로 도로마저 결빙되어 식량, 탄약 등의 보급도 제한되었다. 그럼에도 공병부대들은 적의 주접근로인 화천-춘천 도로상에 수많은 지뢰와 장애물을 설치하였다.

당시 상황을 제5사단 제27연대 제6중대장이었던 차규헌(車圭憲) 대위는 “중대는 북한강 동쪽의 고탄리(古呑里) 부근의 고지에 배치되었다. 다행히 이곳은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아군이 진지를 구축하였던 지역으로 진지 구축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으나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식수문제였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독한 날씨에 주변이 푹푹 얼어 붙어 민가나 개울까지 내려가서 식수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것도 인민군의 기습공격이 우려되어 중대는 부득이 반합에 눈을 녹여 이 물을 사용하였다.”라고 회고하였다.<sup>10)</sup>

서부전선의 국군 제1, 제6사단이 31일 저녁 무렵부터 중공군의 집중공격을 받았으나, 군단지역은 의외로 소강상태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자정이 지나면서부터 제2사단과 제5사단이 중공군의 집중공격을 받기 시작하였다.

제2사단의 좌전방 만세교리 동쪽에 배치되었던 제17연대와 우전방 화악산 일대에 배치되었던 제32연대는 적의 초기 공격에 주저항선이 돌파되어 철수를 개시하였으나, 좌우인접 사단과의 전투지경선 부근으로 침투한 적에 의하여 퇴로가 차단되어 분산 철수하게 되었다. 이에 사단장은 즉시 예비인 제31연대를 투입하여 가평 북쪽의 목동리로 진출 중인 적을 차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후 연대와 사단은 물론 사단과 군단 간에도 지휘통신이 마비되어 상황파악이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국군 제5사단의 좌전방 제36연대는 북한강 동쪽 지암리 일대에서, 중앙의 제35연대는 북한강 서쪽의 송암리에서, 우전방 제27연대는 고성리 일대에서 각각 중공군의 공격을 받았다. 이때 제35연대와 제27연대는 적의 공격이 경미하여 지연전을 펼치면서 춘천 부근으로 집결하고 있었다. 그러나 좌전방 제36연대는 적의 공격도 완강할 뿐만 아니라 좌인접 제2사단 제32연대를 돌파한 적이 후방으로 진출함으로써 퇴로 차단을 우려한 연대도 부득이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제36연대는 가평으로 철수하기 위하여 신당리에 집결하여 목동리로 이동하고자 하였으나 중공군이 한발 앞서 진출하고 있었다.

연대는 이 적을 저지하고 있는 제31연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먼저 1개 대대를 파견하였으나 중공군이 증원부대를 목동리로 투입함으로써 제36연대는 완전히 적중에 포위되었다. 부득이 연대는 동쪽의 북배산과 용문을 경유 양평으로 철수하였다.<sup>19)</sup>

한편 내평리 일대를 방어 중인 제8사단은 접적이 경미하여 계속 주저항선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좌우인접 사단이 철수하면서부터 적중에 고립될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사단도 홍천으로 철수하였다.

#### (4) 麟蹄—縣里 附近 戰鬥

중서부전선의 국군과 유엔군이 중공군의 신정공세를 받고 있을 무렵 중동부전선의 국군 제2군단(배속: 제3사단)과 제1군단(배속: 제9, 수도사단)의 상황은 판이하게 달랐다. 양 군단은 정면공격보다 오히려 신정공세 이전에 후방으로 침투하여 퇴로를 차단한 인민군 제2군단과 제5군단의 일부 부대와 격전을 벌이게 되었다.

제3사단은 인제—홍천 도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소양강변의 관대리 일대에 주저항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사단이 주저항선 방어에 주력하고 있을 무렵 약 1개 연대규모의 적이 우인접 제9사단 제28연대 지역을 침투하여 사단의 후방교란 및 보급로를 차단할 목적으로 횡성

북쪽의 창봉리에 출현한 데 이어 홍천으로 북상 중임이 판명되었다. 이때 사단장 최석 준장은 전방연대는 자은리-홍천-원주 진출을 기도하는 인민군 제2사단을 저지하도록 하고, 사단예비로 홍천에 집결 대기중인 제23연대는 사단을 증원하기 위하여 횡성에서 북상 중인 제2사단 제23연대와 협조된 공격작전을 펼쳐 후방 퇴로를 차단 중인 인민군을 격멸하도록 하였다. 31일 한미 양사단의 제23연대는, 북쪽과 남쪽에서 포위공격을 펼쳐, 삼마치 일대에서 적을 격퇴하고 연결함으로써 사단의 퇴로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날 저녁에 사단은 육군본부로부터 국군 제2군단 배속에서 해제됨과 동시에 군예비가 되어 평창으로 이동하여 국군사단이 방어 중인 지역에 대한 역습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사단은 축차적인 지연전을 펼치면서 평창으로 이동을 개시하였다.

한편 현리 남쪽의 상남리 부근을 방어 중인 제9사단은 1월 1일 오덕준(吳德俊) 준장의 후임으로 사단장에 부임한 김종갑(金鍾甲) 준장의 지휘 아래 수일전에 피탈당한 현리 지역을 재탈환하기 위하여 상남리-1091고지-광주동-방태곡-용포를 목표로 공격을 재개하였다. 그런데 이날 12:00에 좌인접 국군 제3사단 지역을 돌파한 적 1개 연대규모가 오마치고개 서쪽의 금부리 전방으로부터 기습공격을 가해옴으로써 사단은 진출을 멈추고 적과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게 되었다. 사단은 2일 18:00까지 혈전을 펼쳤으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곧 닥쳐올 일몰을 우려하여 접적을 끊고 방태곡으로 철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29연대 제3대대가 적의 포위공격을 받아 적중에 고립되어 분산 철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동해안을 방어 중인 수도사단은 도채동-서림-양양선에 주저항선을 구축하고 적의 정면공격에 대비하였다. 그러나 적은 정면공격보다 오대산과 설악산으로 연결되는 산악지형을 발판으로 사단의 후방으로 진출하여 후방을 교란시키는 작전을 기도하였다. 이때 제26연대는 12월 30일 제9사단 제30연대와 협동작전으로, 사단후방지역인

대사리로 진출하여 이 일대에 출몰한 적 약 1,000명을 포착하여 화력 전에 이은 백병전을 전개한 끝에 이들을 격파 분산시켰다. 제26연대 제3대대는 이 적을 추격하여 하진부리까지 진출하였으나 분산 탈주에 능한 적을 추격하는데 실패하였다.

한편 항상 격전장을 시찰하던 리지웨이 장군은 적의 공격이 완강할 뿐만 아니라 항공정찰을 통하여 철원 방면에서 적의 대부대들이 내려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국군 제1, 제6사단지역에 형성된 적의 돌파구를 역습으로 회복할 기회를 놓쳤고, 중동부전선의 국군 제3군단도 적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 제2, 제5사단이 적중에 포위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리지웨이 장군은 제8군의 지휘권을 인수한 지 6일 만인 1951년 1월 1일 정오에 미 제1, 제9군단은 서울 교두보선으로 철수하고, 국군 3개 군단을 C방어선(한강-양평-홍천-원포리)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sup>20)</sup>

#### (5) 서울 橋頭堡線 確保

미 제8군사령관은 미 제1, 제9군단의 서울 교두보선(행주-의정부-퇴계원) 점령에 앞서 양 군단장에게 교두보로 철수시 긴밀히 협조하여 강력한 지연전을 펼치면서 철수하도록 하고, 철수도 아군의 항공폭격이 가능한 주간에 실시할 것을 강조하였다.

미 제1군단장은 점적이 경미한 문산 일대에 배치된 미 제25사단을 국군 제1사단의 엄호하에 이동을 개시시켜 1번 도로 좌측의 원당 일대를, 군단예비로 신둔리에 집결 중인 영 제29여단을 도로 우측의 고양 일대를 점령하도록 하였다. 군단의 철수를 탐지한 중공군은 오후 내내 국군 제1사단 정면을 돌파하려고 파상공격을 하였으나, 사단의 주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였다. 이 틈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기동한 제25사단과 제29여단은 자정 무렵에 교두보선을 확보하였고, 뒤이어 접적을 끊고 철수하는 국군 제1사단의 철수를 엄호하게 되었다.

이때 제1군단장은 제25사단장 킨(William B. Kean) 소장과 제29여단장 브로디(T. Brodie) 준장에게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교두보진지를 확보하도록 당부하였다. 그러나 제8군사령관은 이 선을 최후의 결전장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군의 사기를 고려하여 큰 손실을 입지 않고도 적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전을 전개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교두보 방어는 사수보다는 상황에 따라 대처하게 되었다.<sup>21)</sup>

한편 미 제9군단은 전방의 국군 제6사단과 미 제24사단이 축차적



의정부 일대에서 남하하는 중공군을 저지하기 위해 미 제204 야전포대가 포격을 가하고 있다.

인 지연작전을 펼쳐 덕정 일대에 배치된 영 제27여단의 엄호하에 의정부 남쪽으로 철수하여 교두보선 우측방을 점령하도록 계획하였다. 이 계획에 의거 군단의 우전방 제24사단은 이날 자정 무렵에 교두보선을 확보하였으나 좌전방 국군 제6사단은 후방으로 진출한 중공군에 의해 퇴로가 차단되어 분산 철수함으로써 군단예비인 제27여단이 교두보선 좌전방을 담당하게 되었다.

아군이 교두보선을 점령한 이후 적의 결정적인 공격은 없었으나 중공군이 최소한 이 선에서 15km 내에 있거나 그보다 더 가까이 접근한 것 같았다. 또 그들의 부대배치와 진격속도로 미루어 보아 교두보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은 3일로 예상되었다.

당시 중공군은 교두보 지역에 4개 사단이 공격 중인 것으로 식별되었고, 그들의 예비로 개성에 위치한 제50군은 1번 도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김화에 집결 중인 제42군은 3번 도로를 따라 서울로 진격하거나 춘천, 가평으로 진출이 가능하였다.

2일 저녁에 제8군사령관은 교두보 지역의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태국대대를 영 제29여단에 배속하였고, 경주에서 전방으로 이동 중인 미 제10군단의 제92, 제96포병대대를 적 주공을 사격할 수 있도록 미 제1, 제9군단 지역에 배치시켰다. 그리고 제1, 제9군단장에게 예하부대가 포위나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들의 진지를 방어하도록 다시 강조하였다.

### 3. 서울 撤收

#### (1) 서울 撤收 決定

리지웨이 장군은 미 제8군사령관으로 부임 후 이 대통령을 면담한 좌석에서 “우리는 한반도에서 물러나지 않고, 군대를 신속히 재정비

하여 다시 공세작전을 펼칠 것이다”라고 공언하였으나, 국군과 유엔군은 그의 의도와는 달리 중공군의 신정공세를 받고 불과 며칠 사이에 38도선 부근의 주저항선에서 물러났다. 그것도 적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주면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철수한 데 대하여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38도선에서 물러난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단이 그가 서울 방어를 위하여 설정한 교두보선을 점령하고는 있으나 서울 고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서울 철수를 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서울 철수를 결심하게 된 첫 번째 동기는 2일 한강상에 설치된 교량을 통제하던 공병부대의 보고 때문이었다. 공병부대는 서울에서 철수하는 민간인들이 교량이 아닌 한강을 도보로 횡단하는 모습을 보고, 한강이 도보로 도하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 결빙되었음을 즉시 보고하였다. 이는 적의 전면공격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빙된 한강을 통한 우회공격을 해울 경우 포위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난민들이 결빙된 한강을 이용하여 남하를 계속하면, 중공군은 피난민을 엄폐물로 역이용하여 아군 진지로 쉽게 접근할 수도 있었다. 또한 도강한 피난민 대열이 아군의 주병참선을 이용하여 계속 남쪽으로 철수하게 되면, 이는 아군의 부대기동과 물자 수송을 제한하여 차후작전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 분명하였다.

두 번째 이유는 동부전선의 불안이었다. 이에 대처하여 리지웨이 장군은 2일 저녁 무렵 주저항선의 방어를 보강하기 위하여 미 제10군단을 중부전선에 투입하고 국군 군단들의 전투평성과 작전지역도 조정하였다. 즉 제1군단(제9, 수도사단)과 제3군단(제3, 제7사단)으로 협준한 태백산맥과 그 동쪽 지역의 흥천-원포리 선을 점령, 확보하도록 하고, 제3군단의 제2, 제5, 제8사단은 미 제10군단에 배속하였다. 그리고 국군 제2군단(배속: 제11사단)을 대전으로 이동시켜 후방지역 공비토벌작전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3일까지도 동부전선의 국군 부대들이 C방어선(양평-흥천-

원포리)을 점령하지 못하자, 리지웨이 사령관은 이 방어선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작전참모는 현 상황에서는 그 남쪽의 D방어선(평택-안성-장호원-원주-원포리)의 점령도 어렵다고 건의하였다. 또 사령관은 원주가 피탈되면 서부전선 부대들이 우측방으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무렵 중공 제66군은 중공 제42군의 지원을 받아 가평을 점령하였고, 3일 08:00에는 중공군의 긴 종대가 서울-춘천 도로를 따라 가평 남서쪽으로 이동 중인 것이 목격되었다. 그 선두부대는 퇴계원 일대를 방어 중인 미 제1기병사단의 24km 전방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이때 중공군이 기병사단을 우회하여 서쪽으로 공격한다면 1번 국도를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농후하였다.

상황을 종합 분석한 제8군사령관은 제8군에 대한 위협이 결정적 시기에 도달하였다고 결론짓고, 3일 정오 무렵에 교두보에 배치된 부대에 이날 늦게 교두보에서 철수하게 될 것이라는 준비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때 적의 공격 자체는 위협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한강을 통한 75,000명의 병력과 그들이 휴대한 장비의 이동은 물론 정부 및 서울 시민을 소개(疏開)시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었다.

이 무렵 공산군 연합사령부는 국군과 유엔군의 서울 철수를 간파하고 전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3일 공격을 재개하도록 명령하였다. 한선초(韓先楚)가 지휘하는 우공격제대(중공 제38, 제39, 제40, 제50군, 인민군 제1군단)는 서울, 인천, 수원, 양평을, 오서림(吳瑞林)이 지휘하는 좌공격제대(중공 제42, 제66군, 인민군제2, 제5군단)는 홍천, 횡성, 양양, 강릉을 각각 점령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양제대가 상기 선으로 진출하면 즉시 공격을 중지하고 휴식과 재정비를 실시하여 차기 공세 작전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sup>22)</sup>



## (2) 橋頭堡線 部隊의 撤收

1번 국도를 따라 진출한 중공 제50군은 3일 03:00경 미 제25사단을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이어서 일출 무렵에는 33번 도로(철원-연천-의정부)를 따라 진출한 중공 제39군의 일부는 영 제29여단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 공방전은 역습에 역습을 반복하면서 오후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동쪽의 미 제9군단 지역에서는 중공 제38군과 제40군의 일부 부대가 새벽 05:00경부터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이 공격은 오전에 멈추었다.

제8군사령관은 3일 오후에 미 제1, 제9군단이 협조된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교두보로부터 철수하도록 명령하였고, 한강 다리의 통제는 제1군단장에게 위임하였다. 이때 교두보에서 철수하면 미 제1군단은 서울비행장, 김포공항 그리고 인천에 있는 부대와 시설의 철수를 엄호할 수 있도록 부대를 배치하고, 미 제9군단은 영등포에서 남한강과 북한강의 합류점까지 한강 제방을 따라 부대를 배치하기로 하였다.

이때 리지웨이 장군은 아군의 사기를 고려하여 사용 가능한 장비는 유기하지 말고, 부상 또는 전사자는 반드시 후송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적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주어 그들의 진격을 지연시키고 아군 부대는 전투력을 유지하도록 강조하였다.

이에 양 군단장은 교두보선에서 후퇴할 계획을 준비하고 조정하였다. 최초에는 제1군단은 서울 바로 남쪽의 2개의 교량을 이용하고, 제9군단은 멀리 떨어진 동쪽의 1개 교량을 이용할 계획이었으나 제9군단의 일부도 남쪽 교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당시 한강에 설치되었던 기존 교량들은 파괴된 채 방치되었고, 미 공병대가 가설한 몇 개 임시 교량을 통하여 국군과 유엔군은 물론 피난민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한강을 도하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서울 서쪽의 미 제1군단 지역에는 M-4 부교와 중장비를 도하시킬

수 있는 부교가 설치되었고, 동쪽의 미 제9군단 지역에는 M-2 부교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피난민들은 주로 5개의 도보교를 이용하였다.<sup>23)</sup>

미 제1군단의 철수는 미 제25사단의 일부가 미 제9군단의 영 제27여단과 협조하여 군단 주력의 철수를 엄호하도록 하였다. 주력부대의 철수가 완료되면 미 제25사단을 터키 여단과 국군 제1사단 사이의 염창동 일대에 배치하고, 영 제29여단을 군단예비로 수원에 집결시킬 계획이었다. 군단이 철수를 개시할 무렵인 3일 16:00까지 교두보지역에서는 소강상태가 지속되었으나 중공군의 제50군과 제39군의 선두부대는 교두보 바로 외곽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무렵 항공정찰대가 “적의 대부대와 야포를 포함한 장비들이 1번 국도와 33번 도로를 따라 남하 중이며, 그리고 미 제9군단을 공격할 목적으로 경춘국도로 진출 중인 중공 제38군과 제40군의 공격은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함으로써 미 제1군단 전방의 중공군은 교두보를 공격하여 추격작전을 펼칠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군단은 미 제25사단 제27연대의 엄호하에 사단주력이 차량으로 철수를 완료하자 이어서 18:40에 영 제29여단이 이동을 개시하였다. 제29여단이 이동하고 있을 자정 무렵에 중공 제39군의 주력부대가 철수 중인 제29여단의 후미를 기습공격하였다. 그러나 군단은 엄호부대인 제27연대를 제외한 전부대가 이미 한강 이남으로 철수함으로써 증원부대의 투입이 어려웠다. 이 과정에서 제29여단은 200~300명의 인원과 10대의 전차 손실을 입었으나 여단주력은 강 남쪽으로 철수하였고, 이 철수는 4일 03:30경 완료되었다. 마지막으로 교두보선 부대의 철수를 엄호한 제27연대도 철수를 준비하였다. 연대는 제1대대로 하여금 적이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한강변과 경의선 철도, 그리고 1번 국도에 각각 1개 중대씩 배치하여 연대의 철수를 엄호하도록 조치하고 주력의 철수를 서둘렀다. 이때 적의 일부가 연대주력의 철수를 저지하고자 기도하였으나 연대는 성공적으로 접적을 단절하고 철수하였다. 새벽 무렵 1개 대대규모의 적이 철로변에 배치된 중대를

공격하였으나 항공포격의 지원으로 적의 돌파를 저지하였다. 이 전투로 연대의 철수는 다소 지연되어 11:00경에는 적과 접촉을 단절하고 철수를 개시하였고, 13:00경에 전부대가 한강 남쪽으로 이동을 완료하였다. 아군의 철수완료를 기다리고 있던 한강 교량통제반은 14:00에 임시가교를 폭파시켰고, 이로써 서울 철수작전은 종료되었다.

한편 미 제9군단의 철수는 적의 방해가 없어 마치 훈련을 하듯이 진행되었다. 3일 오후 영 제27여단의 엄호하에 미 제24사단이 차량으로 철수하였고, 이어서 제27여단의 제일 마지막 대열은 4일 02:00에 철수를 종료하였다. 이어서 공병부대가 M-2 조립교를 분해하기 시작하였고, 공병대는 5시간 동안 조립교를 해체하려고 애썼으나 혹독한 추위에 부품들이 얼어붙어 별 효과가 없었다. 교량통제를 맡고 있던 부사단장 데이비드슨(Garrison H. Davidson) 장군은 07:30경 교량을 폭파하도록 명령하였다.

항공관측에 의하면 교량이 폭파된 지 1시간이 경과할 무렵 중공군이 서울에 입성하였으며, 얼마후 서울 시청 건물에 인공기가 나무끼는



끊어진 한강다리에 부교를 가설하고 유엔군이 서울에서 철수하고 있다.

것이 목격되었는데, 이것은 태극기와 인공기가 세 번째 바뀌는 순간이었다.<sup>24)</sup> 이로써 아군은 수도 서울을 두 번째 적의 수중에 넘겨주고 D방어선(평택-안성-원주-삼척)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 (3) 軍需支援部隊의 撤收

미 제8군사령관은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 교두보와 C방어선으로 철수함으로써 경인지역에 설치된 보급소가 위태롭게 되자 1월 3일 제3군수지원사령관에게 D방어선 북쪽에 위치한 보급시설을 철수시키고, 또 인천항은 4일 정오에 폐쇄하도록 명령하였다.

당시 제3군수지원사령부는 전방부대가 평양에서 철수를 개시한 12월 초부터 인천항과 김포비행장에 축적된 군수물자를 점차적으로 감소시켜 최저의 보급수준만 유지하고 있어 물자 후송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4일 정오까지 유조선과 철도레도 등을 후송할 수 있는 특수선박이 부족하여 약간의 물자가 남아 있었다. 군수지원사령관은 미 제1군단의 철수 시간에 쫓겨 인천항, 김포공항, 부평보급소에 있던 160만 갤런의 석유 제품과 9천 톤의 공병자재, 그리고 12대의 화물차에 실린 탄약을 파괴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포비행장과 인천항을 파괴시킬 요원들만 잔류시키고 기타 지원부대 요원들은 육로와 비행기로 부산으로 철수시켰다.

오후가 되자 김포비행장의 잔류요원들은 건물, 항공유, 네이팜탄 등을 차례로 파괴한 후 마지막으로 인천과 김포 간의 송유시설을 파괴하였다. 이어서 제50공병 항만건설중대 요원들이 인천항을 폭파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항만건설중대는 1개의 부두시설과 월미도로 연결되는 도로를 제외한 모든 시설을 파괴시켰는데, 여기에는 조류를 조절하는 갑문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폭파작업은 5일 15:00까지 계속되었다.

당시 긴박한 철수시간과 가용한 만조시간 등을 고려하면 물자의 파

괴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으나 항만시설에 대한 광범위한 파괴는 문제가 있었다. 적으로 하여금 항만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점에서는 이론상으로는 타당한 것이었지만, 유엔군이 해상의 주도권을 완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인천항의 파괴는 불필요한 조치이었다.

이외에 수원비행장에도 육군과 공군의 군수물자가 비축되어 있었고, 이 물자를 후송하는데 24~36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리지웨이 사령관은 4일 정오경 철수 준비 명령을 하달할 때 전투부대들이 D방어선으로 철수하기 이전에 이 물자를 후송시킬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 제1, 제9군단장에게 강력한 지연전을 펼치도록 강조하였다.

리지웨이 사령관은 수원에 있는 보급품의 후송작업이 5일 정오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D방어선으로 철수를 명령하였다. 그러나 그는 5일 아침 수원과 그 남쪽 비행장에 비축된 물자를 정오까지 후송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물동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서울 일대에서 내려온 피난민 10만여 명이 수원역 부근에 집결하여 열차의 운행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sup>25)</sup> 리지웨이 사령관은 미 제1, 제9군단장에게 군수물자의 후송이 완료될 때까지 현진지를 고수하도록 긴급히 명령하였다. 이 조치로 수원에 비축되었던 보급품도 후방으로 후송되었다.

#### (4) 民間人의 撤收

국군과 유엔군이 38도선 진지에서 철수하자 이 일대에 거주하고 있던 지역 주민들도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피난민들의 철수가 작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제8군사령관은 2일 특별 훈령으로 피난민의 전선 진지 통과를 금지하도록 하고, 서울-인천 간의 이동도 경인국도가 아닌 좌우측의 보조도로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교두보선 철수명령을 내린 직후 리지웨이 장군은 중공군이

그들의 전진을 엄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인들을 이용하는 전술을 취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3일 15:00를 민간인들이 한강을 도하할 수 있는 최종시간으로 결정하였고, 그가 승인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력히 통제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정부에도 통보하여 서울시민들에게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 상황을 정일권(丁一權) 총참모장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나는 경무대로 대통령을 방문하여 작전경과를 설명하고 다시 한번 서울을 떠나야 함을 보고하였다. 대통령은 군사작전을 위해서라면 따라야겠지, 서울시민과 피난들에게 면목없다. 지난 6월에는 혹독한 추위만은 없었는데 금년 정월은 유난히도 추운데, 어린이와 부녀자, 그리고 노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고 걱정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한강도하를 위해 임시가교를 튼튼히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sup>26)</sup>

이번 민간인의 철수는 초기전투시 무질서한 피난민의 철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정부와 군은 지난 2주 동안 필수요원을 제외한 정부 관리와 그 가족, 입원환자, 고아원의 원아,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 수감자와 행정부처의 문서, 주요 문화재, 발행권 등도 후송하였다. 당시까지 서울에 잔류하고 있던 인원은 일부 정부관리와 시청 직원, 유엔사절단, 종교계통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이들에게는 1번 국도를 이용할 수 있는 특별통행증이 발부되었다. 2일 미제1군은 강 남쪽에 도강통제소를 설치하였고, 경찰은 도강을 적절히 통제하고 안내하기 위하여 시내에 교통통제소를 설치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산으로 갈 정부 관료들이 철수함으로써 이날 철수작전은 차질없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일부 민간인들은 4일 낮까지 도교와 빙판을 가로질러 철수하였다. 그리고 미처 피난하지 못한 민간인들의 대부분은 한강 북쪽의 가까운 시골로 피난을 떠나 서울 시내는 텅빈 상황이었다.



1.4후퇴 때 남하하는 피난민의 대열. 마차, 리어커, 자전거 등 손쉬운 수송수단을 최대한으로 이용, 가구와 생필품을 싣고 남하하고 있다.

당시 민간인의 철수상황을 리지웨이 장군은 그의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공포에 싸인 수십만의 피난민이 이용할 도로와 부교는 오직 중지도에서 노랑진으로 설치된 부교 하나뿐이었다. 이 부교에서 혼잡이 야기될 경우에는 군사작전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나는 피난민의 통제를 위해 팔머(Charles D. Palmer) 장군에게 최악의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해서라도 민간인의 통행을 통제하여 철수작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특별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러한 명령은 어리석은 나의 기우임이 입증되었다. 피난민들은 순순히 따라 주어 특별히 군이 통제할 필요가 없었다. …… 피난민들은 중공군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외는 다른 목적이 없었으므로 가재도구를 머리에 이거나, 짊어진 채 혹독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차

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 눈물짓거나 울부짖는 사람도 없었다. 그들은 눈뺨는 발자국 소리만 남기며, 묵묵히 강을 건너고 있었다. 나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이 참혹한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sup>27)</sup>

#### 4. 平澤－三陟線으로 撤收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에서 철수하였지만, 그때 제8군사령관은 미 합참본부에 “중공군의 신정공세로 아군이 잠시 어려운 상황에 처하긴 하였으나 미군은 아직 중공군을 대적할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방어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였다.

당시 그는 “중공군은 단지 수적으로만 우세할 뿐 무기체계에서는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매우 열등하다. 그리고 항공지원 능력도 없고, 빈약한 통신장비와 소수의 기갑차량을 갖고 있을 뿐이다.”라고 평가하였다.

미 제1, 제9군단이 서울 교두보선에서 철수를 준비하는 동안 중공군의 위협적인 공세는 없었으나 아군이 D방어선(평택－안성－장호원－원주－원포리)으로 철수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동부전선이 돌파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아군 방어선의 취약지역은 국군이 담당하고 있던 춘천, 홍천, 인제 지역이었다. 이 일대에 투입된 70,000여 명의 인민군과 중공군의 일부는 춘천－홍천－횡성 도로와 동쪽 산악지대로 진출하여 원주를 공격하고 또 일부는 남서쪽으로 공격방향을 전환하여 미 제1, 제9군단을 포위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D방어선으로의 철수가 결정되었다.<sup>28)</sup>

한강 남쪽으로 철수한 미 제1, 제9군단은 4일 인천과 수원 일대에서 진행 중인 군수물자 후송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연전을 펼치면서 수원 북쪽으로 철수 중에 있었다. 제8군사령관은 저녁 무렵 추격



하는 중공군에 대해 전차로 증강된 엄호부대를 편성하여 강력한 역습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주력은 5일 정오에 D방어선으로의 철수를 개시하라고 명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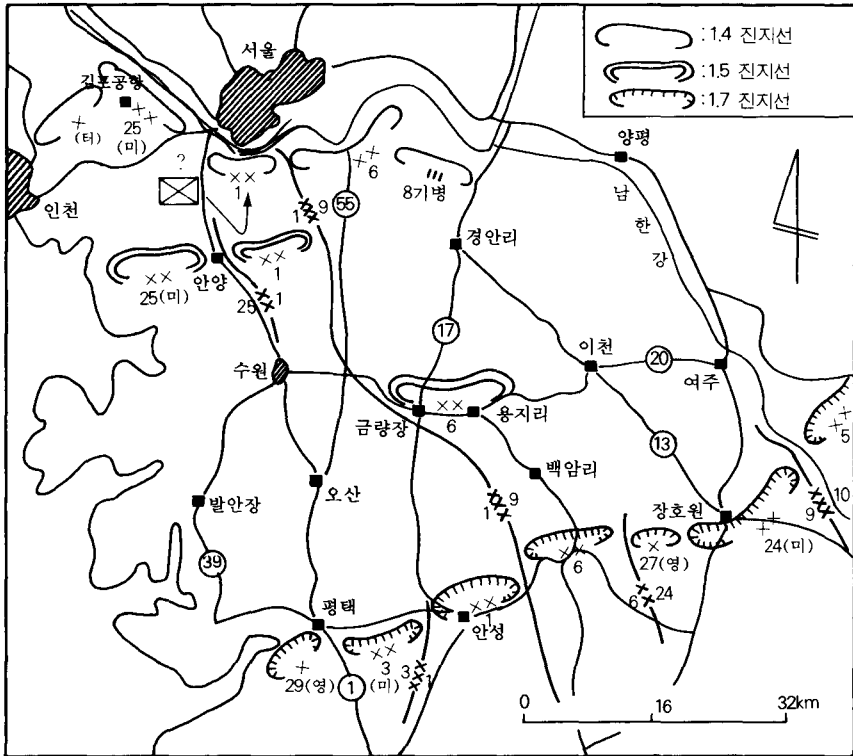
접적이 경미한 미 제1, 제9군단은 5일 아침 철수준비를 완료하고 대기 중에 있었는데, 10:00경 제8군은 수원에 비축된 보급물자의 후송이 지연됨에 따라 차후 명령시까지 현진지를 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때 미 제1군단은 주력부대를 안양 일대에 배치할 수 있었으나, 제9군단에서는 명령 전달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다. 이때 미 제9군단에 배속 중인 국군 제6사단은 선발대로 철수를 개시하였고, 이 명령은 사단이 수원 동쪽으로 진출할 무렵에 전달됨으로써 사단은 금양장리-양지리 도로에 배치되었다.

이날 밤 적 1개 연대규모가 한강을 도하, 관악산을 넘어 국군 제1사단 전지역을 포함한 전선 일대를 정찰하였으나 다행히 국군 제6사단의 철수로 인해서 생긴 우측방의 노출된 지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6일 아침부터 대대규모의 적이 국군 제1사단의 중앙지역을 돌파하려고 오전 내내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14:00경 퇴각하였다. 이후 접적이 없는 상황에서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단이 평택-안성-장호원을 연하는 선을 점령함으로써 서부전선 부대들의 철수작전은 일단락 되었다.

미 제1군단은 평택 남쪽의 1번 국도 좌측 서해안 지역에 영 제29여단(배속:태국 대대)을, 우측의 구룡지대에 미 제3사단을 17번 도로 우측 안성 일대에 국군 제1사단을 배치하여 주저항선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방어중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 제25사단과 터키 여단을 천안에 집결시켜 군단예비로 하였다.

미 제9군단도 국군 제6사단을 좌인접 국군 제1사단과 연결하여 죽산리 일대에, 영 제27여단을 법천리 일대에, 미 제24사단을 장호원 일대에 배치하여 주저항선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미 제1기병사단 주력은 군단예비로 충주에 집결하여 병참선을 엄호하도록 하고 제5기

평택-삼척 방어선으로 철수 상황



병연대는 단양 일대에서 활동 중인 적 유격대의 준동에 대비 충주-문경 간 도로를 확보하도록 조치하였다.

서부전선의 제1군단과 제9군단이 평택-안성-장호원을 연하는 D선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할 무렵 리지웨이 장군은 양 군단이 철수시에 적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지도 못하고, 실질적인 지연전도 펼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였다. 당시 양 군단이 서울 교두보선에서 철수한 이후 주요부대들이 적과 접촉을 단절하였으며, 국군 제1사단이 안양 부근에서 적과 격돌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전을 치르지 않았다.

한편 중공 지원군사령관 팡덕회는 한강 남쪽으로 적(국군과 유엔군)을 추격하였으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대량 섬멸의 기회를 포착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이를 적이 의도적으로 평택-안성-계천-삼척 선으로 물러나 아군(중공군과 인민군)을 유인하기 위한 철수작전이라고 판단하고 8일 추격작전을 중지하였다.<sup>29)</sup>

## 5. 中東部戰線의 危機

중공군은 신정공세에서 주공을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단 지역으로 지향하였고, 조공은 중부전선의 국군 제3군단을 공격하였다. 아군이 중서부전선에 관심을 집중하는 동안 또 하나의 조공부대인 인민군 제2군단과 제5군단은 중서부전선 부대의 측후방을 공격하기 위하여 태백산맥의 험한 준령을 이용하여 중동부전선으로 소리 없이 침투하고 있었다.

중서부전선 부대들이 중공군에 밀려 서울과 한강 북쪽에서 철수하여 D방어선을 점령할 무렵 전선 상황은 일시 소강상태가 유지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적은 신정공세를 마무리짓기라도 하듯 이번에는 인민군을 동원하여 도화선에 불을 당김으로써 쌍방은 중동부전선에서 치열한 혈전의 공방전을 펼치게 되었다.

### (1) 人民軍의 企圖

인민군의 주력부대로 낙동강 방어선까지 진출한 바 있는 인민군 제2군단은 아군의 반격작전에 괴멸의 위기상황까지 몰렸으나 중공군의 참전으로 2개월 간의 시간을 벌어 재편성을 완료한 후 신편된 제5군단과 같이 다시 중동부전선에 배치되었다. 두 군단은 중공군의 신정공세를 지원하기 위하여 12월 하순 태백산맥의 험한 준령과 국군사

단들의 광정면 방어로 인한 배치 공간을 이용하여 제2, 제12사단을 주저항선 후방으로 침투시켰다.

이로 인하여 중동부전선에 배치되었던 국군 제3군단은 퇴로가 차단됨으로써 주저항선의 방어에 실패하고 후방으로 물러나게 되었으며, 또 인제로부터 홍천에 이르는 지역에 돌파구를 허용하게 되었다.

국군은 중공군의 신정공세 초기부터 전방과 후방에서 협공을 받아 수세에 몰려 적과 접촉을 단절하고 C방어선 확보에만 주력함으로써 적의 기도를 파악하는데 실패하였다. 이때 항공관측과 기타 첩보에 의하면 “인민군 제3군단이 전선에 배치된 제2, 제5군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함흥, 원산 일대에서 인제로 남하 중에 있으며, 또 적의 대부대들이 원주 북쪽에 집결 중임을 목격하였다.”고 수차에 걸쳐 보고되었다.

바로 이때 원주를 방어 중인 미 제2사단의 정찰대가 생포한 포로들의 진술에 의해 적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폭로되었다. 포로들은 “신정공세를 개시한 인민군의 제5군단과 제2군단의 전투지경선은 춘천-홍천-횡성을 연하는 29번 도로이다. 이 도로와 그 서쪽으로 진출한 방호산(方虎山)이 지휘하는 인민군 제5군단(제6, 제7, 제12, 제27, 제28, 제43사단)은 전면공격으로 원주를 점령하여 미 제10군단의 철수를 강요한다. 그리고 도로 동쪽의 최현(崔賢)이 지휘하는 인민군 제2군단(제2, 제9, 제10, 제31사단)은 29번 도로 동쪽의 산악을 타고 점적을 회피하면서 남쪽으로 진출하여 원주, 제천, 단양 그리고 대구를 공격한다. 그리고 5천~7천5백 명의 유격부대를 산간 내륙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는 29번 도로를 이용하여 단양 부근에 집결시켜 유엔군의 주병참선인 부산-안동 간 교통망을 차단한다. 이러한 인민군의 작전은 서쪽의 중공군의 진격과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한다.”고 진술하였다.<sup>30)</sup>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6일 밤 횡성에서 남하한 인민군 제6사단과 제27사단은 다음날의 여명공격을 개시하기 위하여 원주 북방에서 전

투태세를 완료하고 대기하였다. 이에 앞서 홍천-횡성으로 진출하였던 인민군 제2사단이 도로를 가로질러 원주 북서쪽을 방어 중인 국군 제8사단 제10연대진지 전방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인민군 제2군단 제10사단은 제5군단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출된 산악 공간 지역을 통해 신속히 원주 동쪽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이 무렵 설악산에서 오대산으로 연결되는 산악지대에 은거 중인 길원팔(吉元八) 부대의 2,000여 명의 공비들도 후방진출을 기도하고 있었다.<sup>31)</sup>

## (2) 我軍 狀況

중공군의 신정공세를 받아 중동부전선에서 물러난 국군부대 중 제1군단의 수도사단만이 2일 계획된 C방어선(양평-홍천-원포리)을 점령하였을 뿐 제3군단의 상황은 불투명하였다. 군단의 좌전방인 제2사단의 1개 연대는 첫날(1일) 거의 완전히 분산되었고, 다른 2개 연대도 중앙의 국군 제5사단 좌측방을 뚫고 들어온 중공 제66군의 예하 부대에 의해 가평 북쪽 8km 지점에 고립되었다. 중앙의 제5사단과 우전방 제8사단은 통신이 두절되어 상황조차 파악이 불가하였다. 그리고 군단예비인 제7사단은 원주 북쪽 20마일 지점에 집결 중에 있었다. 이때 국군 제3사단은 24번 도로를 따라 홍천으로 이동 중이며, 사단은 홍천 일대에 형성된 인민군의 돌파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하여 평창에 집결할 계획이었다.

적의 신정공세에서 산악지대의 넓은 방어정면을 담당한 중부전선의 국군 제2, 제5, 제8사단의 춘천정면이 돌파되고, 적의 유격부대에 의해 도처에서 아군의 보급로와 퇴로가 차단되었다.

이러한 중동부전선의 불안정은 이 전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서부전선에 배치된 유엔군 주력부대의 우측방이 공격을 받게 됨으로써 결정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미 제8군사령관

은 중동부전선을 조기에 안정시킬 목적으로 흥남에서 철수하여 경주 일대에서 부대정비에 주력하던 미 제10군단의 투입을 결정하였고, 군단간의 전투지경선과 예하 부대의 배속을 일부 조정하여 전투편성을 새로이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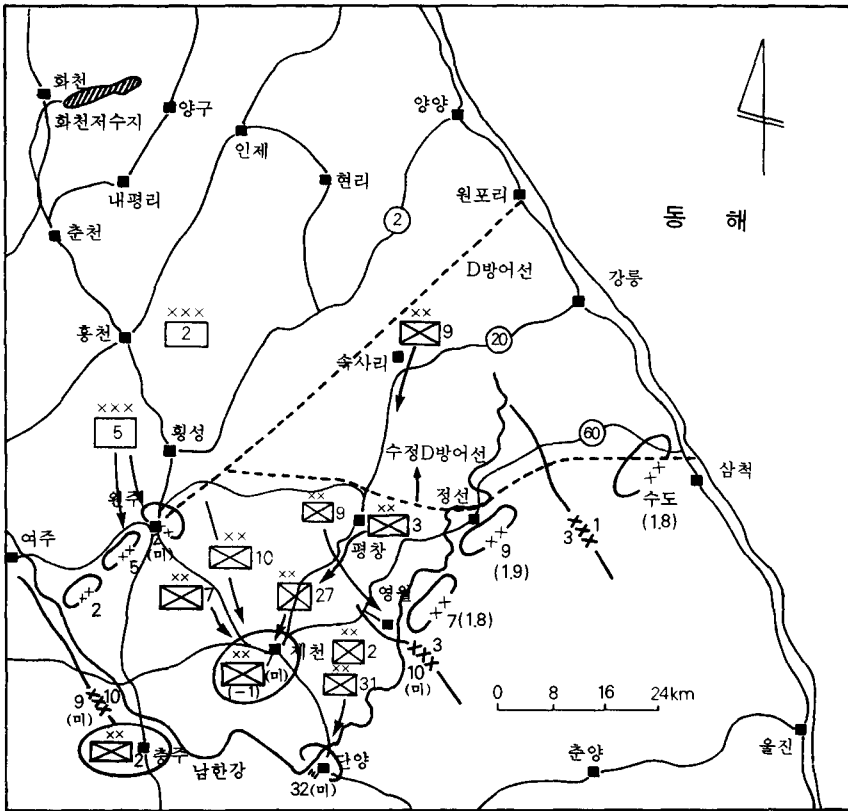
이 지시에 의거 미 제10군단은 춘천 방면에서 남하하는 적의 진출을 저지하고, 또 인제-홍천 일대에 형성된 돌파구의 확대를 저지하게 되었다. 군단은 1월 3일부로 주력부대인 미 제2사단, 미 제7사단과 국군 제3군단으로부터 배속받은 제2, 제5, 제8사단 등 5개 사단으로 하여금 춘천-홍천 도로(29번 도로)를 작전지역의 중앙에 두고 C 방어선(양평-홍천)상의 48km에 달하는 방어선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가평, 춘천 일대의 작전지역을 미 제10군단에 인계한 국군 제3군단은 제7사단과 국군 제1군단으로부터 배속받은 제9사단으로



중공군 신정공세로 철수하고 있는 유엔군이 횡성 남쪽 29번 도로로 이동하고 있다.(1951.1.3)

중동부전선 상황(1951. 1. 7)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 사이의 협준한 태백산맥 지역을 맡아 적의 돌파구 침단을 저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국군 제9사단은 인민군과 격전을 치르면서 고전하고 있었고, 제7사단도 홍천에서 서쪽으로 이동해야 하므로 상황을 낙관할 수 없었다.

다른 군단에 비하여 접적이 경미하였던 국군 제1군단도 제9사단을 제3군단에 배속 전환하고, 대신 국군 제2군단의 제3사단을 배속받아 태백산맥 동쪽에서 동해안까지의 전선을 방어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3사단이 홍천에서 남쪽으로 우회기동하여 군단에 복귀하는데는 상당

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로 인하여 동해안의 수도사단과 원주 북쪽의 미 제2사단 사이에는 인민군의 남하를 저지할 부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배치공간이 생겨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다.

이 무렵 육군본부는 인민군 제2, 제9, 제31사단의 주력부대가 횡성 지구로 육박하기에 앞서 5일 밤에 국군 제1, 제3군단에 그들의 병력을 원주-삼척 간의 수정된 D방어선으로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조치에 의거 이동을 개시한 국군사단들이 6일 원주를 지나 충주-제천-영월-삼척 선으로 철수 남하함으로써 원주 일대에서 국군의 철수를 엄호하던 미 제2사단은 동측방이 노출되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sup>32)</sup>

이 무렵 철수 중인 국군사단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내려오는 수정 명령 때문에 부대지휘의 혼란은 물론 불필요한 이동으로 체력소모도 많았다.

### (3) 原州 爭奪戰

미 제10군단장은 38도선에서 철수한 국군 제5사단을 남한강 동쪽에, 중앙에 국군 제8사단을, 원주에는 미 제2사단(제9연대 결)을 배치하여 원주방어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때 미 제7사단의 주력과 미 제2사단의 일부는 제천으로 이동 중에 있었다. 그리고 분산철수 중인 국군 제2사단은 군단예비로 충주 남쪽에 집결하도록 하였다.

원주는 중부전선의 제1의 요충으로 만일 적이 원주를 탈취한다면 여주, 이천으로 또 충주를 거쳐 대전과 김천으로 진출하여 서울지구 및 서부전선의 아군을 위협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제천-영주로 지향하여 안동, 대구를 공격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이 지역의 확보 여부가 차후 작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 제2사단의 원주 결전은 불가피하였다.<sup>33)</sup>

이때 미 제2사단장은 원주와 남쪽의 비행장을 방어하기 위하여 원



주 외곽을 따라 제23연대를 서쪽과 남서쪽에, 제38연대를 북쪽과 북동쪽에 배치하여 주저항선을 편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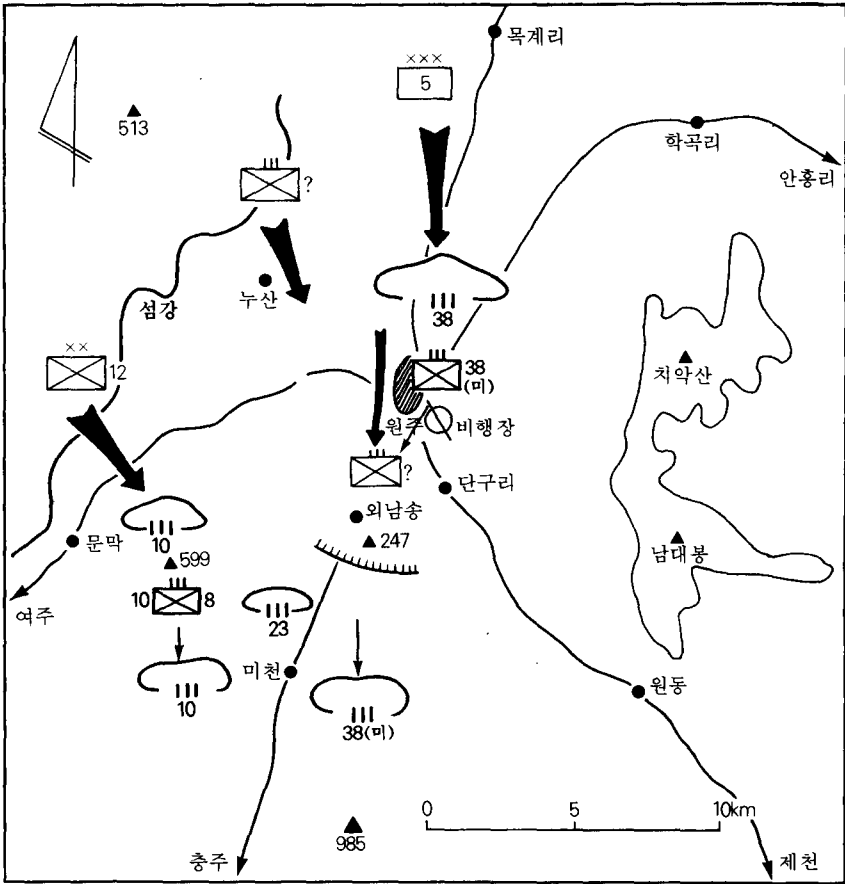
인민군 제5군단은 주력부대의 공격에 앞서 7일 05:30경 400명 가량을 민간인으로 위장시켜 29번 도로를 따라 내려오는 피난민 대열에 잠입시켰다. 이들은 사단의 전초진지와 주진지를 통과한 후 후방에 있는 2개 대대의 본부를 기습공격하였고, 이때 사단은 비로소 적의 침투공격을 알게 되었다.<sup>34)</sup>

이 공격과 거의 동시에 인민군 제12사단이 사단의 좌인점으로 문막 북동쪽에 배치된 국군 제8사단 제10연대를 공격하여 이 지역을 돌파하고 북서쪽으로 진출함으로써 미 제2사단의 방어진지가 돌출되어 버렸다. 양측방으로부터 적의 공격이 격화되자 미 제2사단장은 사단의 방어선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군단에 철수를 건의하여 승인을 받았다. 이때 군단장은 사단이 시가지를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후 공격의 발판이 되는 시가지 남쪽의 고지군으로 철수를 기대하였으나 사단장은 그보다 훨씬 남서쪽의 원주-목계동 도로로 철수하였다. 7일 밤 제23연대는 원주 남쪽 7km 후방에 배치하였고, 제38연대는 그 보다 남쪽의 미천 부근에 배치되었다.<sup>35)</sup> 이는 화력으로만 원주를 통제할 수 있을 뿐 실질적으로 원주에서의 철수를 의미하였고, 군단장의 의도와는 다른 것이었다.

군단장은 원주가 교통망이 잘 발달된 전술적 요충으로 이곳의 점령 여부가 중부지역을 장악하는 관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사단이 이를 포기하자 군단장은 이날 밤 사단장에게 8일 새벽까지 4개 대대규모 이상을 시가지 바로 남쪽의 고지군에 배치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제23연대 제2대대는 8일 아침 4대의 근접항공지원기의 엄호하에 공격을 개시, 정오 무렵에는 시가지 남쪽의 247고지로 진출하였다. 이때 대대는 부근에서 취침 중인 적을 발견하고 기습공격을 실시하여 200여 명을 사살하였으나, 연대규모의 적이 포위공격을 기도하여 대대는 247고지 후방으로 철수하였다. 이후 대대는 연대주력이 방

원주 전투



어 중인 미천으로 철수하여 국군 제8사단의 철수로 노출된 좌측방을 엄호하기 위하여 미촌(薇村) 서쪽에 배치되었다. 이날 쌍방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격전을 치른 247고지는 원주 남쪽에서 시가지를 감제할 수 있어 원주 공격의 발판이 되는 중요지형일 뿐만 아니라 원주-충주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중요 지형이었다.

미 제10군단장은 그동안 적이 극심한 피해를 입어 전력이 다소 약

화되어 있음을 간파하고 미 제2사단에 9일 정오까지 항공 및 포병화력의 지원을 받는 2개 대대로 공격을 재개하여 247고지의 적을 격멸하고 원주와 비행장을 확보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명령에 의거 제23연대는 2개 보병대대로 9일 10:00에 도로를 따라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날 따라 눈보라가 휘몰아쳐 근접항공지원은 취소되었다. 공격제대가 247고지로 접근하자 적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집중사격을 개시하였고, 얼마되지 않아 공격은 둔좌되었다. 이 무렵 인민군 제12사단의 일부가 후방으로 침투함으로써 고립된 공격제대는 그 자리에서 방어로 전환하여 완강하게 저항한 끝에 적을 격퇴하였다.

공격제대는 10일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이날도 폭설이 빈번히 내려 근접항공지원은 없었고, 또 북풍 한파가 몰아쳐 부대기동도 어렵게 되어 1km 정도 밖에 전진하지 못했다. 제23연대장은 정오 무렵 연대의 공격은 부진한 반면 적은 계속 증원되자 철수를 건의하였다. 그러나 사단장은 현진지를 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날 오후 내내 쌍방은 247고지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수차례 혈전을 펼쳤고, 연대는 이날 하루의 전투에서 인민군 2,000여 명을 사살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대도 다수의 피해를 입어 11일 오후에 프랑스 대대와 네덜란드 대대의 일부를 증원받았다. 다행히 오후가 되면서 며칠 만에 하늘이 맑아 항공폭격과 근접항공지원이 가능하여 연대는 이날도 1,100여 명의 적을 사살하고 247고지를 수중에 넣었다.<sup>36)</sup>

이후 인민군 제5군단은 전부대를 원주로 투입하여 아군과 최후의 일전을 기도하였으나 오히려 많은 인명손실은 물론 탄약마저 바닥나 원주를 장악하는데 실패하였다. 이곳에 투입된 적 사단은 개전초기 낙동강까지 진출하였던 인민군의 정예부대이었으나 원주 전투에서 재편성이 요구될 정도로 결정적인 피해를 입었다. 인민군은 17일 제27사단을 전방에 배치하여 접적을 유지하도록 하고 주력이 횡성 부근으로 철수함으로써 원주 전투는 아군의 승리로 일단락되었다.

이로써 사단은 원주에서 중동부전선의 국군 철수를 엄호하는 동시에 적의 돌파를 저지하였으며 차기의 반격작전을 위한 요충지를 고수하였다. 사단이 본전투에서 거둔 성과는 지난 11월 말 군우리 전투의 오명을 씻고도 남음이 있는 영광된 결전이었다.<sup>37)</sup>

#### (4) 丹陽-寧越 突破口

중동부전선의 험준한 산악지역을 방어한 국군 제1군단과 제3군단은 신정공세 첫날부터 전방과 후방으로부터 협공을 받아 방어진지 유지가 어렵게 되자, 1월 1일에는 C방어선(홍천-원포리)으로 철수한데 이어서 5일에는 D방어선(원주-원포리)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군 사단들은 지형이 험준할 뿐만 아니라 극히 한정된 통로마저 적이 차단하고 있어 철수에 어려움이 많았고, 또 사기도 저하된 상황이었다.

이때 현리 부근의 제9사단은 4일 창촌을 경유, 속사리로 이동 중에 있었고, 홍천의 제3사단은 홍천-횡성을 경유 4일 평창에 집결해 있었다. 또 홍천-춘천으로 북진했던 제7사단은 춘천 동북쪽에서 홍천-횡성-원주를 경유 목계-창동 선으로 철수 중에 있었다.

전방 사단들이 원주-원포리 선을 미처 점령하기도 전에 제8군사령관은 적이 이 선의 후방으로 진출할 경우 국군에게 공격할 시간과 공간을 부여함과 아울러 원주 동쪽의 방어력을 보강시킬 목적으로 5일 양 군단이 점령할 방어선을 64km 남쪽의 원주-정선-삼척 선으로 수정하였다.<sup>38)</sup> 이러한 혼란의 상황에서도 국군 제1, 제3군단은 신속히 수정된 방어선을 점령하여 적의 진출을 저지하고자 이동을 계속하였다.

제3군단의 제3사단은 7일 홍천에서 영월로 이동 중에 있었고, 제7사단은 신림리에서 영월로 이동 중 적과 조우하여 격전을 펼치고 있었고, 제9사단도 장평리에서 적과 접촉을 유지하면서 정선으로 철수

중에 있어 군단은 아직 지정된 방어선을 편성하지 못하였다. 또 국군 제1군단의 수도사단은 주문진에서 삼척으로 이동 중에 있었다.

이때 중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은 원주 공격을 기도하는 인민군 제5군단에 대비하였고, 국군 제1군단과 제3군단은 수정된 방어선을 점령하기 위하여 기동 중에 있어 사실상 원주-동해안 간에는 적의 진출을 저지할 부대가 없어 공백지역이었다.

이 무렵 인민군 제2군단은 이러한 아군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원주-제천-단양 도로의 동쪽 산악지대를 따라 남하하였다. 이들의 선두 부대인 제2, 제9사단은 새로운 방어선인 원주-삼척 선보다 훨씬 남쪽인 영월 부근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이때 길원팔부대를 통합지휘하게 된 인민군 제2군단은 군단주력으로 정면을 공격하고 제2전선부대를 제9사단의 우측방인 오대산-대관령-태기산-보현산 일대에 침투시켜 후방교란을 획책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sup>39)</sup>

이로써 제8군사령관의 기대는 빛나가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월 일대에 대돌과구가 형성되었다. 이때 미 제8군은 미 제10군단에 적이 영월 남쪽으로 한 발짝도 넘지 못하도록 적을 저지하도록 하였고, 미 제10군단장도 원주를 공격하는 인민군 제5군단보다 영월로 진출한 인민군 제2군단의 측방공격을 우려하여 작전의 우선권을 적의 영월 남쪽 진출을 저지하는데 두었다.

한편 육군본부도 이와 때를 맞추어 38도선에서 격전을 치른 후 작전지역을 미 제10군단에 인계한 제3군단장 이형근(李亨根) 소장을 해임하고 육군본부 참모차장인 유재홍(劉載興) 소장을 신임군단장으로 임명하였다. 당시 상황을 유재홍 소장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내가 군단장에 부임할 무렵 제9사단은 정선에, 제7사단은 영월 남동쪽에, 제3사단은 춘양에 집결하고 있었다. 각 사단은 38도선 부근의 주저항선에서 격전을 치른 후여서 피로에 지쳐 있었으나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대정비를 하면서 다음 전투준비를 서두

르고 있었다. 이때 적의 제2군단은 길원팔 유격부대와 함께 영월—춘양을 경유 영주—안동으로 빠져 나갈 기세였다.<sup>40)</sup>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8일 국군 제7사단 정면으로 진출한 인민군 제10사단의 선두부대인 제27연대는 29번 도로를 따라 체천을 지나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작전 중인 미 제7사단의 정찰대와 조우하여 500여 명이 사살되고, 14명이 생포되었다.

이때부터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3군단은 영주—안동 일대에서 활동 중인 공비와 연결하여 돌파구 확대를 기도하는 인민군을 맞아 예측불허의 일전을 펼치게 되었다.

공산군은 이번 신정공세에서 30여만 명(중공군 6개 군 23만여 명과 인민군 3개 군단 7만여 명)을 투입하여 서울을 재점령하고, 37도선 부근으로 진출하였으나 인민군 2,700명을 포함하여 85,000여 명이 전사하였다. 또한 병참선이 신장되어 더욱 보급 형편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신정공세는 일단락되었다.

반면 아군도 서울을 실패하고 원주에서 집요한 공방전을 벌여 1·4 후퇴의 위기를 평택—원주—제천—삼척 선에서 극복하고 적의 공세를 저지하는데 성공하였으나 단양—영월의 산악지대로 침투하여 후방지역을 교란하는 인민군 제2군단의 소탕이 급선무였다.

### 제 3 절 政府의 總力戰 態勢 構築

#### 1. 總力戰 意志 闡明

‘1·4후퇴’의 위기를 넘기면서 37도선에서 간신히 전선의 안정을 기하였으나 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평양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환영대회에 참가할 무렵까지만 해도 조국통일이 목전에 찾아 온 듯하였다. 불과 며칠 사이에 중공군의 참전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전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전국의 반전상황이 온 것이다.

정부는 국군과 유엔군이 평양에서 전면 철수가 실시되자 12월 2일에는 국방장관이 이들의 침략을 총력전으로써 분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의 비장한 결의를 다지었다.

우리는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싸울지언정 오랑캐 무리의 유린(蹂躪)에 민족과 국가를 내맡길 수는 없다…… 이 판국(版國)에 총동원, 총무장하여 혈투로써 임하지 않고 다시 어느 시간을 기다릴 것인가?…… 가가호호(家家戶戶) 총궐기하여 도끼와 낫이던 호미와 괭이라도 들고 나가 싸움시다…… 우리 민족이나 국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와 인류를 위하여서도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입니다.

같은 날 이승만 대통령도 전쟁이 우리의 자유독립을 위한 최후 결전 단계임을 선언하고, 국민총력전으로 이를 극복하겠다고는 중대성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대통령의 결전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12월 7일에는 전쟁초기에 이어 두 번째로 남한 전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또한 12일 15:00에는 중공의 침략을 물리치고 통일대업을 완수하기 위한 국민결의 대회가 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애국단체 총연맹 주체로 서울운동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었고, 결의문도 채택하였다.

### 결 의 문

1. 중국 공산군이 한국을 침략하여 우리는 새로운 적과 싸우고 있다.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한국의 통일과 자주를 위하여 한국내서 적을 완전소탕하고자 우리는 총궐기하였다.

2. 즉시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 100만 애국청년에게 무기를 달라. 우리는 반공투쟁에 총 매진하고자 한다. 6·25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으려면 완전무장이 절대로 시급하다.
3. 민주의 보루 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3천만 전국민이 총단결했다.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자유는 한국의 안정 없이는 바랄 수 없음을 선언한다.

그리고 유엔군이 북한지역에서 38도선으로 거의 철수한 14일에는 우리의 힘으로 이 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장년은 총칼을 들고 국민은 정신의 무기를 들고 내 강토를 지키자는 멸공무장국민대회를 서울운동장에서 열기도 하였다.

이때 소집영장을 기다리던 청년들 사이에는 자진입대를 간청하는 인원이 증가하였고, 이들 중에는 “나는 화랑도의 정신을 갖고 있다. 전쟁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이다.”라는 혈서를 쓰고 지원한 사람들도 있었다.

## 2. 國民防衛軍 設置

국민들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평양을 철수한 유엔군의 후퇴가 계속되자 정부는 국가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국민총력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중공군과 맞서 싸우려면 많은 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소요병력을 조속히 동원할 목적으로 국민방위군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50년 12월 21일 아래와 같은 요지의 국민방위군설치법을 제정하고 국민방위군을 편성하게 되었다.

- ① 국민으로서 만 17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남자는 지원에 의하여 국민방위군에 편입할 수 있다.



- ② 국민방위군은 지역단위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방장관이 정하는 기관은 기관별로 편성할 수 있다.
- ③ 국민방위군은 육군총참모장 명에 의하여 군사행동을 하거나 군사훈련을 받는 이외에 정치운동이나 일반치안에 관여할 수 없다.
- ④ 전시 또는 사변에 즈음하여 군작전상 필요시에는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단적으로 국민방위군을 소집할 수 있다.
- ⑤ 국민방위군에 사관을 두되, 국방부장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등급은 육군의 편성과 직위에 준하게 한다.
- ⑥ 국민방위군의 병력, 배치, 편성, 훈련, 복무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육군총참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민방위군을 지휘, 감독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 및 육군본부는 김윤근(金潤根) 준장을 국민방위군사령관에 임명하고, 방위군사령부를 편성하였으며, 그 병력은 50만여 명에 달하였다.

이때 국민방위군은 대체로 군 현역에 준하여 편성되었고, 사령부 예하에는 교육연대가 전국 51개소에 설치되어 17세부터 40세까지의 장정을 수용했다. 사령부의 몇 간부와 일부 교육연대장, 그리고 극소수의 기간요원만 현역이고, 나머지 지휘관은 모두가 주로 청년단 출신의 급조된 방위군 장교로 충당되었다. 그리고 장병들의 대부분이 농촌출신이었고, 또 장교 중에는 정규군 기피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국민방위군은 1950년 12월 하순에 서둘러 편성되었으나 중공군의 공세로 '1·4후퇴'와 더불어 후방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때 방위군사령부는 대구로 이동하고, 지역방위군은 지역별로 남하하여 대구, 부산 등지에서 재집결하였다.

그러나 이동간 방위군사령부 고급 간부들이 방위군의 이동과 수용에 사용하여야 할 국고금, 양곡, 피복, 의료품, 기타 보급자원을 부정

착복함으로써 수많은 방위군이 영하의 기온에서 장거리를 이동하는 도중에 외병 또는 탈주자 심지어는 아사(餓死), 동사(凍死), 병사자까지 생기는 등 대사건이 발생하였다.<sup>41)</sup>

그후 유명무실하게 된 국민방위군은 그 창설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였고 또 이 사건으로 해산되었다.<sup>42)</sup>

### 3. 大韓靑年團의 武裝 試圖

중공의 참전을 계기로 정부와 국민들은 전쟁이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엄숙한 현실임을 직시하게 되었다. 비록 유엔군이 전선에서 분투 중임을 감사하게 생각하나 중공의 침입을 맞아 후퇴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수수방관만 할 수는 없었다. 나라를 지키고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나서야만 하였다. 그러나 이에는 총검을 들고 적을 무찌르기 위한 무기가 선결 과제였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한 이 대통령은 대한청년단 50만 명을 무장시키기로 결심하고 미국에 장비 제공을 요구하였다.

대통령의 특명을 받은 장면(張勉) 주미 대사는 12월 6일 미 국무부를 방문하여 이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국무부는 ‘미국이 유엔군에 대한 장비개선도 부담하고 있어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무렵 국무총리로 임명되어 이임 인사차 백악관을 방문하게 된 장면 대사는 직접 트루먼 대통령에게 대한청년단 50만 명을 무장시켜 줄 것을 제의하였다.

그는 “기초 훈련을 받은 100만 명이 무기지급을 기다리고 있으니, 미국의 조속한 무기지원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하였다.

사실 이 무렵 유엔군의 추가 지원을 획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미국 역시 추가 파견할 가용부대가 없어 유엔군의 전력보강이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국군의 확장이 유엔

군의 전력증강을 위한 최선의 방안임이 미 국무부에 의해 고려되기도 하였다.

무기지원의 필요성과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미 국방부와 합참본부는 이를 검토하게 되었다. 미 합동전략기획위원회는 이 계획에 찬성하였다. 무기의 가용 재고(在庫)를 조사한 후 그 위원회는 75,000~100,000명의 한국인을 특수부대로 조직하여 병참선을 경계시키고 적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서 게릴라로 운용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러나 맥아더 장군은 기존부대의 임무수행 상태가 너무나도 좋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부대의 창설에는 이점이 없다고 반대하였다.<sup>43)</sup> 그리고 그는 대한청년단은 기존부대의 보충요원으로 운용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하였다.

결국 미국정부는 극동군사령관의 판단을 수용함으로써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대한청년단의 무장계획은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그밖에도 정부는 국민방위군의 편성, 대한청년단의 무장화 시도 등 총력전 태세 구축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유엔을 무대로 외교 활동도 강화하였다. 이때 정부는 중공의 불법 침략을 알리고, 또 세계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지원을 얻는데 중점을 두었다.

## 제 4 절 戰爭의 岐路

중공군의 참전에 대해 정부는 총력전 태세로 대응할 결의를 다졌다. 하지만 전황은 공수(攻守)가 역전되면서 새로운 전략의 수립과 '철군이냐, 확전이냐'의 선택을 강요하는가 하면 군사적으로 정부의 이전을 검토하는 등 중공군의 참전으로부터 '1·4후퇴' 기간은 전쟁의 대기로(大岐路)가 되었다.

## 1. 새 戰略의 摸索

중공의 참전이 확인된 후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하였고, 인민군의 격멸과 북한의 응징을 목표로 전쟁을 지도해 온 유엔군측으로 하여금 새로운 상황에 대비한 지도노선의 수립을 강요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측은 1950년 11월 말부터 미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를 중심으로 전쟁을 중공으로까지 확대하려는 확전론, 38도선에서의 휴전론, 그리고 강압에 의해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철수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도지침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논의에서 미국과 유엔군측은 중공이 ‘두 번째 팀’이며 진짜 적은 소련이므로 미국이 중공과의 전쟁에 깊이 말려들어 군사력의 주력을 투입해 전면전을 전개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유엔이 한국을 결코 포기해서도 안되고 일본의 방위를 위해 주한 미군의 병력과 부대를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 새 전략수립의 초점이었다. 특히 미국의 지도부는 중공의 침략에 대한 대처 방안도 반드시 유엔의 집단안전보장 조치를 통해 강구되어야 한다며, 서방측 유엔회원국의 결속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확전이나 철수보다는 유엔 주도하에 38도선에서 휴전을 이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고려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유엔대표단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한국의 통일은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이루어질 뿐이다. 중공의 개입은 북한의 침략과 마찬가지로 유엔에 대한 도전이다. 유엔의 참전은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서이다. 그런 정신으로 중공도 격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sup>44)</sup> 우방국에 우리의 통일 정책목표와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그 문턱에서 휴전—어쩌면 전쟁전 현상의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될 휴전은 한민족의 소망에 상처되는 것임을 역설하였다.

특히 이 무렵 미국은 중공의 참전에 대한 새 대응전략의 하나로 핵

무기 사용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다. 미국은 미 지상군을 투입한 1950년 7월 초순부터 한국전쟁에 핵무기 운용계획을 검토 발전시켜 왔으며 10월과 11월 말 중공군의 공세로 유엔군이 위기에 처하자 이의 사용 가능성이 갑자기 높아지게 되었다. 이때 미 국방부는 유엔군이 재앙에 직면하게 되면 대통령에게 핵무기 사용을 건의하고 언제인가될지라도 이를 신속히 운용할 능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극동군사령부와 긴밀한 협의하에 ‘지상군 근접지원 핵무기 긴급 사용(Emergency Use of Atomic Bombs in Close Support)’ 계획을 수립하고 투발 준비를 추진하였다. 극비리에 추진되어 온 이 핵무기 운용계획은 유엔군의 철수방침이 정해진 이튿날인 1950년 11월 30일에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직접 시사함으로써 표출되고 현안으로 부상되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중공군의 참전으로 불안해하는 우방국 특히 한국전쟁에 유엔군을 파견한 회원국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로 회견 벽두에, “유엔군은 한국에서 임무를 포기할 의도가 전혀 없다.” 라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뒤따른 기자 질문에서 “미국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의 사용을 포함하여 군사상황에 대처할 어떠한 조치도 취할 것이다……. 핵무기의 사용에 대해서도 늘 적극적으로 고려해 왔다.” 라고 대답하였다.<sup>45)</sup>

이는 즉각적인 국제적 반향을 일으켰으며 특히 나토(NATO)의 안보 이익적 관점에서 극동에서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바람직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영국 수상의 워싱턴 방문을 몰고 오기까지 하였다.

이들 새 전장지도 전략은 12월 4~8일에 개최된 영국의 애틀리(Clement Attlee) 수상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진지하게 논의되었다. 영국 수상은 이에 앞서 프랑스 플레빈(Rene Pleven) 수상과도 중공의 참전에 따른 상황전개와 관련해 협의를 가진 바 있어 사실상 서유럽의 대표격이어서, 이 회담은 유엔군의 새 전략수립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회담이었다.

양측은 유엔의 권위와 위신의 신장, 전면전을 회피해야 한다는 중요성 등 기본적인 문제는 쉽게 합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는 다소 견해를 달리하였다. 우선 양측은 극동의 긴박한 상황에 대해, 휴전을 추구할 때가 왔다는 데에는 합의하였으나 적대 행위 종식의 대가로서 미국은 조건 없는 휴전을, 영국은 대만문제의 양보와 중공의 유엔 가입을 주장하다가 전자(대만 문제의 양보 주장)를 포기하는 대신 후자(유엔 가입)를 계속 지지하였다. 확전과 관련한 핵무기 사용 문제는 미국이 공식적인 공약을 회피하면서 영국과의 협의 없이는 사용을 고려하지 않기로 구두(口頭)약속한 선에서 조절하였다. 철군문제에 관하여 유엔군의 자발적 철수는 고려할 수 없다는 데에는 합의하였으나, 강압에 의한 철수의 경우 미국은 유엔에서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등 군사, 정치, 경제적 보복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에 반하여 영국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결과는 전쟁을 전쟁 이전의 경계선(38도선)을 토대로 종결시켰다는 합의였다.<sup>46)</sup> 물론 여기에는 중공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양보 여부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는 중공과 전쟁을 해야 하는 유엔군측 전쟁지도 노선의 대원칙이 되었다.

이러한 전략의 채택은 비록 불가피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이는 한국 정부의 정책목표와 한민족의 소망과는 상치되는 것이었다. 이로써 유엔의 개전 초기에 내놓은 ‘6·28 대한민국 지원결의’와 ‘10·7 통한(統韓)결의’를 토대로 북한의 침략에 대한 응징과 이의 연장선에서 군사 작전(힘)에 의해 추구하던 민족통일의 희망은 잠들게 되고 통일은 오직 휴전 후 정치적 수단에 의한 타결 노력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한편 유엔에서는 12월 5일, 트루먼·애들리 회담에서 유엔의 후원하에 휴전을 추구하기로 합의한 그날, 아시아-아랍 13개국이 중공과 북한에 38도선을 넘지 않도록 요청하는 제의를 하고 38도선에서의 휴전에 관한 쌍방의 의사 타진을 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이에 동의하

였으나 중국과 북한에서는 직접적인 응답이 없었다.

당시 작전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공산군측의 이에 관한 입장은 유엔군측의 그것과 조화를 이루기엔 대단히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들의 입장은 유엔 사무총장 리(Trygvy Lie) 및 인도, 영국, 스웨덴 대표 등이 그때 유엔에 머물고 있던 중공의 특별 대표 우수쉐안(伍修權)을 통해 한국에서 군사행동 중지 조건에 대한 중공측의 의사 타진을 한 결과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에 접한 주은래(周恩來)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 자신들이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북한하에 그에게 하달할 지침서에 ‘한국에서의 군사행동의 중지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sup>47)</sup>

1. 한국으로부터 모든 외국군의 철수.
2. 대만해협과 대만지역으로부터 미군 철수.
3. 한국문제의 한국민족에 의한 해결.
4. 중국대표의 유엔 참가와 장개석 정부의 유엔 탈퇴.
5. 일본과의 평화협정 준비를 위한 4대 강국 외무장관 회의 소집.

중공은 이를 하달하기에 앞서 12월 7일에 주중 소련대사 로신을 통해 소련정부로 전달하고 신속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같은 날 늦게 스탈린의 답신이 주은래에게 도착하였다.<sup>48)</sup>

우리는 한국에서의 군사행동 중지에 관하여 귀하가 제시한 조건들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우리는 이 조건들이 완전히 충족되어지지 않는 한 군사행동은 중지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미국의 첩자국이라 할 수 있는 세 국가의 대표들에게 지나치게 솔직하거나 우리의 계획을 미리 보여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중국의 5개 조건은 미국에 의해 유엔에 대한 모욕으로 해석,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게 그러한 빌미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대처하여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 (1) 중국정부도 영국, 인도, 스웨덴 대표 등 귀측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의 군사행동이 신속히 종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과 한국에 강요된 군사행동을 신속히 종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2) 따라서 우리는 평화 조건에 관한 유엔과 미국의 입장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국이 유엔이나 미국과는 달리 평화조건에 관하여 이야기할 권리를 위임받지 못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 (3) 우리는 한국에서의 군사행동 중지조건에 대한 유엔과 미국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엔의 의사타진에 관한 중공의 반응은 실질적으로 공산군측의 전쟁지도를 주도하고 있는 소련의 술수에 의해 평화에 응하려는 것처럼 포장되어 나타났으나 실제로는 유엔군측이 수용할 수 없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다.

중공의 전략은 이미 12월 4일에 팽덕회에게 전달한 ‘조선전쟁의 전개방향’에 대한 모택동의 견해와 의견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엔군(미군)의 축출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휴전도 이 목표 달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38도선에서 휴전을 추구하려는 유엔군측의 전략과는 조화를 이룰 수가 없었다.

적군은 정전을 요구할 것이다. 이때 미 제국주의는 조선에서의 철수를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데 우선은 38도선 이남까지 철수해야만 우리는 정전회담에 응할 수가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평양을 수중에 넣을 뿐만 아니라 서울도 수복하는 것이며 중요한 것은 적을 섬멸하는 것인데, 먼저 남조선군을 섬멸시켜야 미 제국주의 철수를 촉진시키는 데에 더욱 큰 힘이 될 것이다.<sup>49)</sup>

아시아-아랍 블록은 공산군측의 기도도 간파하지 못한 채 외교적



주도 노력을 계속하여 12월 11일에는 두 개의 결의안을 총회에 상정하였다. 하나는 휴전을 추진할 3인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후 극동문제에 관한 회담이 신속히 열리도록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무조건 휴전을 주장하는 미국의 주장을 충족시키고 중공에게는 보다 광범한 아시아 문제에 대한 고려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켜 양측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중 휴전 결의안은 총회의장인 이란의 엔테잠(Nasrollah Entezam)을 위원장으로 하고 캐나다와 인도 대표를 포함한 3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위원회가 한국 내에서 만족할 만한 휴전이 이루어질 기준을 결정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총회에 보고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14일에 총회를 통과하였다.<sup>50)</sup>

한편 미국은 휴전위원회가 결의안을 총회에 상정한 12월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휴전을 고려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휴전조건을 논의하였다. 그것은 “유엔군에게 군사적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고 정치적 양보를 내포하지 않아야 하며 휴전에 관한 세부사항은 유엔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휴전을 수락하기 전에 협상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구체화되었다.<sup>51)</sup>

이는 사실상 유엔의 새 전쟁지도 지침으로서 전쟁의 휴전화 정책이 확정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무렵 한국정부도 미국이 전쟁을 휴전으로 몰아가고 있는 김새를 알아차리고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이 장면(張勉) 주미 대사에게 그 저의를 파악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장 대사는 네 차례나 국무부와 백악관을 드나들며 “본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한국 국민은 공산주의와 대항하여 끝까지 싸울 것임을 재천명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서두를 꺼냈다. 그는 “우리에게는 휴전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에게는 전선으로 나가기를 열망하는 50만 명의 반공 청년들이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들 50만 명의 무장이다. 그것을 지원해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그는 “미국이 중공군에 유화정책으로 대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

한다.”며 노골적으로 미측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였다. 장 대사는 베빈(Ernest Bevin) 영국의상이 미국과 중공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하여 한반도에 완충지대 설치안을 제의했다는 보도에 대하여도 거론하였다. 국무부 부차관보에게 “한국정부는 한국영토 안에 완충지대가 설정되는 데 대해 찬성할 수 없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미국과 유엔은 공산 침략자를 끝까지 격퇴하려는 결의를 굳혀 주면 좋겠다. 이 같은 한국의 입장을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해 주기 바란다.”라며 정부의 입장을 전하였다.<sup>52)</sup>

당시 유엔에서 활동 중인 임병직(林炳稷) 외무장관은 휴전 무드가 조성되는 것을 간파하고 이 대통령에게 강력한 대 중공 제재가 필요함을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장 대사에게 대미 교섭을 지시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장면 대사는 트루먼 대통령을 면접하고 “100만 명의 청년이 훈련을 받고 있으며 그들은 무기 지급을 기다리고 있다며 미국의 지원을 간곡히 요망하였다.” 12월 11일, 유엔에서 38도선 재확정 문제가 논의 될 때 그는 다시 국무부를 방문하고 “한국으로서는 38도선의 재확정을 절대로 반대한다. 압록강 이남에 완충지대를 설치하는 것도 잠정적이건 아니건 적극 반대한다.”고 못을 박는 등 정부의 반휴전 의지를 강력히 천명하였다.<sup>53)</sup>

한국정부의 이러한 입장 천명에도 불구하고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활동에 들어간 휴전위원회는 휴전조건에 관한 미국의 의도를 얻어낸 다음 중공정부에 대해 휴전이 이루어지자마자 야랍-아시아 계획의 제2부에 계획되어 있는 협상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시키면서 협력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12월 21일에 북경으로부터의 답신은 중공의 참여가 없이 취해진 유엔의 모든 결의는 불법이라는 이유로 휴전위원회의 제의를 거절하고 당시 유엔에 머물고 있던 그들의 특별 대표도 철수시켜 버렸다.

이미 중공은 12월 13일 모택동이 팽덕회에게 38도선 남쪽에서 적(국군과 유엔군 특히 국군)을 포위섬멸하고 서울을 점령하라는 요지의

3차 공세 명령을 하달하였고, 이 무렵에는 공세준비에 한창이었다. 중공의 휴전 거부 의사는 12월 23일에 수신된 주은래의 전문에 의해 재확인되었다. 그 내용은 미국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분계선으로서의 38도선은 유엔군의 북한 영토 침범에 의해 영원히 무효가 되었다. 중공은 휴전문제는 아래와 같은 극동 정치에 도움이 되는 처리와 분리시켜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한국에서 외국군의 철수, 한국 국민 스스로에 의한 한국문제의 해결, 대만에서 미군의 철수, 그리고 중공의 유엔 의석.”<sup>54)</sup> 이는 12월 7일에 중·소 간에 교환된 책략의 결과를 요약 발표한 것으로서 이 거부 전문이 당시의 평화 노력에 종말을 고하였다.

일주일 후 1951년 1월 1일을 기해 그들은 준비한 신정공세를 취하였으며, 3인 위원회는 다음날 총회에 휴전과 관련한 어떠한 건의도 이 시점에서는 소용없다고 보고하였다. 신정공세가 끝난 후 1월 11일 3인 위원회는 중공의 요구사항 중 일부를 충족시키려는 의도를 담은 새로운 평화계획을 작성하여 다음의 5단계를 거쳐 극동의 평화를 수립하자는 제안을 제출하였다.<sup>55)</sup>

- (1) 한국전쟁의 즉각 휴전.
- (2)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모색.
- (3) 한국으로부터 군사력의 철수와 더불어 한국국민이 자신들의 정부에 관한 희망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치 마련.
- (4) 한국의 통일 및 그곳의 평화와 안전보장의 유지를 위한 잠정 협정 체결.
- (5) 극동문제, 대만의 지위, 중국의 유엔 대표권을 포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영국, 소련, 중국 대표를 포함한 적절한 기구의 설치.

이 제안은 1951년 1월 13일, 미국이 지지하고 소련이 반대하는 가운데 유엔 정치위원회와 그후 총회를 통과하였고 중공에 통고되었다.

중공은 이를 검토 후 17일에 정치적 협상이 없는 휴전은 수락할 수 없다고 천명하고 한국전쟁 협상의 대가로서 자신들의 유엔가입, 대만으로부터 미군의 철수 등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대안을 제출하였다.

이때 우리 정부도 중공이 침략자로서 한국문제 회의에 참석하는 부당성을 지적하며 아래 요지의 항의문을 유엔에 제출하였다.<sup>56)</sup>

한국정부는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엔 3인 위원회의 계속적인 노력에 감사한다. 그러나 동 위원회에서 제안한 중요 항목을 한국정부로서는 수락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공은 모든 의미에 있어서 실제의 침략자이니 만큼 한국문제 해결에 중공이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며 또한 4개국 회의는 실행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유엔군측(미국)으로서는 중공이 휴전안에 반대함은 물론 계속 공세를 취함으로써 그들의 의도가 한국에서 유엔군을 구축하겠다고 되풀이한 위협의 실현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중공은 유엔에 대한 도전을 멈추려는 의도가 없다고 판단하고 유엔회원국에게 이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미국은 지난 12월 16일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데 이어 이해 1월 20일에는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상정하였으며, 이는 2월 1일 총회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중공군의 참전과 더불어 추진된 유엔에서의 휴전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sup>57)</sup>

## 2. 撤軍과 擴戰 論爭

중공군의 침략과 참전으로 제기된 철군과 확장 논쟁은 1950년 12월 초순, 영미(英美) 영수회담에서 한국전쟁을 유엔의 주도하에 휴전으로 해결하기로 전쟁지도 방침을 정하고 휴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

하자 잠시 주춤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산군측의 반대로 휴전위원회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중공군의 공세가 계속되자 철군과 이에 따른 확전조치에 관한 전략논쟁이 다시 일게 되었다.

우선 미 합동참모본부는 이와 관련하여 12월 22일에 대단히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즉 한국전쟁에 미군과 유엔군의 투입을 가져온 유엔의 최초결의(지시)는 이제 시효가 지났으며 수정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중공이 전력증강에 뒤이어 강력한 공격을 가해 그들의 의도가 유엔군을 한국에서 몰아내려는 것임이 명백해진다면 정부 수준에서 가능한 빨리 유엔군(미군)의 철수 결정을 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중공의 침략에 대해 유엔이 추가적인 전력을 한국전쟁에 투입하고 그들로 하여금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여 침략 의도를 포기하게 응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판단하였지만, 당시 국제정세와 유엔의 분위기로 보아 유엔군의 실질적 증강이나 미군의 추가 투입이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특히 미국은 한반도가 그들로서 주요전쟁을 할 장소가 아니라는 일관된 정책기조하에 중공의 참전으로 전면전의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범세계적 전략상 중공과의 싸움에 나머지 지상군을 투입해서는 안된다고 믿고 있었다. 따라서 현 작전부대의 보존을 위해 유엔군의 강제 축출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들은 이와 같이 강압에 의한 철군정책 결정을 내리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2월 29일에 유엔군사령관에게 통보하였다.<sup>58)</sup>

……한국의 어느 방어선에서 북한 및 중공의 침략에 대한 저항과 중공의 정치적, 군사적 위신의 실추가 미군에 심각한 손실을 끼치지 없이 성취될 수 있다면 우리의 국가 이익에 대단히 중요하다. 적군에게 가능한 한 큰 손실을 가하면서 부대안전을 주로 고려하는 조건으로 12월 7일자 전문에 설명한 대로 축차적인 진지에서 방어하도록 지시한다.

사태가 우리의 철수를 강요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특히 일본에 대한 위협을 고려하여 군의 질서정연한 철수에 대비, 적절한 기회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금강과 거기로부터 동쪽으로 연한 진지로 철수를 강요당하고 그 후 중공군이 우리를 한국에서 밀어내려는 명백한 가능성을 보이며 방어선으로 대부대를 집중시킨다면 이 조건하에서 일본으로 철수를 시작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맥아더 장군에게는 이 지시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려는 의지의 사실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그는 다음날(12월 29일) 회신에서, 이와는 달리 방어를 위한 강력한 보복조치(확전조치)를 요구하였다. 그는 중공의 전 군사자원이 유엔군과의 전투에 투입되어 만주와 한반도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취약하나 기존정책은 이 기회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중공 당국에 의해 전쟁상태가 강요되었음을 인정하기”로 결정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sup>59)</sup>

- (1) 중공의 해안 봉쇄.
- (2) 중공 공업의 전쟁수행 능력을 해공군의 폭격으로 파괴.
- (3) 자유중국 부대로 유엔군 증원.
- (4) 자유중국군에게 중국본토에 대한 견제공격의 허용.

맥아더 장군은 이 조치를 통하여 유엔군측은 상대적으로 적은 군사력의 투입으로써 중공의 침략전쟁 수행능력에 심한 손상을 가하고 크게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아시아가 그들에게 정복을 당하지 않도록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유엔군에 대한 압력이 완화될 것이다. 그때 전쟁을 계속 수행할 것인가 아니면 해공군으로 중공에 대한 작전을 계속 펴면서 근해 도서에 재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러한 방책과 주장이 주요전쟁을 도발할 것 같다는 이유로 앞서 거부된 일이 있지만 이제는 중공이 전쟁에 완전히 개입한 이상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 없다면 보복조치의 시행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는 소련의 참전여부는 '투기의 문제'이며 오직 상대적 전력과 능력에 기초하여 그들 스스로 결심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또한 그들의 일본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음에 유의하여 4개의 주(州) 방위사단을 극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요청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개입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전략 배치의 우선순위에 대해 유럽의 안보요구를 이해하고 그 지역의 지원에 동의하나 다른 모든 지역의 패배 후에는 유럽의 패배도 반드시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극동의 현 위기에 대한 부대운용이 국가전략의 기본개념을 해치지 않는다면, 극동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결론에서 맥아더 장군은 유엔군에 대한 제한이 계속된다면 합동참모본부의 판단에 동의한다. 그리고 철군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부산 교두보까지 방어선을 남으로 축차적으로 축소해 가면서 강행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극동사령부는 이 무렵인 1월 7일에, 지난달 6일에 작성된 철군계획 초안을 철군계획(Operation plan CINCFE 1-51)으로 확정하였다. 그 요지는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을 한반도에서 질서정연하게 철수시킨다. 미군은 전면전쟁에 대비하여 국방방어선에 재배치한다. 유엔군을 모국으로 귀국조치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다만 계획목적상 유효하다는 단서조항을 붙여 예하대에도 하달하였다.

한편 워싱턴과 도쿄 간 전쟁지도 노선의 갈등은 적의 신정공세 기간중에 속개된 합동참모회의와 국가안보회의에서 현안과 관련하여 유엔군측이 취할 군사적 방책과 정치적 지도지침을 확정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1월 12일의 전문지시에 이어 15일에는 콜린스(Collins), 셔만(Forrest P. Sherman)의 두 합동참모가 도쿄와 서울을 방문하여 정

책을 조율하게 되었다.

우선 맥아더 장군이 요청한 보복조치에 관하여, 신중을 요한다는 전제하에, 해안봉쇄는 전선이 안정되던가 철군을 완료하였을 때의 상황에 따라 시행될 것이다. 중국 본토의 폭격은 중공이 한반도 외부로부터 유엔군을 공격할 경우에 승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중국군의 유엔군에 편성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그의 운용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채택이 곤란할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취하였고, 다만 자유중국군의 작전제한 제거안(作戰制限 除去案)만 수용되어 대공산권 작전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군수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밖에 추가적 병력증원에 대해서는, 한국의 방어선이 안정될 경우 2개의 주방위사단을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일본으로 전개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그 목적은 한국으로부터 철수하는 부대로 달성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트루먼 대통령은 중국본토에 대한 직접적 군사조치의 요구에 대해, “우리의 군사력이 건설될 때까지 적대행위 지역의 확대에 관한 아주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 자체로서 정당화될 수 있고 한국전쟁에 도움이 되는 조치들일지라도 그로 인해 일본이나 서유럽이 대규모 적대행위에 말려든다면 결코 이롭지 못하다.”<sup>60</sup>라고 경고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유엔군이 직면한 상황을 냉철히 직시하고 맥아더 장군으로 하여금 적에게 최대의 피해를 가하면서 축차적 진지에서 방어하되, 인력과 물자의 심대한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 일본으로 철수하라는 지침을 하달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군사적으로 한반도에서 계속적인 저항이 불가능할지라도 철수 후 제주도 와 같은 근해도서에서 저항을 계속할 것을 제의하였다. 특히 한국으로부터 꼭 철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군사적 필요에 의거 불가피한 것이어야 하나 그 결과는 침략이 시정될 때까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온세계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여기에는 철수는 하되 결코 한국을 포기하지 않



는다는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동시에 확전은 억제해야 한다는 의지도 내포되었다. 이러한 전쟁지도 정신에 따라 당시 미국정부는 최악의 경우 망명정부를 유지하여 저항을 계속하도록 한국을 지원할 것을 정책목표의 하나로 설정하였다.<sup>61)</sup>

### 3. 政府의 移轉 檢討

미국정부가 1951년 1월 12일 중공군의 참전과 관련하여 결정한 유엔군의 전쟁지도 지침에는, 강압에 의한 철수시 유엔군은 일단 일본으로 철수하되, 한국정부와 군경을 제주도로 이전시켜 저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중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한국정부로 하여금 제주도에 망명정부를 설치하고 본토수복을 위해 저항을 계속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유엔군사령부가 수립한 초기의 철군계획(1950년 12월 6일)에서부터 고려되었으며 1951년 1월 12일의 정책결정에 따라 1월 15~19일 콜린스, 반덴버그 장군의 도쿄 방문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었다. 그러나 철군계획 자체가 철저한 보안하에 논의되었기 때문에 이 중대 사안도 비밀에 부쳐져 전혀 노출되지 않은 채 워싱턴과 도쿄에서 현안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다만 우리 정부에 대하여는 이 계획의 초기, 군사상황에 따라 최악의 경우 불가피하게 미군이 떠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정도로 의사 타진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1950년 12월 6일(워싱턴 12월 5일) 맥아더 장군이 어찌면 유엔군이 한국에서 떠날지도 모른다는 전황보고를 해왔다는 보도에 접한 장면 대사가 미 국무부에 들어가 “유엔군이 중공군을 격퇴하지 못하고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경우엔 한국 국민은 죽어버릴 것이 아니냐.”라고 하자, 국무부(러스크)에서는 “미국은 한국전쟁을 포기하거나 군사적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철군할 생각이 전혀 없다.”

라고 말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의미심장한 뜻을 전달하였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강요당하지 않는 한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미군이 한반도를 떠나야 할 경우,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한국 망명정부 수립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대사가 원한다면 그것에 대한 의견을 알고 싶다.<sup>62)</sup>

물론 이 의사타진은 본국으로 전달되었다. 당시 미국이 극비리에 추진한 이 계획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법적 정통성을 유지하고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와 군경을 제주도로 이전한다.”라고 전제하고 그 대상 인원을 행정부 관리와 그 가족 36,000명, 한국 육군 260,000명, 경찰 60,000명, 공무원, 군인 및 경찰 가족 400,000명을 포함하고 기타 요원을 고려해 도합 100만 명으로 판단하여 수송계획까지 발전시켰다.

망명정부 위치는 제주도를 적지로 결정하였으나 이곳에는 이미 25만 명에 달하는 피난민과 포로가 수용되어 있어 식수가 부족하여 추가 수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이곳에 수용된 포로들을 먼저 근해도로 이송하기로 하였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인을 일본으로 이동시키지는 않기로 하였다. 맥아더 장군은 이 계획의 검토과정에서 “한국인의 철수와 관련된 제반 문제는 유엔(회원국)과 협의하에 결정되어야 한다. 철수 장소, 급식문제, 의료지원을 비롯해 최종적 처리문제는 수년간 계속될 문제들이다. 이에 따른 비용 등에 대하여는 유엔군의 철군여부를 결정할 때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유엔군은 제공권과 제해권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중공군의 신장된 병참선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산 교두보(낙동강 방어선)를 상당기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특히 그는 철군시 한국 국민의 처리는 유엔으로서 하나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철군여부의 결정은 정치적 결단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up>63)</sup>

한국정부와 군의 도서 이전계획

19 January 1951

MEMORANDUM FOR THE JOINT CHIEFS OF STAFF

SUBJECT: Consultations with General MacArthur

II. FINAL CONFERENCE, JANUARY 19

1. Before departing Japan January 19th we had a final conference with General MacArthur and his staff.

2. General Collins read a message which he had just sent to the JCS summarizing his findings in Korea (DA IN 11108, copy attached as Appendix "A").

3. General Vandenberg outlined briefly the results of his inspection of the Air Force operations which he had found highly satisfactory.

4. a. General Hickey, Chief of Staff, FECOM, then opened discussion of the plans for evacuation of the Korean officials and the ROK army.

b. He gave the following estimate of the numbers that might have to be evacuated:

Government officials and dependents . . .	36,000
ROK Police Force . . . . .	60,000
ROK army . . . . .	250,000
Total . . . . .	356,000

c. In addition to the above, Eighth Army had estimated there would be approximately 400,000 government clerks and dependents of the ROK army and Police Force.

5. a. General Hickey stated that they had planned to place the NK and Chinese prisoners of war on the island of Cheju-Do. If this were done it would be impossible to place anyone else on this island, primarily because of the shortage of water (250,000 refugees are now on this island).

b. We pointed out the importance of placing ROK forces on Cheju-Do in order to maintain the legal status of continuing combat in Korea.

c. General Hickey stated they had planned to put the Korean marines on Cheju-Do and also to base the Korean navy and air force there. Admiral Joy said it would not be possible to operate naval forces from Cheju-Do since there was no harbor and that personnel and supplies could be landed in quantity only by LST's over open beaches.

d. It was agreed that as many ROK forces as practicable would be placed on Cheju-Do and that further study would be made and recommendations submitted as to the disposition of the remaining ROK forces, ROK officials and dependents.

이와 같이 ‘1·4후퇴’는 한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는 기로였으며 운명을 결정할 계획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었다. 유엔군측 지도부는 철군계획을 최고비밀(TOP SECRET)로 유지하고 미군과 유엔군의 철군계획과 한국정부와 군경의 도서 이전계획을 수립하였음은 물론, 이후 전면전이라는 우발상황에 대비한 유엔군의 재배치 계획과 한국정부와 군경의 다음 단계의 이동계획까지 수립하고 있었다.

이들은 철군을 고려하고 있다는 전략이 적에게 누설되어서는 안된다는 기본적 사고(思考) 보다도 이 결정이 알려질 경우 아군부대 특히 한국군에게 미칠 영향을 보다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다. “철군지시는 하달후 곧 알려질 것이 확실하며, 이는 한국군의 부분적인 붕괴를 초래하기 마련이며, 이로써 유엔군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부산교두보에 도달하여 실제 철군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그곳을 확보할 능력을 심대히 위태롭게 할 것이다.”라고 판단함으로써 이를 한국정부와도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않은 채 극비에 부쳤던 것이다. 그들은 철군 결정 시점을 전선이 금강선으로 남하할 때로 판단하였지만 부산교두보에 도착할 때까지는 철군을 위한 예비명령을 작성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유엔군측은 극비리에 대한민국 정부의 이전계획과 유엔군의 철수계획까지 수립해 두고 중공군의 기도와 전선상황의 추이에 초미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엔군측의 적의 능력에 대한 이러한 판단과는 달리, 후에 밝혀진 중공의 향미원조전사에 의하면, 놀랍게도 이 무렵 중공군은 유엔군을 더 남쪽으로 밀어붙일 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유엔군측의 후퇴를 철군의 징후로 보지 않고 자신들을 유인 격멸하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한 나머지 신정공세를 추격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스스로 멈추었다.

이에 따르면 중공군의 제1 및 제2차 공세에 투입된 총 30개 사단 중 2차로 투입된 제9병단(3개군 12개 사단)은 장진호 전투에서 입은 손실로 인하여 함흥 부근에서 재편성 중에 있어 신정공세에 참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1차로 투입되어 38도선까지 진출한 제13병단

(6개군 18개 사단)은 2차에 걸친 동계공세에서 많은 손실을 입고 약 23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탄약 및 보급이 바닥을 드러낸 실정이었다. 인민군은 3개 군단 약 75,000명이 전방으로 전개하였으나 재편성이 일천하여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였었다.

중공지원군 사령관 팽덕회는 유엔군의 철군 기도는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도리어 유엔군의 능력을 과대 평가하고, 모택동의 지시에 따라 우선 유리한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을 점령하는 선에서 동계공세를 일단 종료하기로 하였었다. 당시 팽덕회는 모택동에게 “신중하게 공격을 해야 한다.”라고 건의하고, 그 이유로서 유엔군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가를 내렸었다.<sup>64)</sup>

조선전쟁은 상당히 장기적이며 어려운 전쟁이 될 수 있다. 적군은 공격에서 방어로 전환하였고, 전선은 축소되고 짧아졌으며, 병력이 집중되고 방어정면이 협소하여 자연히 중심이 강화되었고 합동 작전에 유리하게 되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적군이 이 시점에서 조선을 포기하게 되면 제국주의에 매우 불리할 것이기에 영국, 프랑스도 미국이 조선을 포기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적은 다시 한두 번 패배를 겪더라도, 또 다시 2~3개 사단이 섬멸되더라도 아마 몇 개의 교두보 진지(부산, 인천, 군산)까지 물러나면서 방어할 것이며 결코 조선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모택동은 이에 대해 “적 정세에 대한 당신의 예측은 정확하다. 반드시 장기계획을 세워야 하고 신속하게 승리를 쟁취하려는 관점은 매우 해로운 것이다.”라고 팽덕회의 판단에 동의하는 전문을 중공군 사령부로 회신하였다. 특히 모택동은 신정공세 지침을 하달하면서 “이번 전역을 마친 후 주력은 스스로 철수하여 휴식과 재정비를 갖추게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 아군이 춘계에 다시 적을 섬멸함에 유리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는 신정공세의 목표가 국군과 유엔군을 남쪽 바다로 밀어붙이려는 것이 아니고 서울 점령에 있음을 분

명히 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팽덕회의 신정공세 결과 분석과도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sup>65)</sup>

1월 8일까지의 작전에서 아군은 이미 적군을 37도선 부근의 평택-안성-제천-삼척 선까지 축출하였다. 아군의 공격간에 적군의 병력을 대량으로 섬멸하지 못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적군은 계획적으로 철수작전을 실시해서 아군을 깊숙한 곳까지 유인한 후 아군의 측후방에서 상륙작전을 실시하려는 기도를 품은 것 같아 너무 멀리 전진하여 적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막고 앞으로의 작전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추격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1·4후퇴’는 분명 국운이 걸린 위기였으며 역사의 대전환점이었다. 이때 유엔군측은 중공의 참전 실체가 밝혀지면서 5억 인구에 50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한 그들의 대잠재력에 압도되고 또 소련이 그뒤에 버티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전면전의 위험성에 대비하면서 새 전쟁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들의 의도가 유엔군의 축출에 있을 경우를 상정하여 유엔군측은 강압에 의한 철군계획과 더불어 근해도서로 정부의 이전계획까지 내부적으로 수립해 두고 전선의 변화 추이에 온 관심을 집중하였다. 당시 전선의 약 50km 남쪽의 금강선을 이 계획 시행의 기점으로 잡고 있었으니 실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다.

역으로 공산군측은 추가적인 증원 없이는 유엔군을 밀어붙일 여력도 없었으며 일단 38도선 이남, 서울까지 진출하여 정치, 군사, 심리적 이점을 확보하고 춘계공세를 준비하겠다는 전략이었다. 당시로서는 유엔군의 철수를 제2의 인천상륙과 같은 상륙작전으로 자신들을 포위하기 위한 유인전략으로 판단하고 중심 깊은 진출을 기도하지 않았다. 게다가 신정공세에서 막대한 전사자<sup>66)</sup>를냄으로써 실제로 더 이상의 전진은 불가능하였다.

결과적으로 철군 시행 50km를 남겨둔 37도선에서 국군과 유엔군이

적을 저지하고 또한 적이 공세를 멈춤으로써 철군과 정부의 이전계획은 시행되지 않았지만 당시 피아의 상황 판단은 분명 역사의 아이러니였다. 물론 이 계획의 시행시 정부와 군이 유엔군사령부의 계획에 따라 도서로 이전할지 아니면 유엔군은 철수하더라도 부산교두보에서 끝까지 저항을 하기로 선언할지 그 선택은 오직 우리 정부의 몫으로서 별개의 상황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밖에도 이 계획은, 한국 국민의 처리는 유엔이 담당해야 할 문제로 지적하였을 뿐 후에 월남 패망시 나타난 바와 같이 자유를 위한 ‘보트 피플’이 얼마나 많이 발생할지 그 가능성과 대책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아무튼 이 상황은 우리 민족에게는 도서로 정부를 이전하느냐 아니면 교두보에서 저항하느냐의 운명적 선택의 기로가 될 수 있었다. 아울러 이 상황은 전시에 상대의 기도와 전략의 오판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국가 운명의 기로까지 몰고 갈 수 있다는 귀중한 교훈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주 기

- 1) 중국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편), ‘중국지원군의 조선전쟁참전과 항미원조전쟁의 전투에 관한 작전지시’, (KBS 6·25 40주년 특별제작반, 1990), p. 71.
- 2) 軍事科學院 軍事歷史研究所 編著, 中國人民志願軍 抗美援朝戰史,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1988), 韓國戰略問題研究所(譯), 中共軍의 韓國戰爭史, (서울: 世經社, 1991), p. 81.
- 3)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제26권),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 248.
- 4) 김재관(역), 리지웨이 한국전쟁, (서울: 정우사, 1984), p. 101.
- 5) 육군사관학교, 한국전쟁사, 1988, p. 513.
- 6) 정일권, 정일권 회고록, (서울: 고려서적, 1996), p. 339.
- 7)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Center of Military History U. S. Army, Washington, D. C., 1990, 육군본부(역), 밀물과 썰물, 1992, p. 192.
- 8) 위의 책, p. 193.
- 9)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앞의 책, pp. 83~84.
- 10) 위의 책, p. 86.
- 11)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193.
- 12) 丁一權, 앞의 책, p. 340.
- 13) 백선엽, 군과 나, (서울: 대륙출판사, 1989), p. 146.
- 14)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앞의 책, p. 87.
- 1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5권), 1972, p. 390.
- 16) 위의 책, p. 381.
- 17)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201.
- 18) 車圭憲, 전투, (서울: 병학사, 1986), p. 175.



- 19) 제5사단, 부대역사, 1969, p. 111.
- 20)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197.
- 21) 위의 책, p. 199.
- 22)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앞의 책, p. 90.
- 23)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205.
- 24) 위의 책, p. 214.
- 25) 위의 책, p. 220.
- 26) 丁一權, 앞의 책, p. 342.
- 27) 김재관(역), 앞의 책, p. 114.
- 28)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216.
- 29)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앞의 책, p. 92.
- 30)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226.
- 3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 328.
- 32) 위의 책, p. 425.
- 33) 위의 책, p. 422.
- 34)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227.
- 35) 위의 책, p. 228.
- 36) 위의 책, p. 230.
- 3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 433.
- 38)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224.
- 3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 343.
- 40) 유재홍, 격동의 세월, (서울: 을유문화사, 1994), p. 245.
- 4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제2집), 1987, pp. 352~354.
- 42) 국민방위군은 1951년 4월 30일에 해체되었다. 이 사건으로 신성모 국방장관이 인책 사퇴하고, 국민방위사령관 김윤근 준장 외 간부 4명은 처형되었다.
- 43) James F. Schnabel, Robert J. Watson, *The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Joint Chiefs Staff: 197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美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상), 1990, p. 310.
- 44) 한표옥, 한미외교 요람기, (서울: 중앙일보사, 1984), p. 113.

360 제 4 장 1·4 後退

- 4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앞의 책, p. 273.
- 46) 위의 책, pp. 291~299.
- 47) 외무부, 소련자료(2), p. 60.
- 48) 외무부, 소련자료(3), p. 127.
- 49)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앞의 책, p. 79.
- 50) 정일형, 유엔과 한국문제, (서울: 신명문화사, 1961), p. 31.
- 5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앞의 책, p. 302.
- 52) 한표옥, 앞의 책, p. 125.
- 53) 위의 책, p. 129.
- 5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앞의 책, p. 304.
- 55) 위의 책, p. 334.
- 5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5권), p. 14.
- 5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앞의 책, p. 336.
- 58) 위의 책, p. 315.
- 59) 위의 책, pp. 315~316.
- 60) 위의 책, p. 332.
- 61) 위의 책, p. 329.
- 62) 한표옥, 앞의 책, pp. 126~127.
- 6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앞의 책, p. 339.
- 64)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앞의 책, pp. 80~81.
- 65) 위의 책, p. 92.
- 66) 위의 책, p. 92에는 신정공세간 그들의 전사자를 8,500명(인민군 2,700명 포함)으로 기술하고 있다.

## 제 5 장 유엔군의 再反擊

### 제 1 절 再反擊의 前哨戰

#### 1. 유엔군의 再反擊 作戰方針

공산군은 1951년 1월 1일 중공군 6개군(제38, 제39, 제40, 제42, 제50, 제66군) 18개 사단과 인민군 3개 군단(제1, 제2, 제5군단) 14개 사단의 합동작전으로 제3차 공세, 이른바 신정공세를 펴 38도선 부근 주저항선에 배치된 국군과 유엔군을 밀어붙여 4일 서울을 두 번째 점령한 다음 전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인민군 제1군단, 중공 제50, 제42군은 한강을 도하 수원, 이천으로, 인민군 제2, 제5군단은 원주, 제천, 영월, 안동으로 추격작전을 펼쳤다.

그러나 공산군은 계속된 동절기 전투에서 전력이 저하되고, 혹한과 피로로 지쳐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병참선의 신장(伸長)과 유엔군의 공중공격에 보급품이 고갈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후방지역에 대한 유엔군의 상륙작전을 우려하여 동부전선으로 침투 중인 제2전선 부대를 제외한 주력부대는 수원-금양장리(金良場里)-이천-여주-원주선에서 추격을 멈추었다. 적은 이 공세작전으로 38도선에서 남쪽으로 80~110km의 지면은 확보하였으나 85,000여 명(인민군 2,700여 명 포함)의 막대한 인명 손실을 입었다. 그리고 유엔군의 조직적인 철수작전으로 유엔군 주력부대 격멸에 실패하여 공세기도에 차질을 빚어 춘계공세를 준비하기 위하여 1월 8일 신정공세를 종료하고 방어작전으로 전환하였다.<sup>1)</sup>

적은 인민군 제1군단을 인천 부근에, 중공 제50군을 수원-금양장리 선에, 제42군을 여주-이천 선에 배치하여 한강 남쪽에 주저항선을 편성하였다. 그 후방에는 중공 제39군을 의정부(議政府) 일대에, 제38군과 제40군을 서울 북동의 수락산(水落山) 일대, 중공 제66군은 양덕원리(陽德院里) 부근에 집결시켜 휴식과 부대정비에 주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적의 예비인 제9병단은 장진호 부근 전투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어 아직 함흥 일대에서 재정비 중에 있었다. 그러나 동부전선의 인민군 제5군단은 원주로, 제2군단 예하부대들은 제천-영주 선으로 침투하고 있었다.

국군과 유엔군은 주저항선을 38도선 부근에서 37도선 부근의 평택



정일권 총참모장과 리지웨이 장군이 재반격작전을 협의하고 있다.

-안성-장호원-원주-주문진을 연하는 D방어선으로 조정하면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단이 북동쪽으로부터 적의 포위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 제3군단도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sup>2)</sup> 그러나 국군이 담당한 동부전선에서는 인민군이 태백산맥의 험한 준령을 이용하여 계속 침투작전을 펼쳐 원주-주문진 선에 방어진지 편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제8군사령관은 1월 5일 D방어선을 원주-주문진에서 64km 남하시켜 원주-삼척 선으로 수정하고 국군 제1, 제3군단이 점령하도록 하였다.<sup>3)</sup>

이 무렵 유엔군의 전선은 다음과 같다. 서부전선의 평택-안성 선에 배치된 미 제1군단(군단장: Frank W. Milburn 중장)은 영 제29여단을 1번 국도 서쪽에, 미 제3사단을 1번 국도와 17번 국도(천안-안성-금양장리-경안리) 사이에, 국군 제1사단을 안성 북쪽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미 제25사단과 터키 여단은 군단예비로 천안에 확보하였다. 이때 국군 제1사단 장병들은 방어진지를 보장하면서 개전초기와 '1·4 후퇴'로 두 번씩이나 서울 사수에 실패한 불명예를 씻기 위해 심기일전하여 불퇴전(不退轉)의 정신력 배양, 교육훈련, 장비보충에 주력하였다.<sup>4)</sup>

미 제1군단의 우인점으로 장호원-남한강에 배치된 미 제9군단(군단장: John B. Coulter 중장)은 국군 제6사단을 죽산리(竹山里)에, 영 제27여단과 미 제24사단을 장호원 일대에 배치하고 미 제1기병사단을 후방지역과 후보급로를 엄호하기 위하여 충주에 예비로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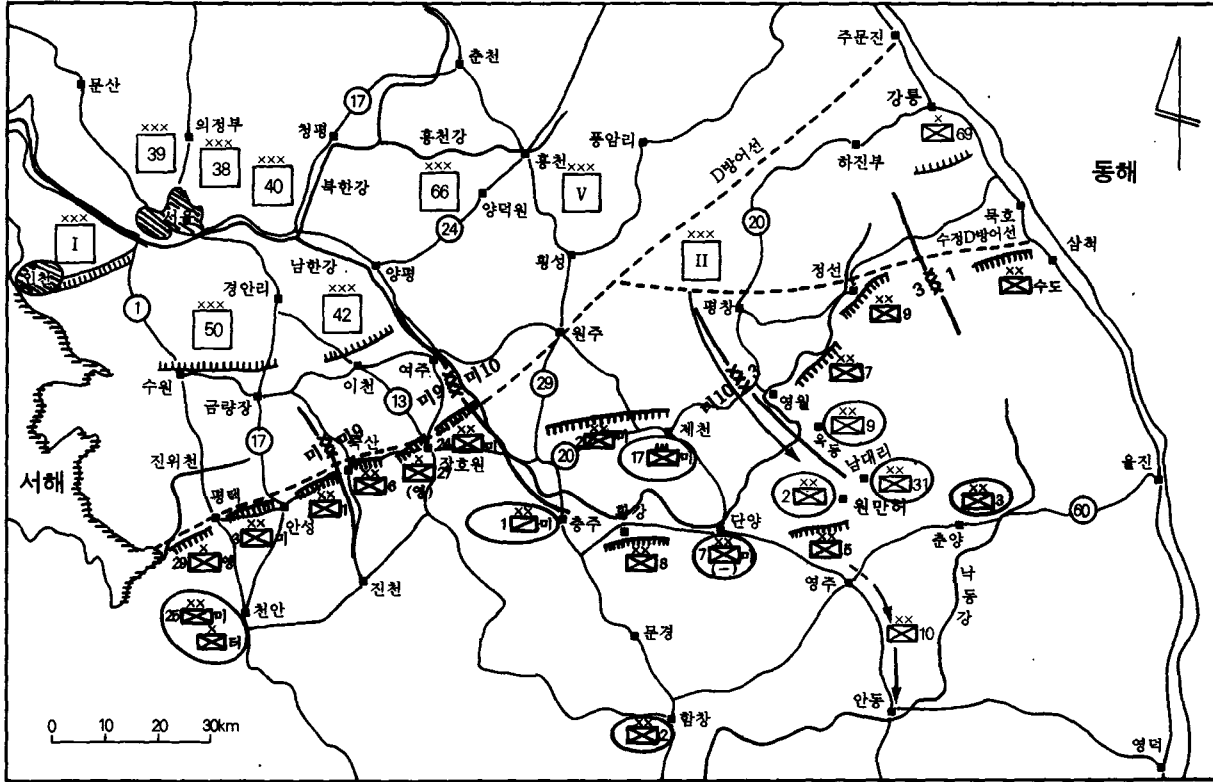
그리고 중부전선의 남한강-원주 선에 배치된 미 제10군단(군단장: Edward M. Almond 소장)은 국군 제5사단을 문막(文幕) 서쪽에, 국군 제8사단을 문막 동쪽에, 미 제2사단을 원주 남쪽 일대에 배치하였고 군단예비인 국군 제2사단은 충주 지역의 군사시설과 후보급로를 엄호하기 위하여 충주에, 미 제7사단은 제천-안동 간의 후보급로를 경계하도록 배치하였다.

방어선의 수정으로 평창(平昌)－장평리(長坪里)에서 이동을 개시한 동부전선의 국군 제3군단(군단장: 유재홍 소장)은 9일 국군 제7사단을 영월 북쪽에, 국군 제9사단을 정선(旌善) 북쪽에 배치하고 국군 제2군단에서 배속된 국군 제3사단을 군단예비로 춘양(春陽)에 확보하였다. 그리고 동해안의 국군 제1군단(군단장: 김백일 준장)의 수도사단은 주문진에서 삼척으로 이동 중이나 도로망이 결핍되고 그나마 결빙으로 인하여 부대이동이 지연되어 12일 삼척 서쪽의 방어선을 점령하였다.

새 방어선의 방어력도 개선되고 장병들의 사기도 향상되어 전선이 안정되자 제8군사령관(Matthew B. Ridgway 중장)은 유엔군은 대규모 증원이 불가능한 반면 공산군은 유엔군을 한국에서 축출하거나 섬멸을 기도하고 있어, 아군이 일정한 방어선을 장기간 점령하는 것은 심대한 피해만 예상되므로 지역의 확보보다는 적이 이동 중일 때 공격하는 것이 최대한의 피해를 주거나 공세를 지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군의 전투력도 보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으로 결론짓고 공세 작전으로 전환을 결심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작전방침을 하달하였다.<sup>9)</sup>

- (1) 아군은 병력의 우세를 바탕으로 하는 중공군의 인해전술을 제압하기 위해 화력과 기동력의 우세를 최대한 활용한다. 화력과 기동력에 의한 살상전술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 보(步), 포(砲), 기갑(機甲) 등 제병과의 긴밀한 협동과 해공군은 지상작전에 대한 화력지원에 중점을 둔다.
- (2) “나의 목표는 지역의 확보보다는 오로지 적을 살상하는 것이다”라는 말과 같이 작전의 주목표는 아군 손실을 최소화하고 적의 인원, 물자에 최대의 출혈을 강요하는 데에 둔다.
- (3) 공격은 모험적인 작전을 회피하고 최초 소단위부대의 위력수색을 실시하여 적정을 확인한 후에 보다 강력한 전투정찰 또는

피아의 배치(1951. 1. 15)



제 1 절 再反擊의 前哨戰 365

제한목표를 탈취하기 위한 전면공격으로 확대한다.

- (4) 공격간에는 공격의 속도보다는 인접부대와의 횡적인 협조와 연결을 긴밀히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 축차적인 통제선을 설정한다. 그리고 공격부대에 의하여 아군 전선이 크게 돌출되거나 적을 우회하여 진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공격부대는 군단장급 지휘관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이 통제선을 통과한다.
- (5) 적의 대규모 공세가 개시되면 아군은 인접부대 사이의 연락과 협조를 유지하면서 사전 계획된 축차방어선으로 질서있게 후퇴하되, 어느 한 부대의 급속한 철수로 말미암아 전선의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적에게 돌파구나 후방침투를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 (6) 후퇴간 모든 부대는 일방적인 철수가 아니라 반드시 적과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지연전투를 감행하고 모든 가용한 기회를 포착하여 최대의 출혈을 강요하면서 적의 주력을 아군의 화망속으로 유도한 다음 지상 및 항공화력을 집중 강타한다.
- (7) 적의 공격기세가 한계점에 도달하면 아군은 지체없이 공세로 전환하여 반격을 개시 지속적인 기동전을 수행함으로써 적의 소모와 출혈을 강요하여 전투력을 소모시킨다.

이리하여 유엔군은 제8군사령관의 ‘분쇄기식 전술(粉碎機式 戰術)’이라고 알려진 이 작전방침에 의거 전전상태(戰前狀態)로의 복귀를 전제로 한 제한된 목표에 대한 단계적인 공격작전을 펼치게 되었다.<sup>6)</sup>

## 2. 威力搜索 作戰

미 제8군사령관의 작전방침에 따라 서부전선에서는 적의 공세중지



와 아군의 철수작전으로 단절된 접적을 유지하고 공산군의 기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방어선 전방으로 정찰대를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미 제1군단에서는 7일 국군 제1사단 수색대가 금양장리 부근에서 적과 경미한 접촉을 가졌고, 그 후 군단은 오산과 그 남쪽의 진위천(振威川) 부근에 전투전초를 설치하기 위하여 군단예비로 천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미 제25사단 제27연대를 투입 1번 도로 좌우측과 진위천 북쪽지역을 광범위하게 정찰하였으나 경미한 적과 조우하였을 뿐이었다. 또한 우인점 미 제9군단 정찰대도 이천과 여주 지역을 수차례 정찰하여 그 지역이 공간 지대임을 확인하였다.

1월 7일부터 15일까지 미 제1, 제9군단이 D방어선 북쪽지역을 정찰하였으나 특별한 접적이 없어 양군단의 전방지역에는 적 병력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민간인 첩보 보고와 항공관측에서는 중공군이 서울에서 천천히 계속 남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 다른 첩보에 의하면 유엔군 정면에는 중공군 17만 4천여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그들의 배치나 기도가 밝혀지지 않았고, 중공군이 실제로 이곳에 전개하고 있는지도 단정할 수 없었다. 이때 그들이 많이 집결해 있는 듯한 지역은 수원과 오산 사이의 1번 도로변과 경안리 부근의 13번 도로와 17번 도로의 교차지점으로 추정되었다.<sup>7)</sup>

보고되는 빈약한 정보에 불안함을 느낀 미 제8군사령관은 37도선으로 철수한 이후 최초의 공세작전을 명령하기 이전에 적의 배치, 규모, 장차의 기도 등을 탐색하고 동부전선에 대한 압력을 견제하기 위해 서부전선에서 제한된 규모의 위력수색작전을 계획하였다.

제8군사령관은 우군 전선의 근거리에서 있는 오산—수원 간에 집결된 적을 공격목표로 선정하고, 그 지역내에 적의 부대규모와 방어력을 탐색하기 위하여 미 제1군단으로 하여금 최소한 1개 전차대대로 증강된 부대를 투입하여 이틀 동안 이 지역을 정밀 탐색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당시 각 사단의 전투력과 병력보충 정도로 보아 아직 공격작전을 전개하는 데는 불리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수

색작전에 추가로 병력투입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sup>8)</sup>

미 제1군단장은 이 임무를 군단예비인 미 제25사단에 임무를 부여하였고, 사단장은 예하 제27연대에 1개 전차대대와 포병 및 공병을 증원시켜 정찰대를 편성하였다. 정찰대의 우측방을 엄호하기 위하여 미 제3사단은 보병과 전차로 편성된 소규모 부대를 파견하여 수원-금양장리 간의 20번 도로를 차단하도록 하고, 국군 제1사단은 금양장리 남쪽 5km 지점의 17번 도로상의 천리(泉里)에 1개 대대를 배치하였다. 이 수색작전은 제27연대의 별칭에서 울프하운더(Operation Wolfhound)라는 명칭이 붙여졌다.<sup>9)</sup>

제27연대 주력부대는 1월 15일 1번 도로를 따라 북진 중 적과 접촉은 없었으나 도로 및 교량이 파손되고 또 적이 도처에 설치한 지뢰 및 장애물지대로 인하여 진출이 지연되었으며 야음으로 오산 북쪽에, 그리고 서해안 39번 도로(평택-발안장-수원)로 진출한 제1대대도 발안장(發安場) 부근에서 진출을 중지하였다.

이날 우인점에서 위력수색작전부대를 지원한 국군 제1사단의 제12연대 제2대대는 17번 도로상의 천리로 접촉없이 진출하였으나 동일축선으로 기동한 미 제3사단의 제15연대 1대대와 2개 전차중대는 천리 북쪽의 금양장리 부근에서 약 600~800명으로 추정되는 중공군의 소화기 및 강력한 박격포 사격을 받아 치열한 공방전에 들어가 수원으로 연결되는 20번 도로를 목전에 두고 진출이頓挫되었다.

16일 오전 군단의 철수명령이 하달되자 제27연대장은 철수하기 전에 수원에서 발견된 적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가하기 위하여 차량화보병중대와 전차중대를 신속히 수원으로 진격시켰다. 정찰대가 수원 남방 500m 지점까지 진출할 무렵 그곳에 배치된 적과 후방 시가지 옥상에서 기관총으로 화력지원하는 중공군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어 더이상 진격은 중지하고 항공폭격의 엄호하에 철수하였다. 수원 남쪽에서 적의 위치를 확인한 위력수색작전부대는 서해안에서 진위천을 연하는 군단 전초선에 배치되었다.<sup>10)</sup>

한편 우인접 미 제9군단도 미 제1군단 작전의 우측방을 엄호하기 위하여 국군 제6사단 제7연대 제3대대를 군단 전투지경선 전방의 금양장리에, 제2대대를 백암리(白岩里) 북쪽에 배치하였다. 군단은 상주에 있던 예비인 미 제1기병사단의 제70전차대대를 진천으로 전진 배치하여 국군 제6사단(사단장: 장도영 준장)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군단장은 금양장리-이천-여주를 연결하는 도로 남쪽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적을 포착하기 위하여 우전방의 여주에는 미 제24사단의 1개 대대를, 중앙의 이천에는 전차와 포병으로 증강된 1개 대대를 배치하여 책임지역을 방어하였다. 군단은 접적이 없자 1월 22일 제8기병연대에 제70전차대대와 포병 및 공병으로 증강된 특수임무부대(Task Force Johnson)를 편성하여 백암리 부근의 국군 제6사단 전초진지를 초월, 양지리(陽智里)로 진출시켜 금양장리-이천 간의 20번 도로 북쪽의 고지대를 정찰하도록 지시하였다. 정찰대는 양지리 부근에서 적의 사격을 받았으나 저항은 경미하였고 이 교전으로 20번 도로 이남에는 적의 병력이 없으며 소규모의 적이 주로 도로변에 배치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번 위력수색작전에서 미 제1군단은 항공작전으로 1,180명, 지상작전으로 195명을 사살하고 5명의 포로를 획득한 반면 아군은 10명의 손실을 입었고, 미 제9군단은 항공작전으로 50명, 지상작전으로 15명을 사살하고 7명의 손실을 입었다.

제8군사령관은 이번 작전의 의의를 작전의 결과보다 중공군의 참전으로 사기가 저하된 유엔군 장병들의 공격 의지가 고양되었다는 데에 두고 이를 높이 평가하였다.<sup>11)</sup> 이 작전으로 수원-금양장리-양지리 선 이남에는 적의 대부대가 진출해 있지 않으나 소규모로 편성된 부대가 이 선을 따라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생포된 포로로부터 서울 이남에 인민군 제1군단 예하 제8사단이 배치된 것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번 작전은 유엔군이 지난 크리스마스 공격(1950년 11월 24일) 이후 처음 실시된 아군의 공격작전으로써 제

반격의 시발점이 되었다.

### 3. 第 2 戰線部隊의 遮斷

서부전선에서는 전선이 안정되어 위력수색을 실시하여 적정을 파악하고 한강으로 진출을 모색하는 동안 동부전선에서는 신정공세와 때를 맞추어 인민군 제2군단 4개 사단(제2, 제9, 제10, 제31사단)이 홍천-횡성-원주 선으로 중심 깊게 침투하여 험난한 지형을 이용, 제천-영월 남쪽의 단양, 문경, 영주, 안동 일대에 제2전선을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동부전선의 국군 제3군단과 국군 제1군단은 홍천-주문진의 방어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1월 5일 20:00 육군본부 명령(제258호 수정명령 제1호)에 의거 영월-삼척(황우선)으로 철수하였다.<sup>12)</sup>

9일 이형근 준장의 후임으로 제3군단장으로 부임한 유재홍 소장은 영월 북쪽으로 흐르는 남한강을 따라 좌전방 제7사단(사단장: 김형일 준장)을 영월 북동쪽 완택산(完澤山) 일대에, 우전방 제9사단(사단장: 김종갑 준장)을 정선 부근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군단의 전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배속된 국군 제3사단(사단장: 최석 준장)을 군단예비로 춘양에 배치함으로써 10일부터 태백산맥의 험한 준령을 따라 침투하는 적의 이동을 차단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게 되었다.

인민군 제2군단(군단장: 최인 소장)은 낙동강전투 이후 동부 산악지대로 철수하면서 다른 부대의 낙오자와 패잔병들까지 수집하여 화천(華川)-김화(金化)-양덕(陽德)에서 재편성된 부대로, 유엔군이 평양에서 철수할 때에는 게릴라전을 수행한 바 있으며, 인민군 부대 중 동부 산악지형에 익숙하고 침투전술에 가장 능통한 부대였다.<sup>13)</sup> 이들은 이 특성을 이용하여 아군의 주저항선 후방지역에서 교란작전을 펼쳐 전력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신정공세가 개시되기 전에 침투를 개시

하였다. 인민군 제2군단은 전위에 제10사단, 우전방에 제2사단, 좌전방에 제9사단, 그리고 제31사단을 후속제대로 하는 침투제대를 편성하였다. 그들은 선봉인 제10사단이 원주 부근에서 미 제2사단과 조우하자 미군과의 접촉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쪽으로 이동하여 영월 지역으로 남하하였고, 주력부대도 10사단을 후속함으로써 29번 도로 동쪽으로 침투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때 인민군 제2군단은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3군단 사이에 생긴 제천-영월 간의 약 24km의 배치공간을 이용하여 접적없이 진출할 수 있었다.

동부전선의 상황을 분석한 제8군사령관은 미 제10군단의 최대의 위험은 원주로 내려오는 인민군 제5군단이 아니라 이 통로로 침투 중인 제2군단이라고 판단하고 미 제10군단에 지역내의 통로를 차단하고 지역내 인민군을 격멸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미 제10군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1월 11일 제8군 예비로 상주 부근에 대기하고 있던 제187공수연대전투단을 안동으로 이동시켜 미 제10군단에 배속하였다. 아울러 안동-영덕 간의 도로 남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함흥에서 철수하여 마산에 대기 중인 미 해병제1사단을 영천-경주-포항 지역으로 이동시켜 후방지역 경계를 강화하였다.<sup>14)</sup>

미 제10군단장은 제천-영월 사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신정공세 기간중 접적이 경미하였던 문막 동쪽의 국군 제5사단을 이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그동안은 미 제7사단이 정찰활동을 강화하도록 조치하였다.

인민군 제10사단의 선두 제27연대가 9일 제천으로 진출 중 미 제7사단 정찰대와 조우하여 치열한 격전을 펼쳤는데, 이때 체포된 포로의 진술에 의해 10사단의 목표는 첫째는 단양이고, 그후는 대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미 제10군단에 배속된 국군 특별공격대대(대대장: 배동걸 소령)는 1월 12일 점촌에서 단양으로 침투한 적이 엄폐가 용이한 계곡 통로를 이용 주변의 영주, 문경, 점촌, 예천으로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황장산(黃場山) 하록의 적성리(赤城里)를 수색정찰하였다. 대대가

속영을 준비하는 동안 단양에 침투한 인민군 제10사단 1개 연대가 경산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이 지역으로 남하하다가 아군 전초와 조우하였다. 인민군은 전쟁 초기 이 지역에서 활동하여 지형에 익숙한 이 점을 이용, 대대를 포위한 후 기습공격을 개시하였다. 대대는 사주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이틀 동안 치열한 혈전을 펼쳤으나 대대를 증원할 전차부대는 적이 매설한 지뢰에 선두전차가 파괴되어 통로가 차단되는 바람에 지원이 불가하고 또 수적인 열세로 위기상황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대대가 이에 굴하지 않고 항공폭격과 공중보급을 받으며 완강히 저항하자 적은 이틀 동안의 혈전에서 1,000여 명의 전사자와 다수의 장비를 유기한 채 철수하였다. 15일 전투가 일단락될 무렵 도착한 제10군단 증원부대장은 물론 대대의 승전보를 받고 달려온 군단장도 이 전투를 극찬하며 대대를 격려하였다.<sup>15)</sup>

미 제10군단장은 최초에는 새로 생긴 공백지역에 병력을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적이 중심 깊이 침투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제천-영월 간을 방어하는 것 보다 후방지역에 중심 배치하여 정찰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16일 군단장은 군단 방어선을 여주-원주 선에서 운남리(雲南里)-제천 북쪽으로 남하시켜 미 제2사단이 주저항선 방어를 전담하도록 하고 문막 일대를 방어 중인 국군 제5사단(사단장: 민기식 준장)은 영춘(永春)에, 제8사단을 황강리(黃江里) 일대에 투입하였다.<sup>16)</sup>

적은 군단의 증원부대 투입에도 불구하고, 천연적인 험준한 지형과 야음을 이용하여 계속 후방으로 진출하였다. 인민군 제2사단은 이미 안동-의성 지구로 침투하여 후방교란을 하고 있는 제10사단과 연결하기 위하여 원주-제천-안동 선으로 진출하여 12일 형제봉(兄弟峯) 서쪽의 원만허(元滿墟)로 진출하였다. 그리고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3군단의 전투지경선인 남한강변을 따라 침투한 인민군 제9, 제31사단은 국군 제3군단의 후방지경선인 영주-봉화-춘양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9사단은 영월 남동쪽 옥동리(玉洞里)에, 제31사단은 남대리(南大

里) 부근에 집결 중이었다.<sup>17)</sup>

적이 침투한 지역은 속리산(俗離山)－이화령(梨花嶺)－죽령(竹嶺)－소백산(小白山)－태백산(太白山)으로 연결되는 소백산맥 지역으로서 적은 산악거점을 점령하여 활동이 용이하였다. 이에 미 제10군단은 미 제7사단을 제천에서 영월 방면으로, 제187공정단은 제천－영주 간의 29번 도로 주변을, 국군 제2사단의 제17연대는 단양에서 충주에 이르는 도로변을 수색정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군 제5사단의 주력은 영주 북쪽의 군단후방을 정찰하도록 하고 국군 제2사단(사단장: 함병선 소장) 주력은 문경새재에 집중 배치하여 산속에 고립된 패잔병들의 단양 부근 진출을 차단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때 국군 제3군단장도 군단의 방어선인 두평(斗坪)－후천(後川)－정선－송계리(松溪里) 전방에서 적의 강력한 저항이 없자 군단 후방 지역의 위협을 제거하고 후속부대의 증원을 차단할 목적으로 예비인 제3사단을 공격에 투입하였다. 제3사단은 18일 남대리 부근에서 활동 중인 적 제31사단을 격멸하기 위하여 제18연대가 남대리, 제22연대가 옥석산(玉石山), 제23연대가 어래산(御來山)을 공격 목표로 설정하고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때 적은 산속으로 잠적한 후 야음을 이용 기습 공격으로 저항하였으나 포병화력과 항공지원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분산되어 산중으로 도주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사단의 좌인접에서 차단진지를 점령하고 정찰 중인 국군 제5사단 지역으로 철수하여 더 큰 피해를 입었다. 19일 제7사단도 제8연대가 사단 후방지역을 방어하고 제3연대와 배속된 제3사단 제23연대로 석항(石項)에서 영월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여 망경대산(望景臺山), 매봉산을 확보하였다. 사단은 적을 계속 추격하여 영월을 공격할 계획이었으나 적을 완전 포위섬멸하기 위해 일시 공격을 중지하고 미 제7사단 제17연대와 협동작전을 준비하였다. 22일 미 제7사단 제17연대는 북쪽에서, 국군 제3연대는 남쪽에서 영월을 포위공격하여 영월 서쪽의 일곡(日谷)에서 연결하였다. 이때 영월 시내 도처에는 적의 시체와 소화기들이 미

처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산재해 있었다.<sup>1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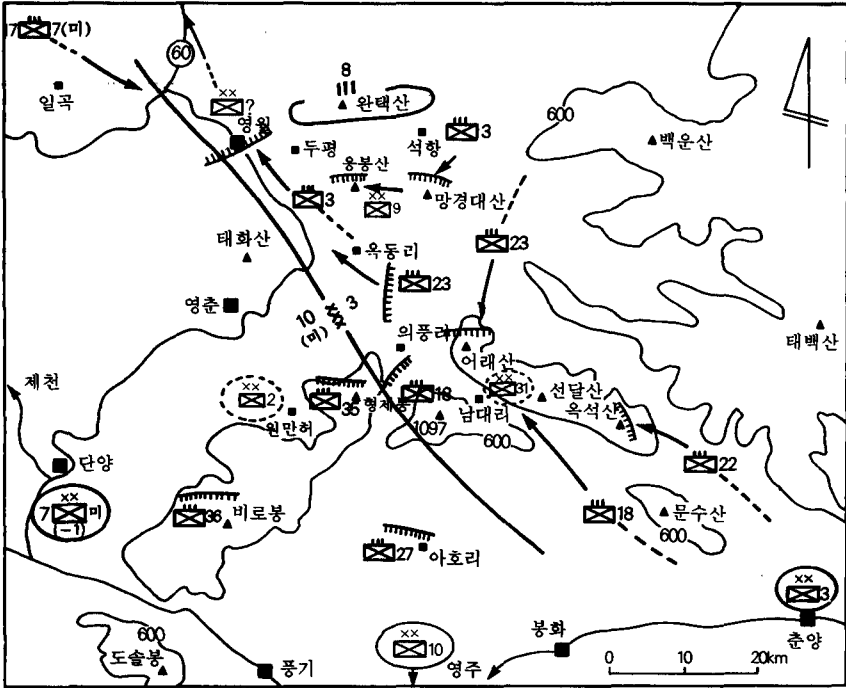
인민군 제2군단의 침투로 제10군단도 병참선이 차단되고 일부 지휘시설과 보급소가 피습당하여 혼란이 야기되어 군단의 동측지역이 위협하였다. 이에 군단은 수색작전으로 적과의 교전을 유도한 후 포병사격과 항공폭격으로 적 병력과 탄약을 파괴하여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이때 아군은 눈이 쌓이고 영하 21도까지 내려가는 혹한이 계속되자 작전지역내의 인민군이 피난처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건물을 파괴하였다.

인민군 전선사령부는 중심 깊게 진출한 제2군단이 그동안의 전투로 막대한 손실을 입어 전력이 약화되자 동군단을 증원하기 위하여 제5군단 제27사단을 제천으로 투입하여 제2군단에 배속시킨 후 계속 저항하였으나, 제2군단의 활동은 점진적으로 감소되어 1월 22일경에는 조직이 와해된 듯 대열이 흩어지고 저항도 경미하였다.<sup>19)</sup> 당시 생포된 포로에 의하면 유엔군의 초토화작전으로 인민군은 추운 날씨 뿐만 아니라 질병 때문에 사기가 크게 저하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상황이 불리해진 인민군 전선사령부는 제2군단에 1월 20일 후방 침투작전을 종료하고 평창(平昌) 부근으로 철수하여 재정비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심각한 상황에 봉착한 4개 사단(제2, 제9, 제27, 제31사단)은 1월 말에야 겨우 철수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조직은 대부분 붕괴되었으며 당시 제8군은 인민군 4개 사단 병력 16,000명 중 생존자는 8,600명 정도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특히 공격의 침범부대인 제10사단은 안동으로 진출 도중에 큰 피해를 입어 평창으로 철수할 계획이었으나 북쪽에서는 미 10군단에 의해 퇴로가 차단되고 남쪽으로는 미 제1해병사단에 저지되어 고립되었다. 인민군 제2군단장은 제10사단에 포위망 탈출이 불가능하면 미 제10군단의 후방 산악지역에 잔류하면서 유격활동을 펼치도록 명령하였다.<sup>20)</sup> 이후 제10사단은 18일부터 3주 동안 포항-안동-영덕에서 펼친 미 해병사단과 동사단에 배속된 국군 제1해병연대(제5세대 증강)의 수색작전에 완전



영월부근 전투(1951. 1. 18~1. 22)



히 조직이 와해되었다.

적의 제2전선부대는 1월 말을 전후하여 소탕되었고, 후방지역이 안정을 되찾자 미 제10군단은 남한강-제천-영월 선에, 그리고 우인접국군 제3군단도 영월-정선 선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편성함으로써 다시 전선을 회복하였다.

## 제 2 절 再反擊 作戰

### 1. 漢江으로의 再進出

국군과 유엔군은 1951년 1월 중순 서부전선에서 펼친 위력수색작전에 이어서 동부전선에서도 적 제2전선부대를 차단 및 소탕함으로써 반격작전의 계기가 조성되었으나 리지웨이 장군은 총공세작전으로 전환하기에 앞서 한강 남쪽에 배치된 적의 방어진지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였다.

당시(1월 23일) 제8군 정보참모는 중공군 제13병단의 주력이 한강과 수원-여주 사이에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항공정찰에서도 적이 한강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목격하였으나 아직 이 지역에서 대규모의 적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 최근 이 지역 남단에서 실시된 위력수색작전에서도 적의 조직적인 방어활동을 확인하지 못하고 적과 산발적으로 조우(遭遇)하였다. 적정이 이처럼 모호하자 제8군사령관은 한강 이남 지역에서 중심 깊게 강력한 위력수색작전을 실시할 목적으로 '선더볼트 작전(Operation Thunderbolt)'이라고 명명된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작전은 울프하운더 작전보다 더 강력한 부대로 신속하게 중심 깊어 실시하는 파괴적 위력수색작전이라는 의미로 '선더볼트', 즉 번개작전이란 명칭이 붙여졌다.

이 계획에는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이 전차로 증강된 미군 1개 사단과 군단장의 판단에 따라 국군 1개 연대를 추가로 투입하여 1월 25일에 작전을 개시하여 한강까지 수색작전을 펼치도록 되어 있었다. 이날은 중공군의 침략으로 후퇴작전을 계속해 오던 아군이 재반격으로 이전(移轉)하는 전환점이 되는 날이었다.

제8군사령관은 작전부대간의 연결을 유지하고 공격체대의 안전한

진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단지역 전방에 8km 간격으로 5개의 작전 통제선을 설정하였고, 통제선 통과는 군단장에게 위임하였다.<sup>21)</sup> 그리고 작전부대에 충분한 화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 제5공군이 25일부터 이틀 동안 최대한의 근접항공지원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인천 외항에 있는 미 제95기동함대의 순양함과 2척의 구축함으로부터 함포사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은 한강진출 작전의 우전방을 엄호하기 위하여 여주의 미 제9군단과 접촉을 유지하면서 여주-원주 선 이남으로 적 침투를 차단하도록 하였다.

군사령관은 작전에 앞서 24일 적의 위치를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정찰기에 동승하여 2시간 동안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의 전방 32km까지 항공정찰을 실시하였다. 정찰 결과 한강 이남에는 적의 대규모 병력을 발견할 수 없어 작전부대가 쉽게 이 지역을 확보할 것으로 확신하였다. 각 군단의 공격제대는 최종목표인 한강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위력수색작전(Operation Wolfhound)으로 이미 수색이 완료된 방어선 전방의 서해안-오산-여주를 연하는 공격개시선을 점령하였다.

### (1) 水原-利川 進出 作戰

D방어선으로 철수하여 3주 동안 부대를 재정비한 미 제1군단은 1월 25일 좌전방 39번 도로와 1번 도로 사이에는 미 제25사단의 제35연대를, 우전방 55번 도로에는 터키 여단으로 공격제대를 편성하고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최초에는 이미 위력수색작전으로 수색이 완료된 지역이어서 접적이 경미하여 쉽게 제1통제선을 점령하였다. 당시 포로들은 전방 48km 지역에 중공군 제50군 예하 2개 사단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들의 전초진지는 3~8km 북쪽에 있다고 진술하였다.<sup>22)</sup> 이 위치는 공교롭게도 수원에서 20번 도로를 따라 여주 북쪽의 한강변

에 이르는 아군의 제2통제선과 일치하였다. 군단이 제2통제선으로 공격을 재개하자 적의 저항이 점차 완강해져 우전방 터키 여단은 신갈(新葛) 부근에서 중공군과 치열한 격전을 펼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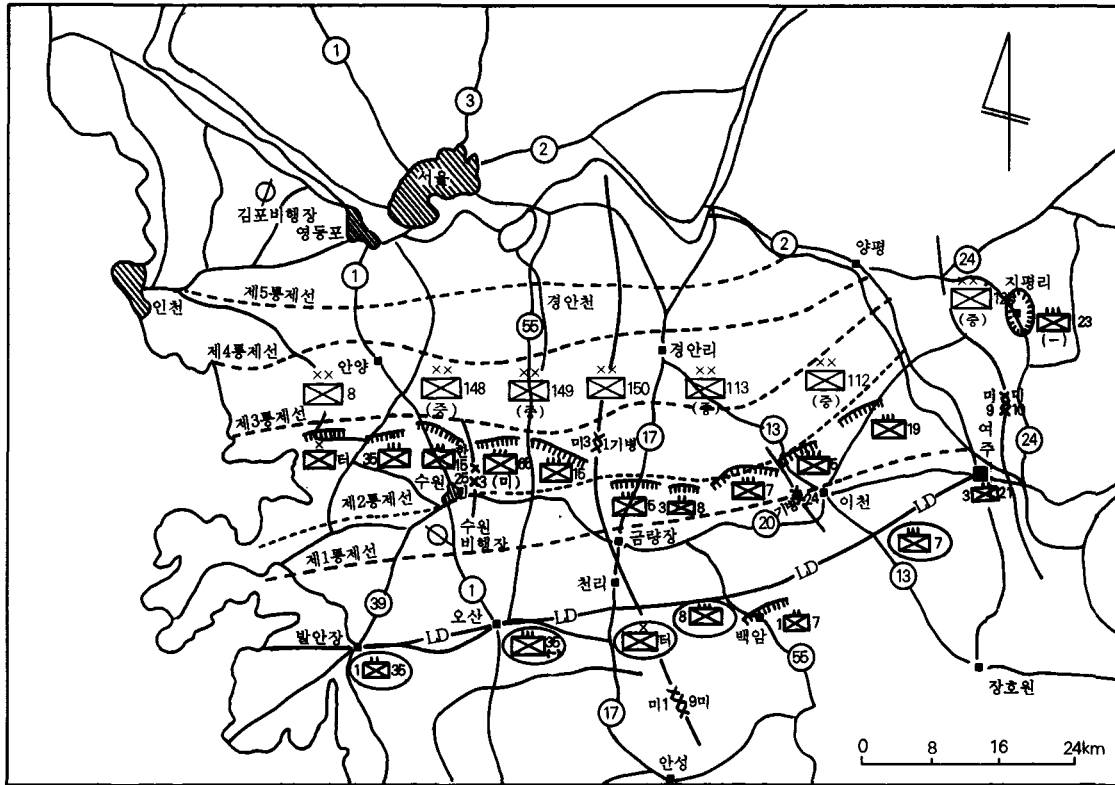
미 제25사단에 배속된 터키 여단은 한강진출 작전의 우전방 공격 제대로 신갈 남쪽의 151고지와 금양장리를 공격하게 되었다. 26일 여단이 고매리(古梅里) 부근에서 미처 피난 가지 못한 주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151고지로 접근하자 적의 저항은 의외로 완강하였다. 이때 공격의 선봉에 나선 제3대대는 군우리(軍隅里) 전투에서 명령없이 철수하여 얻게 된 회교 윤리상 용서받을 수 없는 치욕적인 불명예를 이번 기회에 만회하기 위하여 작렬하는 탄막 속을 뚫고 용감하게 전진하였다. 후에 확인되었지만 적은 이 고지에 아군의 직사포 사격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였고, 진지마다 기관총도 배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원형의 사주방어진지 내부에는 박격포진지까지 구축한 강력한 요새였다. 여단은 17:30 미 전차의 화력지원을 받아 총검이 부딪치는 치열한 백병전 끝에 151고지를 점령하였다.

이 전투에서 확인된 적 시체만 474구이었는데, 전사자의 대부분은



아군이 수원에서 북으로 진격하고 있다.

제1단계 한강진출작전(1951. 1. 25~1. 31)



개머리판에 의하여 턱이 깨어지고, 총검에 찢린 흔적이 있었다. 이 전투로 터키 군의 용감성은 유엔 참전군의 귀감이 되었고, U.P.I. 기자에 의해 백병전에 관한 생생한 모습이 세계로 타전되었다.<sup>23)</sup> 여단은 이 전공으로 1952년 9월에 이승만 대통령의 부대 표창과 미 대통령 부대 표창을 받는 영광을 누렸다.

이로써 군단은 제2통제선까지 진출하였으나, 이 작전의 주안점이 적의 반격을 격퇴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배치가 예상되는 지역을 광범위하게 수색하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진이 너무나 완만하였다. 군단장은 한강에 접근할수록 보다 강력하게 저항하는 적과 조우할 것에 대비하고 획득한 지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초 방어선에 배치된 미 제3사단을 적정이 강한 수원 동쪽의 55번 도로 축선에 우전방 공격체대로 투입하고, 신갈-금양장리에서 혈전을 펼친 터키 여단을 서해안으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안성에서 군단예비로 후보급로를 경계 중인 국군 제1사단의 제15연대(연대장: 김안일 대령)를 미 제25사단에 배속시켰다.<sup>24)</sup> 그리고 사단이 2개의 기갑부대로 경부국도(京釜國道)와 안양-소사-인천 도로를 따라 공격하여 한강선에 도착하기 전에 수리산(修理山) 일대를 점령하여 중공군에게 최대의 희생을 강요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수리산 일대의 유리한 지형을 선점한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하여 군단은 31일에야 제3통제선에 도착하였다.

한편 미 제1군단의 우인점에서 공격을 개시한 미 제9군단은 26일 제8기병연대가 제1통제선의 양지리 부근에서 예상외의 적의 완강한 저항을 받아 고지 일부를 점령하는데 28명이 전사하고 14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하여 제8기병연대의 공격이 부진하자 제5기병연대가 초월 공격하여 양지리 부근에서 적과 치열한 격전을 펼쳐 300여 명을 사살하고 17번 도로를 따라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28일 군단장은 제1기병사단이 제2통제선으로 진출할 무렵 작전을 확대하기 위하여 미 제24사단을 군단의 우전방으로 투입하였으나, 적의 저항이 완강하여 군단의 진출은 31일 이천 북쪽의 제2통제

선을 조금 지난 상태였다.

이 무렵(29일) 획득한 포로들의 진술에 의하여 접적 중인 정면의 적정이 밝혀졌는데, 서해안과 1번 도로 사이에서는 인민군 제1군단 예하의 제8사단이 터키 군과 미 제35연대의 전방에 내치되었고, 그 후방에는 인민군 제1군단 주력인 제47사단이 인천에, 제17사단은 영등포 일대에 배치되어 있었다. 또한 1번 도로와 17번 도로의 사이 지역에서는 중공 제50군의 제148, 제149, 제150사단이 제25사단과 제3사단 및 제1기병사단의 진격을 저지하였다. 그리고 17번 도로에서 동쪽의 남한강까지는 중공 제38군 예하의 제112, 제113사단이 미 제24사단의 진출을 저지하고 있었다.<sup>25)</sup>

## (2) 仁川—서울—曲水里 進出

신정공세 이후 지원군사령부는 유엔군이 계속된 철수작전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지연전을 펼치며 철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를 회복하고 부대정비를 거쳐 2월에 가서야 총공세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국군과 유엔군이 신속히 부대를 재정비하여 대규모의 공세작전을 펼칠 것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군과 유엔군이 한강으로 접근하자 당황한 공산군은 1월 27일 서둘러 휴식과 부대정비를 중지하고 유엔군의 공세에 대비하였다.<sup>26)</sup>

당시 미 제1, 9군단에 생포된 포로들은 “유엔군의 공격개시를 구정인 2월 6일이나, 인민군의 창군 제3주년이 되는 2월 8일로 판단하고, 한강 남쪽에서는 일부 부대만 배치하여 접적을 유지하면서 내륙 깊숙한 곳까지 지연전을 펼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였다.<sup>27)</sup>

그리고 중공 제13병단의 주력부대들도 대부분 한강 북쪽에 집결되어 있었으나 갑자기 지평리, 가평 북쪽지역으로 이동이 현저하게 증가되었다. 미 제8군 사령관은 이를 적이 한강 남쪽에 주저항선을 설정한후 병력을 증원시켜 배수의 진을 치고 완강하게 저항할 징후라고

판단하였다. 군사령관은 각 군단에 D방어선에 대기 중인 부대들을 전방으로 추진시켜 위력수색부대들이 확보한 지역을 점령하도록 지시하고, 제5통제선을 목표로 진출 중인 수색부대에 전면 공격작전으로 전환할 것을 명령하였다.

특히 미 제1군단장에게 기갑부대로 서해안 저지대로의 진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미 제5공군은 한강 이남지역에 강력한 항공폭격으로 적을 고립시켜 줄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공격의 범위도 전전선으로 확대하기로 결심하고 중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장과 국군 제3군단장에게 29번 도로 축선으로 집결 중인 인민군 제2, 제5군단의 재편성을 저지할 수 있도록 서부전선의 한강진출 작전과 유사한 작전을 검토하도록 조치하였다.

당시 제8군사령관은 적의 북동쪽 집중은 1월 초순 유엔군이 D방어선으로 철수할 때와 유사한 상황으로 서부전선 부대의 우측방에 위협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미 제9군단의 우측방에서 미 제10군단이 공격작전을 전개하게 되어 적의 병력 집중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한강진출에 자신감을 가졌다.<sup>28)</sup>

미 제8군의 서부전선을 담당한 미 제1군단의 국군 제15연대(미 제25사단 배속), 미 제25사단 제35연대, 터키 여단으로 편성된 공격제대는 1월 31일부터 안양 남쪽의 수리산(修理山)－모락산(帽落山)을 공격하였다. 터키 여단과 미 제35연대가 공격할 수리산은 영등포로 통하는 국도와 반월리(半月里)를 거쳐 소사 또는 인천으로 통하는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감제고지였다. 공격제대는 첫날 수리산 부근에서 적의 강력한 저항을 예상하였으나 의외로 쉽게 무혈점령하였다. 그러나 공격제대는 이때부터 중공 제150사단과 주야로 수리산의 주인이 바뀌는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펼치게 되었다. 사단은 적의 계속되는 증원과 야간공격, 수류탄공격은 물론 터키 여단과의 언어 장애로 말미암아 협조된 공격이 부진하자 사단예비인 미 제27연대를 터키 여단 쪽으로 투입하여 수리산 일대의 일부 진지를 점령하고 작



전의 주도권을 잡았다.

이때 국군 제15연대도 31일 미 전차의 지원하에 2개 대대 병진대형으로 모락산을 공격하였으나 좌인접 미 제35연대의 수리산 공격이 지연되어 일시 방어태세로 전환하기도 하였지만 공격개시 5일 만에 치열한 백병전을 치른 끝에 이를 점령하였다.

군단장은 좌전방 미 제25사단이 안양선으로 진출하자 알렌 특수임무부대<sup>29)</sup>를 편성하여 미 제25사단 전방의 적진지를 돌파한 후 한강으로 진출, 인천에서 영등포에 이르는 도로를 차단하고 김포공항 서쪽의 적을 공격하도록 하였으며, 우전방 미 제3사단은 검단산(檢丹山)과 청계산(淸溪山)을 경유하여 한강까지 진출하도록 하였다.

이 무렵 안양선으로 후퇴한 적도 관악산에 배치된 제47사단과 합류하여 방어거점을 강화하였고, 인천에 대기 중인 제17사단도 이 지역으로 증원되었다. 제8군사령관은 제1군단에 한강진출의 마지막 관문인 관악산(冠岳山)을 공격하도록 독촉하면서 극동 해군사령관에게



유엔군의 재반격작전에 항공기가 근접항공지원을 하고 있다.(1951.1.26)

적의 증원을 차단하고 북으로 철수를 강요하기 위하여 인천 지역에 대한 위장상륙작전을 요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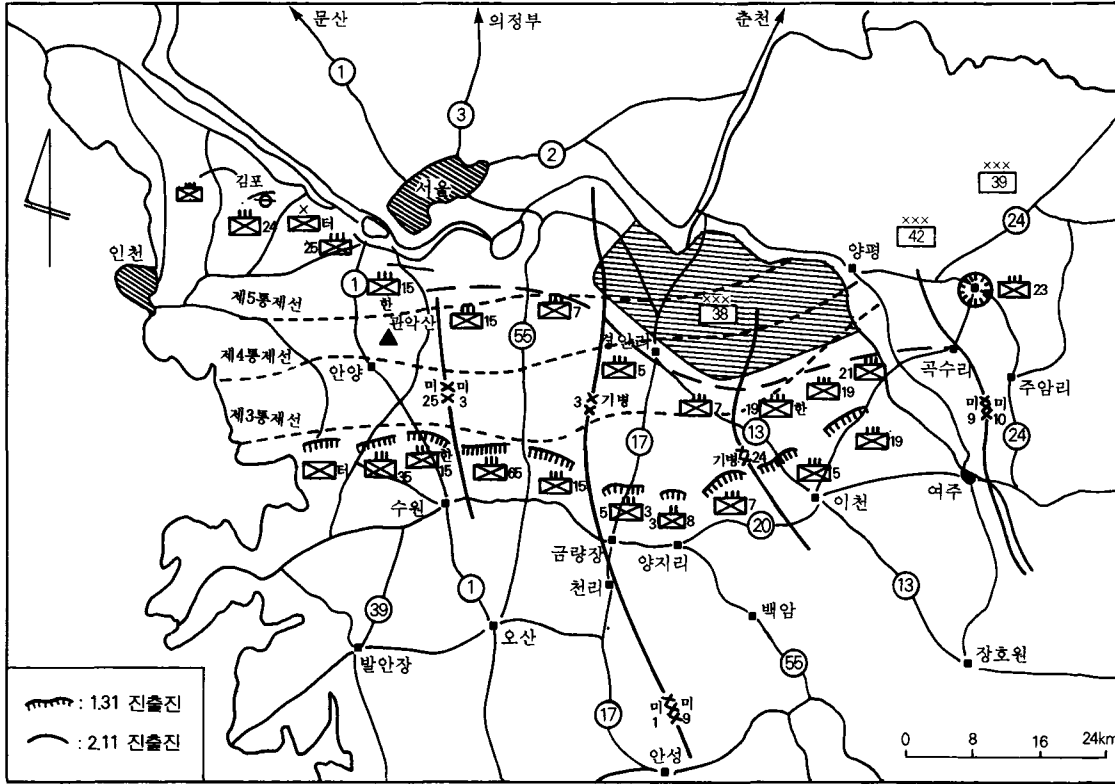
국군 제1사단 제15연대가 9일 공격을 개시하자 적은 한강 남쪽의 마지막 방어거점인 관악산을 고수하기 위하여 고지 정상에 자동화기를 배치하고 박격포사격으로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이날 따라 고지 정상부근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여 지형식별은 물론 항공지원도 불가하였다. 연대는 이러한 악조건하에서도 좌전방 제2대대와 우전방 제3대대가 험난한 지형을 극복하고 협조된 공격을 펼쳐 10:20 동고지를 점령하고 적을 추격하여 전과를 확대해 나갔다.<sup>30)</sup> 연대는 10일 노량진-영등포 선으로 진출하여, 군단의 공격제대 중 집적이 경미하여 제일 먼저 한강변으로 진출한 우인접 미 제3사단과 연결함으로써 '1·4후퇴' 후 한달 만에 다시 한강변으로 진출하였다.

미 제25사단의 기갑부대도 10일 인천으로 진출하여 시가지를 정찰하였으나 적의 활동을 관측하지 못하였고, 적이 갑자기 인천을 포기하고 철수함으로써 10일 계획된 인천해역에 대한 위장 상륙작전도 취소되었다.

계속된 폭설로 인하여 항공지원은 취소되었지만 군단의 공격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미 제25사단은 10일 도로에 매설된 대전차지뢰를 제외하고는 적의 저항이 없어 인천-영등포 도로를 점령한 후 계속 김포공항과 김포반도로 진출하였다. 이때 인민군 제1군단은 저항을 포기한 채 원거리사격의 엄호하에 결빙된 한강을 도하 퇴각하였다. 이로써 미 제1군단은 인천-영등포-대모산(大母山)으로 진출, 서울 공격을 목전에 두고 정찰활동을 강화하면서 도강(渡江) 준비에 주력하였다.

이처럼 국군과 유엔군이 한강 남쪽에 정지한 것은 제8군사령관이 서울을 점령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큰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강북에 부대를 배치하면 배후의 한강이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판단, 서부전선의 방어선을 한강 이남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이다.<sup>31)</sup>

인천-서울-곡수리 진출(1951. 1. 31~2. 11)



한편 미 제1군단의 우인점 지역에서 공격 중인 미 제9군단은 2월로 접어들면서 군단정면의 적정이 경미하여 2월 8일까지는 무난히 한강변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남한산(南漢山)과 양자산(楊子山)으로 연결된 산악지대로 접근하면서부터 도로망이 결핍되어 전차의 기동에 극히 제한을 받음으로써 공격부대의 진출은 매우 완만함은 물론 포병진지 선정도 여의치 못하였다. 설상가상으로 기상악화로 항공지원마저 제한되어 공격이 돈좌되었다. 군단은 5일 국군 제6사단의 제19연대를 미 제24사단에 배속시켜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9일부터 10일 사이에 실시된 전투에서 이 지역이 적의 강력한 교두보임이 확인되었다. 교두보 지역은 서쪽의 경안리(京安里)에서 동쪽의 양평(楊平)에 이르는 24km로, 한강에서 남쪽으로 6~10km 불거져 나온 U자형 지형이었다. 교두보의 전방에는 남한산과 양자산 외에도 태화산(泰華山), 천덕봉(天德峰) 등 수개의 감제고지가 있었다. 특히 교두보 지역은 양평을 감제할 수 있어 미 제9군단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후 공격시에는 공격의 발판이 되는 지역이었다.<sup>32)</sup>

결국 유엔군의 한강진출작전은 인천-서울-양평 선을 목표로 하였으나, 남한산-양자산을 연하는 적의 교두보를 남겨 둔채 일단 종료되었다.

이 무렵 미 제5공군은 중공군의 신정공세로 한국에 주둔한 예하부대중 F-51 전폭기 2개 비행단만 진해와 수영(水營)에 배치하고 주력이 일본으로 철수하여 항속거리와 무장문제로 항공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유엔군의 재반격이 개시되자 치열한 지상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주, 충주, 안동에 비상활주로를 건설하여 근접항공지원은 물론 산악지역에서 작전 중인 부대에 보급품의 공중투하 임무도 수행하였다. 특히 1월 23일 한국전쟁 개전이후 최초로 한만국경선 부근에서 중폭격을 엄호하던 F-84E 전폭기 33대는 MIG-15 전투기 25대와 공중전을 펼쳐 적기 3대를 격추하였다.<sup>33)</sup>

이때 한국 공군비행단은 대전기지의 폐쇄로 제주기지로 이동하여

단위부대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부대를 재편성한 후 본격적인 비행 훈련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유엔 해군이 제해권을 확보한 가운데 한국 해군은 흑한과 강풍으로 항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황해도 지역에서 해상으로 탈출하는 많은 피난민을 서해 5개 도서(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비롯한 연안도서로 구출하였다. 또한 동해에서는 38도선에서 영일만까지 연안에 부설된 기뢰를 소해하였다.

## 2. 洪川 包圍攻擊

서부전선에서 미 제1, 제9군단이 한강 진출작전을 펼치는 동안 중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3군단 주력부대들은 1월 중순 적 제2전선부대의 침투로 제천-영월 이남지역에 형성된 돌파구내의 인민군을 격파하고 원주-평창 선으로 진출 중에 있었다. 이때 미 제10군단 예하의 미 제2사단은 한강진출작전의 동측방을 엄호하기 위하여 여주-원주를 연하는 선을 점령하고 일부 부대로써 지평리(砥平里)까지 수색정찰을 실시하였다.

미 제2사단과 제24사단의 합동정찰대는 1월 29일 중공군이 보급품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평리 부근의 쌍터널을 목표로 정찰을 실시하였다. 중공 제42군 제125사단은 터널을 내려다볼 수 있는 감제고지에서 정찰대를 지켜본 뒤 퇴로를 차단하고 기습공격을 가하였다. 정찰대는 항공폭격과 미 제23연대 제3대대와 프랑스 대대의 증원으로 구출되기는 하였으나 다수의 피해를 입었다. 익일(2월 1일) 철수했던 적은 새벽에 2개 연대를 투입하여 반격을 재개함으로써 쌍방은 쌍터널 부근에서 하루종일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펼친 끝에 적은 아군의 포격과 항공 폭격에 큰 피해를 입고 북쪽으로 철수하였다.

1월 말에 입수된 정보에 의하면 강력한 적이 24번 도로와 29번 도

로의 교차점인 홍천 부근에 집결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인민군 제5군단은 24번 도로를 따라 남서쪽으로 이동하여 지평리를 경유 여주와 충주로 진격하거나 29번 도로를 따라 횡성을 경유하여 원주로 공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sup>34)</sup> 미 제10군단장은 적의 이러한 이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홍천을 군단의 주목표로 선정하였다. 홍천은 서울-지평리-강릉을 연하는 방어선의 중앙에 위치한 춘천의 관문으로 북동쪽의 인제, 북서쪽의 춘천, 남서쪽의 양평, 그리고 남동쪽의 횡성, 원주로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지이다.

미 제10군단장은 전략 및 전술적 요충인 홍천 지역을 신속히 양익 포위하여 적의 증원거점을 분쇄하고, 동시에 후방침투에 실패한 후국군 제3군단 정면에서 퇴각 중인 인민군 제2군단을 추격 섬멸함은 물론, 아군이 홍천-대관령-강릉 선으로 진출하여 차기공격에 유리한 발판을 확보할 목적으로 국군 제3군단과 협조된 공격을 계획하였다. 이 작전을 ‘몰이’, 즉 포위한다는 의미로 라운드업(Roundup)작전이라고 명명하였다.<sup>35)</sup>

제8군사령관은 2월 1일 미 제10군단장의 작전계획을 승인하면서 작전기간 중 국군 제3군단을 작전지휘하여 한강진출작전을 수행 중인 미 제9군단의 우측방 경계에 유의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2일에는 국군 제1군단장에게 동해안의 강릉을 점령하여 좌인집 국군 제3군단의 진출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제10군단은 지평리-횡성에 미 제2사단을, 횡성 남동쪽 치악산(雉岳山) 북쪽에 미 제187공수여단, 평창 남서쪽 주천리(酒泉里) 일대에는 미 제7사단을 배치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공격제대로 좌전방에 국군 제8사단, 우전방에 국군 제5사단을 투입하여 홍천을 포위공격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미 제2사단은 1개 야포대대(중강), 자동화기포대, 차량화 보병부대로 편성된 제21지원부대를 편성하여 국군 제8사단을 직접지원하도록 하였고, 미 제7사단도 이와 유사한 규모의 제7지원대를 편성하여 국군 제5사단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추

가로 미 제2사단에서 2개 중대 규모의 보전조(步戰組)를 편성하여 국군 제8사단에 배속시켰다. 이때 군단의 우인접으로 영월-정선 선에서 북진 중인 국군 제3군단은 공격개시일인 2월 5일에는 공격개시선인 평창에 도착 인민군 제2군단을 공격하여 미 제10군단 우측방의 엄호에 들어갔다.<sup>36)</sup> 이 계획에 의거 예하부대들은 공격대기지점으로 이동을 시작하여 좌전방 미 제2사단 제23연대는 지평리를, 중앙의 미 제38연대는 횡성을 점령하였고, 군단예비인 미 제7사단은 원주 부근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제천, 영월에서 평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번 작전의 주공으로 투입될 국군 제5사단과 제8사단도 제천, 영주 부근의 후방지역 경계임무를 국군 제2사단에 인계하고 원주 북쪽으로 이동하였다. 계획에 따라 제8사단은 능우리(陵隅里), 제5사단은 평장리(平庄里) 부근의 공격 대기지점을 점령 공격을 준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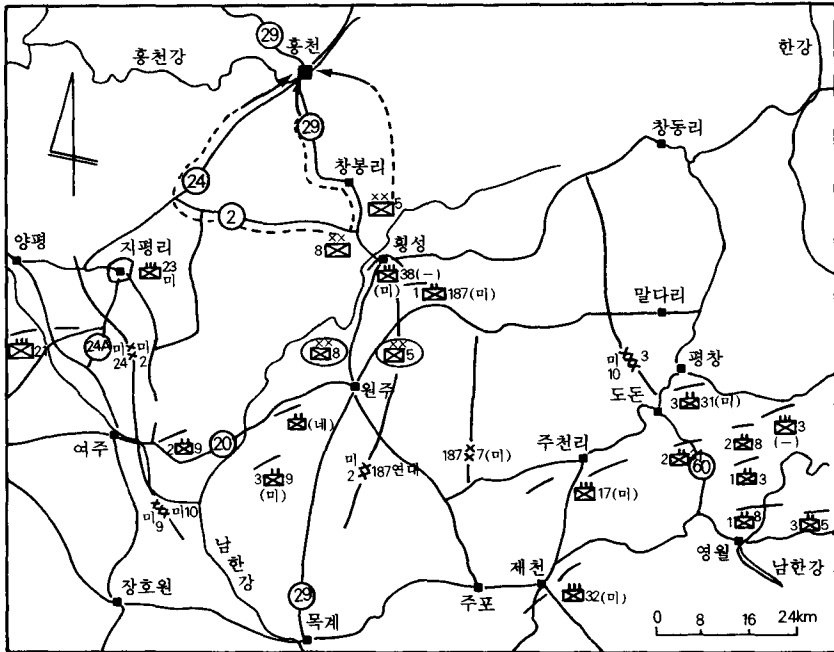
군단의 좌전방 제8사단과 우전방 제5사단은 흥천을 좌우측에서 포위공격하기 위하여 2월 5일 08:00에 공격을 개시할 예정이었다.

흥천을 좌측과 중앙으로 공격하게 된 제8사단장 최영희 준장은 작전지역이 흥천-용두리(龍頭里)-횡성을 연결하는 삼각형 내의 산악지대로서 전진축선상에는 성지산(聖智山), 갈기산(葛基山), 매화산(梅化山), 오음산(五音山) 등의 대소 고지군이 종횡으로 연결되어 산세가 험악하고 전투정면이 21km나 되는 광정면임을 감안하여 3개 연대 병진공격을 결심하였다. 주공인 제21연대는 전차소대와 보전조를 편성하여 29번 도로(횡성-흥천)를 따라 벽학산(碧鶴山)-독재봉-오음산으로 신속히 기동하여 흥천을 점령하고, 중앙의 제10연대는 성지산을 점령 후 상오안리(上吾安里)-양덕원리로 진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좌전방 제16연대는 2번 도로(횡성-용두리)를 따라 증안리(曾安里)로 진출, 화채봉(畫綵峰)을 넘어 용두리를 확보하도록 명령하였다.<sup>37)</sup>

제21연대, 제16연대, 제10연대 순으로 29번 도로를 따라 공격을 개시한 사단은 경미한 저항을 격퇴하고 신촌(新村) 삼거리로 진출하여 전진거점을 확보하였다. 좌전방 제16연대가 풍수원(豐水院) 일대로

진출하였을 때 적과 조우하여 치열한 격전을 펼치자 중앙의 제10연대 제1, 제2대대가 작전지역을 감제할 수 있는 성지산을 확보하여 제16연대의 진출을 지원하였다. 사단의 공격은 8일 우전방 제21연대가 흥천 진출의 관문인 29번 도로상의 대삼마치(大三馬峙)와 지대내의 주변 고지들을 감제할 수 있는 오음산(930고지)을 공격하면서부터 고지를 선점하여 유리한 지형에 방어진지를 편성한 중공 제66군 예하의 제198사단과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게 되었다. 적도 이 지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완강하게 저항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으로 계속 병력을 증원하였다. 사단도 이번 작전의 최대 난관인 두 지점을 탈취하기 위하여 10일 항공지원과 보병, 전차, 포병의 협조된 공격을 펼쳤으나 목표탈취에 실패하였다. 제21연대가 오음산 쟁탈전을 전개하는

흥천 포위작전





동안 제16, 제10연대는 정면의 적정은 경미하였으나 전선 돌출을 우려하여 증안리, 도원리(桃源里) 일대에서 수색정찰에 주력하였다.

한편 흥천 우측방을 공격하게 된 국군 제5사단은 전투정면이 흥천 남서쪽의 20km나 되는 광정면이고, 또 죽림산(640고지), 어답산(789고지), 봉복산(1028고지), 발교산(998고지), 덕구산(668고지) 등이 중횡으로 연결된 산악지대로 협조된 공격이 불가한 지역에서 작전하게 되었다. 사단장 민기식(閔機植) 준장의 공격계획은 우선 제27연대를 적정이 미약한 동측방 조항리(鳥項里)－소사리(所思里)－둔방내리(屯坊內里)－화동리(禾洞里) 지역으로 신속히 기동시켜 화동리－삼교리(三橋里) 선을 점령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주공인 제36연대는 산전리(山田里)－포동리(浦洞里)－유동리(柳洞里)에 이르는 도로를 따라 진출하여 초현리(草峴里)－유동리 선을 점령하도록 하였다. 이때 제35연대는 교항리(橋項里)에 예비로 확보하였다. 그리고 공격제대들이 초현리－유동리－화동리－삼교리 선을 점령하면 전선을 조정 한 후 제2단계 작전으로 흥천을 공격하기로 하였다.<sup>38)</sup>

그러나 사단이 공격을 개시한 첫날부터 인민군 제5군단 이하 제6사단의 저항이 완강하여, 사단은 7일 예비인 제35연대를 좌전방으로 투입함으로써 3개 연대 병진대형으로 공격을 재개하게 되었다. 사단의 우전방 제27연대가 화동리를 점령하고 일부병력으로 적의 후방거점인 유동리를 기습하려 하였으나 적의 역습으로 실패하였다. 이때 사단장은 주공인 제36연대의 공격이 지연되어 제27연대 지역이 돌출되자 제27연대를 소사리－조항리－우용리 선으로 철수시켰다. 중앙 제36연대의 공격은 암곡산(岩谷山) 후방으로 연결된 종격실 능선을 따라 지연진지를 구축한 인민군 제6사단의 1개 연대와 3일 동안 일진일퇴의 공방전만 거듭될 뿐 진전이 없었다. 추가로 투입된 좌전방 제35연대는 적의 거점을 서측에서 감제할 수 있는 국사봉(國士峰)으로 진출하였다. 제35, 제36연대는 공격개시 5일째인 9일 적 주력이 4일 동안 완강하게 저항하던 방어거점인 317고지－412고지－247고지

를 돌파하고 섬강(蟾江) 남쪽으로 진출하여 인민군 제6사단의 지휘소가 위치한 포동리를 양면에서 포위공격하게 되었다. 제36연대의 엄호하에 제35연대는 10:00경 포동리를 점령하였으나 인민군 제6사단이 이미 철수한 후이었다. 이때 사단은 적 지휘소를 수색하여 다수의 적 문서와 탄약 25상자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sup>39)</sup>

이 무렵 미 제10군단장은 공격부대들이 처음 3일간은 미군의 강력한 포병 및 기갑부대의 화력지원으로 공격개시선에서 5~10km를 전진하였으나, 8일부터 공격초기와는 달리 고지를 선점한 적의 저항이 전진할수록 완강할 뿐만 아니라 지형이 험악하여 전차의 기동은 물론 포병진지의 이동이 제한되어 화력지원마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군단장은 이로 인하여 공격제대의 공격이 예상외로 부진함을 인식하고, 주공인 국군 제8사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29번 도로상에 추가 병력의 투입을 고려하였다.

이때 투입할 수 있는 부대는 군단예비로 대기 중인 국군 제2사단인데 중공군의 신정공세에서 큰 손실을 입고 아직 전투력을 회복하지 못하여 투입이 불가능하였다. 그렇다고 공격 중인 국군부대의 후방에서 공격부대를 지원 중인 미 제2사단과 미 제7사단 전력의 일부를 투입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군단에 배속 중인 제187공정연대도 다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곧 미 제10군단 전선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제8군사령관의 통보가 있어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군단장은 군사령관에게 국군 제3군단의 예비로 있는 국군 제3사단을 요청하였다.

이 무렵(2월 8일) 국군 제3군단은 적의 산발적인 경미한 저항을 물리치고 상당히 진격하여 좌전방 제7사단이 평창 북쪽의 창동으로 진출 중이며, 우전방 제9사단도 정선 부근의 한강 계곡을 통과하여 하진부 남쪽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국군 제7사단을 후속하고 있던 미 제7사단 제17연대가 평창 북쪽으로 진출하여 국군 제7사단을 증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군사령관은 흥천 포위

작전 기간 동안 국군 제3사단을 미 제10군단에 임시로 배속 조치하였다.<sup>40)</sup>

홍천 공격부대들이 중공군과 격전을 펼치고 있을 때 국군 제3사단(사단장:최석 준장)이 창리(倉里) 부근에서 이동하여 10일 홍천포위공격의 우전방제대로 국군 제5사단의 좌전방지역인 횡성-홍천 도로의 우측방을 인수받아 좌전방 제23연대(연대장:김종순 대령)는 송전리, 우전방 제22연대(연대장:장춘권 대령)는 대문동으로 진출하였고, 제18연대(연대장:임충식 대령)는 사단예비로 평창리(平庄里) 동쪽에 집결하였다. 그리고 작전지역을 인계한 제5사단은 제3군단과의 전투지경선 부근으로 이동하여 인민군의 홍천 증원을 차단하게 되었다.

공격제대들이 전선을 조정하는 동안 국군 제8사단의 대전차포대대(보병)는 작전지역 전방을 수색 중 11일 제21, 제10연대의 전투지경선 부근인 대삼마치 북쪽에서 사단규모로 보이는 중공군을 발견하고 사단에 보고하였다. 사단장은 수집된 첩보를 종합한 결과 각 연대의 정면에는 중공군의 대병력이 기동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군단장에게 이목동-창봉리 선에서 방어를 건의하였다. 그러나 군단장은 적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여 이 건의를 묵살하였다. 사단장 최영희(崔榮喜) 준장은 제16연대를 증안리-도원리, 제10연대를 도원리-상유동(上榆洞), 21연대를 상창봉리-오음산에 배치하고 경계를 강화하였다.<sup>41)</sup> 이때 사단의 우인접에서 주간공격을 펼친 제3사단은 삼배리, 제5사단은 유동리에서 야간방어로 전환하고 있었다.

이로써 홍천 포위작전은 공격개시 7일이 되었지만 국군 제3사단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국군의 공격은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이 지역으로 중공군의 대병력과 인민군이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그동안 후퇴작전에 몰두하던 공산군이 반격작전으로 전환하려는 기도로써 그들의 공격이 임박하였음이 예견되었다.

### 3. 大關嶺 確保

태백산맥 서쪽의 국군 제3군단이 적 제2전선부대 소탕작전을 마치고 흥천포위작전의 우전방을 엄호하기 위하여 북쪽으로 진출을 개시하자, 동해안의 국군 제1군단도 제3군단의 진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전선을 연결하기 위하여 경강국도(京江國道)의 요충인 대관령과 강릉을 공격하게 되었다.

국군 제1군단(군단장:김백일 소장)은 태백산맥 동쪽의 동해안에서 중공군의 신정공세를 받았으나 비교적 접적이 경미하여 38도선 북쪽 진지를 고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군의 전반적인 전선조정에 따라 남쪽으로 철수하여 1월 10일경에는 송계리-삼척 선으로 철수하였다.

군단에 배속된 수도사단은 제1기갑연대(연대장:김동수 대령)를 좌전방 송계리 부근에, 제26연대(연대장:서정철 대령)를 우전방 묵호 부근의 방어진지를 점령하도록 하고, 제1연대(연대장:한신 대령)는 사단에 비로 삼척 부근에서 부대정비에 주력하였다. 전방연대들은 차후공격에 대비하여 전후방지역에 대한 대대규모의 위력수색작전으로 접적을 유지하였다.

이때 사단정면의 적은 사단이 주문진 부근에서 신방어선(황우선)으로 철수하는 틈을 이용하여 인민군 제69여단 및 길원팔(吉元八) 유격부대 약 6,000명이 강릉 부근까지 남하하여 강릉-구산리(丘山里) 선에서 방어와 유격활동을 하고 있었다.

군단은 육군본부 작명 262호(1951. 2. 2)에 의거 적에게 재편성과 재보급의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최대한의 피해를 강요할 목적으로, 좌인접의 국군 제3군단과 연결을 유지하면서 강릉과 구산리-대관령을 확보한 다음 경강국도 북방의 황병산(黃柄山)-운계봉(雲溪峰) 선까지 전진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sup>42)</sup> 이에 수도사단은 2월 3일 송계리-묵호(墨湖) 선에서 주공인 제26연대가 강릉을, 조공인 제1기

갑연대는 대관령-구산리를 공격하게 되었다. 제26연대는 목호 부근에서 옥계(玉溪)로 진출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연대정면의 적은 강릉 남쪽의 청량리(靑良里)-아산리(茅山里) 간의 도로변에 견고한 저지진지를 구축하고, 강릉을 사수하고자 함으로써 치열한 격전이 예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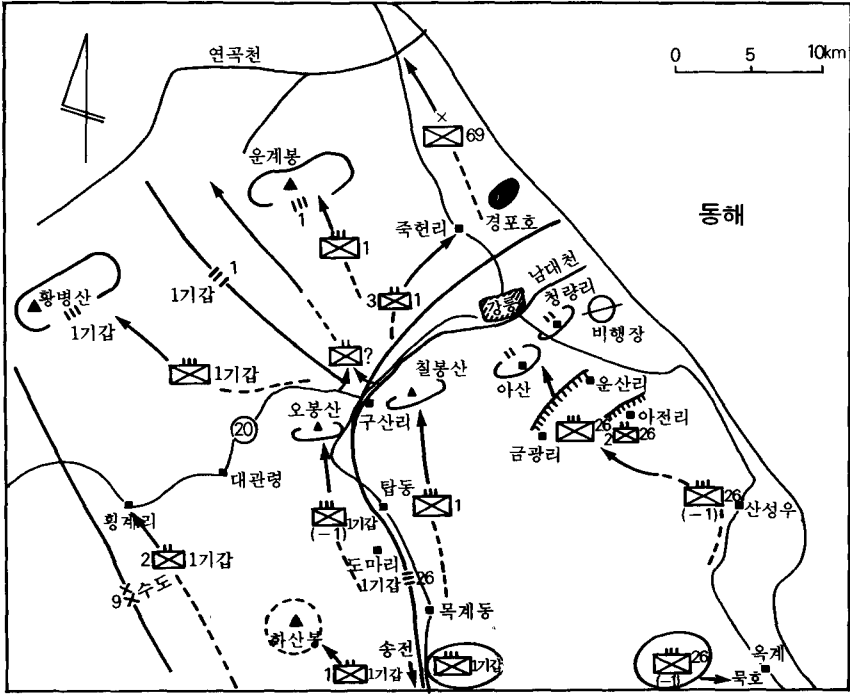
제1기갑연대 제1대대는 선발대로 서쪽의 험준한 백복령(白茯嶺)을 넘어 구산리-임계(臨溪) 도로의 삼당령(插唐嶺)으로 이동하여 연대주력의 구산리 진출을 엄호한 후, 화난봉(花暖峰) 부근을 수색정찰하던 중 “산넘어 부락에도 국군이 있다”는 주민의 제보를 입수하였다. 대대장 박경호(朴京虎) 소령은 화난봉 동쪽 부근일대를 수색하여 국군을 가장한 적 유격부대를 발견하였다. 대대는 야음을 이용하여 포위망을 압축한 후 기습공격으로 40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sup>43)</sup> 이날 사단예비로 있던 제1연대는 제1기갑연대를 증원하기 위하여 송계리로 진출하였다.

그리고 강릉을 공격 중인 제26연대는 접적이 경미하여 4일 강릉을 목전에 둔 동남쪽 7km까지 진출하였다. 제1기갑연대도 도마리(都麻里)-횡계리(橫溪里)까지 진출하여 하진부-강릉 간 도로를 차단하였다.

공격연대들은 5일 구산리와 강릉을 목표로 포병화력의 엄호하에 총공세를 개시하였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목표탈취를 못하고 다음날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 무렵 사단장 송요찬(宋堯讚) 준장은 공격제대의 공격이 부진하자 제1기갑연대를 후속 중인 제1연대를 작전지역의 중앙에 투입하여 공격에 박차를 가하였다.

제1연대 제3대대가 신속히 남대천(南大川)을 도하한 후 강릉을 우회하여 북쪽의 죽현리로 진출하면서부터 상황은 급변하였다. 후방 퇴로차단을 우려한 인민군 제69여단은 강릉 사수의지를 포기하고 철수하기 시작하였고, 제26연대는 7일 06:00에 공격을 재개하여 남대천을 도하 10:00에 강릉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제1연대가 주공의 임무를 인수한 후 적을 추격하여 윤계봉으로 진출하였다. 또한 사단의 좌전

강릉부근 전투



방 제1기갑연대도 황병산-연곡천(連谷川) 일대로 진출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한편 군단이 공격작전을 전개하는 동안 동해안에 배치된 미 제95기동전대는 적의 증원을 차단하고 전투력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1월 31일 간성-고성 지역에서 상륙양동작전을 실시함은 물론 함포사격으로 군단의 공격을 지원하였다.<sup>44)</sup>

이로써 수도사단은 동해안의 전술적 요충으로 양호한 항구와 비행장이 있는 강릉은 물론 경강국도상의 요지인 대관령, 횡계를 확보하게 되었다. 반면 인민군 제69여단은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서쪽의 인민군 제2군단과 연결이 차단됨으로써 유격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었다.

### 제 3 절 中共軍의 2月 攻勢

#### 1. 中共軍의 攻勢準備

2월로 접어들면서 전선에서는 적의 부대 재배치를 위한 이동이 활발하였고, 항공정찰에서도 적의 가평-홍천 지역 집결과 원산에서 재편성한 중공 제9병단이 중부전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춘천으로 이동 중인 것도 관측되었다. 이때 공산군은 서부전선에서는 일부 부대로 유엔군의 전진을 견제하고 일부는 한강 남안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한편, 주력을 동부전선에 집결시켜 유엔군을 중심 깊이 유인한 다음 공세로 전환한다는 전략을 수립하였다.<sup>45)</sup> 이 계획에 의거 적은 인민군 제1군단과 중공 제50군은 인천-영등포에, 중공 제38군은 한강 교두보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유엔군이 중동부전선에서 홍천 포위공격을 개시하자 이번 공격의 주공부대인 중공 제42군을 지평리 부근으로, 제39, 제40, 제66군을 양덕원리-홍천 일대로 추진 배치하였다. 그리고 동부전선의 인민군 제2, 제3, 제5군단도 홍천 동쪽으로 집결하였다.

전 전선에서 공산군의 활동이 증가하자 제8군사령관은 미 제10군단에 작전지역내에서 수색정찰은 계속적으로 실시하되, 좌인접 미 제9군단이 한강 이남 교두보의 적을 격퇴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 제2사단이나 국군 제8사단 주력부대의 24번 도로 진출은 이들 부대가 돌출되어 고립되거나 군단의 전투정면이 과도하게 신장될 것을 우려하였다. 그리고 적의 공격이 임박할 당시 홍천 포위작전을 개시한 한국군 공격부대와 미 지원부대, 그리고 공격개시선 사이에 배치된 이들 지원부대의 모체부대들이 복잡하게 편성되어 있어 적의 공세시 지휘 및 통제 유지가 곤란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공격제대의 가장 좌측인

제2사단의 진출을 정지하도록 명령하였다.<sup>46)</sup>

바로 이 무렵(2월 10일) 제8군사령관은 그가 요구한 중공군의 전략과 전술방책에 관한 정보판단 보고를 받을 수 있었다. 이 판단은 신정공세 이후 약 1개월간 지속된 소강상태가 ‘유엔군의 격멸’에서 견제하는 전략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군수지원 문제로 그러한 것인지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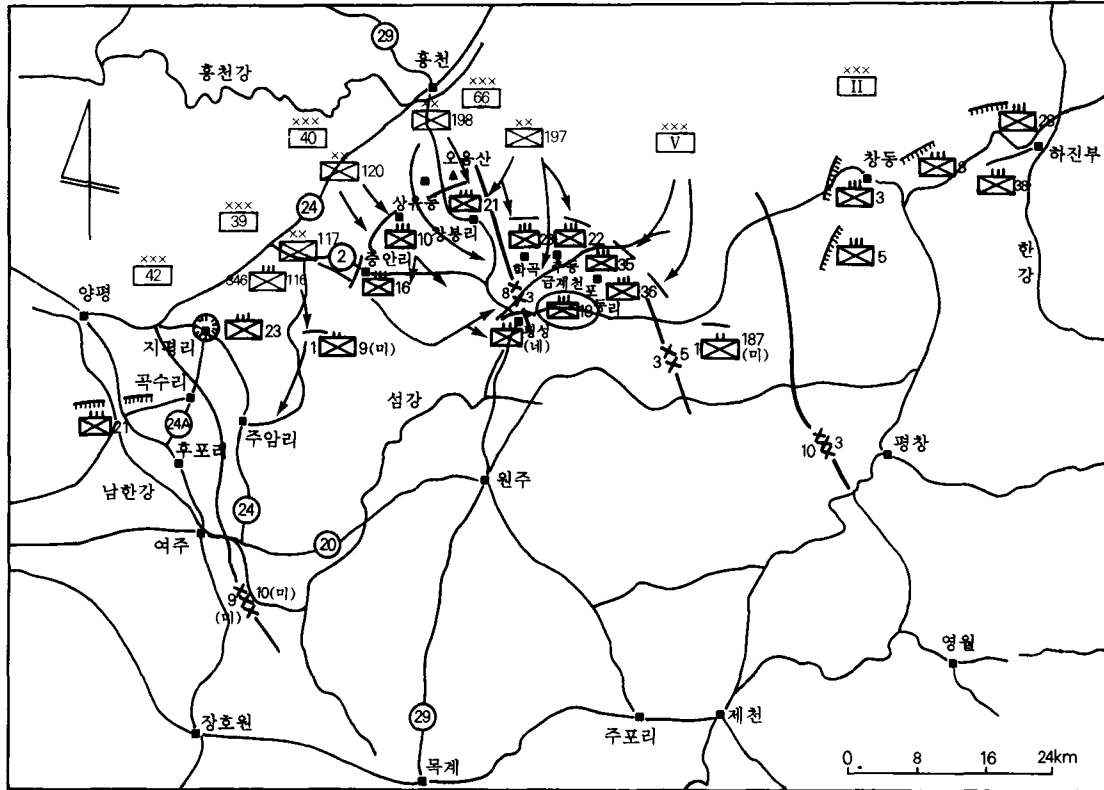
미 제8군 정보참모는 장기간에 걸친 소강상태는 중공군의 재보급, 수송 및 전력 증강이 제한된 결과이며, 만약 중공군이 군수문제만 충분히 지원되면 어떤 병력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을 한반도에서 축출한다”는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세를 재개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 그들의 집결지는 북서쪽으로는 북한강, 동남쪽으로는 양평-홍천 사이의 24번 도로 그 어간의 지역이 될 것이며, 이 일대에는 중공 제13병단 이하의 제39, 제40, 제42, 제66군의 11만 명이 집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남한강을 따라 여주로 진출하고, 다른 일부는 29번 도로를 따라 원주로 진출한 다음 양측에서 충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들은 미 제1, 제9군단을 포위하기 위하여 남서쪽으로 기동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그들이 전진하는 동안 병참선의 신장으로 재보급의 문제 때문에 적은 지속적인 공격보다는 간헐적으로 재편성을 하고 재보급을 받아 가며 중심이 얇은 포위공격을 연속적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하였다. 끝으로 중공군의 공세시기는 원산에서 재편성 중인 중공 제9병단이 전선에 도착하는 2월 15일경이 될 것으로 추측하였다.<sup>47)</sup> 결과적으로 이 판단은 공격일자의 예측을 제외하고는 실제 상황에 대단히 근접한 것이었다.

실제로 공산군은 9일 유엔군의 전선에서 황성 지역의 양측방이 노출되어 포위작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작전 중인 국군이 미군에 비하여 전력이 약하고 또 이동 중에 있기 때문에 섬멸이



중공군의 2월 공세



제 3 절 中共軍의 2月 攻勢 399

용이하다고 판단, 주공(중공 제39, 제40, 제42, 제66군)을 흥천-횡성-원주 축선과 횡성-지평리 축선에, 그리고 조공(인민군 제2, 제3, 제5군단)을 평창-정선에 두어 이른바 2월공세를 개시할 준비를 완료하였던 것이다.

## 2. 橫城의 大災殃

중공 제13병단의 주력은 2월 11일 어둠이 깔린 20:30을 전후하여 횡성을 목표로 흥천-양평 간의 24번 도로 남쪽 갈기산-매화산-오음산을 연하는 공격개시선에서 공세를 개시하였다.<sup>48)</sup> 이때 국군 제8사단은 좌전방 제16연대가 증안리-도원리, 중앙의 제10연대가 도원리-상유동, 그리고 우전방 제21연대가 상창봉리-오음산하록에서 방어중이었다. 그들의 우전방 포위부대인 제42군은 국군 제8사단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용두리-횡성 간의 도로를 따라 진출하였고, 중앙 돌파부대인 제40군은 제10연대와 제21연대의 전투지경선으로 공격하였다. 그리고 좌측방 포위부대인 제66군의 일부는 오음산에서 제21연대를 정면 공격하고 주력은 횡성 동북방 국사봉-봉화봉으로 진출하였다.

국군 제8사단은 중공군의 기습공격을 받고 사력을 다하였으나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상황은 급속히 악화되었다. 12일 01:00경 국군 제8사단은 지휘통신이 두절되고 전후방으로 침투한 중공군에 의해 고립되었다. 지휘 통제체제가 마비되자 사단 장병들은 적의 포위망을 탈출하기 위하여 소규모 부대로 분산, 혹은 개인별로 철수하게 되었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부대건재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다.<sup>49)</sup>

우전방 제21연대 병력들은 01:15경 철수를 개시하여 후방의 미 제21지원부대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던 창봉리 일대로 집결하기 시

작하였다. 그리고 중앙 제10연대는 갈기산에서 좌전방 제16연대와의 간격으로 침투한 적에 의해 연대장 권태순(權泰順) 대령을 포함한 연대 참모들이 전사하는 등 고전을 치렀다. 제16연대는 좌인접 지평리에 배치된 미 제23연대와의 공간으로 침투한 중공군에 의해 퇴로가 차단되어 적중에 고립되었으나 끝까지 진지를 사수하면서 사단주력의 철수를 엄호하였다.

이 무렵 황성 북방의 국군 제8사단이 부대통제를 상실할 정도로 전황이 심각함을 인식한 미 제10군단장은 사단의 주포리(周浦里) 철수와 사단을 화력지원하기 위하여 임시로 편성되었던 지원부대들을 원대복귀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이들 지원부대들도 적의 기습공격을 받아 이미 적중에 고립되고, 통신이 두절되어 조직적인 철수를 하지 못하였다.

사단은 12일 원주-문막, 원주-제천 간에 낙오자 수집소를 설치하고 병력을 수습하였으나, 일부 병력을 제외한 대부분이 산악지대에 포위되어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다. 군단예비로 전환된 사단은 13일 주포리로 이동하여 재정비에 주력하게 되었다.

한편 국군 제8사단이 철수하면서부터 황성 북쪽에 배치되었던 포병부대와 미군 지원부대들도 큰 혼란에 빠졌다. 국군 제21연대를 돌파한 중공 제198사단은 29번 도로를 따라 신속히 진출, 창봉리(蒼蜂里) 일대의 미군 진지를 우회하여 남쪽 5km에 위치한 다리를 점령하고 퇴로를 차단하였다. 그리고 자정경 중공 제120사단은 국군 제10, 제16연대의 전방지휘소를 통과한 후 지원부대와 29번 도로 사이에 강력한 차단진지를 설치하고 국군 제20, 제50포병대대와 미 A지원팀을 차단하였다. 퇴로가 차단된 부대들은 우군의 엄호하에 원주로 철수하기는 하였으나 협소한 지역에 트럭과 곡사포가 도로를 가로막아 후속하던 병력들은 결국 이들의 차량과 화포를 모두 포기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sup>50)</sup> 또 여러 병과로 구성된 지원부대들은 지휘통제 문제로 철수명령이 늦게 하달되어 피해가 가중되었다.

군단의 지휘체계는 진격할 당시에는 잘 유지되었으나 8군사령관이 우려하였듯이 국군 제8사단이 중공군의 공격을 받고부터는 사단내의 각 부대간 통신도 두절되는 등 혼란이 일어났음은 물론 여러 병과로 구성된 지원부대들에 대한 명령계통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군단의 통제는 몇몇 부대에 국한되었다.

12일 03:00에는 최전방이 돌파되고 그로부터 3시간 후에는 미군 화력 지원부대들도 적의 야간기습으로 혼란에 빠져 전방부대들과 뒤섞여 철수하였다. 이들은 적의 포위망을 뚫고 대곡(大谷) 부근까지 철수하였으나 횡성을 목전에 둔 이곳에서 적의 마지막 차단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적의 소화기와 박격포사격을 받아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 무렵 횡성 북쪽에는 미 제7사단 제38연대에 배속된 네덜란드 대대가 계천(桂川) 남쪽에 방어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대대는 미 제10군단의 흥천 포위작전의 작전기지가 될 횡성을 방어하고 공격부대의 후방을 엄호할 임무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철수하는 부대들의 철수를 엄호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네덜란드 대대의 엄호로 철수부대들은 횡성교를 건널 수가 있었다. 이날 낮 분산된 병력들이 계속하여 철수하였으나 어둠이 시작되면서 무질서한 철수로 대대는 이 병력이 우군인지 추격하는 중공군인지 식별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우군의 철수는 완료되었으나 야음을 이용, 한국군으로 위장하여 침투한 중공군에게 대대본부가 포위되었고 적의 집중사격을 받아 대대장(M. P. A. den Ouden 중령)이 전사하였다. 대대도 적중예 고립되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미 제2사단의 후위임무를 완수하고 원주비행장으로 철수하였다.<sup>51)</sup>

이 전투로 국군 제8사단의 잔여병력은 장교 263명과 사병 3,000여 명에 불과했고 이중의 반 이상이 사단 근무요원이었다. 사망하거나 실종된 인원은 장교 323명으로 여기에는 제10연대장과 전 참모, 제16연대의 부연대장, 7명의 대대장과 30명의 중대장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사병 7,142명이었다. 또한 사단 장비손실은 포 14문, 대전차포

5문, 트럭 68대, 무전기 249대, 박격포 87문, 로켓포 137정, 기관총 164정, 자동화기 102정, 카빈소총 2,389정, 소총 4,096정이었다.<sup>52)</sup>

### 3. 平昌 附近의 混戰

홍천 우측방 29번 도로(홍천-횡성-원주-제천) 동쪽에서 공격 중이던 국군 제3, 제5사단도 좌인접 국군 제8사단이 밀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적의 공격을 받기 시작하였다. 공산군은 처음에는 국군 제3사단의 진출을 알지 못해 11일 자정이 지나서야 공격의 폭을 29번 도로 동쪽 8km까지 확대하여 중공 제197사단으로 하여금 국군 제3사단을 공격하였고, 2월 공세의 조공인 인민군 제2군단이 태기산(1261고지) 일대에서 국군 제3군단을 고착 견제하는 동안 인민군 제3, 제5군단으로 국군 제5사단을 공격하였다.

국군 제3사단은 12일 09:00경 중공 제197사단을 향해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13:00경 오히려 정면으로 진출한 중공군의 강력한 공격을 받아 1개 연대가 포위되자 횡성으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중공 제66군은 신속히 기동하여 횡성 후방의 곡교리(曲橋里) - 덕고산(德高山) 간의 차단진지를 점령, 유엔군의 퇴로를 차단할 계획이었으나 국군 제3사단의 완강한 저항으로 진출이 지연되어 퇴로 차단에 실패함으로써 공산군의 공격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sup>53)</sup>

사단이 철수하는 동안 제23연대는 마옥리(磨玉里) 부근에서 사단의 철수를 엄호하기도 하였고, 제18연대는 미 제2사단의 우전방으로 배속 중인 제187공수연대에 재배속되어 횡성 북쪽의 섬강(蟾江) 부근에 진출하여 창봉리에서 철수하는 미 제21지원부대를 엄호하였다.

이때 우인접 국군 제5사단은 12일 아침 군단 전투지경선 부근의 공격목표를 향해 북동쪽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2개의 공격연대(제35, 제36연대)는 북한 제5군단의 강한 반격과 중공군의 후방위협을 받

게 되자 정오 무렵에는 인민군의 포위망에서 벗어나고자 모두 철수를 개시하였다.

미 제10군단장은 12일 정오가 조금 지나 원주의 사령부를 방문한 제8군사령관과 군단작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군단장은 횡성을 포기하고 원주를 방어하는 계획을 제안하였다. 군단장은 이날 늦게 지평리-원주 간의 새로운 방어선을 선정하고 전선을 조정하였다. 미 제2사단은 제187공수연대를 배속받아 지평리에서 원주 북쪽 29번 도로를, 그리고 군단보다 북쪽에 진출해 있는 우인점의 국군 제3군단과 전선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29번 도로에서 원주 북동쪽의 군단 전투지경선까지에 국군 제3, 제5사단을 배치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한국군 사단을 증원하기 위하여 미 제7사단 제31연대를 평창 남쪽의 도둔리(道敦里)에 배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군단장은 국군 제3, 제5사단의 통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국군 제1군단사령부를 배속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다. 국군 제1군단장과 군단참모들은 지난 연말 흥남 철수작전시 군단과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어 합동작전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다. 제8군사령관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국군 제1군단사령부가 이동하였고, 그 이하의 수도사단은 국군 제3군단이 통제하여 계속 동해안을 방어하게 되었다.<sup>54)</sup>

국군 제3, 제5사단은 미 제10군단장의 명령에 의거 13일 원주로부터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을 때 인민군 제5군단이 14일 오후 내내 양사단의 우측방을 우회 추격하며 공격을 계속하였다. 양사단은 다수의 피해를 입고 점령하여야 할 원주-평창 선보다 훨씬 남쪽으로 계속 철수하여 제3사단은 원주 남동쪽에, 제5사단은 제천 북쪽에 새로운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이때 국군 제5사단은 적의 추격으로 포병대대만 손실이 없고 공용 화기는 절반 정도 그리고 병력은 4개 대대 정도만 남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군 제3군단과 전투지경선 부근을 연결하기 위하여 임시

편성된 1개 연대를 말다리(抹橋)로 파괴하였다.

미 제10군단장은 적군이 황성 남쪽지역으로 강력한 공격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원주 고수를 강조하였으나 적은 14일 공격에서 기세가 꺾인 후 재공격을 실시하지 않았다. 15일 원주 방어선에서는 국지적인 탐색전이 있을 뿐이고 16일 이후에는 접전이 없었다.

그러나 인민군 제5군단 예하 3개 사단(제6, 제7, 제12사단)은 신정공세시 제2군단이 사용한 통로를 이용하여 제천을 목표로 돌파구를 확대하려고 진출하고 있었다. 신정공세의 전철(前轍)을 우려한 미 제10군단장은 2월 15일 강릉에서 이동한 국군 제1군단장에게 원주-평창 선의 방어임무를 부여하고, 홍천 포위공격에서 큰 손실을 입은 국군 제3, 제5사단의 상황과 방어선 이남에서 인민군의 실태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국군 제1군단은 14:00에 국군 제3, 제5, 제8사단의 작전통제권을 인수하였다.

이때 군단의 좌전방 제3사단은 성남리(城南里) 부근에, 우전방 제5사단은 주천리(酒泉里) 부근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였고, 제8사단은 군단에비로 주포리(周浦里)에 집결하고 있었다. 군단의 최우선 목표는 전방사단의 배치 공간지역에 제8사단을 신속히 투입, 적의 돌파구 확대를 저지하여 제천을 확보하는 것이다.<sup>55)</sup>

제천을 목전에 둔 인민군(제6, 제7, 제12사단)은 군단 전방에 집결하여 16일 아침에 국군 제3, 제5사단을 공격하였다. 국군 제3사단은 우전방 제22연대가 일부지역을 피탈당하였으나 책임지역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국군 제5사단은 주천리를 방어 중 좌전방 제36연대가 인민군의 압도적인 병력을 투입한 공격에 빈약한 방어진지가 돌파되어 철수하기 시작하여 8km를 철수하였다.

국군 제3, 제5사단의 철수로 국군 제3군단의 좌전방에 약 30km에 달하는 공백지대가 생겼다. 이 지역으로 인민군 제2군단의 쇄도를 우려한 국군 제3군단은 황성 동쪽의 창동리 선에 배치된 제7, 제9사단을 군단 후방지역에 배치된 미 제7사단의 제31연대 진지가 있는 평

창 남쪽의 도돈리와 연결하여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하여 약 20~25km를 철수시켰다. 국군의 철수를 추격해온 인민군 제9, 제27사단은 평창을 점령한 다음 평창-영월 도로를 따라 남하하여 영월을 점령하려고 기도하였다. 그들은 2월 15일부터 18일 새벽까지 중대 또는 대대규모의 돌격을 반복하여 영월 북쪽 13km까지 진출하였다.

국군 제3군단은 좌전방 제7사단이 평창-영월 도로를 따라 영월로 남진하는 인민군 제2군단을 저지하는데도 벅차서 좌인접 국군 제5사단과의 11km에 달하는 공백지대로 인하여 생긴 좌측방의 위협에는 병력 부족으로 이에 대비할 여유가 없었다. 17일 8군사령관은 미 제10군단장에게 이 지역으로 미군부대를 투입하여 인민군을 격퇴하고 국군 제3군단과 연결하도록 명령하였다.<sup>56)</sup>

미 제7사단 제31연대가 이 지역으로 투입되면서 국군 제1, 제3군단 간의 측방 노출이 해결되었고, 국군 제3군단은 17~18일 양일간 계속된 인민군 제2군단의 공격을 저지하고 도돈리-정선 간의 방어진지를 끝까지 고수하였다.

이후 인민군 부대들은 지금까지의 전투로 지친 전력으로는 견고한 국군의 방어선을 더 이상 공격하기 힘들게 되었다. 그들이 점령하였던 대부분의 지역은 국군의 역습으로 와해되자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18일 저녁 국군 제3군단의 예하 부대들로부터는 아무런 접적보고가 들어오지 않았다.

#### 4. 砥平里 孤立 防禦

미 제10군단 예하 제2사단 제23연대전투단은 한강진출작전을 진행 중인 좌인접 미 제9군단과 연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쌍터널을 정찰한 후 지평리에 배치되었다. 사단장은 지평리가 돌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방어정면도 32km나 되는데다 우인접에서 원주를 방어 중인 미



제9연대와도 20km의 간격이 형성되어 적에게 고립될 가능성이 짙다고 판단, 남쪽의 여주로 철수시킬 복안이었다. 그러나 제8군사령관은 적이 양평 부근의 한강유역으로 침투, 서쪽지역의 유엔군 주력부대를 포위하고자 하므로 제23연대의 지평리 철수는 중공군의 계곡 접근로상의 강력한 차단진지를 포기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평리 고수를 요구하였다. 동시에 좌인점 미 제9군단장에게 한강 이남의 교두보에서 적과 교전이 없는 국군 제6사단과 영 제27여단을 여주 지역으로 이동시켜 미 제10군단의 통제하에 공간지역을 보강하도록 조치하였다.<sup>57)</sup>

이때 황성전투에서 국군을 공격하여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한 공산군은 지평리를 공격하면 유엔군이 남쪽으로 철수할 것이며 또한 원주에 집결한 유엔군도 계속 철수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들은 전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공 제39, 제40, 제42군의 총 8개연대로 13일 저녁에 지평리 지역을 점령하고, 제42, 제66군의 주력부대 및 제120사단은 원주 이북 및 남서지역까지 진출하여 서쪽으로부터 유엔군의 증원을 차단하면서 원주 일대의 유엔군을 고착 견제하도록 하였다.<sup>58)</sup>

지평리는 서쪽으로 뻗은 2번 도로(서울-양평-황성), 북동쪽으로 뻗은 24번 도로(여주-지평리-홍천)와 남서쪽으로 연결되는 24A 도로(여주-곡수리-지평리)가 교차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적이 이 지역을 점령하면 양평-충주 축선으로 진출, 군단의 후방지역은 물론 미 제9군단의 우측방을 공격할 수 있는 유리한 지형이었다. 반면 미 제8군이 지평리를 점령하게 되면 한강 이남에서 미 제1, 제9군단에 저항 중인 적군을 포위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이었다. 조그만 마을인 지평리는 북쪽의 봉미산(鳳尾山)과 남쪽의 망미산(望美山), 그리고 남서쪽은 248고지, 북서쪽은 248고지로 둘러싸여 있어 연대규모가 방어하기에는 유리한 지형이었고 당시 미 제23연대전투단은 미 제23연대와 프랑스 대대, 제1유격중대, 제37야전포병대대, 제503야전포병대대 B포대, 제82고사포대대 B포대와 제2공병대대 B중대로 구성되어 있었다.<sup>59)</sup>

연대는 사주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공간지대에는 지뢰와 철조망으로 장애물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방어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공포와 연대의 전차들을 직접 조준사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포병은 진지 주위에 탄막을 설치하였다.

연대는 13일 낮 동안 진지로 접근하는 적의 공격을 포병사격과 항공폭격으로 저지하였으나 22:00부터 중공군이 자동화기와 박격포, 포병으로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후 경적, 호각, 나팔 등을 불면서 C중대를 공격하였다. 이후 이 소리는 연대의 전정면으로 확대하여 포위망을 압축하기 시작하였다. 적은 연대가 매설한 지뢰와 설치한 철조망과 연대 포병이 포 1문당 250발을 집중 사격하였으나 적은 분대규모의 병력으로 간단없는 제과공격을 펼쳐 수류탄을 투척하였다. 이 와중에 중공군은 남쪽의 G중대를 돌파하였으나 F중대 및 전차중대의 역습으로 격퇴되었다.

이때 같은 시간에 중공군은 프랑스 대대 진지에도 공격을 가해 왔다. 프랑스 대대는 1950년 11월 29일 부산에 상륙하여 12월 11일 미 제2사단의 제23연대에 배속된 후 1951년 1월 28일 쌓터널 부근 전투의 전공으로 미 대통령과 프랑스 육군의 부대 표창을 받아 사기가 고조되어 있었다. 대대는 서쪽 개활지와 양평에 이르는 철도 연변을 방어하고 있었다. 13일 22:00경 중공군은 포위망을 압축하면서 대대정면에서 돌파를 기도하였으나 대대는 사격으로 이 적을 격퇴하였다. 14일 02:00경 중공군의 제2제과가 피리와 나팔을 불면서 공격을 재개하자 대대는 이에 수동식 사이렌을 울리면서 대응하였다. 순식간에 진지 전면에서는 피아를 식별할 수 없는 수류탄전과 육박전이 전개되었으나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포병의 조명지원에 힘입어 이 적을 격퇴하고 방어진지를 끝까지 고수하였다. 이 공로로 대대는 후일 한국 대통령의 부대 표창과 두 번째 미 대통령 부대 표창을 받았다.<sup>60)</sup>

공격에 실패한 적은 아침 무렵 지평리 주변 고지로 철수하였다. 이날 전투에서 아군은 1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이때 연대장도

부상을 입었으나 후송을 거부하고 계속 부대를 지휘하였다.

이 무렵 중공군이 지평리로 향하는 24번 도로와 그 보조도로를 점령함으로써 미 제23연대전투단은 적중에 완전 고립되었다. 8군사령관은 고립된 미 제23연대와 연결을 이루고 보급로의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좌인집 제9군단장에게 이 임무를 부여하였다. 군단장은 2개 전차중대와 2개 곡사포대대, 1개 공병소대로 증강된 미 제5기병연대를 파견하였다.<sup>6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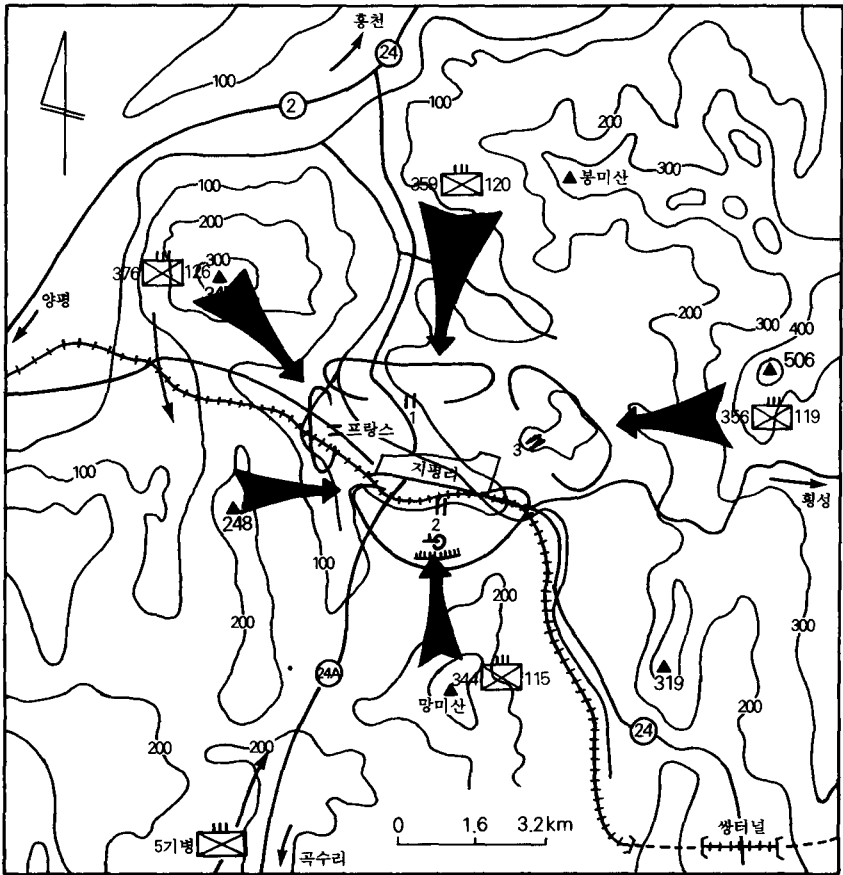
제23연대는 증원부대의 도착을 기다리며 낮 동안 일부는 진지 주위를 수색하여 잔적을 소탕하고 주력은 방어진지를 보강하였다. 14일 어둠이 깔리자 적의 야간공격은 개시되었고 22:00경에는 절정에 달하여 이로부터 3시간 동안 지평리 상공에는 쌍방이 쏘아 올린 조명탄, 예광탄, 신호탄으로 불야성을 이룬 채 처절한 백병전이 지속되었다. 연대는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저항하였으나 15일 02:00경 서쪽의 G중대지역이 돌파되었다. 아침이 되자 한차례의 태풍이 지나간 듯 전투는 소강상태로 지속되었고 진지 주변에는 중공군의 시체로 새로운 동산이 만들어졌다. 연대는 방어진지를 재편성하면서 피탈된 G중대 진지를 재탈환하기 위하여 역습을 준비하였다.

고립된 제23연대를 증원할 미 제1기병사단의 제5연대는 한강을 도하 14일 자정 무렵 곡수리에 도착하였으나 적이 마을 입구의 교량을 파괴시켜 연대의 공격이 지연되었다. 연대는 15일 아침부터 항공폭격의 지원하에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적의 저항이 완강하여 진출이 둔화되었다. 연대장은 정상적인 공격으로는 금일 중에 지평리와 연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15:00 L중대 160명과 전차 23대로 보전조를 편성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때부터 곡수리-지평리 도로에서는 미군 전차의 화력과 기동에 맞선 중공군의 로켓포와 휴대장약에 의한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제5연대장은 전차의 신속한 기동을 독촉하였다. 전차가 단독으로 돌진함으로써 낙오된 보병들의 손실이 컸으나 연대는 17:00경 피탈한 지평리 남쪽의 망미산을 공격 중인 미 제

23연대 전차와 연결하였다. 망미산에 배치된 적들은 제5연대의 증원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철수하였고 특수임무부대는 지평리의 제23연대와 연결한 후 곡수리에서 지평리에 이르는 도로를 방호하였다.<sup>62)</sup> 이 무렵 항공정찰에서도 중공군이 지평리에서 빠져 나가기 시작하였다고 보고하였다. 16일 새벽에는 정찰대가 중공군의 퇴각을 확인하였다.

미 제23연대에 의해 타격을 입은 중공군의 총 사상자 수는 4,946명

지평리 전투



으로 추정되었다. 미 제5기병연대는 그의 부대가 500명 이상의 적군을 사살했다고 판단하였다. 전선의 아군은 79명의 중공군을 생포했는데 이들은 “그들의 공격부대는 6개 연대로 편성되었고, 그중 4개 연대는 중공군 제115, 제116, 제119, 제120사단 소속이었으며 2개 연대는 제126사단 소속이었다. 이들 6개 연대는 공동작전을 전개하지 않고 아군 전선에 대해 총공격을 가하지도 않았다. 적 공격의 대부분은 중대규모에 불과했으며 공격 중 몇 번은 동일한 장소에서 파상공격으로 전개했다.”고 진술하였다.<sup>63)</sup>

16일 오전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을 추격하여 낙오병들을 생포했고 이 포로들은 “중공군이 야간에 황급히 철수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미 제23연대 사상자 수는 사망 52명, 부상 259명, 실종 42명이었고, 부상자들은 헬기와 차량으로 미 제5기병연대 지역으로 후송되었다.

한편 14일 미 제10군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발한 미 제9군단의 영 제27여단은 미 제2사단에 배속되어 지평리 부근으로 이동하였고 국군 제6사단도 미 제10군단에 배속되어 미 제9연대 제1대대 좌측의 공간지대로 이동하였다. 15일 지평리-원주 사이의 북서쪽으로 진출한 영 제27여단과 국군 제6사단은 적의 경미한 저항을 받았다. 제6사단(제19연대 결)은 16일 산발적으로 저항하는 적을 격퇴하고 원주 서쪽 간현리(艮峴里) 일대의 목표지역을 점령하였다. 이때 사단의 좌인 접으로 진출한 제27여단도 주암리로 진출하였다.

이 전투에서 미 제23연대전투단은 고립방어 진지를 편성하고 진지고수 의지와 철저한 야간사격 통제, 예비대의 적절한 운용과 역습, 그리고 화력의 우세와 긴밀한 공지합동작전으로 파도처럼 밀려오는 3개 사단규모의 중공군을 격퇴하여 적의 2월 공세를 저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sup>64)</sup>

중공군의 2월 공세는 신정공세 이후 유엔군이 신속하게 재편성을 완료하고 공세작전으로 전환, 서부전선에서 공격을 재개하여 한강으

로 진출할 때 전개되었다. 공산군은 그동안 연속된 공세작전으로 장병들이 지쳐 있을 뿐만 아니라 보급품과 손실된 병력을 보충받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부전선에서의 후퇴를 만회하기 위해 주력을 중부전선으로 집결시켜 대규모의 역공세가 될 2월 공세를 서둘러 결정하였다. 적은 유엔군의 전선중 돌출된 지평리와 횡성을 공격목표로 선정하고, 먼저 4배의 우세한 병력을 집중하여 기동 중인 국군 제8사단을 격퇴하여 횡성으로 진출한 후 공격의 여세를 몰아 지평리를 점령하고 주력부대를 장호원 이남으로 진출시켜 서부전선의 유엔군 주력부대의 측방을 위협하여 유엔군의 철수를 강요하고자 하였다.<sup>65)</sup> 그러나 동부전선에서 국군과 유엔군이 근접 항공지원의 엄호하에 펼친 축차적인 지연작전과 지평리 고립방어전투에 막대한 인명 손실을 입어 수적인 우세를 이용한 전술이 저지되자 심리적인 타격을 받아 사기가 급격히 저하되어 공격개시 1주일 만에 공세작전을 종료하고 북으로 철수하였다.

반면 유엔군도 공산군의 공세를 지평리-원주-영월-정선 선에서 저지하기는 하였으나 2월 11일 저녁부터 13일 동틀 무렵에 발생한 사상자 수는 국군 9,800명, 미군 1,900명, 네덜란드군 100명으로 총 11,800명에 달했다. 이러한 피해는 전투장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국군 제3, 제5, 제8사단은 이 기간 중에 105mm곡사포 14문과 기타 공용화기 901점, 무전기 390대, 차량 33대를 잃었으며 미군 부대들과 네덜란드군 대대는 105mm곡사포 6문, 기타 공용화기 277점, 전차 6대, 무전기 195대 그리고 차량 280대를 잃었다.<sup>66)</sup>

이러한 병력 및 장비의 손실은 병력이 수적으로 열세할 뿐만 아니라 넓은 지역으로 분산되어 집중력이 부족했던 국군 제3사단과 제8사단에 대한 중공군 4개 사단과 인민군 2개 사단의 기습적이고도 압도적으로 우세한 공격에 기인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제8군사령관은 이러한 엄청난 장비를 상실하는 일은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는 모든 부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지휘력에 결함이 생기고

있다는 명백한 징조이므로 차후로는 관련 지휘관의 지휘책임을 엄격히 추궁할 것임을 강조하였다.<sup>67)</sup>

특히 지평리 전투는 미군이 중공군과 싸워서 얻은 최초의 전술적인 성공으로써 제8군사령관은 그동안 아군이 지난 12월과 1월 초의 곤혹스러웠던 철수시기에 상실한 사기를 확실히 되찾고 이제 새로운 각오로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고 확신함으로써 강력한 공격작전을 구상할 수 있게 되었다.

## 제 4 절 再反擊 續開와 서울奪還作戰

### 1. 堤川地域 敵 擊滅作戰(Operation Killer)

1951년 1월 25일 재반격작전으로 전환한 국군과 유엔군은 단계적인 공격작전을 전개하여 서부에서는 한강선을 확보하고 중동부에서는 양평-횡성-강릉으로 진출한 다음 홍천을 목표로 공격 도중 중공군의 4차 공세(2월 공세)를 맞아 대돌파를 허용하였으나 2월 18일경 양평-원주-제천-영월을 연하는 선에서 이를 저지하였다.

이때 중공군의 2월 공세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은 서부전선 미 제1군단의 국군 제1사단은 김포반도와 영등포 일대, 미 제3사단은 한강선을 따라 경안리 일대, 미 제25사단은 중공군의 한강교두보 서쪽의 광지원리(光池院里), 남서쪽의 무갑산(武甲山) 일대를 각각 방어 중이었다. 중부전선 미 제9군단의 미 제24사단은 중공군의 한강교두보 남쪽과 남동쪽을 방어하고, 남한강 동쪽에서는 미 제1기병사단이 하진(下陳) 일대, 영 제27여단이 주암리(注岩里), 국군 제6사단이 판대리(判垓里) 부근으로 진출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있었다. 중동부전선 미 제10군단의 미 제2사단은 원주 서쪽 섬강, 제187공수연대(국군 제3사

단 제18연대 배속)는 원주, 국군 제3사단(제18연대 결)은 성남리, 국군 제5사단이 입석리(立石里) 일대에서 차단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그리고 동부전선 국군 제3군단의 제7사단은 마차리, 제9사단이 정선, 수도사단은 삼당령에서 강릉에 이르는 선에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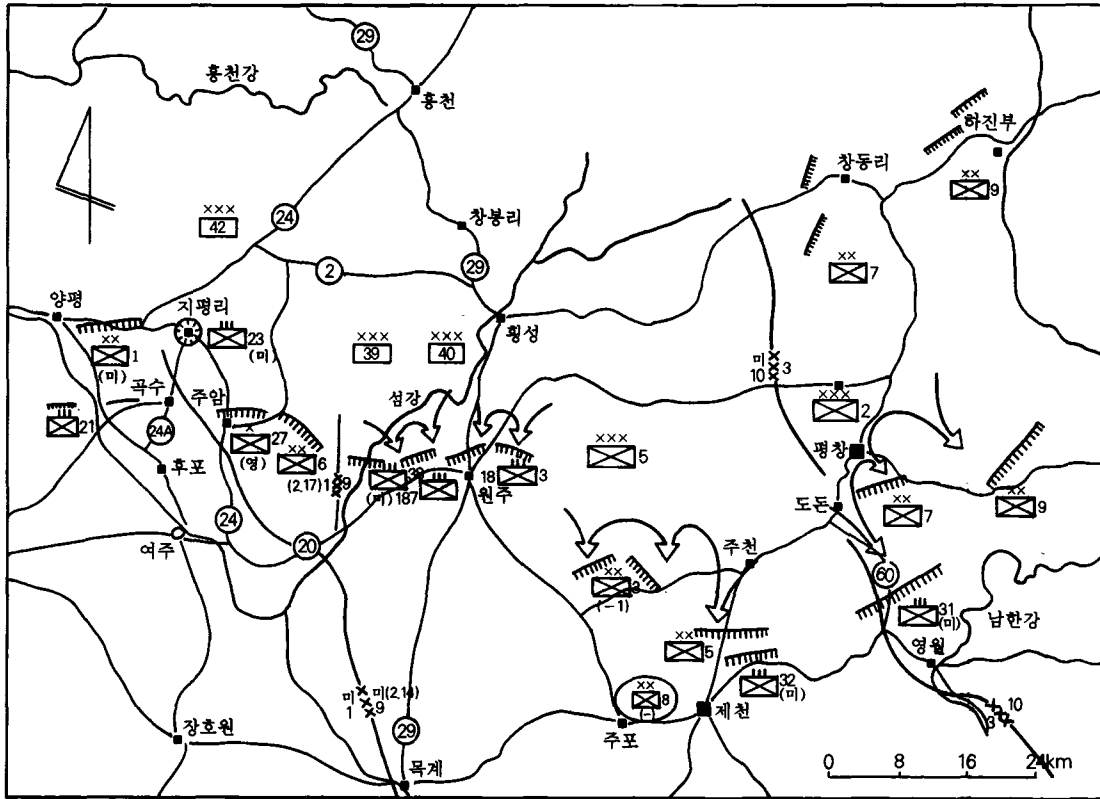
이 무렵 적의 제1제대는 8개 군을 전개하여 서쪽 한강 하구로부터 양평, 중원산, 횡성, 봉화산, 주봉, 방림리를 거쳐 하진부리에 이르는 제1선을 담당하였다. 인민군 제1군단은 한강 입구에서 뚝섬, 중공 제50군은 뚝섬에서 상팔당(上八堂), 중공 제38군은 상팔당에서 조좌리(曹佐里), 중공 제42군은 조좌리에서 매봉, 중공 제66군은 매봉에서 정금산, 인민군 제5군단은 정금산에서 하대곡, 제3군단은 하대곡에서 아지동, 제2군단은 하진부 서쪽에서 기동방어를 실시하였다. 제1제대의 방어중심은 25~30km로 각 군은 이 지역에서 1개월 동안 방어할 계획이었다.<sup>68)</sup>

미 제8군사령관은 공산군의 2월 공세가 불과 수일 만에 격퇴되고 유엔군이 다시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자 적에게 새로운 공격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천 북쪽 부근에 돌파구를 형성한 적을 포위섬멸하기 위한 격멸작전을 계획하였다. 이번 작전의 명칭은 작전목적이 적 병력 말살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를 격멸작전(Operation Killer)이라 명명하였다.<sup>69)</sup>

미 제8군은 남한강 동쪽의 양평-횡성-평창을 연하는 아리조나(Arizona)선 남쪽에서 철수하는 적을 격멸하기 위하여 미 제9군단은 원주-횡성-홍천 도로를 따라, 미 제10군단은 제천-영월-평창 도로를 따라 공격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리고 작전부대에 기동로를 부여하기 위하여 공격개시와 동시에 미 제9군단과 미 제10군단의 전투지경선을 29번 도로 동쪽으로,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3군단의 전투지경선도 60번 도로 동쪽으로 각각 조정하였다. 그리고 이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서측방의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단 예하 제24사단은 한강



제천부근 전투



제 4 절 再反擊 續開의 서울奪還作戰 415

남쪽에서 이들의 진격을 엄호하고 우측방의 국군 제3군단은 좌전방 제7사단을 60번 도로 동쪽의 산악지대로 진출시켜 제10군단의 공격을 지원하고 주력은 `속사리-하진부리-유천리 간 도로를 방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안동 지역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완료한 미 제1해병사단을 미 제9군단에 배속하고 제187공수연대는 이 작전의 결과에 따라 차후 서울 탈환작전시 적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서울 북쪽에 공중 투하하려는 계획에 따라 대구로 이동 낙하훈련에 주력하게 되었다.

이 작전에 앞서 제8군사령관의 최대 관심사는 적 예비병력에 관한 구체적인 위치, 물자 보급상태, 사기 정도, 이동상황 등이었으나, 적 예비병력이 후방지역에 집결 중인 사실 외에는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미 제8군은 정확한 적정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킬러작전을 개시해야 했으며, 만약 적 예비병력이 전선에 투입될 경우에는 공격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제8군사령관은 적 예비병력이 24시간 이내에 전방지역까지 도착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군단장들에게 작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주력부대를 선불리 투입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형을 유효 적절히 이용하며, 부대기동을 통제하여 부대간 연결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강조하였다. 특히 전투지원이 잘 이루어지거나 적이 부분적인 후퇴를 한다고 하여 능력을 과신한 공세작전으로 적의 유인작전에 말려들어 역습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다.<sup>70)</sup>

이 계획에 의거 2월 21일 미 제9군단은 원주-횡성, 미 제10군단은 영월-평창 도로를 따라 공격작전을 펼치게 되었다.

### (1) 橫城 占領

미 제9군단은 2월 21일 10:00에 좌전방 미 제24사단의 엄호하에 제1기병사단(영 제27여단 배속), 국군 제6사단, 그리고 군단의 주공인 제1해병사단으로 4개 사단 병진공격을 개시하였다.

이 무렵 적은 2월 공세에 실패한 이후 3일간 계속 철수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횡성-평창 선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철수를 멈출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퇴각해 복상하는 적 병력을 격멸하려면 조금이라도 진격을 서둘러야 했다. 그러나 군단이 공격을 개시하면서부터 기상이 좋지 않아 공격 초일부터 작전은 차질을 빚기 시작하였다. 21일에는 기온이 10°C까지 상승하여 야간에도 0°C를 웃도는 이상 고온현상이 나타났고 그후 3일간은 간헐적으로 비까지 내렸다. 그 결과 결국 이러한 높은 기온과 비로 인하여 항공정찰과 근접 항공지원이 불가능하였고, 도로의 노면상태가 악화되었다. 또한 하천이 유빙으로 가득찬 급류천으로 변함으로써 교량은 교각이 떠내려가거나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됨은 물론 도섭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곳곳에 발생한 산사태로 터널과 도로 및 철도가 두절되는 사태가 속출하여 군수지원을 제한하기도 하였다.<sup>71)</sup>

특히 군단의 좌전방 공격제대인 미 제1기병사단은 하상(河床)에 설치한 지휘소나 보급소를 미처 이동하기도 전에 하천이 범람하여 유선망이 두절되고 보급품도 유실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사단의 주보급로마저 차단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사단은 24일 양평-홍천 도로 북쪽의 469고지를 점령하였다.

한편 군단의 주공으로 횡성을 공격 중인 미 제1해병사단도 적이 철수하고 있어 저항은 경미하였으나 눈과 비로 뒤섞인 도로를 통과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많았다. 설상가상으로 2월 24일 전선을 정찰하던 군단장(Bryan E. Moore)의 헬리콥터가 한강 탁류에 추락하여 군단장이 심장마비로 전사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여 해병 사단장 스미스(Oliver P. Smith) 소장이 임시로 군단을 지휘하게 되고, 부사단장이 사단을 지휘하게 됨으로써 사단의 작전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25일 사단이 횡성 공격을 목전에 두자 제8군사령관은 적의 완강한 저항이 예상되는 횡성을 해병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미 제9군단과 제10군단의 전투지경선을 조정하였다. 우전방 제5해병연대 지역을

미 제10군단에 인계하고 좌인접 국군 제6사단 지역을 제7해병연대가 인수, 사단의 좌전방으로 투입되었다. 이때 사단은 기상이변으로 지연된 재보급도 받았다.<sup>72)</sup> 사단은 3월 1일 공격을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좌전방 제7연대지역으로 중공군의 치열한 포격과 완강한 저항이 집중되어 우선 이 적을 항공폭격으로 제압 후 2일 총공세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2일 사단이 공격을 개시하자 중공군은 고지를 선점하고 완강하게 저항하여 좌전방 제7해병연대가 다소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적도 그동안 사단공격에 큰 피해를 입어 야음을 이용하여 철수함으로써 사단은 4일 횡성을 점령하였다.

## (2) 講林—安興—烽火山 進出

미 제10군단은 2월 21일 10:00에 우전방 미 제7사단이 주공으로 영월—평창 도로를 따라 공격하고 좌전방 국군 제3사단은 조공으로 좌인접에서 원주—횡성 축선으로 공격하는 미 제9군단 주공인 미 제1해병사단의 우측방을 엄호하면서 원주—방림리 도로 북쪽의 강림—안흥—봉화산에 배치된 적을 공격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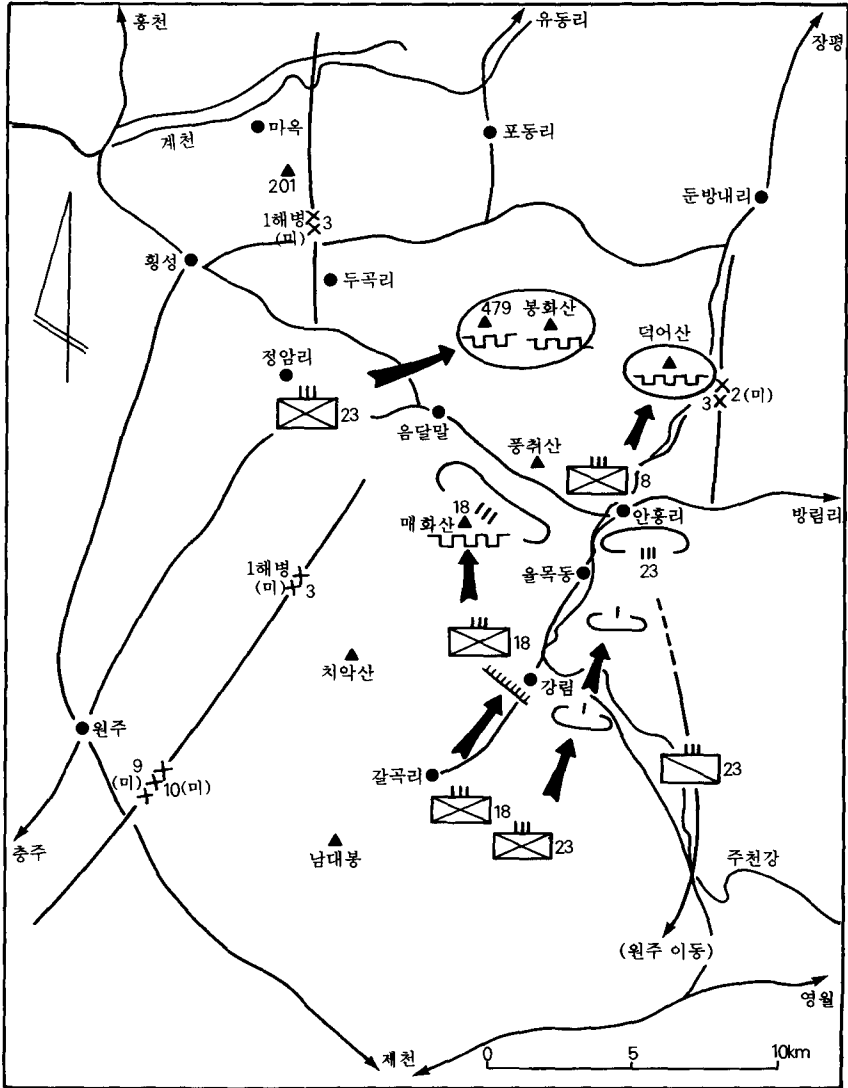
국군 제3사단의 공격목표인 강림리(講林里)—안흥리(安興里)—봉화산은 서쪽으로는 매화산—치악산—남대봉으로 연결되는 치악산맥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고 동쪽으로는 주천강이 남북으로 흐르고 있는 지역으로, 도로망은 결핍되고 산간 도로가 있었지만 1m의 적설(積雪)과 급경사로 기동에 매우 불리하였다.

사단이 공격작전을 펼칠 무렵 작전지역내에는 인민군 유격대의 출몰이 빈번하여 사단은 정규전과 유격전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사단은 2월 공세에서 피해를 입어 2,000여 명의 신병을 보충받았으나 교육훈련이 부족하여 전력이 약화된 상황이었다.<sup>73)</sup> 좌인접 미 제1해병사단의 진출이 지연되어 사단은 23일에야 좌전방에 제18연대, 우전방에 23연대, 그리고 제22연

대를 예비로 하는 2개 연대 병진공격을 개시하였다. 사단은 1개 중대 규모의 적이 강림리를 점거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를 포위공격하기 위하여 제23연대가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제18연대는 좌측방과 정면으로 공격하여 이 적을 격퇴하고 강림리를 확보한 후 계속 공격하였다. 제18연대는 산악으로 기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접적이 경미하여 매화산으로 진출하였다. 계곡 통로를 따라 진출 중인 제23연대는 소로를 감제할 수 있는 강림리 동쪽의 고지군에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저항하는 2개 중대규모의 적진지를 격파한 후 안흥리를 감제할 수 있는 고지군으로 진출하였다. 사단은 26일 황성-안흥리-평창 선으로 진출하여 좌전방 제18연대는 음달말에서 미 제1해병사단과 연결하였고, 우전방 제23연대는 안흥지구를 점령하여 군단의 주공인 미 제7사단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단의 중앙사단으로 투입된 미 제2사단과 연결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적의 집요한 저항을 격퇴하고 30km 이상 전진하여 황성-평창 간의 기동로를 확보함으로써 차후 공격작전의 발판을 확보할 수 있었다.

2월 28일 미 제8군의 공격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군단 전투지경선이 좌측으로 황성 동쪽 두곡리(杜谷里)로 확장되면서 미 제9군단의 우전방 연대인 미 제5해병연대 지역을 제23연대가 원주로 이동하여 정암리(正菴里) 부근에서 인수하였다.<sup>74)</sup> 이때 사단정면의 적은 인민군 제3군단 예하 제6, 제12사단의 5,000여 명이 안흥리 북쪽의 봉화산과 덕어산(德御山) 일대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전선을 재정비한 사단은 3월 1일 좌전방 제23연대, 우전방 제18연대로 병진공격을 재개하였다. 제23연대는 479고지에서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하루 종일 공방전을 펼쳤으나 방어진지가 견고하여 공격개시선으로 철수하였다. 사단의 공격제대들은 대오를 재정비한 후 공격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사단의 공격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여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한 적과 수류탄과 총검이 난무하는 일진일퇴의 공방전만 펼칠 뿐 다수의 피해만 발생한 채 진전이 없었다. 반면 적은 봉화산을

강림-안흥 전투



중심으로 연결된 고지마다 강력한 거점방어진지를 구축하고 필사적으로 저항하였다. 사단은 인명 손실이 증가하자 전면공격을 중지하고 한 곳의 목표를 선정한 후 그 곳에 병력을 집중하여 목표를 점령하는 전술을 채택, 순차적으로 고지들을 기습공격하였다. 사단은 4일까지 이러한 공격을 수차례 반복하였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과 지형이 불리하여 봉화산 공격은 교착상태에 접어들었다. 3월로 접어들면서 군단 전지역에 걸쳐 의외로 적의 저항이 완강하였으며 특히 사단의 우인점 미 제2사단은 원주-방림리 도로 전방의 고지를 공격하다가 공격이 둔화되기도 하였다. 다행히 5일 밤 인민군이 진지를 버리고 철수하였고, 공격체대들은 공격을 재개하여 7일 원주-방림리 도로 북쪽의 감제고지를 점령 목표선(Arizona)으로 진출하였다. 이후 사단은 국군 제3군단으로 복귀하게 되어 방어진지를 미 제2사단 제23연대에 인계하고 마차리-정선 일대로 철수하였다.<sup>75)</sup>

### (3) 東沙里 雪寒地 戰鬥

국군 제3군단은 태백산맥의 서쪽 산악지대를 공격하게 되었는데 오대산을 중심으로 동쪽은 수도사단이, 서쪽은 국군 제7사단이 공격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제9사단은 군단예비로 송계리 부근에 집결하고 있었다. 군단은 킬러작전이 개시되자 우전방 수도사단의 제26연대를 횡계리에, 제1연대를 강릉에 배치 방어진지를 강화하도록 하면서 좌인점 미 제10군단 공격을 엄호하기 위하여 2월 25일에 좌전방 제7사단으로써 평창-창동리 도로를 따라 공격을 개시하였다. 군단장은 적의 저항이 경미하여 사단의 공격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미 제7사단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사단에 1개 연대를 신속히 속사리(東沙里) 부근으로 투입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하도록 하였다.<sup>76)</sup> 이에 수도사단장은 제26연대가 방어 중인 횡계리 부근에서 대기 중인 제1기갑연대(연대장: 金東洙 대령)를 속사리로 진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5일간이나 계속된 폭설로 인하여 대관령—횡계리—구산리(邱山里) 간의 도로가 차단됨으로써 공격이 지연되었고, 제설작업 끝에 3월 1일에 이르러서야 경강국도를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에 1개 대대를 투입 2개 대대 병진공격을 개시하였다.

이 무렵 영월 부근에서 철수한 인민군은 발왕산, 속사리, 월정사 부근에 중심 진지를 편성하고 군단의 진출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일부는 유엔 해군의 함포사격으로 해안을 연한 양호한 기동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계방산—오대산—황병산을 연하는 산악지대에서 제2전선을 형성하여 유격전을 기도하였다.

제1기갑연대가 속사리로 향하고 있을 무렵 군단장은 거문리(巨文里) 일대에서 제7사단 제5연대와 격전 중인 적의 퇴로차단을 서둘기 위하여 제1기갑연대에 당일(1일)중으로 속사리로 진출하도록 독촉하였다. 그러나 연대는 제설작업이 지연되어 2일 하진부로 진출하여 접적이 개시되었다. 이때부터 거문리 일대에 배치된 적은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연대는 항공지원을 요청하여 이 적을 격퇴하고 속사리와 하진부 중간의 발왕리(發旺里)로 진출할 무렵 야음으로 야간방어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22:00부터 제1기갑연대의 후방을 엄호하고 있는 제26연대 제3대대와 연대의 퇴로를 차단하려는 적이 3일 04:00까지 유천리(楡川里) 부근에서 밤새도록 격돌하였다. 제3대대는 포위공격을 시도하는 적과 치열한 백병전을 펼쳤지만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다수의 피해를 입어 08:00에 차항리(車項里)로 철수하였다. 이로써 속사리를 공격 중인 제1기갑연대는 퇴로가 차단되고 사단의 공격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 후한 속에서 밤을 보낸 제1기갑연대가 여명을 기해 공격 재개를 시도하였으나 적은 야음을 이용하여 연대를 포위하였다. 연대는 부득이 사주방어로 전환하였으나 적의 포위망이 점점 압축되어 사단장은 제1기갑연대에 철수를, 제26연대는 유천리로 재진출하여 제1기갑연대와 연결하도록 명령하였다. 제1기갑연대는 방호와



적진 돌파를 반복하면서 월정동-광천(廣川)을 경유 4일 자정경 적의 추격에서 벗어나 대관령 서쪽 입구의 가사두(加士頭)에 집결하였다.

연대는 철수작전에서 300여 명의 적을 사살하기도 하였으나 전사 59명, 부상 119명에 실종 802명에 달하는 인명 손실과 81mm 박격포 11문, 60mm 박격포 18문, 3.5" RKT 10문 등 다수의 장비 손실이 있었다. 그러나 실종자의 대부분은 다음날 복귀하였다.<sup>77)</sup> 이때 연대는 경강국도가 폭설로 차단되고 보급이 두절되어 식량 및 탄약도 절대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고 흑한으로 인한 동상환자도 다수 발생하였다.

이번 작전에서 미 제8군은 퇴각하는 적을 추격하기 위하여 기동성이 우수한 미군 사단 위주로 작전을 펼쳤지만 예상치 못한 기상 이변으로 말미암아 격멸작전(킬러작전)은 두 공격체대가 나란히 적을 추격해 올라가는 형태의 진격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악천후와 싸워 나가는 힘겨운 진군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 결과 14일 동안(2월 21일~3월 6일) 추격작전을 벌인 미 제9, 제10군단은 횡성-평창의 목표선까지 도달하였으며, 적에게 심대한 피해를 주었다. 당시 적 피해는 미 제9군단 지역에서만 사망 7,918명, 부상 1,469명, 포로 208명에 육박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목표선(아리조나선) 이남의 모든 적을 섬멸한다는 당초의 목표를 완전하게 달성하지는 못하였다.<sup>78)</sup>

## 2. 中部戰線 切斷作戰(Operation Ripper)

### (1) 유엔군의 作戰方針

국군과 유엔군은 재반격작전으로 전환하여 중공군의 2월 공세를 분쇄하고 격멸작전(Operation Killer)을 벌여 1951년 3월 초에는 한강 남안-횡성-강릉을 잇는 선까지 진출하여 일직선으로 연결된 방어선

을 확보하였다. 이로써 중공군의 개입과 공세에서 갖게 된 패전의식에서 벗어나 서울의 재탈환은 물론 38도선의 진출도 목전에 내다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때 서울의 재수복작전에 관하여는 그것이 정치, 심리 등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겠지만 유엔군의 증원이 없는 상황에서 서둘러 무리한 희생을 감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군사적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8군사령부는 현 전선의 중앙지역에 대 돌파구를 형성, 일단 적의 전선을 양단하여 서부의 중공군과 동부의 인민군으로 분리시킨 다음, 남쪽과 동쪽으로부터 서울을 양익포위한다는 작전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번 작전을 전선 절단과 분리라는 작전 목적을 고려 ‘전선 절단작전(Operation Ripper)’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무렵 중공 지원군사령관은 방어에 유리한 산악과 하천을 이용하여 방어중심을 유지하면서 유엔군의 공격을 저지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는 유엔군이 우세한 포병, 전차와 공군화력으로 먼저 상대의 진지에 집중적인 포격을 실시한 후 보병이 공격을 개시하는 작전 특성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강조하였다.

병력배치는 반드시 전경후중(前經後重)의 원칙을 관철할 것이며 적 극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거점과 도로의 통제, 은폐, 분산 및 깊은 중심배치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화력구성은 반드시 적 전차와 보병의 살상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아울러 중화기를 전방제대에 배속하여 전중후경(前重後經)의 원칙으로 배치하도록 한다.<sup>79)</sup> 적은 이 방침에 의거 지난 2월에 입한(入韓)한 중공군이 전방으로 전개될 때까지 기동방어 전략으로 지연전을 펼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엔군의 우세한 화력과 기동으로 야전축성에 의존한 지연전은 한계에 달해 경미하게 저항하면서 철수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고, 이때 식량과 탄약 공급마저 제한되어 병사들의 사기도 극히 저하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적은 서부지역에는 인민군 제1군단과 중공 제50군이, 중앙에는 중공 제38, 제42, 제66군이, 동부지역에는 인민군 제2, 제5군단

과 제69여단을 배치하였다.

반면 아군은 격멸작전(킬러작전)으로 양평-횡성-강릉 선으로 진출하여 다시 2월 공세 이전의 전선을 회복하였다. 서부전선 미 제1군단은 국군 제1사단, 미 제3사단, 미 제25사단(배속:터키 여단)이 한강을 따라 강 남쪽의 김포반도-노량진-잠실-수청리(水靑里)를 점령중이며, 중부전선 미 제9군단은 국군 제6사단, 미 제24사단, 제1기병사단(배속:영 제27여단), 제1해병사단이 양평-용두리-풍수원-횡성 선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중동부전선 미 제10군단은 국군 제5사단, 미 제2사단, 미 제7사단으로 추동리-안흥리-하송빈을 점령하였고, 국군 제3군단은 제7사단(배속:국군 제1해병연대)이 형제봉-박지산-용산리를 점령하였다. 동부전선 국군 제1군단은 제9사단, 수도사단으로 간평리(間坪里)-차항리-강릉 선을 점령하였다. 각 군단은 기상이 변으로 인한 물자 수송이 제한되어 차기작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보급품을 비축하면서 부대정비에 주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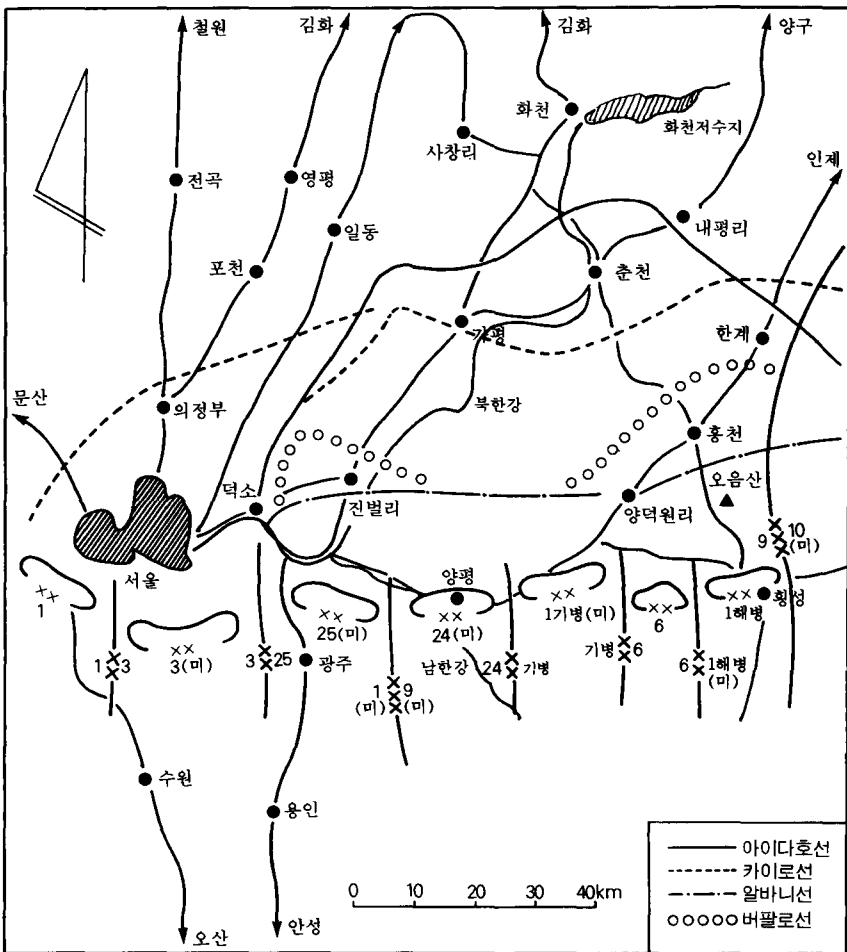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 제8군은 이번 작전에는 전 군단이 참여하되 중부의 미 제9군단이 주축을 이루어 서울 동쪽의 덕소(德沼)-가평-춘천 북방-한계를 연하는 목표선(Idaho)까지 진출하여 적을 양단함은 물론 적의 병력과 보급물자의 비축 장소로 판단되는 흥천과 춘천을 점령함으로써 동측으로부터 수도권 지역에 대한 압력을 가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여전히 중공군의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므로 이번 작전에서는 종전처럼 단계적이며 부대간의 상호협조가 대단히 중요시되었다.

이에 제8군사령관은 주로 주공 집단의 통제에 중점을 두고 3개의 통제선(알바니선, 버팔로선, 카이로선)을 선정하였다.

첫 번째 통제선은 미 제1, 제9, 제10군단 전방의 8~20km 북쪽의 양수리-양덕원리-노천리-태기산-속사리를 연하는 알바니(Albany)선으로, 이 선을 점령하면 미 제9군단이 전술적 요충인 흥천 부근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두 번째 통제선은 미금리-진별리-홍천 북쪽-한계리를 연하는 버팔로(Buffalo)선으로 이는 미 제1, 제9군단지역에만 설정되었다. 이때 미 제1군단의 우전방 미 제25사단은 버팔로선까지 진격하여 서울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적에 대한 포위망을 확대하는 임무를 부여받았고,

리퍼작전 작전통제선



미 제9군단의 주목표는 흥천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통제선인 카이로(Cairo)선은 미 제9군단지역에 국한하여 설정되었다. 가평-춘천 남쪽-한계 북쪽을 연하는 이 선을 점령하면 제9군단은 춘천을 목표로 계속 북진할 계획이었다. 춘천은 차후 공격목표인 아이다호(Idaho)선의 최종 목표지점이기도 했다.<sup>80)</sup>

제8군사령관은 춘천과 흥천을 점령하여 적의 전선을 차단하고 서울을 양익포위하기 위하여 주공인 미 제9군단은 신임 군단장 호지(William H. Hoge) 소장의 지휘하에 29번 도로를 따라 3단계 작전으로 흥천, 춘천을 공격하고 조공인 미 제10군단은 2단계 작전으로 풍암리-태기산-운두령을 공격하여 주공의 우측방을 엄호하였다. 그리고 미 제1군단의 주력은 한강선에서 적을 고착 견제하고 일부는 2단계 작전으로 예봉산-천마산(天摩山)을 공격 주공의 좌측방 엄호와 서울 포위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한편 미 제10군단의 우인접 국군 제3군단은 산악지역인 운두령-황병산을 공격하고, 이미 주문진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연곡천을 따라 설정된 최종 목표인 아이다호선으로 진출한 국군 제1군단은 점령중인 방어진지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제8군사령관은 3월 1일에 이 작전(리퍼작전)의 세부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전방지역의 보급물자 부족, 특히 식량, 유류 및 탄약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작전개시일의 확정을 일단 보류하였다. 물자의 부족은 적의 2월 공세에 기인한 연유도 있었지만 주로 격멸작전(킬러작전)시 기상 이변(異變)으로 물자 공급이 극도로 곤란해짐에 따라 도로, 철도, 교량, 터널 등의 보급로를 복구하는데 추가적인 물자가 소모되었던 원인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이번 작전의 공격개시일을 결정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전방 배치부대에 5일 분의 보급물자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작전을 계획하면서 유엔군의 목표는 영토의 획득은 단지 목적 달성의 수단에 불과하고, 핵심은 아군의 전력(戰力)을 유지하면

서 최소의 노력으로 적에게 최대의 손실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만약 유엔군이 물자보급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적의 공격 징후가 현저하게 나타날 경우 전선 절단작전(리퍼작전)을 취소할 계획이었다.<sup>81)</sup>

제8군사령관은 적 예비대가 전선 절단작전이 진행될 중부 내륙지방으로 집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서해안에 상륙 양동작전을 계획하였다.<sup>82)</sup> 이에 따라 미 해군 제95기동함대의 소해정(掃海艇)이 서해안을 따라 기뢰를 제거하는 행동을 취하면서 진남포 외곽의 대동강 입구로 진입하였으며, 순양함과 구축함으로 편성된 1개 분견대가 이를 뒤따라 가상 상륙지점에 함포사격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 다음에는 병력과 화물을 실은 수송선들이 인천에서 출항하여 북쪽으로 항해 중에 방향을 바꾸었다. 이러한 작전은 3월 5일에도 반복되어 적에게 상륙작전이 임박하였음을 과시하였다. 그리고 동해안에서는 미 제 95기동함대가 2월부터 계속 원산지역에 함포사격을 집중하였고 국군 해병 제41중대는 원산 근해의 도서를 점령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미 극동공군은 적의 공격준비를 저지하기 위하여 도로 못지않게 많은 병력과 장비가 수송되고 있는 주요 철도의 교량 파괴에 역점을 두고 폭격하여 목표물을 대부분 파괴하였으며 적이 이용할 수 있는 철도는 48km도 채 남지 않았다.<sup>83)</sup>

제8군사령관은 유류 보급을 마지막으로 5일간 비축물자의 확보가 완료되고 지형이 험준하여 진출이 지연되었던 미 제9, 제10군단의 일부 부대들도 아리조나선으로 진출을 완료하자 3월 5일 전선 절단작전의 공격개시일을 7일로 결정하였다. 군사령관은 이번 작전에서 중동부전선에 배치된 국군 제1군단은 이미 아이다호 선으로 진출해 있었고, 미 제10군단은 32km, 그리고 국군 제3군단은 16km만 진격하면 목표선에 도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전력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월 중순부터 미 제10군단에 배속된 국군사단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미 제10군단의 작전통제를 받아 왔던 국군 제1군단사령

부와 국군 제3사단을 육본 직할로 복귀시켰다.

한편 육군본부도 국군 제3군단의 우전방 제9사단을 국군 제1군단으로, 국군 제3사단은 제3군단으로, 그리고 홍천 공격에 실패 후 재편성을 완료한 국군 제5사단을 미 제10군단으로 배속을 전환시켜 전선을 재정비하였다.

그리고 이번 작전의 준비에 대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작전계획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통제함은 물론 기자들에게 작전이 개시되기 전에는 보도를 자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유엔군의 중요 작전이 개시되면 통상적으로 방문하던 극동군사령관의 방문도 공격개시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sup>84)</sup>

## (2) 洪川—春川 進擊戰

적 전선 절단작전(리퍼작전)의 주 목표는 미 제9군단이 목동리—춘천 북쪽—내평리—한계를 연하는 아이다호선으로 진격하여 홍천과 춘천을 탈환하는 것이었다. 이번 작전의 주공인 미 제9군단은 4개 사단 병진공격으로 좌전방 미 제24사단(배속:국군 제19연대)이 용문산으로, 중앙의 미 제1기병사단(배속:영 제27여단)과 국군 제6사단(제19연대 결)은 29번 도로 서쪽의 홍천강 남쪽 산악지대로, 우전방 미 제1해병사단은 홍천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대구에서 훈련 중인 제187공수연대가 의명 군단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군단의 주공인 미 제1해병사단의 임무는 퇴각하는 적에게 최대의 피해를 주고 계속적인 압력을 가하여 적의 차기공세를 사전에 분쇄함은 물론 신속한 전진으로 서부전선에 배치된 적 측방을 포위하여 철수를 강요하는 것이었다. 사단은 3월 7일 오음산 북쪽의 알바니선을 향해 2개 연대 병진대형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때 적은 소수의 병력을 주요 거점에 배치하여 사단의 진출을 저지하고 주력은 철수하는 상황이었다. 9일 제1단계 목표인 알바니선을 점령하였으나 우인점

미 제10군단의 미 제2사단과 좌인접 미 제1기병사단의 진출이 지연되어 사단은 잠시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지역내를 정찰하였다. 13일 두 사단이 알바니선으로 진출하여 리퍼작전의 제1단계 작전이 완료되었다. 적의 저항이 경미하여 제9군단은 국군 제6사단을 제외한 나머지 부대들도 알바니선으로 진출하였다.

이때 국군 제6사단은 제2, 제7연대로 풍수원 도로 남쪽에서 병진공격을 7일에 개시하여 제2연대 수색대가 황성 서북 초원리(草院里)에서 국군 제8사단이 2월 공세 때 유기한 대전차포 7문과 105mm 곡사포 5문을 회수하였다.<sup>85)</sup> 사단은 계속 공격하여 11일 풍수원 북쪽 갈기산-성지봉으로 진출 중 군단의 부대 재배치 계획에 의거 12일 작전지역을 좌인접 영 제27여단과 우인접 제7해병연대에 인계하고 제1기병사단의 좌전방 제8기병연대의 장락산-용수리(龍水里) 지역을 인수하였다. 그리고 13일에는 3월 4일부터 미 제24사단에 배속되었던 제19연대가 사단으로 복귀하였다. 전선을 정비한 사단은 14일 좌전방에 제19연대, 중앙에 제7연대, 우전방에 제2연대를 배치하고 공격을 재개하였다.

황성을 지나 홍천을 공격 중인 미 제1해병사단에는 미 제2사단에서 파견나온 전장 정리조가 동행하였는데 이들은 지난 2월 중순 홍천 포위작전(라운드업 작전) 중 중공군의 2월 공세로 황성 계곡에서 피해를 입은 미 제10군단의 전사자와 장비를 수색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12일까지 전장 정리조는 대부분 미 제21지원부대원으로 보이는 시체 250구 이상과 그들이 철수할 때 방치한 155mm 곡사포 5문, M-5 견인차 6대, 분실된 전차 6대 중 4대를 후송하고 예비부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파손된 다수의 트럭을 수거하였다.<sup>86)</sup>

제8군사령관은 전선 절단작전의 제1통제선인 알바니선 점령이 완료되자 13일 저녁 제2통제선인 버팔로선으로 진출을 명령하였다. 이에 미 제9군단은 전선 절단작전의 제2단계 작전으로 홍천을 공격할 무렵 적이 홍천 전방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완강히 저항할



것으로 예상하고, 제1기병사단을 좌측, 제1해병사단을 우측으로 홍천을 양익포위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좌전방의 미 제24사단과 국군 제6사단은 북한강 계곡의 청평호에서 홍천강 남쪽까지 진출하도록 하였다.

공격을 개시한 군단은 14일 예상과는 달리 홍천 남쪽에는 적이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때 적이 원거리에서 산발적으로 소화기 사격만으로 응사함으로써 공격제대들은 순조롭게 진출할 수 있었다. '공격개시 이틀(15일) 만에 미 제24사단은 청평호에, 국군 제6사단은 홍천강 남쪽의 고지군을 확보하였고 홍천을 좌측방에서 공격 중인 제1기병사단도 홍천강변에 진지를 구축하고 동측방 제1해병사단의 공격을 기다리고 있었다. 좌전방 국군 제6사단과 미 제24사단의 정찰대는 청평호와 홍천강 북쪽으로 정찰하였으나 적의 저항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제1기병사단은 홍천 부근으로 진출하면서부터 줄곧 적의 소규모 부대에 의한 강력한 저항을 받았다. 사단은 2개 대대를 투입 홍천강 북쪽을 정찰하였는데, 적의 반응과 항공정찰에서 확인된 적진지로 미루어 보아 적이 홍천과 춘천 사이의 29번 도로변에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고 지연전을 펼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군단장은 16일 홍천 일대에 중점적으로 배치된 적을 분산시켜 미 제1해병사단의 공격을 지원할 목적으로 홍천강을 연하여 중간 통제선인 버스터(Buster)선을 설정하고 홍천 북방의 버팔로선과 연결하였다. 그리고 국군 제6사단, 미 제24, 제1기병사단에 이 선을 점령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때 적은 유일하게 홍천 동쪽에서 미 해병사단의 진출로상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해병사단의 전진을 저지하였다. 그러나 제7해병연대 정찰대는 적진을 돌파 홍천으로 진입하여 읍내가 아군의 폭격에 폐허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도착한 사단 주력은 홍천 동북방의 고지를 점령하였다.<sup>87)</sup>

군단의 4개 사단은 17일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으며, 국군 제6사

단과 미 제1해병사단은 적의 저항이 경미하여 진출이 용이하였으나 이번에는 중앙의 제1기병사단이 하루종일 적과 공방전을 펼쳤다. 그러나 18일부터 적의 저항은 점차 약화되었고 나중에는 서둘러 철수하는 모습이 역력하였다. 공격제대들은 계속 진격하여 19일 야간에는 전 사단이 목표지역을 점령하였다. 이 진출작전의 절정은 작전지역을 점령한 국군 제6사단 제2연대 제2대대가 19일 차량으로 정찰 중 흥천강 북쪽 구은동(九隱洞: CS8676) 부근의 좁은 계곡에 중공군 1개 대대가 집결 중인 것을 발견하고 포위공격하여 피해 없이 적 231명을 사살, 2명을 생포하고 75mm 야포 7문, 60mm 박격포 6문, 82mm 박격포 4문 등 다수의 무기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린 것이었다.<sup>88)</sup>

군단장은 중공군이 다급하게 철수하는 양상이 뚜렷하자 공격의 기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마지막 통제선인 카이로선으로 적을 추격하도록 하였다. 미 제9군단이 카이로선을 점령하게 되면 제8군사령관은 대구에 대기 중인 제187공수연대를 22일 춘천 북쪽에 공중투하하여 춘천호에서 내려오는 적을 차단하고 미 제9군단과 연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일과 21일 양일간 중공군이 예상보다 빨리 후퇴하여 미 제9군단의 전진은 예상외로 진출 속도가 빨랐다. 상황이 급진전되어 21일 미 제1기병사단이 카이로선에 도착하자 당초 계획했던 공수투하 작전은 큰 수확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었다.<sup>89)</sup> 이날 13:30경 미 제1기병사단의 특수임무부대는 이미 적 병력과 장비가 철수한 춘천 시가지로 진입한 후 동북방으로부터 적의 공격을 받았으나 전차포사격으로 이 적도 격퇴하였다. 춘천으로 진출한 특수임무부대는 적의 역습을 우려하여 카이로선으로 철수하였고 다음날 제1기병사단 제7기병연대가 춘천시내로 진입할 때까지도 적의 저항은 없었다. 춘천을 점령함으로써 적 전선 절단작전(리퍼작전)의 목표는 달성되었다.

한편 군단의 우전방 미 제1해병사단도 18일 동부전선의 여량리(餘糧里)에서 사단으로 배속이 전환된 국군 제1해병연대가 도착하자 사단의 중앙연대로 투입하였다. 국군 제1해병연대가 사단 전투지역내에

서 가장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공격개시하여 24일 적의 방어거점인 가리산(加里山)을 확보하였다.<sup>90)</sup>

### 3. 서울奪還作戰

적 전선 절단작전(리퍼작전)의 주 목적의 하나는 서울을 적이 강력히 방어할 것으로 판단하고 중부전선에 중심 깊은 돌파구를 형성하여 동측방으로부터 서울을 포위할 지형을 확보하거나 이를 통해 서울 방어부대의 철수를 유도(誘導)하는 것이었다. 이 작전에서 주공인 제9군단이 돌파작전을 전개하는 동안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은 한강 남쪽의 저지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이때 미 제1군단은 좌전방 국군 제1사단과 미 제3사단은 매일 500~600톤의 보급물자가 하역되는 인천 지역 경계와 한강 남쪽의 진지를 계속 방어하도록 하고, 우전방 미 제25사단(배속:터키 여단)은 남한강과 북한강의 합류지역을 도하, 한강 이북으로 진출 북한강을 끼고 있는 고지군을 점령하도록 하여 우인접 미 제9군단의 좌측방을 엄호함과 동시에 서울에 배치된 적을 포위할 계획이었다.<sup>91)</sup>

제25사단은 3월 7일 동이 트기 직전 강력한 공격 준비사격을 실시하고 군단의 다른 사단들이 위장 도하작전으로 적의 경계를 분산함과 동시에 3개 연대병진 도하작전을 개시하여 당초 우려와는 달리 별 저항없이 대안으로 진출하였다. 공격제대는 한강을 후속 도하한 전차와 합류하여 근접 항공지원 엄호하에 공격을 속계하여 적진을 돌파하였다. 이때 적은 도로에 대인 및 대전차지뢰를 매설하고 소화기, 기관총, 박격포사격으로 저항하였으나 그다지 격렬하지는 않았다.

공격개시 4일째인 10일부터는 적의 저항이 현저하게 저하하였고, 사단은 어려움없이 진격을 계속하여 북한강 서쪽 지역까지 올라갔다. 15일 저녁 무렵 제24연대와 제27연대는 서울-춘천 도로까지 진격하

였으며, 이때 북한강 동쪽 접경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터키 여단은 경춘 국도 보다 2마일 북상하여 우인점 미 제9군단 제24사단이 확보한 진지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군단은 제25사단이 예봉산으로 진출함으로써 서울을 동측방에서 적을 위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제9군단이 흥천을 탈환할 무렵 적이 서울을 포기하는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2일 정찰기가 한강 북쪽의 적 진지와 미 제25사단의 교두보지역 상공을 비행할 무렵 대규모의 적 병력이 이 지역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관측하였고 미 제3사단 정찰대가 한강을 도하 적진지를 정찰하였으나 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서울 남쪽을 방어하고 있던 국군 제1사단 예하 5개의 정찰대는 14일 한강을 도하하여 서울(강북) 시내를 정찰하였으나 적과 조우하지 않았다. 이때 1개 정찰대는 중앙청으로 진출하여 청사에 태극기를 내걸었다.<sup>92)</sup> 또 미 제3사단 정찰대도 적의 방어상 중요 감제고지인 한강변의 매봉(175고지)과 용마봉을 정찰하였으나 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항공정찰에서도 서울 북쪽 인접지역에서는 적 활동이 관측되지 않았고 서울-의정부 중간지점으로부터 3번 도로의 주변지역을 따라 적 병력과 방어진지가 광범위하게 구축되어 있는 것이 식별되었다.

제8군사령관은 서울에 적이 없음을 확인하고 3월 15일 미 제1군단장으로 하여금 서울을 탈환하기 위해 서울 북쪽의 주요 고지군(북한산 지역)을 점령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는 이를 위해 서울 북서쪽 한강변에서 북한산을 경유 용마봉을 거쳐 버팔로 선과 연결하는 통제선 [군단장은 이를 링컨(Lincoln) 선으로 명명하였다]을 설정하였다. 군사령관은 이번 작전의 목적이 적을 공격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의 철수를 추적하는데 있으므로 이 선을 군단의 전진 한계선으로 설정하고, 이 선 북쪽으로는 정찰대만 파견하여 접촉을 유지하도록 작전을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1군단장은 국군 제1사단은 북한산을, 미 제3사단은 용마산을 목표로 작전을 전개하되 국군 제1사단은 1개 연대규모로,

미 제3사단은 1개 대대규모와 2개 전차소대만 투입하도록 하였다.<sup>93)</sup>

서울 탈환 명령을 받은 국군 제1사단은 2월 16일 한강 남쪽으로 진출한 이후 한달여 동안 서울을 목전에 두고 우전방 제15연대가 한강철교-영등포에 이르는 여의도 치안에, 좌전방 제12연대가 염창-김포 일대에 배치되어 경계와 잔적 소탕작전을 병행하고 있었다.

사단은 중동부전선 부대들이 공격작전을 펼치는 동안 장차 예상되는 서울 탈환 작전에 대비하여 소대-분대 규모의 정찰대를 강북으로 파견 적정을 탐색하고 제15연대의 주력은 시가전에 대비한 훈련에 주력하였다. 이때 우인접 미 제3사단도 잠실 일대에서 사단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서울 동북방의 쌍문동-퇴계원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서울 탈환 임무를 부여받은 제15연대는 3월 15일 제6중대의 도하를 시작으로 각 대대의 일부 병력만 도하시켜 적정을 탐지하도록 한 다음, 16일에 제2대대를 선두로 제1, 제3대대가 차례로 한강을 도하하여 시내로 진출함으로써 서울 전역을 장악하였다. 이어서 13:00에는 국방장관 일행이 연대의 한강 도하상황을 시찰하였고 대통령의 축하 전문도 받았다.<sup>94)</sup>

제1사단 제15연대는 서울을 경유 외곽지대로 진출하였고 미 제3사단 제65연대 제2대대도 용마봉을 점령하였다. 이후 각 사단 정면에 가설된 교량을 이용하여 제1사단은 추가로 제11연대를 전방으로 투입하였고, 미 제3사단도 완전한 1개 연대로서 교두보선을 강화하였다.

서울은 그동안 점령군이 4번씩이나 바뀌어 말 그대로 폐허가 되었다. 시가지내의 건물들은 폭격과 포격으로 수난을 겪었던 흔적이 역력했으며 교통, 통신 그리고 기타 공공시설이 모두 심하게 파괴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최소한의 발전시설과 급수시설을 복구하는데도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었고, 150만 명의 서울 인구 중 남아 있는 20만 명에게 제공해 줄 식량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서울이 탈환된 직후 신문, 라디오와 경찰은 홍보활동을 통해 서울의 생활 여건이



국군 제 1사단이 마포에서 서울 재탈환 작전을 벌이고 있다.(1951.3.15)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행정의 재개될 때까지 일반인의 복귀를 자제하도록 홍보하였다.<sup>95)</sup>

이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에게 서울 탈환의 축하 서한을 보내고 다음과 같은 회신을 접수하였다.<sup>96)</sup>

포악한 군대가 물러가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적이 이번에는 지난 9월과는 달리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탈환은 심리적으로는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나 군사적 견지에서는 전투의 한 부대적인 사실에 불과한 것입니다. 서울이 금후에 완전히 안전하리라고는 생

각할 수 없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한국정부가 즉시로 서울에 귀환하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고 믿는 바입니다.

#### 4. 東部山岳 作戰

##### (1) 泰岐山 戰鬪

미 제10군단은 전선 절단작전(리퍼작전)의 조공으로 한계-풍암리-태기산-계방산을 연하는 아이다호선을 목표로 공격하게 되었다. 군단장은 좌측지역의 횡성-풍암리 간의 소로와 우측의 평창-방림리-속사리 도로를 따라 진격하는데 역점을 두고 이 도로 축선에 미 제2사단과 미 제7사단을 배치하고 국군 제5사단은 양 도로 사이의 산악지역을 담당토록하였다.

이때 국군 제5사단은 중공군의 2월 공세를 받은 이후 국군 제1군단에 배속되어 단양-풍기 간의 주보급로 경계임무를 수행하면서 부대정비 중 3월 3일 다시 미 제10군단에 배속되어 5일 운교리-안흥리 지역으로 진출 좌전방 지구리(池邱里)에 제36연대를, 우전방 월암동(月岩洞)에 제35연대를 배치하고 전선 절단작전(리퍼작전)을 준비하였다.<sup>97)</sup>

군단은 3월 7일 발교산-태기산-속사리를 목표로 좌전방에 미 제2사단을, 중앙에 국군 제5사단을, 그리고 우전방에 미 제7사단을 배치하여 3개 사단 병진공격을 개시하였다. 이 중 국군 제5사단의 작전지역은 대부분이 900~1000m의 대소고지들로 연결된 산악지역으로 도로망이 제한되어 기갑부대의 운용은 물론 부대의 기동마저 제한되어 공격에는 불리한 지형이었다. 그러나 사단은 지난 2월 초에 이 지역에서 작전을 펼친 바 있어 지형에는 다소 익숙해 있었다. 공교롭게도 사단정면의 적은 지난 2월 공세에서 사단과 일전을 펼친 바 있는

인민군 제6사단이 제12사단의 1개 연대를 증원받아 태기산으로 연결되는 고지군에 지연진지를 점령하고 있어 재대결을 벌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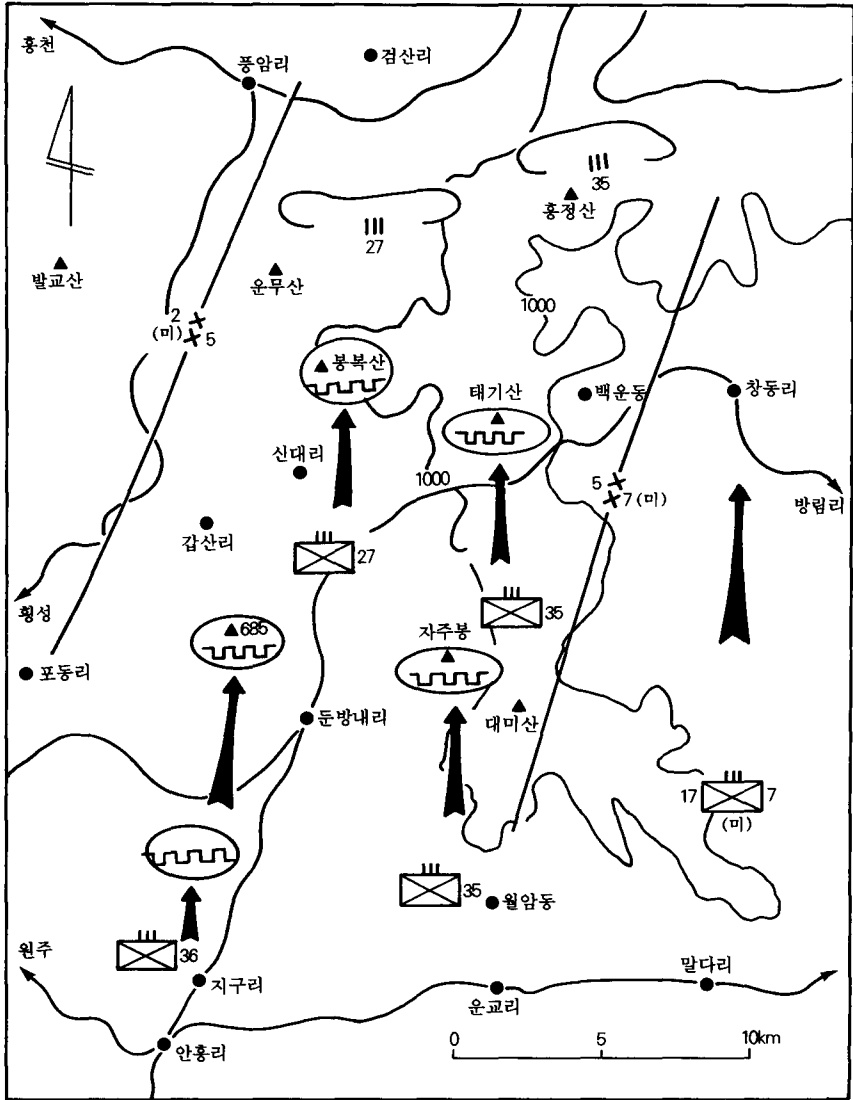
사단은 7일 좌전방 제36연대는 봉복산(1028고지)을, 우전방 제35연대는 태기산(1261고지)을 목표로 2개 연대 병진공격을 개시하였다.<sup>98)</sup> 그러나 적은 안흥리-갑천리 간의 산악 도로변의 감제고지를 점령하여 지연전을 펼치려는 듯 아군의 포병 및 항공폭격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저항하여 사단의 공격은 첫날부터 고전하였다. 주간공격에 실패한 우전방 제35연대는 야간전투와 백병전을 펼쳐 적을 격퇴하고 첫날 목표를 탈취하였다. 8일 야간공격을 펼친 제35연대가 부대를 재정비하는 동안 좌전방 제36연대가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적이 도로변의 고지를 점령하고 완강하게 저항하여 연대의 공격은 주춤하였다. 부대를 재편성한 공격제대는 9일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박격포 지원하에 완강히 저항하는 적진을 돌파하는데 실패하였다.

제36연대가 주간공격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하여 10일 야간공격을 개시하자 적도 이날 새벽에 우전방 제35연대를 기습하였다. 이로 인해 사단은 좌우전방에서 근접사격과 총검이 난무하는 백병전을 펼치며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펼쳤다. 이 작전에서 제36연대는 적의 강력한 거점인 둔방내리 남쪽의 고지를 확보하였고, 우전방 제35연대는 자주봉(889고지) 공격의 발판이 되는 둔내면 거점을 계속 확보하였다.

공격제대가 경계를 강화하면서 부대정비에 주력하는 동안 사단장은 양지촌(陽之村)-대곡(垞谷)-매봉을 연하는 선을 점령할 목적으로 22:00 적의 거점인 자주봉 일대에 야간 근접 항공지원사격을 요청하여 적진을 강타하였다. 12일 공격을 재개한 연대들은 지난밤의 항공폭격으로 저항이 경미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밤 사이에 적이 증원된 듯 더욱 완강한 저항을 받았다. 적과 혈전을 펼쳐 제36연대는 갑천리(甲川里) 남쪽의 685고지를, 제35연대는 자주봉을 점령하였다. 사단장은 좌전방 제36연대가 그동안의 결전으로 다수의 피해를 입어 전투력이 약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공격의 기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예비연



태기산 전투



대로서 후속 증인 제27연대에 제36연대와 교대를 준비하도록 명령하였다.

한편 생포된 포로의 진술에 의해 당시 적들이 태기산 남쪽에서 사생결단을 각오하고 지연전을 펼친 것은 11일부터 개시된 적 주력부대의 철수를 엄호하기 위한 작전의 일환이었음이 확인되었다. 또 다른 포로는 “인민군 제5, 제2, 제3군단 주력은 38도선 이북으로 철수하여 부대를 재정비하면서 새로운 공세를 준비 중”이라고 진술하였다.<sup>99)</sup>

이러한 포로들의 진술을 입증이라도 하듯 13일을 전후하여 그동안 방어거점을 구축하고 완강하게 저항하던 적이 전선에서 물러날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를 간파한 사단장 민기식(閔機植) 준장은 예비인 제27연대를 좌전방 제36연대와 교대시켜 적을 추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단은 우인점에서 창동리로 진출 중인 미 제7사단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 제7사단의 제17연대의 대미산(大美山) 지역을 인수함으로써 작전지역이 동쪽으로 확장되었다.

추격전을 펼친 사단은 14일 적의 최후 거점인 태기산을 점령하고 신대리(新垓里)－백운동(白雲洞) 선으로 진출한 후 15일에는 북쪽의 운무산(980고지)－홍정산(1277고지)의 아이다호선으로 진출하였다. 제27연대 정찰대는 아이다호선 전방의 검산리(檢山里) 부근 고지에 매복 중 17일 적이 후퇴하면서 은익한 무기와 탄약을 회수해 가려고 침투한 600여 명의 적을 포착하여 425명 사살, 57명 포로, 그리고 각종 기관총과 박격포 22문 등 다수의 장비를 노획하는 대전과를 올렸다.<sup>100)</sup>

한편 국군 제5사단이 공격작전을 펼치고 있을 무렵 군단의 좌전방 미 제2사단과 우전방 미 제7사단도 완강한 적의 저항과 불리한 지형 조건을 극복하고 13일을 전후하여 알바니선으로 진출하였다. 이후 15일 한차례 적의 기습공격을 받았으나 양개 사단은 이를 격퇴하고 17일 최종 목표선인 아이다호선으로 진출하여 전선 절단작전(리퍼작전)

을 종료하였다.

## (2) 下珍富里 附近 戰鬪

전선 절단작전의 조공인 국군 제3군단은 최종 공격목표인 계방산-황병산을 연하는 아이다호선까지는 16km 남짓 남아 있어 다른 군단에 비해 진격 거리는 짧지만 험준한 태백산맥 줄기를 따라 진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군단장 유재홍(劉載興) 소장은 작전지역의 기동공간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군단 후방지역에서 부상 중인 인민군 패잔병들의 출몰이 빈번함을 고려하여 제7사단과 배속된 국군 제1해병연대를 공격체대로 투입하고, 미 제10군단에서 복귀한 제3사단은 군단예비가 되어 국군 제1군단으로 배속이 전환되는 제9사단의 정선 일대의 진지를 인수하도록 조치하였다.

군단은 속사리-강릉을 연하는 선을 조속히 확보하라는 육본명령에 의거 제7사단은 좌전방 제3연대를 상대화(上大和)에서 백적산(白積山: 1141고지)-잠두산(蠶頭山: 1241고지)을 경유 속사리를, 우전방 제5연대를 대기(大基)에서 백석산(白石山: 1364고지)-박지산(博芝山: 1391고지), 형제봉을 경유 하진부리로 각각 공격하도록 하였다. 3월 6일 08:00에 좌전방 제3연대는 속사리를, 우전방 제5연대는 하진부리를 목표로 2개 연대 병진공격을 개시하였고, 예비인 제8연대는 주공인 제3연대를 후속하였다. 공격체대는 잠두산과 박지산 일대에서 적의 완강한 저항을 받았으나 포병의 화력지원으로 이 적을 격퇴하였다.

이 무렵 군단 정보보고에 의하면 적 제9사단 주력은 백적산을 고수하기 위하여 속사리에서 남하 중이며, 하진부리 부근에서 정비 중이던 적 제27사단도 형제봉과 박지산으로 남하하여 사단의 우측방 공격을 기도할 것으로 판단되어 군단장은 국군 제1해병연대를 이 지역으로 긴급히 투입하였다.

해병연대는 적이 진출하기 이전에 방어거점인 봉산리(鳳山里)와 발왕산(發旺山:1458고지)을 점령해야 하므로 신속한 기동이 요구되었다. 5일 08:00에 이동을 개시한 연대는 다음날 02:00에 우전방 제2대대가 오장산(五將山:735고지)을 경유 발왕산으로 진출하였고, 이어서 좌전방 제3대대도 상원산(上元山:1421고지)을 경유 봉산리로 진출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전방 정찰을 실시하였다.<sup>101)</sup>

해병연대를 배속받아 우전방을 보강한 제7사단은 7일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적은 아군의 화력집중을 우려한 듯 백적산, 백석산에는 최소한의 병력을 배치한 후 고지를 점령당하면 역습과 후방지역 침투를 통한 포위공격을 기도함으로써 사단의 공격은 여의치 않았다. 공격이 부진하자 8일 사단장은 예비인 제8연대를 투입 3개 연대 병진공격하도록 하였다. 이날 좌전방 제3연대는 7시간의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펼쳐 백적산을 탈취하였으나 적의 야간공격을 예상하여 주력을 철수시키고 일부 경계부대만 배치한 후 이 지역에 야포사격을 집중하도록 화집점을 설치하였다.<sup>102)</sup> 예상대로 적은 2개 대대규모로 야간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사단의 화력집중으로 큰 피해를 입고 철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하진부리-마평리(馬坪里)를 연하는 계곡 통로에 증원 병력을 집중하며 사단 후방의 백석산을 목표로 진출을 기도하였다.

이에 군단장은 하진부리를 조속히 점령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군단예비인 제3사단 제18연대를 증원하였다. 적은 3월 10일 2개 연대규모로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사단은 보포공(步砲空) 협동작전을 벌여 이 적을 백적산-거문리(巨文里)-형제봉 선으로 격퇴하였다. 사단이 11일 속사리와 하진부리를 감제할 수 있는 백적산을 확보하자 적의 공격기세는 현저히 둔화되었다. 사단은 이 적을 추격하여 공격개시 1주일 만인 12일에 최종목표인 속사리와 하진부리를 점령함으로써 경강국도를 통제하게 되었다.

한편 사단의 우전방을 방어한 제1해병연대는 3월 7일 봉산리를 방어 중인 제3대대가 좌인접 제7사단의 제5연대가 일시 철수함에 따라

적중예 고립되었다. 그러나 대대는 이런 상황에서도 9일 제3사단의 제18연대가 군단의 우전방으로 투입될 때까지 공중투하 보급을 지원 받아가며 수차에 걸친 인민군의 기습공격을 격퇴하였다. 제18연대가 투입되면서부터 적이 철수하기 시작하자 연대도 반격을 개시하였다. 연대는 13일 09:00에 공격을 개시하여 최종목표인 외차래지(外車來地)까지 진출하였고, 15일 다시 차항리(車項里)로 이동하여 작전지역을 제3사단 제22연대에 인계하였다. 그리고 16일에는 미 제9군단의 미 해병사단으로 배속이 전환되어 흥천으로 이동하였다.<sup>103)</sup>

### (3) 人民軍 浸透部隊 擊滅作戰

국군 제1군단은 전선 절단작전(리퍼작전)이 개시되기 직전 미 제10군단에서 작전통제가 해제되어 3월 5일 강릉으로 복귀하여 제3군단으로부터 수도사단을 배속전환받아 대관령-강릉(연곡천)을 방어하게 되었다. 이때 제9사단과 제1, 제10경비대대도 함께 군단에 편입되었다. 군단이 제3군단으로부터 작전지역을 인수할 무렵, 서부전선에서는 서울을 탈환하고 중부전선에서도 아군이 38도선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그러나 군단은 황병산-하평동으로 진출하여 이미 전선 절단작전의 최종목표인 아이다호선으로 진출해 있었다.

이 무렵 인민군 제10사단이 다시 패잔병과 지방 게릴라들을 규합하여 2,000여 명으로 재편성한 후 안동 동북방 일월산으로 북상하였다. 이 사단은 신정공세 때 제천 남쪽으로 침투하였다가 안동-영덕선에서 퇴로가 차단되어 미 제1해병사단과 국군 제1해병연대의 집중 공격을 받아 결정적인 피해를 입었고, 국군 제2사단의 소탕작전에 붕괴되었던 부대였다.

이에 제1군단장 김백일(金白一) 소장은 수도사단으로 하여금 전방 방어진지를 강화하면서 좌전방 연대는 좌인접 국군 제3군단의 공격을 지원하도록 하고, 제9사단(배속:수도사단 제26연대 1개 대대)은 연

대 단위로 군단 후방지역으로 북상 중인 인민군 패잔병을 소탕하도록 하였다.

제9사단장 이성가(李成佳) 준장은 북상한 적 제10사단의 2,000~3,000명이 두타산(1361고지) 북쪽의 삼화리(三和里)를 경유 북쪽으로 진출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자 12일 제29, 제30연대로 석이암산(972고지)－자병산(872고지)에 차단진지를 편성하였다. 그러나 적은 사단의 기도를 간파하고 일부 병력으로 차단진지 돌파를 시도하면서 주력은 청옥산 부근의 고적대(高蹟臺)로 이동하였다. 이후 적은 산악 기동에 익숙한 이점을 이용하여 사단의 포위망을 돌파하고 계속 북상하여 산계리(山溪里) 부근에 집결하였다.

사단장은 작전지역이 광범위하고, 또 지형이 험준하여 적을 포착하는데 실패하자 16일 송계리에 예비로 대기 중인 제28연대도 투입하였다.<sup>104)</sup> 이때 사단의 추격으로 사기가 저하된 적 600여 명이 17일 석병산 서쪽의 기수문동(寄壽門洞)에 집결하였다. 이들을 격멸하기 위하여 제29연대가 북쪽을 차단하고 제28연대가 남쪽과 동남쪽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포위망이 압축되자 적은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이때 야음으로 사단이 일시 공격을 중지한 틈을 타 적은 18일 새벽에 포위망을 빠져나와 북쪽의 목계리(木界里)로 도주하였다.

사단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적 제10사단이 태백산맥을 타고 계속 북상하자, 제8군사령관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인민군 제10사단을 신속히 격멸하도록 육군 총참모장에게 독촉하였다.<sup>105)</sup>

이때 적은 유엔 공군의 공중공격과 사단의 지상공격에 전력이 크게 약화되었으나 태백산맥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 소규모 부대로 분산하여 제각기 산악을 통해 북서방으로 탈출을 기도하였다. 제1군단 지역을 탈출한 적이 3월 17일경에는 좌인점 국군 제3군단 지역의 화난봉(1069고지)－석두산(1001고지) 부근으로 이동함으로써 이때부터 제3군단이 패잔병 소탕작전을 펼치게 되었다.

제3군단장은 우전방 제3사단에 황병산－노인봉－오대산 일대의 주

저항선을 방어하면서 북상하는 적 패잔병들을 격멸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사단의 좌전방 제18연대는 제2대대를 오대산 남쪽 1301고지에, 제3대대는 남쪽에서 북상 중인 적 제10사단을 차단 및 격멸할 수 있도록 경강국도 남쪽의 병두산(988고지)에, 그리고 제1대대는 연대에비로 간평리(間坪里)에 두었다. 중앙의 제22연대는 제1대대를 동대산(1433고지) 우측 능선에 제2대대를 백일동(白日洞)에, 그리고 제3대대를 발왕산에 침투한 적의 북상을 저지할 수 있도록 발왕치 부근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우전방 제23연대는 제2대대를 황병산 남쪽 진지에 배치하고 제1, 제3대대는 사단 후방지역의 엄호 임무를 주어 제3대대를 여량리(餘糧里), 제1대대를 유전동(柳田洞)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제7사단 예하 제5연대가 사단에 배속되어 광천리(廣川里) 일대로 집결 중에 있었다.

사단이 부대 재배치에 주력하고 있을 때 사단장 최석(崔錫) 준장이 육군 전방지휘소 소장으로 전임되고 후임으로 김종오(金鐘五) 준장이 부임하였다. 인민군 제10사단은 18일 새벽에 북상 중 광천리에 집결 중인 제5연대의 제2대대를 기습공격하여 보급품을 약탈한 후 장군암(將軍巖)으로 진출하였으나 제22연대의 제2대대에 의해 격퇴되었다.<sup>106)</sup> 사단 후방지역에서 적의 침투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을 무렵 군단의 전투지경선이 아이다호선 북쪽으로 연장되면서 현 방어선 북쪽 지역에 대한 정찰활동도 강화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이때 적은 제10사단 본부와 제27연대로 구성된 제1제대가 봉산리-발왕산-용산-백일평-노인봉 축선을 따라 제22연대 작전지역으로 북상하고 있었다. 이에 사단은 제1 차단선인 봉산리 일대에 제5연대 제1대대를, 제2 차단선인 용산 지역에는 제22연대 제3대대를 배치하여 이중으로 차단진지를 편성하고 적에게 압박을 가하였다. 적 제10사단은 퇴로가 차단되었음을 인식하고 제23연대가 배치된 차항리-노인봉 축선으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연대의 제1대대가 이 적을 추격하는 동안 제2대대는 후퇴하는 적의 배후 정면에서 공격하였다.

연대의 포위망이 압축되자 적의 일부는 노인봉으로 도주하였으나 아군의 항공폭격에 큰 피해를 입었다.

상황이 호전되자 20일 배속되었던 제7사단 제5연대가 원대복귀하였고, 제3사단은 지역내 잔류 중인 잔적을 소탕하면서 주저항선 진지를 강화하였다. 그런데 21일 인민군 제25연대와 사단 직할부대 및 포병부대로 구성된 제2제대가 북상하기 시작하여 제23연대는 이들과 또 한차례 격전을 펼치게 되었다. 적은 동대산 동쪽의 식당동(食堂洞)－황병산을 차단 중인 제3대대와 격전을 펼친 후 차단선을 돌파하고 계속 북상 도주하여 노인봉 일대를 방어 중인 제1대대의 후방까지 진출하였다. 다시 제1대대의 공격을 받은 패잔병들은 분산하여 계곡 통로를 따라 구질리(狗叱里) 방면으로 북상 도주하였다. 이날로써 사단의 추격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적 주력은 국군 제3사단 지역을 통과하여 인제 지구로 퇴각하였다.

이후에도 적 제10사단은 국군 제1, 제3군단 지역을 돌파하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수차례의 접전을 치렀고, 이때도 다수의 피해를 입어 3월 23일경 그들의 전선으로 복귀한 병력은 1,000여 명에 불과하였다.<sup>107)</sup>

## 5. 臨津江 進出 作戰

### (1) 汶山 空輸投下 作戰

미 제8군사령관은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을 재탈환하고 춘천을 점령하자 또 다른 공격 지역을 물색하던 중 인민군 제1군단과 중공 제26군이 의정부를 연하는 선과 그 북쪽지역에 전개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들 중 의정부 서쪽지역에서 임진강을 등지고 있는 인민군 제1군단의 3개 사단이 공격하기에 용이하였다. 이들은 반드시 임진강



다리를 건너야 북으로 철수가 가능하므로 임진강 다리만 차단하고 남쪽에서 공격해 올라가면 적을 섬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제8군사령관은 전선 절단작전(Operation Ripper)을 확대하여 제187공수연대를 이들의 후방지역에 공중 투하하고 미 제1군단으로 적을 압박 격멸한다는 개념의 용진작전(勇進作戰: Operation Courageous)을 구상하였다.<sup>108)</sup>

이번 작전은 “제1단계에서는 중부전선의 카이로(Cairo)선을 미 제1군단 전방의 행주-의정부 부근까지 연장한 후 미 제1군단이 이 선으로 진출하여 공격을 준비하고, 제187공수연대가 문산 일대에 공중 투하하여 1번 도로를 봉쇄하면 군단이 즉시 공격을 개시하여 24시간 이내 양 부대가 연결 후 임진강하구-문산 북쪽-의정부 북쪽을 연결하는 아스펜(Aspen)선으로 진출한다. 그후 제2단계 작전으로써 임진강에 연하여 설정된 벤튼(Benton)선을 점령할” 계획이었다.<sup>109)</sup>

이 계획에 의거 미 제1군단의 3개 사단은 3월 22일 08:00 10~16 km 전방의 카이로선으로 전진하기 시작하였다. 좌전방 공격제대로 1번 도로를 따라 진출한 국군 제1사단은 적의 저항이 경미하여 정오경 통제선에 도착하였고 중앙에서 3번 도로로 진출한 미 제3사단과 우전방 미 제25사단도 적의 산발적인 공격을 격퇴하고 카이로선에 도착하였다. 이 무렵 군단장은 강력한 기갑부대로써 공중투하 부대와 신속히 1번 도로상에서 연결하기 위하여 지원받은 미 제9군단 제24사단 제6전차대대를 중심으로 미 제3사단 제7연대 제2대대, 제58기갑야전포병대대 1개포대, 제999기갑야전포병대대 1개대대, 제14전투공병대대 제A중대로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고 제6전차대대장 그로우던(John S. Growdon) 중령이 지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8군사령관은 제5공군사령관의 23일 기상상태가 공수낙하에 양호할 것이라는 보고와 미 제1군단도 공수부대와 24시간 이내에 연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목표지역으로 진출이 가능하다는 작전참모 머제트(Gilman C. Mudgett) 대령의 건의에 따라 23일

09:00에 공정작전(Operation Tomahawk)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sup>110)</sup>

제187공수연대 전투단장 보웬(Frank. S. Bowen) 준장은 이번 작전의 낙하지점으로 선정한 문산 북동쪽에 연대주력을, 그리고 남쪽에 제1대대를 투하하기로 계획하고 23일 07:00에 대구비행장을 이륙하였다. 계획대로 투하지역을 엄호할 제4유격중대가 투하되었다. 그런데 목표지역 상공에서 제1대대 요원들이 탑승한 선두 비행기의 엔진 고장으로 대구로 복귀하면서 투하계획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sup>111)</sup> 제1대대 지휘부가 탑승한 항공기의 회항으로 잔여 수송기들이 제1대대 병력을 연대 주력이 투하될 지역에 먼저 투하하였다. 아군이 낙하하는 동안 적의 반격은 낙하지점 북쪽 고지에 배치된 소규모의 인민군이 간헐적인 박격포 사격을 하였으나 공수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연대주력이 투하될 문산 북동쪽에 제1대대가 투입됨으로써 병력이 밀집되어 일시 혼란이 있었지만 연대는 신속히 부대를 재배치하고 경계를 강화하였다.

이 무렵 대구로 회항한 제1대대 지휘부가 문산 지역으로 복귀하여 정확한 낙하지점에 투하되었으나 이번에는 적중에 고립되었다. 문산 남쪽에 투하된 대대지휘소가 적의 공격을 받게 되자 먼저 투하된 제1대대 B중대가 공격을 개시하여 15:00경 봉서산(鳳棲山)에 배치된 적을 격퇴하고 대대 지휘부와 연결한 후 북쪽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제187공수전투단은 부여된 모든 목표를 확보하였다. 연대전투단은 이 작전에서 낙하 중 84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19명만 제외하고 치료 후 전투에 참가하였다. 반면 136명을 사살하고, 149명을 생포하였다.

포로심문에 의하면 목표지역에 배치된 적은 인민군 제19사단 제36연대로서 300~500명이 이 지역을 방어하였으며, 인민군 제1군단의 잔여 병력은 아군의 공수투하가 개시되기 훨씬 이전에 임진강 이북으로 철수하였다는 것이다. 연대는 차후작전을 위하여 임진강 주변의 도선장과 문산-법원리 간의 도로를 정찰하였다.<sup>112)</sup>

한편 문산 지역에 대한 공수작전이 개시되자 미 제1군단장은 그로



서울 북측의 중공군을 섬멸하기 위해 임진강 남안(南岸)의 문산에 미 제187공성연대가 낙하하고 있다.(1951. 3. 23)

우던 특수임무부대(Task Force Growdon)에 23일 오전에 카이로선에 배치된 국군 제1사단을 초월 1번 도로 축선으로 신속히 진출하여 공수부대와 연결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군단의 주력인 국군 제1사단이 문산을, 미 제3사단이 동두천을 그리고 미 제25사단이 포천을 목표로 각각 공격을 개시하였다.

특수임무부대가 진출하는 동안 적의 저항이 없어 공격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하였으나 창릉천의 파괴된 다리를 우회할 무렵 적이 매설한 지뢰에 전차 1대가 파손되었다. 이때부터 특수임무가 지뢰에 의한 피해를 우려하여 지나치게 기동에 신중을 기하는 바람에 문산 남쪽 신원리 부근으로 겨우 진출하고 있었다.

그로우던 특수임무부대는 1번 도로를 따라 진출 중 적과 조우하지 않았으나 150여개의 지뢰를 제거하거나 폭파해야 하므로 전진이 수시로 지연되어 선두부대는 23일 18:30 문산에 도착, 공수부대와 연결하였다.<sup>113)</sup>

결국 문산 공수작전은 시기가 늦었으며 연결작전도 지연되어 작전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 (2) 汶山—東豆川—抱川 進出戰

군단의 좌전방 국군 제1사단은 문산에 낙하한 미 제187공수연대 진지를 인수받기 위하여 그로우던 특수임무부대를 후속하여 미 제64전차대대 C중대, 국군 제1사단 대전차공격대대, 공병 2개 소대로 편성된 특수임무를 선두로 1번 도로를 따라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때 사단은 구과발 부근에서 경미하게 저항하는 적을 격퇴하고 동거리(東巨里)—금촌으로 진출하였다. 이후 의외로 적과 접촉이 없어 24일 저녁 무렵 문산—범원리까지 진출한 국군 제1사단은 문산 부근의 제187공수연대전투단의 작전지역을 17:00에 인수하고 차후작전을 준비하였다.<sup>114)</sup>

국군 제1사단이 경미한 저항을 받으며 진출하는 동안 중앙의 미 제3사단은 제15연대와 미 제64전차대대, 제65연대의 전차소대로 편성된 호킨스 특수임무(Task Force Hawkins)를 선두로 의정부로 진출하였으나 24일 예상치 못한 중공 제26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격전을 펼치게 되었다. 이때 적은 의정부 북서쪽의 468고지와 북동쪽 천보산에 견고한 방어진지를 점령하여 의정부—동두천, 의정부—포천 도로를 따라 진출하는 사단의 진출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사단은 24일 아침 공격을 재개할 무렵 적의 맹렬한 포격을 받았다. 이날 공격에서 사단은 천보산을 점령하였으나 468고지는 중공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점령하지 못하였다.

군단장은 제3사단 정면의 적의 저항이 완강하자 이들을 포위격멸하기 위하여 문산 북방에 집결된 제187연대로 하여금 덕정리 북쪽의 228고지를 점령 적의 퇴로를 차단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날 저녁 제187연대의 기갑부대 일부는 그간의 작전으로 연료 재보급이 절실하였고, 기동 중인 전차들도 법원리에서 신촌(新村) 간의 기동로가 산악으로 노퍽이 협소하여 보수(補修)가 요구되어 지체되었다. 또 이날 따라 폭우가 쏟아져 전차부대는 문산으로 복귀하였다. 제187연대전투단은 25일 아침에 신촌 부근으로 진출 228고지를 공격하였으나 적이 소화기, 자동화기, 박격포 사격 등을 집중하며 완강하게 저항하여 목표탈취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제187연대전투단의 공격이 개시되면서 제3사단 정면에서 적의 저항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적이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228고지에 배치된 적은 철수하는 부대를 엄호하기 위하여 더욱 완강하게 저항하였지만, 제187연대전투단은 27일 오전에 이 고지를 점령하고, 오후에 미 제3사단과 연결하였다.

한편 미 제25사단은 좌전방 제24연대가 소리봉-해룡산을, 중앙의 제27연대는 죽엽산-왕방산을, 배속된 터키 여단은 주금산-국사봉을 목표로 경춘국도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공격 초기에는 적의 저항이 경미하였으나 기동로상에 도로 장애물과 지뢰를 매설해 놓아 사단의 진출은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공격제대들이 포천 공격의 발판이 되는 소리봉-죽엽산-주금산 일대로 진출하자, 1개 연대규모의 적도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완강하게 저항하여 치열한 공방전은 물론 대포병 사격전까지 펼쳐게 되었다. 사단은 전화력을 집중하여 고지들을 점령하였지만 적도 이 고지들의 전술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야음을 이용 역습을 개시하여 또 한 차례 치열한 공방전을 펼쳐게 되었으나 결국 이 적을 격퇴하였다. 26일을 전후하여 적의 저항이 점차 줄어들어 사단은 28일 포천을 점령하고 차기작전을 준비하였다.

중공 제26군은 의정부-죽엽산을 탈환하기 위한 최후의 반격까지 실시하였으나 큰 피해를 입고 포천 북쪽의 종현산 부근으로 철수 재

편성하였으며, 낙오된 일부 병력들은 국사봉(國祀峰:764고지)과 소요산 일대에서 방황하고 있었다.<sup>115)</sup>

## 6. 襄陽 進擊 作戰

미 제8군은 적 전선 절단작전(리퍼작전)을 벌여 중부전선의 미 제9군단과 제10군단이 최종목표인 아이다호선을 확보함으로써 국군과 유엔군의 전선이 춘천을 중심으로 반원형을 이루게 되었다. 군사령관은 전선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은 한강 남쪽에서 임진강변으로, 동부전선의 국군 제1, 제3군단은 경강국도에서 현리-양양을 연하는 카이로선으로 진출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무렵 험준한 태백산맥을 따라 부상한 인민군 패잔병들이 양 군단의 후방지역으로 접근하여 먼저 이 적을 소탕하게 되었다. 육군본부는 3월 18일을 전후하여 소탕작전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자 이날 정오경 양 군단에 카이로선 이남 지역에 대한 강력한 정찰을 실시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제1군단장은 양양을 공격하기 위하여 수도사단에 3월 18일부터 연곡천(連谷川) 북쪽지역에 대한 강력한 수색정찰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때 군단정면의 인민군 제69여단도 북으로 철수한 제10사단의 일부를 증원받아 양양을 방어하기 위하여 산악으로 연결된 하월천리(下月川里)-만월산-명지리(明池里) 축선에 축차적인 거점을 확보하고 사단의 진격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위력수색에 나선 제1연대는 동해안에 배치된 미 함정의 화력 엄호하에 적의 축차진지를 격파하고 양양 남쪽의 어성전리(魚城田里)-명지리 선으로 진출하였다.

적은 연대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극력 저항하였으나 미 함정의 집중적인 함포사격에 의한 병력손실로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연대

의 진출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상황이 급진전되자 수도사단장은 제26연대가 방어 중인 경강국도 변의 유천리-차항리 진지를 제9사단에 인계하고, 연대를 주문진을 경유 양양 남쪽의 인구리(仁邱里)로, 사단예비인 제1기갑연대도 강릉에서 주문진으로 이동시켰다.

제1군단과 좌인접의 제3군단이 위력수색작전에 주력하고 있을 무렵인 3월 25일 08:00에 제8군사령관으로부터 ‘동부전선의 국군으로 하여금 신속히 카이로선으로 진출하게 하자’는 요청을 받은 육군본부의 작전지시 제10호로 “제1군단 및 제3군단은 3월25~26일 양일간에 공격을 실시하여 책임지역내 카이로선을 점령확보하라”고 명령하였다.<sup>116)</sup> 이에 제1군단장은 수도사단으로 하여금 카이로선의 양양을 점령하고, 제9사단은 수도사단의 좌측방을 엄호하면서 측차적으로 진출하도록 조치하였다.

수도사단장 송요찬(宋堯讚) 준장은 3월 26일 좌전방에 제1연대, 우전방에 제26연대로 공격제대를 편성하고 공격을 개시하였다. 적은 양양을 고수하기 위하여 남대천 남쪽의 우암리(牛岩里)-노고봉(老姑峯)선에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여 배수의 진을 치고 사단의 공격을 저지하고자 하였으나 사단은 전화력을 집중한 후 돌격으로 적의 최후 방어선을 돌파하였다.

적은 방어선이 돌파되자 남대천을 도하 양양 북쪽의 고지군과 한계리-인제로 통하는 설악산 입구로 철수하였고, 사단은 27일 남대천을 도하 양양으로 진출하여 양양-인제, 양양-서림리 간의 차단진지를 점령하였다. 당시 양양-속초 간의 적은 동해안에서 지원되는 함포사격에 방어진지 편성은 물론 철수도 불가능하게 되자 인제-설악산 간의 내륙지역으로 통하는 도로변에 거점을 확보하고 저항하였다.

이 무렵 군단장 김백일 소장은 수도사단의 좌인접에서 사단의 공격을 엄호 중인 제9사단의 전선을 시찰하고 L-5기로 14:40 하진부리를 출발 강릉의 군단지휘소로 복귀하던 중이었는데 수시간이 지난 후에

도 강릉에 도착하지 않았다. 이에 군단사령부에서는 난기류로 인한 조난을 우려하고 제9사단에 대관령 일대와 경강국도변을 수색하도록 하였으나 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sup>117)</sup> 이에 부군단장 이준식(李俊植) 준장이 임시로 군단을 지휘하게 되었다.

양양에서 철수한 적은 설악산 입구의 387고지에 강력한 거점을 구축하였다. 이 고지는 적 제2군단의 철수로인 양양-한계령-원통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중요 지형이므로 일전을 준비하는 듯하였다. 사단이 387고지에 집중사격을 실시한 후 제1연대가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적의 저항이 완강하여 공격에 실패하였다. 사단이 포격으로 적을 제압하는 동안 제1연대는 전열을 재정비하여 30일 공격을 재개하였다. 사단의 화력이 387고지 후방으로 연신되자 적은 1개 중대규모의 잔류부대만 두고 주력은 오색리(五色里)를 경유하여 설악산으로 퇴각하였다.

한편 제1군단이 동해안 축선을 따라 공격작전을 벌이는 동안 좌인 접의 제3군단도 3월 25일 후방지역의 패잔병 소탕작전을 제7사단에 전담시키고 제3사단으로 하여금 경강국도에서 카이로선인 현리-하서림 도로를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도록 하였다.

제3사단은 제18연대를 주공, 제23연대를 조공, 제22연대를 예비로 하여 26일 08:00에 공격을 시작하였다. 제18연대는 오대산에서 설악산으로 연결되는 산악 능선을 따라 공격하여 경미하게 저항하는 적을 격퇴하고 27일 카이로선상의 하서림(下西林)을 확보하였고, 제23연대도 27일 월정동을 경유 30일 조개동(早開洞)으로 진출하였다.

이로써 국군 제1, 제3군단은 카이로선상의 현리-서림과 동해안의 전술적 요충인 양양을 확보하였다.



## 제 5 절 38도선 確保 作戰

전선 절단작전(Operation Ripper)으로 중부의 제9군단이 춘천을 확보하고 서부의 제1군단이 문산을 점령하는가 하면 동부의 국군 제1군단이 양양까지 진출하자, 제8군사령관은 서부의 진출 통제선인 벤튼선과 중부의 카이로선을 연결하고 전선 절단작전의 최종 목표를 휘하의 전군이 이 선까지 진출하는데 두기로 결정하였다.

이 선은 서부의 문산에서 임진강 상류지역을 거쳐 동두천-춘천-현리를 거쳐 양양 북쪽의 조산리에 이르는 선으로서, 서부에는 38도선에 연하고 중부는 이에 조금 못 미치지만 동부는 이 선보다 북쪽으로 그어져 사실상 38도선을 통제할 수 있는 전술적 지형을 연하는 선이었다.

이 무렵 적도 이미 38도선 북쪽으로 후퇴하여 부대를 정비 중이었으므로 아군은 별 저항을 받지 않고 3월 말까지 이 선에 도착하였다. 즉 아군은 전선 절단작전(3월 7~31일)을 통하여 서울을 재수복하고 38도선에 도달하였다. 이 작전간 아군은 최초 예상한 것처럼 적의 병력과 물자에 큰 피해를 가하지는 못했지만 적의 사상자는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약 4,800명을 포로로 하였다.<sup>118)</sup>

이와 같이 재반격작전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국군과 유엔군이 38도선으로 진출할 무렵 유엔군측에서는 이후 작전과 관련하여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이에 따라 38도선을 확보하기 위한 작전을 전개하였다.

### 1. 유엔군의 軍事戰略

유엔군측은 1951년 1월 하순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을 재개하여 작

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공격작전을 펼치자 지난 12월에 심각하였던 철군문제 논의는 일단락되고, 지난해 10월 38도선을 돌파하기 직전처럼 다시 38도선에 관한 전쟁 지도전략 문제를 다각도로 연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 미 행정부와 합참은 3월 15일에 “한국문제를 정치와 군사 두 가지 노선에 따라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해결하되, 정치적으로는 통일 독립국가를 이룩하고 군사적으로는 침략을 격퇴하고 평화를 회복해야 한다”고 합의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치를 남겨두고 있었다. 여기에는 군사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sup>119)</sup>

유엔군은 적에 대하여 계속 최대의 손실을 가해야 하고 38도선 남쪽 영토의 통제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방위력도 증강되어야 한다. 지상군의 작전은 전술상황에 따라 38도선 북쪽 16~32km 내에서는 ‘공세적 방어작전’을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아군이 군사작전으로 38도선에 도착하면 미국은 1950년 12월에 유엔 휴전위원회에 통보한 그 선에 따라 휴전을 추구해야 한다. 만일 적이 잠정 협정의 수락을 거부한다면 유엔군은 적에게 계속 손실을 가해야 한다. 유엔군은 적의 균형을 파괴하고 적의 공격 준비를 분쇄시키기 위하여 38도선 북으로 제한된 기습을 가할 수는 있으나 전면적인 진격을 하여 북한 영토의 확보를 시도해서는 안된다.

결국 군사적으로 전쟁전의 현상을 확보한 후 휴전에 의거 전쟁을 해결하며 통일 국가수립은 그후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었다. 한국 국민으로서는 분단의 아픔을 다시 안아야 하는 슬픈 정책이나, 중공군이 38도선 북쪽에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이러한 전략개념을 구상하고 있을 무렵 지상군이 38도선에 접근해감에 따라 미 행정부로서는 평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에 호기를 맞게 되었다. 전쟁전의 현상도 거의 회복하였고 유엔군도 공산군과 어느 정도 동등한 힘의 토대에서 협상할 수 있는 입장에 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엔 회원국들도 군사력으로 38도선을 넘기 전에 평화적인 호소를 제기할 것을 강력히 지지하였기 때문이다.

미 합참본부는 3월 20일 극동군사령관에게 대통령이 휴전을 기꺼이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유엔군을 파견한 국가의 동의를 얻어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유엔군이 38도선 이북으로 진격하면 안된다는 유엔의 일반적인 견해를 전달하면서 차후 적과 협상이 개시될 때 유엔군의 안전과 협상을 지속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조언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전쟁의 해결에 대해 외교적 수단보다 군사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맥아더 원수는 3월 24일 미 행정부에 아무런 통고도 없이 중공군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없다고 지적하는 등 중공군의 군사력을 경시하고 또한 교전이 지속될 경우 중공을 공격할 수 있다는 등 위협성을 내포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다른 정부가 트루먼의 계획된 성명에 진실성을 의문시하는 국제적 혼란을 초래할까 두려워 미 행정부는 공개적인 선언을 유보하게 되었다.<sup>120)</sup>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 원수의 태도가 단순한 정책에 대한 불만의 수준을 넘어 미국과 유엔정책에 대한 고의적이고 사전에 계획된 도전이라고 생각하였다. 결국 맥아더 원수의 성명서는 트루먼 대통령의 휴전계획 발표를 취소시키는 파문을 초래하였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3월 24일) 이승만 대통령도 유엔군이 38도선에서 정지해서는 안되며 북진하여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것이 유엔의 목표였으며, 한국은 지리적 경제적 여건상 38도선에 의한 인위적 분단으로는 정치, 경제적으로 존속과 번영이 불가하며 또한 지금까지의 승리는 무의미하게 되고 다시 남북간에 큰 싸움을 하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이때 미 제8군은 개성 지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진강을 도하하여 철수 중인 인민군 제1군단을 공격하며 예성강으로 진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적이 이미 예성강 북쪽으로 철수하였고 공격제대가 동측 방에 배치된 중공군으로부터 포위될 우려가 있어 이 지역 작전은 수

색과 전투정찰대의 활동으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군사령관은 그 대안으로 중부전선의 평강-철원-김화를 공격하기로 하였다. 이때 기자들이 좀 더 극적인 표현을 하고자 철의 삼각지대로 이름붙인 이 지역은 원산과 서울의 중간지점에 위치한데다 철도와 도로망이 발달된 교통의 요지였다.<sup>121)</sup>

당시 이곳은 적의 전방지역 병참 중심지로, 적은 이 지역으로 병력과 물자를 집중적으로 수송하고 있었다. 이 지역을 공격함에 있어 미 제8군사령관의 우선적 관심사항은 철의 삼각지로 아군의 지속적인 진출을 보장할 수 있고, 또 적의 공세준비가 명백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양호한 방어진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지형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이때 선정한 방어선이 임진강 남쪽 제방을 연하여 동쪽으로 뻗어 화천저수지로 연결된 후 동해안의 양양으로 이어지는 선으로서, 이를 캔사스(Kansas)선으로 명명하였다. 이 선은 서부에서는 38도선 북쪽으로 3.2~9.6km, 동부에서는 대체로 16km 정도 북쪽에 있는 험산이나 고지군을 연결하여 선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선은 38도선을 전술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지형으로서 3월 15일의 신전략방침에 부합되는 결정이었다. 지난 전선 절단작전(Operation Ripper)시 38도선으로 진출한 부대가 이 선으로 진격하는 작전을 러기드작전(Operation Rugged)이라 이름붙였다.

그후 군은 다음 단계로 미 제1, 제9군단이 철의 삼각지대를 위협할 수 있도록 우타(Utah)선과 와이오밍(Wyoming)선<sup>122)</sup>을 설정하고 철원-김화까지 공격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만일 공격 중에 적의 강력한 공격을 받으면 양개 군단을 캔사스선으로 철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작전을 ‘불굴작전(不屈作戰 : Operation Dauntless)’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때 맥아더 장군은 리지웨이 장군에게 아군이 선으로 진출하면 그 북쪽의 작전은 대대급 규모이하의 전투정찰로 제한하도록 지시하였다.

## 2. 共産軍의 戰力 增強

공산군은 1951년 초에 유엔군의 재반격으로 38도선으로 후퇴하고 있었지만 만주에서 재편성한 인민군이 전방으로 진출하는가 하면 중공군이 추가로 압록강을 도하함에 따라 그들의 전력이 점차 증강되고 있었다.

인민군 제6군단(제18, 제19, 제36사단)이 1951년 1월에 압록강을 건너 청성진(淸城鎭)으로 입북한 다음 2월 중순경 남천점과 연안 지역으로 이동하여 해주 지역의 방어임무를 인계받았다. 제6군단에 뒤이어 제7군단(제13, 제32, 제37사단)은 압록강을 건너 사단별로 남하하여 2월 말경 원산 지역에 도착하였고 해안지역을 방어중인 제3, 제24사단을 인수하였다. 같은 시기에 제8군단(제42, 제45, 제46사단)도 만포진으로 들어와 군단주력은 흥남 지역으로 이동하여 주변지역에 배치되었던 제41사단과 제63여단을 흡수하였다. 그리고 제45사단은 인제로 남하하여 제3군단에 합류하였다. 이와 같이 인민군의 부대 재배치로 원산-흥남 간의 예비 병력은 2개 군단 8개 사단 1개 여단이었으나 미 제8군은 이 지역에 주둔 중인 적병력을 2개 사단, 1개 연대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sup>123)</sup>

서부전선에서는 만주에서 복귀한 제6군단과 지난 연말 동북부에서 평양 지역으로 이동하여 진남포-신안주의 서해안 방어임무를 수행 중인 제4군단(제4, 제5사단, 제104기갑사단, 제26여단)도 주둔하고 있었는데, 미 제8군은 3월 중순까지도 이들의 위치와 병력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3월 초순까지 인민군의 총 병력은 만주에서 복귀한 병력과 전선에 배치된 병력을 합치면 총 8개 군단 27개 사단 4개 여단 규모이었다. 그러나 이들 병력은 그 수 만큼이나 강력한 전투력은 보유하지 못하고 대부분 사단의 전력이 수준 이하였으며 더욱이 최근에 재편성된

다수의 부대들은 실전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 또 제41, 제42사단은 약화된 사단들의 전력(戰力)을 보충하기 위하여 3월 말 이전에 해체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민군은 1950년 가을부터 전력이 꾸준히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인민군 지휘부에도 다소 변화가 있었다. 인민군 총참모장에는 전사한 강건(姜健) 중장의 뒤를 이어 제2차 세계대전시 소련 육군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남일(南日) 중장이 부임하였고, 인민군의 작전을 지도하던 전선사령부도 김책(金策)의 전사로 중공의 팔로군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으며 인민군 제1군단을 이끌고 공격을 주도한 김웅(金雄) 중장이 임명되었다.<sup>124)</sup>

중공군도 1951년 1~2월에 새로운 부대가 대거 만주로부터 입한(入韓)하기 시작하였다. 2월 하순에는 중공 제19병단(제63, 제64, 제65군)이 신의주로 들어와 3월 초순에는 예성강과 임진강 사이의 곡산-신계-이천(伊川) 지역으로 집결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9, 제11포병연대도 같이 입한하였다. 이 무렵 원산지구에서 재편성 중인 제9병단도 어느 정도 전력이 재정비된 제26군을 3월 초에 38도선 부근의 중부 전선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하였다. 당시 제8군은 제26군의 이동은 조기에 포착하였으나 중공 제19병단에 대해서는 3월 중순까지도 알지 못한 상태였다.

중공 제26군은 3월 10일 미 제24, 제25사단과 대치하고 있던 중공 제38, 제50군과 임무 교대를 하였고 양군은 북쪽으로 이동하였다. 전선 절단작전(리퍼작전)이 개시되기 전 홍천 지역에 집결하고 있던 중공 제39, 제40군은 제42, 제66군과 교대하여 전선의 중앙부로 투입되었고 14일 임무교대가 완료되자 제42, 제66군도 북쪽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부대교대 외에도 중공 제47군이 3월 입한하여 제13병단에 배속되어 비전투부대로 순안, 순천, 남양리의 비행장 건설에 투입되었다. 이 무렵 노새로 장비를 운반하여 노새 사단이라고 호칭된 제5포병사단도 입한하였다.<sup>125)</sup>

중공군의 이동이 3월에 완료되었을 때 총병력은 3개 병단 14개군 42개 사단, 4개 포병사단과 2개 독립포병연대이었다. 이러한 적의 병력 증강은 공세준비의 신호로 보여지나 적이 진지공사에 주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공 제9병단은 제26군을 제외하고는 3월 말까지 이동하기 어렵고 다른 인민군과 중공군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부대정비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공산군은 중공 제19병단이 개성, 연안 지역으로 이동한데 이어 중공 제3병단도 안동, 봉성지구에 집결하여 입한을 준비 중이며, 제9병단 주력도 김화, 평강 지구로 이동하여 4월 중순경 작전지역에 도착될 것으로 예상되어 4월 하순에 반격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중공 지원군사령부는 이미 3월 14일 반격개시선을 장연-신원리-백천리-주천리-삭령-화천-양구-인제-양양 선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 공격개시선을 통제하고 새로 투입되는 부대의 작전준비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전선의 각 방어부대는 의정부-주금산-청우산-홍천강 북쪽-풍암리를 연하는 제2방어선과 38도선 사이에서 4월 초까지, 또 38도선과 공격개시선 사이에서 20~30일 동안 국군과 유엔군을 저지하도록 명령하였다.<sup>126)</sup>

### 3. 캔사스선 進出

국군과 유엔군은 캔사스선 진출을 위한 러기드작전을 개시하기 전에 군단간의 전투지경선을 조정하고 주요 전투부대도 대폭적으로 이동 또는 교체하였다. 서부의 미 제1군단은 국군 제1사단, 미 제3사단(영 제29여단 배속), 미 제24사단 및 미 제25사단을 전선에 배치하고, 중부의 미 제9군단은 국군 제6사단, 제1기병사단 및 영 제27사단 그리고 중동부의 미 제10군단은 미 제2사단, 국군 제5사단, 미 제7사단

을 전선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국군 제3군단은 제2사단, 제3사단을 공격체대로 제7사단을 예비로 확보하였고, 국군 제1군단은 수도사단을 공격체대로 하고 제9사단을 예비로 하였다.

공격준비를 완료한 각 군단은 4월 3일 캔사스선 진출을 위한 요철 작전을 개시하였다.

### (1) 中西部戰線 進出戰

리기드작전에서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은 임진강과 화천저수지 사이를 공격하게 되었다. 제1군단장은 이미 캔사스선으로 진출한 좌전방 국군 제1사단과 중앙 미 제3사단은 임진강을 따라 방어에 전념하도록 하고, 우전방 미 제24사단과 제25사단은 3번 도로(의정부-포천-김화)를 따라서 북쪽으로 공격하도록 계획하였다. 4월 3일 도로 서쪽의 미 제25사단은 영평천과 한탄강 사이의 계곡으로, 미 제24사단은 도로 동쪽에서 관음산, 국망봉으로 진격을 개시하였다. 군단이 공격을 개시하는 동안 적은 산발적인 사격만 가해올 뿐 저항이 경미하여 6일 군단은 울우리-운산리-야미리-장암리를 연하는 캔사스선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9군단장도 좌전방에 영 제27여단, 중앙에 국군 제6사단, 우전방에 미 제1기병사단을 배치 3개 사단 병진공격을 계획하였다. 공격체대는 4월 3일 공격을 개시하여 좌전방 영 제27여단과 중앙의 국군 제6사단은 적의 저항이 경미하여 6일 캔사스선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우전방 제1기병사단은 중공 제39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캔사스선 남쪽 화천저수지 부근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당시 제8군사령관은 아군이 춘천 부근으로 진출하면서 화천댐이 작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화천댐을 이용한 적의 수공 작전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하여 댐의 파괴를 고려하였으나 제8군 공병참모는 댐의 저수량이 절반도 되지 못하며 현재 18개의 수문이 닫



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 재래식 폭격으로는 댐을 폭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도 폭파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화천댐이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군사령관은 이를 이번작전의 목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sup>127)</sup>

그러나 러기드작전이 시작되면서 제9군단 공병부대장은 상반되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화천댐의 수위가 최고일 때 적이 수문을 동시에 개방할 경우 북한강의 수위가 3~4m 상승되어 캔사스선 주변 지역이 범람되고 춘천 지역이 큰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범람은 일시적이지만 아군의 횡적이동은 물론 미 제9군단의 주보급로인 가평-춘천-화천 도로 이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적이 이 댐을 장악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 하였다.

이에 제8군사령관은 화천댐을 ‘러기드작전’의 공격목표에 포함하였고, 동시에 이 작전임무를 미 제9군단에 부여하기 위하여 춘천-화천 도로와 화천댐을 미 제9군단에 포함되도록 양군단의 전투지경선을 약간 동쪽으로 이동시켰다.

미 제9군단장은 마침 특수훈련을 받은 미 제4유격중대가 7일 군단에 배속되자 이들이 은밀히 댐으로 침투하여 수문의 시설과 장비들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미 제1기병사단에 배속시켜 화천댐을 확보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미 제1기병사단은 군단장의 의도와는 달리 유격중대에 의한 기습공격을 준비하지 않고 댐 바로 남쪽의 캔사스선 점령에만 주력하였다.

군단이 우려했던 것과 같이 중공 제39군은 8일 자정경 4개의 수문을 완전 개방하고 6개는 부분적으로 개방하였다. 이때 화천저수지의 수위는 만수위의 절반 정도이었다. 군단은 이런 상황에 대비, 하류지역에서 대피함으로써 별 피해는 없었으나 저수지의 방류가 계속되면서 북한강 수위가 2m 정도 상승하여 춘천 부근의 가교들이 떠내려가고 피해도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9일 아침에 중공 제39군의 일부는

댐에 이르는 능선을 점령하였으나 주력은 범람으로 인한 고립을 피하기 위하여 철수하였다.

그들이 철수하자 미 제7, 제8기병연대는 용이하게 캔사스선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캔사스선 진출이 완료되자 미 제1기병사단은 미 제1해병사단에 작전지역을 인계할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군단장은 기병사단에 부대교대 이전에 기필코 화천댐을 확보할 것을 명령하였다.

미 제7기병연대는 9일부터 11일까지 3차에 걸쳐 1개 대대규모를 투입하여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급조된 공격계획과, 도로망의 결핍으로 인한 화력지원 부족, 그리고 도하장비 부족 등으로 화천댐 탈취에 실패하였다.<sup>128)</sup>

군단장은 12일 곧 있을 예정인 ‘불굴작전(돈틀리스 작전)’으로 이 댐을 탈취하기로 하고 제7기병연대와 미 제1해병사단에 배속되어 이곳으로 투입된 국군 제1해병연대의 교대를 승인하였다.

이로써 미 제9군단은 석룡산-화악산-지암리-신포리-용화산을 연하는 캔사스선을 점령하고 차기작전을 준비하게 되었다.

## (2) 中東部戰線 進出戰

제10군단은 작전지역내 도로망이 제한되고 지형이 험준하여 중서부전선의 부대들 보다 진출이 다소 지연되었다. 4월 7일 부대배치를 조정하여 조공인 좌전방 미 제2사단은 화천저수지 남쪽을, 중앙 미 제7사단은 양구를, 주공인 우전방 국군 제5사단은 인제를 공격하도록 계획하였다.

국군 제5사단은 태기산 전투를 종료하고 부대정비와 위력수색에 주력하던 중 4월 7일 소양강 남쪽의 남전리(藍田里)-원대리(院堡里)로 진출하여 인제 공격을 준비하였다. 당시 사단정면의 적은 인민군 제12사단이었으며 이 사단을 증원하기 위하여 제15사단 및 제45사단의 1개 연대가 소양강변에 배치되어 있었다. 당시 적은 소양강변에

강력한 거점진지를 구축하고 사단의 진출을 저지한 다음, 철수한 그들 주력의 재편성이 완료되면 공세로 전환할 계획이었다.<sup>129)</sup>

사단장 민기식(閔機植) 준장은 사단의 목표인 인제 북쪽의 장평(長坪)－봉화봉(烽火峰)을 연하는 캔사스선을 확보하는데 있어 장애물은 작전지역을 가로지르는 소양강 도하임을 예상하고, 먼저 좌전방 제35연대가 먼저 도하하여 교두보를 확보하면 우전방 제36연대도 후속 도하시켜 인제를 공격할 방침이었다. 선봉에 나선 제35연대는 제26포병대대와 미 제7사단 포병대대의 강력한 공격 준비사격이 끝난 9일 23:00에 청구리(靑邱里)에서 소양강을 도하하였다. 연대는 도하장을 감제하고 있는 관대리 부근 고지에 배치된 2개 중대규모의 적을 격퇴하고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이때 제36연대의 선봉인 제6중대는 은밀히 기동하여 10일 01:00경 가로리(加路里)로 도하하였다. 중대는 소양강변에서 인제로 통하는 도로를 통제하고 있는 490고지를 기습공격하였다. 이때 고지를 선점한 2개 중대규모의 적이 완강하게 저항하여 중대의 공격이 둔좌되었다. 이에 연대는 지원화력을 집중하여 적을 격퇴하였다. 그러나 적도 즉각 역습을 재개하여 피아간에는 승패를 예측할 수 없는 공방전이 오전내 계속되었다. 이에 연대장 황엽(黃燁) 대령은 제2대대 주력을 도하시켜 490고지와 인제를 감제할 수 있는 539고지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오후에 연대주력이 도하하면서부터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하였고, 490고지에서 격전을 벌인 제6중대는 539고지마저 확보하였다. 인제－원통 도로를 따라 공격한 제36연대는 12일 총공세를 개시하여 이중 삼중으로 엄체호를 구축하고 완강하게 저항하는 적을 격퇴하고 인제와 서쪽 고지군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좌전방 제35연대는 양구와 인제로 통하는 도로를 감제할 수 있는 개운리(開運里) 서쪽 542고지－637고지－711고지－742고지의 종격실로 연결된 능선을 따라 공격하였으나 적이 이 일대에 강력한 방어거점을 구축하고 저항함으로써 공격이 부진하였다. 제35연대

는 13일까지 포병화력의 엄호하에 적의 방어거점을 공격을 하였으나 치열한 일진일퇴의 공방전만 펼쳤을 뿐 목표 탈취에는 실패하였다.

우전방 제36연대가 14일 원통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자 이번에는 적이 인제-원통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합강리 서쪽의 548고지와 664고지에 강력한 방어거점을 구축하고 연대의 진출을 저지하였다. 반면 제35연대 정면의 적정은 의외로 경미하여 연대는 3일 동안 혈전을 벌인 끝에 적의 방어거점을 확보하였다.

사단의 강력한 포병사격에도 불구하고 적이 험악한 산악지형을 이용하여 완강하게 저항하여 공격연대들은 15일 하루종일 인제 북쪽의 640고지, 548고지, 664고지에서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펼쳤다. 특히 이날 540고지로 야간공격을 개시한 제36연대 제2대대는 공격 중 인민군 1명을 생포하여 적의 암호호(밤나무-소나무)를 알게 되었다. 이를 사용한 대대는 무혈로 540고지로 접근한 후 기습공격으로 10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sup>130)</sup>

사기가 오른 공격연대들은 16일 여명과 동시에 공격을 재개하였다. 산악능선을 따라 공격한 좌전방 제35연대가 사단지역내에서 최고봉인 940고지를 탈취한데 이어 양구-인제 간 산간도로를 통제할 수 586-567고지로 진출하였고, 우전방 제36연대도 3일 동안 쟁탈전을 벌인 적의 방어거점인 548-664고지를 확보하고 인제 북쪽의 삼거리 부근인 서호리(西湖里)로 진출함으로써 사단은 캔사스선 점령을 목전에 두게 되었다.

우전방 제36연대는 공격개시 7일 만인 17일 원통 북쪽의 481고지와 봉화봉을 확보하여 캔사스선으로 진출하였고, 좌전방 제35연대는 586고지에서 적의 강력한 역습을 받아 진출이 지연되었으나 결국 월하리(月下里) 일대로 진출 캔사스선을 점령하였다.

한편 국군 제5사단이 인제 부근에서 적과 치열한 격전을 펼치는 동안 미 제2사단은 화천저수지로, 미 제7사단은 양구를 점령하기 위하여 인민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며 북쪽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부대가 임진강-전곡-화천저수지-양구-양양을 연하는 이른바 캔사스선을 확보하였다. 유엔군은 휴전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이 선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마침내 국군과 유엔군은 단계적인 공세작전으로 한반도에서 유엔군을 축출하려는 중공군의 공세를 격퇴하고, 6개월전 인민군의 공격을 분쇄하고 38도선 북으로 진출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전쟁전 현상을 회복한 것이다.

이 전쟁전 상태의 회귀로 국군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잃었던 영토를 되찾았다는 의미가 중요하지만, 국군과 유엔군이 중공군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되었다. 또한 이를 계기로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국들이 중공군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전쟁의 해결에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던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 4. 鐵의 三角地帶 攻擊

중서부전선의 국군과 유엔군이 캔사스선으로 진출하자 미 제8군사령관은 지상 및 항공정찰과 포로심문 등을 통하여 공산군의 공세징후가 전 전선에 걸쳐 현저하게 증가되고 있음을 간파하였다. 그는 그들의 병력과 장비 및 보급물자가 집중되고 있는 전략적 요충인 철의 삼각지대를 점령하여 중부전선에서 캔사스선의 방어중심을 강화하고, 공산군의 공세준비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였다. 이에 전곡-철원-김화-화천을 연하여 설정한 와이오밍선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공격을 결심하였다. 미 제8군이 이 선상에 진지를 확보하게 되면 철의 삼각지대의 적은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므로 와이오밍선은 전략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 목표선에 이르기 위한 1단계 목표선인 우타(Utah)선은 캔사스선

전방 임진강-금학산-광덕산-백운산으로 연결되며 활처럼 굽어진 선이었다. 이 작전에는 미 제1군단의 미 제3, 제24, 제25사단이 공격하며 제9군단의 좌전방 영 제27여단도 단거리 진격을 실시할 계획이었다.<sup>131)</sup>

이 계획에 의거 공격제대들은 4월 11일 ‘불굴작전(Operation Dauntless)’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날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 원수를 유엔군사령관, 주일연합군사령관, 극동미군사령관, 극동미육군사령관 직위에서 해임하고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 중장을 그 후임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리지웨이 장군의 후임에는 밴플리트 장군을 4월 14일부로 임명하였다.<sup>132)</sup>

맥아더 장군은 북한의 남침 2주째인 1950년 7월 8일에 유엔군사령관에 임명되어 1951년 4월 11일 해임될 때까지 인민군과 중공군의 침략을 차례로 응징, 격퇴하고 전쟁전의 경계선을 회복하는데 공헌한 훌륭한 지휘관이었다. 그는 낙동강 선에서 인민군의 공세를 저지하고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여 그들의 주력을 섬멸하였으며, 그 여세로 적을 한만국경선까지 몰아붙여 한민족으로 하여금 자유민주 통일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때 개입한 중공군의 침략에 대한 상황판단의 착오와 그들의 인해전술로 국군과 유엔군이 37도선까지 후퇴하는 위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다시 이를 격퇴하는데 성공하였다.

맥아더 장군은 이 과정에서 전쟁지도상 미 행정부와 여러 차례 갈등을 빚게 되었고, 결국 이로 인하여 사령관직을 떠나야 하였다.

제1단계 불굴작전(돈틀리스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리지웨이 장군은 14일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군단장 회의를 소집하여 최근 적의 공세 징후와 적의 공격으로 아군이 캔사스선 남쪽으로 철수시 적용할 우발계획을 토의하였다. 이 계획에는 3개의 통제선이 설정되었는데 이 선은 중공군의 신정공세 때 국군과 유엔군이 점령하였던 B선(문산-화천-양양), C선(서울 남쪽-홍천-원포리), 서울 교두보선과 흡사하였다. 첫 번째 선인 델타(Delta)선은 춘천을 중심으로 동서해안

에 이르는 선이며, 두 번째 선은 네바다(Nevada)선으로 서울 남쪽의 한강변을 따라 북동쪽으로 뻗어 양양에 이르는 선이었다. 그리고 서울 방어를 위한 골든(Golden)선은 서울 서북쪽 10km의 행주에서 네바다 선상의 양평을 반원형으로 연결한 선이었다. 그리고 이 회의에 모인 지휘관들은 가까운 장래에는 적이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sup>133)</sup>

이날 신임 미 제8군사령관으로 임명된 밴플리트 장군이 도착하여 정식으로 사령관직을 인수하였다. 신임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은 제2차 세계대전이 절정에 달했던 1944년 6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연대장으로 참전하여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으며, 이후 9개월 동안 사단장을 거쳐 일약 군단장으로 발탁된 유능한 지휘관이었다. 그는 1948년 중장 승진과 더불어 그리스의 미 합동군사고문단장을



맥아더 장군은 1951년 4월 3일 전선시찰 도중 동해안에서 리자웨이 장군과 유엔군의 공격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그는 일주일 후 4월 11일에 유엔군 사령관직에서 해임되었다.

역임하였다. 그는 이때 그리스 정부를 도와 공산주의자들의 지원을 받는 반정부활동을 잠재우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그는 이러한 야전 지휘관으로의 능력과 공산주의자들과의 투쟁경력에 의해 제8군사령관의 적임자로 인정되어 군사령관에 부임하게 되었다.

리지웨이 장군은 밴플리트 장군에게 지휘권을 인계하면서 유탄선이북으로 군대를 진출시킬 경우 사전에 통고하고 또 와이오밍선 이북으로 대부대를 이동시킬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지시하였다.

이때 전선에서 제1단계 불굴작전(돈틀리스 작전)을 개시한 공격체대들은 철의 삼각지 부근으로 접근할수록 적의 저항이 점점 강화되었고, 또한 폭우로 인하여 도로상태마저 불량하여 공격체대의 진출은 매우 느렸다. 이런 상황에서도 20일을 전후하여 미 제3사단은 연천을, 미 제25사단은 금학산을, 미 제24사단은 문혜리를, 그리고 영 제27여단은 사창리로 진출함으로써 유탄선을 점령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이 유탄선과 캔사스선에 위치하거나 그 부근에 도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의 공격이 즉각 개시될 조짐이 없자 밴플리트 장군은 4월 21일 와이오밍선을 목표로 불굴작전 제2단계 작전을 개시하도록 하였다.<sup>134)</sup>

이에 좌전방 미 제1군단의 미 제24사단과 제25사단이 철원-김화를, 우전방 미 제9군단의 국군 제6사단과 미 제1해병사단은 김화-화천을 목표로 각각 공격을 개시하였다. 미 제9군단의 2개 사단은 접적이 없어 캔사스선에서 북쪽으로 3.2~8km를 진출하였다. 그러나 미 제1군단의 우전방에서 광덕산으로 진출한 미 제24사단은 우인접의 국군 제6사단과 연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접적을 회피하였지만, 좌전방 보개산에서 철원을 공격한 미 제25사단(배속:터키 여단)은 적의 포격으로 오전 중에 공격이頓挫되었다.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은 22일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상황은 어제와 같이 미 제9단은 약간 전진하였으나 미 제1군단의 2개 사단은 적의 강력한 저항으로 진전이 불가하였다.





제8군 사령관으로 취임한 밴플리트 중장이 전선부대를 시찰하고 있다.

약간 전진하였으나 미 제1군단의 2개 사단은 적의 강력한 저항으로 진전이 불가하였다.

이때 적의 저항은 한층 강화되고 또 공세징후가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항공정찰에 의하면 북쪽과 북서쪽에서 적의 전반적인 전방지역으로의 이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 지역에서는 아군의 치열한 포격에도 불구하고 적은 전방 지역 중앙으로 집결하였고 또 임진강변에서는 적이 도하준비를 위한 정찰활동이 증가되었다. 그리고 전방지역에서는 생포되는 포로의 수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중공군이 야간에 대규모 공세를 개시할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 제 6 절 戰略島嶼 確保 作戰

1951년 초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작전을 전개하고 있었으나 전선이 38도선 이남에 형성됨으로써 해상에서는 적의 항만을 봉쇄하고 해상로를 차단하여 적의 해군활동을 저지하고 제해권의 계속적인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적의 병력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적 후방지역의 연안 도서를 점령할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그 밖에도 국군과 유엔군이 평양에서 철수한 이후 적 지역에서 유격대 활동이 증가되고 피난민들이 해안에 집결하여 월남을 기다리고 있었다. 해군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해상 수송작전의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38도선 이북 지역에 있는 전략도서를 확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임무를 맡은 국군 해병대는 진해에서 독립 제41, 제42중대를 편성한 후 제41중대는 서해안에, 제42중대는 동해안에 투입하여 도서상륙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 1. 東海島嶼 上陸

신편된 제42중대(중대장:沈熙澤 소위)는 1951년 2월 7일 진해에서 LST 801함에 승선 영흥만(永興灣)으로 출항함으로써 중대는 적의 전략전술적 요충인 원산항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여도(麗島), 신도(薪島), 소도(小島), 대도(大島), 황토도(黃土島) 순으로 상륙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중대는 7일간의 항해 끝에 이날(13일) 여도 북쪽 3마일 해상까지 진출하였다. 이 섬은 영흥만에 있는 섬들 중에서 가장 크고 또한 만

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영흥만에 상륙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점령해야 할 도서였다. 중대는 수색대를 파견하여 여도(麗島)의 적정을 탐색한 결과 도서에는 적이 배치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14일 오전에 본대가 상륙한데 이어, 탄약과 보급품도 양륙되었다.

이후 적은 해병대의 여도 상륙을 간파하고 신도와 갈마반도(葛麻半島)에서 간헐적으로 포병화력으로 여도를 포격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적정수집과 정비를 완료한 중대는 2월 24일부터 신도, 대도, 소도를 순차적으로 공격하게 되었다.

이날 중대는 원산비행장이 위치한 갈마반도에서 3km 떨어진 신도를 적의 저항없이 점령한데 이어 남쪽의 소도마저 점령하였다. 이 섬을 정밀탐색하여 잠복해 있던 적 3명을 사살하고 76mm포 4문과 탄약고에서 화약 500상자, 그리고 약간의 적 문서를 노획하였다.<sup>135)</sup>

중대는 다음날(25일) 대도(大島)로 이동 중에 처음으로 갈마반도로부터 적의 포격을 받았고, 중대도 함포지원을 요청 대포대사격을 실시하여 이 섬마저 점령하였다. 수색 결과 이 도서에는 적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중대는 제2소대를 잔류시키고 주력은 여도로 철수하였다.

중대가 확보한 도서를 방어하고 있을 무렵 황토도(黃土島) 상륙명령이 하달되었다. 4일 중대는 501함편으로 신도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여 이곳에서 미 해군에서 지원된 LCVP 2척에 분승하여 14:30에 황토도 남쪽 해안에 상륙하였다. 이때 적은 중대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하여 포사격을 하였으나 근해에 대기 중인 한미 해군의 함포사격에 적의 사격은 멈추었다.

이로써 영흥만 일대의 도서들을 완전 장악한 중대는 원산항 봉쇄작전과 확보한 도서를 방어하기 위하여 진지를 보강하였다. 이후 중대는 1개월여 동안 점령 도서에 분산 배치되어 적정을 탐지하였다.

## 2. 西海島嶼 上陸

제41중대(중대장: 李東湖 중위)는 1개월 동안 부대정비와 특수교육 훈련을 받고 3월 28일 801함편으로 서해로 출동하였다. 이 무렵 서해안의 도서에는 적의 영향력은 미치지 못하고, 의용청년들로 편성된 유격대와 이를 통제하는 육해군 첩보기관이 활동하고 있었다. 중대는 교동도(喬洞島)-백령도(白翎島)-석도(席島) 순으로 상륙하게 되었다. 중대가 상륙하는 동안 의외로 적의 저항이 없어 주로 행정상륙을 하였다.

중대는 5일간의 항해 끝에 4월 2일 오전에 접적없이 교동도에 상륙하였다. 교동도는 강화도 서측에 인접한 섬으로 아군 유격대가 활동하고 있었다. 중대의 상륙을 확인한 적이 3일 포격을 개시하여 쌍방은 5시간 동안 포격전을 펼쳤다. 중대는 섬의 주요고지에 방어진지를 편성한 후 적극적인 대민 선무활동도 하였다. 당시 이 섬에는 700여명의 피난민이 집결하고 있었는데, 중대는 이들 중 지방청년 100명을 훈련시켜 유격대를 편성하였다. 유격대는 해주 부근으로 침투하여 정보수집과 적 후방 교란작전을 계속하였다.

중대는 20일간의 교동도 방어임무를 마치고 4월 23일 백령도에 상륙하여 이 섬의 군사시설을 방호하기 위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이때 백령도는 서해안 해상작전과 정보활동의 중심지였으며 육군과 해군정보대 미 육군항공대도 주둔하고 있었고 피난민 8,000명도 거주하고 있었다. 피난민 중 청년 300명을 훈련 무장시켜 섬을 자체 방어하도록 하였다.<sup>136)</sup>

중대는 5월 7일 백령도 북쪽의 석도에 상륙함으로써 정보 수집활동의 거점확보와 산발적인 유격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여 적의 후방을 교란할 수 있게 되었다. 상륙을 완료한 중대는 지형에 익숙한 지역 청년 100명을 선발하여 유격대를 편성하고 지역을 방어하였다.

중대는 수시로 내륙 지역으로 기습상륙을 감행 조직적인 유격전을 펼쳐 적의 작전에 큰 타격을 주었다.

해병 독립중대의 적 후방지역 도서 확보작전은 정보수집과 감시활동을 통하여 아군 해군작전을 방해하는 적의 기뢰부설과 해안포대의 활동을 억제하고 내륙 기습상륙으로 적의 후방을 교란하는 작전 효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이 도서작전의 효과와 비중이 커짐에 따라 해병대는 1951년 8월에 다시 독립 제43중대를 신편하여 동해안에 투입하게 되었으며, 이 부대들은 다시 대대급으로 개편되어 후일 해병 도서부대 창설의 모체가 되었다.

## 제 7 절 共匪討伐과 遊擊作戰

### 1. 共匪討伐作戰

국군과 유엔군의 인천상륙으로 퇴로가 차단된 패잔병들이 지방공비들과 합세하여 호남지역과 경북 내륙지역에서 국군과 유엔군의 병참선 차단, 식량 약탈, 관공서 습격, 살인, 방화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군이 1950년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벌여 일부 공비만 지리산으로 도주하였을 뿐 대부분 소탕되어 공비 토벌작전은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1951년 1월 말 중공군 신정공세시 제천 남쪽으로 진출하였던 인민군, 특히 안동으로 진출하였던 인민군 제10사단의 패잔병들이 주변산악으로 도주하여 지방공비들과 합류하면서부터 이들에 의한 후방지역 교란활동이 재연되기 시작되었다.

## (1) 湖南地區 掃蕩戰

중공군의 참전으로 지리산을 중심으로 백운산, 덕유산, 회문산, 불갑산, 백아산, 화학산 일대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거점을 둔 공비들은 다시 6·25 당시와 같은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믿고 1951년 1월 말에 이르러 대체적인 조직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유격활동을 기도하였다.

이들은 인민군 창설 기념일(2월 8일)을 계기로 가일층 지하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살인, 방화, 약탈 등 만행을 자행함으로써 치안을 교란하였다. 특히 2월 중순 이후부터 공비들은 100명 이상의 대규모 병력으로 집단적으로 출몰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소탕작전을 전개해온 국군 제11사단장 최덕신(崔德新) 준장은 공비들의 근거지 파괴와 지휘자 체포를 통해 공비의 재집결을 봉쇄하는데 목표를 두고 제9연대를 전남 지역에, 제13연대를 전북 지역에, 제20연대를 지리산 지구에 분산 배치하였다. 그리고 배속된 일부 경찰 및 청년방위대는 주보급로와 통신망 확보임무를 부여하고, 본격적인 공비 토벌작전을 벌이게 되었다.

제9연대가 1월 초순 지리산 남동부의 내외공리와 덕산 일대에서 활동 중인 700여 명을 포착하고 이들을 추격하자 공비들은 지리산으로 도주하였다. 이 작전에서 연대는 35명을 사살하며 70여 명을 포로로 잡았다.

지리산으로 도주한 공비들이 2월 초에는 지리산 북동부에서 출몰하였다. 연대는 이들을 일망타진할 계획하에 2월 7일 제1대대를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에, 제2대대를 산청군 냉천면 사동에, 제3대대를 함양군 유리면에 배치한 후 연대작전을 펼쳤다. 연대는 이 적을 13일간이나 추격하여 12명을 사살하고, 180명을 생포함으로써 이 일대의 공비들은 대부분 소탕되었다.

한편 담양, 순창, 화순, 장성, 나주군 일대에서 공비를 소탕하고 있던 제20연대는 화문산에 1,350여 명의 공비집단이 거점을 확보하고

준동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였다.<sup>137)</sup> 이에 연대장 박기병(朴基丙) 대령은 2월 9일 제1대대와 제2대대를 회문산에 투입하였다. 연대는 2월 13일부터 본격적인 소탕작전을 전개하여 이들을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었으며, 2월 20일에는 함평군 해보면에 있는 불갑산의 공비 350여 명을 포착, 섬멸하였다. 불갑산에서 철수한 적의 일부가 대청산으로 잠입하자 제2대대는 3월 3일 이들을 공격하여 격퇴하고 회문산작전을 완료하였다.

제9연대와 제20연대가 공비 토벌작전을 벌이는 동안 제13연대는 공비들이 정읍군 칠보, 운암발전소를 위협함에 따라 경찰과 합동으로 발전소 및 옥정리 수문을 경계하였다. 사단의 소탕작전으로 2월 하순부터 공비들의 활동이 현저하게 감소되자, 제13연대는 대전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한동안 뜸하던 공비들의 활동이 3월 중순부터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들 공비는 집단별로 거점을 빈번히 이동하였고, 국군과의 접촉을 극력 회피하면서 물품 약탈에만 주력하였다. 이때 연 출몰병력은 23,000여 명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공비들의 활동은 제9연대 지역에 집중되었다. 3월 13일 화순군 백아산 지역에 공비 160여 명이 출현하였다. 연대는 곡성에 있던 제2대대를 출동시켜 무려 10시간의 격전을 펼쳐 74명을 사살하고 21명을 생포하였으며, 소화기 20정과 백미 32가마, 소 6마리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또 3월 17일 대대는 화학산 일대에 잠복 중 공비 250여 명과 13시간 동안 치열한 전투를 벌여 86명을 사살하고 16명을 포로로 잡는 등 다수의 장비를 노획하였다. 이때 사살된 공비중에는 남해 여단장을 비롯한 부여단장 및 참모장, 중앙감찰부장 등 거물급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sup>138)</sup>

백아산, 화학산 지역에서 공비소탕전을 마치고 복귀하던 제2대대는 3월 22일 공비 500여 명이 순천을 급습한다는 급보를 받고 긴급출동하여 3시간 동안의 시가전 끝에 이들을 격퇴하였다.

국군 제11사단은 1950년 10월 4일부터 실시한 공비토벌 임무를 종료(1951년 4월 6일)하고 이 임무를 국군 제8사단에 인계하고 대구로 이동할 때까지 180일 동안 전개한 작전에서 호남지구 공비의 조직적인 활동을 분쇄하였다. 사단은 이들로 하여금 촌락으로부터 깊은 산중으로 분산 패주하지 않을 수가 없게 함으로써 주민의 피해를 감소시키고 치안을 유지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작전기간 중 전과는 공비 사살 1,950명(추정), 생포 및 귀순 2,178명과 각종 기관총과 소화기 261점을 노획한 반면 전사 531명, 실종 85명, 부상 843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세칭 거창사건도 동 작전기간 중에 일어났다. 이는 1951년 2월 10~11일 간에 거창군 신원면에서 사단의 제9연대 제3대대가 신원지서의 협조를 받아 공비들과 내통하였다고 판단되는 주민들을 집단적으로 처형함으로써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으며 국회조사단의 현지 조사 후 관계관들은 의법 처리되었다.<sup>139)</sup>

한편 육군본부는 거창사건으로 사기가 저하된 국군 제11사단을 2월 횡성전투 이후 대구에서 재편성을 완료한 국군 제8사단으로 교대시켰다. 국군 제8사단의 주력은 4월 3일 전주로 이동하여 제1경비대대, 제18전투경찰대대, 충남 경찰토벌대, 청년방위대 제153지대를 배속받아 금산, 정읍, 부안 지구에서, 제16연대는 진주로 이동하여 제2경비대대를 배속받아 백운산과 중산리 일대에서 공비 토벌작전을 시작하게 되었다.<sup>140)</sup>

사단장 최영희(崔榮喜) 준장은 사단의 능력과 공비들의 분포, 활동 상황을 분석한 결과, 사단주력은 교육훈련에 주력하면서 연대별로 작전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진주로 이동한 제16연대는 작전지역이 광범위하므로 대대별로 책임을 할당하여 소탕작전을 실시하도록 예하 부대에 작전지침을 하달하였다.

이 무렵 대둔산에 은거지를 둔 1,380여 명의 충남 빨치산 소속 공비들이 논산, 금산 등에 출몰하여 몰자 약탈과 민심을 교란하고 있었



다. 사단은 제21연대 제1대대, 공병대대, 제18전투경찰대대, 충남 경찰토벌대로 4월 16일부터 3일 동안 대둔산, 운암산, 원등산 지역에서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 작전은 공비들이 지형에 익숙한 이점을 이용 접적을 회피하고 분산 도주함으로써 적 주력의 격멸에 실패한 채 종료하였다.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공비들의 활동이 5월로 접어들면서 국사봉, 회문산에서 눈에 띄게 증가하자 사단장은 이 지역의 공비를 토벌하기로 하였다. 사단은 대둔산 지역에서 공비들의 퇴로 차단에 실패한 교훈을 거울삼아 이번에는 정읍 동쪽의 국사봉을 완전 포위하여 퇴로를 봉쇄한 후 지역내를 수색하여 공비주력을 완전 소탕하기로 계획하였다. 이 계획에 의거 제10연대 제1대대, 공병대대, 수색대대, 제1경비대대, 제18전투경찰대대, 제153 청년방위대는 5월 4일 국사봉과 회문산을 사방에서 포위한 후 포위망을 서서히 압축하기 시작하였다. 이 일대에 은거 중이던 1,200여 명의 공비들은 포위망이 좁혀지자 완강히 저항하면서 포위망 탈출에 혈안이 되었다. 일부 공비들은 포위망을 탈출 백양산, 내장산, 변산반도로 이동하여 재정비를 기도하였으나 사단의 계속된 추격작전으로 큰 피해를 입고 분산 도주하였다.

한편 진주로 이동한 제16연대는 제1대대를 거창, 제2대대를 산청, 제3대대를 하동에 각각 배치한 후 덕유산, 지리산, 백운산에서 공비 토벌을 하였다.

국군 제8사단은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1개월 동안 호남지구 공비 토벌작전을 펼쳐 사살 535명, 생포 624명의 전과를 올린 반면 전사 12명, 부상 21명의 피해를 입었다. 이 무렵 중공군의 춘계공세로 전선의 상황이 긴박해짐에 따라 사단은 육본명령에 의거 5월 19일 충북 제천으로 이동한 후 전선에 투입되었다.<sup>141)</sup>

당시 국군 제11사단과 제8사단의 계속된 토벌작전으로 괴멸상태에 빠진 전남북 일대의 공비들은 산속에 은신한 채 활동하기에 용이한 녹음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단이 작전을 종료함으로써 재편성과

병력증강 등 기사회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sup>142)</sup>

## (2) 太白山地區 掃蕩戰

태백산지구의 공비들은 1950년 12월 말부터 동부 산악지역을 따라 침투한 인민군 제10사단 패잔병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제10사단은 1951년 1월 중순 태백산맥을 연한 안동, 의성 부근까지 남하하였으나 아군의 공격으로 후방 퇴로가 차단되어 철수가 불가능하게 되자 주변 산악 지역에 거점을 확보하고 게릴라부대로 전환하였다. 이들은 이미 남한 후방지역에서 행동 중인 남부군, 경북도당의 안동, 영덕, 영주, 봉화군당 유격대 등과 합세하여 태백산, 일월산, 속리산을 위시하여 형제봉, 보현산, 동대산을 연하는 산악 일대에서 유격전을 전개하였다.<sup>143)</sup>

인민군 제10사단의 후방지역 활동이 증가하자 지난 중공군의 신정 공세에서 피해를 입고 미 제10군단 예비사단이 되어 풍기에서 재정비 중에 있던 국군 제2사단이 이들을 격멸하기 위하여 육군본부 직할로 배속이 전환됨과 동시에 2월 13일 안동으로 이동하였다.

사단은 육군 전방지휘소로부터 제5, 제6, 제7경비대대, 국민방위군 제1사단 제1연대, 전투경찰 2개 대대를 배속받아 1개월 동안 영천—포항, 영천—안동, 안동—영덕 간의 주보급로를 확보하면서 보현산 일대의 적 제10사단의 잔적을 소탕하게 되었다.<sup>144)</sup>

사단장 함병선(咸炳善) 준장은 2월 16일 제31연대는 안동—영주—단양 간의 주보급로를 경비하도록 하고 제17, 제32연대는 보현산 일대의 공비를 소탕하도록 하였다. 이에 양연대는 보현산 서쪽의 개산동, 화수동, 용수동, 조락동 조림산 일대에서 공비들을 추격하기 시작하였다.

사단은 2월 28일에 청송 방면의 인민군 제10사단이 북상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이들을 원거리에서 포위 격멸하기

로 결심하고 예상 통로인 일월산 부근을 차단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방침에 의거 병참선을 경계하던 제31연대가 일월산 남서쪽의 장갈령을 차단하여 3월 1일 새벽에 북상 중인 적 1,500여 명을 기습 공격하여 적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 이 무렵 제17연대와 제32연대도 보현산 일대에서 일월산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은 일월산 일대에 3중으로 차단선을 설치하였고, 인민군 제10사단은 800명과 400명으로 2개조를 편성하여 차단선을 돌파하려 하였다. 사단은 5일부터 전병력을 투입하여 5일간 일월산-통고산으로 적을 추격하였고, 적은 삼삼오오로 분산되었다.

사단은 이 작전에서 사살 460여 명, 포로 40여 명 그리고 293점의 장비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반면 사단은 전사 4명, 부상 25명의 손실을 입었다. 특히 일월산 소탕작전에서 진두지휘하던 제31연대 연대장 박노규(朴魯珪) 대령과 제3대대장 이오열(李奧烈) 중령이 전사하였다.

인민군 제10사단이 분산된 채 북상 도주함으로써 이 일대에서의 공비 토벌작전은 일단락되는 듯하였으나 북한이 3월 초순에 유격진술에 능숙한 1,700여 명으로 편성된 제1지대와 제3지대를 다시 이곳으로 남파하였다.<sup>145)</sup> 후일 판명된 바에 의하면 적 제1, 제3지대는 최초 1950년 11월 초에 맹산에서 인민군 직할 3개 유격여단(2,500명)으로 창설된 후 11월 중순 동부전선의 인민군 제2군단의 엄호하에 양구-인제-오대산으로 침투 중 정선 북쪽에서 제2여단이 괴멸되어 제1, 제3여단으로 재편성하였다. 이들은 이동 중에 단대호를 조선 인민유격대 제1, 제3지대로 개칭하였으며, 중앙당의 직접 통제하여 팔공산에 거점을 확보할 목적으로 침투하였다.

적 제1, 제3지대가 3월 14일 봉화군 소천면 일대로 남하하자 육군 본부는 이 적을 선제공격하여 섬멸하기로 하고 제10사단의 추격 임무를 제1군단에 배속 중인 국군 제9사단에 인계하고 제2사단은 적 제1, 제3지대 섬멸에 주력하게 되었다.

사단장은 20일 제17연대는 통고산(通高山) 지역에서 적 제1지대를, 제32연대는 양구동(羊邱洞)에서 적 제3지대를 격멸하고, 제31연대는 안동-영주-풍기-단양간 도로를 경계하도록 명령하였다.

적 제1지대 격멸작전에 나선 제17연대 주력이 통고산 서쪽의 남회룡리(南回龍里)에서 부대정비를 하는 동안 제3대대가 통고산 북쪽 쌍전리(雙田里) 부근에서 태백산에서 오미산을 경유 남하 중인 적 400여 명을 발견하고 선제공격하자 적은 다시 소광리로 도주하였다. 연대는 통고산, 오미산, 석포리 일대를 정밀탐색하였고, 생포된 포로는 “그간 연대의 공격으로 전력이 크게 약화되어 대덕산-고양산을 경유 퇴각 중이다”라고 진술하였다.<sup>146)</sup> 포로의 진술대로 적은 23일부터 오미산 북쪽의 석포리를 경유 북상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연대는 이 적을 추격하여 창죽리, 대덕산, 노목리를 경유 정선 동쪽의 고양산까지 추격하였다. 이때 적은 계속된 도주로 극도의 피로와 기아(飢餓)로 사기가 저하된 상태이었고, 연대도 주야로 강행된 추격과 접전으로 적에 못지않게 체력이 소진되었으나 사기는 왕성하였다. 적을 집요하게 추격한 연대는 26일 풍천으로 진출하여 고양산과 낙동리(樂同里) 일대에서 적 제1제대의 주력을 격멸하였다. 연대는 추격작전을 종료하고 주둔지 경계를 강화하면서 차기작전을 준비하였다.

적 제3지대 격멸작전에 나선 제32연대는 18일 새벽에 배속된 제7경비대대가 영양 남서쪽 양구동(羊邱洞) 일대를 정찰 중 808고지에서 적 제3지대를 발견하고 추격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고지대의 계곡과 능선에는 결빙된 잔설이 도처에 깔려 있어 기동에 방해를 받았다. 대대장 강영훈(姜英勳) 소령은 노출로 인한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야간 공격으로 적을 공격하여 25명을 사살하고 7명을 포로로 하였다.

연대장 조재미(趙在美) 대령은 제1대대는 신령을, 제3대대는 군위를 경계하도록 하고, 제2대대는 삼의동(三宜洞)으로 이동하여 적 제3지대를 격멸하도록 하였다. 제7경비대에 기습을 당한 적은 남쪽의 포도산(葡萄山)으로 잠입하였다. 연대가 이 적을 추격하는 동안 배속된

국민방위군 제3연대도 연대장 김무용(金武龍) 중령의 지휘하에 동쪽의 명동산을 공격하여 인민군 제3지대 참모장과 제1중대장을 사살하였다.<sup>147)</sup>

이후 연대가 추격하는 동안 적은 민가로 잠입하여 완강하게 저항하기도 하였으나 23일을 전후하여서는 분산 도주함으로써 일시 접적이 단절되었다. 연대가 적을 추적하는 사이에 적은 명동산 남쪽에서 350여 명으로 재편성을 한 후 24일 새벽에 선발대가 신촌동 부근에서 국민방위군의 제3연대 매복조와 교전하는 틈을 이용하여 구양동 서쪽의 주산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적은 팔공산 거점 점령을 포기하고 잡목이 울창하여 시계가 제한되는 산악고지를 따라 금장산-통고산으로 북상 철수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대는 적을 주산에서 일망타진할 목적하에 제2대대와 국민방위군 제3연대는 포위망을 구축하고 제7경비대대로 하여금 공격하도록 하였다. 주산은 천연적인 장애물이 많아 적이 수차례 점령한 바 있고 아군도 이 지역을 빈번히 탐색하여 지형에 익숙하였지만 고지를 선점한 적이 수류탄을 투척하며 집요하게 저항하였다. 그러나 제7경비대대는 아군의 화력엄호와 함께 돌격하여 백병전으로 적을 격퇴하였다. 26일 제32연대는 적 제3지대가 죽파동-본신리-금장산으로 퇴각할 것을 예측하고 차단진지를 편성하였다.

사단장은 3월 29일 전반적인 적정을 검토한 결과 당시 150명 규모의 패잔병이 통고산-오미산-연화산을 따라 북상도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21일 부터 계속한 제1단계 작전을 종료하고 차기작전을 준비하였다.<sup>148)</sup>

이후 사단은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제17연대를 주축으로 한 제2단계 작전을 전개한 결과 통고산 북쪽 평전 지구에서 120명을 사살, 36명을 포로로 하고 작전을 종료하였다.

## 2. 遊擊隊의 活動

중공군의 참전과 ‘1·4후퇴’로 한때 잠잠하던 공비의 활동이 다시 고개를 쳐들어 군이 후방지역 공비 토벌작전을 벌일 무렵 국군과 유엔군도 유격대를 조직하여 적 후방지역에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적의 게릴라 및 공비 준동으로 아군의 후방이 교란되고 전투 병력이 전선에서 후방으로 전환되어 전방지역 전력의 약화를 초래한 것처럼, 적의 후방을 교란하고 적 부대의 분산을 강요하여 전선으로 집중되는 적의 충격력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중공군의 공세로 맞은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주 목적이 있었다. 아울러 반격작전으로 이전 시에는 정규군의 작전과 협조되게 운용함으로써 작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또한 적의 부대와 보급 및 병참시설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여 이를 파괴하고 교란하여 적의 작전에 혼란을 초래하게 할 수도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 (1) 陸軍 統制 遊擊部隊

국군이 중공군의 침략이라는 새 전국을 맞아 유격대를 편성한 것은 전선이 38도선으로 다시 남하한 1950년 12월 중순이었다. 이 무렵 육군본부의 정보참모부 공작과가 중심이 되어 극비리에 유격대를 편성하였다. 청년단체의 협조를 얻어 주로 황해도, 평안도의 피난 청년 중에서 인원을 선발하여 대대규모의 부대를 편성하고 훈련을 시켜 적의 복장과 장비를 지급한 다음 12월 말경 적지에 투입하였다. 이들은 문산에서 임진강을 건너 적지에 들어가 활동을 시작했으나 곧 적의 신경공세로 1·4후퇴를 맞아 전선이 남하함으로써 통신소통의 결여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작전에 크게 기여할 수 없었다.

● 육군본부 결사유격대

대구로 이동한 육군본부 정보참보부(공작과)는 작전참모부(편제과)와 협조하여 본격적인 유격대 조직에 착수하여 ‘육군본부 직할 결사유격대’를 편성하였다.

이 무렵 국민방위군 설치법과 국민 총동원령 선포에 따라 대구의 육군본부 보충대에는 많은 애국청년, 학생, 의용경찰관, 철도경비경찰관, 현역병 낙오자 등이 몰려들고 있었다. 이들 중 애국심이 투철하고 신체조건이 우수한 인원 700여 명을 제1차로 선발하여 1951년 1월 4일 육군 정보학교에 입교시켜 2차에 걸쳐 3주간의 유격 특수교육을 실시하였다.<sup>149)</sup> 육군은 이들에게 정규군과는 다른 별도의 임시 계급과 군번을 부여한 후 결사유격 제11연대, 제12, 제13연대 순으로 편성하였다.

결사유격대가 교육훈련을 받을 무렵인 1951년 하순 중동부전선에서는 제1, 제3군단이 영월-삼척 선에 방어선을 구축하였으나 안동 일대에서는 퇴로가 차단된 채 후방지역을 교란하는 인민군 제10사단의 패잔병 소탕작전이 진행되고 있었다.

1951년 1월 30일 먼저 교육을 마친 결사유격 제11연대가 연대장 채명신(蔡命新) 중령의 지휘하에 363명이 영월로 이동하여 청옥산-가리왕산-박지산-하진부로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결사유격 제12연대는 2월 6일 연대장 이두병(李斗炳) 임시소령의 지휘하에 330명이 북호에서 양구 사명산-신고산-회양을 경유 통천을 목표로 침투하였다. 그리고 결사유격 제13연대도 2월 15일 황계리에서 중부내륙을 목표로 연대장 김한철(金漢喆) 임시대위의 지휘하에 황계리에서 침투를 개시하였다.

이때 제11연대는 적에게 노출되지 않고 주문진 서쪽의 퇴곡리로 진출하였으나 후속으로 진출한 제12연대는 하진부 북쪽의 두일리에서 적 주저항선을 돌파 중 적에게 노출되어 인민군 제15사단의 공격을 받아 월정사로 이동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연대는 아군 공군기의

오인 포격을 받아 다수의 피해를 입고 퇴곡리로 진출하여 18일 퇴곡리에서 결사유격 제11연대와 합류하였다. 이로 인하여 제13연대는 적의 경계가 강화됨은 물론 대관령 일대의 폭설로 기동이 제한되자 중부내륙 진출을 포기하고 월정사 부근으로 이도하여 20일 퇴곡리에 도착함으로써 3개 연대가 집결하게 되었다. 결사유격 3개 연대는 이곳에서 채명신 중령의 지휘하에 통합하여 백골병단을 창설하였다.<sup>150)</sup>

이 무렵 중동부전선에서는 중공군의 2월 공세로 일시 후퇴하였던 국군 제1군단과 제3군단이 제천 북쪽—정선—목호 선에서 반격을 개시하고 있었다. 재편성을 한 백골병단의 660여 명은 2월 23일 제13연대를 선두로 서쪽으로 이동하여 험준한 오대산맥을 넘어 노두봉 북쪽의 조개동(早開洞)으로 진출하였다. 병단이 휴식 중인 24일 오전에 아군기의 오폭을 받아 백골병단의 제12연대 일부가 분산되었으나 주력은 재공습을 피하기 위하여 구룡령으로 이동하여 이 고개를 장악하였다. 적의 복장으로 위장한 병단은 이 고개를 통행하는 적을 검문 검색하던 중 2월 28일에 인민군 제69여단의 전투상보를 입수하여 해공군 작전으로 인민군 제69여단을 격멸하는데 기여하였다.

병단은 약수산 일대에서 재정비를 한 후 3월 14일에는 인제군 귀둔리(貴屯里)로 이동하였고, 이곳에서 남조선 낙하산부대 토벌군으로 위장한 이들은 계속 북상하여 16일에 군량전(軍糧田)에 도착하였다. 이때부터 연대별 책임지역을 할당하고 경계와 수색작전을 펼치게 되었다.

이때 필레마을을 수색하던 제13연대가 3월 18일 적 13명을 생포하였는데, 이들을 심문한 결과 대남 빨치산 사령관 겸 제5지대장 길원팔(吉元八) 중장과 참모장인 강칠성(姜七星)을 포함한 지휘부 요원들임을 확인하고 지령문과 암호, 난수표, 조직편성 등 기밀문서를 노획하였다.<sup>151)</sup>

그러나 병단은 이날 저녁 적의 공격을 받아 망대암산(望對岩山)으로 철수하면서부터 적의 추격은 계속되었고, 병단은 장수대—안산—



매봉-용대리를 경유 백담사로 철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적의 추격, 배고픔 등으로 탈진되어 다수의 장병들이 전사하거나 낙오되었다. 채명신 중령은 사기가 저하됨은 물론 휴대한 탄약마저 바닥이 나 적과 전투를 벌이기는 무리라고 판단하고 대청봉으로 철수하였다.

병단은 이 과정에서도 소청봉과 박달령 부근에서 적의 기습공격을 받아 다수의 피해를 입었다. 철수를 계속한 병단은 3월 30일 현리 부근에서 국군 제7사단 제3연대 수색대와 접선하는데 성공하여 복귀하였으나 이때 복귀한 인원은 260명에 불과하였다.<sup>152)</sup>

이후 백골병단은 강릉의 육군 전방사령부로 이동한 후 동해안의 육군 을지제1병단에 흡수되었다.

#### ● 陸軍 乙支兵團

육군본부는 결사유격대 편성과는 별도로 작전참모부 심리전과 주관 하에 후퇴작전시 이북으로부터 서해안과 동해안에 탈출하여 자생적으로 유격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무장치안대, 반공청년대의 조직을 체계화하고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로 을지병단이라는 이름의 유격대를 편성하였다.<sup>153)</sup>

먼저 육군본부는 동부전선의 국군 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해안 지역에서 활동할 을지제1병단을 창설하였다. 그러나 동해 연안에는 무장치안대나 피난민들이 피신할 수 있는 도서가 없어 함경도와 강원 북부에서 활동하던 무장치안대와 피난민들의 대부분이 1·4후퇴와 함께 대구, 부산 방면으로 월남하여 유격대를 편성할 인적자원이 부족하였다.

이때 육본 작전국 심리전과의 박창암(朴蒼岩) 소령은 적지에서 육군 결사유격대(백골병단)가 복귀하자 이들과 지역내 치안대원, 청년조직 등을 통합하여 동해안 유격사령부로 발전시키려고 하였으나 작전 통제권이 미 제8군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리고 육군본부는 을지제1병단에 이어 1951년 3월 27일에 강화도

에서 서해안 도서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자생유격대 조직과 청년들을 규합하여 을지제2병단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을지제2병단은 창설된 그 다음날(3월 28일) 앞서 백령도에 창설되어 동일지역에서 활동 중인 미 제8군의 표부대(Leopard부대 : 豹部隊)의 작전통제를 받게 되었다. 이때 제2병단은 차동준(車東俊) 소령의 지휘하에 을지 제21, 제22, 제23, 제25, 제26, 특별연대로 편성되었다.

병단은 기초훈련을 마친 다음 연백군 및 개풍군 일대를 작전지역으로 선정하고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이에 당황한 인민군은 마침내 병단의 대규모적인 후방 지역교란을 우려하여 전방에 배치된 2개 전투사단을 황해도 해안지역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병단의 활동은 미 제8군으로부터 격찬을 받기도 하였으나 지휘 및 보급문제로 표부대와 마찰을 빚기도 하여 지휘관이 을지 제22연대장이던 이현서(李鉉瑞)로 교체되었고, 또 부대도 3개 연대로 축소 개편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자 육군은 미 제8군과 유격대의 지휘통제와 군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을지병단을 미 제8군에 인계하게 되었다. 이 조치에 따라 을지제1병단은 커클랜드(Kirkland) 기지로 흡수되었으며, 서해안의 을지제2병단도 1951년 8월 10일 중반 용진반도 동남부 지역의 작전을 통제할 목적으로 강화도에 창설된 울프팩(Wolfpack)기지 예하로 전환되었다.<sup>154)</sup>

그 밖에도 같은 시기에 국군 제1사단은 사단 직속의 제5816부대를 강화도에서 잠정 편성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한강 북쪽의 개성까지 정찰 및 기습작전을 펼쳐 사단의 임무수행에 일조하였다.

## (2) 유엔군 統制 遊擊部隊

미 제8군은 유격대가 적 후방지역에서 공공연한 전투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제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1951년 1월 15일 미 제8군 작전참모부 예하 기타 업무처에 유격대 업무를 관장하는 지구전과를 신설한 다음 유격대의 조직에 착수하였다.

우선 미 제8군은 1951년 2월 15일에 부산 동래에서 베이커(Baker Section)기지를 창설하였다. 이는 장차 예상되는 유엔군의 반격작전과 연관하여 공수 특수임무부대를 적 후방지역에 투입시켜 적의 병력, 물자 및 병참선 파괴 활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기도된 것이었다. 당시 대구에 집결해 있던 방위 사관후보생 중에서 대원들을 선발하여 공수 및 특수전훈련을 교육시킨 후 제1기생을 배출하였다.<sup>155)</sup>

다음으로 서해안에서 활동 중인 자생유격대를 통제하기 위하여 1951년 2월 15일 백령도(白翎島)에 윌리엄 에이블(William Able) 기지를 창설하였다. 이 기지는 3월에 표(Leopard) 부대로 공식 명명되었으며, 4월까지 무장치안대를 유격연대로 개편하고 ‘동키부대(Donkey)’라는 명칭이 부여되었다.<sup>156)</sup>

동키부대는 6월 말에는 15개 연대로 증편되어 평안북도에서 황해도까지 전 서해안 지역의 도서를 중심으로 해안과 내륙으로 침투하여 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리고 1951년 4월 15일에는 국군으로부터 을지제1병단을 인수하여 주문진에 커클랜드(Kirkland)유격기지를 창설하였다.<sup>157)</sup> 이 부대는 주로 고성 앞바다의 난도와 솔섬을 중심으로 해안과 내륙으로 침투준비를 하였다.

주 기

- 1) 軍事科學院 軍事歷史研究所 編著, 中國人民志願軍 抗美援朝戰史,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1988), 韓國戰略問題研究所(譯), 中共軍의 韓國戰爭史, (서울: 世經社, 1991), p. 92.
- 2)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Center of Military History U. S. Army, Washington, D. C., 1990, 육군본부(역), 밀물과 썰물, 1992, p. 216.
- 3) 위의 책, p. 224.
- 4) 백선엽, 군과 나, (서울: 대륙연구소, 1989), p. 153.
- 5) 육군사관학교, 한국전쟁사, (서울: 일신사, 1984), pp. 361~362.
- 6)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쟁사, (서울: 교학사, 1984), p. 508.
- 7) Matthew B. Ridgway, *The Korea War*, New York: A Da Capo paperback, 1967, p. 105.
- 8)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237.
- 9) 위의 책, p. 248.
- 10) 위의 책, p. 249.
- 11) 위의 책, p. 250.
- 1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5권), 1972, p. 425.
- 13) General HQ Far East Command, *Order of Battle Information North Korea Army*, 1950. 10, p. 21.
- 14)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233.
- 1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 442.
- 16) United Nation Command, '*G-3 Operations Report*', (1951. 1. 14).
- 1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 399.
- 18) 위의 책, p. 419.
- 19)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235.

- 20) 앞의 책, p. 235.
- 21) 위의 책, p. 253.
- 22) 위의 책, p. 255.
- 2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1980, p. 337.
- 24) 국군 제1사단, 전진역사, 1966, p. 205.
- 25) 육군본부(역), 앞의 책, pp. 257~258.
- 26)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앞의 책, p. 105.
- 27)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268.
- 28) 위의 책, p. 253.
- 29) 알렌특수임무부대(Task Force Allen): 보병 2개대대, 전차 2개대대, 포병 1개대대, 공병 1개중대로 편성됨.
- 30) 국군 제1사단, 앞의 책, p. 210.
- 31)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260.
- 32) 위의 책, p. 273.
- 33) The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Korean Conflict (1 november 1950— 30 june 1952)*, 1955, 공군본부(역), UN 공군사(상), 1975, pp.196~205.
- 34) 육군본부(역), p. 262.
- 35) 위의 책, p. 263.
- 3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5권), p. 483.
- 37) 위의 책, p. 506.
- 38) 위의 책, p. 482.
- 39) 위의 책, p. 496.
- 40)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275.
- 4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5권), p. 517.
- 42) 위의 책, p. 467.
- 43) 위의 책, p. 468.
- 44) James A. Field, Jr. *History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U. S. Govenem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1962, 해군본부(역), 미해군 한국전 참전사, 1985, p. 399.

492 제 5 장 유엔군의 再反擊

- 45)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앞의 책, p. 110.
- 46)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279.
- 47) 위의 책, pp. 279~280.
- 48)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앞의 책, p. 112.
- 49)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282.
- 50) 위의 책, p. 284.
- 5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1979, pp. 730~737.
- 52)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285.
- 53)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앞의 책, p. 114.
- 54)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294.
- 55)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Center of Military History U. S. Army, Washington, D. C., 1990, p. 293.
- 56)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316.
- 57) 위의 책, p. 306.
- 58)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앞의 책, p. 115.
- 59)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307.
- 6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제10권), pp. 508~512.
- 61)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312.
- 62) 위의 책, p. 321.
- 63) 위의 책, p. 322.
- 64) 육군사관학교, 앞의 책, p. 536.
- 65)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앞의 책, p. 126.
- 66)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299.
- 67) 위의 책, p. 302.
- 68)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앞의 책, p. 118.
- 69)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327.
- 70) 위의 책, pp. 329~330.
- 71) 위의 책, p. 333.
- 7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5권), p. 726.
- 73) 위의 책, p. 544.

- 74) 앞의 책, p. 552.
- 75) 국군 제3사단은 1951년 3월 7일 육본 작전명령 제263호 수정지시 추가 제1호(1951.3.5)에 의거 미 제10군단에서 국군 제3군단으로 배속 전환.
- 7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5권), p. 563.
- 77) 위의 책, p. 576.
- 78)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336.
- 79)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앞의 책, p. 120.
- 80)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345.
- 81) 위의 책, p. 337.
- 82) 위의 책, p. 338.
- 83) 위의 책, p. 339.
- 84) 위의 책, p. 345.
- 8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제21권), 1987, p. 378.
- 86) 육군본부(역), 앞의 책, pp. 348~349.
- 87) 위의 책, p. 357.
- 88)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제21권), p. 642.
- 89)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362.
- 9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5권), p. 730.
- 91)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343.
- 92) 위의 책, p. 358.
- 93) 위의 책, p. 359.
- 9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5권), p. 777.
- 95)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360.
- 9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5권), p. 776.
- 97) 위의 책, p. 596.
- 98) 위의 책, p. 599.
- 99)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363.
- 10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5권), p. 609.
- 101) 해병대사령부, 해병전투사(제1집), 1962, p. 149.

494 제 5 장 유엔군의 再反擊

- 10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5권), p. 586.
- 103) 위의 책, p. 708.
- 104) 국군 제9사단, 백마부대사, 1982, p. 99.
- 105)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363.
- 10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5권), p. 650.
- 107)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364.
- 108) 위의 책, p. 365.
- 109) 위의 책, p. 367.
- 110) 위의 책, p. 369.
- 111) 위의 책, p. 370.
- 112) 위의 책, p. 371.
- 113) 위의 책, p. 372.
- 114) 위의 책, p. 374.
- 11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5권), p. 861.
- 116) 위의 책, p. 635.
- 117) 위의 책, p. 643.
- 118)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377.
- 119) James F. Schnabel, Robert J. Watson, *The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Joint Chiefs Staff: 197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美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상), 1990, pp. 365~366.
- 120) 위의 책, p. 367.
- 121)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381.
- 122) 우타(Utah)선: 전곡(임진강 서쪽)－금학산－광덕산－사창리.  
와이오밍(Wyoming)선: 전곡(임진강 서쪽)－철원－김화－화천저수지 서쪽.
- 123)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352.
- 124) 위의 책, p. 353.
- 125) 위의 책, p. 355.
- 126)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앞의 책, p. 122.
- 127)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389.



- 128) 앞의 책, p. 395.
- 12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5권), p. 661.
- 130) 위의 책, p. 670.
- 131)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396.
- 132) 위의 책, p. 398.
- 133) 위의 책, p. 401.
- 134) 위의 책, p. 411.
- 135) 해병대사령부, 앞의 책, p. 253.
- 136) 위의 책, p. 238.
- 137) 국군 제11사단, 화랑약사, 1975, p. 86.
- 138) 위의 책, p. 82.
- 140)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제22집), 1987, p. 60.
- 14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88, p. 183.
- 142) 육군본부, 공비 연혁, 1971, p. 293.
- 143) 위의 책, p. 322.
- 14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5권), p. 613.
- 145) 육군본부, 공비연혁, p. 322.
- 14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5권), p. 621.
- 147) 위의 책, pp. 618~619.
- 148) 위의 책, p. 631.
- 149) 육군본부, 한국전쟁과 유격전, 1994, p. 87.
- 150) 위의 책, pp. 94~95.
- 151) 위의 책, pp. 97~98.
- 152) 위의 책, p. 103.
- 153) 위의 책, p. 148.
- 154) 위의 책, p. 152.
- 155) 위의 책, p. 139.
- 156) 위의 책, p. 145.
- 157) 위의 책, p. 148.

## 제 6 장 共産軍의 春季攻勢

### 제 1 절 中共軍의 4月 攻勢

#### 1. 雙方의 戰略

##### (1) 我軍 狀況

유엔군은 3월 중순 '1·4후퇴'로 상실한 서울을 재수복하고 4월 초에 주력부대들이 38도선 북쪽의 임진강-전곡-화천저수지-양양을 연하는 이른바 캔사스(Kansas)선으로 진출하였다. 이로써 전쟁전의 영토를 회복하고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게 된 유엔군은 휴전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에 따라 이 선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 방침에 의거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배속:국군 제1사단, 미 제3, 제24, 제25, 영 제29여단, 터키 여단)은 임진강-한탄강 선에, 중부전선의 미 제9군단(배속:국군 제6사단, 미 제1해병사단, 영 제27여단)은 석룡산-유촌리(楡村里) 선에, 중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배속:국군 제5사단, 미 제2, 제7)은 소양강 북쪽에 주저항선을 편성하였다. 그리고 국군이 담당한 동부전선은 태백산맥을 경계로 제3군단(배속:제3, 제7사단)이 내륙 산악지역에, 제1군단(배속:수도사단, 제9사단)이 동해안 지역에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당시 미 제8군 예비인 미 제1기병사단은 수도권 지역으로 투입이 용이한 금곡(金谷) 부근에, 제187공수연대는 대구에 집결 대기하고 있

었다. 그리고 육본 직할부대인 제8사단은 대전, 광주, 진주 부근에서, 제2사단은 춘양, 제천, 안동 부근에서 연대별로 후방지역 공비 토벌 작전을 실시하고 있었다.

유엔군이 방어선 보강에 주력하는 동안 공산군도 38도선 북쪽에 방어진지를 편성하는 한편, 중부전선에서 전략 전술의 요충으로 철의 삼각지대<sup>1)</sup>라고 명명된 평강, 철원, 김화 일대에 병력과 보급품을 집결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적의 방어진지는 중심이 매우 얇을 뿐만 아니라 후방지역에는 진지를 구축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방어보다 공격을 실시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중장은 중부전선의 캔사스선 방어중심을 깊게 하고 적의 공세준비를 차단할 목적으로 철원-김화를 통제할 수 있는 연천-고대산-와수리-화천저수지를 연하는 새로운 통제선인 와이오밍(Wyoming)선을 설정하고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이 이 선을 점령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리고 동부전선에 배치된 적을 고착 견제하여 중부전선으로 증원을 차단함과 동시에, 인제-간성 도로를 점령하여 군수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3군단의 주보급로를 개선할 목적으로 화천저수지 동쪽에 배치된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3군단 및 제1군단도 4월 24일부터 양구-가전리(加田里)-송도진리(松島津里)를 연하는 알라바마(Alabama)선을 공격하도록 하였다.<sup>2)</sup>

이 계획에 의거 제1단계 작전으로 미 제1군단 예하 3개 사단(미 제3, 제24, 제25사단)과 제9군단의 영 제27여단이 4월 11일 캔사스선 북쪽 약 20km에 위치한 금학산-광덕산-백운산을 연하는 우타(Utah)선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공격제대들은 적의 포격과 강우로 인한 전차의 기동이 제한되어 다소 고전하였으나 20일 우타선을 점령하였다. 제1단계 작전이 성공하자 미 제1군단(미 제25, 제24사단)과 제9군단(국군 제6, 미 제1해병사단)은 공격부대를 재편성한 후 21일 항공 및 포병화력의 엄호하에 본 작전의 최종 목표인 와이오밍선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이때부터 아군은 적의 한층 강화된 저항으로 진출이 부진해졌을 뿐만 아니라, 정오가 지나면서 적의 대공세가 임박하였음을 알리는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미 제1군단의 수색대는 전보다 훨씬 남쪽인 임진강변에서 적과 조우하였고, 정찰기들도 적이 집결지에서 전방으로 이동하기 위한 대형을 갖추고 있음을 관측하였다. 이는 적이 전방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징후였다. 그리고 전방 사단지역에서 체포된 중공군 포로들은 이구동성으로 22일 야간에 중공군의 대공세가 개시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와이오밍선을 공격 중인 부대들이 22일 오후 전선의 도처에서 적의 포격에 진출이 둔화되자 미 제8군사령관은 일몰전에 공격을 중지하고 신속히 방어태세로 전환하여 적의 공세를 저지하도록 명령하였다.

## (2) 敵 狀況

유엔군이 38도선 북쪽으로 반격작전을 펼치는 동안 중공군은 2월 공세의 실패로 실추된 위신을 만회하고 다시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지휘체계를 정비하면서 새로운 대규모 공세작전을 준비하였다.

중공 지원군사령부는 1951년 초에 증원부대로서 압록강을 건너 신의주로 들어온 제19병단(제63, 제64, 제65군)을 임진강 북쪽의 구화리-덕사리(德寺里) 선에, 제3병단(제12, 제15, 제60군)을 삭령-신탄리(新炭里) 선에, 그리고 지난해 말 장진호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고 함흥에서 재정비를 완료한 제9병단(제20, 제26, 제27군)을 중부전선의 철원-김화선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인민군 전선사령부도 제1군단장 김웅(金雄)이 사망한 김책(金策)의 뒤를 이어 전선사령관이 되어 제3, 제5군단을 양구-원통 선에 배치하였다.

적은 부대 재편성과 아울러 열세한 화력과 기동력을 보강하기 위하

여 야포, 장갑차, 차량 등을 대폭 증강하였고, 특히 산악지대에서는 기동력이 제한되자 말(馬)을 수송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기간 중에 식량 18,000톤과 각종 탄약 3~5기수를 비축하는 등 군수지원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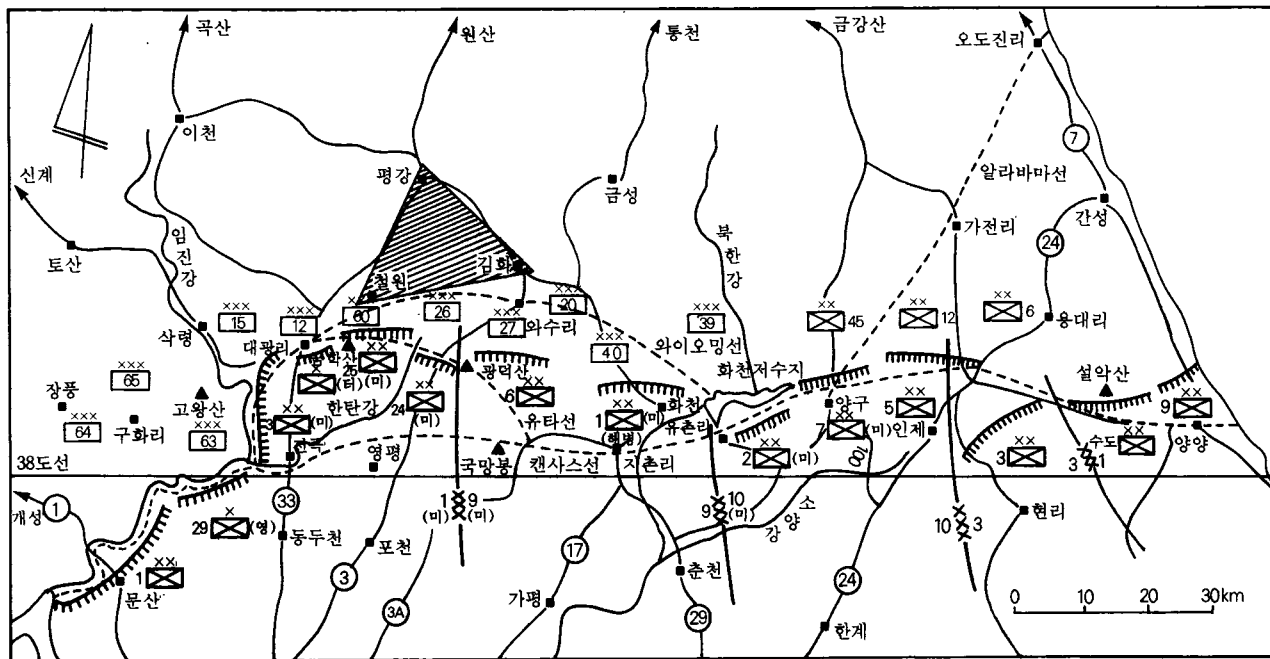
4월 초순 중공 지원군사령관과 김일성(金日成)이 참석한 제5차 군, 당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제5차 전역(춘계공세)의 개시를 결정하였다. 이 회의에서 중공 지원군사령관은 유엔군이 계속된 반격작전으로 지쳐 있고, 또 그간의 전투병력 손실과 소모된 전투물자의 보충이 충분하지 못하며 예비병력도 증원되지 않아 전력이 약화되었으므로 공격준비를 서두르도록 지시하였다. 특히 팡덕회(彭德懷)는 노동절(May-Day)을 기하여 서울을 모택동(毛澤東)에게 선물로 바칠 것을 계획하였다.<sup>4)</sup>

그러나 공산군은 이번 공세의 주력부대인 제3, 제19병단이 전방으로 이동하면서 평양, 신계, 이천, 평강 일대에서 지형숙지 및 야외전술훈련을 실시하였으나, 아직 상황과 지형에 익숙하지 못할 뿐만 아



중공군과 인민군이 춘계공세에 투입되고 있다.

피아의 배치상황(1951. 4. 21)



나라 막강한 화력과 기동력을 보유한 미군과의 전투경험이 없는 약점도 안고 있었다. 또한 중공군은 이번 공세에 공군을 투입하기 위하여 신의주, 의주, 신안주, 평양, 원산, 연포 등에 비행장을 건설하였으나 유엔군의 폭격으로 이들 비행장이 파괴되어 항공기를 춘계공세에 투입할 수 없게 되었다.<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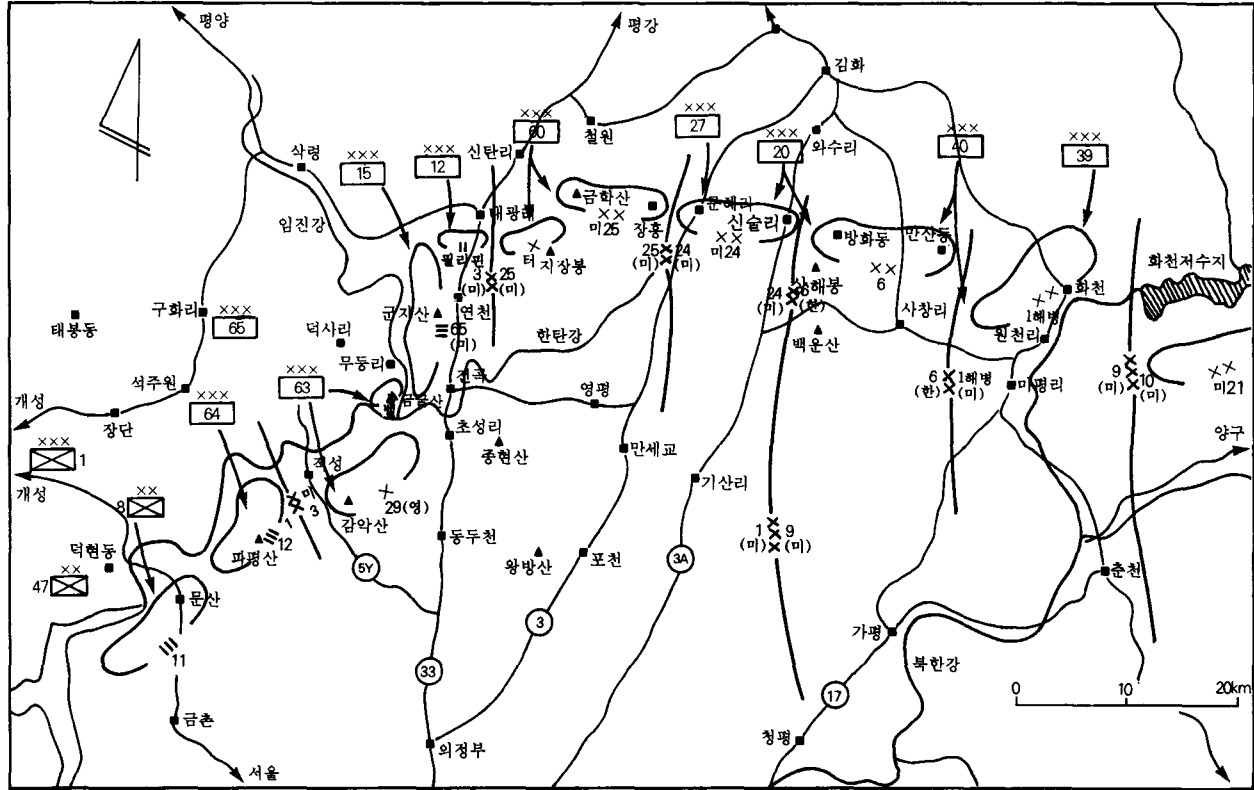
중공군은 미 제1, 제9군단의 와이오밍선 공격으로 유엔군의 전선중 중부전선이 돌출되자, 유엔군의 방어선은 중심이 아고 이로 인해 상호지원이 횡적으로만 가능한 상황임을 간파하였다.<sup>6)</sup> 공격준비를 갖춘 적은 4월 22일 아군의 약점을 이용하여 전선 분할과 우회 포위공격으로 유엔군을 서울 이남으로 격퇴시킨다는 작전개념하에 주공인 제19병단 3개군(제63, 제64, 제65군)은 임진강 부근, 제3병단 3개군(제12, 제15, 제60군)은 연천 북쪽, 제9병단 5개군(제20, 제26, 제27, 제39, 제40군)은 김화 부근에서 미 제1군단을 목표로 좌우 측방과 정면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조공인 인민군 제3군단과 제5군단도 양구 남쪽의 미 제10군단과 인제 부근의 국군 제3군단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와 같이 중공군의 4월 공세는 이번에도 여전히 30만 5천 명(중공군 27만 명과 인민군 3만 5천 명)에 달하는 인적자원을 주무기로 한 ‘인해전술’에 기초하였으며, 그들의 주공 방향에 있던 미 제1, 제9군단은 어느 정도 적의 공세를 예측하고 대비하였으나 초전부터 고전하게 되었다.

## 2. 서울 北方의 決戰

서부전선을 담당한 미 제1군단은 좌전방 김포반도에 해병 제5독립대대(국군 제1사단 배속), 임진강 남쪽의 오금리(吾矚里)－마지리(馬智里)에 제1사단, 마지리－도감포(都監浦)에 영 제29여단(미 제3사단에

### 중공군의 4월 공세



502 제 6 장 共産軍의 春季攻勢



배속), 도감포-군자산(君子山)에 미 제3사단을 배치하여 주저항선 방어와 임진강 북쪽지역에서 정찰활동에 주력하고 있었다.

이때 군단 중앙과 우전방의 터키 여단(미 제25사단에 배속), 미 제25사단, 미 제24사단은 와이오밍선으로 공격 중 공격이 둔화되어 급편방어로 전환하였다. 터키 여단은 대광리(大光里) 남쪽의 고지군에, 미 제25사단은 금학산-장흥리(長興里) 일대의 분지에, 제24사단은 신솔리-문혜리에 각각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그리고 군단의 우인접으로 방화동(芳花洞)-백적산에 진출한 미 제9군단의 좌전방 국군 제6사단과 연결하였다.

4월 22일 어둠이 깔리자 중공군의 주력인 제19병단은 개성-문산 축선(軸線)의 제1사단과 영 제29여단을, 제3병단은 연천-전곡-동두천 축선의 미 제3사단과 터키 여단을, 제9병단은 김화-포천-의정부 축선의 미 제25사단과 제24사단을 목표로 야간공격을 개시함으로써 4월 공세의 막이 올랐다.

미 제1군단은 중공의 대군을 맞아 우세한 항공 및 포병화력과 기동력을 이용하여 적에게 최대의 출혈을 강요하면서 축차적으로 계획된 캔사스(Kansas), 델타(Delta), 골든(Golden) 선의 통제선을 따라 단계적인 철수작전을 펼치게 되었다. 특히 이 대회전(大會戰)의 초기에 영 제29여단(배속:벨기에 대대)은 설마리, 감악산, 금굴산에서, 국군 제1사단은 파평산에서 최대의 혈전을 펼쳤다.

### (1) 金窟山 戰鬥

영 제29여단은 1개 대대를 감악산 좌전방 적성(積城) 부근에, 1개 대대를 감악산 북쪽에, 그리고 배속받은 벨기에 대대<sup>7)</sup>를 금굴산에 배치하고, 1개 대대를 봉암리에 예비로 확보하여 임진강을 방어하고 있었다. 이중 벨기에 대대가 배치된 금굴산(194고지)은 임진강 북쪽에 위치한 돌출된 감제고지로서 동쪽과 남쪽이 임진강으로 둘러싸여 도

감포에 설치된 2개의 교량이 유일한 남쪽으로의 통로이며, 이로 인하여 중공군의 공격에 고립될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고지가 중공군에 탈취되면 여단의 방어진역이 감제관측을 받게 됨은 물론 우인점 미 제3사단의 후보급로인 연천-의정부 도로가 측방 위협으로 차단될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전술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벨기에 대대가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굴산 일대에 철조망과 지뢰를 매설하는 등 강력한 방어거점을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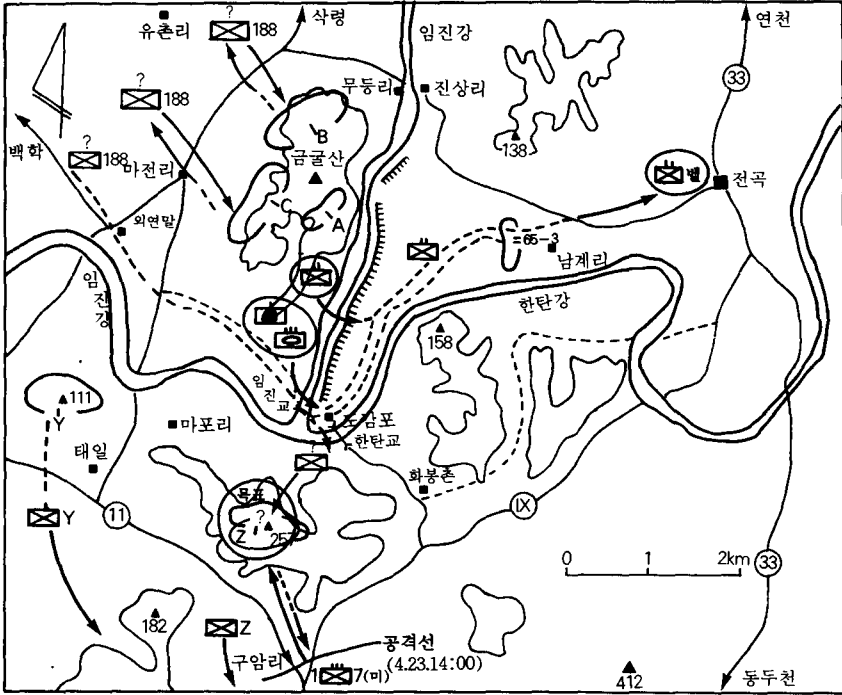
이곳의 전투는 22일 자정 무렵 중공 제188사단 정찰대의 침투를 알리는 조명지뢰가 폭발되면서 시작되었다. 적은 일부 부대를 우측방으로 우회 기동시켜 도감포로 진출, 23일 01:30에 교량을 점령한 후 계속하여 영 제29여단의 우전방 푸실리어 대대<sup>8)</sup> Z중대가 방어 중인 임진강 남쪽의 257고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하여 철수로가 차단되자 대대장 크라헤이(Albert, Crahay) 중령은 영 제29여단에 철수로 확보를 요청하였으나 여단장 브로디(T. Brodie) 준장은 여단 예비대가 Z중대를 증원하기 위하여 이미 전방으로 투입되어 지원능력이 없음을 설명하고, 우인점의 미 제3사단 주력이 우타선에서 전곡으로 철수할 때까지 진지를 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제3사단장 소울(Robert H. Soule) 소장은 영 제29여단도 전 정면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받아 혈전을 펼치고 있어 벨기에 대대를 지원할 능력이 없음을 감안하여 사단예비인 제7연대의 1개 보병중대와 2개 전차소대로 벨기에 대대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57고지를 점령한 중공군의 저항이 완강하여 전차 1개 소대만 이 지역을 돌파하고 벨기에 대대 진지로 진입하는데 성공하였다.

중공군의 포위망이 시시각각으로 압축되고 있을 무렵 미 전차소대의 도착으로 사기가 고조된 대대는 정오 무렵 보전 협동작전으로 피탈된 전방진지를 재탈환하였고, 이후 중공군의 공격도 주춤하여 대대는 재편성을 서두르는 한편, 미 제3사단에서 지원된 헬리콥터로 부상

금굴산 전투(1951. 4. 22~4. 23)



자를 후송하였다.

이 무렵 여단장은 벨기에 대대장의 건의에 따라 사단장에게 대대가 보유 중인 차량과 장비를 파괴하고 병력만 임진강 동쪽의 전곡으로 철수하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단장은 대대의 철수로 상에 있는 257고지를 미 제7연대 제1대대가 공격중이므로 철수로 확보를 자신하고 이러한 대대의 철수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sup>9)</sup>

벨기에 대대는 이미 적중에서 고립된 상황에서 17:00에 고대하던 사단의 철수명령을 받았지만 금굴산에서 중공군과 접적을 단절하고 철수하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대대장은 차량제대는 항공 및 전차의 엄호하에 교량지역을 강력 돌파하고 병력은 동쪽의 임진강을 도

섬하여 15m 높이의 천연 단애를 등파(登破) 후 각각 전곡으로 철수하기로 결심하였다.

17:30부터 대대의 철수를 지원하기 위한 근접 항공지원이 정확하게 개시되자, 전차소대를 선두로 80대의 차량제대와 보병제대는 금굴산 방어진지를 이탈하였다. 도보부대가 동쪽의 임진강을 도섭하기 시작하자 바람도 대대의 철수를 지원이라도 하듯 북서풍이 불어 전방지역에 투하된 네이팜탄이 연소하면서 발생된 연기가 적의 관측을 차장하였다. 이때부터 적은 대대의 철수를 저지하기 위하여 단애지역으로 박격포사격을 집중하였고 반면 대대는 눈앞의 험준한 단애를 등반으로 통과해야만 되었다. 대대는 공병이 단애를 폭파하고 통로를 개척하더라도 1주일 이상 소요되는 이 장애물지대를 필사적으로 기어 올라 18:30 전곡 서쪽 남계리 부근 미 제3사단의 제65연대 진지로 복귀하는데 성공하였다.<sup>10)</sup> 이때 차량제대도 아군의 화력지원으로 중공군의 포격에 단 4대의 손실을 입은 채 무사히 철수하여 본대와 합류하였다.

금굴산을 탈출하여 전곡에 집결한 대대는 영 제29여단의 상황이 악화되어 휴식도 취하지 못하고 20:30에 차량으로 동두천을 경유 여단예비로 봉암리(鳳岩里) 일대에 재배치되었다.<sup>11)</sup>

## (2) 坡平山 戰鬪

국군 제1사단은 미 제1군단 주력부대들이 철원 남쪽의 와이오밍선을 공격하는 동안 임진강 북쪽의 대덕산-백학산-강정리(江井里)를 연하는 선에서 정찰활동에 주력하면서 오금리-마지리 간 주저항선의 방어진지도 강화하였다. 사단은 좌전방 문산 북쪽의 고지군에 제11연대, 우전방 파평산(496고지) 일대에 제12연대, 그리고 제15연대를 사단예비로 대고령(大古靈) 일대에 각각 배치하였다. 이때 사단의 우인 접에는 영 제29여단이 사단과 함께 임진강을 방어하고 있었다.

4월 22일 해가 지고 어둠이 깃든 20:00를 전후하여 중공 제64군은 일부 병력으로 임진강 북쪽에 진출한 사단수색대의 퇴로를 차단한 후 포위공격을 기도하였고, 제192사단은 야음을 이용 임진강변으로 진출하였다. 좌전방 제11연대지역은 강폭이 넓고 수심이 깊을 뿐만 아니라 유속도 빨라 도하공격에 불리하므로 우전방 제12연대 전방의 고랑포(高浪浦)를 중심으로 석포(石浦), 자지포(紫芝浦), 석교(石橋) 일대의 도하지점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다.

자정 무렵 중공군의 포위망을 분산 탈출한 사단 및 연대의 수색대가 단정을 이용하거나 살을 베는 듯한 강물을 수영으로 도하한 후 본대에 복귀하였다.<sup>12)</sup> 이때부터 사단은 중공군의 도하를 저지하기 위하여 고랑포 일대와 강상에 기계화된 포병의 탄막사격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도하준비를 완료한 중공군은 조수(潮水)의 영향으로 강물의 수위가 낮아진 23일 02:30를 전후하여 자지포 일대에서 2개 중대규모로 도하공격을 개시하였다. 임진강 남쪽에 배치된 아군은 적의 도



중공군이 춘계공세에서 임진강 남쪽 유엔군 진지를 공격하고 있다.

하를 저지하고자 화력을 집중하며 완강하게 저항하였으나 수적인 열세로 주진지로 철수하였고, 적은 강 남쪽 장좌리(長佐里) 일대에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이 무렵 우인접 영 제29여단을 공격하여 중성산을 장악한 중공군이 제12연대의 우측방 돌파를 기도하였으나 연대는 이들을 마지막 일대 개활지에 계획된 살상지대로 유인한 후 화력을 집중하여 격퇴하였다.<sup>13)</sup> 낮 동안 아군의 맹렬한 항공폭격과 포병사격의 집중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중공군의 공격기세는 현저히 둔화되었으나 소규모의 중공군이 사단의 작전지역을 감제할 수 있는 파평산으로 침투하였다. 연대는 이 적과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면서 피탈된 강 남쪽의 전초진지를 재탈환하기 위하여 14:00에 예비인 제2대대와 배속된 미제73전차대대 C중대로 저녁 무렵까지 보전 협동작전을 펼쳤다. 사단은 이날 항공포격과 포병의 지원사격, 보전조 공격으로 중공군 3,000여 명을 사살하는 대전과를 올려 적의 공세 기세를 꺾었다.<sup>14)</sup>

상황을 분석한 사단장 강문봉(姜文奉) 준장은 우전방 제12연대 지역으로 적의 공격이 집중되자 연대를 증원하기 위하여 예비인 제15연대 제2대대를 법원리 일대로 추진 배치하였다. 사단이 적의 야간공격에 대비하여 방어진지 보강과 경계를 강화하고 있을 무렵인 23일 중공군은 임진강변에서 한판 승부를 결정하려는 듯 병력을 집중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자정경 제192사단은 아군의 가용한 모든 화력의 집중에도 불구하고 우전방 자지포와 구야 일대에서 후속부대를 도하시켜 공격제대를 증원하였다. 잠시후 장단에 집결하고 있던 제190사단도 임진강으로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중공 제64군은 이틀째 국군 제1사단을 공격하였으나 사단의 완강한 저항으로 정면돌파가 불가능하게 되자 고광포에서 도하한 제192사단은 파평산을 정면에서 공격하고 새로 투입된 제190사단은 제11연대와 제12연대의 전투지경선인 두포리(斗浦里)－마산리(麻山里)－법원리 축선으로 진출하여 사단의 전선을 분리한 후 연결작전으로 파평

산을 방어 중인 제12연대를 포위격멸하고자 하였다. 적의 기도를 간파한 사단도 전방연대를 증원하기 위하여 봉일천 남쪽의 죽원리(竹院里) 일대에 대기 중인 제15연대(제2대대 결)를 법원리로 이동시켰다.<sup>15)</sup> 하지만 전방연대에서는 중공군의 과상공격에 시간이 경과할수록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일부 지역이 돌파되어 방어정면이 파평산 정상 부근으로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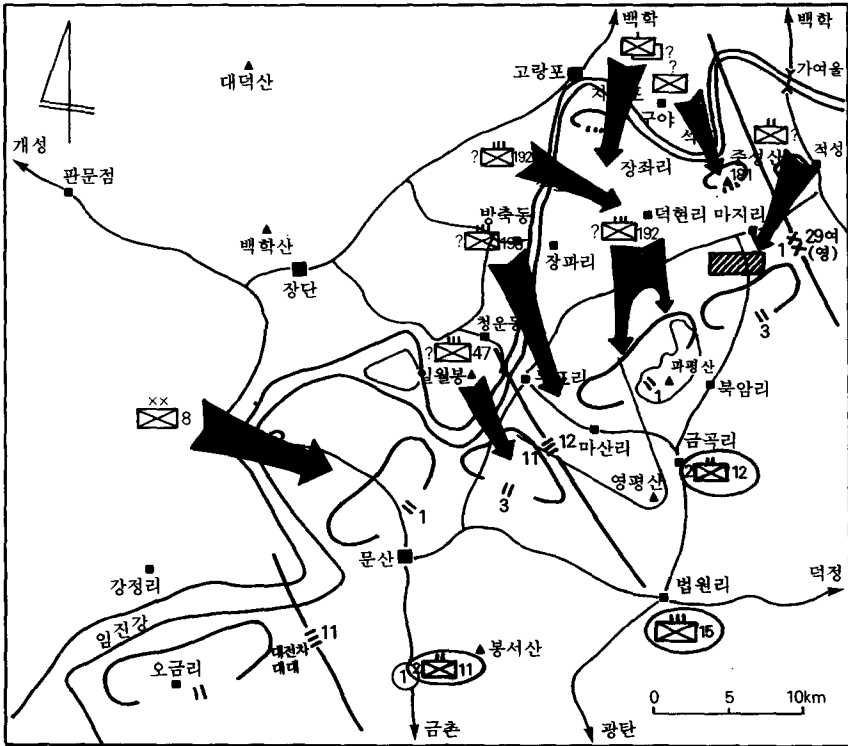
반면 중공 제190사단 제568연대는 새벽 전투에서 연대간 전투지경을 돌파하고 4km를 진출하였으나, 날이 밝은 후 개시된 아군의 항공폭격과 포병의 집중사격에 큰 피해를 입게 되자 영평산(276고지)과 주변고지에서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단은 항공지원과 포병의 엄호하에 전차 1개 중대와 제15연대 2개 대대로 전투지경선 부근에 형성된 돌파구 회복을 위한 역습을 개시하였다.

중공군은 제11연대의 퇴로 차단과 제15연대의 보전 협동공격으로 포위를 우려한 듯 경미하게 저항하면서 서둘러 철수하였고, 적을 추격한 제15연대는 17:00에 돌파구를 완전 회복하였다. 그러나 제12연대는 적의 집요한 공격에 사단방어의 요충인 파평산과 그 동쪽의 주저항선에서 물러나고 말았다. 이로써 사단의 주저항선 일부에 적의 돌파구가 형성되었다.

사단장은 우전방 제12연대 지역이 피탈되자 저녁무렵 “25일 06:30에 사단공격을 실시하여 임진강 남쪽으로 진출한 중공군을 소탕하고 17:00까지 주저항선을 회복한다”는 공격 준비명령을 하달하였다.<sup>16)</sup> 사단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무렵 중공군은 제63, 제64군의 임진강 돌파가 제1사단과 영 제29여단의 용전분투로 지연되자 이들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성강변에서 재편성을 완료한 인민군 제1군단을 임진강변으로 진출시켰다.

24일 저녁 무렵 임진강 철교를 중심으로 인민군의 도하 징후가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자정에는 인민군 제1군단(제8, 제19, 제47사단)의 선두인 제8사단이 철교로 도하하여 제11연대의 좌전방을,

파평산 전투(1951. 4. 22~4. 23)



제47사단의 1개 연대는 청운동(淸雲洞)에서 임진강을 도하 우전방을 공격하였다. 이날 따라 임진강변에는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안개가 짙게 끼었고, 적은 이 틈을 이용하여 주저항선으로 접근하였다.<sup>17)</sup> 쌍방은 전초진지에서부터 수류탄과 총검이 난무하는 일진일퇴의 혈전을 펼쳤다. 정오를 전후하여 안개가 사라지고 기상이 호전되어 근접 항공지원과 포병화력이 지원되자 적의 공격기세는 둔화되었고 연대는 방어진지를 재편성하면서 인민군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한편 사단의 중앙지대로 진출한 제15연대와 제12연대의 돌파구 회복을 위한 공격은 중공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진전이 없었다.



이 무렵 제12연대 제3대대가 파평산 동쪽의 북암리(北岩里)로 진출하여 적과 대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방에서 요란한 총성과 동시에 미상의 군인들이 소하천을 따라 내려왔다. 대대는 항공관측자로부터 영국군이 중공군의 포위망을 탈출하고 있음을 통보받고 즉시 미전차중대와 보전 협동으로 영국군 구출작전을 펼쳐 글로스터 대대 D중대원 40명을 구출하였다.<sup>18)</sup> 그러나 중공군은 이 틈을 이용해 일부 병력을 우측방으로 우회시켜 연대의 퇴로차단을 기도함으로써 연대는 부득이 공격을 중지하고 금곡리(金谷里)로 철수하였다.

사단은 25일 오전에 상실한 방어지역을 회복하기 위하여 반격작전을 펼쳤으나 인민군 제1군단마저 가세하는 바람에 공격이 둔화되면서 상황이 점차 악화되었다. 다행히 정오경 군단 철수명령에 의거 3일간의 피의 공방전을 종료하고 금촌과 문산 사이의 월룡산-부곡리(釜谷里)-삼방리(三防里)를 연하는 델타선으로 철수하였다.<sup>19)</sup>

후일 중공군은 당시 이 상황에 대하여 “전역우회 임무를 맡은 제64군은 장파리, 고사동 일대를 점령하였으나 미타사<sup>20)</sup> 북쪽에서 국군 제1사단의 저지를 받아 주진지를 신속히 돌파하지 못했다.”라고 전사(戰史)에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의 공세가 국군 제1사단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차질을 빚었음을 알 수 있다.

### (3) 雪馬里 戰鬥

국군 제1사단의 우인접 영 제29여단은 당시 마지리-도감포 간 11km의 광정면을 방어하고 있었다. 여단은 적성-신산리(莘山里), 도감포-봉암리 도로를 중심으로 감악산(675고지) 전방에 대대단위 거점방어진지를 편성하였는데, 그 결과로 대대와 대대 간은 물론 좌우 인접부대간에도 공백지대가 형성되어 적의 침투나 돌파에 취약한 상황이었다.

여단정면에서는 4월 22일 아침부터 임진강 주변에서 정찰대와 중

공군의 접촉이 빈번하였다. 이날 밤 보름달이 떠오른 임진강변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날은 영국군이 신성하게 여기는 성 조지의 날(St. George's Day) 전야로서 주진지의 일부 부대들까지도 전통적인 관례대로 칠면조 만찬과 모자에 달 장미를 준비하는 등 행사준비에 여념이 없었다.<sup>21)</sup> 22:00경 좌전방 글로스터 대대의 정면 가여울 일대에서 수미상의 중공군이 도하를 기도하였으나 매복대의 집중사격과 포병화력으로 격퇴되었다. 그러나 탄약이 소진된 매복대가 철수하자 적은 즉시 1개 연대규모로 도하공격을 개시하였다.

글로스터 대대<sup>22)</sup>는 방어진지를 사수하기 위하여 결사적인 저항을 하였으나,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의한 파상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가여울 도섭장을 통제할 수 있는 중요 감제고지인 중성산(重城山: 148고지)을 방어한 A중대는 중대장 안기어(P. A. Angier) 소령이 전사하는 등 전사상자가 속출하여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 무렵 우전방 푸실리어 대대<sup>23)</sup>도 Z중대가 방어 중인 임진강 남쪽의 감제고지인 257고지에서 중공 제188사단을 맞아 격전을 치렀는데 결국 피탈당함으로써 23일 오전에 중공군에게 임진강 남쪽에 교두보를 허용하고 말았다.

그러나 먼동이 트면서 유엔군의 항공폭격이 개시되자 적이 접적을 단절하고 숲과 계곡으로 잠적하여 전방대대는 감악산 부근으로 철수하였다. 낮 동안 좌전방 글로스터 대대는 314고지 부근에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중공군의 야간공격에 대비하였으며, 우전방 푸실리어 대대는 피탈된 257고지를 탈환하기 위하여 정오경 보전협동으로 역습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대대의 역습은 이미 이곳에 견고한 진지를 구축한 적의 완강한 저항에 밀려 실패하였다. 여단장은 적의 후방 진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예비인 얼스터 대대를 398고지에 배치하여 도감포-봉암리 도로를 통제하도록 하였다.

이 무렵 미 제3사단장은 푸실리어 대대가 역습에 실패하자 사단에

비인 미 제7연대 제1대대를 투입하여 재역습을 시도하였으나 이 공격마저 실패하였다. 사단장은 영 제29여단을 증강하기 위하여 22일 대광리 남쪽 울동 부근에서 중공군과 격전을 펼친 후 안흥리로 철수한 필리핀 제10대대를 여단에 배속하였다. 대대는 20:00 여단예비로 신산리(莘山里) 부근에 집결하였다.

한편 중공 제63군은 임진강 남쪽에 일부 교두보를 확보하였으나 영 제29여단의 완강한 저항으로 감악산 점령이 지연되자 예비사단을 투입 공격제대를 재편성한 후 23일 자정 무렵 좌전방 글로스터 대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글로스터 대대는 중공군의 과상공격에 밀려 적성-신산리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235고지(雪馬里高地)에 집결 사수방어 진지를 편성하였다. 이때 우전방 푸실리어 대대도 얼스터 대대의 후방 송산리로 철수함으로써 작전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감악산이 적의 수중에 들어갔다. 이로써 24일 새벽에 글로스터 대대가 중공 제63군에 포위되었다.<sup>24)</sup>

적중에 고립된 글로스터 대대를 구출하기 위하여 필리핀 제10대대와 영 제8전차대대 C중대의 보전 협동으로 07:30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이미 235고지 남쪽 4.8km까지 진출한 중공군은 완강히 저항하는데 사기막(沙器幕) 고개 부근의 도로폭이 협소하여 제8전차대대의 센츨리온 전차(Centurion 20-Pound Gun Tank)가 통과할 수 없어 보전 협동에 차질을 빚게 됨으로써 공격은 둔좌되었다. 이때 여단장은 글로스터 대대장 칸(J. P. Carne) 중령에게 구출작전의 경과 상황을 설명하고 대대가 자력으로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철수하여 증원부대와 연결하도록 중용하였다. 그러나 대대장은 그간의 전투로 전투력이 약화되어 중공군의 포위망 돌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위치에서 연결을 희망하며 탄약, 식량, 기타 보급품이 바닥나기 시작하므로 재보급을 요청하였다.<sup>25)</sup>

오전 공격에 실패한 필리핀 제10대대는 오후에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불운하게 선두로 진출하던 M-24경 전차가 애로지역에서 파괴되어

실패하였다.

필리핀 대대가 공격작전을 펼치는 동안 설마리 고지에 고립된 글로스터 대대는 근접 항공지원과 포병의 지원사격에 의존한 채 증원부대와 연결만 학수고대하였으나 공격제대가 연결에 실패하고 철수하게 되자 장병들의 사기는 저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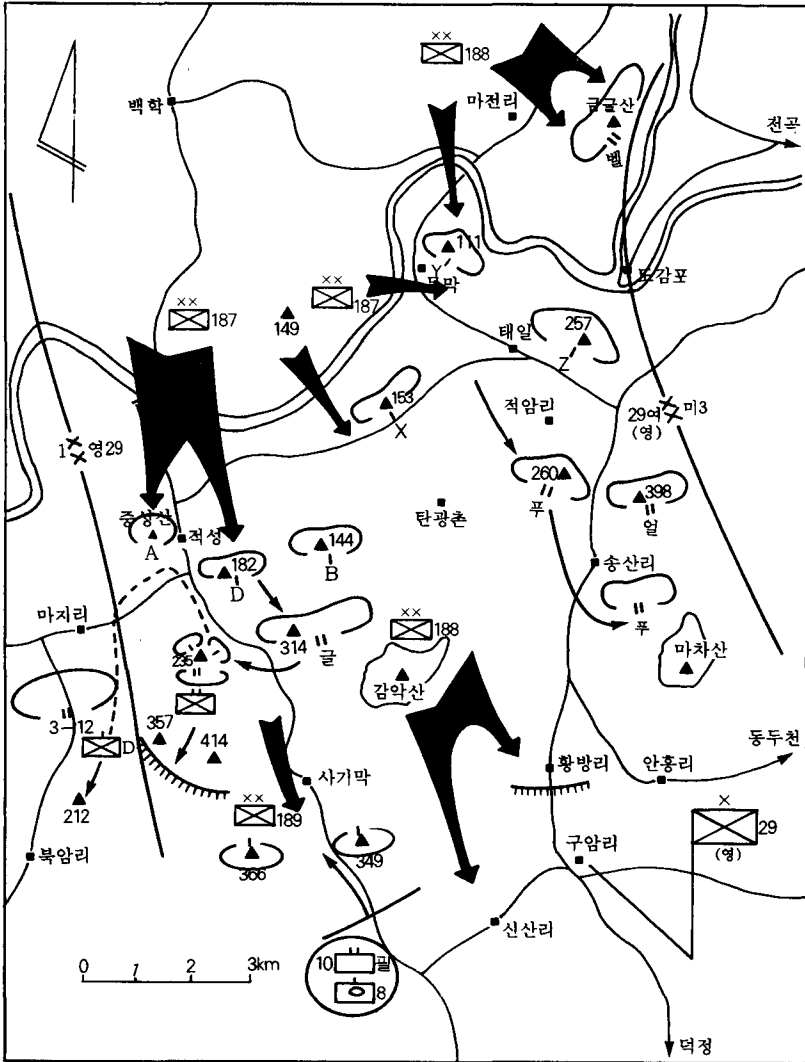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한 여단장은 글로스터 대대장과 협의한 후 대대의 야간철수를 사단에 건의하였으나, 사단장은 야간철수는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하므로 25일 06:30에 미 제65연대가 구출할 때까지 현진지를 고수하라고 하였다.<sup>26)</sup> 이에 글로스터 대대는 이날 밤에도 수차에 걸친 적의 공격을 격퇴하고 진지를 고수하였다.

중공 제63군은 이로 인하여 이 지역 돌파가 지연되어 그들의 공격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자 25일 새벽에는 예비인 제189사단을 투입 총공세작전을 펼쳤다. 여단이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을 무렵인 25일 05:00 미 제1군단장 밀번(Frank W. Milburn) 중장은 중공군의 집요한 공격으로 주저항선의 일부가 돌파되자 캔사스선 후방 6~18 km에 설정된 델타선으로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국군 제1사단과 미 제3사단은 적중에 포위된 글로스터 대대가 구출될 때까지 현진지를 고수하도록 하였다. 특히 미 제3사단장에게는 사단이 역습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철수 이전에 반드시 글로스터 대대를 구출하도록 강조하였다.<sup>27)</sup>

이 명령이 하달된 직후 임진강을 도하한 중공 제63군의 1개 사단이 미 제3사단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전곡-동두천 축선으로 이동을 개시하였다. 사단장은 전곡-동두천 축선으로 진출 중인 이적을 저지하기 위해 설마리 고지 역습을 준비 중인 미 제65연대와 필리핀 대대를 이곳에 투입하였다. 따라서 글로스터 대대의 구출작전에는 포병의 화력지원과 항공의 엄호하에 제64전차대대와 제65연대 전차중대만 투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단장은 그동안의 작전 경과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강력한

설마리 전투



보병의 공격 없이 전차만의 공격으로는 포위하고 있는 중공군의 포위망을 돌파할 수 없음을 간파하고 전방대대를 여단본부가 있는 봉암리에 집결시켜 델타선으로 철수하기로 결심하고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sup>28)</sup> 여단장은 델타선으로 철수에 앞서 글로스터 대대장에게는 중공군의 포위망을 돌파하고 남쪽으로 철수하든지, 그것이 불가능하면 중공군에 투항하든지 양자택일의 결정권을 위임하였다.<sup>29)</sup> 대대장은 미제65연대 전차소대의 구출작전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막연히 남쪽의 계곡만 통과하면 좌인접 국군 제1사단 지역으로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때 대대장은 중대장을 모아 놓고 ‘본인은 부상자와 함께 고지에 잔류할 것이므로 대대의 안전한 철수’를 당부하였다.

10:00경 A중대를 선두로 하산하기 시작하였으나 군목, 군의관 및 의무요원은 50여 명의 부상자와 함께 고지에 잔류할 것을 자원하였고, 주력의 철수를 엄호한 후 D중대는 주력과 정반대 방향인 북쪽으로 철수를 하였다. 이때 남쪽으로 철수한 대대의 주력과 설마리 고지의 잔류요원들은 중공군에 포로가 되었으나, D중대는 북쪽으로 이동 후 다시 국군 제1사단지역으로 남진하여 탈출에 성공하였다.<sup>30)</sup>

한편 여단주력도 철수하는 과정에서 전차에 200여 명의 부상자를 분승한 채 중공군의 포위망을 돌파하여 봉암리로 철수하였다. 이때 전차에는 포탑을 회전시킬 수 없을 정도로 부상자를 탑승시켜 화력지원은 물론 기동성도 발휘하지 못해 다수의 부상자들이 희생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델타선으로 철수하는 도중에도 중공군의 공격과 추격작전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인명 및 장비의 피해를 입고 분산 철수하여 의정부로 집결하였다.

결과적으로 여단은 이 전투에서 글로스터 대대가 D중대를 제외한 전 대대가 포로가 된 것을 포함하여 전체 병력의 1/3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이 희생으로 적성-설마리-동두천으로 돌파하려는 중공군을 3일간이나 고착 견제하고 저지하여 군단의 주력부대

들의 안전한 철수와 서울 방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획득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특히 글로스터 대대의 설마리 전투는 한국전쟁사상 고립방어의 대표적인 전례로서 전사에 기록되고 있다.

#### (4) 金化—抱川 軸線 遲延戰

연천 동쪽에서 철원—김화를 목표로 공격하던 미 제1군단의 미 제25사단(배속:터키 여단)과 미 제24사단이 4월 22일 중공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공격이 둔화되자 좌전방 터키 여단은 대광리 남쪽 고지군에, 중앙의 제25사단은 철원 남쪽의 금학산(947고지) 일대에, 우전방 제24사단은 문혜리—신술리에 급편방어 진지를 편성하였다. 그리고 터키 여단의 좌인접에는 미 제3사단의 제65연대에 배속된 필리핀 제10대대가 우타선을 방어하고 있었다. 공격제대들의 방어진지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군단포병의 강력한 지원사격에도 불구하고 중공군은 4월 22일 야음을 틈타 공격을 개시하였다. 따라서 미 제1군단 주력부대들도 철원 남쪽에서 예측불허의 일전을 펼치게 되었다.

중공군은 22일 19:00 터키 여단이 배치된 대광리 남쪽의 장승천(長承川) 일대에 40분 동안 치열한 공격 준비사격을 집중하였다. 이 포격에 여단은 포병진지와 통신시설이 피해를 입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진내로 접근한 중공 제60군 예하 제179사단과 공방전을 펼치며 주저항선을 고수하였다. 적은 정면공격과 병행하여 좌인접 필리핀 대대 및 우인접 미 제25사단 제24연대와와의 전투지경선 부근으로 1개 연대규모를 투입 포위공격을 기도하였다. 자정 무렵 터키 여단은 한탄강 남쪽 캔사스선 진지로 철수 명령을 받았으나 침투한 중공군이 철수로상의 중요 거점인 나미현(羅尾峴)을 먼저 차단함으로써 철수하는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sup>31)</sup>

한편 터키 여단이 격전을 펼치고 있을 무렵 좌인접 울동(栗洞) 부

근에 배치된 필리핀 제10대대도 23:00부터 중공 제12군 제34사단의 과상공격을 받아 진내에서 근접전투가 시작되었다. 대대는 적의 포격에 미 제65연대와 통신이 두절되어 지원도 받지 못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총력전을 펼쳐 새벽까지 진지를 고수하여 미 제3사단의 철수를 엄호하였다.<sup>32)</sup> 먼동이 트자 중공군의 공격기세는 점점 둔화되었고, 대대는 피탈된 B중대 지역을 탈환하기 위한 역습을 준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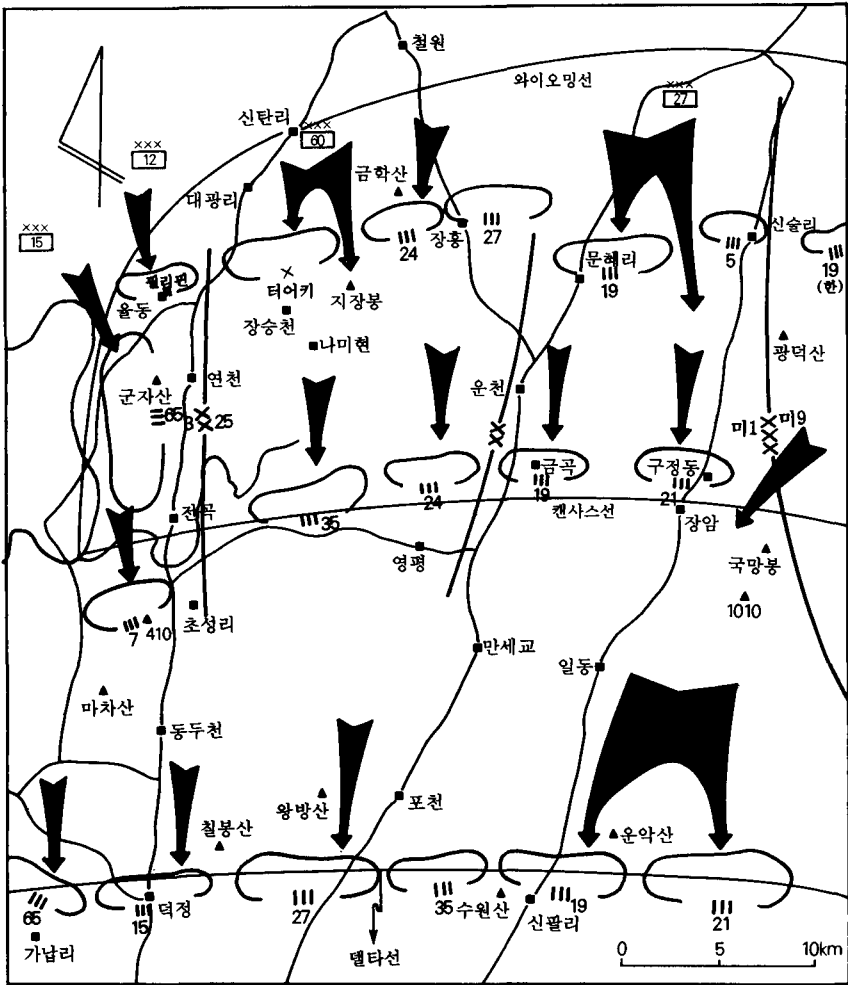
필리핀 대대와 터키 여단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23일 오전 미 제9군단의 사창리 지역에 이어 미 제1군단의 감악산 지역에서도 부분적으로 방어진지가 돌파되자, 제8군사령관은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에 임진강-전곡-화천저수지를 연하는 캔사스선으로 철수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하도록 명령하였다.<sup>33)</sup> 이에 미 제1군단의 우전방지역의 미군 3개 사단(제3, 제24, 제25사단)은 진지 전방으로 중공군의 집결을 유인하여 항공지원과 포병의 집중사격으로 최대의 출혈을 강요하면서 우세한 기동력을 이용, 축차적인 지연전을 펼치며 캔사스선 진지를 점령하였다.

한편 근접 항공지원과 후방지역 폭격 임무를 맡은 미 제5공군은 지난 신정공세시 주력부대가 일본으로 이동하여 4월 공세가 개시될 무렵 한국에는 3개 비행단과 미 제1해병비행단, 그리고 다수의 함재기가 가용하였으나 소요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때 제5공군은 4월 23일 전례없이 340회를 출격하여 미 제1군단의 철수를 지원하였다.

중공군이 그들의 전사에 당시 상황을 “제9병단은 유엔군을 추격하여 영평, 금곡, 구정동 일대에서 미 제24사단의 5개 중대를 포위하였으나, 아군 포병이 유엔군의 항공기 위협 때문에 적시에 진출하지 못하였고, 적의 퇴로를 차단시킬 병력도 부족하여 포위되었던 적은 대부분 포위망을 탈출하였다.”<sup>34)</sup>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공중공격의 위력과 영향이 대단했음을 알수 있다. 중공군은 3일 동안 계속된 아군의 대규모 근접 항공지원과 포병 지원사격으로 포위에 실패하고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 주력부대를 격멸하기 위한



연천-동두천 지연전(1951. 4. 22~4. 25)



추격작전을 멈추지 않았다.

군단장의 이 명령에 의거 25일 중앙의 미 제25사단은 중공군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큰 손실없이 델타선으로 철수하였으나, 좌전방 미 제3사단은 412고지 부근에서 좌인접 영 제29여단의 철수를 엄호하던

중 중공군의 기습공격으로 제7연대의 제3대대가 적중에 고립되는 위기상황을 맞았으나 대대장의 침착한 부대지휘와 포병 및 항공화력의 지원으로 포위망을 탈출함으로써 델타선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좌전방 미 제24사단도 배속된 제8유격중대가 주력부대의 철수를 엄호하기 위하여 1010고지를 정찰 중 중공군에 포위되었다. 이로 인해 미 제24사단 제5연대는 전차 5대를 투입하여 유격중대의 부상자 65명을 구출하고 마지막으로 철수하였다.<sup>35)</sup>

서울 북방에서 중공군의 4월 공세 주공과 격돌한 미 제1군단은 임진강변에서 국군 제1사단과 영 제29여단이 3일 동안 적의 진출을 지연시킨 선전의 결과로 와이오밍선을 공격하던 미 제3, 제24, 제25사단이 포위나 돌파를 당하지 않고 캔사스선으로 철수할 수 있었다.

적의 추격작전이 계속되자 군단은 항공폭격과 포병화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적에게 큰 피해를 주면서 성동리-노고산-덕정-포천을 연하는 델타선으로 철수하여, 이 새로운 방어선에 좌측으로부터 국군 제1, 미 제3, 제25, 제24사단을 배치하고 적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 3. 史倉里-加平 軸線의 危機

중부전선을 담당한 미 제9군단도 4월 21일 좌인접 미 제1군단과 병진하여 좌전방 국군 제6사단이 김화로, 우전방 미 제1해병사단(배속:국군 제1해병연대)은 화천저수지 북쪽의 와이오밍선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반면에 중공군의 4월 공세의 조공인 중공 제9병단은 화천-가평 축선으로 신속히 진출하여 유엔군의 동서간 증원을 차단하고 주공부대의 동측방을 엄호하기 위하여 주공부대에 앞서 미 제9군단 지역으로 공세의 포문을 열고 공격을 개시하였다. 적은 미 제1해병사단을 공격하려면 화력과 기동력에서 열세할 뿐만 아니라 북한강을 도하해야 하는 불리점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할 뿐만 아

나라 그들의 장점인 산악기동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좌전방 국군 제 6사단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 (1) 史倉里 戰鬪

제6사단은 4월 21일 석룡산-화악산에서 와이오밍선의 육단리와 복주산(1057고지)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여 좌전방 제19연대가 상해봉(1019고지), 우전방 제2연대가 백적산(883고지)을 점령 중간목표를 확보하였다. 사단이 공격제대를 정비하고 있을 무렵인 22일 오후 항공관측차로부터 사단 전방에 대규모의 적이 집결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사단장 장도영(張都暎) 준장은 16:00경 전방연대에 공격을 중지하고 방어로 전환하여 좌인접부대인 미 제24사단과 우인접부대인 미 제1해병사단과 연결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에 좌전방 제19연대는 방화동 일대에, 우전방 제2연대는 백적산 일대에 급편방어 진지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사단예비인 제7연대를 중공군의 공격에 대비하여 적이 다수 관측된 제2연대 후방의 두류산(993고지) 부근으로 전진 배치하였다.<sup>36)</sup> 그리고 제27포병대대와 뉴질랜드 포병대대, 미 제2박격포대대 C중대가 사단에 배속되어 사창리(史倉里) 부근에 배치되었다. 그러나 사단은 전방부대가 중요 감제고지에 중점적으로 방어진지를 구축함으로써 부대간에 공간이 형성되고 측방이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비대가 근접 배치되어 중심이 알은 취약점을 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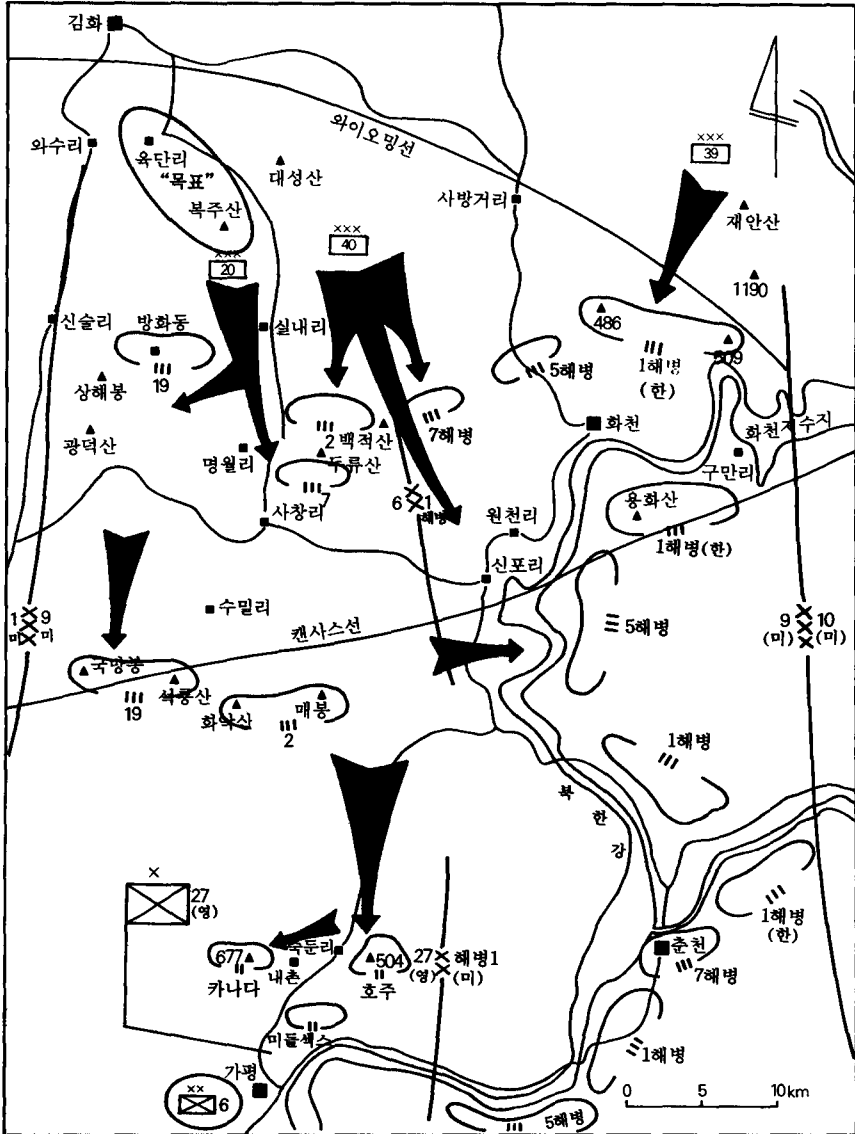
중공군은 17:00경 그들의 4월 공세 계획에 의거 방화동, 실내리 일대에 포격을 집중하였다. 그리고 제20군 제60사단과 제40군 제120사단의 일부부대는 정면공격과 동시에 부대간의 공간으로 침투하여 상해봉, 두류산으로 진출하였다. 전방연대들은 사단장의 진지 고수 명령에도 불구하고 중공부적에다, 후방지역에서 중공군의 출현이 확인되자 지난 해 10월 말 온정리 전투에서 경험한 ‘중공군에게 포위되면

끝장이다'라는 강박관념이 되살아난 듯 무질서하게 후방으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sup>37)</sup> 하지만 이때 사단은 이미 후방으로 진출한 중공군에 의해 퇴로가 차단되었음은 물론 통신마저 두절되어 혼란이 가중되고 부대의 통제도 불가능하였다. 좌전방 제19연대는 적중에 고립되었고 우전방 제2연대와 예비인 제7연대는 차량 및 장비를 포기하고 일부는 좌·우인접 부대로, 일부는 적의 포위망을 돌파하고 분산 철수하였다. 전선을 돌파한 중공군은 제7연대 후방의 국군 제27포병대대와 미 제2박격포대대 C중대를 공격하였고 이들은 유일한 철수로인 사창리-춘천 도로를 따라 신포리(新浦里)로 철수하였다. 사단이 주저항선에서 철수하자 이 일대에서 사단을 화력지원하던 미 포병부대들도 동쪽 북한강 지역으로 이동을 서두르고 있었는데 사창리에서 철수한 부대와 합류되면서 보병과 포병부대들로 대혼잡을 이루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적의 기습공격을 받게 되자 미 포병부대들도 다수의 화기를 유기한 채 철수하였다.<sup>38)</sup>

한편 국군 제6사단의 우인접 미 제1해병사단도 4월 21일 제5, 제7해병연대와 배속된 국군 제1해병연대로 화천저수지 북쪽의 와이오밍선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미 해병제1사단도 화천 점령을 기도하는 중공 제40군 주력부대의 정면공격과 국군 제6사단의 철수로 말미암아 노출된 좌측방을 통한 포위공격에 위기상황을 맞기도 하였으나 화력으로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하면서 북한강 동쪽으로 철수하여 춘천을 중심으로 한 캔사스선을 점령하였다.

23일 날이 밝아 중공군의 공격이 둔화되자 미 제9군단장 호지(William H. Hoge) 소장은 제6사단에 신속히 부대를 재편성하여 캔사스선 방어진지를 점령 적을 저지하도록 하였다. 사단은 이날 오후 제19연대를 국망봉(1168고지)-석룡산에, 제2연대를 화악산-매봉에 일대에 배치하였으나 어둠이 깔리자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한 적이 공격을 재개하였다. 사단은 방어진지를 고수하기 위하여 완강하게 저항하였으나 사기가 저하된 사단이 적의 파상공격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

사창리-가평 전투(1951. 4. 22~4. 25)



이었다. 부득이 사단은 영 제27여단의 엄호하에 가평 계곡을 향해 철수하여 24일 아침 가평 남서쪽 불기산(601고지) 일대를 점령하였다. 이때 사단은 소총 2,263정, 자동화기 168정, 2.36" 로켓포 66문, 대전차포 2문, 박격포 42문, 곡사포 13문 그리고 차량 87대의 손실을 입었다. 사단을 화력지원한 미 포병부대도 105밀리 곡사포 15문을 비롯하여, 4.2" 박격포 13문과 242대의 무전기 그리고 차량 73대의 손실을 입었다.<sup>39)</sup> 그리고 병력은 낙오자들이 계속 복귀하여 4월 25일에는 6,313명이 집결을 완료하였다.

이번 제6사단의 붕괴는 사단장의 개인문제가 아니라 지휘관 및 참모들의 지휘통솔 능력 및 전투능력 부족과 하사관들의 사기 저하 등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결국 이 전투를 통해 지휘력의 부족은 국군 내에 잠재해 있는 가장 큰 취약점으로 평가되었다.<sup>40)</sup>

## (2) 加平 戰鬥

가평에서는 이곳을 방어하고 있던 영국군 제27여단과 국군 제6사단을 추격한 중공 제118사단 간에 대결전이 전개되었다. 영 제27여단은 공세가 개시되기 직전인 4월 19일 사창리 서쪽에서 방어지역을 국군 제6사단의 제19연대에 인계하고 군단예비로 가평에 집결하였다. 이때 한국 파견 근무가 만료된 아질 대대<sup>41)</sup>의 홍콩 원대복귀 문제로 여단의 분위기는 다소 어수선하였다.<sup>42)</sup>

23일 미 제9군단장은 저녁까지도 사창리에서 철수한 국군 제6사단의 캔사스선(석룡산-화악산) 점령이 불투명하자 뉴질랜드 제16포병대대와 군단의 제213포병대대는 계속 국군 제6사단을 지원하고, 여단주력은 제6사단 후방의 가평천 계곡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여 춘천-가평 도로를 목표로 진출 중인 적을 차단하도록 하였다.

이 명령에 의거 여단은 국군 제6사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캐나다 대대<sup>43)</sup>를 가평천을 감제할 수 있는 좌전방 내촌(內村) 부근의 677고

지에, 호주 대대<sup>44)</sup>를 가평 계곡을 통제할 수 있는 우전방 죽둔리의 504고지 일대에 배치하여 북동쪽에서 계곡으로 접근하는 적을 저지하도록 하는 한편 아질 대대를 예비로 가평 부근에 집결 보유하고 있다.

사창리를 돌파한 중공 제118사단이 23일 야간공격을 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캔사스선에 배치되었던 국군 제6사단은 철수하기 시작하였고, 이어서 사창리 부근에서 사단을 지원한 제16포병연대<sup>45)</sup>도 경계부대인 미들섹스 대대<sup>46)</sup>와 함께 철수하여 가평 북쪽 가평천변에 배치되었다.

국군 제6사단의 철수가 완료된 22:00경 사단을 추격한 중공 제118사단의 선두 연대는 호주 대대의 배치 상황을 모르고 신속히 가평을 점령할 목적으로 중대 대형을 유지한 채 도로와 계곡을 따라 내려왔다. 우전방 호주 대대는 대대의 화력은 물론 지원된 전차 및 포병화력을 기습적으로 집중하여 적을 격퇴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은 24일 01:00경 전방에 배치되었던 전차소대가 재 보급을 위해 철수하자 즉시 2개 제대로 포위공격을 기도하였다. 호주 대대는 포위된 상황에서도 일부 진지가 피탈되면 즉시 역습으로 회복하면서 새벽까지 504고지 일대의 방어진지를 고수하였다.

날이 밝아 아군의 항공폭격과 포병사격이 집중되자 적은 공격을 중지하고 다수의 사체를 유기한 채 철수하기 시작하였고, 즉시 추격작전을 펼친 수색대는 죽둔리 부근에서 중공군 40명을 생포하였다.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한 여단장 버커(B. A. Burke) 준장은 적이 일시적으로 철수하였지만 캐나다 대대와 호주 대대 사이의 공백지역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농후할 뿐만 아니라 호주 대대의 우전방 감제고지인 504고지와 후방의 미들섹스 대대 지역이 적의 포격권에 들어 있어 부상자 후송과 재보급도 문제가 되므로 이 지역에 장시간 체류하면 오히려 피해만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호주 대대를 미들섹스 대대 후방으로 철수하도록 하였다.<sup>47)</sup>

중공 제354연대는 22:00경 박격포와 자동화기를 동원하여 2개 공

격제대로 좌전방 677고지의 캐나다 대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제 16포병연대가 가평천을 도하하는 적을 집중 포격하고 대대가 전화력을 집중하자 적의 공격은 현저히 둔화되었고 자정 무렵에는 공격이 중지되었다. 적은 25일 02:00경 캐나다 대대를 재공격하였으나 D중대의 유인작전에 말려 집중사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고 물러났다.

적은 23일과 24일 양일 동안 비교적 기동이 용이한 가평천 골짜기를 따라 진출하여 서울-춘천 도로의 차단을 기도하였으나, 여단의 강력한 저지작전과 포병의 화력지원에 많은 인명 피해를 입게 되자 25일 새벽 공격을 포기하고 철수하였다. 따라서 적의 유엔군 전선 분할 기도는 완전히 좌절되고, 아군은 북한강 남쪽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얻게 되었다.

영 제27여단은 3일간의 혈전을 종료하고 25일 밤에 미 제8군 예비에서 군단에 배속된 미 제1기병사단의 제5기병연대에 작전지역을 인계하고 양평으로 이동, 군단예비가 되었다. 이후 신임 여단장 테일러(G. Taylor) 준장이 취임하면서 부대명칭도 영 제28여단으로 개칭되었다.<sup>48)</sup>

미 제9군단은 4월 공세의 조공을 맞아 작전지역이 산악지대로 기동공간이 제한되어 우세한 기동력과 화력을 활용하지 못하여 공세 초기에 적의 야간 기습공격에 다소 고전하였다. 이로 인하여 사창리가 돌파되면서 가평이 크게 위협을 받게 되었으나 영 제27여단의 선전으로 가평을 고수하여 적의 전선 분할 기도를 좌절시켰다.

#### 4. 昭陽江 附近 戰鬪

중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 제3군단은 3월 초순부터 재반격작전을 개시하였으나 공격축선상의 지형이 험준할 뿐 아니라 인민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중서부전선 부대들이 캔사스선에서 철의 삼각지대로 공격을 개시할 무렵 화천저수지-남전리-한계령을 연하는



캔사스선에 도착하여 전선을 정비하였다.

제8군사령관은 4월 20일 중부전선에서 미 제1, 제9군단의 와이오밍선 공격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동서로 배치된 국군 제1군단과 제3군단의 주보급로인 홍천-인제-간성 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도로의 북쪽 10~22km에 위치한 양구-대암산-가전리-사천리-고성 남쪽을 연결하는 알라바마(Alabama)선을 목표로 24일부터 공격작전을 전개하도록 명령하였다.<sup>49)</sup>

미 제10군단에 배속된 국군 제5사단과 제3군단에 배속된 제3, 제7사단이 공격준비에 주력하는 동안, 공교롭게도 공산군의 4월 공세의 조공인 인민군 제5군단이 양구-원통 선에서 22일 선제공격을 개시함으로써 중서부전선에 이어 동부전선에서도 국군 제3사단과 제5사단이 인민군과 치열한 전투를 펼치게 되었다.

### (1) 麟蹄 爭奪戰

미 제10군단에 배속된 국군 제5사단은 4월 19일 소양강을 도하, 좌전방 제35연대가 가아리(加兒里), 우전방 제36연대가 원통 북쪽의 봉화산(579고지)으로 진출하여 전술적 요충인 인제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 무렵 알라바마선 공격계획에 의거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3군단의 전투지경선이 일부 조정되어 사단은 인제 북쪽의 제36연대 지역을 제3군단의 좌전방으로 투입된 제7사단 제5연대에 인계하고, 양구 동쪽의 좌인점 미 제7사단 제32연대 지역을 인수하게 되었다.<sup>50)</sup>

이 계획에 의거 먼저 제36연대는 22일 18:00에 제5연대에 책임지역을 인계하고 사단예비가 되어 인제로 철수하였고, 작전지역의 변동 없이 우전방 연대가 된 제35연대는 위력수색과 대암산(1316고지) 공격준비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사단예비인 제27연대는 미 제32연대의 양구 동쪽 야촌리(野村里) 지역을 인수하기 위하여 남전리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인민군 제5군단은 22일 아군이 진지교대를 하는 가장 취약한 시기에 제45사단이 양구, 제12사단이 인제, 제6사단이 한석산(1119고지)을 목표로 야간공격을 개시하였다. 이중 인제로 공격한 인민군 제12사단은 23:00경 대암산 남쪽의 국군 제5사단 제35연대 전초진지(873고지)를 점령하고 주저항선으로 접근하였다.

제35연대는 22일 자정부터 정면돌파를 기도하는 적의 집중공격을 받았으나 화력전과 백병전을 펼쳐 돌파를 저지하였다. 물러난 적은 정면공격이 부진하자 일부 병력을 우인접 제5연대와 전투지경선 부근에 생긴 배치 공간으로 침투시켜 동측에서 연대의 퇴로 차단을 기도하였다. 포위를 우려한 우전방 제3대대가 원통리로 철수하면서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어 연대주력도 주저항선에서 물러나기 시작하였다.

23일 새벽 중·서부전선에 이어 중동부전선에서도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미 제8군사령관은 24일로 계획된 동부전선 부대의 알라바마선 공격명령을 취소하고 군단간 전투지경선을 조정하여 적의 공세를 저지하도록 명령하였다.<sup>5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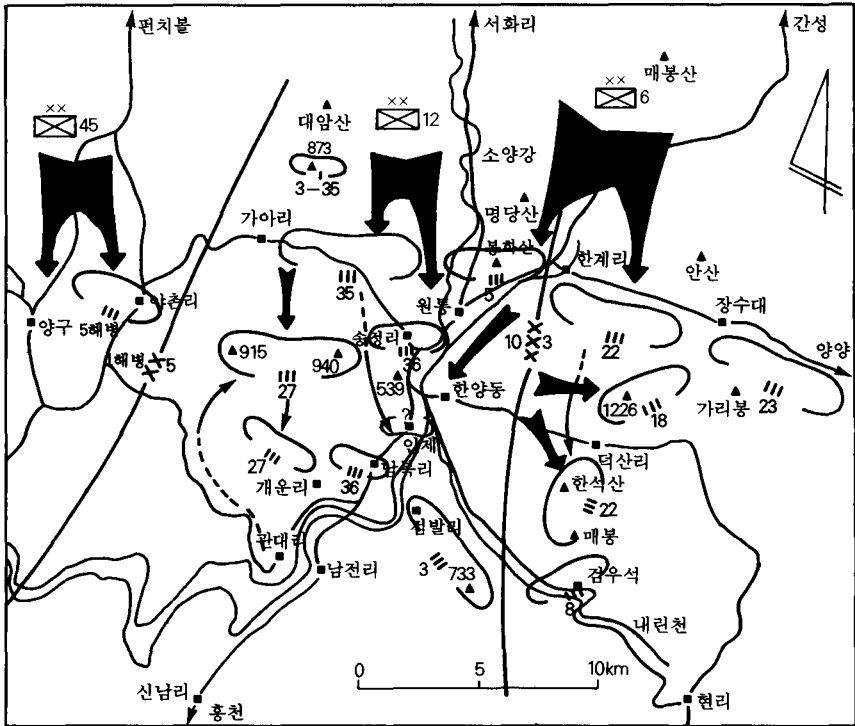
이 명령에 의거 제7사단 제3연대와 제5연대가 제5사단에 배속되고 작전지역도 동쪽으로 확대되었다. 사단장 민기식(閔機植) 준장은 인제를 사수하기 위하여 좌전방 제27연대를 인제 북서쪽 고지군에, 중앙 제36연대를 인제 북쪽의 고지군에, 우전방 제5연대를 원통리에 배치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그리고 제3연대는 사단예비로 소양강 남쪽의 한양동에 배치하고 인제 남쪽으로 철수한 제35연대는 재편성을 하도록 하였다.

사단이 방어진지 편성에 주력하는 동안 적도 서화리-원통 축선에 병력을 증원한 후 정오 무렵 제36연대와 제5연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양 연대는 격전을 펼쳤으나 제5연대의 좌우측방을 돌파한 적이 후방으로 진출하자 포위를 우려한 연대가 철수를 시작하면서부터 상황은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24일 새벽 사단은 다시 인제를 적의 수중에 넘겨주고 전선을 조정하여 좌전방 제27연대를 개운리 북쪽에,

중앙 제36연대를 남북리에, 사단예비인 제3연대를 우전방 소양강 동쪽 검발리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인제 남쪽으로 철수한 제35연대와 제5연대는 분산 철수한 부대와 낙오병을 수집하여 신속히 재편성을 완료하도록 하였다.

인제를 탈취한 적이 공격을 중지하고 방어로 전환하자 미 제10군 단장은 25일 전술적 요충인 인제를 탈환하도록 명령하였다. 사단은 06:00에 제36연대의 제2대대와 미 제7사단에서 배속된 전차 5대로 보전 협동작전을 전개하여 정오경 인제를 재탈환하였다.<sup>52)</sup> 그러나 대대는 20:00에 박격포와 야포의 지원을 받는 1개 대대규모의 적으로부터 역습을 받아 인제를 포기하고 소양강 남쪽의 주저항선으로 복귀

소양강 부근 전투(1951. 4. 22~4. 26)



하였다. 인제를 적의 수중에 넘겨준 이후 쌍방간에는 포격전만 계속되었고 전투는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 (2) 寒石山 爭奪戰

제3군단의 제3사단은 험준한 태백산맥의 준령을 따라 전진하여 인제-간성 도로와 원통-양양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한석산-가리봉으로 진출하여 좌전방 한계리에 제22연대를, 우전방 가리봉에 제23연대를, 그리고 제18연대를 사단예비로 덕산리에 배치하고 주저항선 방어와 정찰활동에 주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7사단은 군단예비로 군단 후방지역에서 공비 소탕작전을 펼치고 있었으나, 미 제8군의 알라바마선 공격계획에 의거 4월 22일 오후에 제5사단의 원통지역을 인수하고 좌전방 사단으로 투입되었다.

이날 저녁 좌인접 제5사단 제35연대가 격전을 펼치고 있을 무렵 군단정면에서도 제22연대 전초부대가 한계리 북쪽에서 대대규모의 적과 치열한 격전을 펼친 후 주저항선으로 복귀하였다. 23일 전선 조정 계획에 따라 08:00에 제7사단의 제3, 제5연대가 제5사단에, 제8연대가 제3사단에 배속되고 전투지경선도 제7사단이 투입되기 이전의 상황으로 환원되었다.

인민군 제6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공격을 재개하여 정오 무렵 제5연대와 제22연대의 전투지경선 부근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제22연대는 항공 및 포병화력을 지원받아 주저항선을 고수하기 위하여 치열한 격전을 펼쳤으나 14:00경 좌인접 제5연대가 돌파되면서부터 상황은 급속히 악화되었다. 주저항선을 돌파한 인민군 제6사단은 일부 부대를 좌인접에서 제5사단을 공격 중인 인민군 제12사단을 지원하고 주력은 제22연대를 공격하였다. 이 공격에 연대는 한석산을 피탈당하고 10km를 철수하여 매봉 일대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사단장 김종오(金鐘五) 준장은 제22연대가 철수하고 있을 무렵 제

18연대에 1개 대대는 제22연대를 지원하고 연대주력은 제22연대와 제23연대의 배치 공간인 한석산 북동쪽 고지군을 점령하여 적의 후방 진출을 저지하도록 조치하였다. 사단은 24일 제22연대 제2대대와 제18연대 제2대대로 14:00부터 2시간 동안 예측을 불허하는 고지쟁탈전을 펼쳐 힘겹게 한석산을 탈환하였다. 사단이 한석산 전투에 주력하고 있을 무렵, 적의 일부부대가 인제-현리 도로를 따라 침투를 기도하자 사단에비로 배속된 제8연대가 검우석 일대의 저지진지를 점령하여 적의 후방 진출을 저지하였다.

한석산에서 물러난 적은 병력을 증원받아 25일 정오경 1개 연대규모로 한석산을 다시 공격하였다. 한석산의 제22연대 제2대대는 백병전을 펼쳤으나 상황이 불리하고 적의 야간 포위공격을 우려하여 두 번째 매봉(1064고지)으로 철수하였다.<sup>53)</sup> 한석산을 점령하여 사기가 고조된 적은 26일 새벽에 매봉 진출을 기도하였으나 연대는 전 화력을 집중하여 격퇴하였다. 그러나 적은 연대가 계속된 전투로 지쳐 있을 뿐만 아니라 탄약 및 식량 보급의 제한으로 사기가 저하되었음을 간파하고 10:00경 재공격을 개시하였다. 연대는 매봉 일대에서 피아의 식별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벌인 치열한 백병전 끝에 적을 격퇴하였다. 2차에 걸친 적의 공격을 격퇴하여 사기가 오른 제22연대는 공격제대를 재편성한 후 14:00에 피탈된 한석산을 공격하여 재탈환하였다.

쌍방은 인제-원통 도로와 주변 저지대를 통제할 수 있는 한석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4일 동안 한치의 양보도 없는 고지쟁탈전을 펼쳤지만 결국 사단이 이 고지의 주인이 되었다. 이날을 고비로 사단정면의 적 활동이 현저하게 감소되자 사단은 검우석-한석산-가리봉을 연하는 선에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차후작전에 대비하였다.

국군 제3사단과 제5사단은 부대교대와 알라바마선 공격준비로 방어가 소홀한 상황에서 4월 공세의 조공인 인민군 제5군단의 예상하

지 못한 기습공격을 받았다. 이로 인하여 인제를 피탈당하였으나, 소양강에 배수의 진을 치고 완강하게 저항하여 인민군의 진출을 이 선에서 저지하였다.

## 5. 서울 固守 防禦 作戰

중공군은 충분한 사전준비로 공세작전의 성공을 확신하고 4월 22일 공세를 개시하였으나 공격개시 5일 만인 26일 조공부대들은 중부전선의 가평-춘천과 중동부전선의 소양강에서 저지되어 이 전선에서는 소강상태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주공으로 서부전선에 투입된 중공 제19병단과 인민군 제1군단은 임진강변에서 국군 제1사단과 영 제29여단의 강력한 저항과 항공폭격 및 포병사격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추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서울을 목전에 둔 이날부터 적이 과감하게 주간 공격작전으로 전환함으로써 쌍방은 서울 외곽에서 이번 공세의 분수령이 될 치열한 일전을 펼치게 되었다.

### (1) 美 第8軍司令官의 作戰 方針

적의 4월 공세가 개시되기 전 미 제8군의 작전개념은 공산군의 공격으로 철수를 강요받게 되면 성동리-노고산-덕정-포천-가평을 연하는 델타(Delta)선과 서울 외곽의 수색-북한산-덕소를 연하는 골든(Golden)선, 그리고 한강-양평-횡성-양양을 연하는 네바다(Nevada)선으로 축차적인 철수를 하면서 공산군에게 최대의 출혈을 강요한 후 반격작전으로 전환하여 다시 캔사스선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제8군은 미 제1군단이 골든선을 점령하면 다른 군단들도 기 계획

된 방침에 의거 네바다선으로 철수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한강 이북의 서울도 포기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제8군사령관은 26일 미 제1군단의 예하 사단들이 골든선으로 철수하기 직전에 이 작전개념을 수정하여 골든선 동쪽에서 연결되는 네바다선보다 30~40km 북쪽의 용문산-홍천-한계령-속초를 연하는 새로운 방어선인 노네임(No Name)선을 설정하고 군단간 전투지경선을 일부 조정한 후 골든-노네임선을 방어할 것을 명령하였다.<sup>54)</sup>

노네임선 확보는 전략, 전술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전술적으로는 미 제1군단의 골든선 방어를 우측방에서 지원함은 물론 부득이 철수하더라도 동측방에서 서울을 재탈환할 수 있는 공격의 발판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였다. 전략적으로는 중동부전선 부대가 네바다선 점령을 위해 북한강 이남으로의 자발적인 철수로 인한 영토 포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의 세 번째 포기로 한국 국민이 받을 심리적인 타격과 손상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 방침에 의거 제8군사령관은 미 제1군단이 서울 방어에 주력할 수 있도록 그동안 우측방을 엄호하던 미 제24사단을 미 제9군단으로 배속 전환하여 제1군단의 방어정면을 축소 조정하고, 또한 군예비인 미 제1기병사단을 제1군단에 배속하여 강력한 예비대를 보유할 수 있게 하였다.

## (2) 美 第1軍團의 골든선 占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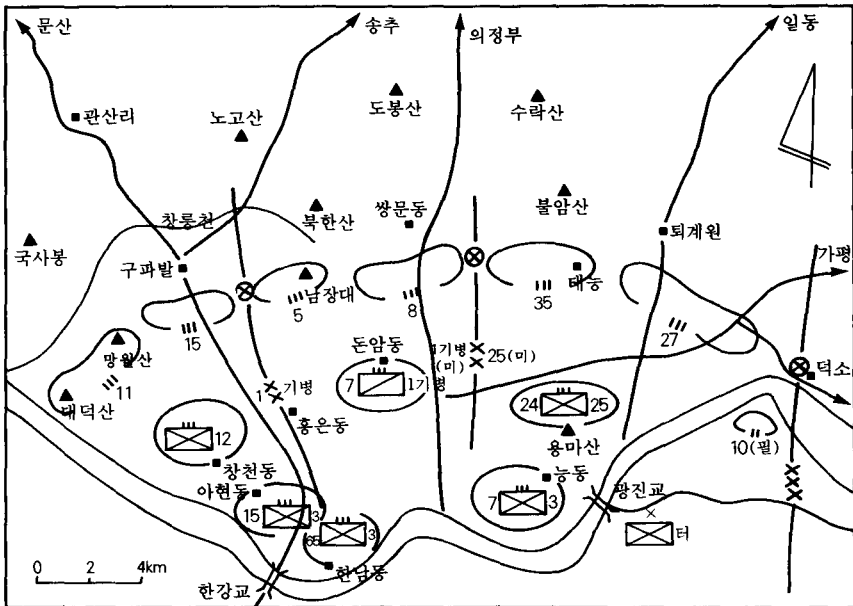
미 제1군단은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의한 파상공격에 밀려 4월 25일 성동리-덕정-포천을 연하는 델타선을 점령하였으나 이 선은 캔사스선과 같은 영구적인 방어선도 아니며 또한 방어시설을 갖춘 것도 아니었으므로 이 선에서는 강력한 저항이나 지속적인 점령은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군단이 서울 외곽의 골든선으로 철수하는 단계에서

부대의 철수를 조정 통제하고, 방어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획득하기 위하여 적에게 출혈을 강요하고 전진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설정된 통제선이었다.

그리고 군단장은 포병부대가 유효사거리 내에 잔류하면서 철수하는 보병부대에 지속적인 강력한 화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델타선과 골든선 사이에 추가로 2개의 통제선을 설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 통제선에서의 철수는 추격 중인 중공군에게 효과적인 타격을 줄 수 있도록 항공 및 포병사격이 용이한 주간 철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sup>55)</sup>

중공군은 주저항선과 캔사스선에서 그들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화력장벽에 부딪쳐 엄청난 인적, 물적 손실을 입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델타선 돌파를 시도하였다. 또한 일부 부대를 경춘국

서울방어배치(1951. 4. 29)





도로 진출시켜 서울방면에 대한 압력을 한층 강화하였다. 이로 인하여 미 제1군단은 축차진지인 델타선 방어에 실패하고 급기야는 서울방어의 마지막 보루인 골든선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전방사단들은 군단의 방침에 따라 군단의 가용 포병화력과 항공지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적의 추격을 차단하고 아군의 전투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접부대간 횡적 연결을 유지하면서 철수작전을 개시하였다.

군단장은 4월 28일 새벽 4월 공세가 개시된 이후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야간 기습공격을 감행하던 공산군이 전날 밤만은 야간공격을 중지하자 이를 공산군이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는 징후라고 판단하고 예하 사단에 골든선을 점령하여 방어준비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명령하였다.<sup>56)</sup>

좌전방 국군 제1사단은 한강하구-구과발에, 중앙의 미 제1기병사단은 구과발-쌍문동에, 그리고 우전방 미 제25사단은 쌍문동-덕소간의 골든선을 점령하였다. 이때 연천-전곡-동두천-의정부 축선에서 중공 제19병단과 격전을 벌였던 미 제3사단은 군단예비로 전환되어 전방사단의 후방지역에 1개 연대씩 배치하였다. 이로써 군단은 북한산을 연하여 상호 협조되고 요새화된 강력한 방어선을 형성하였고 방어정면도 축소되어 포병을 보다 강력하게 집중 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예비대도 확보하였다. 골든선에 배수의 진을 친 미 제1군단은 중공군이 춘계공세를 개시한 이후 앞서 점령하였던 어떤 방어선에서 보다는 훨씬 강력한 방어력을 갖추고 적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 (3) 花田里 戰鬪

국군 제1사단은 인민군 제1군단 예하 제8사단과 금촌, 동거리 일대에서 치열한 지연작전을 전개하여 적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나 전선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울 외곽으로 철수하였다. 군단명령에 의거

29일 제11연대는 화전리 일대에, 제15연대는 불광동 일대의 골든선 방어진지를 점령하였다. 이때 사단이 점령한 진지는 미 제8군의 예비 계획에 따라 4월 초순부터 은밀히 사단 작전요원들의 감독하에 지역 주민을 동원하여 유개호 진지와 교통호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방어 시설이 완벽하였다.<sup>57)</sup>

문산-서울 축선으로 진출한 인민군 제8사단은 일산 부근에서 재편성을 한 후 28일 새벽 1개 연대규모를 행주나루터로 은밀히 침투시켜 김포비행장 방면으로 도하를 기도하였으나 사단수색대에 발견되어 2시간 동안 인천 외항에 대기 중인 순양함 톨레도(Toledo)호의 8인치 함포사격을 받고 다수의 사체를 유기한 채 북으로 철수하였다.<sup>58)</sup>

적은 아군의 함포사격에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탈취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정오부터는 소규모 부대를 투입하여 전초대대를 공격하였다. 적의 기도를 탐지한 사단은 적을 유인하기 위하여 전



서울 녹번동 부근에서 포병부대가 적의 춘계공세를 저지하기 위하여 지원사격을 하고 있다.

초대대를 철수시켰다. 자정 무렵 적은 서울로 진출하기 위하여 증강된 1개 연대규모로 경의선 철로와 국도를 따라 중대대형을 유지한 채 좌전방 제11연대 지역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잠시후 그 선두부대가 철조망까지 접근하였음을 알리는 조명지뢰가 폭발하였고, 이와 동시에 연대의 전화력은 물론 전차포와 군단내의 전포병의 집중사격이 개시되었다.

서울로 먼저 진출하기 위하여 4열 중대로 내려오던 인민군 대열은 순식간에 흩어졌고 특히 그들 중 일부는 철조망 직전방에 위치한 화전역 부근의 철로 사이의 골짜기로 피신하였다. 그러나 그곳은 사단 공병이 지뢰를 매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방중대가 탄막을 계획한 살상지대로서 적은 엄청난 인명 손실을 입었다.<sup>59)</sup> 그러나 이때부터 적은 4시간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무의미할 정도의 돌격을 감행하였고 전방 중대들은 이때마다 수류탄과 총검이 난무하는 육박전을 펼쳐 적을 격퇴하였다. 집요하게 진지 돌파를 기도하던 적도 새벽이 되자 짙은 안개를 이용 철수하기 시작하였고, 전방대대들은 정찰대를 파견하여 진전정찰을 실시한 결과 900여구의 시체를 확인하였다.<sup>60)</sup>

제11연대가 인민군 제8사단과 혈전을 펼치고 있을 무렵 중공 제64군의 일부는 인민군 제8사단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전방 제15연대 지역으로 양공작전을 개시하였다. 연대는 공격 초기에는 완강하게 저항하였으나 계속된 중공군의 파상공격과 연대를 지원하던 아군 포병의 오폭이 겹쳐 주저항선의 일부와 사단 방어지역을 감제할 수 있는 앵봉을 피탈당하였다. 사단장은 피탈된 진지를 회복하기 위하여 30일 사단예비인 제12연대 제1대대와 미 전차중대를 투입하여 보전협동으로 중공군을 격퇴하였다. 이 작전으로 적이 잔류 접촉 분견대만 남기고 주력부대는 금촌-앵무봉을 연하는 선으로 철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 무렵 중앙의 미 제1기병사단은 도로망이 결핍된 북한산, 도봉산 일대로 중대규모 이하의 소부대로써 무려 39회에 걸쳐 침투공격을

기도한 중공군을 격퇴하였다. 그리고 우전방 미 제25사단도 퇴계원 부근에서 주저항선 돌파를 기도하는 중공 제65군을 포병사격과 항공 폭격으로 1,000여 명을 살상하며 방어진지를 고수하였다.<sup>61)</sup>

드디어 중공 제19병단이 그들의 마지막 승부수로 무모하게 골든선을 공격해 보았지만 참패하고 철수함으로써 중공군의 4월 공세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서울을 목표로 개성-서울 축선과 연천-서울, 포천-서울 축선으로 양익포위를 기도한 중공군의 4월 공세는 공세초기에는 가공할 정도로 위협적이었으나 주공이 국군 제1사단과 영 제29여단의 임진강 방어진지 돌파에 지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공은 가평과 인제에서 차단되어 유엔군 주력부대의 퇴로 차단에 실패하였다. 또한 아군의 항공 및 포병화력을 이용한 조직적인 지연작전으로 당초 계획하였던 유엔군의 격멸은커녕 오히려 서울 북방에서만 7만 5천~8만 명이 사살되고 5만 명이 부상을 입었다.<sup>62)</sup> 또한 공세작전을 일주일 이상 계속 수행할 만한 병참 지원능력이 없음도 다시 한번 드러내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유엔군은 중서부지역은 60km, 중동부지역은 35km의 지면을 상실하였으나 서울북방 골든선-마석우리-대포리를 연하는 노네임선에서 서울을 방어하고 적을 저지하여 중공군의 4월 공세를 일단락지었다.

## 6. 偵察基地 確保 作戰

중공군의 4월 공세를 격퇴한 국군과 유엔군이 골든-노네임선에서 부대 재배치와 방어진지 보강에 주력하고 있을 무렵인 5월 1일 포로들의 진술과 정보판단에 의하면, 적은 4월 공세에서 막대한 인적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군의 병력은 63만 9천 명(중공군 54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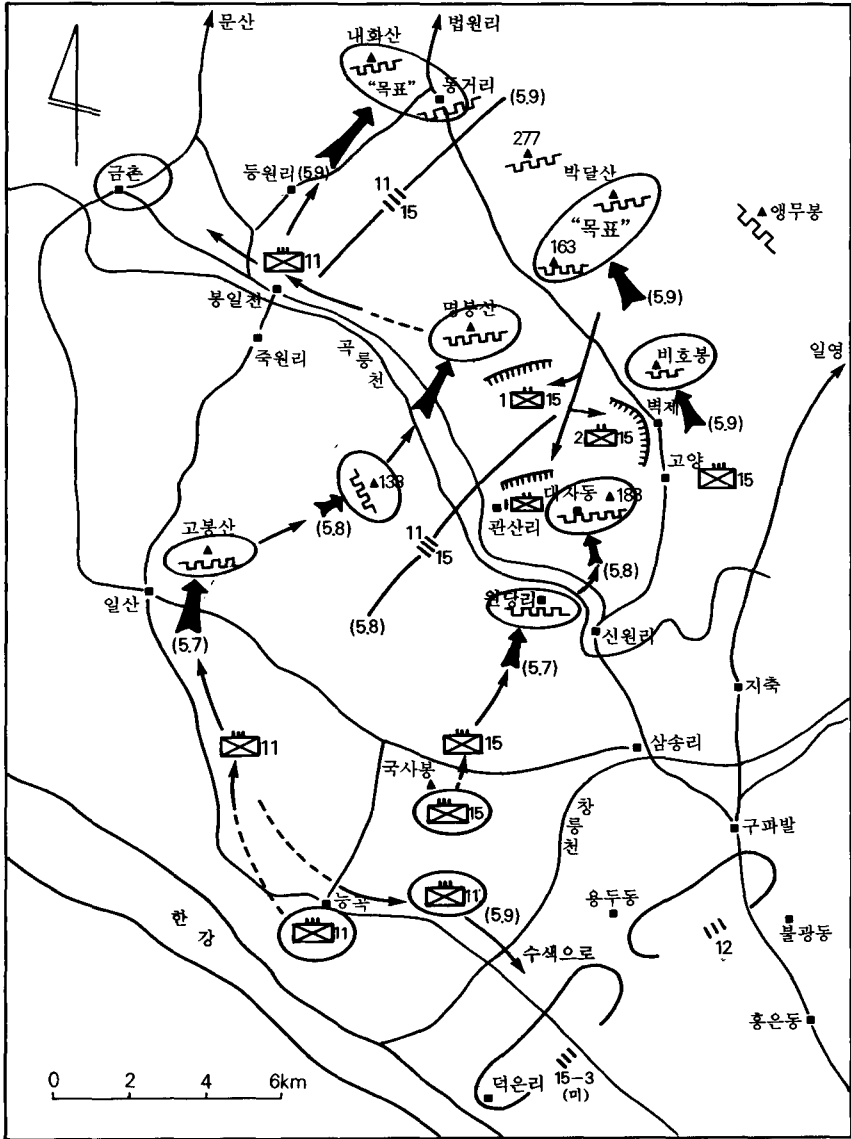
2천 명, 인민군 19만 7천 명)이었고, 또 만주에는 이들을 증원할 수 있는 예비병력 75만 명이 주둔하고 있었다. 반면 아군은 50만 3천 명(유엔군 26만 9천 명, 국군 23만 4천 명)으로 수적인 열세를 면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공산군이 비록 후퇴하였지만 병력을 증원받아 재편성을 완료한 후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sup>63)</sup>

이때 아군은 적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선 북쪽 5~10km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정찰하였으나 국군 제1사단 전방에 인민군 제8사단이 배치된 것 외에는 특별한 적의 활동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에 제8군 사령관은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함과 아울러 적의 기도 탐지를 위한 정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강하구-황계에 이르는 주저항선 북쪽 10km 지점에 사단별로 연대규모의 정찰기지를 설치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각 군단의 전방사단들은 주저항선 전방에 정찰기지를 설치하여 방어중심을 증가시키는 물론, 적정을 탐지하기 위하여 정찰대들은 화력의 엄호하에 적진 깊숙히까지 정찰작전을 펼쳤다. 이때 공산군은 전 전선에서 아군과 접촉을 회피하는 등 활동이 소극적이었으나 유일하게 국군 제1사단이 방어 중인 문산-서울 축선에 인민군 제8사단을 투입하여 정찰기지 설치를 저지하였다.<sup>64)</sup> 따라서 제1사단은 적 제8사단과 한 차례 전투를 치러야만 하였다.

미 제1군단장은 제1사단의 정찰기지 확보는 물론 이번 기회에 적 제8사단을 완전 격멸할 목적으로 5월 6일 군단예비인 미 제3사단으로 하여금 서울 북서쪽 덕은리-용두리-불광동 간 제1사단의 주저항선을 인수하도록 하고, 제1사단은 작전지역을 인계하고 사단공격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사단은 제11연대를 능곡 일대로, 제15연대를 국사봉(109고지) 일대로 진출시켜 공격준비를 완료한 후 7일 06:00에 미 제3사단의 엄호하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우전방 제15연대는 적정이 경미하여 원당리 부근으로 진출하였으나 좌전방 제11연대는 주변 저지대를 감제 관측할 수 있는 일산 북쪽 고봉산(209고지) 일대에 강

봉일천 부근 전투



력한 방어거점을 구축한 적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공격이 일시 둔화되었다. 연대는 이날 오후에 강력한 항공폭격과 보전포 협동작전으로 5시간 동안 활전을 펼쳐 적을 고봉산에서 격퇴하였다. 8일 공격을 재개한 사단이 최종 목표인 봉일천 동쪽의 명봉산(248고지)과 188고지를 확보하고 작전을 종료할 무렵 미 제1군단장은 적을 계속 공격하여 전과확대는 물론 적을 북쪽으로 격퇴하고 유리한 지형을 확보할 것을 명령하였다.

사단은 9일 문산천 주변의 개활지를 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차후 공격의 발판이 되는 고지군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11연대는 내화산-동거리로 우회 기동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우전방 제15연대는 일련의 연결된 고지군을 따라 동거리로 공격하였다. 제11연대는 접적이 경미하여 최종목표인 내화산, 동거리를 확보하고 적의 퇴로를 차단하였으나, 제15연대는 우세한 포병 및 전차 화력지원에도 불구하고 북으로 진출할수록 인민군의 완강한 저항과 중공군의 증원으로 163고지와 박달산 부근에서 공격이 둔화되었다. 미 제1군단장은 국군 제1사단의 전투력과 우인접 미 제1기병사단 전선과 균형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공격작전을 종료하고 1개 연대로 정찰기지를 확보한 뒤 사단주력은 주저항선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다.

사단은 10일 오후 제15연대를 문산-서울 도로변의 명봉산-대자동-관산리 일대의 정찰기지에 배치하고 주력은 다시 미 제3사단으로부터 주저항선을 인수한 후 골든선의 방어태세를 보강하면서 위력수색에 열중하였다.

## 7. 主補給路 確保 作戰

미 제8군사령관은 중서부전선의 골든-노네임선 방어진지가 강화되고 정찰기지 설치가 완료되자, 전선조정에 따라 노네임선으로 철수

하여 적의 수중에 넘겨준 중동부전선의 중요 전술도로인 홍천-인제-간성 도로를 탈환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동부 산악지대에 배치된 국군 제1, 제3군단은 부대기동과 군수지원을 험준한 계곡 통로인 속사리-현리-인제 도로에 의존함으로써 작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제8군사령관은 특히 제3군단의 보급지원 문제를 해결하고 또 아군이 차후 화천저수지 동쪽에서 공세작전으로 전환시 유리한 기동로를 확보할 목적으로 미 제10군단에 배속된 국군 제5, 제7사단, 국군 제3군단에 배속된 제3, 제9사단, 국군 제1군단에 배속된 수도, 제11사단을 투입하여 홍천-인제-간성 도로의 10~25km 북쪽 가리산-신월리-915고지-1037고지-대진리를 연하는 미조리(Missouri)선을 확보하도록 하였다.<sup>65)</sup>

이 계획에 의거 국군 6개 사단(제3, 제5, 제7, 제9, 제11, 수도사단)은 5월 7일 이 선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때 한석산 좌측에서 소양강 남쪽의 부평리-청구리 일대를 공격한 제5, 제7사단은 점적이 경미하여 용이하게 공격 목표로 진출하였으나, 한석산을 공격한 제9사단과 설악산을 공격한 수도사단은 인민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격전을 치르게 되었다.

### (1) 鷹峰-寒石山 戰鬪

중공군의 4월 공세시 제9사단은 제1군단의 예비로 강릉에서 부대를 재정비한 후 4월 25일 제3군단에 배속되었고, 27일에는 이성가(李成佳) 준장의 후임으로 최석(崔錫) 준장이 사단장으로 취임하였다. 사단은 5월 2일 제7사단 제8연대 지역을 인수하여 제3군단의 좌전방사단으로 현리 북쪽 7km의 산악지대를 방어하던 중 7일 인제 북쪽의 미조리선을 공격하게 되었다.

사단의 공격목표인 한석산(1119고지)과 그 남쪽의 매봉(1066고지)은 지난 4월 25일 제3사단의 제22연대가 피탈당한 고지로서 주변 현



리, 인제, 원통을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후공격의 발판이 되는 중요 감제고지였다. 이러한 전술적 중요성을 간파한 인민군 제6사단도 소양강에 배수의 진을 치고 이들 고지 일대에 2개 연대규모로 강력한 거점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제30연대 제3대대는 07:00에 기도비닉과 기습 효과를 노려 질게 끼인 안개를 이용하여 가파르고 협소한 능선을 따라 매봉 공격의 발판이 되는 910고지를 공격하였으나 10:00경 안개가 사라지면서 적의 저항은 완강하였고, 또 협소한 기동공간에 대대가 밀집되어 적의 사격에 부상자도 증가하고 공격이 일시 둔좌되었다. 대대는 신속히 부대를 재편성한 후 3.5" 로켓포를 집중하면서 적진을 공격하여 13:00경 910고지를 점령하였다. 대대는 공격기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9중대로 매봉을 공격하였으나 중대는 예상하지 못한 적의 기습적인 수류탄 공격을 받아 분산 철수하였고, 이때부터 작전지역은 쌍방의 화력전으로 포연과 산불의 매연에 휩싸여 시계가 제한되었다. 이 때문에 대대의 탄약 지원소대 노무자들은 910고지까지 탄약을 운반하느라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였다. 그럼에도 그들은 불평 한 마디 없이 소임을 다하여 장병들에게 귀감이 되었다.<sup>66)</sup>

제3대대는 8일 목전의 매봉을 점령하기 위하여 재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유리한 지형을 선점한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피해만 증가되어 공격이 둔좌되었다. 대대가 재편성을 하는 동안 적이 910고지의 좌측방 850고지에서 오전과 오후에 1개 대대규모로 역습을 해 와 위기상황을 맞기도 하였으나 전화력을 집중하여 이 적을 격퇴하였다.

이때 대대장 김진동(金鎭東) 중령은 수색정찰과 포로의 심문에서 적이 매봉 일대에 중점적으로 배치되었음을 확인하고 정면공격으로는 목표 탈취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9일 새벽 야음을 이용 제10중대를 매봉 우측방의 856고지로 우회기동시켜 적의 측방을 공격하였다. 제10중대가 측방으로 진출하면서부터 전방지역에 대한 적의 저항이 현저히 감소되었고 대대는 근접 항공지원하에 매봉을 포위공격하여 공

격개시 3일 만에 요지부동인 적을 격퇴하고 매봉을 점령하였다. 이때 적은 방어거점인 매봉을 고수할 목적하에 전투원들의 전선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호가 없는 진지를 구축하고 또 공용화기 사수들은 기관총에 발목을 묶는 잔악행위를 하였다.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한 연대는 예비인 제1대대를 투입하여 10일 저녁 무렵 한석산마저 점령함으로써 소양강 건너 인제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전투에서 제30연대 제3대대는 390여 명의 전사상자를 낸 반면 895명을 사살하고 다수의 탄약과 장비를 노획하는 대전과를 올려 대대의 전사병이 일계급 특진하였다.<sup>67)</sup>

## (2) 雪嶽山 附近 戰鬪

동해안으로 재반격작전을 개시한 제1군단은 4월 15일 한계령-오색리-관도봉을 연하는 선으로 진출하여 좌전방에 수도사단, 우전방에 제11사단을 배치하여 주저항선을 구축하였다. 군단도 중공군의 4월 공세를 맞았으나 다른 전선과는 대조적으로 군단정면에서는 접적이 경미하여 공세작전으로 전환하는데 용이하였다. 수도사단은 군단의 주공으로 적의 보급 및 병력의 집결지로 판단되는 설악산을 점령하고 가리봉-용대리로 진출하기 위하여 약수리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이때 인민군 제6사단은 가리봉-대승령-노동(路洞)을 연하는 선에 단애와 협곡 그리고 울창한 삼림을 이용하여 강력한 거점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사단의 공격은 첫날부터 험준한 지형과 산악 특유의 짙은 안개로 지연되어 8일 제1연대가 가리봉(1519고지)을, 제1기갑연대는 백담사 부근의 노동을 공격하게 되었다. 가리봉은 용대리-양양, 인제-가리산리-현리 도로를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고지를 제1연대가 점령하면 좌인접에서 공격 중인 제3사단과 우인접 제1기갑연대의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감제고지였다. 제1연대는 공격간 강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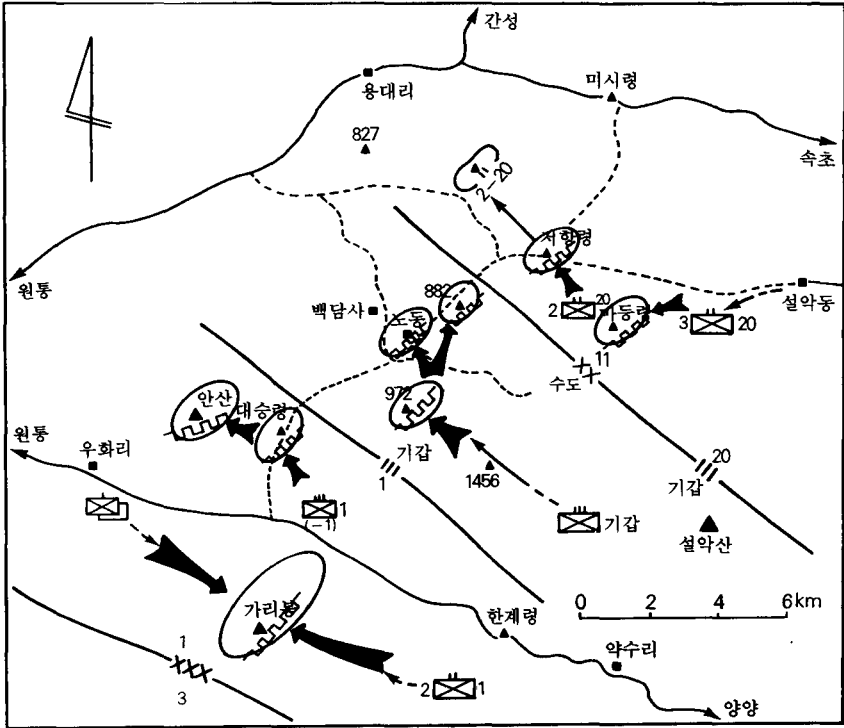
한 기관총 저지사격에 일시 둔좌되기도 하였으나 포병의 엄호하에 근접전투와 치열한 백병전을 펼쳐 힘겹게 가리봉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제1기갑연대도 포병의 화력지원을 받아 노동을 강제할 수 있는 972고지를 점령하였다.

가리봉에서 철수한 인민군 제6사단의 제1연대는 그들의 후보급로인 용대리-간성 도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패잔병과 증원 병력으로 부대를 재편성한 후 대성폭포-백담사-노동을 연하는 선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sup>68)</sup>

사단은 전과확대를 목적으로 적을 추격하였으나 적이 요지요부에 기관총 진지를 구축하고 완강히 저항하여 공격이 부진하였다. 특히 산악지형에서 적의 기관총 총성은 험준한 산악기동으로 체력이 소진되고 식량과 탄약을 재보급받지 못하여 사기가 저하된 장병들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미쳐 사단의 공격은 둔좌되기 일쑤였다. 사단이 공격을 일시 중지하고 공격제대를 재정비하고 있을 무렵인 10일 아침에 2개 중대규모의 적이 가리봉을 재탈환하기 위하여 기습공격을 해 옴에 따라 치열한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다시 전개되었다. 제1연대의 예비인 제1대대는 제2대대로부터 가리봉을 인수하는 도중에 불의의 일격을 받아 상황이 불리하여 철수한 다음, 3차에 걸친 역습을 펼쳐 11일 새벽에 재탈환하였다. 이후 사단은 철수하는 적에게 재편성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하여 11일 새벽부터 보포의 협조된 공격을 개시하여 좌전방 제1연대가 안산(1430고지)을, 우전방 제1기갑연대는 노동을 점령하여 차후공격의 발판을 확보하였다.

한편 수도사단의 우인접으로 진출한 제11사단의 제20연대는 1,000m 이상의 험준한 설악산 준령을 따라 적을 추격하였다. 계절은 봄이지만 고봉 준령에는 아직도 백설의 잔해가 남아 있어 기동공간의 식별도 어렵고 기동로도 미끄러워 진진 속도는 매우 완만하였다. 특히 산악지대에서는 기동공간도 협소할 뿐 아니라 탄약과 식량의 보급이 극히 제한되어 작전은 중대별로 윤번제로 실시되었다. 5월 11일 제5중

설악산 부근 전투(1951. 5. 7~5. 13)



대는 저항령 부근에서 적과 무려 31시간 동안 결전을 펼쳤다. 중대는 예비병력의 부족과 탄약 및 식량이 바닥나 어려운 상황을 맞기도 하였으나 적을 격퇴하고 989고지로 진출하여 좌인점에서 진출 중인 제 1기갑연대를 엄호하였다.<sup>69)</sup>

이에 앞서 동부전선의 국군이 미조리선 공격작전에서 순조롭게 38도선을 연하는 캔사스선 점령을 목전에 두게 되자 미 제8군사령관은 서부 및 중부전선 부대도 캔사스선으로 재진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산-춘천 간과 인제를 공격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5월 11일 그는 적군이 수일내 공격을 재개한다는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중서부

전선 부대의 공격계획을 취소하고 동부전선에서 국군의 미조리선 공격도 중지시켰다. 미조리선을 공격한 동부전선의 제3군단과 제1군단은 7일간의 공격작전을 종료하고 13일 06:00에 중서부전선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제-가리봉-설악산-대포리를 연하는 노네임선 전방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이로써 아군은 4월 말까지 구파발-마석우리-용문산-한계리-설악산-대포리를 잇는 골든·노네임선에서 중공군의 4월 공세를 저지한 후 경찰대가 봉일천-의정부-포천-가평-춘천-인제-속초 선까지 진출하여 전방지역에 대한 경찰활동을 실시하였다.

## 제 2 절 中共軍의 5月 攻勢

### 1. 彼我의 狀況

#### (1) 我軍 狀況

1951년 4~5월에 접어들어 국군과 유엔군이 중공군의 춘계공세를 저지하기 위하여 모든 전력을 경주하고 있을 때 후방에서는 이 보다 앞서 발생한 국민방위군사건과 거창사건의 조사, 처리문제로 정국의 갈등이 심화되던 중, 5월 7일 신성모(申性模) 국방장관이 해임되고 그 후임에 이기봉(李起鵬) 장관이 임명되어 군의 기강확립과 전력증강에 주력하기 시작하였다.<sup>70)</sup>

이 무렵 전선에서는 중공군이 공세를 취할 것이라는 정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중부전선과 중동부전선에서는 4월 공세 개시 직전의 상황과 유사하게 적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연막차장을 실시하였고, 항공관측에서도 대규모 병력의 남하가 자주 목격되었다.

국군과 유엔군은 4월 공세를 통하여 중공군은 초기에 주저항선의 돌파를 위해 집중적인 공격을 가한다는 것을 경험한 바 있어 서둘러 전초진지, 주진지, 저지진지 등 방어진지 보강에 주력하면서 원거리 정찰대를 파견 정찰활동도 강화하였다.

특히 미 제9군단은 적 병력이 북한강 서쪽에 집결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적의 공세준비를 방해하고 그들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주기 위하여 적의 예상집결지에 대하여 7일 동안 평소보다 5배 이상의 교란사격을 실시하였다.<sup>71)</sup>

서울 외곽을 방어 중인 미 제1군단은 문산 축선에 국군 제1사단, 의정부 축선에 미 제1기병사단과 미 제25사단(배속:터키 여단)을 배치하고 영 29여단을 군단예비로 확보하였다. 북한강 계곡 통로를 방어 중인 미 제9군단은 덕소-예봉산-용문산-금학산을 연하는 선에 좌로부터 영 28여단, 미 제24사단, 국군 제2사단, 국군 제6사단, 그리고 미 제7사단을 배치하였고, 제187공수연대는 군단예비로 남한강변의 옥천(玉泉) 일대에 집결하였다. 미 제10군단은 미 제1해병사단과 미 제2사단으로 적의 예상 접근로인 춘천-홍천 축선을 방어하도록 하고 국군 제5, 제7사단은 소양강 남쪽을 방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동부전선의 국군 제3군단은 제9사단과, 제3사단으로 인제 남쪽의 한석산-가리봉을 연하는 산악 능선을 주저항선으로 확보하였고, 국군 제1군단도 수도사단과 제11사단으로 설악산-대포리(大浦里)를 연하는 노네임선을 점령하고 진지 보강에 주력하였다.

미 제8군사령관은 적의 배치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차기 적의 공세는 4월 공세처럼 서부 또는 중부지역의 의정부-서울, 북한강 통로, 그리고 춘천-홍천 축선이 주요 공격축선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 지역에 전투력이 강한 미군 사단을 포함한 대부분의 부대를 이동시켜 전력(戰力)을 강화하였다. 유엔군의 주력부대가 서부와 중앙지역에 집중됨으로써 국군이 담당하는 동부지역은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엷게 되었다. 그러나 제8군사령관은 홍천 동쪽의 동부지역에 배치된 인민

군의 전력의 미약하고 태백산맥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하면 국군 6개 사단(제5, 제7, 제9, 제3, 수도, 제11사단)이 주저항선 진지를 고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때 8군 정보참모도 중공군이 양호한 도로 조건하에서도 병참상의 어려움을 겪는데 도로망이 결핍된 동부 산악지대로 대규모 병력의 투입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13일 정보원, 피난민, 포로의 진술에 의하면 대규모의 중공군이 서부, 중부지역에서 동부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였다. 설상가상으로 14일과 15일 이틀 동안은 계속된 비와 잦은 안개로 인하여 항공관측이 불가능해졌으며 불투명한 시계는 지상 정찰도 어렵게 하여 적이 북한강을 향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 (2) 敵 狀況

공산군의 지휘부는 4월 말경 유엔군 전선 중 국군이 담당하고 있는 중동부전선이 돌출되자 국군을 대량 섬멸하여 4월 공세 참패에 대한 책임을 조기에 수습함은 물론 미군을 고립시켜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5월 공세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들의 5월 공세 계획은 현리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된 국군 4개 사단(제3, 제5, 제7, 제9사단)을 양익 포위로 섬멸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제9병단이 주공으로 좌익(양구-인제)에서 상남리-속사리, 한계-풍암리로 우회하고, 인민군 제2, 제5군단이 우익(인제-한계령)으로 현리 동쪽과 속사리 방향으로 기동하며 다중 양익 포위망을 형성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서부전선에 배치된 중공 제19병단과 인민군 제1군단은 자신들이 주공인 양으로 위장하고 기만작전을 펼치며, 인민군 예비인 제3군단은 제2군단을 후속하여 동해안에 배치된 국군 제1군단이 현리 지역으로 증원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또 춘천 동쪽의 중공 제3병단은 주공의 일부로서 미 제

10군단을 고착 견제하여 현리 지역으로의 증원을 차단하도록 하였다.<sup>72)</sup>

이 계획에 의거 공산군은 5월 초에 그들의 상용전술인 양익 포위 작전에 중점을 두고 인민군 제1군단을 서울 서쪽에서, 중공 제19병단을 서울 동쪽에서 위장 도하작전을, 그리고 예비인 중공 제39군을 춘천-홍천 축선으로 공격을 하는 것처럼 준비하도록 하여 공격방향을 기만하였다. 아군의 관심을 이 지역에 집중하도록 유인한 후 적은 이번 공세의 주공으로 투입될 중공 제3, 제9병단은 10일간의 부대정비를 마친 후 5월 9일부터 제39군의 엄호하에 동쪽으로 이동을 개시하여 15일 은밀히 춘천에서 남전리에 이르는 북한강, 소양강 지구에 진입하였다. 그리고 인민군 제2, 제3, 제5군단도 인제와 그 동쪽지역에 진입하여 부대 전개와 공격준비를 완료하였다.

한편 5월 9일경 이번 공세에서 주공으로 투입될 중공 제3, 제9병단과 인민군전선사령부는 연합작전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공격계획을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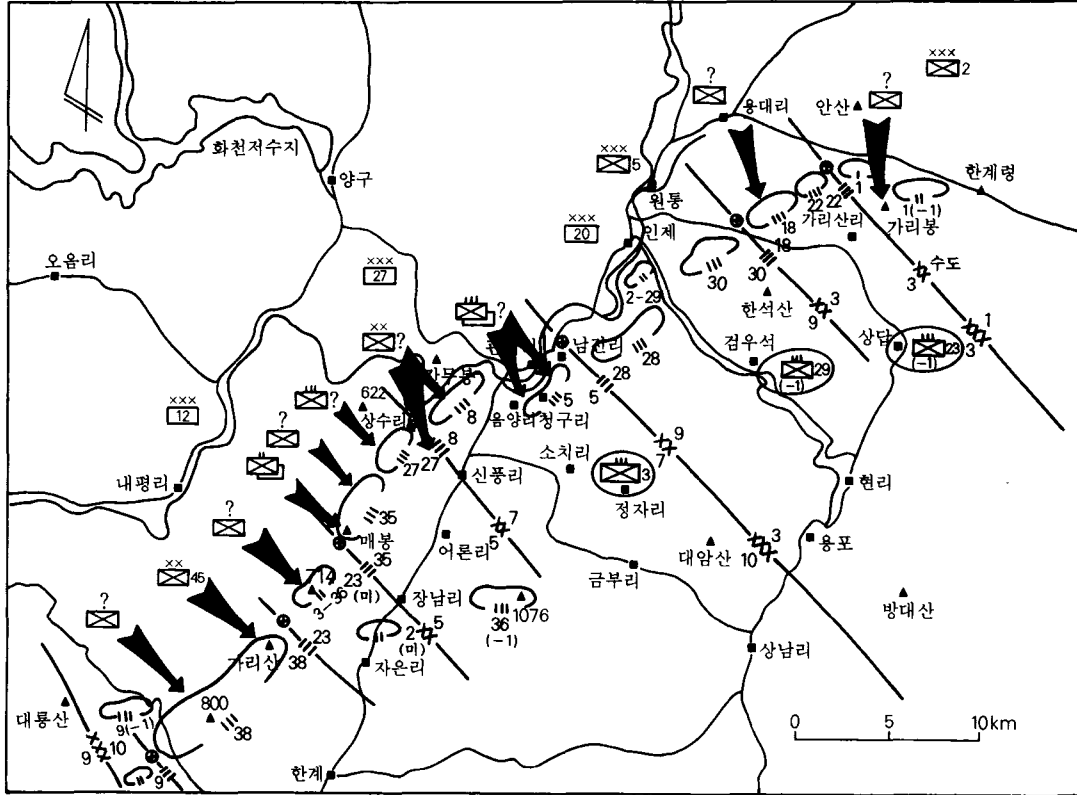
## 2. 縣里地域의 突破

중공군은 참전 이후 5차에 걸친 공세작전을 통해서 병력이 우세하더라도 화력이 열세하면 승리할 수 없음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유엔군의 우세한 기동력과 포병화력, 그리고 공군력의 효과를 험악한 지형과 불량한 도로망을 이용하여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공세지역으로 험준한 산악지대인 중동부전선을 선택하였다.<sup>73)</sup> 반면 미 제8군은 적의 주공이 북한강을 따라 중서부지역으로 지향될 것이며, 조공은 문산-서울, 의정부-서울, 춘천-홍천 축선으로 공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sup>74)</sup>

공세 전부터 유엔군의 의표를 치른 중공군은 5월 16일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후 5월 공세의 전단(戰端)을 열었다. 공격의 선봉인



중공군 5월 공세(1951. 5. 16)



중공 제27군 예하의 제81사단은 간무봉 부근에서 국군의 치열한 방어 지원사격에도 불구하고 소양강을 도하하여 제5, 제7사단의 전투지경선 부근을, 인민군 제5군단은 인제-원통 일대에서 국군 제3군단과 제1군단의 전투지경선 부근인 가리봉으로 기습공격을 개시하였다. 미조리선을 공격 중 방어로 전환된 국군 제3, 제7, 제9사단은 미처 방어진지를 강화하기도 전에 소양강 남쪽에서 5월 공세의 주공을 맞아 혈전을 펼치게 되었다.

### (1) 於論里 戰鬥

국군 제5사단은 5월 7일 미 제10군단에 배속되어 미조리선을 공격하여 홍천-인제 간의 도로를 확보하고 어론리 북쪽의 고지군으로 진출한 후 방어로 전환하였다. 이때 제35연대와 제27연대를 매봉(800고지)-상수내리를 연하는 주저항선에 배치하였으며 사단예비인 제36연대(제3대대는 좌인접 미 제2사단 제23연대에 배속)의 주력은 노내임선상의 1076고지 일대를 점령하였다. 이때 사단의 좌인접에는 미 제2사단 제브라 특수임무부대(Task Force Zebra)가, 우인접에는 국군 제7사단 제8연대가 병행하여 진지를 편성하고 있었다.

5월 16일 사단정면에서는 평상시와 달리 아침부터 적의 포격이 시작되어 제원기록 사격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sup>75)</sup> 적은 이 틈을 이용하여 소규모 부대로 좌전방 제35연대의 전초진지를 공격하였다. 사단도 이에 대응하여 정오경 우전방 제27연대의 1개 중대로 사단방어지역을 감제할 수 있는 소양강 북쪽의 662고지를 공격하였다. 20:00경 중공군의 기습공격으로 좌전방 제35연대 지역에서 시작된 전투는 순식간에 사단 전정면으로 확대되었다. 사단은 정면돌파를 기도하는 중공군과 치열한 근접전투를 펼치면서 주저항선을 고수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상황은 악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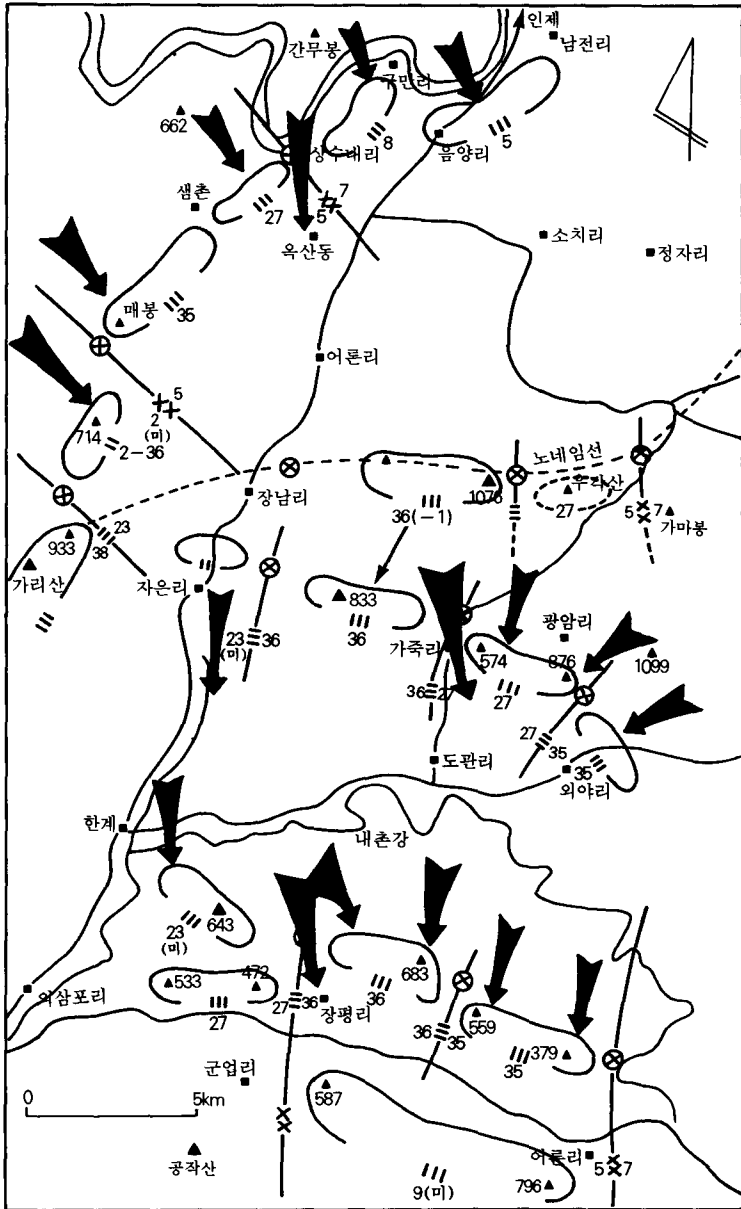
설상가상으로 중공군은 20:00경 우인접 제7사단과 전투지경선 부

근에서 1개 사단규모로 소양강을 도하, 우인접 제8연대 정면을 돌파한 후 1개 연대규모가 우전방 제27연대의 우측방을 공격하였다. 전방 연대들은 전방과 좌우측방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받게 되자 포위를 우려한 제27연대가 22:00 철수를 개시하였고, 자정이 지난 후 제35연대도 쾌석리(掛石里)로 철수를 개시하였다. 제27연대는 노네임선에 배치된 제36연대의 엄호하에 우인접의 우각산(1122고지)에 저지진지를 점령할 계획이었으나 한발 앞서 어론리로 진출한 중공군의 퇴로 차단으로 광암리로 향하였다.

사단은 17일 낮 동안 제36연대의 엄호하에 부대를 재정비하여 저녁 무렵에 돌파구 확대 저지와 미 제2사단의 우측방을 엄호하기 위하여 노네임선 후방 장남리에 제36연대, 광암리에 제27연대, 외야리에 제35연대를 배치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사단을 추격한 적은 자정이 지나자 광암리 지역의 제27연대와 외야리 지역의 제35연대를 집중 공격하였다. 제35연대는 18일 새벽에 1개 대대규모의 적이 제1, 제3대대의 전술지휘소를 기습공격하여 일시에 지휘체계가 마비되었으나 행정요원과 통신병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휘기능을 회복하였다.<sup>76)</sup> 양 연대는 진지를 고수하기 위하여 총력전을 펼쳤으나 초기 전투에서 실패하여 사기가 저하된 상황에서 중공군과 대적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때 제27연대의 제2대대와 제35연대의 제1, 제2대대, 그리고 제36연대의 제3대대가 다시 적중에 고립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장병들은 전의를 잃지 않고 중대규모로 기습공격을 펼쳐 중공군의 포위망을 돌파하고 내촌강 남쪽으로 철수하였다. 전방 연대들의 철수가 완료되자 사단은 제27연대를 외삼포리에, 제35연대를 장평리에, 그리고 제36연대를 어론리(於論里)에 배치하여 적의 야간공격에 대비하였다.

한편 미 제8군은 18일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3군단의 철수작전이 계속되자 새로운 방어선인 778고지-한계-장평리-1009고지를 연하는 와코(Waco)선을 점령하고 적의 진출을 저지하도록 하였다. 미 제

어른리 전투(1951. 5. 16~5. 19)



10군단의 부대재배치 계획에 의거 미 제2사단의 제23연대가 국군 제27연대 전방에, 미 제9연대가 국군 제5사단 주력부대의 후방에 배치되었다.<sup>77)</sup> 이 무렵 중공군은 이들에 걸친 강력한 야간공격에도 불구하고 제5사단이 저지진지를 점령하고 지연전을 펼치자 장평리 일대에서 사단을 완전히 섬멸하기 위하여 병력을 증원한 후 18일 밤부터 익일 새벽까지 파상공격을 실시하였다. 제5사단 장병들은 계속된 철수로 지쳐 있었으나 후방을 엄호하고 있는 미군에게 국군의 위용을 과시라도 하듯 배수의 진을 치고 미 제9연대의 화력을 지원받아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펼쳐 5월 공세 이후 처음으로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하는데 성공하였다.

이후 사단은 작전지역을 미 제9연대에 인계하고 하안흥리로 철수하여 차기작전에 대비하며 부대정비에 주력하였다.

## (2) 陰陽里 戰鬪

국군 제7사단은 미 제10군단의 우전방 사단으로 제8연대와 제5연대를 전방, 제3연대를 예비로 하는 2개연대 병진대형으로 미조리선을 공격하여 5월 11일 소양강 남쪽의 상수내리-구만리-남전리 선으로 진출하였다. 사단도 13일부터 방어로 전환하여 소양강변의 전초선에 철조망과 지뢰를 매설하고 적의 예상 도하지역에는 탄막을 설치하는 등 주저항선 진지 보강에 주력하였다.

16일 낮 동안 사단정면에서는 진눈깨비와 가랑비가 내리고 소양강 일대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었다. 사단수색대가 소양강 남쪽으로 철수하자 적 정찰병들이 소양강변에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16:00경에는 종전에 볼 수 없었던 강력한 적의 공격준비 사격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적의 포격은 아군의 부대 위치를 간파한 듯 기동로인 신평리-음양리, 음양리-소치리 도로와 제8연대 지휘소 및 사단의 제16포병대대가 위치한 신평리 일대에 집중적으로 낙탄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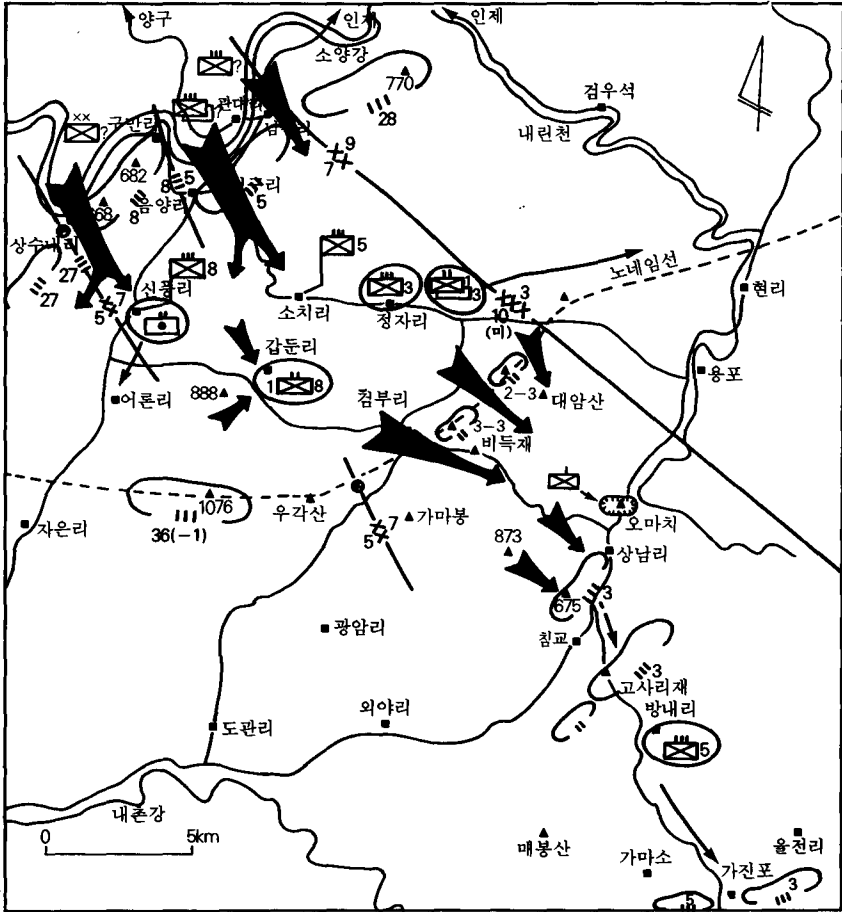
었다. 이 포격에 상·하급부대는 물론 좌·우인접부대간의 유선시설이 파괴되어 일시에 지휘체계가 마비되었고, 제16포병대대는 19:00에 어론리로 철수하여 화력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었다.<sup>76)</sup>

적은 19:30경 아군이 소양강변에 매설한 각종 장애물을 포격으로 제압한 후 도하공격을 개시하였다. 천연 장애물로 믿었던 소양강은 갈수기의 영향을 받아 강폭은 100~200m이나 수심이 평균 1m 내외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도섭이 가능하였다. 전방연대들은 박격포와 중화기사격을 집중하여 적의 제1파 공격을 강상에서 격퇴하였다. 이 교전으로 소양강은 핏빛으로 물들었고 잠시 후 적은 기마대를 앞세우고 제2파 공격으로 주저항선 돌파를 기도하였다. 주저항선 부대들은 진지를 고수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였으나 동료들의 시체를 밟고 넘어오는 적의 공격기세에 압도되고, 또 통신 두절로 상급부대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점차 상황이 악화되었다.

적의 집중적인 공세를 받은 우전방 제5연대는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백병전을 펼치며 분전하였으나 탄약이 소진되고 부상자가 속출하여 위기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때 적은 주력이 정면돌파를 기도하는 동안 일부 부대를 측후방으로 침투시켜 연대지휘소를 기습하고 퇴로를 차단함으로써 연대는 적중에 고립되었다. 이때부터 연대는 지휘통제가 마비된 채 제2대대는 분산하여 적의 포위망을 탈출하였고 제1, 제3대대는 우인접 제9사단 지역으로 철수하였다.

좌전방 제8연대는 이 전투가 개시되기 전 주저항선 일대에 통나무로 견고한 유개진지를 구축하였으나 우인접 부대가 돌파된 상황에서 주저항선을 고수하기란 역부족이었다. 특히 좌인접 제5사단과의 전투지경선 부근에 배치된 제5중대는 전차 6대를 앞세운 2개 대대규모의 적과 치열한 백병전을 펼쳤지만 힘에 부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sup>79)</sup> 연대는 신평리 일대로 철수하여 저지선을 구축하려 하였으나 이미 좌·우인접 부대를 돌파한 중공군의 일부가 철수 중인 연대보다 먼저 후방지역으로 진출함으로써 저지진지 점령에 실패하였다. 이후 연대는

음양리 전투(1951. 5. 16~5. 18)



추격한 중공군에게 갑둔리(甲屯里)에서 완전 포위되었다. 이때부터 연대는 패잔병 소탕작전을 펼치는 적의 후속부대와 격전을 펼쳤으나 제1대대가 888고지로 철수 중 포위망을 구축한 중공군과 먼저 후방으로 철수한 제5사단 제36연대의 오인 포격에 다수의 인명 피해를 입고 제36연대 지역으로 철수를 완료하였다. 제7사단은 하루가 지나서

야 비로소 제8연대의 이러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사단장 김형일(金炯一) 준장은 통신이 두절되어 전방 연대의 전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자리에 집결 중인 사단예비 제3연대를 17일 03:00에 노네임선의 가마봉-대암산에 배치하여 전방연대의 철수를 엄호하도록 하였다. 노네임선으로 진출한 제3연대는 야음으로 병력배치가 어렵게 되자 10km의 방어정면 중 감제고지인 930고지와 1030고지에 방어거점을 구축하였다. 이로 인하여 사단의 제2방어선에는 상당한 공백지대가 형성되었다.

중공군은 이 공간으로 침투하여 연대를 포위하였고, 특히 이들 중 1개 중대규모는 사단 후방지역으로 진출하여 오마치(五馬峙)를 점령하고 도로장애물을 설치하여 홍천과 속사리에서 이곳을 지나 현리-인제로 이어지는 도로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현리 일대에서 작전 중인 제3군단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제3연대는 상남리로 철수하여 오마치로 침투한 적을 공격하려고 하였으나 연대도 이미 후방으로 진출한 중공군에 포위된 상황이었다. 제7사단은 전방 연대의 분산으로 지휘통제가 와해된 상황에서 예비였던 제3연대마저 포위되어 최악의 위기상황을 맞았으나, 연대는 마치 적과 숨바꼭질을 하듯 사활을 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쳐 어렵게 적의 포위망을 벗어나 15:00에 상남리로 철수하였다.<sup>80)</sup> 이후 사단은 제3군단의 퇴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2대대로 오마치를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자 접적을 단절하고 철수하였다. 사단은 제3연대와 오후에 방내리에서 재편성된 제5연대의 일부 부대로 울전리 일대에 저지진지를 편성, 중공군의 진출을 저지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18일 새벽에 다시 풍암리로 이동하였다.

이와 같이 중공군 5월 공세의 주공축선에 배치되었던 국군 제7사단은 중공 제27군과 제20군 일부 부대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 중과부적의 상황에서도 이틀 동안 용전분투하였으나 연대지휘소가 피습을 당하는 등 다수의 피해를 입고 50km를 물러나 돌파구 첨단 지역인



풍암리를 방어하게 되었다.

### (3) 寒石山 戰鬪

5월 10일 매봉—한석산 전투에서 인민군을 격퇴하여 사기가 고조된 제9사단은 제3군단의 좌전방사단으로 인제 남쪽의 소양강으로 진출후 제28연대를 인제 부근의 소양강 만곡부에, 제30연대를 한석산 일대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제29연대는 군단예비에서 사단예비로 복귀하였으나 군단 통제하에 있었고, 제2대대는 제30연대에 배속되어 전투전초로 인제 동쪽 소양강과 내린천의 합류점 부근에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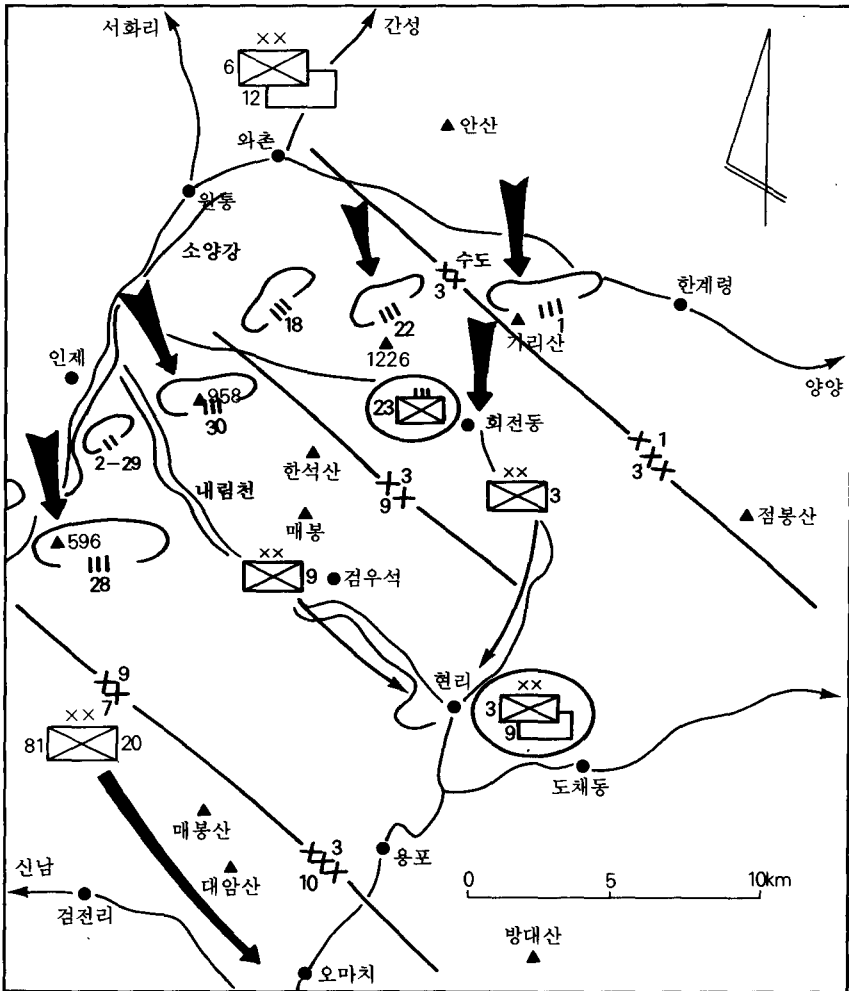
16일 저녁 무렵 좌인접 제7사단 지역에서 치열한 포격전이 전개될 때 사단정면에서는 의외로 접적이 경미하였다. 22:00경 좌인접 제5연대가 통신 두절로 ‘사단에 상황보고를 할 수 없다’며 제28연대에 중계를 요청하고 또 일부 제7사단 예하부대가 당 사단지역으로 철수해 오며 따라 사단은 비로소 적이 제7사단의 주저항선을 돌파한 후 후방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제7사단의 붕괴 여파가 사단지역으로 확대된 듯 17일 02:00경부터 중공군의 산발적인 포격이 개시되었다. 전방연대들은 소양강 남쪽의 596고지와 958고지에서 적의 침투를 저지하기 위하여 공방전을 펼쳐 주저항선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사단장(崔錫 준장)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제7사단을 돌파한 중공군의 일부가 좌측 후방으로 침투하자 포위를 우려하여 04:00에 서둘러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

한편 사단장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부사단장 이용문(李龍文) 대령에게 전 차량제대를 지휘하여 상남리로 철수하도록 하였다. 부사단장이 지휘한 차량제대가 오마치에 접근하자 정상을 선점한 적이 도로장애물을 설치하고 집중사격을 개시하여 이동은 정지되었다. 부사단장은 일부 병력으로 오마치 돌파를 기도하였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불가능하게 되자 포병의 제압사격을 실시한 후 재진출

을 시도할 목적으로 복귀하였다.<sup>81)</sup>

제9사단은 적이 공세초기에 현리 일대에 양익 포위를 형성하기 위하여 정면에서의 압박을 가하지 않음에 따라 주저항선에서의 피해는 아주 경미하였다. 그러나 철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대의 퇴로가 차

한석산-가리봉 전투



단되어 분산되었으며, 주력은 오전에 전투력을 유지한 채 현리 남쪽의 용포 부근으로 집결하였다. 당시 한석산에서 철수하던 제30연대 제3대대 장병들은 매봉을 지날 때, 전우들이 흘린 피의 대가로 얻은 매봉을 전투도 해 보지 않고 적의 수중에 넘겨주고 맥없이 물러나는 것을 못내 아쉬워하였다.

17일 오전에 사단주력이 용포 일대에 집결을 완료할 무렵에는 제7사단 병력의 일부도 섞여 있어 매우 혼잡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용포 서쪽으로 진출한 적이 요란사격을 실시하자 이 일대에 집결된 병력은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사단장은 즉시 제29연대 1개 대대는 이 적을 공격하고 잔여 병력은 현리로 이동하도록 조치하였다. 주력은 1시간 가량 북쪽으로 행군하여 현리에 도착하였다.

#### (4) 加里峰 戰鬪

제3사단은 제3군단의 우전방 사단으로 덕적리-가리봉 선에 주저항선을 편성하고 제18연대를 1226고지 일대에, 제22연대를 우전방 가리봉 서쪽 능선 일대에, 제23연대는 사단예비로서 전방연대의 후방에 대대별로 방어거점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사단의 우인접에는 제1군단 수도사단 제1연대가 가리봉의 동쪽 능선에 배치되었다. 작전 지역내 가리봉은(1519고지)은 현 전선의 방어뿐만 아니라 차후 공격작전에 발판이 되는 중요 지형지물로 제3사단과 수도사단의 양 연대가 방어하고 있었으나 측방 통신망이 소통되지 않아 유기적인 협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사단은 전투가 개시되기 직전에 체포된 포로의 진술과 무선 감청으로 적의 공격목표가 가리봉으로 확인되어 방어태세를 보장하고 적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소양강 남쪽의 제5, 제7, 제9사단은 5월 16일 저녁부터 중공군과 격전을 벌였지만 인제 동쪽의 제3사단은 하루 먼저 가리봉에서 인민군 제5군단(제6, 제12, 제32사단)과 대결하게 되었다. 이 지역 전투는

적의 5월 공세가 개시되기 하루 전인 15일 1개 대대규모의 적이 우인점 제1연대를 공격하면서부터 시작되어 15일 자정이 지나면서 사단정면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sup>82)</sup>

사단이 낮 동안 수차에 걸친 적의 집요한 공격을 격퇴함으로써 전투가 일단락되는 듯하였으나 적은 투입부대를 증강하여 자정 무렵 총공세를 개시하였다. 좌전방 제18연대는 적의 저항이 경미하여 주저항선을 유지하였으나 우전방 제22연대는 적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 연대는 유리한 지형과 보름달 빛의 도움으로 수차에 걸친 적의 돌파를 저지하였으나 우인점에서 16일 오후부터 적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던 수도사단의 제1연대 주저항선이 돌파되면서부터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04:00경 진지의 일부가 돌파되기 시작하였다. 주저항선을 돌파한 적은 새벽에는 연대본부가 있는 회전동으로 침투하였으나



국군이 중기관총으로 춘계공세를 막기 위해 사격을 가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가리산리-현리 도로를 방어 중인 예비인 제23연대가 2개 중대규모의 적을 격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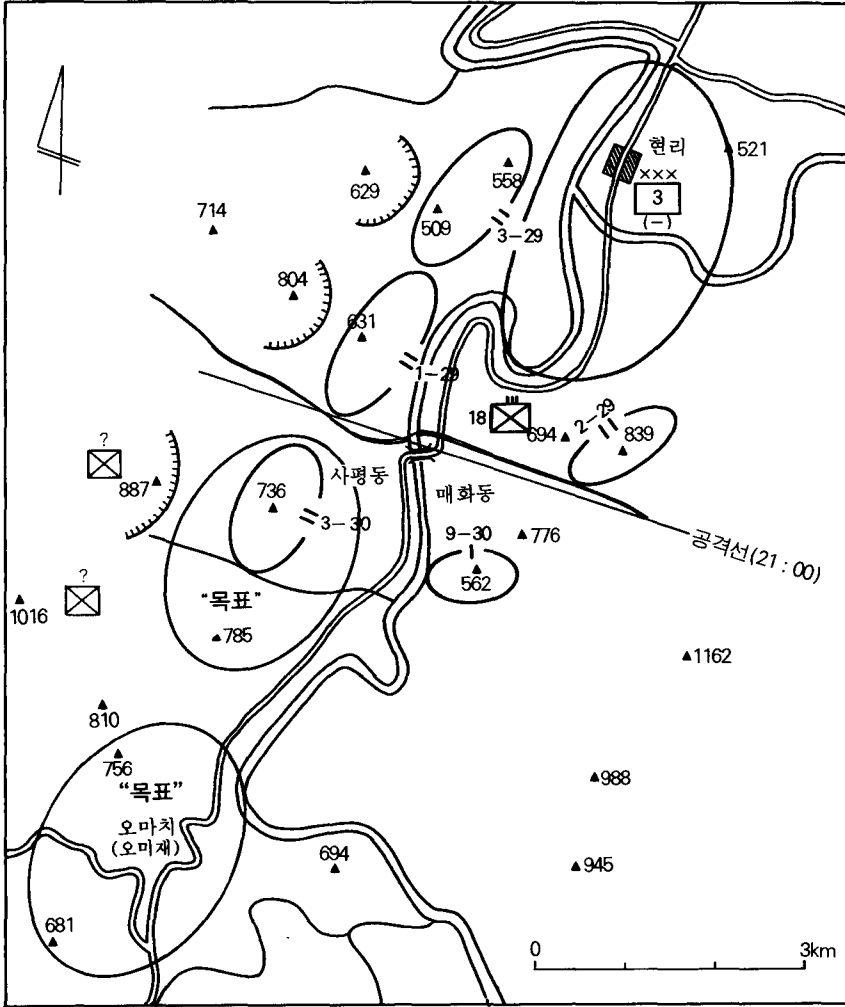
사단은 진지 일부가 돌파되기는 하였지만 지형적인 이점을 이용 역경을 극복하고 주저항선을 방어하고 있었다. 사단장 김종오(金鐘五) 준장은 적의 공격을 격퇴하고 주저항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좌인접 제7, 제9사단의 상황과 철수로상의 오마치가 차단되었음을 통보받게 되자 적의 양익 포위를 우려하여 철수를 결심하였다.<sup>83)</sup> 사단은 08:00에 제23연대의 엄호하에 제18, 제22연대 순으로 현리로 철수하였다.

이로써 제3군단은 군단의 주보급로상에 위치한 오마치가 차단되면서 제9사단과 제3사단이 현리로 철수하여 소양강 남쪽의 남전리-한석산-가리봉을 연하는 주저항선을 맥없이 상실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군단은 좌측방에서는 중공군에, 우측방에서는 인민군에 포위될 위기상황에 직면하였다.

### (5) 五馬峙 突破 失敗

제3군단장 유재흥(劉載興) 소장은 좌인접 미 제10군단에 배속된 국군 제7사단 주저항선이 돌파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으나 상황의 심각성을 예측하지 못한 채, 제7사단 예비대인 제3연대가 저지진지를 점령하여 적어도 17일 아침까지는 전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sup>84)</sup> 그리고 이날 04:00에 오마치가 차단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자정경 제7사단을 돌파한 적이 야음과 험준한 산악지형을 통과하여 이 시각에 후방의 오마치를 점령하기란 불가능한 상황으로 오판하였다. 오마치 피탈이 사실로 확인되자 군단장은 수석 고문관을 대동하고 17일 14:00에 현리를 방문 제3사단장의 상황보고를 받았다. 군단장은 2개 사단과 2개 포병대대의 화력이면 오마치를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제3사단장의 책임하에 제3사단과 제9사단

오마치 돌파 상황(1951. 5. 17)



은 오마치를 탈환한 후 도로를 따라 창촌으로 철수를 명령한 후 군단 사령부로 복귀하였다. 당시 오마치를 점령한 적의 규모는 항미원조전사에 의하면 1개 대대(제20군 예하 제178연대의 제2대대)규모이었다.<sup>85)</sup>

제3, 제9사단장은 협조하여 21:00에 제30연대가 오마치를 공격 돌

파하고 제18연대는 제30연대의 측방을 엄호하며 오마치가 돌파되면, 제28, 제29, 제22, 제23, 제18연대순으로 철수한다는 오마치 돌파계획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양 사단의 긴밀한 협조와 강력한 통제가 미흡하여 화를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sup>86)</sup> 제30연대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제29연대 제2, 제3대대는 공격연대의 우측후방을 엄호하기 위하여 736, 766고지를 점령하였고, 제30연대 제3대대도 20:00에 오마치 전방의 구만동 선에 배치되어 연대의 공격을 엄호할 준비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제30연대가 공격을 개시하기 직전 중공 제20군 제60사단이 먼저 제29연대가 점령한 엄호진지로 선제공격을 개시함과 동시에 용포-현리 간 도로변으로 박격포사격을 집중하여 혼란이 야기되었고, 공격의 선봉 연대인 제30연대 주력이 공격을 포기하고 방대산 쪽으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이 상황을 후속하던 제18연대가 목격하고 연대지휘소에 나와 있던 제3사단장에게 보고하였다. 이 무렵 도로변에는 양 사단의 철수 부대들의 병력과 장비들이 도로를 점거하여 매우 혼잡한 상황을 이루었고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일부 부대들은 명령도 없이 분산되어 방대산으로 무질서한 철수를 시작하였다.

제3사단장은 현상황에서는 돌파작전이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제18연대의 공격을 취소시켰다. 그리고 18일 03:00에 전부대를 방대산을 경유하여 창촌으로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sup>87)</sup>

기회를 포착한 적은 북, 서, 남쪽에서 현리 일대의 포위망을 압축하면서 일부 부대는 방대산으로 철수하는 아군을 추격하였다. 적의 추격에서 벗어나 방대산에 집결한 병력은 서로 혼합되어 소속을 파악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 병력을 통제할 지휘관도 없고 또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18일 새벽에도 철수하는 부대를 따라 적의 추적이 계속되자 일부 부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저항하였으나 대부분은 소대단위를 형성하여 주억봉(1443고지)-구룡덕봉(1388고지)을 넘어 광원리로 철수하였다. 이 와중에서도 제9사단을 지원한 제30포병

대대와 제3사단을 지원한 제11포병대대는 중공군이 위치한 남동쪽을 향해 요란사격을 실시하여 포탄을 소모하고, 공기와 방향포경을 회수한 후 폭약과 수류탄으로 포구를 폭파하느라 자정이 지나서야 방대산으로 철수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소양강 남쪽의 매봉-구만리-한석산-가리봉을 연하는 약 40km의 정면을 담당한 국군 제3, 제5, 제7, 제9사단은 일부 부대가 초전에 적의 포격에 통신망이 두절되면서 지휘통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하고 주저항선을 돌파당했다. 또 수적인 열세에다 적의 상투적인 전술인 야간 침투공격을 극복하지 못하였고, 특히 오마치를 점령한 적을 구축하고 이를 탈환하지 못하여 군단이 포위당하는 상황을 자초하였다. 이는 군지도력과 전투지휘상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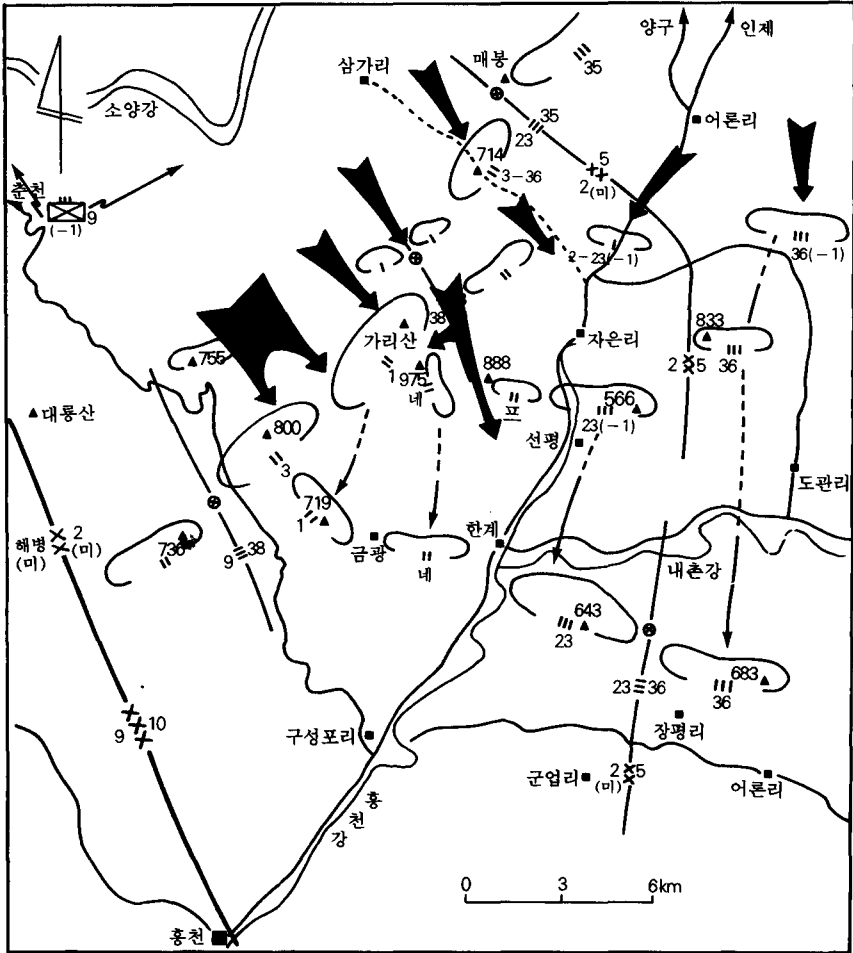
이로 인하여 이 지역에 대돌파구가 형성되었고, 이 돌파구 확대를 어떻게 저지하느냐가 급선무로 대두되었다.

### 3. 洪川 北方의 攻防戰

국군이 인제-현리 지구에서 격전을 치를 때 좌인접 미 제10군단의 미 제2사단도 흥천 북방에서 중공군과 대결전을 벌이었다. 사단은 대룡산(899고지)-가리산(1051고지)-매봉(800고지)을 연하는 전선의 좌전방에 제9연대, 중앙에 제38연대(배속:한국 유격중대, 네덜란드 대대)를 배치하였다. 사단의 우전방 지역은 기동이 용이한 자은리-인제, 자은리-양구 도로가 있어 미 제72전차대대 1개 중대, 미 제23연대 제2대대, 미 제1유격중대로 보전 협동부대인 제브라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여 주저항선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배속된 아이반호(Ivanhoe) 부대<sup>88)</sup>와 국군 제36연대의 제3대대는 미조리선의 전초진지에 배치하고, 도로와 계곡 일대에는 지뢰를 매설하여 방어진지를 보강하였으며,



흥천 북방 전투(1951. 5. 16~5. 18)



사단예비인 제23연대 주력은 노네임선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16일 저녁 무렵 중공군은 소양강 남쪽 국군 4개 사단지역의 공격과 병행하여 중공 제15군 예하의 제45사단은 제38연대 좌전방으로, 중공 제35사단은 제38연대와 제브라 특수임무부대의 전투지경선으로,

중공 제31사단은 양구-자은리 도로를 따라 공격을 개시하였다. 사단은 적의 돌파구 확대를 저지하고 전략적 요충인 홍천을 사수하기 위하여 예측을 불허하는 일전을 펼치게 되었다.

### (1) 벙커(Bunker)高地 戰鬪

중공 제45사단 예하부대들이 5월 16일 저녁 무렵 좌전방 제38연대의 전초대대를 공격하여 지뢰와 장애물지대를 통과하면서 다수의 피해를 입었지만 과상공격으로 전초진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적은 전초부대의 철수 후 미군이 쏟아부은 화력탄인지 추격을 잠시 멈추었으나, 17일 02:00경 우전방 지역으로 총공세를 펼쳐 주저항선을 돌파하였다. 적은 09:30경 지역내 감제고지인 가리산(1051고지)을 점령하자 공격의 기선을 장악한 듯 돌파구 확장을 시도하였다. 제2사단장 루프너(Clark L. Ruffner) 소장은 네덜란드 대대와 프랑스 대대를 투입하여 적의 돌파구 확대를 저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포병부대들은 미 제38연대 전방으로 증원되는 적의 집결지와 접근로 및 군단이 지정하는 근접 목표에 탄약이 부족할 정도로 집중적인 포격을 실시하여 연대를 지원하였다. 포병대대의 포격에도 불구하고 3,000여 명의 적은 가리산과 914고지 사이의 안부 지역을 통해 쓰러진 동료들의 시체를 밟고 계곡을 따라 계속 전방으로 진출하였다.

군단장은 집중공격을 받은 중앙지역과 우전방지역을 보강하지 않고는 적을 저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적의 공격에 대비, 군사령부에 1개 연대 전투단의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사단 및 군단 포병부대로 하여금 진지 전방 3000야드 내에 있는 적의 접근로에 일일 탄약 가용보급율의 5배로 집중사격(밴플리트 탄약: The Van Fleet day of fire)을 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sup>89)</sup> 이로 인하여 중공군의 인해전술을 제압할 수 있었으나 전부대가 심각한 탄약보급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편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한 제8군사령관은 17일 미 제2사단지역

을 보강하기 위하여 접적이 경미한 미 제9군단의 우측 전투지경선을 동쪽으로 4마일 이동시켜 제10군단의 책임지역을 축소 조정함과 아울러 현리 전투에 실패한 제3군단과 접적이 경미한 제1군단을 노네임선 남쪽 1009고지-창촌-오대산-남애리를 연하는 와코(Waco)선으로 철수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미 제10군단을 증원하기 위하여 대전, 광주, 진주 일대에서 연대별로 공비 토벌작전을 수행 중인 국군 제8사단과 군예비인 미 제3사단 제15연대를 중동부전선으로 이동하도록 명령하였다.<sup>90)</sup>

제38연대 정면에서는 낮동안 아군의 포격과 항공폭격으로 잠시 소강상태가 지속되었으나 어둠이 깔리자 적은 야간공격을 속개하였고, 선두는 17일 21:30에 제3대대 K중대가 방어 중인 벙커(Bunker) 고지로 명명된 800고지로 접근하였다. 당시 이 고지는 연대가 지난 2주 동안 2만 개의 사냥으로 진지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야포의 직격탄에도 견딜 수 있는 방어력을 지니고 있었고 또 진지 전방에는 각종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었다.<sup>91)</sup>

중공군의 공격 선봉으로 나선 제45사단의 제133연대는 파상적인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아군의 집중포격에 공격의 기세를 잃고 고지에서 물러났다. 적은 대규모 병력을 증원받아 재편성을 한 후 자정 무렵 800고지 정상으로 돌진하였다. 그러나 미 제38연대 K중대는 중공군과 정면대결을 피하고 진지 안에서 계속 방어태세로 적을 유인한 후 적이 진내로 돌입하자 진내사격을 요청하였고, 포병부대는 고지 정상의 25m 상공에서 자동 폭발하는 가변 시한포탄을 집중 사격하였다. 그러나 중대는 포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적의 집요한 공격에 밀려 고지 하단으로 철수하여 벙커고지가 적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았다.

중대는 고지를 재탈환하기 위하여 우선 예비소대로 지체없이 야간 역습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적의 화망을 포복으로 돌파하여 정상으로 접근 백병전을 펼쳐 다시 고지를 확보하였다. 실로 장렬한 육탄공격

의 대가로 얻어진 귀중한 승리였다.

날이 밝은 다음 수색정찰 결과 백병전을 전개한 고지 정상에만 적 시체 29구가 있었고, 도주하다 철조망에 부근에서 사살된 50여구의 시체가 널려 있었다. 반면 소대는 전사 1명, 부상 8명의 경미한 손실을 입었을 뿐이었다. 이후 전선은 다시 소강상태가 지속되었으나 18일 자정 중공군은 병커고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여 다시 격전이 전개되었다. 적의 공격을 예상한 중대는 즉시 개인호 속으로 들어가 준비된 사냥으로 입구를 봉쇄하였다. 이로 인해 중공군은 지상에 노출되었고 기회를 포착한 중대는 즉시 진내사격을 요청하였다. 잠시후 포병부대는 가변 시한신관을 장착한 고폭탄을 고지로 집중하였다. 고지는 굉음의 포성과 적의 신음 소리만이 한밤의 정적을 깨트렸다. 적은 19일 새벽에 800여구의 시체를 유기하고 철수하였다. 이날 밤의 전투를 끝으로 병커고지에 대한 적의 공격은 없었으나, 이때 이 고지는 동쪽에 현리까지 포함한 대돌파구가 형성됨으로써 이 돌파구의 좌전부가 되어 있었다. 즉, 아군은 K중대의 병커고지 고수로 현리 지구의 적 돌파구가 서측으로 확대되어 전선이 붕괴되는 것을 막고 아슬아슬하게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

## (2) 自隱里 戰鬪

중공 제45사단이 좌전방 제38연대를 공격하고 있을 무렵 중공 제31사단과 35사단은 우전방 제브라 특수임무부대를 공격하였으나 공격초기 지뢰와 장애물지대를 통과하면서 전차포와 포병의 집중포격에 상당수의 피해를 입고 철수하였다. 그러나 적은 공격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증원부대인 제31사단의 제92연대를 투입하여 양구-홍천 도로변에 배치된 전차부대의 돌파를 기도하였다. 특수임무부대는 밤새도록 전차포와 포병화력을 집중하였고 적은 새벽 무렵 돌파를 포기하고 450여구의 사체를 유기한 채 철수하였다.<sup>92)</sup> 낮 동안 좌인접 제

38연대는 치열한 격전을 펼쳤으나 이 정면에서는 소강상태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사단장은 17일 오후에 적의 역습과 우인접의 국군 제5사단의 철수로 우측방이 노출되어 사단예비인 제23연대 주력을 투입하여 우전방을 강화하였다.

저녁 무렵 좌인접 제38연대의 주저항선을 돌파하고, 가리산으로 진출한 중공군의 일부가 연대의 측후방을 방어 중인 프랑스 대대를 공격하였고, 또 다른 적은 인제-홍천 도로를 따라 자은리(自隱里)로 진출하여 연대주력의 후방을 차단하고 전방대대의 지휘소와 탄약고를 습격함으로써 혼란이 야기되었다. 설상가상으로 프랑스 대대가 돌파되어 철수자가 중공 제181사단에 의해 차단됨으로써 제23연대는 18일 새벽 적중에 고립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 무렵 연대는 미 제38연대가 고수한 병커고지를 기점으로 남동쪽으로 뻗어 내려 인제-홍천 도로의 동쪽 683고지로 이어지는 새로운 방어선으로 이동명령을 받았다. 연대는 추격하는 적과 접촉을 단절하기 위하여 전차, 포병, 항공화력을 집중하며 철수를 개시하였으나 자은리 남쪽에 적이 설치한 도로장애물 지대를 통과해야 하는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였다. 당시 이 일대에서 홍천-인제 도로가 전차, 차량 등 중장비들이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동로이며 다른 우회도로는 없었다. 적은 이와 같은 지형조건을 간파하고, 감제고지에 병력을 배치함은 물론 도로에는 다수의 장애물을 설치하고 연대의 철수를 완강하게 저지하였다. 철수제대의 선두에 나섰던 전차가 도로상에 매설된 지뢰에 폭파되면서 출구가 막혀 후속하던 차량은 정지되고 주변고지에 산재한 중공군은 집중사격을 개시하였다. 이 공격에 운전병들이 자동차를 버리고 피신함으로써 순식간에 이동대열이 흩어졌고, 차량에 적재된 탄약이 폭발하는 등 연대는 적지 않은 손실을 입었다. 또한 저녁 무렵에는 폭우가 쏟아져 도로가 진흙탕으로 변해 더욱 철수가 어렵게 되어 자정경에야 683고지 부근의 신 방어진지를 점령하였다.<sup>93)</sup>

미 제2사단은 인적자원을 앞세운 중공군의 파상공격을 받아 주저항선의 일부가 돌파되고, 일부 부대는 적의 포위망을 탈출해야만 하였다. 또 작전을 지휘하던 사단장의 헬리콥터가 불시착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항공지원과 엄청난 포병화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적에게 막대한 인명피해를 주었다. 사단은 19일 벙커고지에서 동남쪽으로 뺀 수정된 노네임선상의 신 방어진지를 점령하고 적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 4. 突破口 遮斷 作戰

##### (1) 第3軍團의 撤收作戰

군단 장병들은 5월 17일 야간에 현리에서 중공군의 추격을 받으며 험준한 방대산(1436고지)으로 철수하는 동안 일부 병력의 나오는 물론 다수의 공용화기와 무전기를 버리고 고지 정상으로 집결하였다. 이 철수작전은 수리봉에서 용포-현리 일대로부터 철수하는 병력을 엄호한 제18연대가 마지막으로 방대산으로 철수한 18일 아침 무렵 일단락되었다.

이때 현리 도로상에는 미 전폭기들이 군단이 미처 파기하지 못하고 유기한 차량과 포차 등을 끌고 북상하는 적 중대를 포착하고 소이탄과 기총소사로 파괴 또는 소각하였다. 방대산에 집결한 병력은 미군기의 폭격이 계속되는 동안 군단 지시에 의거 1009고지-창촌리-오대산을 연하는 와코선을 점령하기 위하여 일부는 산악통로인 방대산-구룡덕봉-광원리-창촌으로, 주력은 기동이 용이한 내린천을 따라 방대산-남전동-광원리-창촌을 목표로 철수하였다. 산악 통로로 철수한 제대는 적의 추격을 받지 않고 중간집결지인 광원리로 철수할 수 있었으나 내린천을 따라 철수한 주력은 계속된 적의 추격으로 다

수의 피해를 입고 고전하였다.

한편 군단이 악조건을 극복하고 사방이 온통 1,000m 이상의 고지로 둘러싸인 광원리로 집결하는 동안 주저항선을 돌파한 중공군의 일부가 한발 앞서 창촌으로 진출하여 군단 철수로인 광원리-창촌 도로를 차단하였다. 그러나 군단은 철수하는데만 급급하여 적의 감제하에 포위망 속으로 집결 중인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 따라서 광원리에 도착하여 철수자가 차단되기 전에 창촌으로 서둘러 철수한 일부 병력을 제외하고는 다시 중공군에 포위되었다.<sup>94)</sup> 이런 상황에서 군단은 광원리에서 철수한 일부 병력을 수습하여 재편성을 시도하였으나 장병들이 피로와 굶주림으로 매우 지쳐 있고 전의를 상실하여 재편성은 불가능하였다. 지휘통제가 마비된 상황에서 제9사단장(崔錫 준장)을 비롯한 다수의 지휘관들은 부대가 소수의 병력으로 무리지어 광원리에 집결하는 동안 광원리-창촌 철수계획을 준비하였다.

19일 새벽에 제18연대와 밤새 행군하여 도착한 낙오병들이 창촌 삼거리에서 도착하여 계방천을 도하하려는 순간 적의 기습공격을 받아 2,000여 명의 병력이 일시에 분산되면서 군단은 철수자가 차단되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에 군단은 광원리-창촌 도로를 통한 철수를 포기하고 일부 부대의 엄호하에 야음을 이용 계방산(1577고지)과 오대산(1563고지) 사이에 있는 험준한 을수재를 넘어 하진부리로 철수하기로 하고 마지막 난관인 을수재로 철수를 개시하였다. 중공군의 추격이 경미하여 철수부대가 을수재까지는 무사히 도착하였으나 이틀간 계속된 철수작전으로 굶주림과 과로로 체력이 한계에 달한 다수의 장병들이 철수를 포기하여 포로가 되었다.<sup>95)</sup> 군단은 4일 동안 수많은 난관과 역경을 극복하고 65km를 철수하여 19일 15:00경 중공군의 추격을 벗어나 속사리-하진부리에 도착하였다.

20일 16:00까지 이곳에서 수습된 병력은 제3사단이 3,621명(34.3%), 제9사단이 4,582명(40%)이었으며, 후에 낙오병이 더 도착함으로써 이 병력은 더욱 증가되었다. 군단이 재편성을 서두르고 있을 때인

21일 인민군과 중공군으로 혼성 편성된 4개 연대규모의 적은 군단의 저지선을 돌파한 다음 하진부리-강릉 도로를 차단하려는 듯 공격을 계속하였다. 이때 제3사단은 유천리 북쪽에 3개 연대를 종으로 배치하고 제9사단도 제30연대와 제28연대를 속사리 부근에 배치하여 적을 저지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제3사단은 정선으로, 제9사단은 대화 쪽으로 다시 철수함으로써 군단의 저지선인 속사리-하진부리선이 붕괴되었다.

## (2) 美 第3師團의 突破口 遮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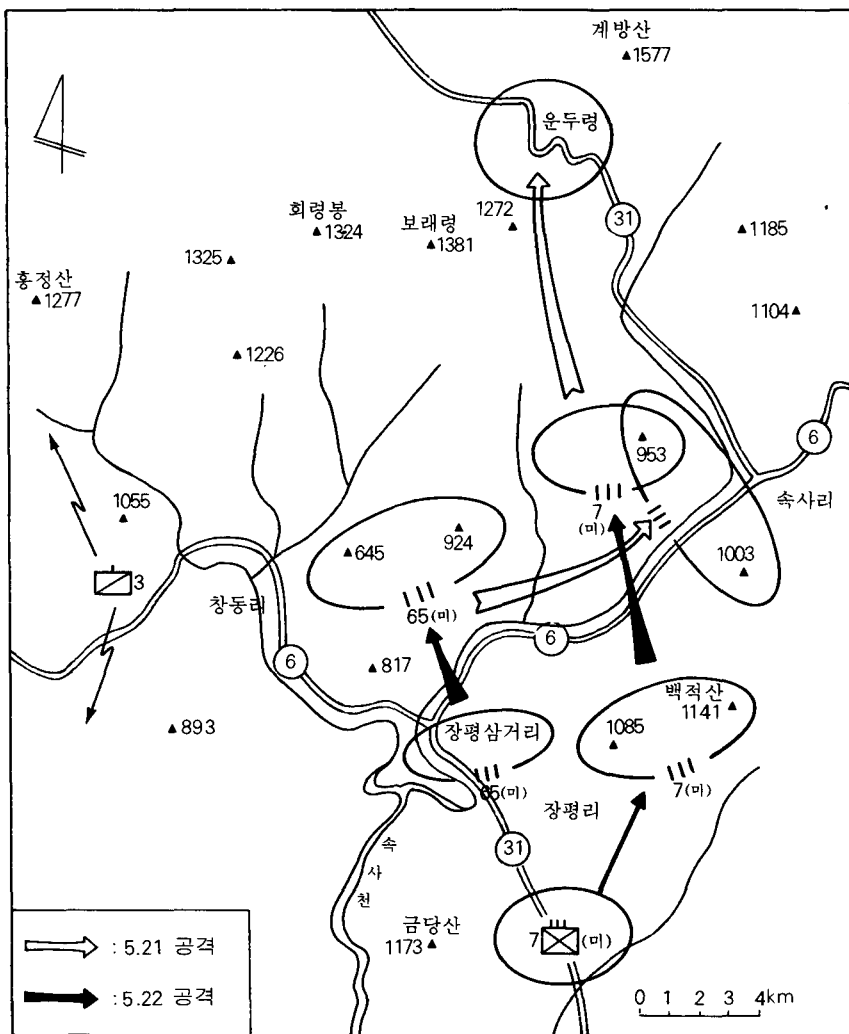
제3군단의 현리 철수작전으로 인하여 유엔군의 중동부전선은 병커고지-풍암리-속사리-철갑령을 연하는 선에 대돌과구가 형성되었다. 제8군사령관은 적의 돌과구 확장을 저지하기 위하여 18일 자정에 제8군 예비로 서울에 대기 중인 미 제3사단 제7연대와 경안리에 집결 중인 제65연대를 긴급히 미 제10군단의 우전방으로 이동시켜 사단주력과 합류하도록 조치하였다.

19일 아침 미 제10군단에 배속된 미 제3사단(제7, 제65연대 결)은 정찰대가 속사리 하진부리 일대를 정찰하였으나 접적이 경미하자 제15연대를 풍암리 북쪽 남언리(納言里)로 추진 배치하여 하배재 부근의 국군 제7사단과 협조, 횡성-풍암리 축선에서 적을 저지하였다. 이날 미 제2사단 제23연대도 한계리에서 중공 제181사단의 공격을, 프랑스 대대는 중공 제31사단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중공군은 5월 공세를 개시한 이후 매일 밤마다 그들의 상용전술인 야간공격을 개시하여 격전을 펼쳤으나 주간공격이 부진한 이날 밤은 예상외로 소강상태가 지속되었다. 적이 야간공격을 중지한 것은 4일 동안 공세작전을 펼친 주공인 중공 제40군의 4개 사단(제31, 제34, 제35, 제181사단)이 아군의 강력한 저항과 항공 및 포병화력에 큰 피해를 입어 증원부대의 투입을 위해 대기한 것으로 후일 판명되었다.



현리 돌파구 차단(1951. 5. 20~5. 22)



19일을 전후하여 중공군의 공격기세는 현저히 둔화되었으며 미 제 3사단은 제7연대와 제65연대가 장평리에 집결하자 돌파구 첨단인 속사리 부근에서 적의 공격을 차단할 일전을 계획하였다. 사단(제15연대 결)은 적의 경미한 저항을 격퇴하고 제65연대가 장평리 북쪽에, 제7연대가 백적산으로 진출하면서 적 주력이 운두령 일대에 집중 배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사단은 21일 운두령을 목표로 장평리-백적산에서 2개 연대 병진공격을 하였다. 공격제대들은 경미하게 저항하는 적을 격퇴하고 순조롭게 진출하고 있을 무렵 불행하게도 속사리-하진부리를 점령하고 우측방을 엄호하던 제3군단의 방어선이 적의 기습 공격에 돌파되었다. 사단은 공격을 일시 중지하고 접적이 경미한 좌전방 제65연대를 속사리에 재배치하여 측방을 강화한 후 22일 공격을 재개하였다. 제7연대가 운두령에 접근할수록 적의 저항이 완강하여 연대의 공격이 일시 둔화되기도 하였으나 강력한 포병화력을 집중하여 18:00경 마침내 운두령을 수중에 넣었다.<sup>96)</sup>

운두령은 속사리 서북방 10km에 위치한 구절양장(九折羊腸)의 고개로서 서쪽으로 회령봉(1326고지), 동쪽으로는 계방산(1577고지)과 연결되어 있으며, 현리-속사리로 이어지는 도로가 이 고개를 넘고 있다. 따라서 운두령의 점령은 인제-현리-속사리 축선에 형성된 적의 돌파구 첨단의 차단을 의미함과 동시에 강릉을 공격하기 위하여 이 고개 남쪽 경강국도(京江國道)로 진출한 적의 철수세가 봉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세초기 제3군단이 후방의 오마치가 피탈되면서 무력하게 철수하였듯이 이번에는 적이 그 전철을 밟게 되었다. 미 제3사단의 운두령 전투는 적의 5월 공세 저지는 물론 아군이 반격작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 (3) 大關嶺 防禦 戰鬪

국군 제1군단은 중공군의 5월 공세를 맞아 설악산-속초 선에서 분전하였으나 19일 육본명령에 의거 제3군단과 전선을 조정하기 위하여 오대산-두노봉-남애리를 연하는 와코(Waco)선으로 철수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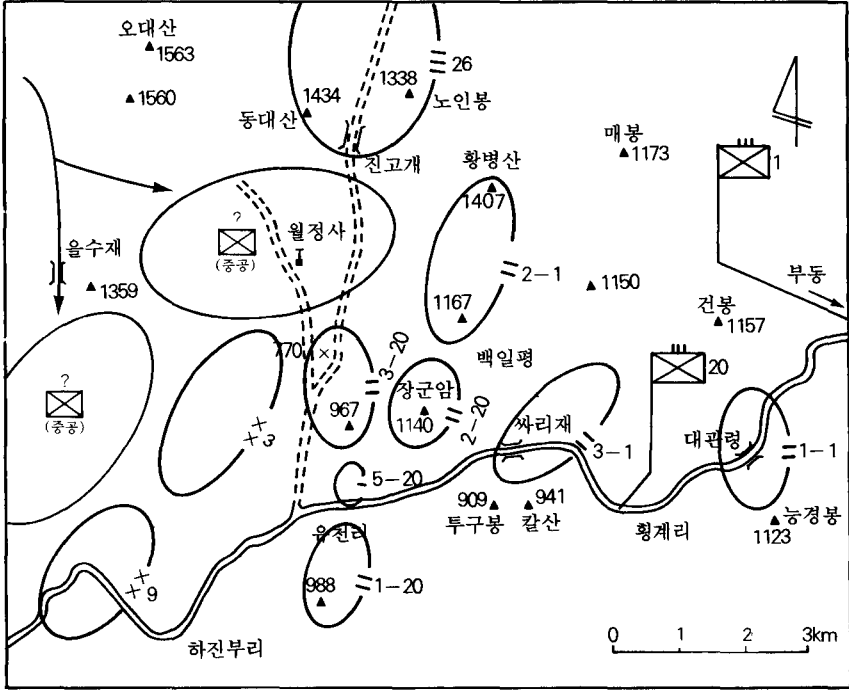
이때 군단은 제1, 제3군단의 전투지경선을 따라 진출하는 적을 저지하기 위하여 동해안 지역의 제11사단 예하의 제20연대를 군단 좌측 후방의 유천리-횡계리에 배치하였다. 그런데 21일 제3군단의 속사리-하진부 방어선을 돌파한 중공군의 일부가 대관령과 강릉을 목표로 경강국도를 따라 진출함에 따라 제20연대와 격돌하게 되었다.

군단장 백선엽(白善燁) 소장은 중공군의 공격 목표가 한국 공군이 사용 중인 K-18 비행장이 위치하고, 대량의 포탄과 군수품이 집적되어 있는 강릉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강릉의 관문인 대관령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결론짓고 부대배치를 조정하여 수도사단은 대관령을 확보하고 제11사단은 정면의 적을 저지하도록 하였다.<sup>97)</sup>

강릉에서 군단예비로 부대정비를 하던 수도사단의 제1연대는 이러한 긴박한 상황과 적정도 알지 못한 채 군단 구두명령에 의거 긴급히 대관령으로 이동하였다.

22일 새벽에 벌어진 전투에서 제11사단의 제20연대(제1연대 제2대대 증강)가 백일평-대기리 선에서 완강하게 저항하였으나 1개 연대 규모의 중공군은 방어선을 돌파하고 대관령으로 진출하였다. 제1연대는 적정을 탐지하던 수색대가 복귀하자 모든 화력을 집중하며 3시간 동안 치열한 근접전투를 벌인 끝에 이 적을 격퇴하였다. 물러난 중공군은 2개 대대 규모의 증원을 받아 이번에는 능항봉으로 우회공격을 기도하였으나 또 격퇴되었다. 연대가 일몰로 야간방어를 준비하고 있을 때 주간공격에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관령 탈취에

대관령 방어 전투(1951. 5. 20)



혈안이 된 적은 다시 2개 대대규모를 투입, 횡계치를 방어 중인 제3 대대를 포위공격함으로써 치열한 근접전투가 시작되었다. 대대는 조명지원하에 대관령을 방어 중인 제1대대와 협동작전을 펼쳐 적을 격퇴하고 대관령을 고수하였다. 수적으로 열세한 연대가 중공군과 첫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보포의 유기적인 협동작전과 장병들의 필승의 신념이 밑바탕이 되었다.<sup>98)</sup>

이 전투로 주도권을 장악한 사단은 적의 전상자 속출, 식량과 탄약 부족으로 전투력이 약화되었음을 간파하고, 재편성할 시간을 주지 않고 전과를 확대할 목적으로 23일 10:00에 동해에 대기 중인 미 제7 함대의 함포 지원하에 적의 의표를 찌르는 기습공격을 개시하였다. 횡계리-노동-차항리에서 역습을 준비 중인 1개 연대규모의 적은

아군의 역습을 받아 분산 철수하였다.

이로써 대관령, 강릉을 점령하려던 적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됨과 동시에 현리 대돌과구의 동쪽 침단이 완전 봉쇄되었다. 아군은 미 제 3사단의 운두령 점령과 수도사단의 대관령 확보로 공세이전(攻勢移轉)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동해안의 강릉에서 경강국도를 이용하여 내륙의 중부전선으로 지속적인 군수물자를 수송할 수 있게 되었다.

## 5. 龍門山 勝戰報

공산군은 5월 16일 공세를 개시한 주공부대들이 중동부전선의 주저항선을 돌파하자 중서부 지역의 유엔군을 고착, 견제하여 중동부전선으로 증원을 차단하고 그들의 주공부대의 진출을 지원할 목적으로 17일 조공부대를 북한강 계곡으로 투입함으로써 중서부전선에서도 혈전이 시작되었다. 이 기도의 일환으로 중공 제19병단 예하 제63군의 3개 사단(제187, 제188, 제189사단)이 북한강과 홍천강의 합류점 부근을 방어 중인 미 제9군단의 중앙사단인 국군 제6사단을 공격해 왔다.

당시 제6사단은 사창리에서 4월 공세의 시련을 겪은 후 전선 조정 에 따라 노네임선의 용문산(1157고지) 일대를 점령하고 방어에 주력하고 있었다. 병행하여 사창리 전투의 여파로 저하된 사기를 회복하고 약화된 전력을 보강하는 한편 불명예를 씻기 위하여 정신적인 재무장과 훈련에도 전념하였다.

중공군의 5월 공세가 임박한 징후들이 현저하게 나타나자 제6사단은 주저항선이 북한강에서 12~17km 떨어져 있어 적이 도하하여 교두보를 확보하면 방어에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제2연대를 홍천강 남쪽에 추진 배치하고 주저항선인 용문산 서쪽에 제19연대, 동쪽에 제7연대를 배치하여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사단수색대

를 홍천강 북쪽에 일반 전초로 파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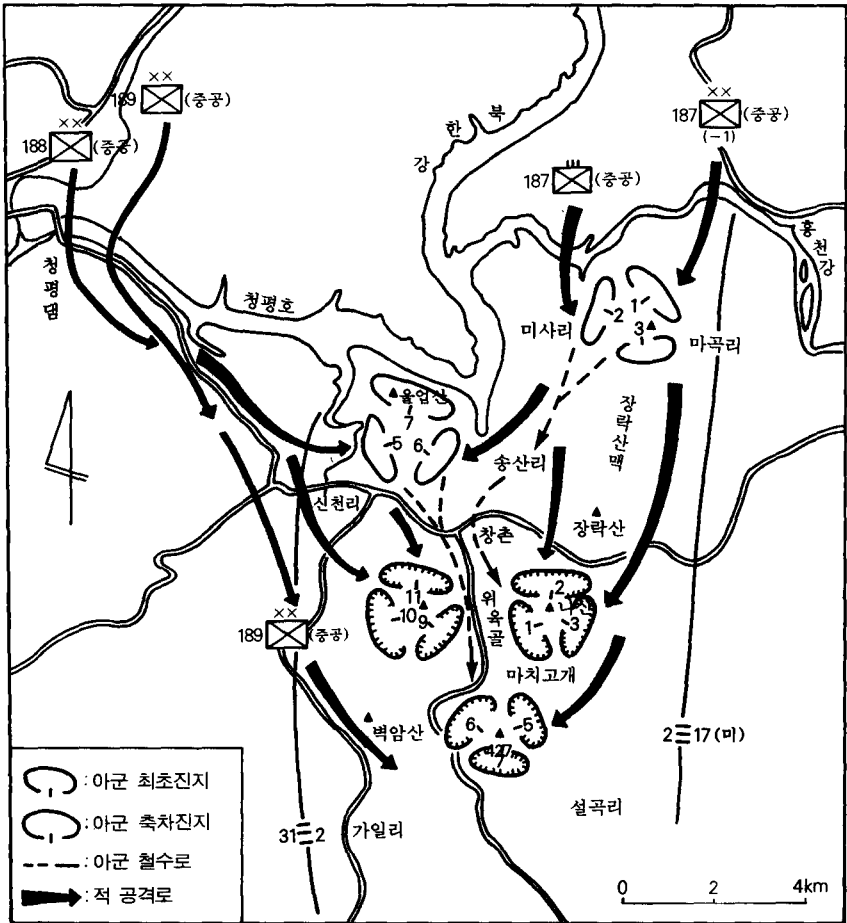
이때 제2연대는 사창리 전투의 결과로 연대장과 일부 참모들이 해임되고 송대후(宋大厚) 중령이 신임 연대장으로 부임하여 비장한 각오로 방어진지를 준비하였다. 제2대대는 ‘결사’라고 색인된 머리띠를 두르고 북한강을 감제할 수 있는 좌전방 울업산(381고지) 일대의 진지를 점령하였고, 우전방 제1대대 장교들은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왔다. 이 설욕의 기회를 깨끗이 장식하자.”라고 결의하고 홍천강의 감제가 용이한 미사리 부근의 559고지를 점령하였다.<sup>99)</sup> 그리고 예비인 제3대대를 울업산 후방의 353고지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연대의 정찰대는 17일 적의 예상도하 지점인 서천리와 강촌리 일대를 탐색 중 이미 도강하여 방하리 계곡에 집결 중인 중대규모의 적을 발견하고 격퇴하였다. 그러나 일몰이 되자 적은 북한강의 도처에서 도하를 기도하여 정찰대는 복귀하였다.

이 무렵 중공군의 남하로 북한강 일대에서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자 좌인접 국군 제2사단의 제31연대가 화야산에서, 우인접 미 제7사단의 제31연대는 두능산에서 주저항선으로 철수하여 제2연대만 청평호(淸平湖) 남쪽의 요지를 방어하게 되었다.

18일 낮 동안 적은 중대규모로 고성리, 가정리, 상박암리에서 도하공격을 기도하였으나 격퇴되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적은 포위공격을 기도한 듯 좌전방 울업산에 대대규모로, 우전방 장락산맥에 연대규모 이상을 투입하여 도하공격을 개시하였다. 연대는 사단 및 군단에서 지원된 5개 포병대대의 조명 및 화력지원을 받아 적의 공격을 저지하였으나 일부가 탄막지대를 돌파하고 진내로 접근하여 백병전을 펼쳐 자정 무렵 격퇴하였다. 제2연대가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화력을 지원받아 완강하게 저항하며 진지를 고수하자 적은 이곳 전초진지를 주저항선으로 오판한 듯 19일 새벽부터 제187, 제188사단의 주력을 투입하여 돌파를 기도하였다.<sup>100)</sup> 적은 08:00경 홍천강변의 감제고지인 559고지의 제1대대를 연대규모로 포위공격하

였으나 대대는 근접 항공지원을 요청하여 고지를 사수하였다. 아군의 근접 항공지원이 진행되는 동안 적의 공격이 잠시 주춤하였으나 폭격이 종료되자 적은 즉시 증원부대를 장락산맥 계곡으로 투입하여 제1대대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그러나 대대는 3시간 동안 혈전을 펼쳐 적의 포위망을 탈출, 연대지휘소가 있는 나산으로 철수하였다.

용문산 전투(1951. 5. 18~5. 20)



적은 우전방 공격에 이어 이번에는 예비인 제189사단을 투입하여 좌전방 제2대대의 울업산을 집중 공격하였다. 대대는 완강하게 저항하였으나 수적인 열세로 19:00 항공 포격의 엄호하에 427고지로 철수하였다. 이로써 연대의 방어정면은 353고지-나산을 연하는 사단장 강조선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제2연대는 나산 부근의 전초진지를 고수하고 있지만 이들간의 격전으로 다수의 부상자가 속출하고 또 보급을 지원받지 못해 식량과 탄약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재정비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러한 연대의 상황을 간파한 적은 20:00에 총공격을 개시하였고, 이때부터 제1대대는 나산에서, 제3대대는 353고지에서, 제2대대는 427고지에서 전면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조명 지원하에 진내로 접근한 적과 백병전으로 점철된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펼쳤다. 연대는 20일 새벽까지 계속된 전투에서 방어진지 일부가 돌파되고 통신이 두절되어 지휘통제가 불가능한 어려운 상황을 맞기도 하였으나 강력한 정신력으로 진지를 고수하였다.

한편 사단이 적중에 고립된 제2연대를 증원하기 위하여 절취부심하고 있을 무렵인 19일 밤에 미 제8군사령관은 중동부전선에서 적의 공세가 현저하게 둔화되자 중서부전선의 미 제1, 제9군단에 문산-포천-춘천을 연하는 토페카(Topeka)선으로 공격하도록 하였다.<sup>101)</sup>

공격명령을 수령한 사단장은 주저항선을 방어 중인 제19, 제7연대에 즉시 공격준비 명령을 하달하였고, 20일 05:00에 제7연대와 제19연대는 공격으로 전환하였다. 북한강 남안으로 진출하여 제2연대를 포위하고 있던 중공군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단의 기습공격을 받게 되자 이번에는 오히려 적이 포위공격을 우려하여 서둘러 강 북쪽으로 철수를 개시하였고, 공격제대는 위기상황에 빠진 제2연대와 연결한 후 적을 추격하였다.

적은 중부전선의 요충인 용문산을 탈취하기 위하여 중공 제63군이 5일 동안 공세를 펼쳤으나 제6사단의 용전 분투와 항공 및 포병화력





投抗證



1. 戰鬪를 中止하고 이 投抗證을 가져오는 中共兵士에게는 如何한 勸를 莫論하고 人道的 待遇를 保障한다.
2. 이 勸를 가까이 있는 將校에게 데리고 가서 捕虜로서 充分한 待遇를 받게하여 주어라.

大韓民國 陸海空軍總司令官  
陸軍少將 丁 一 權



▲ 중공군이 투항증(投降證)을 보이며 언덕을 내려오고 있다. 중공군이 1951. 4. 22 대공세 이후 1만명 이상이 투항하여 왔다.

중공군이 투항증을 보이며 언덕을 내려오고 있다. 중공군이 1951년 4월 22일 대공세 이후 1만 명 이상이 투항하여 왔다.

에 의해 치명적인 손실을 입고 21일 새벽 2개 연대규모의 전초부대를 두고 주력은 북으로 철수를 개시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사창리 전투의 불명예를 씻고 용문산 전투의 대승이라는 기록을 세워 국군의 위용을 내외에 과시하였다.

제6사단의 용문산 전투는 용문산을 방어하였다는 단순한 전술적 승리보다도, 전략적으로 중부전선에 형성될 수 있었던 적의 돌파를 저지함으로써 전선의 절단을 막아 수도권에 미칠 위험을 배제한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중공군은 예상되는 휴전회담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목적으로 한국전에 참전한 이후 최대규모의 병력을 동원, 춘계공세를 개시하여 4월 공세시에는 서울 외곽까지 진출하였고, 5월 공세에서는 중동부전선의 속사리-하진부 선까지 돌파구를 확장하였으나 이 공세간 엄청난 인적, 물적 손실로 그 대가를 치렀다. 반면 유엔군은 전선의 일부가 돌파되고 30~65km를 물러났으나 강력한 화력과 기동력을 이용한 조직적인 지연전을 펼쳐 전투력의 큰 손실을 입지 않아 즉시 반격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였다. 특히 국군이 용문산과 대관령에서, 그리고 미군이 병커고지와 운두령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국군과 유엔군은 4월 22일부터 한달 동안 계속된 수세에서 벗어나 공세작전으로 전환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러한 국군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미 제8군은 현리 전투의 결과로 중동부전선에서 국군을 지휘하던 육군 전방지휘소를 폐쇄하고 제3군단을 해체(5월 26일)하여 제9사단을 미 제10군단에, 제3사단을 제1군단에 배속하였다.<sup>102)</sup> 이 조치는 후일 모든 지휘관들로 하여금 전장에서 승패와 지휘관의 지도력 및 책임에 관한 교훈으로 삼도록 하였다.

## 주 기

- 1) 철의 삼각지대(Iron Triangle): 평강-철원-김화를 연결하는 삼각지역은 적이 방어에 유리하고 아군이 공격하기에는 불리한 지형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철이란 강력한 관사가 붙은 것이다.
- 2)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Center of Military History U. S. Army, Washington, D. C., 1990, p. 374.
- 3) 軍事科學院 軍事歷史研究所 編著, 中國人民志願軍 抗美援朝戰史,(北京: 軍事科學出版社, 1988), 韓國戰略問題研究所(譯), 中共軍의 韓國戰爭史, (서울: 世經社, 1991), pp. 135~136.
- 4) Billy C. Mossman, 앞의 책, p. 379.
- 5) 위의 책, p. 379.
- 6)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앞의 책, p. 133.
- 7) 벨기에 대대는 The BELGIAN Bn-LUXEMBOURG Infantry Detachment의 약칭.
- 8) 푸실리어 대대는 1st Bn Royal Northumberland Fusiliers의 약칭.
- 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임진강 전투, 1991, pp. 64~65.
- 10) 위의 책, p. 67.
- 1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1979, p. 205.
- 1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임진강 전투, p. 101.
- 13) 위의 책, pp. 103~105.
- 14) Billy C. Mossman, 앞의 책, p. 397.
- 1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6권), 1973, p. 58.
- 16) 위의 책, p. 60.
- 17) 국군 제1사단, 전진약사, p. 221.
- 18) Billy C. Mossman, 앞의 책, p. 427.
- 1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6권), p. 61.

- 20) 미타사: 과평산 정상부근에 위치한 절로서 이 전투에서 소실되었다.
- 21) Brigadier, C. N. Barclay. *The First Commonwealth Division*, (Great Britain, Gale and Polden, 1954), p. 61.
- 22) 글로스터 대대는 1st Bn The Royal Ulster Rifles의 약칭임.
- 23) 푸실리어 대대는 1st Bn Royal Northumberland Fusiliers의 약칭임.
- 2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임진강 전투, p. 71.
- 25) Billy C. Mossman, 앞의 책, p. 412.
- 26) 위의 책, p. 414.
- 27) 위의 책, p. 419.
- 28) 위의 책, p. 424.
- 2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1980, p. 457.
- 30) Billy C. Mossman, 앞의 책, pp. 426~427.
- 3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356.
- 32) 위의 책, p. 110.
- 33) Billy C. Mossman, 앞의 책, p.389.
- 34)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앞의 책, p. 140.
- 35) Billy C. Mossman, 앞의 책, p. 420.
- 36) 위의 책, p. 382.
- 37)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사, 1984, p. 524.
- 38) Billy C. Mossman, 앞의 책, p. 383.
- 39) 위의 책, p. 407.
- 40) 위의 책, p. 407.
- 41) 아질 대대는 1st Bn The Argyll and Sutherland Highlanders의 약칭.
- 4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436.
- 43) 캐나다 대대는 2nd Bn Princess Patricia's Canada Light Infantry의 약칭.
- 44) 호주 대대는 3rd Bn Royal Australian Regiment의 약칭.
- 45) 제16포병연대는 16th Field Regiment Royal New Zealand Artillery의 약칭.
- 46) 미들섹스 대대는 1st Bn The Middlesex Regiment의 약칭.

- 47) Billy C. Mossman, 앞의 책, p. 405.
- 4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1권), p. 439.
- 49) Billy C. Mossman, 앞의 책, p. 374.
- 5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6권), p. 31.
- 51)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Center of Military History U. S. Army, Washington, D. C., 1990, 육군본부(역), 밀물과 썰물, 1992, p. 427.
- 52) 국군 제5사단, 부대역사, 1969, p. 182.
- 53) 국군 제3사단, 백골사단 역사, 1980, p. 332.
- 54) Billy C. Mossman, 앞의 책, p. 431.
- 55)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473.
- 56) 위의 책, pp. 476~477.
- 5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임진강 전투, p. 184.
- 58) Billy C. Mossman, 앞의 책, p. 435.
- 5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임진강 전투, p. 188.
- 60) Billy C. Mossman, 앞의 책, p. 436.
- 61)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479.
- 62) Billy C. Mossman, 앞의 책, p. 437.
- 63) James F. Schnabel, *Police and Direction : The First Year*, OCMH, US Department of Army, 1972, p. 387.
- 64)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482.
- 65) Billy C. Mossman, 앞의 책, p. 439.
- 6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현리 전투, 1988, p. 39.
- 67) 위의 책, p. 48.
- 6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6권), p. 78.
- 69) 국군 제11사단, 화랑약사, 1975, p. 95.
- 70) 백선엽, *군과 나*, (서울: 대륙연구소, 1986), p. 178.
- 71)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485.
- 72)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앞의 책, p. 145.
- 73) Billy C. Mossman, 앞의 책, p. 445.

- 74) 앞의 책, p. 444.
- 75) 차규현, 전투, (서울: 병학사, 1986), p. 250.
- 7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현리 전투, p. 103.
- 77) 위의 책, p. 107.
- 78) 위의 책, p. 64.
- 79) 위의 책, p. 75.
- 80) 국군 제7사단, 칠성약사, 1970, p. 169.
- 81) 국군 제9사단, 백마부대사(제1집), 1982, p. 117.
- 8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현리전 투, p. 148.
- 83) 국군 제3사단, 앞의 책, p. 434.
- 8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6권), p. 205.
- 85)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앞의 책, p. 368.
- 86) 유재홍, 격동의 세월, (서울: 을유문화사, 1994), p. 265.
- 8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현리 전투, p. 168.
- 88) Ivanhoe부대: 사단의 후방지역을 엄호하기 위하여 한국군 중대규모로 임시 편성된 부대.
- 89) Billy C. Mossman, 앞의 책, p. 454.
- 90)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497.
- 91) 합동참모본부, 앞의 책, p. 535.
- 92) Billy C. Mossman, 앞의 책, p. 450.
- 93)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503.
- 9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현리 전투, p. 181.
- 95) 위의 책, p. 191.
- 96) 위의 책, p. 201.
- 97) 백선엽, 앞의 책, p.186.
- 98) 한신, 신님의 삶 속에서, (서울: 명성출판사, 1994), p. 238.
- 9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용문산 전투, 1983, p. 34.
- 10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6권), pp. 248~249.
- 101) Billy C. Mossman, 앞의 책, p. 465.
- 102) 위의 책, p. 468.

## 제 7 장 戰線의 回歸와 膠着

### 제 1 절 雙方의 政策과 戰爭指導

전쟁이 개시된 이후 춘계공세에 이르기까지 쌍방은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밀리고 미는 격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의 결정적 승리의 쟁취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감내할 수 없는 막대한 인적 물적 손실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다.

미국으로서는 자유진영 국가들로부터 전쟁의 조기 종결 압력을 받게 되었음은 물론 무한정한 인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중공과 이들에게 물자를 지원하는 소련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할 수 없었다. 반면 중공도 5차에 걸쳐 최대 80개 사단(인민군 포함)을 투입하여 공세작전을 펼쳐 보았지만, 막강한 화력과 기동력을 앞세운 유엔군을 한반도에서 축출한다는 당초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병력보충과 물자 지원에도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경험과 인식으로 인하여 쌍방은 전쟁수행 1년 만에 전선이 전쟁전의 현상으로 회귀하여 38도선 부근에서 교착되자, 군사적 수단 대신 정치적 수단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 1. 유엔군의 政策과 戰略

국군과 유엔군은 1951년 초, 중공군의 신정공세로 인한 '1·4후퇴'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1월 말 평택-삼척 선에서 재반격 작전으로 전환하여 서울을 재탈환하고, 3월 말 38도선으로 진출함으로써 전쟁전의 상태를 회복하였다. 그리고 4월 초 38도선을 전술적으로 방어하기 유리한 지형을 연결한 이른바 캔사스(Kansas)선<sup>1)</sup>까지 점령하였으며, 그후 중부전선의 방어력을 강화할 목적하에 철의 삼각지의 저변을 연결하는 와이오밍(Wyoming)선<sup>2)</sup>으로 진격을 계속하였다.

이 무렵 미 행정부 내에서는 대한(對韓) 정책을 수정하여 ‘적절한 휴전 장치하에 전쟁을 종결하고 전쟁전의 상태로 복귀한다’는 새 정책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의 임무는 적에게 충분한 피해를 가하여 적들로 하여금 미국의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일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제한되었다.<sup>3)</sup>

그러나 한국 정부의 통일정책은 변함이 없었고, 통일을 염원하며 휴전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소리가 점차 높아 갔다. 마침내 1951년 4월 3일 장면(張勉) 국무총리는 국토 분단을 초래하게 되는 어떠한 결정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는 당시 휴전을 반대하는 정부 정책의 천명인 동시에 국민의 총의를 대변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우방 제국에 대하여 한국 정부와 국민은 진심으로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한국전쟁의 유일한 목적은 통일된 독립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며, 이는 유엔도 수차 반복하여 언명한 바 있다. 한국은 한국인 스스로가 모르는 가운데 국토가 남과 북으로 분할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전쟁이 불가피하였던 것이니 통일을 저해하는 어떠한 일도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 한국인은 합법적으로 수립된 자주국가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조국을 분할하는 여하한 결정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sup>4)</sup>

이와 같이 전쟁수행 정책 결정을 두고 한미 간의 갈등이 표출되는 와중에 미국은 4월 11일 그간 행정부의 대한 정책에 잦은 불화를 초



래해 왔고, 휴전협상 제안에 마찰을 빚은 맥아더(Douglas MacArthur) 원수를 극동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 직에서 해임하고 후임에 미 제 8군사령관인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대장을 임명하였다.<sup>5)</sup>

리지웨이 대장의 부임으로 미국은 대통령, 국무 및 국방장관, 그리고 합동참모본부 등 전쟁지도부와 야전군사령부가 전쟁을 제한하려는 정책목표를 일사분란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sup>6)</sup> 리지웨이 대장은 그의 후임으로 미 제8군사령관에 부임한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중장에게 4월 22일 ‘한반도에서 군사작전에 관한 새로운 지시’를 하달하였다. 이때 미 제8군에 부과된 임무는 당시 점령하고 있던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에 대한 침략을 격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만 38도선 북쪽에서 군사작전을 실시하도록 허가되었다.

그렇지만 캔사스-와이오밍선을 초월하는 주요 부대의 전진은 오직 유엔군사령관의 승인에 의하여 실시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제8군의 부대는 만주나 소련의 국경선을 넘어서는 안되며, 그 국경선에 인접한 북한 영토에서 작전하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신임 제8군사령관은 이러한 제한사항을 준수하고 부대를 보존하는 조건으로 적에게 최대의 피해를 가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지향해야만 하였다.<sup>7)</sup>

이때 극동 해공군사령관에게 하달된 별도의 지시에서도 똑같이 전쟁 제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 제8군의 군사작전을 직접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련 영토로부터 32km 이내, 북위 32도 북쪽의 중공 영토로부터 4.8km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특히 극동군사령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한만(韓滿) 혹은 한소(韓蘇) 국경선을 넘어서는 안되며, 나진이나 압록강상의 수력발전 시설에 대하여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적의 춘계공세를 격퇴한 후 유엔군의 작전방침에 관한 정책 결정 논의는 더욱 발전되어 미 국무부와 국방부의 긴밀한 협조를 거쳐 5월 16일에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승인(NSC48-5)을 받았고, 다음날 트

루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되었다. 4월 15일의 잠정 결정된 후 1개월간의 검토 끝에 5월 17일 확정된 이 대한 정책의 핵심은 목표를 둘로 구분하였다는 것이다. 최종목표로서 한반도에 통일·독립민주 국가의 수립문제는 군사적 수단과는 별도로 정치적 수단에 의거 계속 추구한다.

그리고 당면목표로서 한국전쟁의 해결은 유엔기구를 통하여 추구하고 적절 한 휴전협정으로 적대행위를 종결하며,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38도선까지 미칠 수 있도록 경계선은 그 북쪽에 설정하며 이러한 당면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침략자에 대하여 응징을 가한다는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새로운 정책에 기초하여 1951년 6월 1일에 리 지웨이 장군에게 유엔군사령관으로서 임무를 아래와 같이 재규정하여 하달하였다.<sup>9)</sup>

귀하는 유엔군사령관으로서 휘하의 부대안전과 더불어 최소한 아래와 같은 한국전쟁의 해결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의 지리적 경계선과 그 인접 해역내에서 작전하는 인민군과 중공군의 인원 및 물자에 최대한의 손실을 가한다.

- (1) 적절한 휴전협정으로 적대행위를 종결한다.
- (2) 행정이나 군사적 방위를 둘다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또 어떠한 경우에도 38도선 이남이 아닌 곳에 위치한 북방 경계선 남쪽의 전 한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수립한다.
- (3) 한국에서 외국군의 단계적 철수를 가능하게 한다.
- (4) 북한의 새로운 침략을 격퇴할 수 있도록 한국군의 충분한 전력 증강을 허용한다.

이 임무를 추구함에 있어서 유엔군사령관은 한국의 영토와 그 인접 해역 내에서 필요하다거나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해·공군작전을 수행할 권한을 인정받았다. 이 권한은 만주, 소련 혹은 압록강의 발전시설

에 대한 작전의 실시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국경선 부근의 작전 제한은 종전의 24km에서 19.2km까지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다소 완화되었다. 지상군의 작전한계는 대체로 화천저수지를 지나 는 38도선 북쪽 약 10km의 일반적인 선으로 기술되었다.

당시 육군 총참모장이었던 정일권(丁一權) 장군은 “유엔군의 작전 제한 정책을 결정하는 중대사안이 전쟁 당사국인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음은 물론, 현지 군사령관에 이 지시가 하달된 것도 사후에 알게 되었다며 일국의 총참모장으로서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회고하고 있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 결정이 있는 직후인 1951년 6월 8일 미 국방장관 마샬 (George C. Marshall)이 도쿄를 경유, 대구의 미 제8군사령관을 방문 하고 우리 정부와 아무런 협조도 없이 귀국하였는데, 아마도 새로운 정책에 관한 설명을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때 이 대통령은 국방장관 이기붕(李起鵬)과 육군 총참모장 정일 권을 경무대(부산)로 불러 진노한 목소리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미 국의 수많은 정부 요인들이 다녀갔지만 이러한 무례한 일은 없었다. 이는 미국의 전쟁수행을 책임진 국방장관이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이 다. …중략… 우리가 지금 미국과 유엔의 지원으로 싸우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주권을 업수이 보거나 배신하는 것은 목과할 수 없 는 일이다. 국방장관은 국회와 국민 여론을 환기시켜 우리의 전쟁수 행 결의를 국내외에 반영하도록 하고, 총참모장은 장병들의 복진의 지를 보여줄 수 있는 독자적인 작전을 준비하라”고 당부하였다.<sup>9)</sup>

유엔군사령관에 대한 6월 1일자 지시는 이에 앞서 유엔군이 캔사 스, 와이오밍선에 도달하였을 때 합동참모본부가 작전을 통제하기 위 하여 하달한 것과 유사한 것이지만, 작전목표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데 특징이 있었다. 이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후 의 군사작전의 중점을 적대행위를 협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데 둔다는 것이었다.

## 2. 共産軍의 企圖와 戰略

모택동(毛澤東)은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후 2월 공세까지 4차에 걸쳐 대규모 공세를 시도, 서울을 점령하고 최대 37도선(평택-제천-삼척)까지 진출하기는 하였으나 유엔군의 섬멸과 축출에는 실패하였다. 오히려 그동안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게 되어 1951년 3월 말에는 38도선 북쪽으로 구축(驅逐)되어 방어진지를 편성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중공군은 약 2개월에 걸쳐 지금까지 공세작전에서 거의 와해된 제1세대(9개 군 30개 사단)를 재편성하는 한편, 추가로 새로이 제2세대(9개 군 27개 사단)를 한반도에 파병하여 전력을 재정비하였다. 그리고 당초 전략대로 유엔군을 한반도에서 축출할 목적으로 한국전쟁 기간 중 최대 규모의 전력으로써 두 차례에 걸쳐 춘계공세를 전개하였다.

먼저 4월 하순에는 서울 점령을 목표로 중서부전선에서, 이어 5월 중순에는 중동부전선에서 국군 주력의 섬멸을 목표로 연속적으로 공세를 펼쳤다. 이때 중공군은 병력의 우세를 최대 무기로, 유엔군은 강력한 화력으로 맞섰다. 작전 결과 공산군은 얻은 것도 없이 오히려 8만 5천여 명의 막대한 인명 손실만 입었다.<sup>10)</sup>

결국 중공군의 인해전술(人海戰術)이 유엔군의 화해전술(火海戰術)에 무릎을 꿇고 만 것이다. 적은 수적으로 우세한 병력이 유엔군의 현대화된 장비를 압도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또 그들의 당시 군수지원 능력으로는 공세작전을 7~10일 정도밖에 지속할 수 없음도 인정하게 되었다.

춘계공세에서 참패한 중공 지원군사령관 팡덕회(彭德懷)는 전선부대에 총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 이 명령문에는 “전선이 너무 확대되었다. 수송수단이 부족해 식량, 탄약의 보급이 곤란하다. 병력은 지쳤

고 이제 남으로 진격도 불가능하다.” 바로 이런 이유로 5월 공세를 예정보다 앞당겨 종료하고 병력을 4월 공세의 출발지점으로 철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곳에서 1개월 반 내지 2개월 동안 재정비하면서 장비를 개선하고, 현대적 작전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새로운 전투에 대비한다고 비장한 결의를 하였다.<sup>11)</sup>

이러한 전황에 접한 중공지도부는 “5차 전역에서 비록 승리를 쟁취하였으나 아군과 적군의 전투장비의 차이로 인하여 아군이 곤란을 겪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고 분석하고, “아군은 장기작전을 준비하여 미군을 섬멸하고, 조선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을 결정함으로써 이른바 ‘지구작전(持久作戰)’으로 전환하고 미국측의 휴전제의를 수용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6월 중순 지구작전과 평화회담을 통하여 전쟁을 마무리한다는 새로운 전쟁지도 지침을 채택하고, 군사작전 면에서는 지구전과 적극방어의 방침을 확정하였다.

즉 유리한 지형을 이용한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한편으로는 적극방어의 수단으로써 적군의 유생역량을 대량 살상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장비 개선과 훈련의 강화로 끊임없이 작전능력을 증대시켜 점차 적군과 아군의 ‘전력대비(戰力對比)’를 바꿔 “최종적으로는 승리하거나 적군으로 하여금 어려움을 알고 물러나게 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sup>12)</sup>

결국 한국전쟁은 개전(開戰) 1년 만에 쌍방의 이러한 정책과 전략에 의거 전선은 교착되고, 교착된 전선에서의 열전(熱戰)과 협상 테이블에서의 설전(舌戰)이 교차하는 새로운 양상의 전쟁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 제 2 절 戰爭前 現狀으로 回歸

### 1. 彼我的 戰線 狀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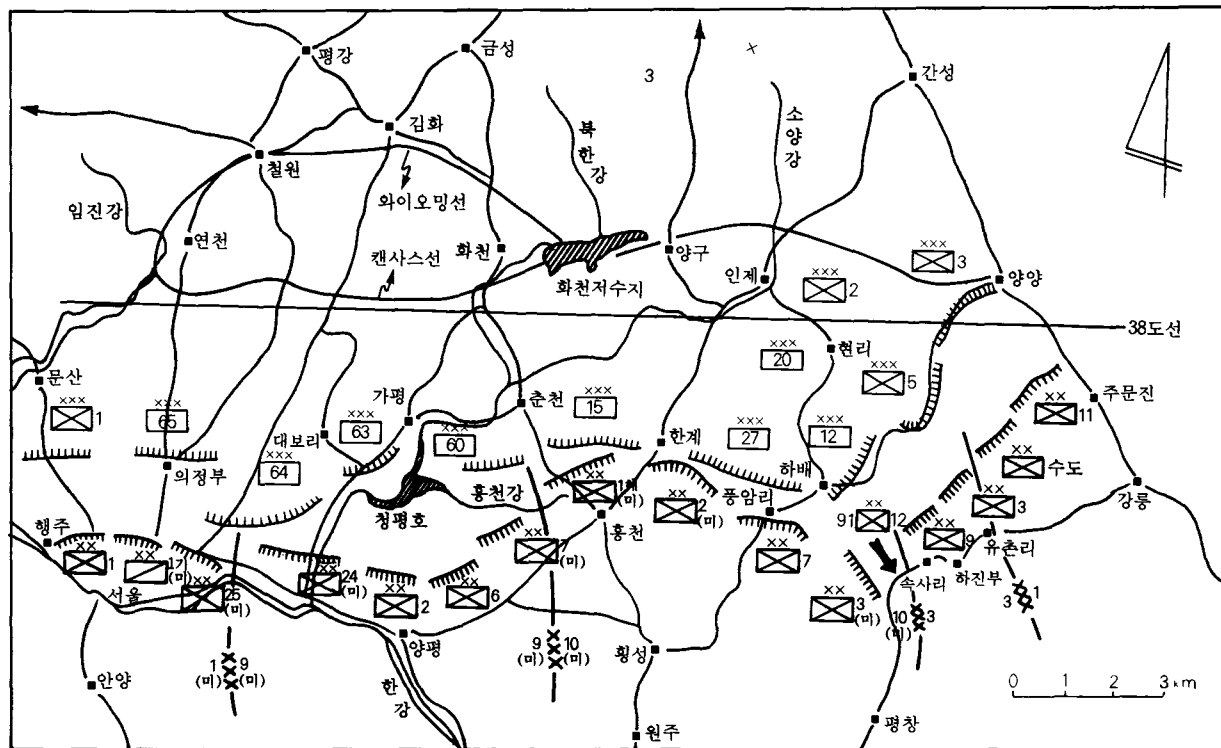
#### (1) 中共軍의 撤收

중공군은 5월 16일 중동부전선에 주공을 지향하고 2차 춘계공세(5월 공세)를 개시하여 현리 일대에 중심 약 60km에 달하는 대규모의 돌파구를 형성하면서 하진부리-유촌리까지 진출하였으나, 20일을 전후하여 주력부대의 공세활동이 현저히 감소되었다.

중공군은 공세작전을 펼친 5일 동안 국군과 유엔군의 조직적인 지연작전과 강력한 포병 및 항공폭격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 특히 이번 공세의 주력부대인 중공 제12군과 제15군이 막대한 손실을 입어 공세작전을 더 이상 펼칠 수 없을 정도로 전투력이 약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돌파구 첨단인 경강국도(京江國道)로 진출 중인 중공 제20군과 제27군 그리고 인민군 제2군단은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으로 고립될 상황에 처하였다. 이때 적은 새로운 예비대의 투입도 가능하였지만 공격제대들이 입은 인원 손실이 주로 유엔군의 포병화력과 밤낮으로 계속된 항공폭격에 의한 것임을 상기할 때 증원부대의 투입을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sup>13)</sup>

이러한 상황을 검토한 지원군사령관 팽덕회는 5월 21일 공격 중지를 결정하고 신속하게 후퇴하도록 명령을 하달하였다.<sup>14)</sup> 이 명령에 따라 적은 화천저수지 북쪽의 북한강을 전투지경선으로 하여, 중공군이 저수지 서쪽으로, 인민군이 그 동쪽으로 철수하였다. 이때 화천저수지를 동서로 연결하는 선이 그들의 철수 한계선이었다. 그리고 주력부대의 철수로를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지역에는 강력한 거점을 구

피아의 배치(1951. 5. 20)



축하고 그외 지역에는 엄호부대만 배치하여 지연전을 펼치도록 하였다.

#### 공산군의 철수계획 요지<sup>15)</sup>

- (1) 중공 제60군은 서울-춘천 도로에서 지연전을 펼쳐 제12군과 제15군의 철수를 엄호한다.
- (2) 제12군과 제15군은 제60군의 엄호하에 화천저수지 서쪽을 경유 철원, 평강으로 철수한다.
- (3) 중공 제20군과 제27군은 화천저수지 동쪽 끝으로 우회하여 저수지 북쪽 제방을 따라 철수 후, 제20군은 화천 부근에 저지진지를 점령, 제60군의 철수를 엄호한다.
- (4) 인민군 엄호부대는 화천저수지 동쪽에서 인민군의 철수를 엄호한다.
- (5) 인민군 제5군단은 철수 후 화천저수지 동쪽에서 인제까지 점령 방어한다.
- (6) 인민군 제2군단은 철수 후 인제에서 동해안까지 점령방어한다.

이 계획에 의거 공산군은 21일부터 철수하기 시작하였으나, 돌파구의 첨단인 하진부리-유천리 선으로 진출한 적은 명령이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려 22일 야간부터 철수하기 시작하였다.<sup>16)</sup>

한편 북한강 서쪽의 중공군 제19병단도 미 제1, 제9군단과 접적을 단절하고 임진강 상류와 철원 부근으로, 인민군 제1군단도 임진강 북쪽으로 서둘러 각각 철수하였다.

당시 상황을 중공의 공간사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sup>17)</sup>

이때 아군은 1개월 내에 연속해서 두 차례의 작전을 실시하여 부대가 상당히 지쳤으며, 탄약과 식량이 소진되고, 장마철이 다가와 강과 호수가 아군의 후방에 위치하여 상황이 급전되면 교통의 두절로 보급에 차질을 빚어 피해가 클 것이 예상되었다. 이외에도 금번 공세작전에서 미군의 연대단위 이상 부대를 격멸하지 못하여 적의



반격도 우려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군의 공격은 적을 섬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군에게 불리한 요인만 증가할 것이므로 철수하는 것 보다 못하였다. 따라서 아군은 주력부대를 휴식 및 재정비하여 차후 기회에 적을 격멸하기로 하고 5월 21일 공격작전을 중지하였다.

## (2) 유엔군의 反擊作戰

중공군의 5월 공세가 절정에 도달한 5월 18일 풍암리로 진출한 중공군이 미 제2사단에 압력을 가하며, 선두 부대들은 국군이 방어 중인 속사리-하진부리 방향으로 집중적인 공격을 가하여 유엔군의 중동부 전선이 붕괴 직전의 위기에 처하였다. 그런데 정보보고에 의하면 춘천 서쪽의 중서부전선에는 중공군 4개 군이 배치되어 있으나, 일부 부대로 소규모의 양공작전만 펼칠 뿐 뚜렷한 공격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

전황을 분석한 유엔군사령관은 18일 중동부전선에 집중된 적의 공격 기세를 완화시킬 방안으로 미 제8군사령관에게 서부전선에서 철의 삼각지로 이어지는 적의 주요 병참선을 위협할 수 있도록 2개 사단규모로 철원을 공격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지시에 의거 미 제1, 제9군단이 공격을 준비하는 동안 유엔군사령관은 다음날(19일) 직접 실시한 전선 정찰을 통하여 중동부전선의 적 전선이 과도하게 돌출되어 있음을 간파하였다. 그는 이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면 적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미 제8군사령관에게 공격범위를 전 전선으로 확대하여 반격작전을 실시하도록 명령하였다.<sup>18)</sup>

이때 제8군사령관도 적이 아군의 주저항선을 돌파하고 내륙 깊숙이 진출하고 있으나, 수일내 병참선의 신장과 산악지형으로 군수지원에 제한을 받아 공격이 지체되거나 정지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

서 이 기회에 신속히 공격을 개시하여 적 후방의 병참선을 차단하면 적을 ‘긴자루’ 모양의 함정에 빠뜨려 결정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sup>19)</sup>

미 제8군은 제1단계 목표인 문산-가평-춘천을 연하는 토페카(Topeka)선을 점령한 후 신속히 제2단계 작전으로 철원 방향으로 전환하여 교통의 요지로 ‘긴자루’의 목부분에 해당되는 포천-철원 축선상의 영평 부근과 춘천-김화 축선상의 화천 부근을 점령하고 목을 조르듯 적의 퇴로를 차단한다는 공격계획을 수립하였다.<sup>20)</sup>

이 계획에 의거 토페카선을 점령할 중서부전선의 미 제1, 제9군단과 미 제10군단의 미 제1해병사단은 적의 주력부대나 예비대가 방어태세를 갖추기 전에 그들을 섬멸하기 위하여 5월 20일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중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도 21일을 전후하여 강력한 항공 및 포병화력의 지원에 힘입어 풍암리-하배제



이승만 대통령이 밴플리트 대장의 안내를 받아 전선을 시찰하고 있다.

—속사리를 연하는 선에서 적의 돌파구 확대를 저지하는데 성공하자, 즉시 제10군단은 양구—인제를, 제1군단은 양양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국군과 유엔군은 적의 춘계공세 이후 수세에서 벗어나 38도선을 향해 공격작전을 펼치게 되었다.

## 2. 캔사스선으로 進出

### (1) 臨津江—永平 進擊戰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은 5월 20일 문산—포천을 연하는 토페카선을 점령한 후 캔사스선상의 영평을 확보할 목적으로 국군 제1사단을 문산 축선에, 미 제1기병사단을 동두천 축선에, 그리고 미 제25사단(배속: 터키 여단)을 포천 축선에 투입하여 3개 사단 병진공격을 개시하였다.

군단의 좌전방 공격사단인 국군 제1사단은 동거리—내화산을 목표로 원당리 일대의 정찰기지를 확보 중인 제15연대의 엄호하에 삼송리—봉일천—동거리를 연하는 도로의 좌측에 제11연대, 우측에 제12연대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11연대는 고봉산 부근에서 경미하게 저항하는 적을 격퇴하고 일산을 경유 금촌으로 진출하였으나, 제12연대는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공격이 부진하였다.

이때 적은 삼송리—봉일천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관산리 일대의 유리한 지형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박격포 사격으로 제12연대의 공격을 극력 저지하였다. 사단장 강문봉(姜文奉) 준장은 오후에 제12연대 정면의 적 전투력을 분산시켜 연대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인 제15연대를 작전지역 중앙에 투입하였다.<sup>21)</sup>

곡릉천 서쪽의 죽원리와 지영리 일대로 진출한 제15연대는 17:00

경 곡릉천을 도하 북동쪽으로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연대의 공격도 봉 일천-삼송리 도로 동쪽의 248고지 일대에서 적의 강력한 저항을 받아 둔좌되었다. 연대장 김안일(金安一) 대령은 적의 의표를 찌르는 야간공격을 기도하여 자정 무렵에 목표고지를 점령하였다.

이 무렵 사단의 우인접 미 제1기병사단의 제5연대도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지만 지축리 일대에서 공격이 둔좌되었다. 이로 인해 사단은 적의 측방 기습공격을 우려하여 추격을 중지하고 내화산-명봉산을 연하는 선에서 방어로 전환하였다.<sup>22)</sup>

이날 저녁 전투경과 상황을 분석한 사단장은 적이 주력부대의 철수를 엄호하기 위하여 지연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인민군 제1군단의 임진강 도하를 차단하여 지대내에서 완전 격멸하기로 결심하고 공격 준비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때 제11연대는 강력한 보전조로 신속히 문산을 경유 임진강 남쪽의 도하지점인 적성을, 제15연대는 법원리 일대에서 활동 중인 적의 직후방인 금곡리를 각각 점령하여 적의 퇴로를 이중으로 차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12연대는 정면공격으로 지대내 적을 섬멸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단의 공격에 앞서 21일 03:00경 1개 대대규모의 적이 법원리 남쪽 외화산에서 제11연대를 선제기습 공격하여 사단의 공격은 처음부터 차질을 빚었다. 제11연대는 이 적과 새벽까지 치열한 공방전을 펼쳐 격퇴한 후 공격으로 전환하였지만, 제15연대는 문산천 북쪽의 가좌현(加佐峴) 부근에 배치된 적의 박격포와 중화기 사격을 받아 문산천 도하에 실패하였다. 이날 따라 종일 내린 비는 연대의 기동을 제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경과할수록 문산천의 수량(水量)이 증가하여 도섭을 불가능하게 하였다.<sup>23)</sup>

공격연대들은 전날 부진했던 작전을 만회하기 위하여 필승의 각오로 다음날(22일) 동이 틀 무렵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때 적 주력은 이미 임진강을 도하 북쪽으로 도주하였고, 강 남쪽에는 주력부대를

엄호 후 미처 도하하지 못한 경계부대만 남아 있었다. 공격 연대들은 이들을 소탕한 후 문산-법원리 간의 토페카션으로 복귀하였다.

사단은 적의 완강한 저항과 우천으로 인한 항공과 포병의 화력지원이 여의치 못하여 공격에 차질을 빚어 적 주력부대 격멸에 실패하였지만, 군단의 공격제대 중 가장 먼저 토페카션을 점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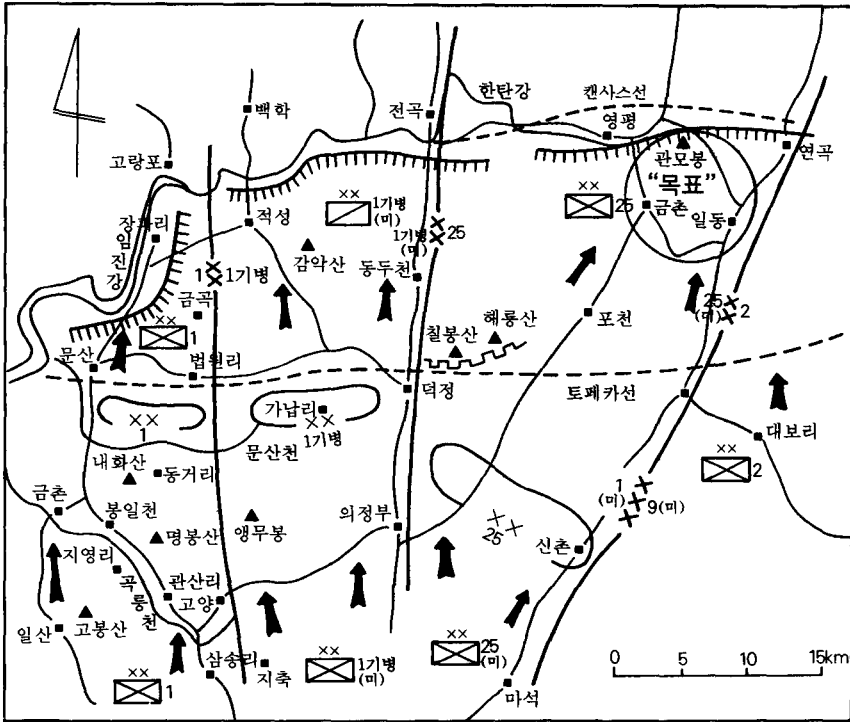
한편 중앙의 미 제1기병사단과 우전방 미 제25사단은 공격 초기부터 적의 완강한 저항과 기습적인 역습을 받아 의외로 공격이 부진하였고, 이로 인하여 동두천-포천 간의 적의 주저항선을 돌파하는데도 지체되었다. 그러나 국군 제1사단 보다 하루 늦은 23일 저녁 무렵 제1기병사단은 가남리, 제25사단은 신촌 부근의 토페카션으로 진출하였다.<sup>24)</sup>

이때 군단장 밀번(Frank W. Milburn) 소장은 제2단계 작전의 목표인 적의 예상집결지 영평을 공격할 우전방 사단의 전투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지난 5월 초순 부산에 도착하여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치고 군단에 배속된 캐나다 제25여단을 미 제25사단에 재배속하였다.<sup>25)</sup>

그러나 이 무렵 항공정찰과 첩보에 의하면 인민군 제1군단과 중공 제65군이 미 제1군단의 진출 속도보다 더 빠르게 후퇴하고 있어, 미 제25사단 보진 협동부대가 적보다 먼저 16km 북쪽의 영평 부근으로 진출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제1군단장은 24일 공격을 재개하여 북쪽의 캔사스선을 점령하도록 명령하였다.

군단 공격의 선봉에 나선 미 제25사단은 미 제89중전차대대(-1), 제27연대 제1대대, 공병 1개 중대로 돌빈 특수임무부대(T. F. Dolvin)를 편성하여 25일 영평을 점령하였으나, 적이 먼저 38도선 북쪽으로 철수하여 최초 계획된 적 주력부대 격멸에 실패하였다.<sup>26)</sup> 그리고 국군 제1사단도 사단정면의 캔사스선인 임진강을 목표로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적이 먼저 강북으로 철수함으로써 이렇다 할 접전 없이 임진강변의 진지를 무난히 점령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지난 4월 공세시 이 지역에서 물러난 이후 한달 만에 다시 임진강변으로 복귀하였다.

임진강-영평 진격전(1951. 5. 20~5. 27)



27일을 전후하여 토펜카선에서 공격을 계속한 중앙의 미 제1기병 사단이 임진강-전곡, 우전방 미 제25사단 주력도 전곡-영평의 켄사스선으로 진출하자 군단장은 추격작전을 종료하고 켄사스선에 방어진지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군단은 이번 작전에서 적 주력부대 격멸에는 실패하였지만, 영평을 점령하고 중공 제65군을 25일 저녁에 한탄강(漢灘江)으로 구축함으로써 그들이 동두천 남쪽의 칠봉산-해룡산을 연하는 선에 저지진지를 구축하고 15~20일 동안 아군의 공격을 저지할 계획에 차질을 빚게 하였다.<sup>27)</sup>

## (2) 加平-華川 進擊戰

중서부전선의 미 제9군단도 좌인접 미 제1군단과 같이 5월 20일 가평-춘천을 연하는 토페카선을 점령한 후 화천을 점령할 목적으로 좌로부터 미 제24사단, 국군 제2사단, 국군 제6사단, 미 제7사단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군단의 공격은 첫날부터 적의 저항이 경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조심스럽게 이루어져 진출이 완만하였다. 군단장 호지(William H. Hoge) 소장은 사단장들에게 이번 작전의 승패는 신속한 기동에 좌우됨을 강조하고 22일 중으로 홍천강 북쪽 3~5km까지 진출하여 중공군의 주력부대와 접촉을 유지하도록 독촉하였으나 4개 사단 모두가 아직 홍천강변에도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었다.<sup>28)</sup>

다음날 미 제8군사령관은 중동부전선에서 중공군의 5월 공세를 저지하고 공격작전에 합류한 미 제10군단의 전투정면을 축소하기 위하여 미 제9군단과 제10군단 간의 전투지경선을 조정함에 따라, 제9군단이 제10군단의 좌전방 홍천 부근지역을 인수하였다. 이 조치에 의거 제9군단장은 미 제1해병사단의 작전지역을 인수한 미 제7사단으로 하여금 홍천-춘천-화천 도로를 따라 진출하여 화천저수지 서쪽 지역을, 국군 제6사단은 북한강 서측의 계관산-북배산-가덕산-지암리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좌전방으로 진출 중인 미 제24사단은 특수 임무부대를 편성하여 국군 제2사단의 엄호하에 청평-가평 도로를 따라 신속히 가평을 공격하고, 국군 제2사단은 제24사단의 가평 진출을 엄호한 후 대보리(大報里)로 진출하여 좌인접 미 제1군단과 연결하도록 하였다. 군단은 이 계획에 의거 5월 24일 07:00에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sup>29)</sup>

이 무렵 제8군사령관은 군단지역 전방의 적이 공격체대들 보다 빨리 후퇴하는 상황을 간파하고 신속히 적의 철수로상의 요충인 화천 지역의 확보를 독촉하였고, 군단장도 공격체대에 공격 속도를 유지하

기 위하여 증대단위 이하의 적은 우회할 것을 강조하였다.<sup>30)</sup>

그리고 군단장은 가평-춘천 북쪽의 토페카선과 군단의 최종 목표인 화천을 신속히 점령하기 위하여 군단의 주공인 미 제7사단에 춘천까지 기계화부대로 공격하도록 하였다. 제7사단장 페렌바크(C. B. Ferenbaugh) 소장은 우선 제7수색중대와 전차 1개 소대, 공병 1개 분대로 하젤 특수 임무부대(Task Force Hazel)를 편성하여 춘천을 정찰하고 복귀하도록 명령하였다.

특수 임무부대가 공격을 개시하자 중공 제60군의 1개 연대규모는 춘천 남쪽의 신점리에서 원창고개에 이르는 고지군에 저지진지를 점령하고 완강히 저항하였다. 이로 인하여 특수 임무부대는 공격이 다소 지연되어 오후 늦게 춘천에 도착하였다. 특수 임무부대는 시가지와 주변고지 일대에서 무방비 상태로 후퇴 중인 중공군을 공격하여 다수를 살상하거나 생포하였다.

이 무렵 미 제7사단장은 춘천에서 작전 중인 특수 임무부대를 순시하기 위하여 전방으로 이동 중 16:00경 신점리 부근에서 중공군 매복대에 걸려 고립되기도 하였으나 전차소대의 지원을 받아 구사일생으로 구출되었다. 저녁 무렵 춘천에 진출하였던 부대들은 원대복귀한 후 25일 아침에 재배치되었다.<sup>31)</sup>

해가 뜬 뒤 춘천 북방지역을 세밀히 관측한 항공 관측자들은 “약 10,000명이 넘는 중공군들이 춘천-화천 도로와 부근의 보조도로에 집결해 있으며, 또 춘천 서쪽과 북서쪽에서도 다수의 중공군을 발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때 중공군은 24일 춘천으로 진출한 특수 임무부대를 공격제대의 선두로 오인하고 신속히 화천 북쪽으로 철수하기 위하여 밤새도록 이동하여 이곳에 집결한 것으로 후일 밝혀졌다.

군단은 오전부터 야포사격과 공중공격으로 중공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그들의 철수제대는 혼란 상황에 빠졌다. 기회를 포착한 미 제7사단은 제17연대를 기동화하여 춘천으로 진출시킴으로써 연대는 군단의 공격을 선도하는 추격부대가 되었다. 이때 국군 제2사단의 엄호



하에 가평으로 진출한 미 제24사단 제21연대도 제17연대와 지암리에서 연결하기 위하여 가평-지암리 도로를 따라 공격을 계속하고 있었다.

한편 국군 제6사단도 좌우인접에서 미 제21연대와 미 제17연대가 지암리와 화천을 공격하고 있을 무렵 북한강 북쪽에서 가평-춘천 사이의 산악지대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사단장 장도영(張都暎) 준장은 제2, 제7연대가 적의 방어거점인 계관산-북배산을 연하는 고지군을 공격하는 동안, 제19연대는 우회기동으로 북배산 후방으로 진출, 적의 퇴로를 차단하도록 하였다.<sup>32)</sup>

이날 항공 관측자들은 새벽 보고에 이어 오전에 또 “미 제10군단 지역에서 빠져 나오는 1만~1만 2천여 명의 병력과 많은 차량 및 야포가 긴 행군대형을 유지한 채 화천저수지 남쪽을 지나 화천을 향하여 이동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항공 및 포병화력이 적 대열을 공격하는 동안 군단장은 이들이 통과할 군단의 최종목표인 화천저수지 서쪽의 도로 교차점을 조기에 점령, 적의 퇴로를 봉쇄하기 위하여 작전지역의 중앙으로 진출 중인 제6사단의 제19연대는 계속하여 지암리를 서쪽에서 공격하고, 사단주력은 미 제7사단과 화천저수지를 공격하기 위하여 춘천으로 집결하도록 하였다.<sup>33)</sup>

공격의 선봉에 나선 미 제24사단의 제21연대와 미 제7사단의 제17연대는 26일 오전에 지암리에서 합류하였고, 이 무렵 국군 제6사단의 제19연대도 지암리 부근으로 진출하였다. 이로써 3개 연대는 춘천-화천 도로와 가평-지암리 도로, 그리고 지암리 남쪽의 국군 전선으로 형성된 삼각형 모양의 우리 속에 중공군을 몰아넣었다.

미 제17연대는 적의 퇴로를 차단할 목적으로 보전조를 편성하여 화천 진출을 기도하였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은 물론 이날 따라 심한 구름 때문에 항공지원을 받지 못하여 화력지원에 차질을 빚어 연대의 공격은 전진이 없었다.

27일 아침을 전후하여 중공군은 대대규모로 포위망 탈출을 기도하

였으나 퇴로를 봉쇄한 아군에 의해 격멸되고 말았다.

이후 조직적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부대는 없었고 다만 무리를 지어 무질서하게 출구를 찾아 방황할 뿐이었다. 미 제21연대와 제17연대는 북쪽으로 진출하고, 후속하는 국군 제19연대와 증원된 미 제5연대가 합동으로 잔적 소탕작전을 펼쳐 2,000여 명을 포로로 잡았다. 28일에는 제5연대가 마지막 소탕작전을 펼치는 동안 적은 대규모 집단을 이루어 투항하였는데, 하루에 38,000명의 적이 아군에 투항하였다.<sup>34)</sup> 이는 적이 전의(戰意)를 완전히 상실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군단의 전반적인 작전은 화천저수지 남쪽의 중공군이 북서쪽으로 철수하기 위해 확보에 혈안이 된 춘천-화천 간 도로변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이 축선이 이번 재반격작전의 승부처가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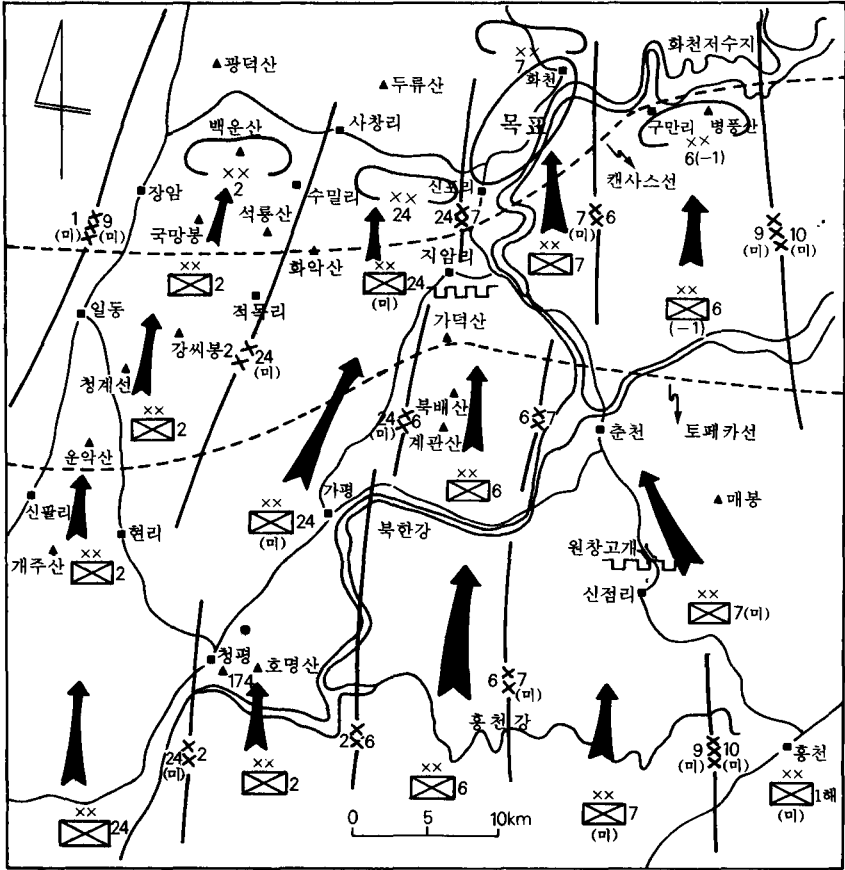
오후부터 그동안의 질은 구름과 비로 제한받았던 항공폭격이 개시되어 허둥지둥 중공군은 큰 피해를 입었고, 이 틈에 미 제17연대는 적의 완강한 저항을 뚫고 14:00에 화천으로 진입하였다. 그러나 그 이상의 진격은 중공 제20군의 1개 사단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저지되었다.

당시 상황을 중공군 전사에는 “중공 제180사단은 27일 아침 화악산 우측의 매봉을 점령하였으나 적이 북쪽의 사창리-화천선을 점령하여 포위되었다. 이때 사단의 주요 지휘관들은 동요되고 주저하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그리고 전투력을 집중하여 적의 배치 간격을 돌파하지 않고 분산 돌파를 채택함에 따라 심각한 손실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sup>35)</sup> 실제로 이 작전에서 중공 제180사단은 완전 포위되어 와해되었다.

이 무렵 지암리를 공격 중 화천저수지 남쪽으로 이동한 국군 제6사단(제19연대 결)도 이날 공격을 개시하여 경미하게 저항하는 적을 격퇴하고 구만리발전소-병풍산을 연하는 캔사스선으로 진출하였다.

당시 상황을 사단장 장도영 준장은 “후퇴하는 중공군을 추격하여 길가에 늘어진 중공군을 쓰레기 줍듯이 트럭에 실어 담았으며, 아군

가평-화천 전투(1951. 5. 20~5. 28)



“소대병력이 적 대대병력을 무더기로 생포하는 진풍경이 연출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낭보를 접한 이 대통령은 이 작전의 승리를 기리기 위해 화천저수지를 오랑캐를 대파한 호수라는 뜻으로 파로호(破虜湖)라고 고쳐 부르게 하였다.<sup>36)</sup>

한편 국군 제2사단은 23일 청평호 북쪽의 174고지에서 중공군과 치열한 격전을 펼쳐 격퇴한 여세를 몰아 적의 방어거점인 호명산을

점령하였다. 24일 사단은 군단의 전선 조정계획에 의거 미 제24사단의 가평 진출을 엄호한 후 군단의 좌전방 영 제28여단의 현리-원홍리-개주산 지역을 인수받았다.

사단은 26일 거대한 암석으로 연결된 운악산을 공격하였으나 처음부터 공격이 부진하였다. 이때 적은 암석을 엄폐물로 이용하고 있어 아군의 항공폭격은 물론 포병화력도 별 효과가 없었다. 공격의 선봉에 나선 제31연대 제2대대는 어려운 난관을 돌파하기 위하여 특공대를 편성하여 수류탄 공격으로 적의 진지를 순차적으로 격파해 나아갔다.<sup>37)</sup> 사단이 운악산을 점령하면서 중공군의 사기는 급격히 저하되어 분산 철수하기 시작하였고, 사단은 적을 추격하여 청계산, 강씨봉, 적목리, 수밀리를 경유 28일 석룡산-백적산으로 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평-가평 도로의 감제고지인 174고지를 공격하던 제31연대 제1중대 제2소대는 적 2개 중대를 개활지로 유인하여 격멸시켜 한국군 최초로 미 대통령 부대 표창을 받았다.<sup>38)</sup>

5월 28일 항공정찰 결과 화천저수지 남쪽에는 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또 국군 제6사단도 화천저수지 서쪽으로 진출하여 적 주력부대의 철수를 확인하였다. 이로써 미 제9군단의 가평-화천 진격전은 일단락되었고, 군단은 캔사스선 방어에 주력하게 되었다.

금번 작전에서 목표(화천) 점령이 너무 지연되어 미 제10군단 지역에서 올라오는 중공군을 완전 포위하지는 못하였지만, 제9군단은 5월 마지막 3일간의 전과를 포함하여 이번 반격작전 기간 중 총 62,000명을 사살하거나 생포하는 대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군단도 341명 전사, 2,011명 부상, 그리고 195명이 실종되는 손실을 입었다.<sup>39)</sup>

### (3) 楊口-麟蹄 進擊戰

제8군사령관은 22일 중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이 공산군의 5월 공세를 저지하고 전황이 호전될 기미를 보이자 군단의 방어정면을 축소

조정 한 후, 공세작전으로 전환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신속히 소양강 선으로 진출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지대내 적을 포위격멸함과 동시에 적 증원을 저지하도록 명령하였다.

미 제10군단장 알몬드(Edward M. Almond) 중장은 2개 사단으로 적의 후보급로인 홍천-인제-간성 도로상의 요지인 양구와 인제를 점령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또 1개 사단으로 도로 남쪽에 포위된 적을 격멸하기로 공격계획을 수립하였다.<sup>40)</sup> 이 계획에 의거 미 제1해병사단(배속:국군 제1해병연대)은 한계-인제 도로 서쪽으로 진출하여 양구를, 미 제2사단(배속:미 제187공수연대, 국군 제7사단 제3, 제5연대)은 한계-간성 도로 동쪽으로 진출하여 인제를, 미 제3사단(배속:국군 제8, 제9사단)은 운두령 점령에 이어 속사리-현리 도로와 하배제-양양 도로의 교차점 부근인 창촌을 각각 점령하게 되었다. 그리고 군단에 예비인 국군 제5사단은 하안흥리, 제7사단(2개연대 결)은 유동에서 계속 부대정비를 실시하였다.

공격준비를 완료한 공격체대들은 5월 23일 08:00에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지형이 험악하고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진출이 부진하였다. 제8군사령관의 독촉을 받은 군단장은 미 제2사단에 전차 2개 중대를 중심으로 특수 임무부대를 편성하여 소양강변의 음양리 교량을 조기에 점령하도록 명령하였다.

제2사단장 러프너(Clack L. Ruffner) 소장은 한계-인제 도로로 진출 중인 미 제187공수연대에 증원된 제72전차대대와 사단에 배속된 제64전차대대의 각 1개 중대와 제187연대 제2대대로 체르하르트 특수 임무부대(Task Force Gerhardt)를 편성하여 신속히 공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미 제72전차대대의 도착이 지체되어 공격은 24일 정오부터 시작되었다. 선두부대는 한계 북방으로 진출하게 되자 지난 철수작전시 중공군이 도로에 대전차 장애물을 설치하여 큰 피해를 입었던 경험 때문에 도로를 점검하기 위하여 일시 전진을 중지하였다.

이 광경을 헬리콥터에서 목격한 군단장은 선두 부대장 뉴맨(Newman)

소령에게 적의 지뢰지대에 봉착할 때까지 전차는 최고 속력으로 계속 전진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주력부대도 아직 편성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을 확인하고 우선 전차만이라도 서둘러 공격을 재개하라고 독촉하였다.

이에 뉴맨 침병부대가 북쪽으로 진출함으로써 음양리 남쪽에서 아군의 공중공격을 받고 무질서하게 후퇴하던 중공군 4,000여 명의 후방퇴로를 차단할 수 있었다. 침병부대는 즉시 이들을 사격하였고, 적은 사체, 보급품, 우마, 차량 등을 방치한 채 서둘러 도로 양측방 고지와 소양강을 건너 분산 도주하였다.

당시 상황을 중공군의 전사에는 “24일 적이 소양강 도하장인 부평리, 구만리를 점령하고 퇴로를 차단하여 중공 제9병단 제27군은 부평리 남쪽 홍천-인제 간의 도로 양측 고지에서 고립되었다. 이로 인하여 아군은 최초 소양강을 이용하여 적을 저지하려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sup>41)</sup>

이때부터 적을 추격한 미 제2사단은 25일 제23연대가 소양강 북쪽에 교두보를 확보하였으나, 제38연대는 인민군의 저항으로 진출이 지연되어 현리 부근까지 진출하였다. 제23연대가 소양강 교두보를 확보한 이후 제187공수전투단은 동해안의 간성을 점령하기 위한 베이커 특수임무부대(T. F. Baker)를 편성하기 위하여 음양리 남쪽에 집결, 군단예비가 되었다.

이 무렵 사단의 좌인접에서 양구로 공격 중인 미 제1해병사단은 지형이 험악한데다 치열한 격전을 펼쳐 겨우 자은리 일대로 진출하였고, 우인접의 미 제3사단의 공격도 부진하여 하진부리-속사리에서 창촌을 목표로 공격 중에 있었다.

군단의 공격이 전반적으로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군단장은 아직 적을 섬멸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미 해병사단은 신속히 양구를 점령하고, 미 제2사단도 인제를 점령한 후 베이커 부대를 편성하여 신속히 간성을 점령하라고 강요하였다. 그리고 미 제3사단은 국군 제

1군단 정면의 적을 포위공격하기 위하여 찰리 특수 임무부대(T. F. Charlie)를 편성하여 하배제에서 양양에 이르는 도로를 따라 공격할 계획이었다.<sup>42)</sup>

비가 멈춘 5월 26일 오후 항공 관측자들은 군단지역을 세밀히 관측한 결과, 현리-인제 도로와 인제 북쪽의 도로변에 적의 부대와 차량들이 대량으로 이동하는 것을 관측하였다. 이때부터 전폭격기들은 인제와 현리 일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많은 손실을 입혔다.

이 여세를 몰아 미 제38연대가 현리 부근에서 전과확대를 목적으로 강력한 정찰활동을 펼쳤으나 인민군 제13사단 제19연대의 저지로 공격이 여의치 않았다. 그리고 양양을 목표로 진출한 미 제3사단의 찰리 특수 임무부대도 적이 매설한 지뢰와 기동로상의 교량이 파괴되어 진출이 불가하였다.

이 무렵 한계-인제 도로 남쪽으로 진출하였던 적 주력을 포위격멸하기 위해서는 인제 점령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적도 화천저수지-인제 간에 주저항선을 구축하고 철수부대를 엄호할 목적으로 인민군 제2군단과 제5군단을 재배치하기 시작하여 군단의 공격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현리와 인제 사이에는 남쪽으로부터 후퇴하여 이곳에 집결한 인민군 부대들과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북상 중인 낙오병들로 꽉 차 있었다. 미 제10군단장은 이 적을 포위 격멸하기 위하여 27일 베이커 부대로 하여금 적 부대들의 처리는 후속하는 제23연대에 맡기고, 신속히 인제를 점령한 다음 우인접 국군 제1군단과 협조하여 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이 명령에 의거 베이커 특수임무는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진출이 지연되어 14:00경 인제로 진출하였고, 미 제38연대의 현리 공격도 적의 완강한 저항과 철수시 도처에 매설한 지뢰로 인하여 추격이 불가하였다. 그리고 베이커 부대의 간성 공격은 이 무렵 동해안 축선을 따라 진출한 우인접 국군 제1군단이 이미 간성

까지 진출함으로써 취소되었다.<sup>43)</sup>

결과적으로 미 제10군단은 재반격작전에서 공산군 주요부대에 심한 손상을 주었지만, 철수로상의 요지인 양구-인제 지역의 확보가 지연되어 포위망 구축에 실패하여 적의 탈출을 허용하고 말았다.

#### (4) 襄陽-杆城 進擊戰

동해안의 국군 제1군단은 중서부전선과 중동부전선의 미 군단들이 캔사스선 진출작전을 펼치고 있을 무렵인 5월 25일까지 하진부리로 진출한 중공군의 일부와 대관령에서 치열한 격전을 펼쳐 적을 격퇴하였다. 이로써 군단도 캔사스선을 목표로 반격작전에 동참할 수 있었다.

군단장 백선엽(白善燁) 소장은 지난 5월 공세의 결과로 국군 제3군단과 육군 전방지휘소가 해체되고 군단마저 미 제10군단의 작전통제를 받은 일이 있어 국군의 위상이 실추되었음을 통감하고, 이번 반격작전에서 기필코 국군의 위용을 만회하기로 결심하였다.<sup>44)</sup> 군단은 1단계로 매복산-가잔리-인구리를 연하는 선을 목표로 좌전방 산악지대에 수도사단, 우전방 동해안에 제11사단으로 병진공격을 실시하고, 국군 제3군단에서 배속이 전환된 제3사단은 아직 부대정비가 완료되지 않아 송계리(松溪里)에서 군단예비로 신속히 부대정비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군단의 공격제대들은 26일 06:00에 경강국도(京江國道) 변에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고, 이때 중공 제9병단 제27군과 인민군 제12사단은 대관령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받아 전의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좌인접에서 공격 중인 미 제10군단에 의해 퇴로 차단을 우려하여 서둘러 철수하고 있었다.

대관령 전투의 승전으로 사기가 오른 수도사단의 제26연대는 오대산 북쪽의 험준한 준령을 따라 두로봉-매복산을, 제1기갑연대는 북용산을 목표로 공격을 하였고, 제1연대는 사단예비로 진고개에서 공



격연대를 증원할 준비를 하였다. 공격제대들은 소규모 패잔병들의 기습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험준한 태백준령을 따라 적을 추격하여 27일 매복산, 복용산으로 진출하였다.

그리고 수도사단의 우인집 제11사단도 26일 주문진 남쪽의 연곡천변의 도로에서 1단계 선인 가잔리-인구리를 목표로 3개 연대 병진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9, 제20연대는 적의 저항이 경미하여 1단계 선을 지나 남대천을 도하 27일 오후에 캔사스선상의 동쪽 끝 지점인 동해안의 양양을 무혈 점령하였다. 그러나 작전지역 중앙으로 공격한 제13연대는 주문진 서쪽 하월천리(下月川里) 부근에서 1개 대대규모의 적과 28일 02:00까지 치열한 격전을 펼쳐 격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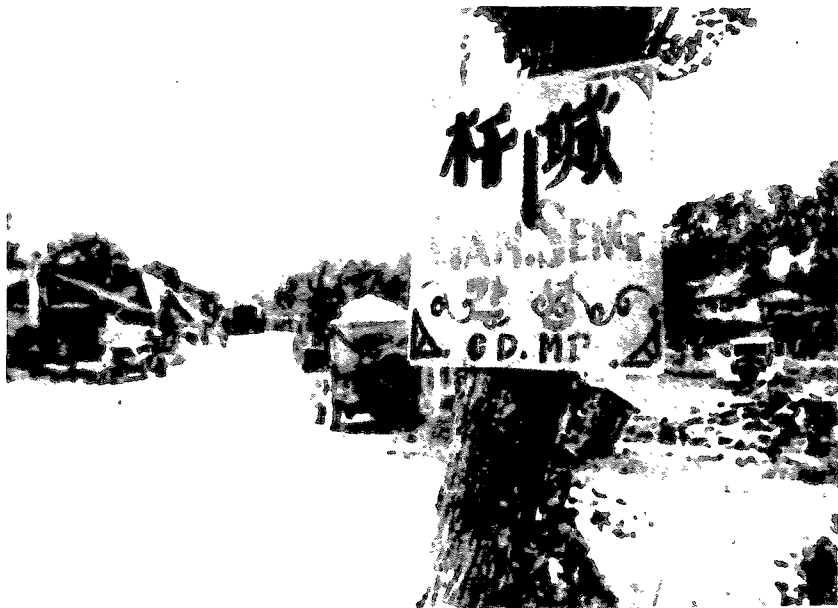


중공군의 춘계공세를 분쇄하고 국군이 동해안에서 38도선을 다시 돌파하고 있다.(1951.5)

한편 제8군사령관은 군단의 좌인접에서 병진 공격 중인 미 제10군단의 공격이 적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부진하자 정면에 배치된 적의 전투력을 분산하고 동해안의 전술 요충인 간성을 점령할 목적으로 군단의 전투지경선을 만월봉—설악산에서 북쪽의 504고지로 연장하고, 간성 북쪽의 504고지—팔음리—송죽리를 조속히 점령하라고 명령하였다.<sup>45)</sup>

이 무렵 항공관측과 수색정찰 보고에 의하면 적은 인민군 제2군단 제13사단을 한계리—원통 선에, 군단직할의 1개 연대규모를 군단정면인 마등령—미시령 선에 긴급히 투입하여 방어거점을 편성한 후 철수하는 중공군과 인민군을 엄호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군단장 백선엽 소장은 설악산 일대에 1개 연대규모의 적이 배치되었음을 확인하고 전선을 조정하였다. 지난 5월 초순 이 지역에서 인



동부전선의 국군 제1군단은 38도선 북방 약 50km에 위치한 간성으로 진격하고 있다.(1951.5.29)

민군을 격퇴하여 지형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최덕신(崔德新) 준장의 후임으로 부임한 오덕준(吳德俊) 준장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제 11사단은 설악산 일대를, 수도사단은 적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는 동해안의 양항(良港)인 간성을, 그리고 재편성을 완료한 제3사단 제 18연대는 설악산 남쪽의 가라피-마산리 일대를 공격하도록 하였다.<sup>4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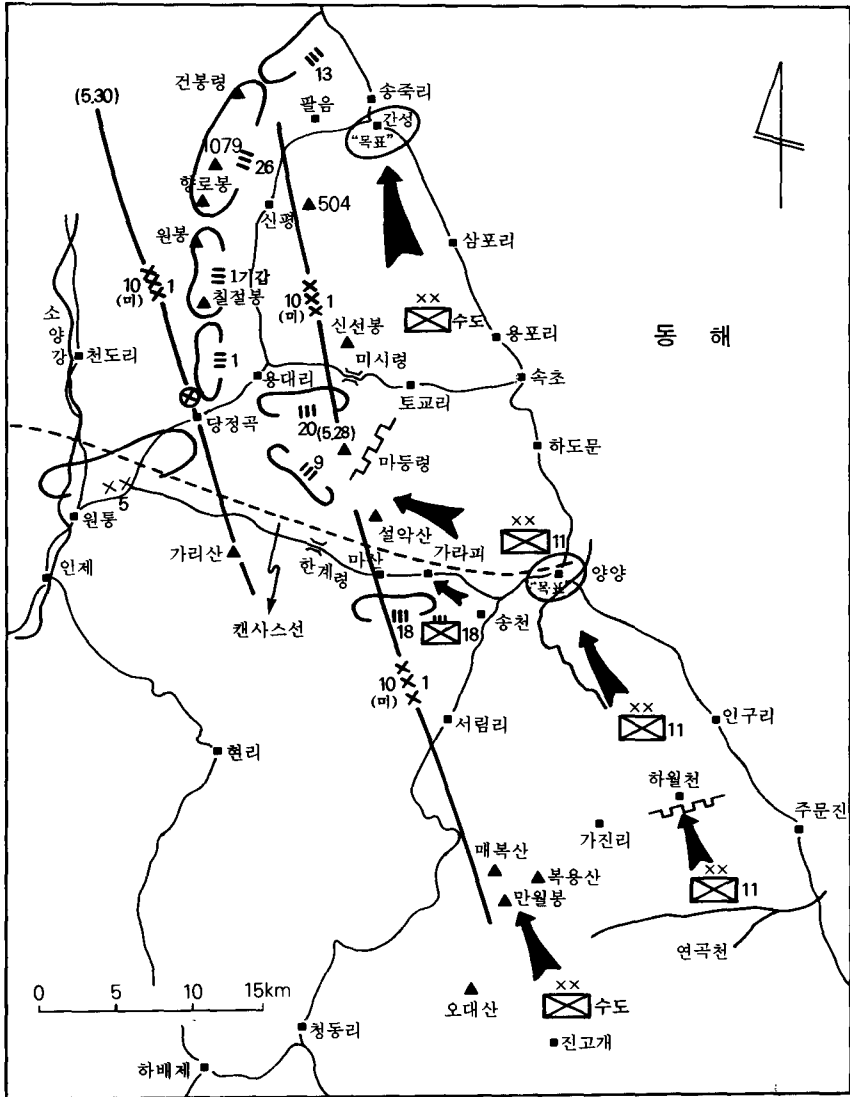
이 명령에 의거 수도사단은 28일 속초 남쪽의 하도문(下道門)으로 진출한 제11사단 제9연대의 엄호하에 제1연대는 속초 북쪽의 용포리로, 제1기갑연대는 삼포리로, 그리고 제26연대는 울산바위 북쪽의 토교리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제18연대도 송천리(松川里) 일대의 제20연대 진지를 인수하였다. 그리고 작전지역을 인계한 제11사단도 설악산을 공격하기 위하여 제9연대를 설악산 입구의 신흥사 부근에, 제20연대를 둔전리에, 제13연대를 강선리에 집결시켰다. 부대이동을 완료한 공격제대들은 서둘러 공격준비에 주력하였다.

29일 동이 틀 무렵 수도사단의 제1연대는 간성 서북쪽 504고지를, 우전방 제1기갑연대는 간성을, 제11사단의 제20연대는 신선봉을, 그리고 제3사단 제18연대는 가라피를 목표로 각각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번 공격작전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된 간성을 공격하게 된 제1기갑연대는 적의 강력한 저항을 예상하였으나 의외로 적정이 경미하여 공격을 개시한 지 4시간도 못된 09:30에 간성을 점령하였다.<sup>47)</sup>

공격을 계속한 수도사단 제1기갑연대는 30일 간성 서북쪽 토기점리-화진포로, 제1연대는 간성 서남쪽 어천리-신평리로, 사단수색중대는 고성으로, 제11사단 제20연대는 신선봉 일대에, 제9연대는 마동령 일대에, 그리고 원통-양양 도로를 따라 공격한 제3사단 제18연대는 가라피를 경유 마산리로 각각 진출하였다.

군단의 작전이 종료될 무렵 제8군사령관은 30일을 기하여 군단과 미 제10군단의 전투지경선을 서쪽으로 10km를 이동시켜 1098고지-매봉산-당정곡-안산-가리봉을 연하는 선으로 조정하고, 협조점인 당정곡에서 제10군단과 연결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군단의 주보

양양-간성 진격전(1951. 5. 26~5. 31)



급로인 인제-간성 도로의 확보에 필수적인 전방의 향로봉-1079고지-건봉령을 연하는 향로봉 산맥을 점령하도록 명령하였다. 아울러 이 선이 군단의 전진 한계선임도 강조하였다.<sup>48)</sup>

군단장은 이 조치에 의거 군단의 전투정면이 서쪽으로 10km 확장되자 이 공간을 메우기 위해 부대배치를 조정하였다. 수도사단은 제11사단 예비인 제13연대를 배속받아 당정곡-향로봉-거진을 연하는 전방지역을 방어하고, 제11사단(제13연대 결)은 군단의 측후방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 계획에 의거 수도사단장 송요찬(宋堯讚) 준장은 제13연대는 접적이 경미한 간성 서북쪽의 제1기갑연대 진지를 인수하고, 예비인 제26연대는 제1연대를 초월하여 서북쪽의 향로봉 산맥을, 제1연대는 당정곡-매봉산-칠절봉을, 제1기갑연대는 작전지역을 인계 후 서남쪽의 칠절봉-1166고지-원봉을 각각 점령하도록 조치하였다.<sup>49)</sup> 이 전투에서 제1연대만 용대리(龍垞里) 부근에서 50여 명의 적과 교전하였을 뿐 다른 연대들은 접적 없이 31일 오후에 책임지역을 점령하고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한편 제11사단은 작전지역이 험준한 산악지형임을 고려하여 중대별로 기동하도록 하였고, 제20연대는 용대리-미시령 도로의 남쪽 고지에, 제9연대는 설악산 서쪽의 능선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그리고 제3사단 제18연대도 마산리-가리피 도로 남쪽의 감제고지에 배치되었다.

군단은 6일간의 공격작전에서 캔사스선을 확보한데 이어 그 보다 약 40km 북쪽의 간성까지 진출하여 향로봉 산맥을 따라 방어선을 형성하였다. 이로 인하여 군단과 좌인점으로 진출한 미 제10군단 예비국군 제5사단 사이에 부채꼴 모양의 공간이 생겨, 적의 측방공격에 대비 경계를 강화하였다.

이와 같이 국군과 유엔군은 5월 하순 반격작전을 계속하여 중공군 제180사단을 섬멸하는 등 적에게 막대한 인적, 물적 손실을 가하고

캔사스선을 재 확보하였다. 1개월간에 걸쳐 최대 역량을 투입한 적의 춘계공세가 대패하고, 전선이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그러나 최초 계획한 적의 예상집결지인 영평, 화천, 인제 점령이 지연되어 유엔군이 계획한 적 주력의 대포위는 계획대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유엔군 으로서는 중공군과의 교전 이후 적의 재편성을 방해하고 전과확대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포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지도부의 작전 방침에 의거 추격작전을 펼치지 못하고 방어선을 구축한 후 제한된 공격작전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 3. 와이오밍(Wyoming)선 確保

국군과 유엔군은 38도선을 전술적으로 방어하기에 용이한 캔사스선으로 진출하였으나, 이 선의 요새화와 방어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쪽의 방어에 유리한 감제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유엔군사령부와 미 제8군은 5월 말 이 조치의 일환으로 적 춘계공세 이전에 확보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전곡-철원-김화-화천을 연결하는 와이오밍선을 확보하여 캔사스선과 함께 이중(二重) 방어선을 형성하기로 하였다. 이는 철의 삼각지대가 적 공세의 근원지이므로 이곳이 적의 수중에 들어 있는 한 캔사스선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데 기인한 것이었다. 따라서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이 이러한 위협을 제거함과 동시에 철의 삼각지에서 화천저수지와 춘천으로 향하는 적의 후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와이오밍선으로 제한된 공격작전을 전개하도록 하였다.<sup>50)</sup> 이 작전의 명칭은 ‘말뚝을 박듯이 전선을 튼튼히 한다는 의미’로 파일드라이브(Piledriver)라고 명명하였다.

이 무렵 적도 38도선 북쪽으로 철수한 후 아군의 작전이 제한된 공격으로 전환하였음을 간파하고 예비대를 투입함은 물론 철수하던 패잔병들을 집결시켜 캔사스선 북쪽에서 저항하기 시작함으로써, 쌍

방은 철의 삼각지대를 두고 다시 한번 혈전을 펼치게 되었다.

### (1) 鐵原-金化 進擊戰

제8군사령관은 이번 작전의 중점을 미 제1군단의 책임지역인 철원과 김화지구의 봉쇄에 두고, 미 제10군단에 배속되었던 국군 제9사단과 미 제3사단을 5월 29일부로 미 제1군단으로 배속 전환하는 등 제1군단의 전투력을 강화시켰다.<sup>51)</sup> 이에 따라 제1군단은 국군 제1사단을 임진강 남쪽에, 미 제1기병사단(배속: 영 제28여단)을 전곡 남쪽에, 국군 제9사단을 영평 북쪽의 누대리에, 미 제3사단을 운천 남쪽에, 그리고 미 제25사단(배속: 터키 여단)을 도평리 일대에 배치하여 전선을 조정하였다.

국군 제1사단이 임진강 북쪽에서 강력한 정찰활동으로 군단의 좌측방을 엄호하는 동안, 공격준비를 완료한 군단주력은 6월 3일 좌전방 미 제1기병사단이 전곡-연천 도로를 따라 북서쪽의 임진강을, 중앙의 국군 제9사단이 향로봉-지장봉을 연하는 산악을 따라 고대산을, 미 제3사단이 운천-평강 도로를 따라 철원을, 그리고 좌전방 미 제25사단이 도평-금성 도로를 따라 김화를 각각 공격하였다.<sup>52)</sup>

공격제대가 공격을 개시하자 적의 저항도 완강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상 악화로 군단의 공격은 초일부터 차질을 빚기 시작하였다. 5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내린 폭우로 도로는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고, 낮게 끼인 구름과 안개는 근접항공지원과 지상관측을 제한하였다. 그 후 이틀간은 대체로 날씨가 양호하였으나 군단이 공격을 재개하자 다시 폭우가 쏟아져 부대기동은 물론 항공 및 포병 작전에도 지장을 주어 군단의 공격은 6월 5일까지 부진하였다.

반면 적은 이 틈을 이용하여 방어진지 보강은 물론 예비대를 투입하여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때 국군 제9사단이 공격하게 될 험준한 산악지형인 가치항-지

장봉-고대산 일대에는 중공 제65군 예하의 1개 사단규모가 주력부대의 철수를 엄호하고, 후방의 주저항선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획득할 목적으로 축차진지를 점령하면서 지연전을 기도하였다.

사단장 최석(崔錫) 준장은 작전지역이 향로봉과 고대산으로 연결되는 험준한 산악지형일 뿐만 아니라 적정을 고려하여 1개 연대로 향로봉을 점령하면, 2개 연대로 병진공격하여 철원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의거 제28연대가 6월 5일 한탄천변에서 공격을 개시하자 1개 대대규모의 적이 가치항(713고지)-향로봉 선에 강력한 거점진지를 구축하고 완강하게 저항하여 공격이 일시 둔화되기도 하였으나 격전 끝에 적을 격퇴하고 향로봉으로 진출함으로써 공격의 발판을 확보하였다. 사단은 6일 좌전방에 제30연대를 투입하여 2개 연대 병진공격을 시도하였으나 지형이 험준하여 기동공간이 제한되고, 적이 지장봉 일대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완강히 저항함에 따라 공격이 부진하였다. 적의 완강한 저항과 불리한 지형으로 공격 초일부터 악전고투한 우전방 제28연대는 공격개시 3일 만인 7일 고대산 공격의 발판이 되는 지장봉을 정면과 양측방으로 포위공격하여 점령하였다.

다음날 사단은 강력한 방어거점을 구축하고 완강하게 저항하던 적을 격퇴하자 쉽게 고대산을 점령할 것으로 낙관하였으나, 1개 대대규모의 적이 새벽에 우전방 제28연대가 점령 중인 지장봉을 기습공격하여 연대는 이 적과 하루종일 격전을 펼쳤고, 좌전방 제30연대도 산악 기동로의 요지마다 배치된 적의 기습공격으로 공격이 부진하였다.

사단이 9일 공격을 재개하자 적은 지장봉 북쪽의 402고지와 638고지 일대에 강력한 방어거점을 구축하고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이로 인하여 사단은 공격개시 이후 최대의 결전을 펼쳤다.<sup>53)</sup> 좌전방 제30연대는 수류탄과 총검으로써 근접전투를 펼쳐 철원으로 연결된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대광리 북쪽의 천광곡을 점령하였으나, 우전방 제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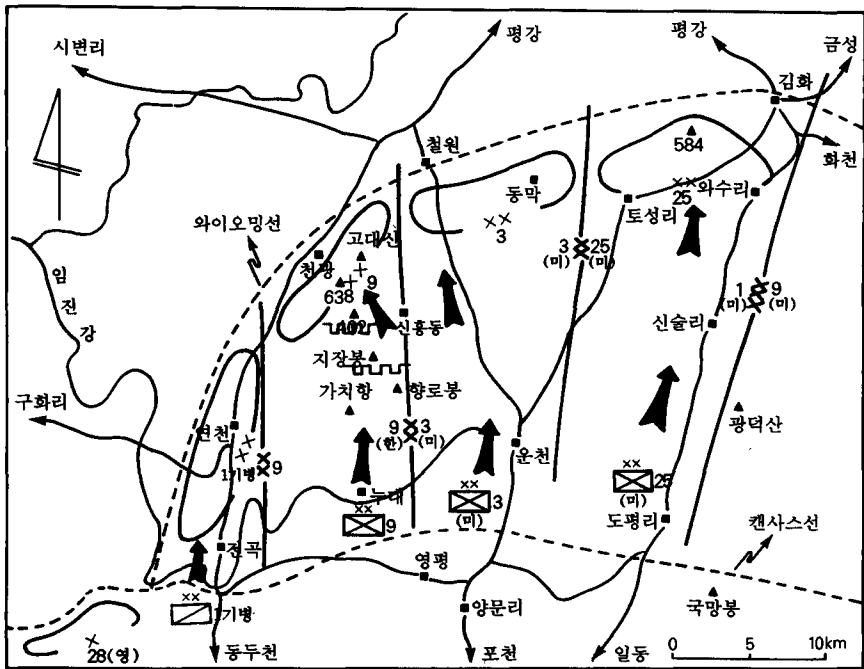


연대는 우인점 미 제3사단 제7연대의 진출이 지연되어 측방노출이 우려되어 일시 방어로 전환하였다.

이때 사단의 우인점에서 병진공격한 미 제3사단 제7연대는 산악지형의 기동에 미숙할 뿐만 아니라 적의 저항이 완강하여 11일에야 신흥동에서 제28연대와 연결하였다. 이날 제28연대는 제7연대와 병진공격을 속개하여 경미한 저항을 격퇴하고 최종 목표인 고대산을 점령함으로써 와이오밍선을 확보하였다.<sup>54)</sup>

이로써 사단은 좌인점에서 연천 서쪽으로 진출한 미 제1기병사단에 이어 공격개시 7일 만에 천광곡-철원 간의 와이오밍선을 점령하고 철원을 남쪽에서 감제할 수 있는 능선상에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사단은 이 전투의 승리로 지난 현리 전투의 실패를 만회하였을

철원-김화 전투(1951. 6. 5~6. 13)



뿐만 아니라 장병들의 사기도 충천하였다.

한편 사단의 우인접에서 공격한 미 제3사단과 미 제25사단도 6월 8일까지는 기상 악화로 아군의 항공 및 포병지원이 불리한 점을 틈타 중심 깊게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완강하게 저항하는 적에게 다소 고전하였다. 그러나 9일부터 기상이 호전되어 근접항공지원은 물론 포병화력의 집중과 공격제대의 집요한 공격이 개시되자 적은 대대단위로 방어선을 이탈하기 시작하였고, 이 틈을 이용하여 적을 추격한 결과 제3사단과 제25사단도 철원-김화를 연결하는 와이오밍선의 좌반부(左半部)를 점령하였다.<sup>55)</sup>

군단의 주력부대들이 와이오밍선으로 진출하자 군단장은 이 선에 방어진지를 강화하는 한편, 13일에는 전차와 보병으로 특수 임무부대를 편성하여 평강을 정찰한 결과 시내는 무인지경이며 적이 북쪽 능선에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2) 大成山-鷲峯 進擊戰

미 제9군단장은 최초 백운산-사창리-화천저수지를 연하는 캔사스선에 국군 제2사단, 미 제24사단, 미 제7사단, 국군 제6사단을 배치, 주저항선을 방어 중이었다. 그는 와이오밍선 진출작전에 3개 사단으로 병진 공격을 하고, 1개 사단을 군단예비로 확보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는 군단의 와이오밍선 공격정면인 김화에서 화천저수지에 이르는 작전지역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산악지형으로 기동공간이 제한됨을 고려한 것이었다.<sup>56)</sup>

이 계획에 의거 좌전방 국군 제2사단은 김화 동쪽의 도로를, 중앙 미 제7사단은 적근산 남쪽의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감제고지를, 우전방 국군 제6사단은 화천저수지 북쪽에서 주변 도로를 감제할 수 있는 취봉(鷲峯)을 공격하게 되었다. 그리고 미 제24사단은 군단예비가 되어 사창리 부근에 집결하였다.

부대 재배치와 공격준비를 완료한 군단이 와오밍선을 목표로 6월 5일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미 제1군단의 공격상황과 같이 초일부터 적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공격이 부진하였다. 그러나 공격체대들은 지형과 기상 악화로 인하여 화력지원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와오밍선을 향하여 계속 진출하였다.

좌전방 국군 제2사단의 제31연대는 사창리-다목리-김화에 이르는 계곡 통로 좌측의 가파르고 험준한 산악 능선을, 제17연대는 미 제24사단 제19연대의 두류산 부근 진지를 인수받아 통로 우측 능선을 따라 공격하였다. 우전방 제17연대는 적의 저항이 경미하였으나, 좌전방 제31연대는 6일 복주산(伏主山) 일대에서 중공군과 7회에 걸쳐 공방전을 펼쳐 적을 격퇴한데 이어 그 북쪽의 853고지를 기습공격하여 중공군 113명을 사살하고 20명을 포로로 잡았다.<sup>57)</sup>

이때 사단장 함병선(咸炳善) 준장은 연 이틀 동안 중공군과 치열한 격전을 펼친 제31연대를 예비로 전환하고 예비인 제32연대를 좌전방에 투입하였다. 사단이 공격을 재개하자 이번에는 우전방 제17연대가 대성산 바로 남쪽의 1041고지에서 적의 완강한 저항에 조우하였다. 연대는 제5중대와 제7중대의 과감한 돌격작전에 힘입어 치열한 진내 전투를 치르며 마침내 1041고지를 확보하였다.

사단이 예상치 못한 치열한 격전을 벌여 대성산 공격의 발판이 되는 복주산(福柱山)과 1041고지로 진출하자, 적은 지연전을 펼치면서 물러나기 시작하였다. 적을 추격한 제32연대가 10일 육단리 부근의 와오밍선을 점령한데 이어 제17연대도 11일 대성산을 확보하고 김화-화천 도로로 진출하여 와오밍선을 확보하였다.

사단이 점령한 대성산은 김화와 와수리 일대의 교통요지를 통제할 수 있고, 오성산까지 감제관측이 가능한 지형지물로서 이 지역 방어에 대단히 중요한 고지이다.

그리고 중앙의 미 제7사단은 우전방 제31연대가 작전지역의 일부를 국군 제6사단 제7연대에 인계하고 화천-김화 도로를 따라 공격

하였다. 그러나 7일 03:00에 신읍리 북쪽에서 2개 대대규모의 기습 공격을 받아 부대가 와해되는 위기상황을 맞자 사단예비인 제32연대를 투입하여 이 적을 격퇴하였다.<sup>58)</sup> 공격제대는 9일 다목리 동쪽 고지에서 1개 대대규모의 적을 격퇴하고 공격을 계속하여 10일 와이오밍선인 마현리-사방거리를 연하는 도로변으로 진출하였다.

군단의 공격제대 중 가장 치열한 격전은 우전방 국군 제6사단지역에서 벌어졌다. 사단은 작전지역이 북한강 서쪽의 산악지대임을 감안하여 좌전방 제7연대는 미 제7사단으로부터 작전지역을 인수하여 백암산(1179고지)에서 화천으로 뺀어 내린 취봉-992고지-887고지-643고지로 연결된 일련의 중격실 능선을 따라 공격하고, 우전방 제19연대는 화천저수지 북쪽의 감제고지인 일산(1190고지)과 재안산(1034고지)을 점령하여 제7연대의 우측방을 엄호하도록 하였다.<sup>59)</sup>

이때 사단정면에는 중공 제20군이 취봉(989고지) 일대에 3개 연대규모를 투입하여 축차적인 지연진지를 구축하고 있었고, 일산과 재안산 일대는 3면이 북한강으로 에워싸여 적정이 경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7연대장 양중호(梁仲鎬) 대령은 미 제17연대장으로부터 “연대의 제1 공격목표인 643고지는 지형이 험하고 수목이 울창할 뿐만 아니라 화천에 이르는 대소능선을 감제할 수 있는 지형임을 감안하여 적이 전초진지를 구축하고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다”고 인계받았다. 그리고 “미 제17연대가 이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6월 3일부터 5일까지 항공지원과 화염방사기까지 동원하여 작전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탈환에 실패하였다”는 사실도 들었다.<sup>60)</sup>

미 제17연대의 공격 실패요인을 분석한 제7연대장은 정면들과 보다는 측방 포위공격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6일 13:00에 양측방으로 포위공격을 감행하였다.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공격이 돈좌되는 듯하였으나, 제1중대가 적의 후방으로 진출하면서부터 포위를 우려한 적이 진지를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호기를 맞은 연대가 일제히 돌격을 개시하여 저녁 무렵 고지를 점령하였고, 일부는 적을 추격하였으

나 갑자기 안개가 엄습해 철수하였다. 이때 적은 축차진지인 887고지로 철수하면서 증원부대와 합류하여 연대규모로 증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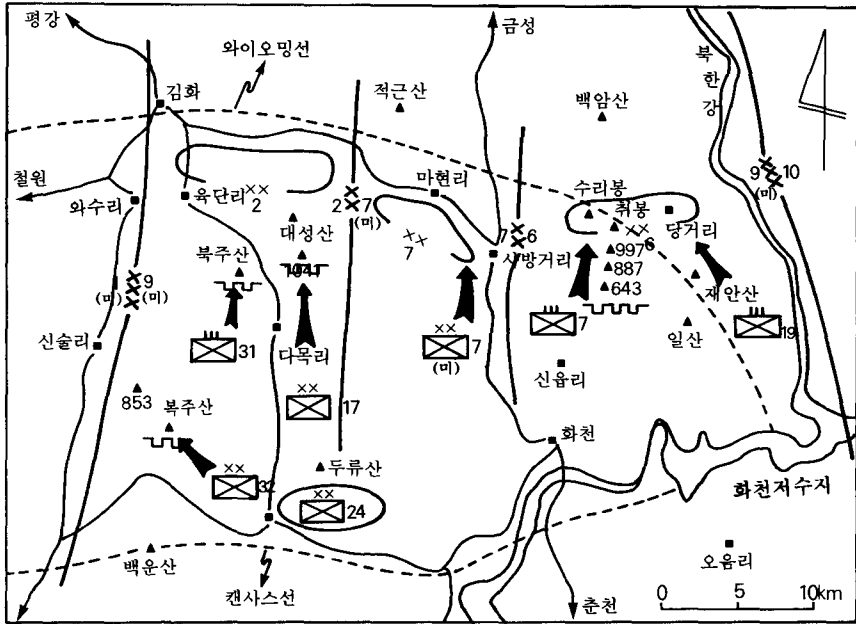
공격의 발판을 확보한 연대는 새벽에 어제와 동일하게 정면과 우측방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887고지는 전사면이 급경사로 기동공간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적이 사단포병의 강력한 포격에도 파괴되지 않는 교통호로 연결된 유개호 진지를 구축하고 완강하게 저항하여 공격이 둔좌되었다. 적의 완강한 저항과 불리한 지형으로 연대의 공격이 부진한데 실상가상으로 이날(8일) 따라 안개가 짙게 끼어 관측은 물론 항공 및 포병의 화력지원마저 불가하였다. 그러나 적은 이 틈을 이용하여 진지 보강과 병력을 증원하였다.

제7연대는 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887고지를 공격하여 일시 고지를 점령하였으나, 곧 적의 역습을 받아 고지에서 물러나야만 하였다. 이 무렵 우인접에서 공격한 제19연대가 재안산을 점령 적의 좌측방을 위협하게 되었다. 9일 기상이 호전되자 제7연대는 3개 대대를 투입하여 좌우측방과 정면의 3면에서 포위공격을 개시하였다. 공격제대는 정오 무렵 제2대대가 2개 중대규모의 완강한 적의 저항을 격퇴하고 두 번째 목표로서 887고지를 확보하였다. 이 고지의 확보로 연대는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였고, 방어에 요충을 상실한 적은 사기가 급격히 저하되었다.

공격개시 5일째인 이날 05:00부터 1시간 동안 제27포병대대가 취봉 전후방에 위치한 감제고지인 922고지, 수리봉(1057고지)에 이르는 능선 일대에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하였고, 우인접에서 수색작전을 펼치던 제19연대 제2대대가 취봉 동북쪽 당거리로 진출하여 연대의 공격을 엄호할 준비를 완료하였다. 연대는 3개 대대 병진공격을 개시하여 지형상의 불리를 극복하며 연대규모의 적을 격퇴하고 제1단계 작전의 최종 목표인 취봉 일대를 점령하였다.<sup>61)</sup> 이로써 백암산 공격의 발판을 확보하였다.

이번 전투에서 치명적인 손실을 입은 적은 5~7km 후방의 백암산

김화-화천 전투(1951. 6. 5~6. 11)



으로 철수하였고 연대는 802고지-취봉-1057고지를 연하는 선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여 당거리 부근으로 진출한 우인접 제19연대와 연결하였다.

이로써 미 제9군단도 11일을 전후하여 김화 동쪽 와이오밍선의 우반부(右半部)를 확보하고 방어진지를 강화하면서 정찰대를 파견한 결과 적이 김화 남쪽에 배치되었음을 확인하였다.<sup>62)</sup>

4. 新켄사스線으로 進出

미 제10군단은 적의 저항이 완강할 뿐만 아니라 지형마저 험준하여 중서부전선의 부대들이 와이오밍선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무렵인

5월 말경 화천저수지-양구-인제를 연하는 캔사스선으로 진출하였다. 이 무렵 군단에 배속 중이던 국군 제9사단과 미 제3사단이 미 제1군단으로 배속 전환됨에 따라 군단은 전선을 조정하였다. 군단의 좌전방 화천저수지 남쪽에는 군단예비인 국군 제7사단을 투입하고, 양구 일대에는 미 제1해병사단이, 소양강 동쪽에는 국군 제5사단이 미 제2사단의 인제-원통 일대 진지를 인수하였다.<sup>63)</sup>

군단의 전선 준비가 완료되자 제8군사령관은 간성으로 진출한 국군 제1군단과 전선의 균형을 유지함은 물론, 중동부 및 동부전선의 부대들이 24번 도로(홍천-인제-간성)를 주보급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안에서 캔사스선을 이 도로의 북쪽 화천저수지-편치불(해안분지) 남쪽-향로봉-거진 선으로 조정(신캔사스선으로 명명)하고, '파일드라이브 작전'의 일환으로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에 이 선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전선이 조정되면 양개 군단이 24번 도로를 주보급로로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성 항구로부터도 보급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이 작전은 도로망이 결핍된 동부전선의 군수지원을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전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동부전선에서 적 공격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해안분지를 통제할 수 있어 전략적 이점을 확보할 수가 있었다.

이 방침에 따라 국군 제7사단은 화천저수지 북쪽의 군량현을, 미 제1해병사단은 배속된 국군 제1해병연대와 함께 양구 북쪽 해안분지를, 그리고 국군 제5사단은 원통 북방의 서화리 일대를 공격하게 되었다.<sup>64)</sup>

이로써 이번에는 군단 예하의 국군 부대들이 주축이 되어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신 캔사스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민군과 치열한 격전을 펼치게 되었다.

## (1) 軍糧峴 戰鬪

국군 제7사단은 중공군의 5월 공세시 소양강 남쪽의 음양리 부근에서 공산군 주공부대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 많은 피해를 입고, 군단에비가 되어 하안흥리 일대에서 재편성에 주력하던 중 군단의 신칸사스선 공격명령에 의거 5월 31일 화천저수지 남쪽의 미 제1해병사단 작전지역을 인수하고 군단의 좌전방 사단으로 다시 전선에 복귀하였다.

이 무렵 양구 일대에는 적의 사체들이 도처에 참혹하게 널려 있었고, 이로 인해 장티푸스 등 전염병이 만연되어 미처 피난가지 못한 다수의 이재민들이 병마에 시달리고 있었다. 사단장 김용배(金容培) 준장은 부대의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공격에 앞서 대민 방역과 구휼 조치를 병행하였다.<sup>65)</sup>

사단은 화천저수지 남쪽의 칸사스선 방어를 강화하면서 일부 부대를 저수지 북쪽으로 파견 정찰 활동에 주력하고 있던 중, 6일 군단으로부터 신 칸사스선상의 마석봉-504고지-757고지를 확보한 후 백석산 남쪽의 731고지와 931고지에 강력한 정찰거점을 설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작전지역을 분석한 사단장은 화천저수지로 유입되는 북한강 동쪽의 작전지역이 험준한 고지일 뿐만 아니라 기동공간이 협소하여 최초 신칸사스선 점령에는 제5연대만 공격체대로 투입하고, 이 선을 확보 후 정찰거점 공격시에 제3연대를 추가로 투입하여 목표를 점령하기로 계획하였다.

이 계획에 의거 제5연대는 7일 오전 내평리에서 공격대기지점인 양구 남쪽의 가창촌(佳蒼村) 부근으로 이동하여 공격준비에 주력하였다. 연대가 공격을 준비하는 동안 연대장 김상봉(金相峯) 중령은 양구 북쪽의 함춘리(含春里) 부근에서 참모들과 적진을 관측하던 중 적의 집중포격을 받았다. 이 포격에 연대장과 장교 2명, 사병 16명이 부상



을 입어 후송되고, 후임으로 김용배(金龍培) 중령이 부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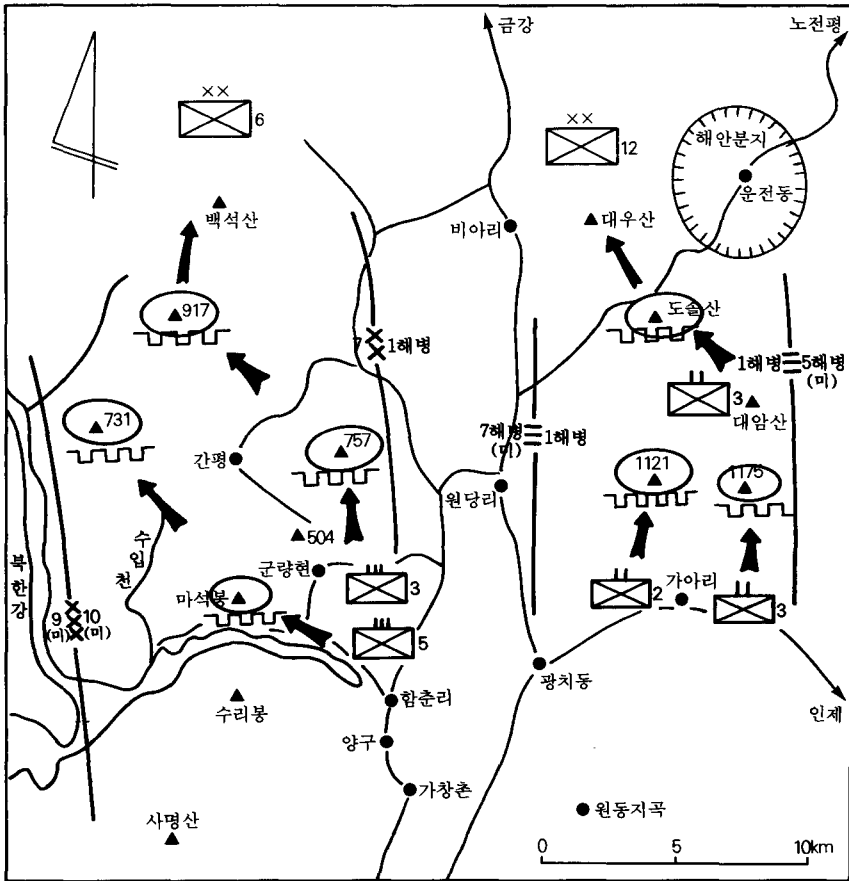
예상치 못한 연대장의 교대로 연대의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하였으나 연대는 심기일전하여 계획대로 8일 제1대대가 마석봉을, 제3대대가 757고지를 각각 공격하였다. 이때 적은 757고지에서 뺏어 내린 능선의 주요 지점에 수개의 저지진지를 편성하여 완강하게 저항하였고, 또 적 진지는 암벽과 울창한 산림에 엄호되어 아군의 포병사격도 효력이 없었다. 제3대대는 공격이 부진한데다 일몰이 닥치자 공격을 중지하고 철수하였다. 한편 우전방의 제1대대는 마석봉을 무혈점령하였으나 적의 야간 기습공격으로 자정까지 치열한 전투를 벌인 보람도 없이 다시 적의 수중에 넘겨 주고 말았다.<sup>66)</sup>

연대는 기필코 757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예비인 제2대대를 투입하여 공격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이날 따라 짙은 안개가 끼어 항공지원이 불가하고, 사단포병과 우인접 미 제1해병연대의 화력지원마저 여의치 못할 뿐만 아니라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목표 탈취에 실패하였다. 다행히 제1대대는 피탈된 마석봉을 재탈환하여 공격의 발판을 확보하였다.

사단장은 제5연대의 공격이 부진하자 캔사스선을 방어 중인 제3연대에 제5연대를 초월공격하여 757고지를 점령하고 제5연대는 757고지 좌측방의 504고지를 공격하여 제3연대의 공격을 지원하게 하였다. 그리고 사단예비인 제8연대는 제3연대의 소양강 남쪽 진지를 인수하도록 조치하였다.

사단의 주공으로 투입된 제3연대는 10일 군량현으로 이동하여 미해병사단의 근접 항공지원과 155mm 곡사포의 사격이 종료된 09:00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조공이 된 제5연대도 마석봉에서 성곡령(504고지)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사단이 고지로 진출하고 있을 무렵인 13:00에 미 제10군단장이 사단을 방문하여 사단의 작전상황을 시찰한 후 우인접 미 제1해병연대에 대전차포 등 화력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조치하였다.

군량현-도솔산 전투(1951. 6. 3.~6. 18)



그러나 지형이 험준할 뿐만 아니라 적이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어 미 해병사단의 근접 항공지원<sup>67)</sup>과 155mm 곡사포의 화력지원도 적의 진지를 파괴할 수 없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하면서 공격제대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제1대대장 이종택(李鍾宅) 소령은 지금 철수하면 적의 사격으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판단하고 야간공격을 결심하였다. 대대는 2개의 특

공조를 편성하여 757고지를 기습공격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21:00 특공조의 함성을 신호로 대대가 총공격을 개시하여 치열한 근접전투를 전개한 끝에 자정이 조금 지날 무렵 완전히 고지를 점령하였다.<sup>68)</sup> 그리고 제5연대도 제3연대가 757고지 공방전을 펼치고 있을 무렵 성공령을 점령하였다.

사단은 12일 공격을 재개하여 제3연대가 경미하게 저항하는 적을 추격하여 백석산(1142고지)으로 연결되는 능선의 발판인 917고지로 진출하였고, 제5연대도 731고지로 진출하였다. 제3연대는 작전지역을 제5연대에 인계하고 신 캔사스선으로 철수하였다.

이 전투를 고비로 사단은 마석봉-757고지를 연하는 신 캔사스선 전방의 731고지-917고지를 연하는 전진기지를 점령하여 정찰활동에 주력하였고, 적도 백석산 일대에서 진지 강화에 주력함으로써 사단 정면의 전선은 7월의 무더위와 함께 소강상태를 이루게 되었다.

## (2) 兜率山 戰鬪

국군 제7사단이 군량현 전투를 개시할 때 우인점의 미 제1해병사단(배속: 국군 제1해병연대)도 양구 북쪽의 대암산을 공격하고 있었다. 이때 국군 제1해병연대는 양구 남쪽의 원동지곡에서 사단예비가 되어 부대를 재정비하고 있었다.

이 무렵 군단의 부대 재배치 계획에 의거 해병사단의 작전지역이 소양강 서쪽까지 확대되자 사단은 대암산-도솔산-대우산으로 연결되는 산악지형을 공격 중, 험난한 지형과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은 제5해병연대를 소양강 서쪽으로 이동시키고 국군 제1해병연대를 제5해병연대 지역에 투입하였다.<sup>69)</sup>

국군 제1해병연대가 공격할 광치동에서 대암산에 이르는 산악능선에는 인민군 제12사단이 유리한 지형을 선점하고 주요 고지마다 아군의 항공폭격과 포병화력에도 견딜 수 있는 개인 및 공용화기 진지

를 구축함과 동시에 능선 통로상에는 무수히 지뢰를 매설하여 강력한 거점을 편성하고 있었다.

제1해병연대는 대암산을 목표로 6월 4일 항공 및 포병화력의 지원 하에 2개 대대 병진대형으로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험준한 지형과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공격의 발판만 확보한 채 일몰로 공격을 중지하였다. 연대의 공격이 부진하자 연대장 김대식(金大植) 대령은 적의 전투력을 분산하기 위하여 연대에비인 제3대대를 우전방에 투입함으로써 3개 대대가 병진공격을 하게 되었다.

연대는 5일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진출할수록 적의 저항은 완강하였고, 또한 지형이 급경사로 기동공간이 능선 통로로 한정되어 부대 기동에 많은 제한을 받았다. 설상가상으로 연대가 공격시마다 산악 특유의 안개가 짙게 끼어 화력지원을 받을 수 없어 연대의 공격은 더욱 부진하였고, 다수의 전사상자도 발생하였다.

연대가 공격을 개시한 이후 6일 동안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미 해병사단은 인접부대와 전선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공격을 독촉하였고, 연대는 중대를 축차적으로 투입하여 강력한 적정, 험준한 지형, 불순한 기상(가랑비와 안개)을 극복하면서 혼신을 다해 적의 주저항선인·1121고지-1175고지를 돌파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 과정에서 좌전방의 제1대대 제1중대는 소대장 이근식(李根植) 소위가 육탄 공격으로 적의 경기관총 진지를 폭파하였고, 제2대대 제6중대는 적의 강력한 거점인 1121고지를 탈취하기도 하였으나 불운하게도 증원부대가 도착하기 직전에 적의 역습을 받아 분산 철수하였다.<sup>70)</sup>

연대장은 10일 긴급 작전회의를 개최하여 적의 의표를 찌르는 야간공격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실을 보고받은 미 해병사단장은 처음에는 연대의 야간공격 경험 부족을 들어 거절하였지만, 결의에 찬 연대장의 집요한 건의에 반신반의하면서 야간작전을 승인하였다.<sup>71)</sup>

연대 전 장병들은 이번 야간공격의 승패가 곧 연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는 비장한 각오하에 공격준비를 완료하고 6월 11일 02:00

에 이미 수차례 치른 전투로 눈에 익은 지형을 따라 무조명 무지원하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공격제대는 예상외로 적의 큰 저항을 받지 않고 순조롭게 진출하여 공격개시 3시간 만에 적이 난공불락이라고 호언장담하던 주저항선 진지를 점령하였다.

이때 인민군 제12사단은 그들의 상용전술인 야간공격을 해병 제1연대가 사용할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하고 일부 부대만 경계부대로 배치하고 주력은 후방에서 취침한 것으로 후일 포로의 진술에서 밝혀졌다.

사기가 충천된 해병 제1연대는 전과확대를 위한 추격작전을 펼쳐 경미한 저항을 격퇴하고 대암산을 연하는 신 캔사스선으로 진출, 우인접 미 제5해병연대와 연결하였다. 연대가 방어진지 강화와 신병을



박격포 백린 연막탄의 차장하에 미 해병 병사가 화염방사기로 적의 도치카를 공격하고 있다.

보충받아 부대정비에 주력하고 있을 무렵인 14일 사단장은 해안분지를 남쪽에서 통제할 수 있는 도솔산을 점령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무렵 해병사단은 연대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좌인접에 미 제7해병 연대를 투입하였다.

연대장은 대암산에서 도솔산에 이르는 통로가 협소하여 대대단위로 단계별 작전을 계획하였다. 이 계획에 의거 제2대대가 15일 선봉으로 공격을 개시하자 적정은 경미한 반면 1m 전방의 물체도 확인할 수 없을 만큼 안개가 짙게 끼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목표고지를 점령하였다. 제2대대가 공격의 발판을 확보하자 제3대대가 도솔산을 공격하게 되었다. 이때 대대의 기동로가 협소하여 항공과 포병의 지원화력은 위협적일 뿐 정확성은 없었다. 제3대대가 17일 공격을 개시하자 적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박격포를 비오듯 쏘아대며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대대는 이에 굴하지 않고 두더지처럼 교통호를 구축하면서 적진으로 접근한 후 야간공격을 실시하여 19일 새벽 마침내 도솔산을 점령하였다.<sup>72)</sup> 이어서 공격명령을 기다리고 있던 제1대대가 제3대대를 초월하여 도솔산에서 좌측으로 뻗어 내린 능선으로 진출하여 미 제7해병 연대로부터 목표고지의 일부를 인계받았다.

이 전투에서 연대는 사상 2,263명, 생포 42명과 중기관총, 박격포, 개인화기 등 다수의 장비를 노획하였으나 아군의 희생도 커 전사 123명, 부상 582명의 손실을 입었다.<sup>73)</sup> 결국 연대는 장병들의 피의 대가로 신 캔사스선상의 대암산-도솔산을 확보하고 편치불을 남쪽에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 (3) 瑞和里 戰鬪

국군 제5사단은 미 제2사단과 함께 캔사스선으로 진출하던 중 원통 부근에서 군단의 부대 재배치 계획에 의거 미 제2사단의 작전지역을 인수한 후, 미 제10군단의 우전방으로 후덕리-981고지-산두곡

산(1019고지)을 연하는 신 캔사스선을 목표로 공격작전을 펼치게 되었다.<sup>74)</sup>

6월 4일 좌전방 제27연대는 서화리-인제 간의 도로 우측 명당산-피양동-서화리-987고지로, 우전방 제36연대는 향로봉산맥 서쪽의 1242고지-1122고지-산두곡산으로 각각 공격을 개시하였다. 능선 접근로를 따라 공격한 제36연대는 예상외로 적의 저항이 경미하여 원통-간성 도로의 북쪽 1242고지 일대를 점령하여 공격의 발판을 확보하였으나, 소양강 계곡 통로를 따라 공격한 제27연대는 명당산 일대에서 122mm 곡사포와 82mm 박격포의 지원을 받는 1개 대대규모의 적으로부터 완강한 저항과 집중사격을 받아 공격이 둔좌되었다.

대대의 공격이 적의 특화점 사격에 저지되자 제3대대장 박원관(朴元寬) 소령은 각 중대는 수류탄만 휴대한 특공조를 앞세우고 공격을 재개하도록 명령하였다. 대대는 특공조의 분진과 5시간 동안 치열한 근접전투를 펼쳐 136명을 사살하고 공격의 발판이 되는 명당산을 확보하였다. 이때 사단장 민기식(閔機植) 준장은 좌인접 미 제5해병연대의 공격을 저지하고 있던 적의 일부가 제27연대 정면의 인민군 제2사단 제4연대를 증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이 논장리-천도리 축선에서 지연전을 기도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제36연대로 하여금 일부 병력으로 적진 후방의 서화리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제36연대가 서화리 쟁탈전을 펼치는 동안 제27연대는 명당산에서 연 이틀 계속 적의 선제 기습공격을 포병화력을 지원받아 치열한 격전 끝에 격퇴시켰다. 적이 물러난 후 적진을 수색정찰하던 제10중대는 고지 서쪽 송학동(松鶴洞) 부근 계곡에서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위장된 적의 무기고를 발견하여 다량의 화기와 탄약을 노획하였다. 이로써 적이 명당산을 탈환하기 위하여 집요하게 역습을 감행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sup>75)</sup>

이후 연대가 공격을 계속하였으나 명당산 북쪽으로 연결된 752고지 및 851고지에서 고지 쟁탈전만 펼칠 뿐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진

전이 없었다. 사단장은 제27연대 작전지역이 700~800m의 고지군이 겹겹이 횡으로 산재되어 적이 축차적인 지연전을 벌이기에 유리한 지형임을 고려하여 예비인 제35연대를 후방 천도리 일대로 투입하여 적의 퇴로와 증원을 차단하도록 하였다.

이 무렵 미 제10군단장은 신 캔사스선으로 진출한 좌우인접부대와 전선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단의 공격을 독촉하였고, 사단장도 제27연대는 중간목표인 851고지를, 제35연대는 천도리를, 제36연대는 1122고지를 필승의 각오로 탈취하도록 강조하였다. 공격제대들은 이날(10일)도 아침부터 짙은 안개가 끼어 항공지원과 포병의 관측사격이 불가하여 무지원하에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적의 계속된 증원과 유리한 지형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편성한 적 진지를 단숨에 돌파할 수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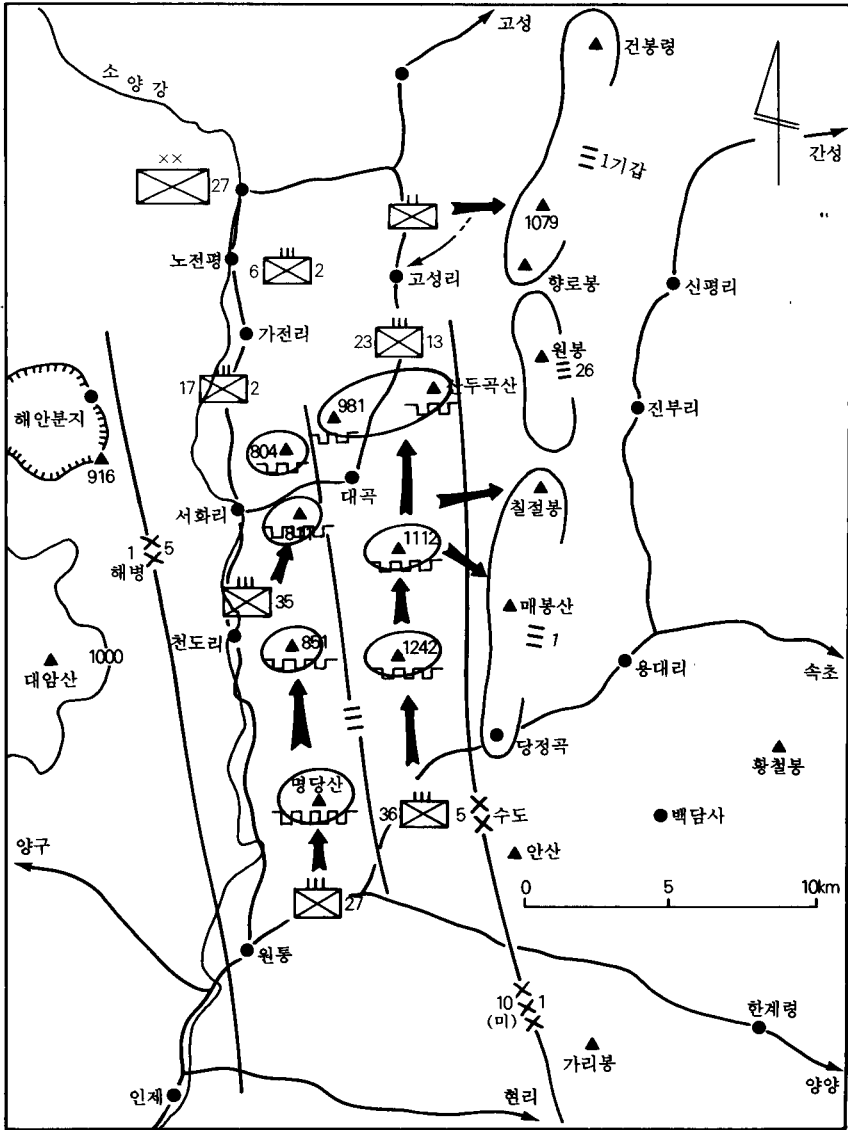
이날 공격에서 제27연대 제3대대만이 공격개시 4일 만에 적의 강력한 거점인 851고지를 점령하였다. 851고지 공격에서 제9중대 월계희(元桂憲) 이등병은 적의 탄막사격에도 불구하고 수류탄 12발을 휴대하고 포복으로 전진하여 적 화기진지 3개소를 폭파하여 고지 점령의 기틀을 마련하여 후일 미 은성훈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sup>76)</sup>

사단은 11일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아침부터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안개가 산악을 뒤덮고 있어 부득이 공격을 일시 중지하고 적의 역습에 대비하면서 기상이 호전되기만 기다렸다. 12일 사단은 제27연대가 정면에서 그리고 제35연대 제2대대가 우측방에서 공격을 개시하자 포위를 우려한 인민군 제4, 제6연대의 주력이 8일 동안 고수하던 천도리(天桃里) 일대의 저지진지에서 물러나기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사단의 공격도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13일 사단은 그동안 적과 치열한 근접전투를 펼친 좌전방 제27연대를 신속히 사단에비로 전환하고 제35연대를 투입한 후 신 캔사스선을 점령하도록 독려했다. 14일 우전방 제36연대는 공격을 개시한 이후 번번이 1122고지에서 인민군의 강력한 저항에 공격이 돈좌되었



서화리-향로봉 전투(1951. 6. 4~6. 17)



으나, 이날 연대는 근접 항공지원에 힘입어 기필코 동고지를 점령하여 산두곡산 공격의 발판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좌전방 제35연대도 적의 후방거점인 서화리 부근으로 진출하여 신 캔사스선 진출을 목전에 두게 되었다.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한 사단은 15일부터 최종목표인 제35연대의 840고지와 제36연대의 981고지를 공격하였으나 끈질긴 적의 저항으로 목표 탈취에 실패하였다. 부대를 재정비한 공격계대들은 17일 마지막 일전을 각오하고 적과 치열한 고지쟁탈 근접전투를 펼쳐 동고지를 점령하였고, 사단은 14일간의 격전 끝에 신 캔사스선을 점령하였다. 이후 사단은 소라지-송노평-이현리를 연하는 선에서 위력수색을 실시하면서 주저항선의 방어진지를 보강하였다.<sup>77)</sup>

미 제10군단의 작전지역은 중동부 산악지대로 지형이 험준하고 기동로가 제한된데다 특히 도로는 지뢰가 매설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협소하여 보급차량이 기동하기 위해서는 공병들의 근본적인 작업이 필요하였다. 설상가상으로 기간 중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의 발생으로 도로가 차단되었다. 그리고 적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고지마다 잘 편성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완강하게 저항하였고 또한 매번 역습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공격계대들은 이러한 악조건을 극복하고 마석봉-성곡령-757고지-도솔산-916고지-981고지를 연하는 신 캔사스선을 점령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이때부터 군단도 좌·우인접 군단과 연결을 유지하면서 정찰활동에 주력하게 되었다.

#### (4) 香爐峰 防禦 戰鬪

5월 말 향로봉 산맥으로 진출한 국군 제1군단의 수도사단은 제1연대를 당정곡-칠절봉에, 제1기갑연대를 원봉 정면에, 제26연대를 향로봉-건봉령에 배치한 후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진지

공사에 주력하면서 전방지역에 대한 위력수색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우인접에는 제11사단이 간성 북쪽의 주저항선을 방어하고 있었고, 좌인접에는 미 제10군단 이하의 국군 제5사단이 인제-원통 선에서 신칸사스선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다.<sup>78)</sup>

이때 전방의 인민군 제13사단은 제19연대로서 서화리-산두곡산 일대에 강력한 진지를 편성하고 중동부전선에서 후퇴하는 중공군과 인민군의 철수를 엄호하고 있었다. 이들은 계속된 유엔 공군의 항공 폭격과 귀순자의 속출로 군기 및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지만 정면의 국군 제5사단과 향로봉 산맥으로 진출한 수도사단으로부터 포위공격 위협에 직면하자 증원 병력을 투입, 측방경계를 강화하였다.

6월 3일 15:00에 적 1개 중대규모가 선제 기습공격으로 제1연대 제1대대의 칠절봉 부근 주저항선 돌파를 기도하였으나, 예비인 제2대대를 투입하여 이 적을 격퇴하였다. 그러나 고지에서 물러난 적은 다음날 질개 끼인 안개로 관측이 불가능한 틈을 이용하여 강력한 박격포 사격의 엄호하에 제1기갑연대의 전초진지인 산두곡산과 원봉 전방의 1209고지, 제1연대의 칠절봉으로 공격을 재개하였다.

제1연대는 09:00부터 1개 대대규모의 적과 매봉산과 칠절봉 일대에서 오전 내내 치열한 격전을 펼쳐 격퇴시켰으나, 제1기갑연대는 적의 계속된 증원병력의 투입으로 전초진지를 포기하고 주저항선으로 복귀하였다.

한편 군단장은 좌인접에서 공격 중인 국군 제5사단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사단의 일부 병력으로 적의 후방 방어 요충인 서화리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이 명령에 의거 1166고지 부근에 배치된 제1기갑연대 제3대대와 칠절봉 부근에 배치된 제1연대 제1대대는 6일 06:00에 칠절봉-대곡리-평촌을 연하는 계곡 통로를 따라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공격제대들은 공격을 개시한지 얼마되지 않아 완강하게 저항하는 2개 대대규모의 적과 조우, 공격이 돈좌되자 원위치로 복귀하였다.

이 무렵 군단 후방지역의 공산군 패잔병 활동이 미미한 반면 정면의 적 활동이 점차적으로 증강되자 군단장은 주저항선 방어태세를 보강하기 위하여 부대 배치를 조정하였다. 이 계획에 의거 대승령일대에서 군단의 측후방을 방어하던 제11사단 제9연대는 간성 북쪽에 배치되고, 용대리-미시령을 방어하던 제20연대는 수도사단에 배속되어 제1연대의 당정곡-매봉산 진지를 인수하게 되었다. 이로써 군단은 당정곡-향로봉-건봉령-거진을 연하는 신 캔사스선의 주저항선에 좌로부터 제20, 제1, 제1기갑, 제26, 제13, 제9연대를 배치하여 주저항선의 방어를 보강하였다.<sup>79)</sup>

수도사단이 방어진지 보강에 주력하고 있을 무렵인 8일 09:30경 적의 곡사포와 박격포사격이 향로봉과 그 북쪽의 1079고지로 집중되었고, 잠시후 적 1개 대대규모가 안개를 이용 제1기갑연대 제1대대가 방어 중인 1079고지로 접근하였다. 이때부터 쌍방은 피아를 식별할 수 없는 치열한 근접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제1대대의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연대장 이용(李龍) 대령은 예비인 제3대대를 향로봉에 투입, 제1대대를 증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단장은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인하여 탄약 보급이 극히 어렵게 되자 사단본부의 행정요원들로 임시 탄약소대를 편성하여 연대를 지원하도록 하였다.<sup>80)</sup>

이날 전투는 적의 기습공격에 밀려 한때 주저항선의 일부가 돌파되기도 하였으나 제3대대의 증원으로 전의를 회복한 제1대대가 저녁까지 격전을 펼쳐 이들을 격퇴하였으며, 적이 물러난 이후 중화기를 비롯한 다수의 화기를 노획하였다. 9일과 10일에도 적의 공격은 향로봉 부근으로 계속되었으나 연대는 그때마다 화력을 집중하여 적을 격퇴하였다. 결국 적은 이 전투에서 주력부대를 상실하고 고성리 방면으로 철수하였다. 이로써 수도사단은 12일을 기하여 열흘 동안의 격전을 일단락짓고 향로봉은 물론 적의 거점이었던 산두곡산과 향로봉 서쪽의 940고지마저 수중에 넣었다.

향로봉(산맥)은 북으로 남강, 서로 서화계곡을 통제하고, 금강산으로 연결되는 동부전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형이어서 이 고지의 확보를 위해 피아는 사력을 다하였으며, 이 전투에서 승리한 수도사단의 전공은 높이 평가되었다. 특히 본 전투에서 8차에 걸친 적의 반격을 격퇴한 사단 장병들의 용감성은 유엔에까지 보고되었다.<sup>81)</sup>

이로써 국군과 유엔군은 중서부전선의 와이오밍선과 중동부전선의 신 캔사스선을 확보함으로써 한강하류-문산-전곡-연천-철원-김화-산양리-편치불-서화-거진 선까지 진출하였다. 이때 전곡 동쪽의 부대들은 캔사스선 보다 16~48km 북쪽으로 추진 배치되었다. 이 선은 유엔군측이 계획한 휴전에 대비한 방어선인 동시에 적을 휴전회담에 임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제한 공세작전의 전진한계선이기도 하였다.

이 재반격작전에 의거 지난 춘계공세 이후 궁지에 몰리게 된 공산군은 궁여지책으로 휴전협상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때부터 공산군은 협상을 미끼로 패전의 체면을 호도함은 물론 전세를 만회하기 위한 전력 증강에 혈안이 되었다.

## 제 3 절 中共(軍)의 參戰 影響

### 1. 中共軍의 參戰과 戰爭의 展開

#### (1) 中共軍의 參戰

중공은 침략을 도발한 김일성과 인민군이 유엔군의 응징을 받아 평양을 상실하고 평안북도와 함경남북도 지역으로 패주하던 1950년 10

월 중순에, 북한 김일성 정권을 지원하고 나아가 유엔군(미군)을 축출하여 전한반도를 공산화하려는 목표하에, 정예의 정규군으로써 지원군(支援軍)을 편성하여 참전하였다.

이는 이미 전후(戰後) 냉전구조(冷戰構造)하에서 한반도를 공산화하려는 공산진영의 전략에 따라 김일성(金日成), 스탈린, 모택동(毛澤東) 3인의 공모하에 계획된 것이었다. 1950년 4월, 모스크바의 김일성-스탈린 회담에서 전쟁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으면서 스탈린은 남침전쟁을 ‘조중의 공동과업’으로 규정하고 중공의 동의를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5월 북경의 김일성-모택동 회담에서 모택동은 스탈린의 의도를 직접 확인한 후 김일성의 전쟁계획에 동의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택동은 북한의 남침시, “만일 미군이 남한을 지원하여 참전한다면 그 경우 중공군을 파견하여 미군을 한반도에서 축출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점이다.

중공은 모택동이 김일성과 전쟁계획을 최종 협의한 후, 곧 참전준비에 착수하여 그들의 중앙 전략예비의 일부를 만주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하였다. 이어 남침전쟁이 개시되자 혁명과업의 최종 목표로 추진해 오던 ‘대만 수복(臺灣收復)’ 과제마저도 연기한 후 1950년 7월 중순에 제13병단을 중심으로 파병할 부대(東北邊防軍)를 조직하기로 결정하고 8월 말까지 중앙 전략예비대를 모두 만주로 이동시켜 약 255,000명에 달하는 대군을 편성하고 동시에 출병준비에 들어갔다.

중공은 자신들이 판단한 것과 달리, 개전초 신속하고 강력한 미군의 대응과 유엔군의 참전으로 북한 인민군이 낙동강 전선에서 고착되자 소련과 더불어 유엔결의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유엔군의 지원을 저지하고 북한의 전쟁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외교전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뜻을 이루지 못하자 동북변방군을 강화하며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어 국군이 북진작전을 개시하던 날

인 1950년 10월 1일에 모택동은 스탈린으로부터 중공군의 파병을 종용받았으며, 또한 같은날 북경을 방문한 북한의 박헌영으로부터 직접 지원 요청을 받았다.

당시 김일성으로부터 소련군이나 국제 공산군의 지원 요청을 받은 스탈린은 소련군의 직접파병에 의한 미소(美蘇) 간의 충돌을 피하려는 의도와 전쟁계획 과정에서 한국전쟁을 ‘조중(朝中)의 공동과제’라고 규정한 역할분담에 따라 중공군의 우선적 파병을 요청하였다.

모택동은 10월 1일 공산정권 수립 1주년 기념식 축제의 환호성을 뒤로 하고 밤을 지새는 고뇌 끝에 마침내 10월 2일 파병 결정을 내렸다. 당시 중공은 정치적으로 국가를 통합해야 하고 경제적으로 오랜 전쟁으로 인해 피폐된 산업을 재건하고 군사적으로 지상군 위주의 군을 육해공군의 국방군으로 정편(整編)을 추진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시기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호파당위(戶破堂危) 보가위국(保家衛國)이라며 항미원조(抗美援朝) 출병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분일 뿐 실제의 파병요인은 중공의 지도자들이 견지해온 자국의 변방에 적성국의 존재를 허용치 않는 전통적 중화사상(中華思想)과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적 상황에서 아시아 공산주의 팽창의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강한 이념이 상승작용을 하였으며, 또한 참전을 통해 중소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소련의 지원 확보로 도리어 국내적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신생 중공의 위상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상황판단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신중한 국내외 정세의 분석 끝에 참전결정을 내린 모택동은 10월 8일 동북변방군(東北邊防軍)을 ‘인민지원군(人民志願軍)’으로 개칭하고 10월 15일에 압록강 도하를 목표로 출병명령을 하달하였다. 중공은 파병할 중공군이 정규군의 정예부대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군(支援軍)이라 칭하지 않고 지원군(志願軍)이라고 날조하였다. 이때 중공은 한반도에서 미군과의 전쟁은 물론 본토에서도 미국과의 전쟁 개연성에 대비해 두 전역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소련의 지원을 받으며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러나 출병에 따른 중소 간 최종협상에서 스탈린이 중공의 인민지원군 출병에 따른 소련공군의 지원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약 2개월 뒤로 미룸에 따라 중공은 출병을 앞두고 진퇴양난에 빠졌으나 결국 참전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절박감에서, 소련공군의 지원 없이 단독 출병결정을 재확인하였다. 당시 중공군은 지상군이 주축이었고 해공군은 갖 창설되어 전투에 임할 준비태세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 있었다. 이에 따라 중공군은 1950년 10월 19일, 평양이 국군과 유엔군에게 피탈되던 날 지원군의 본대가 비밀리에 압록강을 건너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

## (2) 戰爭의 展開

중공군의 참전은 완전한 기습이고 대충격이었으며, 유엔군의 전쟁지도에 대혼란을 야기하면서 전세를 역전시켰다. 공산군이 기습을 제압하고 유엔군이 수세로 물리게 되었다. 유엔군측은 중공의 참전에 관한 국가 전략정보 입수에 실패하고 전장에서 그들의 압록강 도하와 전방전개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지 못한은 물론 그들의 참전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판단하에 적절한 대비를 함이 없이 작전을 계획하고 수행함으로써 적에게 완전한 기습을 허용하고 대혼란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다.

중공군은 압록강을 도하후 조중 연합사령부(朝中聯合司令部)를 편성하고 북한 인민군까지 작전통제 하면서 중공군이 중심이 되어 이른바 ‘인해전술(人海戰術)’을 주전술로 공세작전을 전개하였다.

1950년 10월 공세를 비롯하여 1951년 봄 춘계공세에 이르기까지 모두 5차의 대공세를 취하였다. 그 중 1차 공세(10월 공세)로 청천강 북방에 공격의 발판을 마련한 다음 11월 24일의 유엔군 최종공세를 되받아치며 2차 공세(11월 공세)로 전환하여 유엔군을 밀어붙이며 철



수를 강요하였다. 그들은 유엔군이 전면 후퇴하자 당초의 계획을 바꾸어 동계에도 불구하고 12월 중순에 38도선 북방까지 진출한 다음, 1951년 1월 1일을 기하여 3차 공세(신정공세)를 속개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의 38도선 방어선을 돌파하고 서울을 점령하여 유엔군을 37도선(평택-삼척) 선까지 몰아붙였으나, 계속된 동계공세에서 입은 인원·장비의 심한 손실과 병참지원의 부족으로 이때에 공세를 중단하고 춘계공세 준비에 들어갔다.

이 기간 중 유엔군측에서는 전쟁지도상의 대혼선을 겪게 되었으며, 전장에서는 일단 축차방어선에서 적을 저지한다는 방침하에 후퇴작전을 전개하였고 지도부에서는 확전론, 휴전론, 철군론 등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며 새로운 방안의 모색에 분분하였다. 결국 유엔의 주도하에 전쟁전 현상에서 휴전으로 적대행위를 종결하는 방안을 최선책으로 결론지었다. 물론 당시 한국정부는 재분단(再分斷)으로 가는 이 휴전방안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측은 당시 확전을 막고 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유엔총회가 설치한 유엔 휴전위원회의 활동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조종을 받은 중공의 반대로 이 방안이 수포로 돌아감은 물론 '1·4후퇴'로 인하여 전황이 위기에 처하자 유엔군측은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하며 유엔의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유엔군의 병력보존을 위해 '최악의 경우' 강압에 의한 철수계획과 한국정부의 도서이전(島嶼移轉) 계획까지 준비하고 이 계획의 시행시 상황에 따라 취할 부분적인 확전 조치까지 고려하였다. 이때가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남침초기 낙동강까지 후퇴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맞는 국가 존망의 위기였다.

그러나 전장에서 전선이 37도선에서 안정을 유지하고 중공군이 수세에 있음을 간파한 유엔군이 1951년 1월 25일을 기해 재반격에 나서 2월 초 남한산-횡성-강릉 선까지 진출하여 서울 탈환을 목전에 뒀으므로, 유엔군측은 패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전쟁 지도부도

전장상황의 추이에 희망을 걸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유엔군측은 최악의 위기를 벗어났다.

이 무렵 춘계공세를 준비하던 중공군이 아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계속 서울을 확보하기 위하여 4차 공세(2월 공세)를 취하였다. 서부전선을 견제하고 춘천-홍천 축선에 주공을 투입하여 횡성, 지평리로 쇄도하여 제천까지 돌파구를 형성하였으나 원주-지평리에서 봉쇄되어 아군의 서부전선에 위협을 가하려는 목적 달성에는 실패하였다.

유엔군은 재반격을 계속하여 3월 15일 서울을 점령하고 3월 말 38도선으로 진출하였으며, 4월 초순에는 이 선의 확보에 유리한 지형인 임진강구-화천저수지-양양선(칸사스선)을 점령하였다. 이어 이 방어선의 중심부를 강화하기 위하여 4월 중순에는 전곡-철원-김화-화천을 잇는 선(와이오밍선)으로 공격작전을 전개하였다.

중공군의 마지막 공세인 5차 공세(춘계공세)는 이때 개시되었다. 그들은 새로 입한(入韓)한 부대를 포함해 최대병력을 투입하여 유엔군과 승부를 걸어 4월에는 서울 구파발까지 진출하고 5월에는 현리 지역에 대돌파구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은 유엔군의 막강한 화력에 많은 손실을 입어 또다시 공격력을 상실하고 작전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저지되었다. 곧 유엔군은 38도선 북방으로 진출하여 6월 중순에는 임진강구-철원-김화-화천-간성에 이르는 방어선을 회복하였다. 이 방어선은 유엔군이 장차의 휴전에 대비하여 확보하기로 계획한 방어선이였다. 전장의 주도권은 유엔군이 장악하고 중공군은 수세에 처하였다.

이 무렵 유엔군측은 이미 이 선에서의 휴전전략을 추구하고 있었으며, 공산측도 소련이 중심이 되어 조(朝), 중(中) 소(蘇)가 38도선을 경계선으로 하는 휴전안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제기 방안의 이해득실(利害得失)을 모색하고 있었다.<sup>82)</sup>

이와 같이 중공군은 참전이래 1950년 10월 하순부터 1951년 5월 하순까지 7개월간 5차에 걸친 공세를 취하여 한때 서울을 점령하고

37도선까지 진출하였을 뿐, 그들의 당초 목표인 유엔군의 축출에는 실패하고, 유엔군으로서는 1·4후퇴와 더불어 강압에 의한 철군의 위기도 겪었지만 이들을 격퇴하는데 성공하고 전전현상(戰前現狀)을 회복하였다. 특히 밀고 밀리는 진퇴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쌍방은 일방의 힘에 의한 전쟁의지의 강요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국력의 소모와 병력의 손실을 되풀이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따라서 협상에 의한 전쟁의 종결을 위한 전략을 추구하게 됨으로써 전선이 교착되게 되었다.

## 2. 參戰의 影響

첫째, 민족사적 관점에서 중공의 참전과 침략의 가장 결정적 영향은 광복후 분단된 조국이 만 5년 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았다는 점이다.

국군과 유엔군은 북한의 남침을 낙동강선에서 방어하고 반격으로 이전하여 이를 응징하기 위해 북진을 단행, 인민군을 격멸하면서 10월 총공세와 11월 최종공세를 취하여 일부 부대가 압록강변의 초산과 혜산진에 도착하는 등 한만국경선의 도달을 지척에 두고 있었다.

한민족은 조국 통일의 성취와 완전한 광복(光復)의 구가(謳歌)를 앞두고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중공군의 침략과 공세로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그 문턱에서 물러나 후퇴해야 했었다. 이때가 전쟁간에 한민족에게 주어진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기회였다. 한민족은 분단 5년 만에 이룩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중공(軍)의 참전으로 상실하였다.

둘째, 전쟁전 현상으로 회귀, 즉 재분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당초 중공의 전략은 유엔군(미군)을 구축하고 전 한반도에 김일성 공산정권을 수립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5차에 걸친 공세

를 강행하였으나 37도선까지 밀어붙였을 뿐, 최대 병력을 동원한 춘계공세에서 유엔군의 막강한 화력에 대살육을 당하여 38도선 북으로 격퇴됨으로써 그 목적 달성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전 현상을 확보하고 이후 이 선에서 전쟁을 종결하려는 휴전협상에 응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결국 재분단상황으로 귀착되었던 것이다.

셋째,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쟁이 장기화되었다는 점이다. 1950년 10월 말 유엔군의 총공세로 전쟁은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중공군의 참전과 공세로 전쟁은 그들이 수세로 전환하고 전선이 전쟁전 현상에서 교착된 1951년 6월 말까지 이미 8개월이나 연장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만 2년 1개월이 더 지나 휴전이 성립됨으로써 결국 중공군의 참전으로 한민족은 33개월이나 더 전쟁을 치러야 했다.

넷째, 전쟁의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그 상흔이 깊어졌다는 점이다. 중공의 참전으로 전선이 한만국경선에서 37도선까지 남하하고 여기에서 38도선으로 북상하는 등 전장이 격렬화되는 가운데 한반도는 형언할 수 없는 전화를 입었다. 국토는 더욱 심하게 파괴되었고 파괴하였음은 물론 많은 전사상자와 실종 등 손실이 발생하였다. ‘1·4후퇴’를 전후해 피난민이 격증하였고 특히 북한 주민의 자유를 위한 대탈출이 대부분 이때 이루어져 천만 이산가족이 발생하게 되었다. 가족을 상봉하지 못하는 그들의 아픔은 전쟁이 발발한지 50년이 가까운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니 중공의 참전으로 인한 전쟁의 상처는 너무도 크고 깊었다.

다섯째, 중공의 참전으로 전쟁이 성격과 규모에 있어 실질적인 국제적 전쟁으로 발전하였다는 점이다. 한국전쟁은 전후(戰後) 냉전체제하에서 공산진영의 팽창전략에 의거 도모된 것이었으나 당초에는 표면상 북한의 남침에 의한 내전의 성격을 띠었고, 이 침략에 대한 유엔의 집단안전보장 조치가 취해짐으로써 인민군 대(對) 유엔군의 전쟁으로 변모하였다. 이에 중공의 참전을 계기로 전쟁은 사실상 공산진영 대(對) 자유진영의 대결로 확정되었다. 1951년 6월까지 공산



전쟁으로 인하여 피난민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으며, 아이들은 DDT로 옷을 입은 채 소독하고 있다.

진영에서는 중공과 소련(공군)이 참전하고 그밖의 동구권 및 공산국가들이 의료 및 물자 지원을 한 반면, 자유진영에서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16개 유엔 회원국이 참전하였고 그밖의 여러 국가가 의료 및 물자 지원을 하였다. 남북한을 포함해 20개국의 전투부대가 충돌함으로써 전쟁은 국제적 전쟁의 양상으로 발전되어 ‘국지전쟁이나 세계대전이나’, ‘재래식 전쟁이나 핵전쟁이나’의 기로에서 아슬아슬하게 국지, 재래식 성격의 제한전쟁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쌍방은 냉전구조의 균형을 파괴할 수 없었고 결국 중공군 5차 공세를 끝으로 전쟁발발 1년 만에 격동하던 전선이 전전 현상과 유사한 38도선 부근에서 교착되었다. 정부도 중공군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하여 총력전을 폈으며 재분단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그 현상을 변경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후 전쟁은 휴전협상의 서막을 계기로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전쟁—교착된 전선에서의 열전과 휴전협상에서의 설전—이 소강과 재연을 되풀이하는 전쟁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 주 기 ▮▮▮▮▮▮▮▮

- 1) Kansas Line(캔사스선): 임진강하구-전곡-화천저수지-양양을 연하는 약 186km를 동서로 연결하는 선이다.
- 2) Wyoming Line(와이오밍선): 임진강하구-전곡-철원-김화-화천저수지로 연결되는 유엔군의 전진한계선이다.
- 3) James F. Schnabel, Robert J. Watson, *The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Joint Chiefs Staff: 197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美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상), 1990, p. 374.
- 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5권), 1972, p. 28.
- 5) 위의 책, p. 26.
- 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앞의 책, p. 378.
- 7) 위의 책, p. 379.
- 8)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Center of Military History U. S. Army, Washington, D. C., 1990, p. 490.
- 9) 정일권, 정일권 회고록, (서울: 광명출판사, 1996), pp. 398~399.
- 10) 軍事科學院 軍事歷史研究所 編著, 中國人民志願軍 抗美援朝戰史,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1988), 韓國戰略問題研究所(譯), 中共軍의 韓國戰爭史, (서울: 世經社, 1991), p. 160.
- 11) 위의 책, pp. 160~167.
- 12) 위의 책, p. 173.
- 13)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Center of Military History U. S. Army, Washington, D. C., 1990, 육군본부(역), 밀물과 썰물, 1992, p. 515.
- 14)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앞의 책, p. 152.
- 15) 위의 책, p. 153.
- 16)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515.

654 제 7 장 戰線의 回歸와 膠着

- 17)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p. 152.
- 18)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510.
- 19) 위의 책, p. 511.
- 20) Billy C. Mossman, 앞의 책, p. 465.
- 2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6권), 1973, p. 297.
- 22) 위의 책, p. 299.
- 23) 위의 책, p. 302.
- 24) UNC, GHQ, 'G-3 Operations Report', 24 May 1951.
- 2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0권), 1979, p. 271
- 26)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518.
- 27)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앞의 책, p. 157.
- 28) Billy C. Mossman, 앞의 책, p. 472.
- 2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6권), p. 339.
- 30)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519.
- 31) 위의 책, p. 525.
- 32) 육군본부, 육군전사(제6집), 1957, p. 62.
- 33)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526.
- 34) 위의 책, p. 527.
- 35)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앞의 책, pp. 158~159.
- 36) 정일권, 앞의 책, p. 63.
- 37) 국군 제2사단, 노도부대사, 1995, p. 182.
- 38) 위의 책, p. 184.
- 39) Billy C. Mossman, 앞의 책, p. 480.
- 40)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513.
- 41)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앞의 책, p. 156.
- 42)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532.
- 43) 위의 책, p. 534.
- 44) 백선엽, 군과 나, (서울: 대륙연구소, 1989), p. 192.
- 4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제23집), 1987, p. 185.
- 46) 위의 책, p. 231.



- 47) 앞의 책, p. 219.
- 4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6권), p. 279.
- 49) 위의 책, p. 286.
- 50)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534.
- 51) Billy C. Mossman, 앞의 책, p. 486.
- 52)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541.
- 53) 육군본부, 육군전사(제6권), p. 68.
- 5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6권), pp. 472~473.
- 55)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541.
- 56) 위의 책, p. 541.
- 57)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제23권), p. 446.
- 58) 위의 책, pp. 423~424.
- 5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6권), p. 449.
- 60) 위의 책, p. 450.
- 61) 위의 책, pp. 457~458.
- 62) 육군본부(역), 앞의 책, p. 541.
- 6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6권), p. 389.
- 64) 위의 책, pp. 390~391.
- 65) 위의 책, p. 425.
- 66) 위의 책, pp. 430~431.
- 67) 미해병사단은 자체 항공단을 편제상에 보유하고 있다. 이는 상륙작전 시 긴밀한 항공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 68) 위의 책, p. 435.
- 69) 위의 책, p. 621.
- 70) 국방군사연구소, 도솔산 전투, 1993, p. 99.
- 71) 위의 책, p. 133.
- 7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6권), p. 641.
- 73) 해병대사령부, 해병전투사(제1부), 1953, p. 101.
- 7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6권), p. 391.
- 75) 위의 책, p. 399.

656 제 7 장 戰線의 回歸와 膠着

76) 앞의 책, p. 405.

77) 위의 책, p. 418.

78)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제23권), p. 293

79) 위의 책, p. 407.

80) 육군본부, 육군전사(제6권), p. 113.

81) 국군수도사단, 맹호사, 1980, p. 208.

82) 외무부, 소련자료(4), p. 120.

## 附 錄

## 1. 年 表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0	10. 1	○스탈린, 모택동에게 중공군 파병 종용 ○김일성, 모택동에게 파병 요청. ○맥아더, 김일성에게 항복 요구. ○국군 제1군단, 38도선 돌파.
	10. 2	○유엔군사령부, 북진명령 하달. ○김일성, 인민군에 저항 명령 하달. ○소련 외상 비신스키, 한국 휴전안 유엔에 제의. ○모택동, 스탈린에게 파병결정 관련 전문 발송.
	10. 3	○주은래, 파니카를 통해 중공의 한국전쟁 개입의지 전달.
	10. 6	○국군 제2군단, 중부전선에서 북진 개시. ○인민군 제2군단, 철의 삼각지대에 제2전선 형성.
	10. 7	○유엔 총회, '10·7 통한 결의'
	10. 8	○중공군, 동북변방군을 인민지원군으로 개편 및 출병명령 하달. ○중공, 북한과 소련에 인민지원군 편성 및 파견 통보.
	10. 9	○유엔군사령관, 김일성에게 최후 통첩. ○유엔군 북진작전 개시.
	10. 10	○김일성, 인민군에 사수명령 하달. ○중소협상, 중공 출병에 따른 소련 공군지원 문제 협의.
	10. 12	○국군 제1군단, 원산 탈환 ○북한의 박일우 북경방문 및 파병 협조. ○주은래, 중소협상 결과 모택동에게 통보. ○모택동, 출병보류 명령 하달. ○유엔 소총회, 수복지역 군정방침 결의.
	10. 13	○중공, 소련 공군지원 없이 출병 재확인.
	10. 14	○모택동, 지원군 10월 19일 압록강 도하 명령.
	10. 15	○모택동, 지원군 선발대 10월 17일 압록강 도하 지시. ○트루먼-맥아더 웨이크도 회담.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0	10. 16	○중공군 선발대 압록강 도하. ○국군 제3군단 창설. ○이북지역에 비상계엄령 선포.
	10. 17	○중공, 지원군 본대 압록강 도하 재차 유보. ○국군 제1군단, 함흥-홍남 탈환.
	10. 18	○중공지원군 압록강 도하 재명령.
	10. 19	○중공지원군 본대 압록강 도하 개시. ○국군과 유엔군, 평양 탈환.
	10. 20	○미 제187공수연대, 숙천-순천 공수낙하. ○중공, 대유동에 지원군사령부 설치. ○김일성과 팽덕회 회담.
	10. 24	○유엔군 총공세(추수감사절 공세) 개시. ○맥아더, 미군 전진한계선 설정 철폐. ○국군 제2군단, 초산, 만포진을 목표로 공격 개시.
	10. 25	○중공군 1차 공세(10월 공세) 개시. ○중공군 한국전 참전 확인(국군 제1사단: 포로 획득). ○국군 제6사단, 온정리전투.
	10. 26	○중공군 본대 추가(제50군, 제66군) 압록강 도하 개시. ○국군 제6사단 제7연대 압록강변 초산 점령. ○미 제10군단 원산 상륙. ○국군 및 유엔군, 박천, 태천, 운산, 온정리, 희천, 이원까지 진격. ○국군 제2군단 중공군 대병력과 충돌.
	10. 29	○미 제7사단 이원 상륙.
	10. 30	○이승만 대통령 평양시찰 및 환영대회.
	11. 1	○미 제8군 청천강 남쪽으로 철수 개시. ○신의주 상공에서 유엔전투기와 중공전투기의 최초 공중전.
	11. 2	○미 제8군 청천강 남쪽으로 철수 결정. ○미 제1해병사단 제7연대, 수동에서 국군 제26연대 작전지역 인수.
	11. 3	○국군 제1사단 운산에서 안주로 이동, 군단예비. ○국군 제7사단, 비호산에서 중공군 1개 사단 격퇴.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0	11. 3	○미 제9군단 순천으로 이동, 서부전선 진출.
	11. 4	○영 제27여단, 박천에서 중공군 격퇴.
	11. 5	○수도사단, 길주 점령.
	11. 6	○유엔군사령관, 중공군 개입에 대한 비난 성명 발표. ○유엔군사령관, 압록강 철교 폭파 명령. ○제6사단 제7연대, 초산에서 개천으로 철수 완료.
	11. 7	○중공군, 전진선에서 1차 공세 종료. ○중공, 한국전에 참전사실 보도. ○중공 제9병단, 압록강 도하 개시.
	11. 8	○유엔공군, B-29로 한만국경선 교량 폭격 개시.
	11. 10	○미국 등 6개국, 안보리에 중공군 철퇴요구 결의안 제출.
	11. 12	○수도사단, 인민군과 어랑천에서 공방전
	11. 14	○미 제7해병연대 하갈우리 진출.
	11. 20	○이 대통령 함흥 시찰.
	11. 21	○미 제7사단 제17연대, 해산진 점령.
	11. 22	○미 제7사단 제32연대, 신갈파진 점령. ○국군 제3사단, 합수 점령.
	11. 24	○미 제8군, 최종공세(크리스마스 공세) 개시.
	11. 25	○서부전선의 국군과 유엔군 공격돈좌. ○중공군 2차 공세(11월 공세) 개시. ○수도사단, 청진 점령, ○미 제8군 청천강으로 철수 개시. ○국군 제3사단 백암 점령.
	11. 26	○미 제2사단, 구장동에서 중공군과 혼전. ○국군 제2군단, 주저항선 붕괴.
	11. 27	○미 제1해병사단, 장진호에서 무평리 공격 개시. ○국군 제2군단, 순천, 강동 일대에 집결.
	11. 28	○유엔군사령부 긴급 작전회의 개최, 평양, 함흥, 원산 철수 결정. ○터키 여단, 참전후 와원에서 중공군과 최초 전투. ○미 제2사단, 군우리전투 개시.
	11. 29	○제3사단 제26연대, 미 제17연대의 해산진 진지 인수.
	11. 30	○트루먼, 한국에서 경우에 따라 원자탄사용 고려 언급.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0	11. 30	○국군 제3연대, 군우리 남쪽 적 차단선 돌파 실패. ○미 제2사단, 군우리에서 중공군 포위망 강력돌파.
	12. 1	○국군 제1군단, 무산, 웅기로 진출중 철수 개시. ○미 제8군, 숙천-순천-성천 방어선 구축.
	12. 3	○미 제8군, 순안-성천 선에 평양 방어선 형성
	12. 4	○미·영 정상회담 개최. ○국군과 유엔군 평양철수.
	12. 5	○국군과 유엔군, 38도선으로의 철수작전 개시. ○미 제7사단, 해산진에서 신흥리로 철수 완료.
	12. 6	○콜린스 미 합참의장 한국 방문.
	12. 7	○정부, 전국에 비상계엄령 선포. ○한국 해군, 서해 연안에서 피난민 호송작전 개시.
	12. 8	○이 대통령, 미국에 한국군 50만 병력 무장요구. ○미·영 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의 평화적 해결 합의 ○유엔군사령부, 38도선으로 철수 결정
	12. 11	○이 대통령, 유엔에 중공 단죄 결정 요구. ○이 대통령, 서울사수 언명. ○미 제1해병사단, 유담리에서 흥남으로 철수 완료.
	12. 13	○유엔 정치위원회, 13개국 한국휴전안 가결. ○국군 제3군단사령부 양평으로 이동.
	12. 14	○국군 제1군단, 미 제10군단 원산·흥남에서 해상철수 개시. ○중공, 유엔의 휴전안 거부.
	12. 15	○미 제8군 38도선에 방어선 형성.
	12. 16	○미 국가비상사태 선포.
	12. 18	○국군 제1군단, 흥남에서 해상 철수하여 목호 상륙.
	12. 19	○팽덕회, 신정공세 준비명령 하달.
	12. 23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 전사. ○중공, 유엔 3인위원회의 협상 제의 거부.
	12. 24	○정부, 수도권 일원에 피난령 포고. ○국군, 유엔군 및 피난민 흥남에서 철수 완료.
	12. 25	○국군 제3사단, 흥천 부근에서 인민군과 공방전. ○국군 제9사단, 현리 일대에서 인민군과 공방전.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0	12. 26	○신임 미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 부임.
	12. 31	○중공군 신정공세 개시.
1951	1. 1	○제8군사령관, 미 제1, 제9군단의 서울 교두보선 점령 및 국군 제1, 제2, 제3군단의 C방어선 점령 지시.
	1. 2	○국군 제1, 제6사단 한강 남쪽으로 철수.
	1. 3	○정부, 부산으로 천도. ○국군과 유엔군 서울 남쪽으로 철수.
	1. 4	○서울 재실함.
	1. 5	○국군 제1, 제3군단, 원주-삼척 선으로 철수.
	1. 6	○국군 제1사단, 안양 부근에서 중공군과 교전. ○서부전선의 미 제1, 제9군단, 평택-장호원선 점령. ○미 제2사단, 원주 쟁탈전.
	1. 7	○국군과 유엔군, 충주-삼척 선에서 공산군 저지.
	1. 8	○중공군, 신정공세 종료.
	1. 9	○유재홍 소장 제3군단장 부임.
	1. 10	○국군 제2군단 해체.
	1. 14	○국군과 유엔군, 평택-삼척의 신방어선 구축.
	1. 15	○콜린스 및 반덴버거 한국 방문. ○미 제8군, 오산-수원 수색작전 전개.
	1. 17	○정부, 정전안 반대.
	1. 24	○아시아, 아랍 13개국, 한국 휴전안 제의.
	1. 25	○국군과 유엔군 한강 남쪽에서 위력 수색작전 개시.
	1. 26	○이 대통령, 한일 우호관계 희망. ○터키 여단 금장량리에서 격전.
	1. 30	○국군, 인민군 제2군단 격멸작전 종료.
	1. 31	○유엔총회, 한국전쟁 휴전제안 가결, 중공 거부.
	2. 1	○유엔총회, 중공을 침략자로 결의.
	2. 5	○이 대통령, 북진 중지설 반발. ○국군 제3군단과 미 제10군단, 홍천 포위공격 개시.
	2. 7	○수도사단, 강릉 및 대관령 확보. ○국군 해병대, 동해 도서 확보작전 개시.
	2. 10	○국군 제1사단, 한강변으로 진출.
	2. 11	○중공군 2월 공세 개시.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1	2. 12	○거창사건 발생.
	2. 12	○국군 제8사단 횡성에서 분산 철수. ○네덜란드 대대 횡성 방어작전.
	2. 13	○미 제10군단, 횡성 포기 원주-평창 방어. ○미 제2사단 제23연대, 지평리 고립방어.
	2. 18	○국군과 유엔군, 양평-원주 진출. ○제천선에서 중공군의 2월 공세 저지.
	2. 21	○국군과 유엔군, 양평-횡성-평창을 목표로 격멸작전 개시.
	2. 24	○미 제9군단장 무아 장군 헬기 사고로 전사.
	3. 6	○국군과 유엔군, 격멸작전 종료.
	3. 7	○국군과 유엔군, 전선 절단작전 개시.
	3. 12	○리지웨이, 38도선에서 휴전되면 유엔군의 승리라고 담 화 발표. ○국군과 유엔군, 알바니션 점령.
	3. 15	○서울 재탈환.
	3. 17	○미 제10군단, 전선 절단작전 완료.
	3. 22	○미 제1군단, 용진작전 개시.
	3. 23	○맥아더, 중공 지원군사령관과 현지 정전회담 제의.
	3. 24	○이 대통령, 한만국경선 진출 이전에는 휴전 반대 성명 발표.
	3. 27	○국군 제1군단, 양양 점령.
	3. 28	○제1군단장 김백일 소장 비행기 사고로 전사. ○국군 해병대, 서해도서 확보작전 개시.
	3. 31	○국군과 유엔군, 전선 절단작전 완료.
	4. 3	○국군과 유엔군, 요철작전 개시.
	4. 5	○국군과 유엔군, 문산-화천저수지-양양 선을 목표로 진격 개시.
	4. 6	○미 제1군단 캔사스선 진출.
	4. 11	○미 제1군단 및 제9군단, 불굴작전 개시.
	4. 12	○트루먼, 맥아더 원수를 해임, 리지웨이를 유엔군사령관 에 임명. ○미 제9군단, 캔사스선 진출.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1	4. 14	○유엔군, 철원 진격.
	4. 20	○미 제1군단과 제9군단, 유탄선 점령.
	4. 21	○미 제1군단과 제9군단, 와이오밍선 공격 개시.
	4. 22	○중공군 4월 공세 개시.
		○국군 제6사단 사창리전투 개시.
		○국군 제5사단 인제전투 개시.
		○벨기에 대대, 금굴산전투 개시.
		○영 제29여단, 설마리전투 개시.
		○터키 여단, 장승천전투 개시.
		○영 제27여단, 가평전투 개시.
	4. 23	○영 제27여단, 가평전투 개시.
	4. 25	○국군 제1사단, 영 제29여단 글로스터 대대원 40명 구출.
	4. 28	○미 제1군단, 서울북방 골든선 점령.
		○국군 제1사단 화전리전투 개시.
	4. 30	○국군과 유엔군, 적 4월 공세 저지, 김포-서울북방-금곡리-대포리선에 방어선 형성
	5. 4	○국군 및 유엔군 반격재개, 봉일천-춘천-인제-속초 북방선으로 진격 개시
	5. 7	○신성모 국방장관 퇴임, 이기붕 국방장관 취임.
		○국군 6개 사단 미조리선 공격 개시.
	5. 9	○국군 제9사단, 매봉 점령.
	5. 11	○국군 제1, 제3군단, 미조리선 공격 중지.
	5. 12	○국민방위군 설치법 폐지.
	5. 16	○중공군 5월 공세 개시.
	5. 17	○트루먼, 새 대한정책(NSC 48/5) 결정.
		○미 제2사단, 병커고지 전투.
	5. 18	○현리 지역 대돌파구 형성.
	5. 19	○국군 제6사단, 용문산전투 개시.
	5. 20	○국군과 유엔군, 토페카선을 목표로 공격 개시.
	5. 23	○국군 제1군단, 대관령 확보.
5. 24	○국군 제1사단, 임진강 진출.	
5. 26	○국군 제3군단 해체.	
5. 28	○미 제9군단, 캔사스선 점령.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1951	5. 29	○국군 제1군단, 간성 점령.
	6. 1	○유엔 사무총장, 38도선에서 휴전성명 발표. ○미 합참, 유엔군사령관에게 새로운 임무하달.
	6. 3	○미 제1군단, 말뚝박기 작전개시. ○국군 수도사단, 향로봉전투 개시.
	6. 8	○이 대통령, 38도선에서 휴전 반대 성명. ○미 국방장관 마샬, 미 제8군 방문. ○국군 제7사단, 군량현전투 개시.
	6. 9	○미 제9군단, 와이오밍선 좌반부 점령.
	6. 10	○정부, 부산에서 휴전반대 궐기 대회.
	6. 11	○미 제9군단, 와이오밍선 우반부 점령.
	6. 13	○국군 및 유엔군, 임진강하구-철원-김화-해안분지- 거진 북방에 방어선 형성.
	6. 17	○미 제10군단, 캔사스선 점령.
	6. 23	○이종찬 소장 육군총참모장 취임. ○말리크, 한국전쟁 휴전협상 제의
	6. 30	○이 대통령, 휴전협상 반대 성명 발표. ○리지웨이, 공산군 총사령관에게 휴전회담 제의.

## 2. 關係資料目錄

### (1) 文書資料

#### ■ 國內資料

- 陸軍本部, '定期情報報告', (1951. 2. 23~6. 30)  
陸軍本部, '定期作戰報告', (1951. 2. 6~6. 30)  
陸軍本部, '韓國戰爭史料', (戰鬥詳報 제41~제60권)  
陸軍本部, '韓國戰爭史料', (戰鬥命令 제62~제63권)  
國防部, '國防部特命綴', 1949~1950.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關聯 證言資料'.  
陸軍本部 軍史研究室, 「陸軍歷史日誌」(1), 1945-50.  
國會圖書館, '國際聯合 韓國委員會 報告書'(1949, 1950), 1965.  
유성철 증언, 한국일보, 1990.  
이상조 증언, 한국일보, 1989.  
프란체스카, '6·25와 李承晩大統領', 중앙일보, 1983.

#### ■ 北韓資料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70호(1950. 10. 14)  
북한군 제383부대 원산시 해안방어 전투계획.  
북한군 제105전차사단 참모부 전투명령 제5호.  
북한군 제15사단 상부명령서철.

#### ■ 國外資料

- United Nation Command, 'G-3 Operations Report', (1951. 1. 1~6. 30)  
GHQ Far East Command, 'Withdrawal of UN Forces from Korea', 1950. 12.6.  
GHQ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 1-51)', 1951.1.7.  
GHQ Far East Command, Order of Battle Information North Korea Army, 1950. 10.

-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1950.  
BG G.B. Barth, *TROPIC LIGHTNING AND TARO LEAF IN KOREA VOL.6*, Library Armed Forces Staff College, 1955.  
GHQ ATIS, Interrogation Reports, 1950-1951.  
HFEC G-2,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 1952*.  
8086th AU(AFFE) Military History Detachment, *Evacuation of Refugees and Civilians from Seoul, 1956*.  
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y Forces, Far East & Eighth U.S. Army(Rear),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San Francisco, 1954), Historical Manuscript File, call No. 8-5  
Foreign Service of The U.S.A., TIGER KIM VS. THE PRESS, 12 May 51.  
24th Div. Periodic Operations Report, 1950.  
25th Div. Periodic Operations Report, 1950.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 of the United States, 1943-1950*(U.S. G.P.O)  
War Department Intelligence Division, *Intelligence Review, 1946*.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Department of State Bulletin(1947.9. 28)  
State Department, *The Conflict in Korea*, US GPO, 1951.  
Military History Section HQ Far East Command, '*Chronology (1950.6.25~1951.12.31)*', 1967.  
미 극동군사령부 G-2, 북한군전투서열, 1952.  
미 극동군사령부 G-2, 중공군전투서열, 1952.  
國防軍史研究所, 韓國戰爭關聯 蘇聯資料, 1993.  
外務部, 韓國戰爭關聯 蘇聯極秘 外交文書(1-4권), 1994.  
國防軍史研究所, 소련 제64비행군단 전투활동 자료, 1996.

## (2) 單行本

### ■ 國內資料

- 國防部 政訓局, 「韓國戰亂1年誌」, 1951.  
國防部 法制委員會, 「國防關係法令集」(1), 1960.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제1권(구판), 1967.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제4권, 제5권, 제6권, 제10권, 제11권, 1971~1980.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 要約」, 1986.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國防部史」 1954.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國防史」 제1권, 제2권, 1984~1987.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國防條約集」 제1집, 1988.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對非正規戰史」, 1988.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長津湖戰鬪」, 1981.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龍門山戰鬪」, 1983.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清川江戰鬪」, 1985.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平壤奪還作戰」, 1986.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縣里戰鬪」, 1988.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臨津江戰鬪」, 1991.
- 國防軍史研究所, 「韓國戰爭」(上), 1995.
- 國防軍史研究所, 「兜率山戰鬪」, 1993.
- 國防軍史研究所, 「橫城戰鬪」, 1995.
- 國防軍史研究所, 「中共軍의 韓國戰爭」, 1994.
- 合同參謀本部, 「韓國戰史」, 1984.
- 陸軍本部 軍史監室, 「後方戰史」(軍需篇, 人事篇), 1953.
- 陸軍本部, 「陸軍發展史」(上), 1970
- 陸軍本部, 「6.25事變 陸軍戰史」 제4~제6권, 1956~1957.
- 陸軍本部, 「한국전쟁과 유격전」, 1994.
- 陸軍本部, 「한국전에서 유엔군 유격전」, 1988.
- 陸軍本部, 「學徒義勇軍」, 1994.
- 海軍本部, 「大韓民國 海軍史」 제1집, 제2집, 1954~1957.
- 空軍本部, 「空軍史」, 1953.
- 海兵隊司令部, 「海兵戰鬪史」 제1집, 1962.
- 國軍第1師團, 「전진역사」, 1966.
- 國軍第2師團, 「怒濤部隊史」, 1995.
- 國軍第3師團, 「백골사단역사」, 1980.
- 國軍第5師團, 「부대역사」 1969.
- 國軍第6師團, 「청성전사」, 1981.
- 國軍第7師團, 「칠성약사」, 1970.
- 國軍第8師團, 「오뚜기약사」 1969.

- 國軍第9師團, 「백마부대사」, 1982.
- 國軍第11師團, 「花郎部隊戰史」, 1986.
- 國軍首都師團, 「猛虎史」, 1980.
- 陸軍士官學校, 「韓國戰爭史」, 1988.
- 兵務廳, 「兵務行政史」(上), 1985.
- 國軍 保安司令部, 「對共30年史」, 1978.
- 戰爭紀念事業會, 「韓國戰爭史」 제4권, 제5권, 제6권, 1992.
- 外務部 外交研究院, 「韓國外交20年 附錄」, 1966.
- 外務部, 「韓國外交30年」, 1979.
- 內務部 治安局, 「警察戰史」, 1952.
- 文化公報部, 「實證資料로 본 韓國戰爭」, 1990.
- 公報處, 「大統領 李承晚博士 談話集」, 1953.
- 公報處, 「大韓民國統計要覽」, 1953.
- 大檢察搜查局, 「左翼實錄事件」(1-11권), 1956~1975.
- 韓國弘報協會, 「韓國動亂」, 1973.
- 以北5道, 「以北5道 30年史」, 1981.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民族大百科事典」, 1991.
- 共產圈問題研究所, 「北韓總鑑」(45-68), 1968.
- 陸士 第5期同期會, 「陸士 第五期生」, 1990.
- 陸士 第8期同期會, 「老兵들의 證言」, 1992.
- 陸軍綜合學校戰友會, 「陸軍綜合學校」, 1995.
- 中央日報, 「民族의 證言」 제1권, 제3권, 제4권, 제5권, 1985
- 서울新聞, 「駐韓 美軍30年」, 1979.
- 韓豹頃, 「한미외교요람기」, 중앙일보사, 1984.
- 韓國放送公社, 「다큐멘터리 韓國戰爭」(上), 1991.
- 朝鮮日報, 「이승만과 나라세우기」, 1995.
- 丁一權, 「戰爭과 休戰」, 서울: 동아일보사, 1985.
- 丁一權, 「丁一權 回顧錄」, 서울: 고려서적, 1996.
- 白善燁, 「軍과 나」, 서울: 대륙연구소, 1989.
- 李應俊, 「回顧 90年」(1890-1981), 1982.
- 朴慶錫, 「五星將軍 金弘壹」, 서울: 서문당, 1984.
- 姜聲才, 「참군인 이중찬 장군」, 서울: 동아일보사, 1988.
- 韓信, 「信念의 삶 속에서」, 서울: 명성출판사, 1994.
- 林富澤, 「압록강아 말해 나오」, 서울: 인물연구소, 1994.
- 車圭憲, 「전투」, 서울: 병학사, 1986.

- 李亨根, 「軍番1번의 외길 人生」, 서울: 중앙일보사, 1993.  
 朴定仁, 「풍운의 별」, 서울: 흥익출판사, 1994.  
 劉載興, 「激動의 歲月」, 서울: 을유문화사, 1994.  
 劉官鍾, 「韓國警察戰史」, 서울: 현대경찰문고, 1982.  
 南相瑄, 「學徒義勇軍」, 서울: 효성출판사, 1975.  
 羅鍾一, 「證言으로 본 韓國戰爭」, 서울: 예진출판사, 1991.  
 韓鎔源, 「創軍」, 서울: 박영사, 1985.  
 鄭一亨, 「유엔과 韓國問題」, 서울: 신명문화사, 1961.  
 金昌順, 「北韓 15年史」, 서울: 지문각, 1961.  
 張俊瀾, 「北韓人民軍隊史」, 서울: 서문당, 1991.  
 백골병단전사편찬위원회, 「白骨兵團 戰史」, 1993.  
 金漢喆, 「對北 유격대의 활약상」, 1991.

### ■ 北韓資料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4권, 제25권, 제26권,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허중호,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1), 사회과학출판사, 1983.  
 북한 인문과학사, 「김일성선집」 1, 평양: 인문과학사, 1967.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49~53년도, 조선중앙통신사, 1949~1954.

### ■ 國外資料

- James F. Schnabel · Robert J. Watson, *The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Joint Chiefs Staff: 197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美合同參謀本部史 韓國戰爭」(상)(하), 1990.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Center of Military History U. S. Army, Washington, D. C., 1990, 육군본부(역), 「밀물과 썰물」, 1992.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 The First Year*, OCMH, US Department of Army, 1972, 육군본부(역), 「정책과 지도」, 1974.  
 Roy E. Appleman, *Disaster in Korea*, Texas A & M University Press, 1989, 육군본부(역), 「한국전쟁의 서부전선」, 1995.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 C.:Government Printing Office,1961), 육군본부(역), 「낙동강에서 압록

- 강까지」, 1963.
-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Office of the Military History U. S. Army, Washington, D. C., 1988, 육군본부(역),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1968.
- Matthew B. Ridgway, *The Korea War*, New York: A Da Capo paperback, 1967.
- James A. Field Jr.,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1962, 해군본부(역), 「미해군 한국전 참전사」, 1985.
- Allen S. Whiting, *China Crosses The Yalu*,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6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中共軍 鴨綠江을 건너다」, 1989.
- The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Korean Conflict (1 November 1950— 30 June 1952)*, 1955, 공군본부(역), 「UN 공군사」(상), 1975.
-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TEST OF WAR : History of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U.S. G.P.O.:1988)*
-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KMAG in Peace and War*, CMH US ARMY, 1962.
- U.S. Marine Corps, *U.S. Marine Operations in Korea 1950—1953*, 1954—1972.
-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Department of the Air Force, 1983.
- Jerrold L. Schecter, *Khrushchev Remembers*, The Glasnost Tapes, by Little Brown and Company, 1990.
- Charles E. Heller and William A. Stofft, *America's First Battle(1776—1965)*
- Mark W. Clark, *From the Danube to the Yalu*,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4.
- James A. Huston, *The Sinews of War: Army Logistics 1775—1953*,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1966.
- Draft Field Manual, *The Logistical Command*, C & GSC, 1950.
- Tamara Moser Melia, *Damn the Torpedoes—A short History of U.S. Naval Mine Countermeasures(1777—1991)*, Naval Historical Center Department of the Navy, Washington, D. C., 1991.



- W. G. Robertson, *Counterattack on the Naktong 1950*(Combat Studies Institute Leavenworth Papers, 1985)
- U.S. 25th infantry Div., *The Tropic Lighting in Korea—25th Infantry Div.* (Georgia: Albert love Enterprises)
- Bradley J. Haldy, *Korean Service Corps—Past and present*, Army Logistian, 1987.
- James P. Finley, *The US Military Experience in Korea 1871—1982*, Hq. USFK/EUSA, 1983.
- Montross and Canzona, *Inchon—Seoul Operation(1950—1953)*, 1955.
- Sergei N. Goncharov · John W. Lewis · Xue Litai, *Uncertain Partner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1994.
- James I. Matray, *Historical Dictionary of the Korean War*, 1991.
- 當代中國叢書編輯部, 「抗美援朝戰爭」,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0.
- 楊鳳安 · 王天成, 「駕坭 朝鮮戰爭的人」, 中共中央黨出版部, 1993.
- 中共中央文獻研究室, 「建國以來 毛澤東 文稿」(第1, 第2冊), 1987~1988.
- 朴觀淑(譯), 「트루만 回顧錄」, 서울: 한림출판사, 1971.
- 정홍신(역), 「호루시초프 회고록」, 서울: 한림출판사, 1971.
- 韓國國際戰略問題研究所(譯), 「스탈린」, 서울: 세경사, 1993.
- 崔鍾起, 「국제연합군」, 서울: 한국국제관계연구소, 1972.
- 김재관(역), 「리지웨이 한국전쟁」, 서울: 정우사, 1984.
- 윤영무(역), 「중국인이 본 한국전쟁」, 서울: 한백사, 1991.
- 宋榮福, 「朝鮮人民軍의南侵と敗退」, ユリア評論社, 1979.
- 陸戰史研究普及會, 「朝鮮戰爭」(第1—10卷), 原書房, 昭和41.
- 佐佐木春隆, 「朝鮮戰爭」(上中下), 原書房, 昭和51.



□ 執 筆

戰史部長 蔡 漢 國

先任研究員 鄭 錫 均

先任研究員 孫 文 植

韓國戰爭(中)

---

---

1996年 12月 26日 印刷

1996年 12月 28日 發行

發行處 서울特別市 龍山區 龍山洞 1街 8番地  
國 防 軍 史 研 究 所

發行人 嚴 燮 駟

印刷處 서울印刷工業協同組合